장편사화

피묻은 청동단검

신구현
리규춘

금성청년출판사
주체95(2006)

책을 내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가진 인민이며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자랑스러운 첫 페지를 장식하였던 고조선의 마지막시기의 생활을 반영한 장편사화 《피묻은 청동단검》은 우리 나라의 력사를 깊이 리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편집부는 이번에 이미 출판되였던 장편사화 《피묻은 청동단검》을 일부 수정보충하여 다시 내보낸다.

우리 조선은 동방력사에서 가장 오랜 시기에 국가를 형성하고 동방의 강성국으로 5000여년간이나 년년이 자랑을 떨쳐왔다. 그 강성국의 첫 력사는 고조선시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고조선은 벌써 기원전 30세기초에 동방에서 가장 이른 국가로서 이름떨친 나라였다.

지금으로부터 5000여년전에 아사달(지금의 평양 강동지방)에서 환웅의 아들로 태여난 단군(박달임금)은 아사달에서 첫 노예국가를 세우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불렀다. 그때로부터 우리 민족의 자랑찬 력사가 시작되여 반만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면면히 이어온다.

고조선시기에는 청동문화의 발달과 함께 철기문화가 꽃피였다. 농업에서도 오곡을 재배하는 높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사방 수천리의 령토를 차지하고 강한 군사력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시위하였다.

그런데 고조선력사에 대한 자료들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외래침략자들의 강도적인 략탈과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하여 실종되여버리고 극히 적은 자료들만 남게 되였다. 작가들은 이런 어려운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고조선력사의 말기생활을 진지하게 파고들어 연구함으로써 많은 력사적인 사료들과 생활들을 찾아내게 되였다.

고조선말기의 력사에는 나라를 지켜 용감히 싸운 명장 성기, 장군 비

왕 장과 같은 애국적인 인물들과 니계상 참, 조선상 로인, 장군 왕협, 왕태자 장황 등과 같은 민족의 반역자들도 기록되여있다.

본 장편사화에서는 우리 민족의 첫 명장 성기, 외래침략자들의 침공으로 하여 나라가 위급하게 된 마지막순간까지도 투항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면서 고조선인민들의 싸움을 끝까지 조직지휘한 노예출신의 장군 우마 등을 취급했는가 하면 나라를 분렬시키려고 꾀하며 종당에는 놈들에게 투항변절하는 니계상 참, 아버지인 우거왕의 뜻을 저버리고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서 성기대장군을 살해하고 적들에게 투항변절까지 하는 왕태자 장황의 생활도 그렸다.

또한 노예주들의 착취와 전횡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여 사람으로서 사람의 값에 못가고 말하는 도구로 천대와 멸시만 받던 노예들이 드디여 착취와 억압에 항거하여 싸움의 길에 나서며 나라를 지켜 목숨바쳐 싸우는 모습도 보게 된다. 장편사화에 그려진 우마나 날파리, 소부루와 같은 인간들이 바로 그런 노예들의 대표자들이다.

장편사화는 나라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궁중에 대신으로까지 들어앉는 오랑캐의 녀간자(간첩), 오직 저 하나의 향락을 위하여 그와 결탁하여 반역행위를 하는 니계상 참 등 통치배들의 형상을 통하여 동방에서 그처럼 강대했던 나라로 명성을 떨치던 고조선이 어찌하여 종당에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하는 심각한 력사적교훈도 주고있다. 그리고 비록 고조선은 멸망하였으나 조선의 첫 시조 단군의 뜻을 이어 년년이 번성하여온 박달겨레의 지향과 기강은 끊을수도 말살할수도 없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편 집 부

차　　　례

제 1 장
고인돌밑의 인생들

피의 언덕 소스나

1

때는 기원전 124년 봄.

제비꽃이 피여나는 등판에서는 두 아이가 놀고있었다.

한 아이는 남색비단저고리에 붉은빛 바지를 입었고 또 한 아이는 알몸뚱이에 베천으로 살이나 겨우 가리웠다.

이제야 겨우 예닐곱살쯤 돼보이는 계집애들이였다.

멀지 않은 둔덕우에는 어느 옛날 조상들이 쌓아놓은 고인돌 하나가 이끼를 뒤집어쓴채 묵묵히 서있었다.

따뜻한 해빛이 두 아이를 쟁글쟁글 비쳐주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꽃냄새가 향긋이 코를 찌르고있었다.

《얘, 아사리, 이건 우리 할아버지야.》

남색저고리가 한뼘이나 겨우 될 썩은 나무토막 하나를 땅에 놓고 그 밑을 파헤쳤다.

《할아버진 죽었어. 그래서 묻어야 해.》

남색저고리는 아사리라 불리우는 애를 쳐다보며 방긋이 웃었다.

두 아이는 어찌나 고왔던지 마치 봄언덕에 피여난 두송이의 생신한 철쭉같았다.

《나리야, 그렇게 묻어놓으면 어떻게 숨쉬니?》

나무막대기인 《할아버지》가 땅속에 꼴깍 묻히자 아사리가 애처로운듯 얼굴을 찡그렸다.

《그래두 숨쉬겠지 뭐. 어른들 말이 할아버진 인제부터 땅속에서 산대. 그래서 재물이랑 노예들이랑 모두 데려간댔어. 어서 일루 바싹 다가와. 우리 할아버지 묻는 놀음을 하자.》

나리라 불리운 애가 졸라대자 아사리도 방실 웃으며 나리곁에 다가앉았다.

나리는 대노예주인 마웅가(참의 애비)의 손녀였고 아사리는 마웅가의 가내노예 하미지의 외딸이였다.

니계지방의 악착한 노예주였던 마웅가는 살만큼 다 산 늙다리였으나 그때까지도 기운이 왕성하여 자기가 직접 채찍을 들고 쇠골(쇠돌을 캐는곳)의 노예들을 부렸다. 마웅가의 가혹한 채찍밑에 기가 꺾이운 수많은 불쌍한 노예들이 맨 몸뚱이에 판자로 만든 나무통을 지고 쇠돌을 캐는 땅굴로 내몰리우군했다.

이 쇠골은 개발한지 겨우 3년밖에 안되였지만 쇠돌의 품위가 높고 잘 팔려서 마웅가를 일약 벼락부자로 만들어주었다.

처음에는 겉에 드러나있는 쇠돌을 캐여냈으나 땅속에 들어가면서 더 좋은 쇠돌이 나오자 아예 굴을 파고 땅속으로 노예들을 내몰았다.

원래 마웅가는 니계지방의 광활한 기름진 옥토로 노예들을 내몰아 보리, 밀, 수수, 기장, 벼들을 생산하는데 전력했으나 쇠골이 생겨나자 농사일은 아들 참에게 떠맡기고 자기는 쇠골에 틀고앉게 되였다.

쇠굴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 사고가 빈번해져 노예들이 무리로 목숨을 잃군하였다.

어느 하루도 노예들의 비참한 곡성이 멎을 날이 없었다.

마웅가는 죽어나오는 노예들을 처리하는 시간마저 아까와 굴앞에 세길이 넘는 구뎅이를 파놓고 죽은 노예들을 그속에 던져넣군하였다.

노예들은 언제나 살기가 번뜩이는 마웅가의 길쭉한 말상을 대할 때마다 먼발치에서도 치를 떨었으나 어쩔수 없는 처지들이였다. 그들중에는 전장터에서 붙잡혀온 포로노예들도 있었고 마웅가의 빚을 갚지 못했거나 《란동》을 부려 끌려온 채무노예, 형벌노예들도 있었다.

온종일 무자비한 고역에 내몰리우던 노예들은 밤이 깊어서야 통나무를 촘촘히 박아 감옥처럼 만들어놓은 우리안에 갇혀서 가내노예들이 가져다주는 주먹만한 보리나 수수밥덩이를 먹고 북데기를 깔아놓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자군하였다.

그들이 어찌나 고역에 시달렸던지 당시 노예들의 평균 수명은 스물네살을 넘기기 힘들었다.

노예들은 이 죽음의 악몽속에서 깨여나보려고 몸부림쳤다.

허나 그 방도가 무엇이였으랴!

오직 그들이 믿는것은 하늘뿐이였다.

노예들의 저녁식사가 끝나면 가내노예들이 물단지들을 들고와 나무살창안으로 돼지구유처럼 길게 놓여있는 나무통에다가 물을 부어주었다.

그러면 노예들은 물통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물을 떠먹거나 아예 개처럼 물통에 엎드려 물을 빨아먹었다. 그 다음 그들은 노예주의 눈을 피해 한줄로 길게 늘어서서 하늘에 합장을 하고 서서 주문을 외웠다.

그 주문은 인자하신 하늘님께서 자기들의 악마 마웅가에게 천벌을 내리고 자유롭게 해달라는 간청이였다. 그들은 그렇게 해를 두고 주문을 외우면 반드시 하늘님이 자기들의 의사를 헤아려 마웅가를 잡아가고 자기들은 자유로와지리라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있었다.

허나 마웅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있었고 날이 가면갈수록 더욱더 악착해지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날 청청하던 하늘에 검은 구름이 덮이더니 초봄의 이른 번

개가 번쩍이며 쇠골에 벼락이 떨어졌다.
검은 구름이 밀려가고 하늘이 창창하게 개였을 때 노예들은 믿기 어려운 광경앞에 그만 굳어져버리고말았다.
다른 사람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 높은 둔덕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악청을 뽑던 마웅가만이 새까만 숯덩이가 돼버렸던것이다.
《마웅가가 드디여 천벌을 받았다!》
통쾌한 소문이 봄시위마냥 여기저기로 짜하게 퍼져갔다.
하건만 마웅가는 저승으로 갔어도 노예들의 처지는 이전과 다를바 없었다.
마웅가의 아들 참이 애비를 대신하여 더욱더 기승을 부렸던것이다.
참이 주인으로 되여 제일 선참 벌려놓은 일은 죽은 애비의 무덤을 만드는 일이였다.
제 애비에 대한 효도에서가 아니라 제 애비처럼 천벌을 받을가 무서워서였다.
소스나언덕에는 2천여년전의 이끼푸른 고인돌들이 아득한 세월의 증견자인듯 세월의 광풍에 씻기우며 고달프게 서있었다.
마웅가는 생전에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늘 고인돌들을 숭상하며 그 밑에 엎드려 자기의 명복을 빌군했다.
세월의 풍상속에서도 지지 않고 우뚝 서있는 고인돌이 마치 자기 생의 영원한 구세주인듯이…
하루는 고인돌앞을 지나던 점쟁이가 고인돌앞에 엎드려 명복을 비는 마웅가를 보더니 심상찮은 기색으로 가던 길을 거슬러 국읍 나부루에 있는 마웅가의 집으로 찾아들었다.
집앞에서 점도록 서성거리고있는 점쟁이를 발견한 참이 불길한 생각이 들었던지 그를 환대해 맞아들이고 어째 발길이 무거운가고 기회를 보아 물었다.
그러자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집에서 머지 않아 상가가 날터인데 그때의 주검을 반드시 소스나언덕의 고인돌보다 더 큰 고인돌무덤속에 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 주인에게 천벌이 내려진다는것이였다.
참은 가슴이 섬찍했다. 더군다나 돌곽이나 나무상자 아니면 돌무덤을 쓰는 때이라 고대의 고인돌무덤을 쓴다는게 결코 헐치 않은 일이였다.
허나 자기의 생의 편안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것이래도 해낼 용단

이 있는 참이였다.

돈과 노예는 얼마든지 있겠다, 그까짓 령만 내리면 될것인데 그보다 더한것도 못하랴 하는 배짱이라 마웅가가 죽자 참은 애비의 주검을 고인돌속에 묻기 위한 거대한 일을 벌려놓고야말았던것이다. 그리하여 숱한 노예들을 내몰아 사방이 훤히 트인 소스나언덕에 드넓은 무덤터를 닦고 몇십리 떨어진 채석장으로부터 무덤에 쓸 큰 돌들을 날라오게 하였다.

이렇게 되여 소스나언덕우에 고인돌이 서던 때로부터 2천년이 지난 후에 노예들의 피땀으로 또하나의 고인돌을 세우는 피변이 벌어지고 있었다.

허나 철없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한갖 재미나는 소꿉놀이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다.

묘실모양으로 둥그런 웅뎅이를 파놓은 나리가 그 안에 나무토막을 묻고 풀대 하나를 주어다 토막토막 끊더니 나무토막주변에 빙 둘러 묻기 시작하는것이였다.

《그건 뭐야?》

아사리가 눈이 동그래서 물었다.

《이건 할아버지네 노예들이야. 울아버지 말이 할아버진 땅속에 들어가서두 궁궐같은 집에서 사신다고 했어. 노예들을 거느리구말이야.》

《그럼 나두 너의 할아버지랑 같이 궁궐에서 살수 있니?》

아사리의 두눈이 더욱 올롱해진다.

나리는 《할아버지》며 《노예》들우에 흙을 덮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렇잖구, 울할아버지 따라가면 먹을거랑 입을거랑 많이많이 준다.》

《아이, 좋아. 그럼 나두 너네 할아버지 따라 함께 갈래.》

아사리가 즐겁게 손벽을 치며 환성을 질렀다.

《좋아, 우리 할아버지 묻는데 가볼가?》

《응.》

두 아이는 다정히 손목잡고 소스나언덕을 향해 깡충깡충 달음질쳐 갔다.

멀리 아지랑이 가물거리는 언덕우에서 사람들이 개미무리처럼 와글거리는 모양이 한눈에 안겨왔다.

《잘 안보여. 가까이 가서 보자.》

아사리가 나리의 손을 잡아끌었다.

《그래.》

무덤터가 가까와지자 여기저기서 큰 돌들을 나르느라 악악거리는 노예들의 웨침소리며 돌을 다듬는 마치소리로 하여 언덕은 금시 떠나갈것만 같았다.

《저기 우리 아바가 있다.》

나리가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한쪽 둔덕을 가리켰다.

노예주 참이 감노(노예감독)들을 모아놓고 눈을 부라리며 닥달질해대는 모양이 보였다.

《아사리, 우리 아바한테 가자.》

얼굴이 온통 밝아진 나리가 아사리의 손을 끌었다.

하지만 아사리는 웬일인지 주춤거렸다.

《난 안갈래, 무서워.》

나리의 줌에서 손을 뺀 아사리가 몸을 옹송그리며 울상을 했다.

《일없어. 내가 아바한테 너하구 친한 사이라고 말하믄 돼, 울아바가 너한테 맛있는거 줄수 있어.》

공포에 질렸던 아사리의 얼굴에 해사한 웃음이 떠올랐다.

《어서 가자.》

아사리는 나리의 손에 이끌리여 발볌발볌 걸음을 옮겨놓았다.

《아바—》

나리가 소리쳐불렀다. 감노들을 닥달질하던 참은 뜻밖의 소리에 어리둥절해서 눈길을 돌렸다. 달려오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참의 두눈이 대번에 퀭해졌다.

뜻밖에도 웬 노예계집애와 손을 잡고 딸애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것이 아닌가!

《아바—》

나리는 두팔을 벌리고 다람쥐처럼 빠르르 참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참의 팔에 매달리려는 순간 나리는 흠칫 몸을 떨며 그 자리에 굳어져버리고말았다. 참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여 무섭게 이그러져있었던것이다.

뒤따라오던 아사리도 오똑하니 굳어져버렸다.

《너 누구하구 밀려다니는거냐?》

참의 입에서 튀여나온 물음이였다. 나리는 영문을 몰라 빠금히 참을

올려다보기만 했다.
아사리가 주저주저하며 뒤걸음쳤다.
이때 참의 앞에 서있는 감노들중에 가슴을 조이며 아사리를 바라보는 나이에 비해 남달리 체격이 큰 감노 하나가 있었다.
그가 바로 소년감노 우마였고 뒤걸음치는 아사리는 우마의 동생이였다.
우마는 겨우 열세살의 소년이였지만 체격이 장정들처럼 남달리 거쿨지고 힘 또한 장정들보다 몇갑절 세서 참이 우마를 자기의 감노로 두었던것이다.
그런데 오늘 철없는 동생이 참에게 걸려들어 곤욕을 겪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뜩했다.
《대답하지 못할고?》
참이 무섭게 가죽채찍을 쳐들었다.
나리는 자기도모르게 흠칫 몸을 떨며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아사리는 내 친구이와요. 나와 친하오이다.》
《뭐이라구? 짐승하고 친하다구. 이 무슨 망측한 피변인고?》
그 소리에 뒤걸음치던 나리가 우뚝 걸음을 멈추고 야속하게 참을 바라보았다.
《이앤 짐승이 아니와요. 아사리오이다.》
《짐승이 아니라고? 내 너에게 단단히 버릇을 가르칠테니 봐라. 게 우마 없느뇨?》
니계상 참이 사납게 눈알을 희번뜩이며 사위를 둘러보았다.
방금 있던 우마가 보이지 않았다.
우마는 이제 동생에게 가해질 참변을 차마 볼수 없어 자리를 피했던것이다.
《성기는 어디 갔느뇨?》
참은 분기를 참지 못해 악을 썼다.
《여기 있소이다.》
긴 창을 든 가병장 성기는 참앞에 달려와 머리를 숙이고 섰다.
《빨리 우마를 찾아오라!》
《알았소이다.》
성기는 일하고있는 노예들속으로 달려갔다.
좀 있어 머리를 박박 깎고 얼굴이 강마르기는 했으나 뼈대가 굵어 든

든한 떡바위처럼 보이는 우마가 달려와 참앞에 엎드렸다.

《넌 개구리처럼 엎드려 뭘하는거냐. 빨리 막대기를 가져다 저 아이와 새끼짐승을 되우 치지 못할고?》

우마는 깜짝 놀라 몸을 반쯤 일으킨채 참을 바라보았다. 아사리는 친다손쳐도 참의 딸 나리는 어쩐단말인가?

《빨리 들지 못할가? 사정을 두지 말지어다.》

참이 발을 구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참은 분이 삭지 않아 쥐꼬리수염과 뾰족턱을 흔들거렸다.

우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에 막대기를 집어들었다.

가병들이 두 아이를 끌어다 바지를 홀랑 벗기고 우마옆에 엎어놓았다.

《자, 쳐라!》

눈에 달이 오른 참이 호령했다.

《철썩—》몽둥이가 홀렁 까진 아사리의 애된 엉뎅이에 떨어졌다. 순간 흠칫 몸을 떤 아사리가 놀라운 눈길을 들어 얼나간듯이 오라비를 바라보았다.

인생을 알기전부터 멸시와 천대의 뼈저림을 먼저 알아야 하는 어린 동생이 너무도 애처로와 흠집 하나 생길세라 늘 품안아 쓰다듬던 오라비가 오늘은 웬일이란 말인가!

이찰나에 참의 호령이 또다시 떨어졌다.

《이놈, 어째 나리는 치지 않는고. 짐승의 때가 묻은 잡놈이라 사정보지 말고 되우 칠지어다.》

허공에 들리운 막대기가 부르르 떨었다.

철썩! 막대기가 나리의 엉뎅이에도 떨어졌다.

나리는 숨이 넘어갈듯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다.

《아바, 때리지 말아. 아바, 내 다시 놀지 않을게… 아바.》

두 아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댔다.

우마는 높이 들었던 막대기를 힘없이 떨구었다.

《에익, 저리 비끼지 못할가, 등신같은놈.》

성이 독같이 난 참이 우마를 밀어버리고 채찍을 높이 추켜들었다.

딱! 처절썩— 대번에 아사리의 잔등과 어깨로 구렝이같은 채찍자국이 지나가고 선홍빛의 진한 피가 물에 빠진 참새새끼처럼 오도도 떠는 온몸을 서서히 적시였다.

허나 채찍은 아사리와 나리에게 사정없이 떨어졌다.

나리는 벌써 기절한듯 나떨어지고 아사리는 너무 급해 흙을 한입 물고 고사리같은 손끝으로 흙바닥을 박박 긁어댔다.
그래도 야수 참의 채찍은 피에 젖은 두 어린것의 몸뚱이우에서 휘파람소리를 질렀다.
어린 자작나무를 움켜쥔 우마는 고통을 참지 못해 나무가지와 잎새들을 찢으며 몸부림쳤다. 그 몸부림의 피자욱인듯 자작나무밑에는 갈가리 짓뭉개진 피묻은 가지와 잎새들이 무드기 쌓여있었다.
매질을 끝낸 참이 성기를 찾았다.
《나리를 가마에 태워 정히 모시도록 하라!》
참은 아직도 숨이 내려가지 않아 헐떡거리며 성기에게 령했다.
곧 차일을 친 화려한 마교차 한채가 들이닥쳤다.
참은 피투성이가 된 나리가 마교차에 실려지는것을 보고야 자리를 떴다.
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우마는 아사리에게 달려갔다.
온몸이 피에 젖은 아사리는 땅바닥에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정신차려, 아사리야. 죽으면 안된다. 죽지 말아. 얘야.》
우마는 얼이 나가 아사리를 잡아흔들었다. 우마의 친구들인 구두막과 날승도 달려와 안타까이 아사리를 흔들었다. 그래도 아사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었다.
우마는 우들우들 떨리는 손으로 아사리를 안아올렸다.
《오랍이다. 어서 정신을 차리거라.》
우마는 반정신이 나가 아사리를 껴안고 일어나 어미가 요람속의 아기를 얼리듯 흔들어주었다. 그러면 아사리가 정신이 깨여 방긋이 웃기라도 할듯…
성기는 끝내 얼굴을 돌려버렸다.
오누이가 너무도 애처로와 차마 온전한 정신으로는 볼수가 없었던것이다.
아사리를 안은 우마는 향방도 없이 허청거리며 발걸음을 옮겨갔다.
눈앞이 뽀얗게 흐려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분하고 억울한 설음만이 가득차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우마는 싸늘하게 식어든 아사리의 뺨에 얼굴을 대였다. 자기 온기를 깡그리 뽑아 부어주고싶었다.
무엇인가 부드러운것이 우마의 얼굴을 쓸어만졌다.

겨우 눈을 뜬 아사리는 자기의 아픔을 잊어버린듯 오랍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준다.

《오라비, 나 아프지 않아. 어마한테 가자.》

아사리는 피에 젖은 입술을 씰룩이며 웃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때에야 정신이 든 우마는 아사리가 깨여난것을 보고 너무 기뻐 애처로운것을 품에 꽉 껴안았다.

《그래, 가자. 집에 가면 어마가 우릴 기다릴게다.》

우마는 아사리를 둘쳐업으며 헉— 설음을 터치고야말았다.

《오라비, 우지 마. 나 좋은데 가. 나 나리 할아버지와 같이 산댔어. 땅속에 들어가 산대.》

《너 그게 무슨 소리냐?》

깜짝 놀란 우마가 그 자리에 목석처럼 굳어졌다. 가슴이 철렁하며 얼음장같은 서리발이 가슴을 썰고 지나갔다.

묘실이 끝나면 마웅가의 묘에 노예들이 산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철없는것도 그 제물로 된다는 소리다.

그런데도 이 어린것은 그 무슨 들놀이에 가듯 즐겁게만 생각한다.

우마는 너무도 절통해 고개를 꺾으며 헉헉 울음을 터쳤다.

허나 어찌하랴. 노예주의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이 노예의 신세!

이것이 우리 노예들의 숙명이 아닌가.

이때 우마의 눈앞에 번개불이 번쩍 일며 정신이 핑 돌았다.

뒤이어 아사리의 비명같은 울음이 터졌다.

재차 뜨거운것이 얼굴을 휘감으며 피가 터질 때에야 자기뒤에 노예주 참이 채찍을 들고 서있는것을 알았다.

《그 짐승을 어디로 가져가는것이뇨? 그건 살이 붙은 마귀노라.》

참이 성기를 불렀다.

《빨리 날승과 구두막을 시켜 살이 붙은 저 마귀를 산속깊이 버려 재앙을 막게 하라.》

《알았소이다.》

꺼져가는 성기의 대답소리가 울렸다.

뒤이어 날승과 구두막이 끌려오다싶이 나타났다.

《저 짐승새끼를 산속으로 끌고가거라. 성기가 따라갔다와야겠노라.》

《알겠소이다.》

성기는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빨리 령을 행하여라.》
참이 불같이 독촉했다.
날승과 구두막이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피덩이를 우마의 품에서 앗아내여 날승은 아사리의 두손을 잡고 구두막은 두다리를 잡아든채 독뱀과 맹수들이 욱실거리는 산속으로 들어갔다.
구원을 청하는 아사리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갔다.

2

마웅가의 고인돌묘자리가 자리잡은 소스나언덕까지 20리나 떨어진 오구산 중턱에서 3만관(약 90톤)이나 나가는 큰 돌을 캐내여 날라오는 일은 그야말로 큰 역사였다.
산속에서 해빛을 받지 않은 크고 정한 돌을 골라캐여서는 그것을 열아홉대의 큰 나무굴대우에 올려세운다. 굴대앞에서 무려 7백의 노예들이 나무를 찍고 바위를 쳐서 평탄한 길을 내여 앞으로 나가면 그뒤로 6백의 노예들이 굴대우에 놓인 돌을 밀고 끌며 따라왔다.
돌을 끄는 노예들은 힘을 합치느라고 선창자의 소리에 맞추어 합창을 하는데 그 요란하고 우람찬 웨침은 좌우 산줄기를 들썩들썩 들었다놓는것만 같았다.
돌이 앞으로 밀리여 굴대들이 드러나면 장사처럼 힘꼴이나 쓰는 노예들이 그것을 메고 돌앞으로 나가 땅에 깔았다. 육중한 돌은 마치 언덕이 밀려가듯 움씰움씰 앞으로 나갔다.
이 고된 전진은 낮에 밤을 이어 계속되였다.
밤이 되면 불군들이 불망치를 만들어 앞길을 밝혔다.
30여일만에 고인돌이 소스나언덕에 이르렀다.
고인돌이 도착하자 고인돌무덤터는 더욱더 바빠졌다. 항시 1천여명의 노예들이 욱실거리는 언덕은 마치 불개미둥지를 헐어놓은듯했다. 사람의 두길도 넘는 큰 판돌 4개를 아귀맞춰 세워놓고 그 우에 고인돌을 올려놓기 위한 흙쌓기가 한창이였다.
노예들은 판돌높이까지 흙을 밋밋이 쌓아놓고 그 경사면을 따라 고인돌을 밀어올려야 했다.

고인돌에도 꿀묻은 바가지에 개미들이 달라붙듯이 석수노예들이 다닥다닥하게 붙어 돌을 쪼아내고있었다.
판돌우에 올라가기전에 고인돌뚜껑을 거부기모양으로 쪼아내야 하는것이다.
채찍을 꼬나든 참은 고인돌 쫏는 일이 빨리 진척되지 않는다고 악을 쓰며 노예감노들을 들볶아댔다.
노예주들은 신용이 있고 손탁이 센 노예들을 골라 감노로 만들었다.
감노들은 노예주들을 대신하여 노예들을 감시하고 고역에로 내몰았다.
고인돌무덤터에만도 50명이 넘는 노예감노들이 있어 어디서나 날카로운 감시의 눈길을 밝히고있었다.
노예감노들인 날승과 구두막은 참의 눈길을 피해 아사리가 숨어있는 숲속으로 가군했다.
참의 호령으로 아사리가 산속깊이 버려지는 날 날승과 구두막은 따라온 성기 가병장의 눈길을 피해 아사리의 거처지를 만들어주었다.
사람들의 눈에 띠우지 않는 벼랑밑에 초막을 짓고 그안에 두툼하게 락엽도 깔아 습기와 찬 기운이 스며오르지 못하게 했다.
맹수들의 피해도 받지 않게 초막의 문까지 든든하게 만들어주었다.
노예감노들인지라 일반 노예들보다 덜 통제를 받는 날승과 구두막이 우마를 도와 번갈아 산속에 들어와 아사리를 보살펴주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아사리의 상처들도 아물어가고 얼굴에는 한줄기의 생기가 피여올랐다.
숲속으로 따뜻한 해빛이 쟁글쟁글 비칠 때면 하루종일 초막속에 박혀있던 아사리가 초막밖으로 나와 나무잎을 뜯어놓고 소꿉놀이를 했다.
그러던 어느날 소꿉놀이에 정신이 없는 아사리앞에 투박한 신발이 막아섰다.
오랍이 온줄 알고 기쁨에 넘쳐 머리를 든 아사리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언제나 무서운 공포심을 가지고 대하던 참의 가병장이 내려다보고있지 않는가!
아사리는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초막안으로 달려들어갔다. 틀림없이 가병장이 자기를 잡으러 올것이다. 초막안에 뛰여든 아사리는 너무도 분하고 슬퍼서 풀더미에 얼굴을 박고 구슬프게 흐느껴울었다.
아사리가 좋아하는 빨간 산딸기를 나무잎에 따들고 나는듯이 초막으로

달려오던 우마가 당황하여 우뚝 그자리에 굳어져버리고말았다.
아사리의 초막앞에는 뜻밖에도 가병장 성기가 버티고 서있지 않는가!
우마의 뒤를 따르던 날승과 구두막도 그자리에 얼어붙고말았다.
이제는 모든것이 끝장이라는 절망감이 세 사람의 가슴을 얼음장처럼 써늘하게 휩쌌다.
이제 이 일이 참에게 알려지면 아사리는 물론 날승, 구두막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것이다.
가병장 성기는 빙긋이 웃으며 굳어져버린 세 사람앞으로 다가왔다.
《여긴 나 혼자밖에 온 사람이 없으니 안심하게.》
가병장의 너무도 뜻밖의 말에 세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래일 마웅가의 장례식이 있는데 제물로 아사리가 뽑혔어. 산속의 아사리가 죽었으면 그 뼈라도 가져오라는 주인의 분부가 있었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우마는 대번에 입술이 새파랗게 얼어들었다.
날승과 구두막도 어쩔줄 모르고 굳어져버렸다.
《허나 그 어린것을 어떻게 땅속에 묻겠나. 어서 아사리를 멀리 빼돌리게. 내가 맹수의 피해를 받아 뼈도 남지 않았다고 여쭙겠으니…》
성기의 말에 우마와 그의 친구들은 무너지듯 땅에 꿇어앉아 손을 맞잡았다.
《하늘님같이 은혜로운분이시여! 그 은정 땅이 꺼져도 잊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여 아사리는 살아났고 나부루 국읍에서 영영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우마는 집의 가보로 귀중히 보관했던 청동거울을 갈라 그 한쪽을 아사리에게 주어 나부루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먼곳으로 보냈던것이다.
그로부터 며칠후 소스나언덕에서는 마웅가의 장례식이 요란하게 진행되였다.
큰 사니들의 관할하에 다 썩어 해골만 남은 마웅가의 시체가 울긋불긋한 상여에 담겨 마차에 실려졌다.
그동안 인가가 없는 깊은 숲속에 시체를 놓아둘 상여집을 짓고 그안에 시체를 넣었다. 다음 고인돌무덤이 다 될동안 둬두는데 가병들이 인적없는 산속에서 그 무시무시한 상여집을 지켰다.
마웅가의 시체가 이 소스나언덕에 도착하자 시체를 돌곽안에 넣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멀리서 날라온 돌을 네모지게 다듬어쌓은 돌곽안에 마웅가의 시체가 놓여지자 주인네 집안떨거지들이 애고대고 곡을 하고 넋두리를 해댔다.
한쪽에서는 울긋불긋한 색동옷을 떨쳐입고 괴상한 치레거리들로 단장한 사니(무당)가 왼손에는 팔수형청동방울을, 오른손에는 장도칼을 빼여들고 미친듯이 춤을 추고있었다.
수많은 노예들이 무릎을 꺾고 무덤앞에 엎드려있었다. 그들의 주위로는 창검이며 도끼를 치켜든 가병들이 눈알을 부라리며 빙 둘러서있었다.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노예들의 머리우로 사니의 푸념소리가 무시무시하게 굴러갔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삼신이시여! 마웅가의 혼신을 받아주사이다. 구천에 높이 닿아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해주사이다.》
한동안 청동방울을 절렁거리며 빙그르르 돌기도 하고 온몸을 뒤틀며 괴상한 소리를 지르기도 하던 사니는 별안간 돌개바람을 일구며 노예들이 있는쪽으로 달려갔다.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있던 노예들이 사시나무 떨듯하며 목을 움츠렸다.
사니는 얼혼이 나간 노예들의 머리우에 왈랑절랑 방울을 흔들어대며 한바탕 분주탕을 일구더니 어느 한곳에 이르자 우뚝 굳어져버렸다.
그리고는 부릅뜬 눈으로 한무리의 노예들을 노려보다가 시퍼런 칼을 들어 원을 그려보이는것이였다. 주인과 함께 순장당하는 노예들을 가리키는것이였다. 그러자 대기하고있던 가병들이 달려들어 사니가 가리켜보인 노예들을 마구 끌어내기 시작하였다. 비명과 울부짖음이 터져오르는 가운데 삽시에 무덤앞은 아비규환의 도살장으로 변하였다. 어미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며 우는 어린것이 있는가 하면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온 갈비뼈만 앙상한 늙은이도 있었다. 항거하는 노예의 머리우에는 영낙없이 모난 박달망치의 세례가 안겨지군하였다.
그럴 때면 선지피가 튀고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다.
한쪽에서는 순장당할 노예를 지목하는 사니들의 발광춤과 주문이 계속되였다.
수십명의 노예들이 뽑혀나와 휑하니 넓어진 공간으로 뛰여든 큰 사니가 방울과 칼을 절렁거리며 돌아가다가 갑자기 괴상하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질러대는바람에 노예 몇명이 깜짝 놀라 향방없이 내뛰기 시작

했다. 그바람에 덩달아 놀란 수십명의 노예들이 와르르 그쪽으로 휩쓸려갔다.

무덤앞은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여버렸다.

바빠난건 사니들이였다.

큰 사니가 얼굴에 살기찬 표정을 짓더니 무서운 주문을 외워대기 시작하였다.

《거룩하신 하늘의 삼신이시여! 하늘님을 속인 죄 막심하오니 악마들을 불태워 부정을 씻게 할지어라.》

귀를 기울여 주문을 듣던 참이 가병들을 내몰았다. 가병들이 내빼는 노예들을 따라가 박달나무방망이로 사정없이 짓조겨 피터지고 기절한 노예들을 통나무기둥을 박고 쌓아놓은 장작더미로 끌고 올라갔다.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노예들을 통나무기둥에 칡으로 겹겹이 동여맨 가병들이 장작더미밑에 불을 달았다.

장작더미는 순식간에 하늘높이 불길을 치솟구며 타올랐다. 시커먼 연기와 검붉은 불길이 아우성치는 노예들의 맨 몸뚱이를 일순간에 휩쓸어버렸다.

하늘중천에 솟구치는 불길속에서 아비규환의 비명과 웨침이 들려오다가 잠잠해졌다. 기세충천하게 타오르는 불길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노을처럼 소스나의 하늘을 검붉게 물들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마웅가의 시체와 함께 땅속에 묻혀질 순장노예들이 선정되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가병들은 큰 사니의 주문에 따라 마웅가의 묘실주위에 만들어놓은 80여개가 넘는 크고작은 돌곽구뎅이에 죽은 노예들을 처넣기 시작하였다.

재만 남은 재터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노예들의 시체들을 끌어다 돌곽속에 장작개비 던지듯이 되는대로 쌓아놓았다. 길이가 길어 넣지 못할 시체는 나무꺾듯이 허리를 꺾어 돌곽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돌곽구뎅이수의 절반쯤 되게 시체들을 채웠다. 산 노예들의 순장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다.

빙 둘러선 가병들의 창끝에 밀리여 순장당할 노예들이 끌려나왔다. 서로 갈라진 혈육들이 찾고 부르는 비통한 웨침이 소스나언덕을 뒤흔들었다.

이윽고 산 노예들의 순장이 시작되였다.

사니들의 푸닥거리가 끝나자 가병들이 마웅가의 묘실주위에 널려있는 빈 돌곽에 노예들을 밀어넣기 시작하였다.
못들어가겠다고 사정하는 노예들은 창검으로 등을 떠밀었고 그래도 항거하는 노예들은 아예 허궁 들어 사정없이 묘실속에 던져넣었다. 간혹 힘을 다해 구뎅이에서 기여나오는 노예가 있으면 박달방망이로 내리쳐 다시금 처넣었다.
드디여 그우에 흙을 덮기 시작하였다.
곡성은 절정에 이르러 소스나의 하늘을 무시무시하게 뒤흔들었다.
흙에 절반쯤 묻힌 늙은 내외가 쏟아지는 흙발속에서 손을 허우적이며 누군가를 애타게 찾았다.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우마가 가병들의 창검의 숲을 헤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었다.
《우마야-》
이제는 가슴노리까지 흙에 묻힌 늙은 내외가 마지막힘을 다해 아들을 불렀다.
《아버지- 어머니-》
우마가 몸부림치며 부모들이 묻히는 구뎅이로 뛰여들려 했다.
우악스러운 가병들의 손아귀가 우마의 두팔과 목덜미를 걷어쥐였다.
《이걸 놓아라.》
욱- 하고 힘을 쓴 우마가 가병들의 손아귀에서 빠져 어느새 무덤구뎅이로 빠져들었다.
사니들이 서리발을 날리며 부정 탄다고 칼과 방울을 흔들며 미친듯이 돌아갔다.
공포에 질린 참이 어서 우마를 구뎅이에서 끌어내라고 부들부들 떨며 가병들을 몰아댔다.
가병들이 뛰여들어 우마의 머리와 어깨우에 박달망치를 사정없이 안기였다.
《이놈들아, 나를 그냥 둬라. 나는 부모님들과 땅속에 묻힐테다.》
머리에 피가 랑자한 우마가 마지막힘을 모아 부르짖었다.
허나 사니의 지명을 받지 못한 우마는 끝내 무덤밖으로 끌려나오고 말았다.
비명소리, 아우성소리, 갓난아이의 자지러진 울음소리가 뒤엉켜 울리는속에 흙은 점점 높이 차올랐다. 구뎅이에 묻힌 노예들은 흙을 허

비며 마지막 구원을 청하다가 하나둘 숨져갔다.

구천에 메아리치던 그들의 울부짖음도 흙속에 묻혀 점차 잦아들다가 나중에는 사라져버리고말았다.

사위는 조용해졌다. 언덕을 스쳐가는 바람소리가 괴이한 호곡소리마냥 우— 우— 들려왔다.

순장이 끝난것이다. 이제는 고인돌만 올려놓으면 된다.

노예들이 개미새끼처럼 고인돌뚜껑에 달라붙어 흙언덕으로 끌고 밀어서 고인돌뚜껑을 마웅가의 돌곽우에 올려놓았다.

육중한 거북형태의 고인돌이 제 자리에 올라서자 돌곽옆에 뚜껑을 끌어올리려고 쌓아놓았던 흙들을 수백명의 노예들이 달라붙어 개미떼가 먹이를 날라가듯 운반해다 버리였다.

소스나언덕에는 육중한 고인돌무덤이 우뚝 솟았다.

세월이 흐르면 저 돌우에 이끼가 덮일것이며 주위에는 풀이 덮이고 들꽃이 만발할것이다. 하건만 그속에 스민 노예들의 원한과 다하지 못한 하소연을 그때에 가서 헤아릴 이 과연 몇이나 되랴!

3

졸지에 우마는 홑몸이 되여버렸다.

홑몸은 노예들의 일반관례였으나 우마의 아버지는 청동기를 만드는 기능노예여서 다행히 가족을 가질수 있어 자손들도 두게 되였다.

그 덕에 태여난 우마였지만 졸지에 온 가족을 잃고나니 겨우 명줄을 붙이고 살아온 세상마저 캄캄해졌다.

태여난 천성이 힘장사고 골격이 우람차서 도저히 나어린 소년같지 않은 그의 체모가 죄가 되여 우마는 또다시 참의 구리터로 끌려가게 되였다.

어떻게 하면 노예들의 육신에서 더 많은 진물을 짜내여 재물을 늘궈볼가 하는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살아가는 참에게는 우마의 출중한 체격과 힘이 오직 재물을 마련하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참은 나부루에서 제일가는 쇠골과 쇠부리터(철제품을 만드는곳)를 가지고있는 대노예주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소스나골안에 새로 나타난 구리터를 차지하고 놋부리터를 크게 꾸려 황금벼락을 맞

고있었다.
소스나의 구리터, 놋부리터는 나날이 흥성하여 잠간사이에 고조선에서 손꼽히는 구리터, 놋부리터로 유명해졌다.
당시는 한창 철기문화가 번성하던 시기였지만 고조선의 전통문화인 청동기문화도 그에 못지 않게 계속 꽃피여났다. 고조선의 청동무기들과 화려한 사치품들이 이웃나라들과 활발히 교역되자 어디서나 화려한 구리와 놋제품들의 시세가 버쩍 뛰여올랐다.
그리하여 많은 노예주들이 구리터에 더욱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대를 두고 고조선사람들이 업으로 이어온 농사보다 비할바 없는 리윤을 가져다주었다.
탐욕으로 눈이 벌개진 노예주들이 이 황금의 구멍을 외면할리 없었다.
구리터에 대한 탐색이 활발해지고 구리터들이 나날이 늘어났다.
참은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는 노예주들의 구리터에 대한 탐욕을 자기 구리터의 번성으로 막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참은 구리터와 놋부리터에 무려 9백을 헤아리는 노예들을 내몰아 혹사하였다. 구리터에서는 매일과 같이 인명사고가 나고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련속 꼬리를 물었다.
그것은 참이 해결할수 없는 골치거리였다.
참은 구리터에서 일어나는 소요들을 막기 위해 자기 가까이에 두고 쓰던 가병장 성기를 구리터와 놋부리터 전체의 감독으로 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구리터에는 나이는 어리지만 힘꼴이나 쓰는 우마를 감노로 보내 말썽많은 구리터노예들을 다잡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여 우마는 소스나구리터로 끌려나왔다.
옥동으로 온 집안이 떠받들던 아사리는 어디로 갔는지 행적을 모르고 생때같던 부모들을 산채로 땅에 묻은 우마의 가슴은 터지는듯 아팠다.
하건만 울어도 소용이 없고 빌어도 소용이 없었다. 노예에게는 오직 순종과 복종 그리고 체념만이 생의 유일한 출로로 강요된 그러한 세상이였다.
어린 가슴에 안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슬픔때문이여선지 우마는 때일찍 과묵하고 우울한 젊은이로 성장해갔다.
감노라 하지만 노예들속에 끼여 묵묵히 괭이를 휘두르고 구리돌을 져나르는 그의 모습은 어찌보면 소나 말을 련상시켰다. 하지만 이따금

머리를 들어 하늘을 노려보는 그의 거치른 눈빛에서는 사람들을 전률시키는 무시무시한 적의가 번뜩이군하였으니 그것은 그의 가슴 깊은곳에 바위처럼 무겁게 굳어져버린 풀래야 풀수 없는 원한의 응어리였다.

우마가 구리터로 떠나간지 사흘만에 가병장 성기도 자기의 철총마에 몸을 실었다.

빨리 구리터에 가서 노예들을 다잡으라는 참의 령을 받았던것이다.

소스나구리터는 왕검성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험한 산골짜기에 자리잡고있었다.

성기는 말을 달려 한겻이 지나서야 소스나의 어구에 이르렀다. 펑퍼짐한 언덕에 이른 성기는 잠시 말을 세우고 이마에 내배인 땀을 씻었다.

골짜기 한끝에 파헤쳐놓은 구리터가 바라보였다.

구리터에서 얼마 떨어진 평평한 언덕에는 당시로서는 화려하달만치 정갈한 집 대여섯채가 바라보였다. 지상우에 우뚝 솟아있고 지붕우에 기와를 인것으로 보아 관리들의 집이 틀림없었다.

산골내물을 건너 삼태기안처럼 우묵하게 휘여든 골짜기에는 여러채의 반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았는데 거의가 풀이영을 이였고 그중 몇채만이 나무를 켜서 이은 동기와집이였다.

기능노예들이 살고있는 소읍인듯 싶었다.

성기는 말의 고삐를 잡아챘다. 말이 속보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구리터가 가까와지자 그옆에 길게 지어놓은 노예들의 집이 류달리 눈길을 끌었다.

길이가 쉰칸이 넘을듯한 보기드문 긴 집이였다. 우에는 풀이영을 하고 앞에는 장정의 넙적다리 굵기만한 통나무를 다듬어 살창을 촘촘히 대여놓은것이 굉장히 큰 돼지우리를 련상시켰다.

하루종일 고역에 시달리며 혹사당한 노예들이 집단적으로 자고먹는 곳이다.

원시림이 침침하게 들어선 산줄기가 휘우듬히 막아선 골짜기아래에 여기저기 파헤쳐진 흙구뎅이들이 보이고 그 옆으로 높이 쌓인 거무스럼한 더미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땅속으로 기여들어가 노예들이 지여다 쌓아놓은 구리돌이였다.

성기는 아예 한숨 돌리고 구리터에 들어갈양으로 시내가의 펑퍼짐한 바위옆에 말을 세웠다.

말에서 내려 잠시 다리쉼을 하는데 바위밑 내가에서 빨래를 하던 나인

하나가 채 빨지 못한 빨래들을 버치처럼 생긴 토기그릇에 담아들고 뺑소니치듯 오솔길로 빠져달아났다.
나인이 총총히 걸음을 옮겨가는 언덕밑으로 눈길을 돌린 성기는 언덕에 가리워 보이지 않던 기능노예들의 새 거처지를 비로소 발견하였다.
반토굴 같은 이영집들이 잇닿아있는 소읍끝에는 밋밋한 언덕에 의지하여 돌로 굴뚝을 쌓아올리고 흙으로 매질한 구리녹이는 화독들이 바라보였다.
(저 나인은 분명 기능노예의 자식이겠는데 무엇때문에 범 본 송아지처럼 꼬리를 사리고 급급히 달아나는것일가?)
의혹에 잠겨 오솔길로 빠지는 나인을 바라보던 성기는 자기 옷차림에 눈길이 가자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자기가 가병장이라 베를 겹으로 누벼 지은 옷에 의관까지 갖추고 활첩을 메고 창까지 꼬나들었으니 틀림없는 노예들을 못살게 구는 주인행색이라 그 나인이 놀라지 않을수 없다.
성기는 허허 혼자 웃고 마을언덕으로 올라서는 나인을 눈여겨 살펴보았다.
검은 점이 박힌 노란 저고리에 검은 깃을 대고 발목을 졸라맨 품이 넓은 바지를 입었는데 역시 노란색에 검은 점이 박힌것이였다.
저만한 행색이면 호민 아니면 기능노예의 감노쯤은 되는 가정의 자손이다.
성기의 눈을 끈것은 귀밑으로 길게 흘러내린 칠흑같은 머리칼과 백옥같이 흰 얼굴이였다.
살풋이 내려뜬 눈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흘러내린 얼굴의 륜곽이 대번에 이만저만한 가인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렇듯 아름다운 가인이 이런 노예들의 소읍에서 산다니 신비하도다.)
성기는 마을 한귀퉁이로 사라지는 녀인을 보며 생각했다.
성기는 다시 말에 올라 박차를 가했다.
말은 목적지에 다 온것을 알았던지 평보로 여유있게 걷기 시작했다.
성기가 구리터 앞마당에 이르자 구리짐을 지고 굴에서 나오던 두 노예가 구리짐을 진채 성기에게 달려와 머리를 숙이며 문안을 드렸다.
《주인님 행차하오이까? 참으로 반갑소이다.》

여기에 온다는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린 일이 없는데 저 노예들은 어떻게 알고 달려나오는고?

성기는 의혹이 깊었으나 무둥 반가운 생각이 들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머리를 들어라, 그대들은 누구인고?》

두 노예가 머리를 들었다.

성기는 대번에 우마와 날승을 알아보았다. 노예들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감격의 웃음이 가득찼다.

아마도 마웅가묘에 순장해야 할 아사리를 살려준 고마움이 아직도 이 노예들의 가슴에 차있는듯 했다.

《이렇게 뵈옵고나니 정말 기쁘오이다, 기쁘오이다.》

노예들은 련속 머리를 굽석이며 기쁨을 표했다.

이때 굴에서 방금 나온 노예 하나가 말에 올라앉아있는 성기를 보더니 한달음에 달려왔다.

마웅가 장례식때 참의 강요로 아사리를 산속으로 들고가던 구두막이라는 노예였다.

《주인님 행차하셨소이까? 반갑기가 이를데 없소이다.》

성격이 활달한 구두막은 반가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어깨만 들썩이였다.

그러는 노예들을 보느라니 성기는 코등이 찡해왔다.

노예들은 머리를 깎고 사타구니를 베천쪼박과 가죽쪼박으로 가리웠는데 뼈가 앙상한 갈비와 어깨뼈며 광대뼈들이 두드러져 나온 몸체가 마른 명태처럼 바싹 여위여 입으로 훅 불면 날아갈듯싶었다. 그러나 메말라버린 그속에도 인간의 눈물겨운 정만은 그대로 남아있어 얼굴은 웃음으로 환했다.

다만 허우대가 큰 우마만은 뼈들이 크고 우람해서 마를대로 말랐을지언정 바위처럼 묵직하고 강인해보였는데 침중한 기색이였다.

석수에 얼룩지고 해빛에 타서 가마뚜껑처럼 시꺼먼 노예들의 살결은 땀에 젖어 번들거렸다.

《아사리의 기별은 없는고?》

성기가 말에 앉아 물었다.

《없소이다.》

《음-》

성기가 머리를 끄덕이며 지그시 눈을 감더니 이윽해서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마는 주의해야겠다. 참주인으로부터 너를 단단히 신칙하라는 령을 받았노라.》

《고맙소이다. 주인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소이다.》

우마는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그래, 래일 령을 받았느냐?》

성기가 어조를 바꾸어 말을 이었다.

《받았소이다. 래일 아침 대왕님이 사냥터에 왕림하시와 우리는 몰이군으로 동원되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됐다. 일이 없도록 신칙을 잘할지어다.》

《알았소이다.》

노예들이 땅에 닿게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4

우거왕의 사냥행차를 기다리는 참의 마음은 초조해났다.

때도 1경이 지나 지금쯤은 왕의 행차가 저 바리골굽인돌이에 나타날듯 싶은데 날새 한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참은 혹시 왕이 일정을 고쳐 이곳 사냥을 포기했으면 어쩌랴싶어 속이 조여들었다.

참은 1년전부터 이 사냥터를 준비했다.

장차 자기의 재력에 어울리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왕의 환심을 사는것이 중요하였던것이다.

참의 사냥터는 하미골이라고 부르는 골안에 위치하고있었다. 풀과 나무가 무성하고 물이 맑은데다가 린근의 여러 골짜기들과 잇닿아있어 이곳으로는 언제나 갖가지 산짐승들이며 새들이 즐겨 모여들군하였다.

참은 숱한 노예며 하호들을 동원하여 사냥터로 들어오는 길을 새로 닦았고 골짜기 곳곳에 먹이감들을 놓아 뭇짐승들이 모여들게 하였다.

또한 왕에게 올릴 봉물을 마련하는 일도 잊지 않고 진척시켰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참이 류달리 관심을 돌린것은 군전(왕의 림시숙소)을

꾸리는 일이였다.

하미골 앞산의 양지바른 중턱을 깎아 번듯하게 턱을 내고 흙을 날라다 바닥을 높이 쌓는 일은 여간 어려운 토목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참은 밤낮으로 노예들을 때려몰아 공사를 내밀었으며 졸개들을 사방으로 파하여 구름차일이며 휘장을 치는데 쓸 화려한 비단포들과 진귀한 구슬들을 구해들이게 했다. …

《대왕의 행차이시다!》

높은 둔덕에 올라 망을 보던 파수군이 흥분하여 소리쳤다.

《대왕의 행차라구!》

참은 입이 귀밑까지 째져 달려나갔다.

바리골굽이로 울긋불긋 화려한 행렬이 나타나고 누런 금포를 쓰고 백설같이 흰 말에 올라앉은 왕의 모습이 뚜렷이 바라보였다.

참은 말을 타지 않고 벌렁벌렁 기다싶이 왕의 앞으로 다가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다.

오늘따라 기분이 한껏 흥뜬 우거왕은 자기앞에 엎드려있는 참에게 일어나라는 령을 주고 어서 사냥터로 안내하라고 점잖게 말했다.

사냥터인 하미골에 이른 우거왕은 대번에 만족하여 벙글거렸다.

우거왕은 남다른 치성이 력력히 느껴지는 사냥터를 돌아보며 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참은 왕의 찬사에 기쁨을 금치 못하면서 연신 허리를 굽석거리며 갖은 아첨을 다 떨었다.

왕이 잠시 수려한 산천의 아름다움을 부감하고 있는새에 왕의 행차와 같이 한 비왕 장은 참을 따로 불러 사냥몰이군들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참은 몰이군두목으로 자기의 가장 미더운 가병장 성기를 내세웠으니 안심하라고 거듭 말했다.

골짜기 여기저기서 몰이군들이 북과 징을 울리면서 짐승들을 놀래우기 시작하였다.

이날 몰이에는 우마를 비롯한 힘꼴이나 쓰는 날랜 노예들이 뽑히였다.

짐승을 몰아내느라 법석하는 소리가 수림속에 메아리를 일으키는데 으슥한 구석들에서 산짐승들이 놀라서 뛰쳐나오기 시작하였다.

우거왕은 사냥행장을 갖추고 말우에 올랐다.

벌써부터 피비린내를 예감했는지 기름기가 흐르는 부루마가 코를 벌름

거리며 투레질을 했다.

부르르한 말갈기를 한번 쓸어주고난 우거왕은 흥분을 누잦히려는듯 신하들에게 언뜻 웃음을 던지고나서 슬며시 말배때기를 건드렸다.

부루마는 처음에는 슬렁슬렁 발을 옮기더니 점차 골짜기를 따라 달리기 시작하였다.

시위군사들이며 그밖의 신하들이 우거왕의 뒤를 따랐다. 우거왕이 탄 부루마는 기세좋게 내달렸다.

나무잎새며 관목들이 바람처럼 스쳐지나고 조약돌들이 말편자에 부딪쳐 불꽃을 튕겼다. 산토끼며 다람쥐들이 질겁해서 내빼는데 덤불속에 숨어있던 장끼 한마리가 화드득 날아났다.

하건만 우거왕은 그런것들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 뭔가 큰놈과 맞다들리라는 야릇한 쾌감을 느끼며 우거왕은 숲이 우거진 험한 골안으로 말을 몰고 또 몰았다.

한편 우마는 동료들과 함께 짐승들을 쫓아 이리저리 헤매다녔다. 북과 징을 두드려대고 목갈린 소리로 웨쳐대며 산짐승을 몰아 달리고달리는 그들의 주제는 말이 아니였다.

웃동에 걸친 삼베적삼은 찢기고 해여져 너덜거렸고 그나마도 걸치지 못하여 알몸뚱이바람에 배꼽아래만 대충 가리운자들이 태반이였다.

그런가 하면 해볕에 그슬린 그들의 몸은 덤불에 할퀴우고 나무가지에 긁혀 온통 상처투성이였다.

등뒤에서 소힘줄로 만든 가죽채찍소리가 윙윙 울어댔고 노예들을 몰아대는 감노들의 욕지거리가 귀따갑게 들려왔다.

어찌보면 이 시각 죽음을 피해 쫓겨다니는것은 짐승들이 아니라 다름아닌 노예들자신인듯싶었다.

우마와 그의 동료들이 헐떡거리며 얼마간 달렸을 때였다.

갑자기 저쯤 떨어진곳에서 《메돼지다!》하는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난쪽을 바라보니 어느 구석에서 튕겨났는지 정말 메돼지 한마리가 몰이군들을 피해 달아나고있었다.

몸집이 자그만치 황소만하고 송곳이가 위혁스럽게 삐드러진 굉장히 큰 수놈이였다.

《이놈들아! 냉큼 메돼지앞을 막아라!》

기승스러운 감노의 호령소리가 몰이군들의 귀전을 후려치듯 들려왔다.

이때 긴장감을 느낀 성기가 이곳으로 말을 몰아왔다.

그는 만약을 생각하여 짐승을 몰아가는 우마의 뒤를 바싹 따랐다.
우마는 동료들과 같이 메돼지가 있는곳에 닿았다.
누구도 선뜻 가까이 다가가는 노예는 없었다.
다만 북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조심조심 몰아가기만 할뿐이였다.
왕의 일행이 이곳에 당도한것은 바로 이무렵이였다.
굉장히 큰 메돼지를 발견한 우거왕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돌았다.
메돼지는 몰이군들에게 몰려 우거왕이 있는곳으로 달려오고있었다.
왕은 말을 멈춰세우더니 전통에서 살 한대를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거리를 가늠해보다가 시위에 화살을 먹여들고 천천히 달려오는 메돼지를 겨누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우거왕을 지켜보았다.
메돼지와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칠십보, 륙십보… 그런데도 우거왕은 좀처럼 시위를 놓을줄 모른다.
《대왕마마, 어서 쏘시오이다.》
등뒤에 서있던 참이 조마조마해서 아뢰는 소리였다.
하건만 왕은 여전히 배포유한 자세다.
아마 짜릿짜릿한 모험을 실컷 맛보고싶은 렵기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것 같았다.
마침내 메돼지의 상통이 뚜렷이 드러나보일 정도로 거리는 가까와졌다.
곤두 선 갈기털, 사납게 희번뜩이는 충혈된 눈알 … 가까이에서 보니 짐승이라기보다 커다란 괴물같이 여겨졌다.
마침내 우거왕이 팽팽히 당겨진 시위를 막 놓으려는찰나 뜻밖에도 왕이 탄 부루마가 요란스레 울부짖으며 앞발을 쳐드는것이였다.
무시무시한 메돼지의 모양에 말도 어지간히 기겁한것 같았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왕이 쏜 화살이 핑— 하고 날아갔다.
공기를 째며 날아간 화살은 메돼지의 갈기털을 스칠듯이 지나 나무그루터기에 꽂혔다.
위험을 느낀 메돼지는 대가리를 짓숙인채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왔다.
신하들속에서 비명소리가 튀여나오고 말들이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내뛰였다.
우거왕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다.
위기일발의 시각이였다.

너무도 급작스레 벌어진 일이라 신하들도 당황해서 어쩔바를 모르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사납게 말고삐를 나꾸어채며 우거왕을 막아나섰다.
가병장 성기였다.
성기는 무섭게 말을 쳐몰아 달려오는 메돼지를 맞받아 돌진해갔다.
매돼지가 성기에게로 달려드는 순간 성기는 말안장에서 몸을 솟구치며 메돼지를 향해 힘껏 창을 던졌다.
성기가 던진 창은 메돼지의 등덜미에 날아가 박혔다.
그 순간 메돼지가 터치는 무서운 울부짖음소리가 온 골안을 들었다 놓았다.
왕이며 신하들은 물론이고 몰이에 나섰던 노예들까지 손에 땀을 쥐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있었다.
상처를 입은 메돼지가 몸을 홱 돌리더니 등덜미에 창이 꽂힌채로 이번에는 반대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털가죽이 너무 두터워 창날이 깊숙이 들어박히지 못한 모양이였다.
되돌아 내달리는 메돼지의 기세는 처음보다 더 맹렬했다.
송곳이를 내두르며 무섭게 울부짖는 서슬이 호랑이도 질겁해 달아날 지경이였다. 뒤따르던 몰이노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황급히 도망치던 노예 하나가 그만에야 덤불에 걸려 넘어졌다.
노예가 허둥거리며 일어서는 순간 메돼지가 달려들어 노예의 동가슴을 꿍―하고 들이받았다.
메돼지에게 받기운 노예는 비명을 지르며 허궁 내동댕이쳐졌다.
쓰러진 노예의 가슴에서는 선지피가 콸콸 쏟아져나오는데 피를 본 메돼지는 흥분하여 더욱 기승을 부렸다.
닥치는대로 물어뜯고 치받으려고 길길이 날뛰는 메돼지앞에서 노예들은 이리 뛰고 저리 몰리며 갈팡질팡하였다.
우거왕을 호위하던 성기가 벼락같이 소리쳤다.
《우마, 뭘하는가, 메돼지를 막으라!》
그 소리에 돌연히 젊은 노예 하나가 메돼지앞을 막아나서는것이 아닌가!
왕과 신하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바라보았다.
미쳐도 분수가 있지, 감히 맨몸으로 메돼지와 맞서다니!
하건만 노예는 우뚝 버티고 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다름아닌 우마였다.

잔뜩 웅크리고있는 시꺼먼 체구는 마치 커다란 바위를 련상시켰다.
메돼지는 단김을 내뿜으며 우마를 향해 돌진해왔다.
온통 피칠갑을 한 몸뚱이, 살기에 번뜩이는 시뻘건 눈알, 무시무시한 울부짖음…
긴장된 눈빛으로 메돼지를 노려보던 우마는 몇걸음 뒤로 물러나 등뒤의 나무에 의지해 섰다.
메돼지가 사납게 달려들며 송곳이로 치받는 순간 우마는 비호같이 나무뒤로 몸을 날렸다.
그바람에 메돼지의 송곳이가 가달진 나무줄기사이에 걸리고말았다.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우마는 삐드러져나온 송곳이를 잽싸게 거머잡더니 힘껏 나꾸어챘다.
워낙 정신없이 달려들던놈인지라 어쩔수없이 대가리를 나무줄기사이로 깊숙이 들이밀지 않을수 없었다.
다음 순간 부르쥔 우마의 주먹이 허공에서 원을 긋더니 나무줄기사이에 걸린 메돼지의 골통우에 철퇴마냥 드세게 떨어졌다.
《퍽ㅡ》
무엇인가 으깨져 나가는듯한 소리가 들렸다. 메돼지는 눈알을 뒤집으며 무너지듯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대가리는 여전히 나무줄기사이에 걸려있는데 입에서는 느침이 질질 흘러나왔다.
우마는 덤비는 기색없이 메돼지의 등우에 훌쩍 뛰여올랐다. 그리고는 두손으로 등덜미에 꽂혀있는 창대를 모두어잡고 힘껏 들이박았다.
메돼지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모로 나가넘어지더니 맥없이 네발을 버들쩍거리다가 조용해졌다.
《히야!ㅡ 대단한 장수이다.》
신하들이 감탄하여 환성을 질렀다.
우거왕은 일행을 거느리고 메돼지가 쓰러진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우마는 피를 토하며 너부러진 메돼지를 한발로 지르밟고 장승마냥 우뚝 서있었다.
바위처럼 버그러진 그의 동가슴은 거센 숨을 몰아쉬며 풀무마냥 오르내리고있었는데 툭툭 불거져나온 근육은 아직도 흥분을 머금고 푸들푸들 떨고있었다.
왕이 다가서자 우마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다.
《너는 누구냐?》

우거왕이 물었다.
《노예 우마오이다.》
《우마, 음, 참은 이 노예에게 상을 후히 주도록 하라!》
우거왕은 웬일인지 기분이 흐려 그곳을 떠났다.
우거왕의 기분을 맞추노라 눈을 희번뜩이며 돌아가던 조선상 로인이 성기앞을 막아섰다.
《시위대장 게 없느냐?》
로인이 소리치자 우악스럽게 생긴 시위대장이 달려와 로인앞에 말을 멈춰세우고 머리를 숙였다.
《불렀소이까?》
《저 죄인을 어서 묶을지어다.》
분노한 로인이 성기를 가리켰다.
성기는 깜짝 놀라 말과 함께 뒤걸음을 쳤다.
《저놈은 대왕님이 메돼지를 잡아 즐기시려는 순간에 무엄하게도 대왕의 앞을 막았노라. 죄인중에 가장 큰 죄인이니 즉시에 목을 치도록 하라.》
말을 탄 무장한 수병 셋이 성기앞에 나섰다.
《목을 쳐라!》
조선상 로인의 령이 떨어지자 세 수병이 동시에 창을 번쩍 끄나들더니 번개같이 날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든 창끝이 성기의 목을 향한 세개의 창을 허공에서 쳐버렸다.
이어 산악을 무너뜨릴듯한 말울음소리와 함께 성기앞에 날렵한 갈색마가 앞발을 허공중에 쳐들며 문뜩 멎어섰다.
땀에 젖은 말우에서는 노호한 비왕의 눈길이 번뜩이였다.
《상은 어찌하여 젊은이를 죽이려 하느뇨?》
비왕의 목소리는 분격에 떨리는듯 했다.
《대왕께서 잡으실 메돼지를 저놈이 못잡게 했소이다.》
《그건 나도 똑똑히 봤으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저놈은 대왕님을 노엽힌 죄인이오이다.》
로인이 고집했다.
《젊은이만 남고 모두 헤쳐갈지어다.》
비왕이 노호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예에이—!》
로인을 비롯한 수하군사들이 모두 흩어져가고 언덕에는 성기와 비왕만이 남게 되였다.
두눈을 교활하게 번뜩이며 그곳을 떠난 조선상 로인이 말을 몰아 우거왕의 차일로 달려갔다.
우거왕은 메돼지를 잡을 기회를 노예에게 빼앗긴 수치와 노여움을 아직도 삭이지 못해 옥좌에 앉아 컴컴해진 얼굴을 들지 않고있었다.
《대왕님께 아뢰오이다. 대왕님께 무모한짓을 한 가병놈을 처벌하게 령을 내려주사이다.》
그 소리에 우거왕이 번쩍 머리를 들었다.
조선상 로인을 쳐다보는 우거왕의 눈에 번뜩 서리발이 일었다.
《가병장을 즉시 내앞으로 끌어올지어다.》
수병 하나가 번개같이 말을 달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윽하여 말발굽소리가 들리더니 왕의 차일앞에 비왕과 성기가 나타났다.
말에서 뛰여내린 성기는 아무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듯 좀 도도한 자세로 왕앞에 다가가 부복했다.
《넌 도대체 누군고?》
왕앞에 다가선 비왕이 불안한 눈길로 좀처럼 굽어들려 하지 않는 성기를 바라보았다.
《예에— 참어른의 가병장 성기라 하오이다.》
《음—》
우거왕은 눈을 감고 걸상 팔걸이에 손장단을 치며 알릴듯말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것을 우거왕의 동의로 생각한 조선상 로인이 서둘렀다.
《얘들아, 빨리 형기를 갖추고 저놈의 목을 칠 준비를 갖추어라—》
형기를 든 수병들이 달려나와 우거왕앞에 머리를 숙이고 어명을 기다렸다.
《너희들은 돌아가 제 볼 일을 볼지어다.》
우거왕은 수병들을 돌려보내고 웃음진 얼굴로 성기를 바라보았다.
《너는 이 나라의 남아로다. 내 메돼지를 노예에게 빼앗겨 기분은 나쁘다만 오늘 사냥에서 너같은 충신을 얻었으니 내 마음 기쁘도다.》
우거왕이 드디여 유쾌한듯 껄껄 웃었다.

아연실색한 로인이 낯이 새까맣게 질려 우거왕앞에 꿇어앉았다.
《대왕님, 제가 …죽을 죄를 졌소이다.》
가슴이 무너지듯 철렁한 로인이 머리를 조아렸다.
《어서 일어날지어다. 사람을 그리 보는게 아니노라. 허허…》
우거왕이 껄껄 웃으며 어서 일어나라고 로인에게 손짓했다.
로인은 이마의 땀을 뚝뚝 떨구며 일어나 물러났다.
《비왕의 생각은 어떠하뇨?》
우거왕이 깊은 생각에 잠겨 머리를 숙이고있는 비왕 장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저도 대왕님의 생각을 따르오이다. 참으로 훌륭한 젊은인줄 아오이다.》
갑자기 사냥터를 뒤흔드는듯한 우거왕의 호탕한 웃음이 터졌다.
《충신을 얻었으니 속히 입궐하여 대잔치를 차려야겠다.》
이리하여 우거왕의 행렬은 만세의 환성을 올리며 성기와 함께 왕검성으로 향하였다.
입궐한 성기는 비왕에게서 새 무술과 도법들을 체득했으며 국가등용시험에서 제1인자로 꼽혀 왕궁안의 장군으로 되였다.
장군이 될 때까지 비왕은 온갖 심혈을 다 바쳐 그를 키웠다.
비왕이 성기를 키우면서 힘을 넣은것은 이 나라 산천의 넋을 지니도록 한것이며 단군시대와 같이 겨레의 단합과 강성을 도모하는것을 마음의 기둥으로 세우도록 한것이였다.
이렇게 하여 성기는 후날 왕검성안의 제일의 실력자로 고조선력사에 한점의 불꽃으로 남게 되였다.

가인의 운명은 불행인가

1

푸르락딱—푸르락딱— 풀무가 용을 쓸 때마다 불덕에서는 세찬 불길이 널름거렸다.

놋부리터앞에는 세사람이 있었다.

풀무질을 하며 이따금 이마의 땀을 훔치는 사람은 더덩쇠라고 부르는 놋부리터의 좌상이였고 로아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시뻘건 구리물을 받아 거푸집에 쏟아붓는 사람은 구리터 대노 우마였다.

이들외에 또 한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한쪽에 앉아 모래며 밀랍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거푸집을 빚고있는 더덩쇠의 딸 소부루였다.

우거왕의 사냥터에서 우마가 메돼지를 잡고 상을 타게 되자 흡족해난 참은 우마를 일격에 구리터 대노로 올려놓았다.

대노는 신분상으로는 노예였지만 노예두목들인 감노들을 관할할수 있는 직급이 높은 노예감독으로서 다른 노예들보다 자유로왔다.

대노들에게는 구리터나 놋부리터범위내에서는 자기가 가고싶은곳에 마음대로 갈수 있는 약간의 자유가 있었다. 그래서 우마대노는 구리터의 일이 끝나면 놋부리터에 나와 더덩쇠의 일손을 도와주군했다.

이곳에 발길을 하기 시작한것은 왕검성으로 들어간 성기가 놋불이를 맡기려 이곳으로 심부름을 보낸 때부터였다.

처음 이곳에 온 우마는 더덩쇠의 소탈하고 인정많은 마음에 끌려들어 자주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우마는 소부루의 일손을 한껏 도와주군했다.

그 과정에 소부루와 우마사이에는 남모르게 야릇한 그리움의 싹이 텄고 그것은 남못보는 그늘속에 몰래 피여난 두송이의 들꽃같아서 외부에 드러내기를 서로 두려워했다.

우마가 놋부리터에 올 때면 소부루는 하루같이 불덕앞에 앉아있군했다. 검붉게 탄 얼굴이 어쩌나 아름다운지 우마는 얼나간 사람모양 그

자리에 우뚝 굳어지군하였다.

그렇게 소부루를 보고 떠나군 하는 우마였지만 구리터에 가기만 하면 벌써 온 마음은 산밑에서 연기를 피워올리고있는 더덩쇠의 놋부리터로 달려가군했다.

더덩쇠는 때없이 놋부리터에 찾아와 걸싸게 일해주는 우마가 마음에 흠뻑 들었다.

마침내 소부루도 우마의 속마음을 눈치채게 되였다.

소부루는 어느새 은근히 우마가 기다려졌고 막상 우마와 맞다들렸을 때에는 가슴이 울렁거려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들의 눈치가 범상치 않음을 느낀 더덩쇠도 은근히 기뻐하였다.

더덩쇠가 첫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이을 사내가 있어 그처럼 기뻐하며 애지중지 길렀으나 열살을 넘기지 못해 가난에 쪼들리다가 그만 굶어죽고말았다.

더덩쇠는 너무도 가슴아파 비천한 노예집안에 무슨 자식이냐 통분하며 다시는 자식을 두지 않으리라 결심했으나 사람일이란 그렇지 않았던지 또다시 아이 하나가 생기게 되였다. 사타구니에 불이 없어 섭섭한 마음 그지 없었지만 그만큼 귀엽고 애중한 마음은 몇배나 더했다.

더덩쇠는 고운 아기 고이 자라 대장부처럼 담을 키우고 나라지키는 장수가 되라는 욕심에서 바랄수 없는 일일지언정 그의 마음속에 그 소원 고이 간직케 하고싶어 그애에게 소부루라는 사내이름을 달아주었다.

그랬던 그애가 이제는 활짝 피여난 한떨기 꽃이 되여 은근히 짝을 바랬더니 뜻하지 않게 우마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비천한 노예이나 름름하고 대바르고 마음 또한 티없이 굳세니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욕심을 어쩔수 없는 더덩쇠였다. 그들이 한쌍의 봉황처럼 짝을 뭇기를 바라는 더덩쇠가 그만 자기가 그들사이에 쓸데없는 구리찌꺼기처럼 끼여있었다는것을 느끼며 허구픈 웃음을 웃었다.

눈치가 있으면 자리를 피해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을 한껏 더 꽃피워줘야 하였다.

어느날 우마가 또 찾아왔다.

《여보게 우마, 구리물이 익거던 거푸집에 부어주게.》

더덩쇠는 부스럭부스럭 의상을 바로잡으며 어디론가 떠날 차비를 했다.

소부루가 의아해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님이 떠나면 구리물부이는 어떻게 하겠나이까?》
《내 말하지 않더냐, 우마에게 맡기라구. …》
《하지만…》
소부루는 쇠물처럼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렸다.
거의 한생토록 야장일을 해오면서 아직 쇠물부이만은 남에게 좀해서 맡긴적이 없는 아버지였다.
구리물을 어떻게 붓는가에 따라서 청동단검이나 도끼, 청동창끝, 청동거울, 치레거리 등 주물품의 질이 결정되였기때문이다.
제품의 질은 놋부리터의 신용은 물론이고 거래의 범위를 결정해주었다.
더덩쇠가 만든 제품이라면 린근은 물론이고 멀리까지 쫙— 소문이 자자했다.
피땀으로 쌓아온 이 권위와 신용을 더덩쇠는 목숨처럼 귀중히 여겼다.
그런 아버지가 한갖 쇠골노예에 불과한 우마에게 선뜻 구리물부이를 맡기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소부루는 마음이 불안했다.
아버지가 자기들의 사이를 눈치채고 조용한 자리를 마련해주려함이 틀림없었으나 자기들의 혼사가 중요하다한들 아버지의 권위에 비길소냐!
《아버님, 쇠물부이만은 아버님이 하셔야 하지 않겠사와요?》
《무슨 딴말이 많으냐?》
마음이 결곡하고 성격이 드세찬 더덩쇠는 짐짓 어성을 높이고는 문밖을 나섰다.
아버지의 모습이 언덕아래로 자취를 감추어버리자 소부루는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소부루는 살며시 긴 살눈섭을 치뜨며 우마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긴 나무자루가 붙은 구리물바가지를 든 우마는 구리화덕앞으로 다가갔다.
불길이 휘동하는 화덕안을 이윽히 들여다보던 우마는 혼자 히죽이 웃었다. 만족하다는 표정이였다.
구리물이 쏟아지는 구멍밑에 바가지를 가져다댄 우마는 그 구멍에다 쇠철대를 힘껏 박았다.
철대를 뽑자 잘 익은 구리물이 쫘르르 쏟아져 구리물바가지를 채웠다. 잽싼 솜씨로 구리물구멍을 다시 막은 우마는 구리물바가지를 들고 거

푸집들이 놓여있는 모래판으로 가 조심스럽게 부어나갔다.
얼마나 능통하고 자연스러운지 아버지에 못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새 이곳을 다니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유심히 새겨보더니 어느새 모두 배운 모양이였다.
(허나 눈에 익히기는 쉬워도 손에 익히기는 힘들다는데 우마는 참.)
소부루에게는 우마가 신비하게만 느껴졌다.
남들은 10년을 배워도 제대로 못해 주인의 욕설을 먹기가 일쑤인데 우마는 단 몇번에 저렇듯 귀신처럼 구리물을 부어내니 말이다.
구리물을 다 부어낸 우마가 땀을 철철 흘리면서 다가왔다.
소부루는 얼른 벽에 걸린 명주포를 벗겨다가 우마앞에 두손으로 받쳐주었다.
《땀을 씻으시와요.》
하얀 명주포를 받쳐든채 머리를 숙이고 선 소부루의 백옥같은 얼굴을 보니 우마는 온몸이 저릿하게 졸아드는것 같고 머리가 혼미한 안개속에 싸여 빙그르르 돌아가는것만 같았다.
눈을 꽉 감고 섰던 우마는 꿇어앉으며 명주포를 사양했다.
《거두사이다. 저같은 노예한텐 당치않은 사치오이다.》
《아이, 노예는 명주포로 땀을 씻으면 안된다 하오이까?》
《그래도 아씨네는 평민이고 저는 노예인데 혹 누가 봐도…》
소부루는 어쩔새없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손등으로 막으며 우마가 명주포 받기를 기다렸다.
우마는 더 사양할수가 없어 소부루의 체취가 그대로 어린듯싶은 부드러운 명주포를 받아들기는 하였으나 감히 땀과 먼지로 어지러워진 얼굴에 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서 닦으소이다.》
소부루의 귀밑은 숯불처럼 빨갛게 물들어있었다.
소부루는 우마가 구리터에 와서 일을 도와줄 때마다 온몸에 철철 흘러넘치는 땀을 보고 우마에게도 땀을 닦는 명주포가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생각했다.
당시 손수건의 일종인 명주포를 쓰는것은 어지간히 여유가 있는 평민이나 귀족들뿐이였다.
노예들은 명주포는커녕 아무리 땀이 비오듯 흘러도 몸을 씻는 습관조차 붙일수가 없었다.

몸에 걸친것이란 살을 가리운 베포가 아니면 짐승가죽, 그것마저 없는 노예들은 풀을 엮어 만든 거적같은것이 고작이였다.
노예들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맨발로 다녔다.
그런 짐승같은 생활에 명주포란 애초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소부루는 우마에게 꼭 명주포를 만들어주고싶었다.
우마도 주인들처럼 보란듯이 명주포로 땀을 씻는다면 얼마나 좋으랴!
소부루는 아버지에게 졸라 단검 한자루를 얻어가지고 저자에 나가 명주포와 바꾸어왔다.
명주천을 사온 날 소부루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온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다음날부터 소부루는 뼈바늘에 색고운 명주실을 꿰여 한뜸두뜸 바느질을 하였다.
아버지가 볼가봐 일이 끝난 밤마다 등불밑에서 한뜸두뜸 뜬것이 열흘이 훨씬 지난 뒤에는 하나의 명주포가 기워졌다.
명주포가 다 된 다음 소부루는 여러가지 색실을 골라 명주포가운데 꽃잎 하나와 단검 하나를 수놓았다.
단검은 우마이고 꽃잎은 소부루 자기였다.
이렇게 준비된 명주포를 어떻게 주어야 할지 몰라 모대기다가 뜻밖의 기회가 생겼던것이다.
아버지까지 없으니 소부루가 우마에게 명주포를 준것을 누구도 모를것이다.
《고맙소이다.》
우마는 명주포를 황홀하게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몇번이고 사례를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렇듯 멀고 도저히 딸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감촉되던 가인이 불시에 가까와진것처럼 느껴졌다.
《쇠물부이는 어느새 배웠소이까?》
소부루가 부끄러움을 겨우 참으며 물었다.
《아버님의 일을 보았을뿐 아는것이 없소이다.》
우마도 열적음을 겨우 누잦히며 대답했다.
문득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 공간에 가득 차는듯 싶다.
《어마, 이 일을 어쩌노?》

두 사람이 얼이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는새에 불덕의 불이 꺼멓게 사위여가고있었던것이다.
우마는 정신없이 풀무질을 했다.
어두워지던 불덕안이 또다시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때에야 소부루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우마를 훔쳐보았다.
우마는 불덕안을 뚫어지게 들여다볼뿐 아무말도 없었다.
《무얼 그리 골똘히 보오이까?》
소부루가 물었다.
《저걸 좀 보오이다.》
불덕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우마가 하는 말이였다. 소부루는 의아해서 불덕안을 들여다보았다.
화덕안의 불은 여느때없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었다.
《저 불길이 보이지 않소이까? 꼭 소부루의 심장같소이다.》
《어마, 사람을 곧잘 놀리시네.》
소부루는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활딱 달아올라 비명을 질렀다.
어느새 돌아섰는지 우마가 소부루의 두손을 꽉 움켜잡으며 더운 김을 내뿜었다.
《소부루, 난 어디 가나 소부루만을 심장에 안고 살겠소이다.》
황황 타오르는 우마의 눈길은 소부루의 온몸을 불태워버릴것만 같았다.
소부루는 자기의 온넋을 재가루로 만들어버릴듯싶은 그 무서운 불에서 헤여나보려고 몸부림쳤다.
했으나 마음은 왜서인지 사나이의 그 뜨겁고도 억센 품에 더 안겨만 든다.
《아버님 보시면 어찌나이까?》
드디여 소부루가 소스라치며 우마의 손에서 자기의 손을 빼내였다.
둘은 읍락을 뒤흔들며 울려오는 요란한 방울소리에 소스라치듯 놀랐다.
《저게 무슨 행차오이까?》
소부루가 눈이 휘둥그래 동구밖을 가리켰다.
우마는 손채양을 해대고 소부루가 가리키는쪽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마교차 두채가 호기있게 달려오고있었다.
세마리의 백마가 끄는 앞의 마교차는 금동으로 현란히 장식하여 먼

곳에서도 눈이 부셨다. 흰눈같이 하얀 차일은 기슭을 금빛술로 장식하고 바퀴축에 금동방울을 달아 그 방울소리가 류창하기 그지없었다.
그 뒤로 따르는 마차도 온통 청동으로 장식한 훌륭한 마교차였지만 앞의 마차에 짝지여 초라해보이기까지 했다.
지나갈줄 알았던 마교차들이 곧장 더덩쇠의 놋부리터로 달려왔다.
눈부신 금빛 마교차가 멎어서더니 화려한 옷차림을 한 신하가 내려섰다.
《태자님 행차이시다. 더덩쇠 있느뇨?》
신하가 소리쳤다.
우마와 소부루는 신하의 발밑에 넙적 엎드렸다.
《아버님은 잠간 자리를 떴는줄 아뢰옵니다.》
소부루가 구슬 굴리는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일아래 거만하게 앉아 잔뜩 등을 젖히고있던 태자 장황이 눈을 찌붓이 뜨고 발밑에 엎드린 소부루를 뜯어보았다.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칠흑같은 검은 머리, 탐스럽게 드리운 나인의 나긋한 몸매에 눈길이 떨어졌다.
《얼굴을 들어라.》
장황이 호령했다.
소부루는 너무도 당황하여 얼굴 들 생각도 못하고 귀밑을 빨갛게 물들였다.
신하가 소부루의 턱을 쥐더니 우로 번쩍 추켜올렸다.
소부루는 너무도 당황하고 무안한 마음에 어쩔줄 몰랐다.
《음—》
장황은 비써 뒤로 젖혔던 몸을 앞으로 내밀며 홀린듯이 소부루를 바라보았다.
너무도 뜻밖이다. 궁중의 많은 궁녀속에 지금껏 제노라는 가인이 많아도 이렇듯 아름다운 계집은 처음이다.
이런 궁벽한 시골에 저런 가인이 숨어있을줄이야!
《음.》
장황은 앞으로 숙였던 몸을 뒤로 젖히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놀라운 일이로다.》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 장황의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였다.
한떨기의 향기 넘치는 꽃을 본 나비마냥…

오늘 장황은 청동단검을 잘 만든다는 더덩쇠를 직접 만나고싶어 행차한터였다.
나무잎이 지고 강산에 흰눈덮이면 곧 우거왕의 생신일인데 생신날을 맞는 부왕에게 자식의 효도로 현란한 청동단검을 올리고저 하는 장황이였다.
우거왕은 궁녀나 놀이보다도 무술이나 사냥 등 힘이 약동하고 피가 뛰는 파격한 행동을 좋아했다.
그러한 부왕에게 보기드문 화려하고 힘이 뻗치는듯한 청동단검을 선사하오면 얼마나 기뻐하랴!
그래서 은근히 속을 쓰던 태자가 이리저리 수소문해보니 그 중업을 더덩쇠라는 쇠부리군이 할수 있다는것이였다.
이 일은 중한 일이라 오늘 더덩쇠에게 직접 파업도 주고 성밖의 공기도 쏘여볼겸 나선 길인데 이런 놀라운 가인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해본 장황이다.
장황은 야릇한 흥분속에 박동하는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나라의 왕자로서 응당 체면을 지켜야 하는것이였다.
장황은 소부루에게 모든 넋을 빼앗기는바람에 소부루와 나란히 엎드린 머리깎은 노예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있었다.
뒤늦게 우마를 발견한 장황의 눈귀가 찌프러지더니 두눈엔 이름할수 없는 증오와 질투의 불길이 타번지기 시작했다.
《태자님, 왜 그러시오이까?》
지금까지 야릇한 심정으로 태자와 소부루를 지켜보던 왕협장군이 태자에게 물었다.
태자는 기분을 잡쳤는지 왕협의 물음에 대답을 안했다. 약삭바른 왕협이 대번에 태자의 마음을 가늠했다.
모든 대신, 신하들이 꼭같이 향유하는 궁중의 하잘것없는 나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태자가 한번 눈길을 돌린 나인을 다른 대신이 다치는 날이면 단단히 결단을 내는 피벽한 태자인지라 제 눈에 든 나인의 곁에 가지런히 엎드려있는 노예를 어찌 허용할수 있으랴!
《얘들아—》
태자의 심중을 간파한 왕협이 소리쳤다.
《예이—》
수위군졸들이 앞으로 나섰다.

《저 노예놈이 어찌하여 무엄하게 태자님앞에 엎드렸느냐?》

왕협이 호령했다. 그러면서도 정욕에 끓는 눈길은 잠시도 소부루의 얼굴에서 떼지 못했다.

《분수 모르는 저 노예놈을 끌어내다 되우 신칙하라.》

《예에이—》

무장한 시위군사들이 우마를 끌어내다 쇠를 두드리는 넙적한 바위에다 엎어놓았다.

《그 무엄하기 짝이 없는놈 사정보지 말고 되우 쳐라!》

군사 하나가 화덕을 살리는데 쓰려고 쌓아놓은 장작더미에로 달려가더니 참나무장작개비 한묶음을 안고 달려왔다.

군사는 장작개비로 우마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모서리진 장작이 허리와 어깨, 잔등에 앙칼진 소리를 내며 떨어질때마다 선지피가 툭툭 튀여올랐다.

우마의 검은 몸체는 몽둥이에 얻어맞는 배암처럼 꿈틀거렸다.

하건만 우마는 신음소리 하나 지르지 않았다.

단방에 정신을 잃으리라 생각했던 우마가 입을 앙다문채 눈을 부릅떴다.

입술을 어찌나 세게 깨물었는지 칼자리처럼 째진 자리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얘들아, 그만하고 돌아가자!》

장황이 차일을 내리우며 소리쳤다.

왕협과 신하들이 마차에 올라 놋부리터를 떠났다.

시위군사들도 뒤를 따랐다.

태자의 행렬이 돌아가자 소부루는 너무도 억이 막히고 원통하여 일어날 힘마저 깡그리 빼앗겼다.

《이것이 어찌된 재앙이오이까?》

소부루는 벌벌 기여가 피범벅이 되여 늘어진 우마를 부둥켜안았다.

《원통하오이다. 원통하오이다.》

소부루는 우마의 머리를 무릎우에 올려놓은채 한손으로 응어리진 자기의 작은 가슴을 마구 두드려댔다.

억세고 뻣뻣한 손이 소부루의 작은 손을 움켜잡았다.

《소부루, 너무 마음 쓰지 마오이다.》

피범벅이 된 우마가 입귀 한쪽을 벙싯이 열며 웃었다.

《우마, 원통하오이다.》

소부루는 우마의 머리를 자기의 가슴에 와락 그러안으며 통곡했다. 온몸이 저려들고 눈앞이 캄캄했다.

이것이 암흑과 얼음장속에 짓눌리웠던 새싹이 때맞은 봄을 만나 대지를 비집고 나오듯이 사랑이 첫문을 연 두 인생의 앞길에 놓여질 참담한 생활의 서곡이 될지 어찌 알았으랴.

2

왕궁으로 돌아온 왕협은 때아닌 고민으로 몸부림쳤다.

소스나놋부리터에 가서 소부루를 보고온 다음부터 왕협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우나 앉으나 눈앞에서는 나긋한 꽃잎같은 소부루가 오락가락했다. 당장 끌어다가 자기의 침중깊이 가두어놓고 기껏 롱락하고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십번씩 불끈불끈 솟구치군했다.

하건만 공주의 눈에 들어 부마가 되고싶은 생각으로 하여 평판 나쁜 일에 선뜻 뛰여들수 없었다.

그것은 후차로 치더라도 왕자 장황이 그 나인에게 빠져든것이 제일 골치거리였다.

그렇지만 않다면 왕협은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열백번도 그 나인을 자기의 독점물로 만들었을것이다.

궁중의 권력자가 그 나인을 타고앉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솟구칠 때면 무서운 악의와 질투가 왕협의 조폭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듯 했다.

자기앞에 나타난 하나의 꽃잎을 위해 왕자를 감쪽같이 죽여 야심을 채우리라는 무서운 독기가 서려오르기도 했다.

왕협은 인차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 독점물이 못될바치고는 남도 향유하지 못하게 꽃잎의 밑둥을 아예 잘라버리면 어떠할가?)

무서운 악의속에 모대기던 왕협은 왕검성의 제일가는 노예장사군이며 악한인 마불을 불렀다.

어느 싸움질에선가 칼부림을 하다가 한쪽 눈이 멀어버린 마불을 왕

검성사람들은 《외눈배기 악한》이라고 불렀다.
살인, 방화, 략탈과 강간, 못하는 짓이 없는 악한이였지만 왕검성의 권력자 왕협의 비호밑에 뻔뻔이 살아가는놈이였다.
로략질과 략탈로 돈맛을 알게 된 마불은 략탈한 돈으로 노예장사를 시작하여 왕검성의 큰 부자가 되였다.
그때로부터 이자는 노예장사를 업으로 삼았지만 옛 버릇은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불러주시니 황송키 그지없소이다.》
마불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눈알을 번뜩거리며 왕협의 령을 기다렸다.
《너 요즘 어떤 나인과 재미를 보느뇨?》
왕협이 딴눈을 팔며 손에 쥔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헤헤, 별로 신통한건 없고 저— 구마라는 애잔한 나인이 있사온데 장군께서 맛을 보시지 않겠나이까?》
마불은 왕협이 또 사타구니가 근질거려 자기를 찾았으리라 지레짐작하며 선웃음을 쳤다.
마불이 왕협과 깊은 련계가 지어진것은 나인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많은 노예들을 다루는 마불에게는 《나인방》이라는 미인들만 걷어넣고 팔아먹는 방이 따로 있었다. 보통로동노예들보다 3배나 더 비싼 노리개노예였지만 주인들의 눈길은 더욱더 《나인방》에 쏠렸다. 왕협의 시중군도 이 《나인방》에서 노리개나인들을 사다가 왕협에게 바치군했다. 시중군들이 사오는 나인들은 하나같이 해사한것들이였다. 왕협의 마음은 대단히 흡족했다. 그러던 어느날 왕협은 어디 가서 그리도 신통한 나인들을 구해들이나싶어 시중군을 불러 문초했다.
시중군은 마불의 《나인방》에 가서 사온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이렇게 《나인방》을 알게 된 왕협은 자기가 직접 《나인방》에 가서 마음에 드는 나인을 고르군했다.
권력을 업어야 뒤가 든든해지리라는 생각이 든 음흉한 마불은 그 기회를 리용하여 특출한 가인을 사게 되면 자기가 직접 왕협에게 섬겨바쳤다.
이렇게 하여 왕검성의 권력자와 범죄의 왕초는 하나의 인맥으로 이어졌다.
《아니다. 너희 구마같은건 구역질이 난다.》

《그럼 어떤것을 요구하시나이까?》
《실은 그래서 너를 불렀다.》
왕협은 마불의 귀에 대고 속에 품은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게 정말이오이까?》
외눈배기 악한은 입이 귀밑까지 치째져 올라갔다.
《한입가지고 두말하겠느냐?》
《그러하오면 내 서말의 구슬을 사례금으로 드리겠나이다.》
《구슬 서말?! 그게 적지 않을가?》
눈이 휘둥그래졌던 왕협이 길게 드리운 수염을 쓸며 만족하게 너털웃음을 터쳤다.
다음날 저녁 더덩쇠네 놋부리터에 머리쓰개를 쓰고 단검을 찬 사나이가 나타났다.
《주인 있소이까?》
저녁을 들던 더덩쇠는 삽짝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저기 언덕에서 우리 주인이 찾소이다.》
단검을 찬 사나이의 목소리는 공손하였다.
《일감을 맡기려거든 올것이지 찾는다는건 무엇이오이까?》
《주인님은 바쁘시와 가던 길에 잠간 만나자는것이오이다.》
잠시 머리를 기웃거리던 더덩쇠는 밥술을 놓고 옷을 걸친다음 단검 찬 사나이를 따랐다.
언덕우에 가니 외눈배기가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다.
더덩쇠는 외눈배기의 얼굴에 흐르는 살벌한 기운을 보고 그만 가슴이 선뜩하여졌다.
《당신이 더덩쇠라는 사람이오?》
《내 이름은 그러하온데 누구오이까?》
《그건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주인한테 딸이 있소?》
《있소이다. 그런데 그건 무엇때문에 묻소이까?》
더덩쇠는 바싹 긴장해서 다그쳐 물었다.
《내 주인의 딸을 소첩으로 맞고싶어 그러하오니 나에게 보내야겠소.》
외눈배기의 치째진 눈가에 야릇한 미소가 떠돌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건 무슨 소리요? 우리 딸 소부루는 이미 약정한 사나이가 있소이다.》
《보내라면 보낼것이지 무슨 잔말이 많어?》

외눈배기의 눈에서는 갑자기 야수같은 기운이 내뻗쳤다.
더덩쇠가 어리벙벙해서 물었다.
《대체 누구오이까?》
그러자 곁에 서있던 졸개가 흉물스럽게 웃으며 귀띔하는것이였다.
《마불이라는 선성을 들었을텐데…》
순간 더덩쇠는 가슴이 덜컹했다.
그럼 이자가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못된짓을 도맡아한다는 그 외눈배기 악한이란말인가?
어쩌면 좋을지 몰라 속을 바재이는데 마불이 더덩쇠의 어깨를 건방지게 두드리며 뇌까렸다.
《어른의 딸이 천하의 가인이라는 말을 듣고왔소. 어차피 우리는 장인사위간이 될 처지인데 벌써부터 얼굴을 붉힐거야 있소. 아무튼 날 만나면 딸은 물론이려니와 어른도 더 이상 고달프게 일하지 않아도 되오리다.》
《난 호사를 바라지 않소이다.》
《그럼 내가 싫다는거야?》
외눈이 번쩍 광기를 뿜었다.
더덩쇠는 후하고 한숨을 뿜었다.
지금 이놈과 맞섰댔자 리로울건 없었다.
우선 시간을 얻고 보자고 생각한 더덩쇠는 어조를 낮추어 공손히 말했다.
《생각해볼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겠소이까?》
《좋소, 래일 이맘때 딸을 데리러 오겠소. 이 마불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것쯤은 알테지?》
외눈배기는 이 말을 남기고 졸개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때에야 더덩쇠는 자기의 등어리가 식은 땀으로 척척히 젖어오른것을 감촉했다.
가슴이 조막만해 기다리던 소부루는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반색하며 문을 열었다.
문앞에 아버지가 아니라 우마가 서있었다.
《아버님은 어디에?》
우마가 의아해서 물었다.
더덩쇠는 어지간해서 자리를 뜨는 성미가 아니였던것이다.

《웬 사나이가 불러 나가시였사온데…》
소부루의 목소리가 불안스럽게 떨렸다.
왜서인지 우마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사나이라니?》
이때 더덩쇠가 시름겨운 낯색으로 뜰안에 들어섰다.
《아버님, 무슨 일이 있었사와요?》
소부루가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묻는 말이였다.
더덩쇠는 대답대신 도리질만 했다.
어쨌든 우마는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왜 저리도 낯색이 무거울가?
뒤늦게야 우마를 알아본 더덩쇠는 내심 반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임자도 왔네그려. 그새 몸은 어떠한가?》
《아버님이랑 념려해주셔 많이 나았소이다.》
우마가 고개를 숙이며 안심시켰다.
아직도 어깨와 허리, 얼굴에 구렝이가 감긴듯한 상처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래도 우마는 그런 티 하나없이 름름해있다.
얼굴에 위축된 그림자 하나 없다.
그런 우마를 보는 더덩쇠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저 억두쇠같은 사나이가 이 일을 알면 어쩌랴, 더우기 마음속에 오직 우마만을 품고 사는 소부루는 또 어떻고…)
더덩쇠는 휘청거리며 집기둥을 부여잡았다.
《아버님,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우마가 깜짝 놀라 더덩쇠를 집안으로 이끌며 물었다.
《몸이 좀…》
더덩쇠는 말을 얼버무리며 방안에 들어가 앉았다.
이윽토록 생각에 잠겨있던 더덩쇠는 소부루와 우마를 둘러보며 말문을 열었다.
《아무래도 해야 할 말이니 하자꾸나.》
더덩쇠는 마불과 만났던 일을 더듬더듬 이야기하였다.
우마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외눈배기 악한이라면 틀림없이 마불이다.
언젠가 그도 마불에 대한 소문을 들은적이 있었던것이다.
그 마불에게 걸려들기만하면 영낙없이 끌장이 나고만다는것이였다.

만사람에게 《공포의 화신》으로 널리 알려진 그 괴한이 소부루에게까지 손을 뻗쳤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말인가!
만일 소부루가 그 악한의 손에 걸려든다면…
생각만 해도 피가 솟구쳐 우마는 숨이 가빴다.
더덩쇠가 용단을 내린듯 딸에게 일렀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겠다. 너는 자리를 떠야겠다.》
그 소리에 소부루는 깜짝 놀랐다.
《자리를 뜨다니?! 그건 무슨 말씀이오이까?》
귀옥같은 외딸을 집근처에도 혼자 내보내지 않던 더덩쇠다.
헌데 아버지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한단말인가!
《네가 여기 있으면 필경 그놈에게 욕을 볼건 뻔하다. 그러니 한동안 숯구이막에 피해있거라.》
《아버님—》
소부루는 비통을 참지 못해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인이라고 주인놈에게 끌리여간뒤 원통한 가슴안고 아버지에게 의지하여 이토록 고이 자란 소부루였다.
그런데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니 이 무슨 재앙인가?
《잠시면 되겠지. 아무렴 널 언제까지나 산속에 있게 하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소부루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자, 그럼 차비를 해라. 일이 있으면 우마를 그리로 보내겠다.》
이렇게 되여 소부루는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3

소부루는 아버지가 인적없는 깊은 산속에 새로 고쳐준 낡은 숯막에서 외롭게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오직 산짐승과 산새뿐인 한적하기 그지없는 산속에서 그의 위안거리로 된것은 오직 무술뿐이였다.
성품이 강의한 더덩쇠는 고된 고역의 짬에도 귀한 딸에게 말타는 법과 무술, 수박을 부지런히 배워주었다.
당시 상무의 기풍이 강했던 고조선에서 나이 열살만 되면 누구나 말을 탈줄 알았고 활과 창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더우기 제천일이나 명절때이면 소읍마다 말을 달리고 무술을 겨루는 경기를 했고 소읍들끼리 사냥경기도 조직하여 기세를 올리고 양기를 돋구었다.
이런 경기들에서 이기는것은 소읍과 씨족들의 최고의 명예였다.
하여 소읍마다, 가문마다 이 명예를 따기 위해 온 마을 남녀로소 할것 없이 모두 떨쳐나서 무술을 닦고 말을 달렸다.
소읍에서 진행되는 말달리기나 무술겨룸을 할 때면 소스나소읍에서는 나인축에서 소부루가 제 일인자였다.
소부루가 무사복을 차려입고 경기에 나설 때면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황홀하여 온 소읍의 시선이 소부루에게만 쏠렸다.
그 미모가 절색인데다가 무술이나 말타는 동작 하나하나가 어찌나 세련되고 힘이 있었던지 마음사람들에게 무술을 가르쳐주는 교련사들조차 입을 헤 벌리고 정신없이 소부루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왕검성에서 멀리 떨어진 소스나에 있는 소부루였지만 왕검성의 세 가인속에 소부루를 포함시켜 신기한 이야기까지 떠돌았다.
그토록 무술에 능한 소부루여서 그런지 단 하루도 무술을 놓고는 살지 못하는 그였다.
인적없는 산속에 외로이 혼자 살고있어도 그 생활의 습성만은 버리지 않았다.
소부루는 아침 때식을 끓이기전에 창과 활을 메고 산의 정점으로 오르군했다.
나무그루터기들을 쳐내고 꽤 넓은 교련장을 닦은 소부루는 해가 뒤가웃 솟을 때까지 활쏘기, 창쏘기, 올가미훈련을 땀이 푹 나도록 했다.
말이 없는것이 유감이였다.
말만 있었더라면 이 산중을 종횡무진하며 달렸을것이니 얼마나 장쾌할것인가!
그러나 소부루는 말이 없는것을 탓하지 않고 산속을 달리는 훈련을 시작했다.
사람의 생활에서 발은 참으로 중요한것이다.
적들과의 싸움에서는 더욱 그렇다.
발이 잽싸야 더 많은 적을 족칠수 있고 자기를 방위하는데서도 유리하다.

산속달리기가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그 고비를 넘기니 웬만한 바위등 같은것은 날개가 달린듯이 훽 넘어뛰고 다섯발이 넘는 거리의 웅덩이나 바위벼랑도 훽훽 날아뛰게쯤 되였다.

하루는 훈련하는 그의 발밑에서 커다란 재빛토끼 한마리가 튀여나 달아났다.

자기도 모르게 창을 거머쥐고 달리려던 소부루는 긴창을 집어던지고 허리춤에서 단검 하나를 빼들고 토끼를 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까맣게 떨어졌던 토끼가 점점 가까와왔다.

온갖 힘을 다해 달아나는 자기를 따라오는 적수를 피할 길이 없었던지 훽 돌아 방향을 바꾼 토끼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숲속으로 내뛰였다.

그러나 적수는 벌써 자기앞을 질러 달리고있었다. 몇번 방향을 바꾸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절망에 빠진 엄지토끼는 잡힐바에야 공손히 잡히자고 생각했던지 그자리에 두발을 모으고 앉아 할딱거리며 움직일념을 안했다.

소부루는 상긋이 웃으며 단검을 허리에 꽂고 토끼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소부루는 토끼를 들어 품에 안았다.

그러자 토끼는 소부루의 품으로 기여들며 빨간 눈으로 미인을 놀랍게 쳐다보았다.

이때였다.

《토끼잡는 솜씨가 괜찮소이다. 하하…》

뒤에서 들려오는 사나이의 걸걸한 웃음소리에 소부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머리는 검은 수건으로 질끈 동이고 허리에다는 단검을 여라문개씩 찬 굵은 체통에 얼굴이 털로 덮이다싶이한 사나이가 버티고 서 있었다.

노예가 분명한 짧은 머리에 감때사나운 눈길은 첫눈에 만만찮은 사나이로 보였다.

《아, 보통나인인가 했더니 몹시 아름다운 나인이군그래, 그 얼굴 꿈에 한번 보아도 기분이 좋겠는걸.》

사나이가 소부루의 아름다움에 깜짝 놀라며 넉두리를 했다.

《어디서 온 손이기에 그처럼 무엄하오이까?》

소부루는 숲속에 토끼를 놓아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핀잔했다.
《우릴 모르니 일은 일이로군. 우리는 이 아근에 소문이 자자한 〈아사비적〉이다. 너도 행색을 보니 우리와 처지가 다를바 없는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걷어치워요. 소녀는 비적따위는 천리에서 침뱉고 돌아서는 사람이니 갈길이나 가오.》
소부루의 맵짠 부르짖음이 앞에 버티고 선 칼벼랑에 부딪쳐 메아리쳐왔다.
비적의 감때사나운 눈길에서 서슬푸른 빛발이 번뜩였다.
《나인치군 너무도 도고한데. 우리 비적과 한통속이 되지 않고는 살아나지 못할걸.》
사나이가 휘파람을 휙 불어댔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등성이에 말탄 검은 수건을 두른 사나이들의 거치른 모습이 솟아올랐다. 얼추 보아도 스물댓은 실히 됨즉싶었다.
《여기로 오라구. 귀신같은 가인이 나타났네.》
사나이가 웨쳐대자 말탄 비적들이 괴상한 함성과 휘파람을 불어대며 달려와 순식간에 소부루를 둘러싸고 돌아갔다.
소부루는 겁에 질린 눈길로 자기 주위를 돌아가는 하나같이 머리에 검은 수건을 두른 비적들을 둘러보았다.
그중 허우대가 제일 크고 활집을 세개씩이나 멘 사나이가 말에서 훌쩍 뛰여내리더니 소부루에게 다가왔다.
《음, 보던중 제일 괜찮은 가인이군. 이 숲속에 뭘하러 와서 사는가?》
비적두목인듯한 그놈이 거만하게 물었다.
《집에 불초한 일이 생겨 산속에 들었소이다.》
《나인 혼자인가?》
《그렇소이다.》
《그럼 우리와 함께 지낼 의향이 없는가? 맨손으로 토끼를 잡는 솜씨를 보면 보통무술 같진 않은데…》
《소인은 죽으면 죽었지 비적은 되고싶지 않소이다.》
비적두목의 얼굴이 무섭게 이그러지더니 턱과 미간이 씰룩거렸다.
소부루의 말에 무척 분격한 모양이였다. 뒤미처 비적두목이 리성을 찾은듯 얼굴에 조소의 웃음을 띠였다.
《가인은 중요한걸 모르도다. 사람이 죽느니보다 비적이 되는것이

낫느니라. 우리도 노예로 살다가 죽으려는 마음도 먹었던 사나이들이다. 허나 이렇게 살아 주인놈들의 재산을 털고 곡식을 빼앗아먹으니 좀 좋은가, 하하…》

비적두목이 골짜기가 들썩하게 너털웃음을 쳤다.

《허나 나는 비적만은 되지 않겠소이다.》

《참, 가인이 마음도 곱구나. 허나 그 마음이 누구를 위한 마음인지 모르겠구나.》

두목의 목소리가 젖어드는것 같아 소부루는 머리를 들고 비적두목을 바라보았다.

왜 그런지 고개를 떨구고있는 비적두목의 눈귀에 눈물같은것이 번쩍이였다.

《…》

무거운 침묵이 잠시 그들사이를 스쳐흘렀다.

《어서 나인을 놓아주거라.》

이윽하여 비적두령이 령을 내렸다.

《아니, 저 생신한걸 맛도 안보고 놓아준단말이오이까?》

우악스럽게 생긴 비적이 닭알침을 꿀꺽 삼키며 아쉬워했다.

《우리는 주인놈들이 아니다. 저 나인도 너희와 처지가 같은 노예가 아니냐.》

두목의 눈물에 젖은 눈에는 분노의 불찌가 번쩍이였다.

우악스러운 비적이 주접이 들어 머리를 떨구었다.

《자, 가자.》

비적두목이 말에 박차를 가했다.

말이 뚜벅뚜벅 앞으로 나갔다. 비적들이 소부루를 한번 돌아보고 두목의 뒤를 따랐다.

문뜩!

무엇을 생각했던지 두목이 말을 세웠다.

그리고는 소부루를 돌아보았다. 아직 그 무슨 미련이 남아있는것인지.

《가인! 갈곳이 없거들랑 우리를 찾아오소.》

두목은 한숨속에 소부루를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돌려세워 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부루는 인정이 무른듯한 그리고

너무도 가슴아픈 곡절을 품은듯한 그 두목을 생각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허나 소부루는 흠칫 놀라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두목, 당신은 잘못 생각했소이다. 내 그 어떤 곤경속에서도 비적으로는 되지 않겠나이다.》

4

우마가 숯막에 나타났다.

애타게 기다리던 안타까운 마음인지라 소부루는 우마를 보자 울음부터 터져나왔다.

그저 기능노예로 먹고 사는 아버지의 그늘밑에서 세상과 등을 대고 살아가던 소부루가 산속에 들어와 맞다들린 첫 생활은 참으로 놀라운것이였다.

왜서인지 평온하던 마음이 뒤헝클리고 마음속에는 의문들로 가득 찬 알지 못할 생활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것이다.

《왜 그동안 소식이 없었소이까?》

소부루는 그리움에 젖은 눈길로 우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허나 우마는 입술을 깨물며 입을 열지 못했다.

애잔한 감정에만 차있던 소부루는 대번에 정신이 훽 돌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물을 좀처럼 모르는 강잉한 우마의 얼굴이 눈물로 질벅이 젖어있었던것이다.

《말해주오이다.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우마가 갑자기 어푸러져 땅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소부루는 그만 눈을 크게 뜬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지고말았다.

《소부루, 마음을 굳게 가지오이다.》

이렇게 말을 뗀 우마는 선뜻 다음말을 잇지 못하였다.

《우마, 말해주오이다. 아버님의 신상에 무슨 일 생겼소이까?》

소부루는 불길한 예감으로 하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불이란 놈이, 그 외눈배기 악당이 아버님을 해치고 집까지 불태워버렸소이다.》

우마는 억이 막혀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다.
《그게 정말이오이까?》
소부루는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으며 땅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금 외눈배기패들이 소부루를 찾겠다고 야단이오이다. 거기에 왕협이까지 나서서…》
억이 막혀 헉헉 숨을 톺던 우마가 말을 이었다.
《소부루는 꼼짝말고 여기에 숨어있소이다. 내가 내려가 아버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올 때까지 여기에서 움직이지 말아주오이다.》
초점잃은 눈으로 멀거니 허공을 쳐다보며 굳어져있던 소부루의 상반신이 힘없이 옆으로 쏠리더니 그만 기절해버리고말았다.
《소부루, 이게 어찌된 일이요. 정신을 차리오이다.》
깜짝 놀란 우마가 달려가 쓰러진 소부루를 안아일으켰다.
우마의 팔에 안긴 소부루의 백옥같이 창백한 얼굴에는 숨결도 느껴지지 않았다.
《소부루, 죽으면 안되오이다. 어서 정신을 차리오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우마가 정신없이 소부루를 흔들어댔다.
사나이의 무쇠통같은 가슴이 갈가리 찢겨나가는것 같았다.
외눈배기와 왕협, 주인놈들에 대한 분노가 노예의 가슴에 서리발처럼 어려 번개쳤다.
우마는 끝내 자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소부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거치른 사나이의 황소울음을 터치며 몸부림쳤다.
아, 정녕 인간의 운명이 어쩌면 이렇게 비참할수 있단말인가.
이것이 노예들의 운명이라면 노예는 무엇하려 이 세상에 태여났단말인가. 노예도 무지렁이가 아니어늘 어찌 이렇게만 살아갈수 있단말이냐, 이렇게만 짓밟힐수 있단말이냐. 무서운 항거의 불덩이가 우마의 가슴을 치받으며 용을 썼다.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난 우마가 하늘에 대고 주먹을 흔들며 무언가 알지 못할 소리를 웨쳐대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나무우듬지에 앉아 지켜보던 흉물스러운 산까마귀 하나가 눈을 희번뜩이며 까욱까욱 울어대다가 어디론가 날아가버리고말았다.
우마는 겨우 정신이 든 소부루를 초막안에 눕혀놓고 산에서 내려갔다.
그때 숲속에는 우마의 뒤를 밟아온 한 괴한이 몸을 숨기고있었다.

피한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쥐여져있었다.
마불의 령을 받고 소부루를 추적해온 졸개였다.
왕협은 소부루를 자기가 차지하지 못할바에는 그 미인을 그 누구도 향유하지 못하게 아예 죽여버릴 야심을 품었던것이다.
이때 초막앞으로 흐르는 내물을 따라 과하마 하나가 정신없이 달려오고있었다.
말의 등에 몸을 바싹 붙이고 말을 몰아가는 사나이의 초조한 얼굴에는 구슬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초막에서 멀지 않은 내가에 말을 세운 사나이는 비호처럼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사나이가 누군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우마가 멀리 사라지기를 기다렸던 숲속의 피한이 초막으로 은밀히 다가갔다.
초막입구에 다가붙은 피한은 단검을 뽑아들고 초막안을 살폈다.
사위를 한번 둘러본 피한은 단검을 뽑아들고 초막안을 살폈다.
자기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모르고있는 소부루는 허탈상태에 빠져 초막벽을 멀거니 바라보고 앉아있었다.
사위를 한번 둘러본 피한은 단검을 꺼내들고 초막입구로 육박해들어가려 했다.
순간 어디선가 올가미가 날아와 피한의 목을 걸어챘다.
올가미에 목이 걸린 피한은 비명을 지를새도 없이 초막입구에서 끌려나왔다.
그러자 검은 복면을 쓴 사나이가 덮쳐들며 피한의 가슴에 단검을 박았다.
피한의 비명소리에 정신이 든 소부루가 초막입구로 뛰여나왔다.
초막입구에서 벌어진 피의 살륙을 본 소부루는 두손으로 입을 막으며 뒤걸음쳤다.
《소부루, 너는 무엇때문에 위험한곳에 와있는고?》
복면의 사나이가 질책하듯 꾸짖었다.
소부루는 온몸을 우들우들 떨며 복면의 사나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무서워할것 없다.》
정체모를 사나이가 복면을 벗어제꼈다.
순간 소부루는 깜짝 놀라 굳어졌다가 사나이의 발밑에 엎어지듯 쭒

어앉아 머리를 숙였다.

그는 뜻밖에도 왕협장군과 함께 자기네 눅부리터까지 마차를 타고왔던 그 태자를 알아보았던것이다.

태자 장황은 더덩쇠의 놋부리터에 왔다가 소부루를 본 다음부터 안절부절못했다.

꿈속에서마저 비천한 노예의 꽃같은 얼굴이 오락가락했다.

궁중의 3백궁녀중에도 비천한 노예 소부루의 미모를 따를 궁녀가 없었다.

장황의 넋은 소부루의 미모에 홀딱 반해버리고말았다.

왕가의 례의도덕으로 교육을 받은 장황은 소부루문제를 허술히 다루고싶지 않았다.

피치 못할 올가미로 비천한 가인을 왕궁으로 끌어온 다음 자연스럽게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고싶었다.

능구렝이처럼 로회한 장황은 왕협의 눈길에서 소부루를 넘겨다보는 속심을 꿰뚫어보게 되였다.

왕협이란놈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장황은 왕협의 주위에 자기의 끄나불들을 붙여놓았다.

그 끄나불을 통해 왕협이 외눈배기를 시켜 자객을 소부루가 숨어있는 산중에 보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급해맞은 장황은 누구도 모르게 궁중을 빠져나와 끄나불들을 통해 이미 알고있던 소부루의 초막으로 달려왔던것이다.

《태자님께서 어찌 이 험한 산중에까지 오셨나이까?》

은방울 굴리는듯한 소부루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서 일어날지어다. 어서!》

왕자는 한걸음 다가와 땅에 엎드려있는 소부루를 다정히 일으켜 세워주었다.

《나는 그대를 보러 왔노라.》

얼굴에 웃음을 짓고 소부루의 얼굴을 쳐다보는 태자의 눈이 음흉하게 이글이글 타번졌다.

배암을 본듯 흠칫 놀란 소부루는 당황하여 머리를 떨구었다.

사나운 풍랑에 빠져든 쪽배신세랄가 가슴이 울렁거리고 온몸이 떨렸다.

(태자가 어찌 이 비천한 계집에게 저런 눈길을 주는것일가?! 나는 어쩌면 좋을가?)
소부루의 몸은 황구렝이에게 휘감긴 메새처럼 바르르 떨었다.
(어찌하면 태자의 저 집요한 눈초리에서 빠져나갈가. 이제는 더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이런 때 우마라도 가까이 있었으면…)
소부루는 어떻게 자신을 다잡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소부루, 나와 함께 왕궁으로 입궐해야겠다. 나는 소부루를 궁녀로 등용하기로 부왕님께 말씀드렸노라.》
소부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우마를 어쩌고 내가 궁녀로 간단말이냐.)
억이 막혔다. 푸르른 산천이 숯덩이처럼 꺼멓게 보였다.
《내가 소부루에게 무엇을 숨길소냐. 나의 마음속에는 오직 소부루 하나여서 장차 왕비로 맞아들일것이니 몸을 정히 해주기 바라노라.》
《저같이 비천한것이 어찌 왕비로 되오리까. 롱담도 너무 엄청난가 하오이다.》
소부루는 태자가 자기 한 말을 취소해주기를 바라며 가슴을 조이였다.
《이것은 어명과 같은것이라 다른 생각 말기를 바라노라. 자, 차비를 하라.》
태자가 독촉했다. 당황해 어쩔줄 모르던 소부루가 태자앞에 엎드려 머리를 숙였다.
《태자님, 저도 이 세상의 인간이온데 좀 생각할 여유를 주어야 할것이 아니오이까. 하루밤 혼자서 생각케 시간을 주소이다.》
《음—》
소부루의 간절한 청을 듣고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던지 장황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끝내 승인하고야말았다.
《래일 마차와 시종을 보낼터이니 별일없이 처신할지어다.》
《알겠사옵니다.》
소부루가 머리를 조아렸다.
장황이 사라지자 소부루는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두손으로 얼굴을 싸쥔채 울음을 터쳤다.
모든 화단을 피해 산속깊이에 숨었건만 불행은 달빛아래 그림자처럼 그를 뒤따랐다.
(아버지, 이 일을 어쩌면 좋소이까. 어찌하여 나는 이런 고통을 겪

어야 하나이까?)

생각할수록 억이 막히고 분했다.

이름 못할 모지름과 안타까움속에 몸부림치던 소부루는 그만 불시에 굳어지고말았다.

문뜩 남다른 자기의 미모가 이 불행을 가져오는 화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밀려들었던것이다.

자기의 얼굴이 이처럼 엄청난 불행을 낳았다는 확신이 들자 소부루는 깜짝 놀랐다.

부모가 낳아준 어쩔수 없는 이 미모가 어찌 나의 죄로 된단말인가.

어찌 이 아름다움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단말인가.

아름다움이 나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갔고 아버지를 죽였으며 우리 가정을 영영 파란시켜버렸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서 사랑하는 우마마저 앗아가려 한다.

어찌할수 없는 절망감이 소부루의 가슴을 무섭게 압박했다.

죄아닌 그 미모로 하여 자기는 미래의 삶도 사랑도 혈육도 모두 빼앗겨버렸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무엇때문에 필요하단말인가.

무서운 각오가 소부루의 마음속에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하였다.

왕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재앙을 입을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순종하면 자신은 영영 신세를 망치고말것이다. 그럴바엔 차라리…

소부루는 활랑거리는 가슴을 움켜쥐고 눈을 감았다.

절망에 잠긴 우마의 얼굴이 눈앞에 안겨온다.

《소부루! 그러지 마오! 제발 모진 마음을 먹지 마오!》

우마의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이번에는 흉물스럽게 웃는 왕자의 낯짝이 안겨왔다.

《소부루,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우마를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단말이야!》

《아!》

소부루는 신음소리를 지르며 눈을 번쩍 떴다.

그럴바엔 차라리… 원한의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결별하리라.)

소부루는 품속에서 단검을 빼들었다. 단검을 잡은 손이 우들우들 떨렸다. 노기가 번쩍이는 눈길로 날카로운 단검을 쏘아보던 소부루는 무시

무시한 비명을 지르며 단검을 들어 왼쪽 눈 옆으로부터 볼, 입을 거쳐 턱밑까지 자기 얼굴을 쭉 째버렸다. 우마가 초막에 당도한것은 그날 해질녘이였다. 피가 랑자한 초막안을 본 우마는 가슴이 철렁하여 맥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늦었구나. 아, 이 일을 어쩌면 좋단말인가.)

우마가 땅을 치며 통곡했으나 소부루의 아름다운 그 목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 이리하여 마음씨 어지고 뛰여난 가인이였던 소부루는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자취를 감추어버리고말았다.

비천한 노예 우마

1

태자 장황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솟아올랐다.

소부루가 종적없이 사라져버린것이다.

이럴줄 알았으면 그때 숯구이막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 소부루를 끌어올걸 그랬다는 때늦은 후회가 장황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장황은 소부루의 종적을 찾으려 여러곳에 심복을 파하고 은밀히 마불의 졸개까지 잡아다 족쳐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선불맞은 이리마냥 궁성안을 싸다니던 장황은 문득 더덩쇠의 놋부리터에 갔을 때 소부루를 지켜보던 왕협장군의 야심에 불타던 눈길이 떠올랐다.

(옳지, 벌개같은 왕협의 작간이로구나.)

장황은 노호하여 왕협을 불러들였다.

왕협도 소부루가 자취를 감추었다는것은 금시 초문이여서 두눈만 데룩거리며 어쩔줄 몰라했다.

닭쫓던 개신세가 된 장황은 왕협에게 당장 소부루를 찾아 대령시키라고 호령했다.

《알겠소이다.》

왕협은 장황앞에 엎드려 세번이나 거퍼 절을 하고는 태자의 방을 나

섰다.
아닌밤중에 홍두깨라고 없어진 소부루를 나보고 찾아내라니…
혼자 두덜거리며 별궁을 나서던 왕협은 자기도 모르게 환성을 지르며 무릎을 쳤다.
생각이 우마에게 가닿았던것이다.
우마놈이 숯구이막에 드나들었으니 틀림없이 소부루의 행처를 알고 있을것이다. 즉시 우마를 잡아들였다.
그러나 잡아다가 이레동안을 달구었는데도 오직 모른다는 한가지 대답뿐이다.
허술히 얕잡아본 노예놈이 보통이 아니라는 야릇한 공포감까지 들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불이 이는 속을 독한 술로 다스리고있던 왕협은 문소리에 얼굴을 들었다. 우마를 문초하던 감노였다.
감노는 주접이 들어 주춤주춤 왕협앞에 다가오더니 무너지듯 엎드렸다.
《넌 똥구뎅이에 빠진 개새끼처럼 왜 그 모양이냐?》
술에 흠뻑 취한 왕협은 자기의 부하를 노려보며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욕을 해댔다.
감노는 상전앞에 엎드린채 입을 열지 못했다.
《아가리에 바위돌을 처박았느냐. 더러운 개자식. …》
왕협은 감노의 멱살을 틀어쥐고 잡아일으켰다.
《말하지 못할테냐, 이놈!》
왕협의 우악스러운 손탁에 목덜미를 틀어쥐운 감노는 숨이 막혀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갔다.
《흥, 좋아. 그럼 내가 심문할테다. 어디 네놈이 내 손탁에 불지 않나 두고보자.》
왕협은 뒤번 껄껄 트림을 하더니 문쪽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죽은듯이 엎드려있던 감노가 일어나 왕협을 부축했다.
우마는 벌써 며칠째 밤이면 온갖 모기, 곤충들이 달려들어 피를 빨아먹는 숲속에 지어놓은 구류장에 갇혀있었다.
온 하루 무서운 매속에 심문을 받고 구류장에 들어오면 애기주먹같이 작은 밥덩이와 물 한사발이 그를 기다린다.
그것이 그의 육체를 보존케 하는 하루식량의 전부였다.
우마는 온몸을 쑤시는 모진 아픔에 신음하면서 차거운 흙바닥에 엎

어진채 움직일념을 못했다.

방금까지 소부루의 출처를 대지 않는다고 감노에게서 매질을 당하다가 옥안에 던져진터였다.

살창가까이에 놓은 넙적한 돌우에 놓여진 밥 한덩이가 눈앞에 비껴왔으나 거기까지 손을 뻗칠 힘조차 없었다.

짐승의 가죽으로 겨우 사타구니를 가리운 우마의 가마밑둥처럼 새까맣게 탄 벌거벗은 몸의 가로세로 난 채찍자리에서 벌건 피가 내배이고 장작개비에 맞아 툭툭 살이 터져오른 상처에서는 피고름과 함께 진물이 흘러내렸다.

몸뚱이가 못견딜 정도로 쓰리고 온몸이 쑤시지 않는곳이 없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쇠사슬에 칭칭 감기운 우마는 살창 한쪽에 등을 기댄채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눈앞이 아지랑이에 싸인듯 아물거리고 피뜩피뜩 정신이 흐려지군했다.

그래도 눈앞에서는 울고있는 소부루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소부루, 그대는 과연 어디로 갔단말이냐, 단 한번이라도 그 모습을 볼수 있다면 이다지 피롭지 않으련만…)

우마는 안타까이 마음속으로 물었으나 소부루는 대답이 없었다.

우마는 소부루가 자기가 없는새에 그 어떤 악한들에게 잡혀갔으리라고 추측하고있었다. 틀림없이 악한들에게 욕을 당하고 벌써 이 세상사람이 아닐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갈마들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듯이 저려오고 눈앞의 모든 빛발이 사라져버리는것만 같았다.

우마는 차거운 땅바닥에 누워 몸을 비틀며 신음했다.

《우마, 일어나!》

머리우에서 벼락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겨우 눈을 뜬 우마의 눈에 험상궂은 시위두목의 얼굴이 비쳐왔다.

《왕협장군께서 너를 부르신다. 어서 일어나지 못해!》

시위두목이 참대몽둥이로 우마의 등을 사정없이 짓조졌다.

우마는 일어나보려고 애를 썼으나 몸이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았다.

《허우대 큰 놈이 무슨 엄살이야. 어서 일어나, 이 노예놈아.》

시위두목이 이번에는 창끝으로 우마의 가슴을 건드리며 호령했다.

아무리 그래야 몸을 일으키지 못하자 시위두목은 할수없이 제놈이

그를 일으켜세워 부축했다.
시위두목은 우마를 왕협장군앞으로 끌어왔다.
마교차우에 반정신이 나간듯 얼근해 앉아있던 왕협이 게슴츠레한 눈을 맥없이 올리떴다.
《네―네놈이 우―우마란― 놈이야?》
왕협은 혀가 돌지 않아 겨우 떠듬거렸다.
《그렇소이다.》
우마가 겨우 몸을 가누며 왕협의 마교차앞에 주저앉았다.
《음, 네놈이 감히 소부루를 빼돌렸단말이지.》
왕협이 비틀거리며 마교차에서 내려섰다.
《그런 일은 전혀 없소이다.》
우마가 당황하여 중얼거렸다.
《바로 대지 못할테냐! 네놈이 숯구이막으로 다닌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왕협의 게슴츠레한 눈에 서리발같은 독기가 어렸다.
그 서리발이 몸에 닿으면 그대로 얼어버릴듯 했다.
《숯구이막에 갔던건 사실이오나 소부루가 어디 갔는지는 전혀 모르오이다.》
우마가 땅에 머리를 대고 대답했다.
《이 비천한 노예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고나. 야, 내 채찍을 가져오너라.》
왕협이 시종에게 호령했다.
시종이 소힘줄채찍을 가져다주자 왕협은 정신없이 우마를 조겨댔다.
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툭툭 터져나가며 피와 살점이 튀였다.
《이래도 모르쇠할테냐. 미련하고 비천한 노예놈아. …》
왕협은 악을 쓰며 더욱 미쳐 날뛰였다.
몸을 꿈틀거리던 우마가 겨우 머리를 들고 악귀같이 날뛰는 왕협놈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땅바닥에는 진한 피가 곬을 지으며 흘러내렸다.
《이 미련한 노예놈아, 아직도 버틸 심산이냐. 이놈, 이놈, 어디 견디여봐라.》
정신없이 채찍질하던 왕협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지 채찍을 놓고 우마에게 다가갔다.

살벌한 채찍밑에 마지막기력마저 깡그리 빼앗긴 우마는 땅바닥에 피를 깔고 쓰러진채 한마디의 신음도 지르지 않았다. 왕협은 우마의 귀를 비틀어쥐고 얼굴을 돌렸다.
창백한 얼굴에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
《뭣들 하는고. 이 더러운 송장을 썩 가져다버리지 못할가.》
왕협이 피묻은 채찍을 집어던지고 옷자락에 손을 썩썩 문질렀다.
시종들이 나와 우마의 팔을 하나씩 쥐고 쳐들었다.
죽은줄 알았던 우마의 코끝에 숨결이 느껴졌다.
《아직 죽지 않았소이다.》
시종들이 주저했다.
《죽었던 안죽었던 마찬가지야. 어서 가져다 이리들한테 주지 못할가!》
왕협은 어쩔줄 몰라하는 시종들에게 악청을 돋구어 꽥 소리를 질렀다.
《알았소이다.》
시종들은 머리를 조아려 대답하고는 우마를 숲속으로 끌고갔다.
이때 요란한 자류마의 투레질소리가 들리더니 구류장앞으로 화려한 마교차 한채가 요란한 방울소리를 울리며 달려오고있었다.
나라 대신급이 타는 화려한 마교차였다.
세마리의 기름진 자류마가 하늘이 떠나가게 투레질하며 동시에 두굽을 번쩍 쳐들더니 뽀얗게 먼지를 피워올리며 멎어섰다.
마교차의 휘장이 들리자 참이 으리으리한 대신복을 떨쳐입고 마차에서 내렸다.
깜짝 놀란 왕협이 황황히 달려나가 니계상의 발밑에 머리를 틀어박으며 엎드렸다.
참은 본척도 않고 자기앞에 부복한 왕협의 시종에게 물었다.
《우마는 어디에 있느뇨?》
시종이 우들우들 떨며 겨우 손을 들어 가리켰다.
참은 노호한 눈길을 들어 시종이 가리킨 숲을 바라보더니 불호령을 내렸다.
《당장 내앞으로 우마를 끌어오지 못할가.》
그 소리에 놀란것은 왕협이였다.
우마가 참이 노예들중에서 가장 아끼는 대노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던

것이다.
그 노예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놓았으니 참이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다.
왕협은 등골로 진땀이 흐르며 가슴이 선뜩했다.
가슴이 조막만하게 졸아든 왕협은 참의 눈치만 슬금슬금 훔쳐보았다.
참은 왕협의 시종들이 끌어다놓은 우마를 바라보았다.
처음 참의 묵직하게 다물린 입술이 씰룩이더니 다음 관자노리가 풀떡거렸다.
벌기우리하게 피발이 선 참의 두눈은 분격을 느낀 야수의 눈빛처럼 번뜩이였다.
허나 참은 용케도 분격을 누르고 입을 다물고있었다.
자기의 노예대노가 이렇게까지 만신창이 되였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모양이였다.
바빠맞은 왕협장군이 참에게 련속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용서하시오이다. 제 아이들이 워낙 조폭하고 무지한놈들이여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나보오이다. 그 죄 죽어 마땅한줄 아오이다.》
참은 분노에 끓는 눈을 들어 왕협을 힐끔 치떠보고는 자기의 심복들에게 왈칵 화를 냈다.
《너희들은 뭘들 하고있는거냐. 어서 우마를 마차에 싣지 못할가.》
참은 분풀이를 해대듯이 손에 든 채찍으로 딱— 소리가 나게 허공을 후려치고는 자기 마차에 올랐다.
참의 심복들이 달려와 왕협의 시종들을 밀어내고 우마를 들어 마차로 날라갔다.
《어험, 가자!》
참은 아직까지 마교차밑에 엎드려있는 왕협과 그의 시종들을 마깝잖게 치떠보고는 출발령을 내렸다.
덜렁거리는 마교차에 앉은 참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우마가 꼭 잘못될것만 같아 불안했다.
힘꼴이나 쓰는 노예대노인 우마를 잃으면 여라문명의 여느 노예를 잃는것보다 더 큰 손해라고 생각하는 참이였다.
그래서 참은 가문의 귀중한 재산처럼 우마를 취급했다.
그런 우마가 조폭한 왕협장군에게 끌려가 매를 맞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로 달려왔으나 일은 벌써 저질러진 뒤였다.
참은 좀처럼 분격이 잦아들지 않았다.

왕협을 자기의 사위로 지목하고있지만 않다면 참은 자기의 남다른 그 야수의 기질을 마음껏 발휘했을것이다.

터놓지 못한 그 분격이 가슴에 가득 차오른 참은 애매한 마종에게 벌컥 역증을 냈다.

《말이 왜 이렇게 굼뜨냐?》

《예, 알겠소이다. 쩌어ㅡ》

급해맞은 마종이 채찍을 휘둘렀다.

살진 자류마는 대가리를 들며 투레질을 하더니 네굽을 놓아 내달리기 시작했다.

왕협은 얼이 나간듯 멀어져가는 참의 마차를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2

비천한 노예 우마는 며칠만에 죽지 않고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참은 우마가 죽지 않은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를 구리터로 보냈다.

우마가 없는 며칠간 구리돌이 나오지 않아 구리돌을 받으러 왔던 놋부리터주인들이 거의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참은 성이 나 마교차를 몰고 구리터로 나갔다. 듣던바대로 노예들이 태만하여 구리통들이 텅텅 비여있었다. 독이 오를대로 오른 참은 자기가 직접 채찍을 들고 노예들을 몰아대고싶었으나 나라의 대신이라는 체면이 있는지라 먹이를 덮치려는 이리의 상이 되여 험상궂게 감독을 불렀다. 채찍을 들고 웃동을 벗어제낀 털보가 달려와 참앞에 넙적 엎드렸다.

《주인님, 부르셨소이까?》

《너 이놈, 밥 처먹고 일하는 처신이 그게 다냐. 채찍은 두었다 뭘 하는것이냐. 채찍에 피가 묻지 않고야 무슨 구리가 나온다는것이냐.》

참은 소리를 낮추었으나 그속에는 속이 섬찍할 정도로 독기가 풍기고 있었다.

《알겠소이다. 내 채찍이 마르지 않게 주인님의 분부에 충실하겠소이다.》

털보의 말상이 악마도 무색할 정도로 무섭게 이그러졌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털보놈은 구리짐을 지고 굴입구로 비청비청 기여나오고있는

서너명의 노예들에게 달려갔다.
《 이 무지렁이같은놈들, 다리에 쥐가 뻗쳤다더냐. 왜 빨랑빨랑 나오지 못하느냐. 이 무지한놈들…》
털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러댔다.
얼굴에 채찍을 맞은 노예가 악—소리를 치며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였다.
손가락짬으로 붉은 피가 습새여나오고 그밑으로는 빠져나온 생눈알이 힘줄에 매달려 데룽거렸다.
마교차안에 비스듬히 몸을 젖히고앉은 참의 얼굴에 느슨히 웃음이 피여올랐다.
(이래도 구리를 안지고 나올테냐. 미련하긴 하늘소 뒤발통같은놈들…)
참은 못내 만족하여 껄껄 웃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예들이 겁을 먹어선지 아예 굴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황한 털보놈은 등뒤로 서리발같은 참의 눈길을 느끼며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감노를 사정없이 조겨댔다.
《이놈아, 노예를 부리라고 감노시켰지 이렇게 어슬렁거리라고 시킨줄 아느냐.》
채찍을 맞은 감노가 허둥지둥 굴속으로 달려들어갔다. 뒤이어 띠염띠염 굴아구리로 노예들이 기여나왔다. 기여나오는 노예들의 구리질통을 보면 시꺼먼 버럭들뿐이였다.
《이 개자식들아, 왜 이렇게 구리돌이 한심하냐.》
털보놈은 채찍으로 소나 말을 후리듯 노예들을 조기며 악을 썼다.
사정없는 매질에 얼굴을 싸쥐며 노예들이 토설했다.
《구리돌이 없소이다.》
《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구리돌이 안나오면 다른 굴을 파면 될게 아니냐! 아직 혼들이 덜 났구나.》
또다시 털보의 채찍이 노예들의 등우에 사정없이 떨어졌다.
아무리 그래봤어야 노예들은 버티는 황소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구리터의 형세를 보고 돌아온 참은 속이 타서 죽을 지경이였는데 우마가 왔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노예들이 주인들의 말은 잘 안들어도 어떻게 된 노릇인지 대노인 우마의 말은 수걱수걱 잘 들었다.

참은 짐승무리의 길잡이처럼 노예들을 잘 끌고다니는 우마를 내심 귀하게 여기게 되였다.

길잡이만 잘 내세우면 구리돌이 버쩍 나와 쌓인다.

참은 자기의 무자비한 채찍보다 더 위력한 길잡이노예를 신비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만큼 우마를 귀하게 대하고 우마가 하자는것은 거의 그대로 내버려두었던것이다.

참의 집을 나선 우마는 한낮전으로 구리터에 가닿으려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갔다.

그동안 떨어졌던 날승이며 구두막 등 노예들이 그리웠다.

날승이며 구두막은 몰론이고 구리터의 모든 노예들이 자기들을 위해주고 대해주는 우마를 몹시 따랐다.

죽음에 처했던 노예들도 우마가 참에게 간청하여 살아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노예들은 우마를 맏형처럼 여기며 그를 위해 하늘에 주문을 외우고 빌기도 했다.

(그네들이 내 없는동안 어떻게 지냈을가.)

우마는 궁금한 마음을 달래이며 발걸음을 다그쳤다.

우마의 생각이 복잡해지는것만큼 발길에서는 불이 일었다.

눈앞에는 노예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빨리 가서 만나보자. 그리구 그동안 있었던 가슴아픈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자.)

바람이 불며 나무잎들이 우수수 설레였다. 어디선가 마교차의 방울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우마는 그 소리에 아랑곳없이 부지런히 걸음만 옮겼다.

방울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바로 우마 등뒤에서 들렸다. 우마는 저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들었으나 어떤 주인이 마교차를 타고가겠지 하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교차가 뒤에 바투 다가들자 우마는 길을 비켰다. 그의 옆을 지나치던 마교차가 문득 멎어섰다. 보통 주인집 나인들이 타고다니는 덮개를 얹은 화려한 마교차였다.

우마가 길을 잘못 비켜섰나 해서 좀 더 숲속으로 들어서는데 마차에 드리운 휘장이 들리우며 아릿다운 나인 하나가 방실 웃으며 얼굴을 내밀었다. 함함이 내리드리운 검은 머리, 새벽하늘에 반짝이는 별같이

아릿다운 눈매, 앵두를 문것 같은 생신하고 탄력있는 작은 입술… 우마는 대번에 주인집 귀동딸 나리를 알아보고 그앞에 머리숙여 례를 표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니계상어른의 분부를 받고 급히 온것이 아닐가?! 나에게 무엇인가 엄한 신칙을 하려는것이 아닐가?)

가슴을 조이는데 은방울 굴리는듯한 나리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어찌 머리를 숙이고 섰소이까. 어서 타오이다. 나도 놋부리터에 볼 일 있어 가오이다.》

우마는 깜짝 놀라 한걸음 더 숲속으로 발길을 들여놓았다.

(어찌 천한 노예가 주인집나인의 화려한 마교차에 오른단말이냐.)

우마는 더럭 겁까지 났다.

《어서 오르오이다. 나도 갈 길이 바쁜 사람이오이다.》

나리는 여전히 방실거리며 재촉했다.

《비천한 노예가 어떻게 감히 마교차에 발을… 무섭소이다.》

우마가 우들우들 떠는데 제비들이 높이 뜬 하늘가로 가인의 쟁쟁한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노예도 같은 사람이온데 어찌 마교차에 발을 올려놓지 못하겠소이까.》

나리가 웃음을 거두며 더 높이 포장을 걷어올렸다.

《어서 타오이다. 아씨의 성의를 마다하면 되겠소이까.》

시종나인이 마음놓으라는듯 방긋이 웃으며 재촉했다. 우마는 나리가 노예들을 동정하는것을 많이 목격한지라 더 사양하면 오히려 나리에게 불쾌감을 줄것같아 마교차에 올랐다.

《여기 와 편히 앉소이다.》

나리가 우마를 손수 이끌어 자리에 앉혔다.

동백꽃냄새같은 야릇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어서 가자.》

나리가 재촉하자 《끼랴》하고 시종이 말을 몰았다. 멎어섰던 마교차가 짤랑짤랑 경쾌한 방울소리를 울리며 미끄러져갔다.

나리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짓숙이고있는 우마를 바라보더니 낯색을 흐렸다.

함박꽃이 핀듯 환한 얼굴이 고통스럽게 이그러졌다. 그의 눈길은 우마의 벌거벗은 잔등우로 뱀처럼 꿈틀거리며 건너간 상처자국에 멎어있었다.

《아프오이까?》
나리의 꽃같은 손이 우마의 상처자국을 조심히 쓸어만졌다.
《아프지 않소이다.》
우마는 왜 그런지 목구멍이 뭉클하여 머리를 떨구었다. 그처럼 다정하던 소부루의 얼굴이 어른거려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다.
(아, 나의 소부루는 지금 어디에 있을고? 그 혼백이라도 찾을수 있다면 이 마음 이다지도 아프지 않으련만. 주인도 없는 그 혼백이 그 어느 거치른 산기슭에서 헤매이고있는것일가.)
바싹 말라든 우마의 두볼을 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우마, 소부루를 생각하고있소이까?》
나리는 젖어드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마는 놀라왔으나 아무말없이 흐느끼기만 했다. 그 어떤 고통속에서도 눈물을 모르던 우마였다. 살뜰한 눈길을 받아봤다면 오직 낳아준 어머니와 소부루의 눈길이였고 따뜻한 손길을 느껴봤다면 역시 어머니의 손길이였고 소부루의 손길이였다.
이 세상엔 살뜰한 손길이란 그 하나뿐인줄 알았던 우마는 상처에 동정의 손길을 받고보니 대장부의 그 억센 가슴도 눈물을 삭일수가 없었던것이다.
《주인아씨, 고맙소이다. 헌데 아씨가 어찌 비천한 소부루를 아오이까?》
우마가 눈물을 삼키고 의혹의 목소리로 물었다. 나리는 조용히 한숨을 그으며 차일사이로 내비쳐보이는 푸른 숲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고달픈 인생을 싣고 달리는 마교차의 덜렁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하던 나리가 입을 열었다.
《왕협장군이 아버지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아오이다. 소부루는 알지 못할 괴한에게 잡혀갔는데 간곳은 우마만이 알수 있다 했소이다. 그런데 우마는 입을 열지 않았다하오이다.》
나리는 동정의 눈길로 우마를 바라보았다.
《…》
꺼지게 한숨을 짓는 우마의 얼굴이 비장하게 이그러졌다.
《내가 아픈 마음 허비지 않았소이까?》
《아니오이다. 헌데 주인아씨의 마음속에도 말못할 아픔이 깃들어있지 않소이까?》

우마가 아픈 마음을 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먼 숲가를 바라보는 나리의 어글어글한 눈에 눈물이 고여올랐다.

《나도 근본은 비천한 노예오이다.》

나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무슨 당치 않은 말이오이까?》

우마가 깜짝 놀라 나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리는 더 말을 이으려 하지 않았다. 나리의 가슴속에는 불쌍한 노예였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못견디게 갈마들고있었다.

오직 이 세상에 노예로 태여난 죄아닌 죄로 하여 어머니는 죽었지만 나리는 유모의 젖을 먹으며 대노예주의 딸로 자라게 되였다. 나리가 열살이 잡히던 해 그의 유모는 불쌍한 노예 나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부터 나리에게는 눈물이 많아졌고 자기 집 노예들에 대해 무심히 보지 않았다.

비단옷과 금, 옥치레거리로 장식한 대노예주의 외딸 나리는 가슴속깊이에 비통한 설음을 안고 누구도 모르는 눈물의 바다를 헤쳐가고있었다.

우마는 나리의 가슴속에 녹아흐르고있는 이 설음을 알수 없었다.

3

나리의 마교차를 타고 구리터에 이른 우마는 곧장 노예들이 일하는 굴속으로 들어갔다.

습한 굴안은 랭기가 돌고 석수가 새여나와 굴바닥이 미끈거렸다.

멀리 가물거리는 불빛 하나가 나타났다.

이어 그뒤로 여러개의 불빛이 가물거리며 줄을 이었다.

구리돌을 진 노예들이 나오고있었다.

우마는 가슴이 뭉클하여 그 불빛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아마 저 앞에 선것이 구두막이 아니면 날승일지도 모른다.

우마는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가 막 그러안고싶었다.

노예들의 캄캄한 앞길을 밝혀주는 저 불빛, 저 불빛을 잃으면 버러지인생들은 암흑의 깊은 구뎅이속에서 영원히 썩어버릴것이다.

저 불빛이 있어 노예들은 길을 찾는것이며 저 불빛이 있어 설음에 찬

생활일지언정 노예의 생이 있는것이 아니냐.
우마는 노예들을 위한 작은 불빛이 되고싶었다.
쩔버덕—쩔버덕—진탕을 밟는 발소리가 가까와왔다. 한치도 가려볼 수 없던 주위가 휘뿌옇게 틔여졌다.
우마쪽을 향해 다가오던 선두불빛이 문득 멎어서더니 환성이 터졌다.
《우마형, 어데 갔다 이제야 오셨소이까?》
소리치며 달려오는것은 노예들의 막내동이 도풀이였다.
도풀이는 이제 겨우 열세살이였다.
지난해 참이 노예시장에 나가 힘꼴이나 쓴다고 사온 소년노예였다.
도풀이는 자기가 태여난 고향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몰랐다.
도풀이가 철이 들기전에 선곳은 노예시장이였고 그 불쌍한 인생을 맞아준것은 주인놈들의 모진 채찍뿐이였다.
그래도 남달리 든든한 체대와 그 모진 명줄이 그의 숨결을 하루하루 이어가게 했다.
우마의 품에 안긴 도풀은 엉엉 울음을 터쳤다.
끝없이 죽고 끝없이 이어지는 노예의 행렬에 들어서서 처음 맞이한 따뜻한 품은 우마의 품이였다.
주인의 모진 매를 막아준것이 그의 넙적한 등판이였고 힘겨운 팽이질을 대신해 힘을 나누워준것도 우마였다.
우마는 어린 노예의 어머니였고 고향이였으며 한줄기의 기쁨이였다.
《어데 갔다 이제야 오셨소이까?》
도풀은 우마의 맨 가슴에 눈물에 젖은 얼굴을 비벼댔다.
《도풀아, 나도 그동안 네가 보고싶었다.》
우마도 목이 메여 떠듬거렸다.
그러는새 불빛들이 우마를 둘러쌌다.
여기저기서 기쁨의 환성이 터지고 인사말들이 오갔다.
맨 마지막에 달려온 날승과 구두막이 우마를 그러안고 어쩔줄 몰라 빙글빙글 돌아갔다.
《우린 임자가 팔려간줄 알았네, 임자마저 없으니 어찌 마음이 썰렁하던지 이놈의 소굴에서 막 도망치고싶은 생각까지 들더라니, 허허. …》
구두막이 설음에 꺽꺽거리며 하는 말이였다.
우마가 구두막을 붙들고 타일렀다.
《임자들이 도망친들 어데로 가겠나. 아무데 가든 차례질건 노예살

이겠는데 그럴바엔 의지해서 함께 살아나가는게 낫지.》

모두들 우마를 맞이한 기쁨에 흥성거렸다.

홀로 서있는 불빛 하나가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다.

《저기 홀로 서있는것은 누구냐?》

뒤미처 그쪽에 눈길이 간 우마가 의혹에 잠겨 홀로 선 불빛을 여겨보았다.

《새로 들어온 주인노예옵니다.》

도풀이 씽긋이 웃으며 우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주인노예라니?! 그런 노예도 있더냐?》

우마의 눈은 더욱 둥그래졌다.

《좀전까지도 참주인의 돈도 주물고 글도 읽던 당당한 작은 주인이였소이다.》

《그런데 왜 노예가 됐다더냐?》

《주인의 돈을 떼먹었다 하오이다.》

구두막이 나서 작은 주인 선사가 겪게 된 참변을 그대로 설명했다.

도적놈들의 꾀임에 들어 많은 돈을 주인몰래 빼주었는데 그것이 참에게 드러나 모진 매끝에 노예로 된것이였다.

《그러니 주인노예가 맞기는 맞도다, 하하. …》

우마가 껄껄 웃었다.

《많이 이끌어주사이다.》

선사가 다가와 자기 주인앞에 하듯이 우마에게 허리굽히고 머리를 숙이였다.

《나는 주인이 아니니 머리를 드오.》

우마가 선사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고맙소이다.》

선사가 또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너도 이제부턴 노예이니 어쩌겠느냐. 우리 함께 땀을 흘리는수밖에…》

《고맙소이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아니니 마음 놓소. 허허…》

우마의 웃음을 따라 굴안에 웃음이 터져올랐다.

선사는 너무도 입에 익어버린 그 소리에 자기도 우스웠던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노예의 행렬속에 류다른 노예 하나가 끼여들게 되였다.

그들과 함께 질통을 진 우마가 굴을 나서려는데 땅이 흔들거리더니 뒤에서 무시무시한 폭음이 터지고 세찬 바람이 밀려오면서 홰불들이 일시에 꺼져버렸다.

그러자 굴속은 단 한치도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암흑으로 변해버렸다.

《굴이 무너진가보우!》

누군가 어둠속에서 부르짖었다.

《빨리 불을 밝혀라.》

우마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약삭바른 도풀이가 인츰 홰불을 다시 지폈다.

불을 달아든 노예들이 우마를 따라 굴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굽인돌이가 무너져 굴이 콱 막혀버렸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가?》

인정이 무른 구두막이 무너진 바위돌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을 했다.

《숱한 사람들이 저 안에 갇혔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말인가.》

노예들이 우마를 붙들고 울음을 터쳤다.

마치 그에게 구원의 열쇠가 있기나 한듯이…

《울고만 있으면 어찌하리오. 빨리 돌을 들어내고 굴을 열어야 할게 아니요.》

우마가 소리쳤다.

《이걸 무슨 힘으로 열겠수?》

여기저기서 한숨이 새여나왔다.

《그래도 열어야 사람들을 살릴게 아닌가. 빨리 돌을 들어내자구.》

우마가 앞장서 한아름이나 되는 돌들을 안아내며 피타게 부르짖었다.

노예들도 우마를 따라 돌들을 안아내기 시작했다.

천정에서 부슬부슬 잔돌들이 떨어져내렸다.

노예들이 한창 돌을 들어내는데 감노 하나가 등불을 켜들고 들어왔다.

《대노가 어데 있어?》

감노가 여기저기 불빛을 비쳐보며 물었다.

《여기 있네. 무슨 일인가?》

우마가 감노앞에 나섰다.

《구리짐이 나오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고 참어른이 야단치네.》

감노의 말이였다.

《굴이 무너져 술한 사람들이 갇혔는데 빨리 파내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우마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감노는 또다시 굴이 무너지지 않을가 겁이 나던지 황황히 달아나버렸다.

허나 얼마 있지 않아 감노가 되돌아 들어왔다.

《참어른이 이르기를 대노는 남은 노예를 거느리구 빨리 다른 굴로 옮겨가라 하오이다.》

《그러면 갇힌 노예는 어쩌라는거냐?》

우마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건 모르겠소이다. 어서 구리돌부터 져내라 하오이다.》

그러자 분격한 노예들이 웅성거렸다.

입을 악문채 잠시 생각을 굴리던 우마가 감노에게 일렀다.

《우선 사람들부터 구해놓고보자고 주인에게 일러주게.》

우마는 노예들을 구원하기전에는 이곳에서 뜨지 않을 결심으로 잔뜩 버티고 앉아 돌을 제껴나갔다.

그렇게 한겻이 지났으나 무너진 굴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동안 빨리 나오라고 열차례나마 참의 전갈이 들어왔으나 눈에 달이 오른 노예들은 무너진 굴앞에서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저녁녘에 이르러 참의 가병들이 달려들어와 노예들을 끌어내갔다.

가병들에게 두팔을 묶이운 우마가 성이 날대로 난 참앞으로 끌려갔다.

참은 황소숨을 씩씩거리며 이윽토록 우마를 노려보더니 시종에게 채찍을 가져오라 일렀다. 이제는 국가대신의 체면도 모두 잃어버렸다.

시종이 채찍을 가져오자 참은 채찍을 들고 우마앞으로 다가갔다.

《너 이놈! 대노라고 각별히 봐주었더니 이제는 주인도 몰라본다더냐, 이 괘씸한놈!》

참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다.

《노예들이 무너진 굴안에 갇혔소이다. 그들을 살려야 할것이 아니겠소이까.》

안타깝게 아뢰이는 우마의 눈에 피눈물이 고였다.

《그건 주인이 알아 할 일인데 너같은 노예놈이 무슨 상관이란말이냐. 임자는 나란말이다! 잃어버리면 또 사오지 않으리!》

《주인님, 허나 그들도 사람이온데 어찌 생매장하겠소이까. 인제라

도 분부를 내려 구원케 해주옵소서.》

《이 패씸한놈! 다시 한번 가르쳐주마. 그것들은 다 내 물건짝이야. 너두 그놈들두 다 내 마음대루 처분할수 있는 물건짝들이란말이다! 알아들었느냐?》

하지만 우마는 고집스럽게 되뇌였다.

《주인님께는 물건이오나 우리에게는 다 같은 사람이오이다. 사람의 목숨을 어찌 물건에 비길수 있겠소이까?》

참의 얼굴에 푸들푸들 경련이 일었다.

《좋다. 네놈이 얼마나 주인과 맞서나 두고보자, 이놈.… 뭣들 하고있느냐. 저놈을 묶어라.》

참이 머리끝까지 성이 올라 소리쳤다.

시종들이 달라붙어 우마를 바줄로 꽁꽁 묶었다.

참은 높이 쳐들었던 채찍으로 꽁꽁 묶인 우마를 힘껏 내리쳤다.

딱―하고 허공에서 아츠러운 소리를 지른 채찍이 휘파람소리를 내며 우마의 맨몸을 휘감았다.

채찍이 휘감겼던 어깨우의 살가죽이 툭 터지더니 피가 내리흘렀다.

그래도 우마는 돌기둥인양 버티고서서 눈섭 하나 까딱치 않았다.

《이놈, 패씸한놈, 네놈이 감히 주인과 맞서볼 심산이냐. 이 비천한 노예놈.》

으드득하고 이를 간 참은 사정없이 우마의 머리우에 채찍을 휘둘러댔다.

비석처럼 굴하지 않고 우뚝 서있는 우마의 잔등이며 어깨, 머리우에는 가로세로 채찍자리가 시퍼렇게 건너가고 터진 상처들에서는 진한 피가 흘러내려 온몸을 적시였다.

《이놈, 그래도 주인에게 뻗칠 심산이냐, 이놈―》

참은 채찍을 꺾어들며 불호령을 쳤다.

《난 죽어도 그들을 버릴수 없소이다.》

그토록 공손하던 우마의 눈빛에 무서운 적의가 번뜩였다.

참은 등골이 써늘해와 흠칫 몸을 움츠렸다.

《네놈이 이제는 주인과 맞서는구나. 내 오늘 네놈을 때려죽이고말테다. 네 죽은 혼백마저 나를 원망하지 못하게 말이다.》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채찍의 휘파람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사정없이 쏟아지는 채찍을 맞고섰던 우마가 으윽―하고 힘을 쓰며

번쩍 머리를 쳐들었다.
우마를 묶었던 바줄이 툭 끊어져나갔다.
우마는 온몸을 우들우들 떨며 참에게 한걸음 다가섰다.
《주인의 눈엔 무지렁이처럼 보이오이까. 우리도 사람이오이다.》
《뭐, 뭐라구. 이놈… 이놈이 사람을 죽인다.》
참은 질겁을 하여 아우성치며 몇걸음 물러났다.
그러자 참을 호위하는 가병들이 우마에게 달려들었다.
노호한 우마가 함마같은 주먹을 휘둘러댔다.
그러자 달려들던 몇몇 가병들이 도리깨에 콩꼬투리 튀여나듯 나가넘어졌다.
당황한 가병들이 벌떼처럼 우루루 달려들어 우마를 타고눌렀다.
《이놈들! 비키지 못할테냐!》
우마가 힘을 쓰며 일어났다.
우마를 덮쳐앉았던 가병들이 통채로 들렸다가 사방으로 나떨어졌다.
당황한 가병장이 가병들을 깡그리 긁어모아 우마를 다시 덮쳐눌렀다.
가병들의 무리속에 짓눌린 우마가 씨근덕거리며 거세찬 숨을 내쉬였다.
그때에야 턱을 우들우들 떨며 다가온 참이 지지눌리운 우마를 쏘아보았다.
《내 충견을 키웠는가 했더니 호랑이를 키웠구나. 가병장 있느냐.》
참의 호령에 가병장이 달려왔다.
《이놈을 귀마산숲속에 묶어놓아 피를 말려죽여라! 그리고 잡아들인 노예들은 모두 가두어넣고 단단히 지켜라. 날이 밝으면 몽땅 불태워버리고말테다!》
《알았소이다.》
가병장이 가병들을 이끌고 달려가자 뒤이어 그쪽에서 노예들의 아우성이 들려왔다. …
칭칭 두겹세겹 바줄에 묶이운 우마는 노예들의 아우성소리를 들으며 통곡했다.
온몸이 그대로 그 통곡의 분노속에 불타 재가 되는것 같았다.
자기의 살붙이와 같았던 노예들이 끌려가는 그 구류장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갇히게 되는 구류장이였다.
그래서 그 구류장을 가리켜 《귀마구류장》이라고 불렀다.
왕검성과 니계일대에서 귀마산은 죽음의 산을 상징했다.

주인들은 죄인들이나 노예들을 귀마산에 끌어다 죽였다. 그리고는 시체를 험한 귀마산속에 그냥 내버려두었다.
그러면 그날밤으로 맹수들이 달려들어 뜯어먹고는 해골만 덩실하게 남겨놓는다.
그래서 귀마산에 들어서면 초입부터 널린것이 눈구멍이 휑한 해골들이였다.
그래서 그 산을 일명 해골산이라고도 부른다.
노예들이 모두 《귀마구류장》에 갇혔으니 래일은 틀림없이 불붙는 장작더미에서 타죽어 해골마저 남지 않을판이다.
우마는 자기의 죽음보다도 동료들의 그 죽음에 더욱 가슴이 저렸다.
온몸이 밑뿌리가 빠진듯 허전했다.
오늘의 이 죽음을 당하자고 여직껏 허이허이 살아왔단말이냐. 오늘을 보자고 모진 고통을 묵묵히 삭여왔단말이냐.
원통함과 함께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항변이 불끈 솟구쳤다가 사라져버렸다.
이 세상에 어쩔수 없는 노예라는 자각이 겨우 일어선 항변의 기둥을 쓰러뜨린것이다.
남은것이란 비관과 허전, 가슴아픈 상실감과 무맥한 순종뿐이였다.
노예들이 《귀마구류장》에 모두 잦아들었는지 아우성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덜렁덜렁 마차 굴러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우마가 묶여있는 기둥앞에서 멎어섰다.
죄인을 싣는 마차였다.
마차우에 탔던 가병들이 내려섰다.
《비천한 노예놈아, 곰상궂게 구류차에 들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릴테다.》
가병장이 마차우에 실려있는 통나무로 간살을 막은 구류장문을 열며 소리쳤다.
여라문명의 가병들이 우마에게 날카로운 창끝을 내댔다.
결핏하면 찔러 요정낼 잡도리였다.
이때 구류차앞으로 화려한 마교차 한채가 다가왔다.
나리의 마교차였다.
마교차에서 나리가 내렸다.

가병장과 가병들이 창을 거두고 나리앞에 머리를 숙여 례를 표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눈이 둥그래진 나리가 기둥에 묶여있는 우마를 놀랍게 바라보며 물었다.
《이 비천한 노예놈이 주인어른에게 접어들었소이다.》
가병장이 나리앞에 와 머리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양순한 노예들이 접어들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게 아니뇨?》
《예에, 우마놈이 참어른이 말렸음에도 뿔을 세우고 굴에 묻힌 노예들을 살리겠다 하였소이다.》
《그것이야 사람이라면 다 해야 할 도리인데 뭐가 잘못됐다는것이뇨?》
《참어른은 그까짓 노예 몇명 잃는셈치고 새굴의 구리돌을 져나르라 했사온데 끝내 거역했소이다.》
나리는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시종들의 부축을 받으며 자기의 마교차에 올라탔다.
《자, 구류차에 들거라.》
우마를 붙들어맨 기둥의 바줄을 풀어낸 가병장이 창대로 위협했다.
참에게 달려들 때 같아선 란탕을 칠줄 알았는데 우마는 의외로 순순히 구류차에 올랐다.
구류차의 묵직한 통나무문이 덜컥 닫기고 쇠가 채워졌다.
구류마차는 덜렁거리며 구리터를 떠나갔다.
설동한 마음으로 마교차에 몸을 맡긴 나리는 좀처럼 안정할수가 없었다.
귀마산으로 가는걸 보아 우마는 오늘밤을 넘기지 못할것이다.
뭉클 불쌍한 마음이 나리의 가슴에 갈마들었다.
(나의 어머니도 저렇게 구류마차에 실려 귀마산에 가서 맹수들에게 뜯기워 죽지 않았느냐. 아름다운 얼굴이 죄가 되여 주인에게 끌려왔다가 불쌍하게 젊은 생을 마쳐버렸다.
그 길로 오늘은 친오랍처럼 느껴지는 우마가 끌려간다.
이제 그 길로 얼마나 많은 죄없는 노예들이 끌려갈것이냐.)
밤이 되여 자리에 들었지만 나리는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다.
그날 우마는 온몸에 진득진득한 꿀을 발리우고 숲속의 늙은 거목에 묶이워졌다.
날이 저물자 꿀을 바른 우마의 몸뚱이에 모기며 깔따구들이 구름처

럼 밀려와 피를 빨았다.

바늘끝을 틈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피를 빨아내는 흡혈곤충들을 보면서도 온몸이 꽁꽁 묶이운 처지라 어쩌는수가 없었다.

이렇게 온몸의 피를 빨리우고나면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정신을 잃게 된다.

우마는 점점 흐려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어디선가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우마가 정신잃기를 기다리며 주위를 빙빙 맴도는 모양이다.

여우뿐만이랴. 까마귀며 독수리 등 온갖 짐승들이 달려들어 우마의 눈을 빼먹고 창자를 끄집어낼것이다.

이제 한가닥 의식마저 잃게 되면 우마는 영원히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것이다.

아,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비통한 눈물이 우마의 움푹 꺼진 두볼로 흘러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든 고통을 참던 우마가 마침내 혼미의 나락속에 빠져드는데 어둠속에서 갑자기 부스럭소리가 들려왔다.

우마는 번쩍 정신을 차렸다. 죽음이 가까와왔다는 예감이 그의 뇌리를 비수같이 찌르고들었던것이다.

여우란놈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 벌써 오는가?

우마는 피발이 선 눈을 부릅뜨고 어둠속을 노려보았다.

어둠속에 세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이 고독한 산속에서 그래도 사람을 보니 무심중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힘껏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목이 꽉 잠겨 가르릉소리만 날뿐이였다.

검은 그림자 둘이 우마에게로 다가왔다.

달빛에 그들의 모습이 언뜻 드러났다. 하건만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우고있어 누군지 알수가 없었다.

검은 그림자들은 우마앞에 이르러 잠시 뜯어보는듯 하더니 아무말없이 우마의 온몸을 칭칭 동여맨 바줄을 날카로운 단검으로 끊어버리는것이였다.

바줄이 끊기자 우마는 무너지듯 주저앉아버리고말았다.

전신의 기운이 모조리 새여나간듯싶었다. 창황중에도 놀라운 생각이 들어 자기의 구원자들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그때 저쪽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서있던 나머지 한사람이 천천히 걸

어왔다.
그가 다가오자 우마앞에 선 두 사람은 옆으로 자리를 비켜섰다.
그 사람 역시 검은 복면을 하고있었다.
이윽토록 우마를 내려다보던 검은 복면은 잠시후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여 우마앞에 던져주는것이였다.
우마는 어리둥절해서 그 물건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서늘한 빛이 번뜩인다. 단검이였다.
우마는 의아해서 검은 복면을 쳐다보았다.
《단검을 받으소이다.》
순간 우마는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좀 갈린듯 하나 그것은 틀림없는 나인의 목소리였던것이다. 아니, 나인의 목소리라 하기에는 너무도 거칠고 짓눌린듯한, 오히려 어릴적에 무시무시한 옛말로 아이들을 울리군하던 로파의 목소리와 더 흡사하였다.
우마는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며 의혹을 품고 물었다.
《거긴 누구오이까?》
그러자 검은 복면이 음울하게 속삭인다.
《그런건 묻지 마시오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했소이다. 아무리 노예라 한들 사나이로 태여났을진대 그렇게 값없이 죽어서야 되겠소이까? 죽어도 복수를 하고 죽으소이다. 사람가죽을 뒤집어쓴 그놈들을 복수하고 죽으란말이오이다!》
나인의 속삭임소리는 부르짖음소리로 변하였다.
우마는 넋을 잃고 나인을 멍청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잠시후 검은 복면은 다시금 랭랭한 태도로 돌아가며 우마에게 이르는것이였다.
《부디 그 단검에 녹이 쓸지 않게 해주소이다.》
나인은 이 말을 하고는 홱 몸을 돌려 어둠속 숲속으로 걸어갔다.
두개의 검은 그림자가 나인의 뒤를 따라갔다.
우마는 그들이 사라진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가?
검은 수건을 쓴 그 나인은 과연 누구이고?…
그러던 우마의 눈길은 나인이 던지고 간 단검에 가멎었다.
이슬내리는 풀숲에서 단검의 예리한 날이 서늘한 빛을 뿜고있었다.

우마는 손을 뻗쳐 단검을 집어들었다. 나인의 목소리가 귀전에 들려온다.

《죽어도 복수를 하고 죽으소이다. 사람가죽을 뒤집어쓴 그놈들을 복수하고 죽으란말이오이다!》

단검을 거머잡은 우마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

이를 부득부득 갈고있는 우마의 눈에서는 무서운 서리발이 번뜩이였다.

목석도 그 눈을 봤더라면 몸을 떨었으리라.

다음날 아침 참의 집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귀마구류장》에 갇혔던 노예들이 어디론가 모두 새여나가고 마구간의 말 스무필이 종적도 없이 사라졌던것이다.

4

우마가 귀마산에서 종적을 감춘지 한달만에 왕검성밖에 있는 외눈배기 마불의 집이 깡그리 털리우고 불타버렸다.

외눈배기의 집은 온밤 불타 왕검성안에까지 검붉은 빛발을 뻗쳤다.

안청에서 첩을 끼고 정신없이 잠들었던 마불의 가슴에는 거치른 청동단검 한자루가 깊숙이 꽂혀있었다.

그 옆에서 자고있던 첩의 말에 의하면 머리에 하얀 수건을 동여맨 노예들이 말을 타고 와서 휘돌다 갔다는것이였다.

그 무리를 이끌고 온 두목은 키가 크고 허우대가 큰 노예인데 두눈에서는 무서운 독기가 펄펄 풍기더라는것이였다.

그 소식을 들은 참은 온 하루 밖에도 못나가고 방안에 박혀 줄곧 몸을 덜덜 떨었다.

그 억세게 생겼다는 두목이 우마가 아닐가 하는 불안이 때없이 가슴속으로 엄습해 들어왔던것이다.

그것이 우마라면 틀림없이 이 집으로 들어올것인즉 그렇게 되는 날이면 온 가문이 녹아나는것은 물론 집이 불타고 자기의 가슴에도 불피코 칼이 박힐것이다.

참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참은 부랴부랴 가병들을 두배나 늘여 온 집안 구석구석에 파수를 서게 하고 변소에 갈 때에도 가병들을 달고다녔다.

다음날은 왕검성의 악질장군 왕협의 집이 녹아났다.
온집이 깡그리 불타고 노예들은 한명도 남지 않고 없어져버렸다. 다행히 왕협장군은 왕궁에서 퇴궁하지 않아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였다.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노예의 무리들은 차츰 왕검성안에까지 공공연히 기여들어 소요를 일으켰다.
왕의 어명으로 성문의 수위를 배로 늘이고 왕검성의 곳곳에 고슴도치잔등처럼 군사들을 배치해놓았다.
그런가 하면 나라의 곳곳에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다니는 노예들은 무조건 잡아들이라는 어지가 내려갔다.
허나 소동은 그칠새가 없었다.
이제는 왕검성을 벗어나 전국이 들썩거렸다.
곳곳의 노예들은 사기충천하여 노예군들이 들이닥치기를 일일천추 기다렸다.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말탄 노예무리에 대한 소문이 신비한 전설처럼 온 나라 수천리 일판에 퍼져갔다.
사람들은 모여앉으면 신비한 노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에 올렸다.
용감무쌍하고 번개처럼 날랜 노예무리의 두목은 파연 누구일가 하는 놀라운 의혹이 점점 더 커갔다.
그 노예무리두목에게는 천하를 주름잡아 마음대로 날수있는 열두폭의 날개가 있다고 수군거렸다. 그런가 하면 그가 타고다니는 말은 겨드랑이에 구름같은 갈기가 있는데 그 갈기를 펼치면 하늘나라까지 단숨에 날아오른다고 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주인공이 다름아닌 어제날 참의 비천한 노예였던 우마라는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그리 많지 못했다.
묘령의 나인에 의해 귀마산에서 놓여나게 된 우마는 《귀마구류장》의 노예들을 거느리고 근거지로 정한 오박산으로 들어갔다.
오박산은 인가와 멀리 떨어진 깊은 오지였지만 산줄기를 타면 왕검성과 통한 큰 길과 인차 접할수 있었고 그 큰 길을 타면 소읍들파 국읍에 쉽게 닿을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외부에서 치기는 불리한곳이여서 노예폭동군무리의 근거지로서는 안성맞춤이였다.
노예폭동군무리의 두령 우마는 오박산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는 글과 병법을 아는 선사의 도움을 받아 일정한 폭동군무리를 정연한 싸움부

대로 만드는 일부터 하였다.

그렇게 이루어진것이 우마를 두령으로 하고 날승과 구두막을 부두령으로 하며 선사를 스승으로 하는 노예폭동군이였다.

노예폭동군은 부두령 날승과 구두막이 지휘하는 두개 군으로 가르고 그 군에는 또 아홉명씩의 시위대장들을 두어 필요에 따라 노예폭동군을 분할령솔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90명내외의 노예폭동군이 있었으나 점차 그 대오가 불어 얼마 지나지 않아 500명을 넘어섰다.

노예폭동군이 출전할 때에는 자기 무리를 구별하기 위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나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항간에서는 《흰머리무리》라고 불렀다.

《흰머리무리》가 항간에 나타날 때에는 굉장했다. 늙은이와 젊은이, 나인, 아이할것없이 마을의 강아지들까지 떨쳐나서 법석 끓어대며 환영했다.

그렇게 진출한 《흰머리무리》는 악질노예주들을 치고 번개같이 숲속으로 사라지군하였다.

두령 우마가 나타날 때에는 하늘에서 신이라도 내려온듯이 법석 들끓었다.

우마노예폭동군이 활동하는 니계지방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소스나언덕에 서있는 거대한 선돌을 마치 구세주처럼 숭상하는 풍습이 있었다. 바람 세찬 들판언덕에 우뚝 서있는 거대한 선돌, 그것은 니계지방사람들의 운명의 화신이였다.

나스마땅(니계지방을 다르게 이르는 말)우에 사람들이 처음 씨를 퍼칠때 기름진 나스마초원을 탐내던 마고종족이 대무리를 거느리고 나스마땅에 기여들었다 한다. 그때 나스마의 아들 아신고가 청동단검을 빼들고 놈들에게 항거해나섰는데 그만 놈들의 돌창에 심장을 찍히우고 쓰러지게 되였다.

이것을 목격하게 된 아신고의 련인 남부가 신단수의 아홉번째 잎을 따서 아신고의 심장에 붙여주었더니 상처자리가 아물고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하여 아신고는 다시 격전에 나섰다고 한다.

아신고의 정의의 단검앞에 마고족들이 모두 죽자 마고족 대추장 돌치간은 어쩔수없이 아신고와 맞서게 되였다.

그때 항간에서는 마고족 대추장에게 신기한 돌창이 있는데 만약 그 창

에 아신고가 찍히면 나스마의 샘과 강들이 모두 말라 모든 생명들이 일시에 종말을 고하고 나스마는 영원히 어둠속에 잠기게 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돌창앞에 청동단검 하나를 들고 맞선 아신고의 긴장은 이를데 없었다.

그 창에 찍히면 나스마는 영원히 암흑속에 잠기는판이다.

기회를 노리던 아신고가 대담하게 돌진하여 끝내 돌치간의 심장에 단검을 박았다.

그런데 그찰나 실수하여 돌치간의 창끝에 아신고가 손끝을 다치게 되였다.

강가에 섰던 아신고의 애인 남부가 강이 마른다고 소리쳤다.

아신고가 깜짝 놀라 바라보니 벌써 샘물이 마르고 강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신고는 단검으로 자기 심장을 찔러 말라버리는 강에 피를 쏟아부었다.

그러자 강에는 또다시 물이 흘러 나스마의 기름진 벌을 적시기 시작했다.

너무 좋아 강가에서 춤을 추던 남부가 애인생각이 나 달려가보니 아신고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였다.

그때 나스마사람들은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영원히 생명수까지 안겨준 아신고의 영웅성을 칭송하여 나스마언덕에 거대한 선돌을 세웠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나스마사람들은 선돌을 숭상하여 그앞에 모든 힘을 다해 치성을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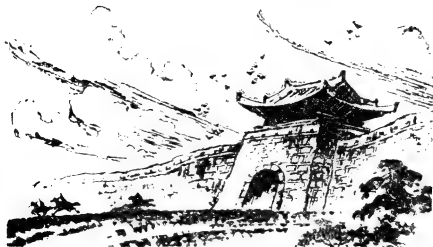
그 선돌만 믿으면 언젠가는 자기들에게도 행복이 돌아오며 이 세상의 모든 악한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세월은 여전히 무정했으며 나날이 세상에는 노예주들만이 번성하여 더욱더 노예들과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

그 악착한 노예주들을 쳐없애고 노예들을 구원하여줄 대장부가 나타난것이다.

누가 먼저 그렇게 불렀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때부터 사람들속에서는 《선돌장군》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

선돌장군— 짓밟는자들을 공포에 전률케 하고 짓밟히는자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 이름은 다름아닌 우마를 가리키는 부름이였다.

제 2 장
왕검성 푸른 하늘에 검은 구름 덮이다

뜻밖에 일어난 고조선의 비화

1

기원전 109년 마가을.

천지를 휘말아올리는듯한 황토먼지속에 류다른 행렬이 흘러가고있었다.

대오의 맨앞에 선 부여산 밤빛 자류마우에는 키가 장승같고 한치나 되

게 긴 검은 눈섭이 반쯤 뜬 눈을 가리우다싶이 한 낯설은 외풍의 군장이 앉아 졸고있었다.

그뒤에는 긴 창을 들고 활과 궁첩을 멘 일곱명의 갑옷에 싸인 장수 같은 사나이들이 호위하여가고있었다.

그는 고조선의 우거왕을 위세로써 눌러 자기 나라에 복속시키려고 왔던 오랑캐나라의 《사신》 섭하였다.

이 나라와의 교섭은 호박에 동침이라고 생각했다가 우거왕의 결연한 태도로 왕검성에서 쫓겨나다싶이 하게 된 섭하의 가슴속에서는 분노의 불덩이가 꿈틀거렸다.

이곳이 조선땅이 아니라면 그의 갑옷허리에 매달려 건들거리는 왕가시 철추가 피에 흠뻑 젖었을것이며 그의 호마발굽밑에는 억울하게 죽은 분풀이시체들이 너저분히 널렸을것이다.

그러나 조선땅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섭하의 머리속에는 3천년동안이나 동방을 찬란히 꽃피운 조선사람들은 인정많고 착한 사람들이지만 성난 범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조심해야 한다. 무한정 조심해야 한다.

지금 섭하의 머리속에는 고조선왕정에서 랭대받은 분풀이를 어떻게 할가 하는 무서운 모해가 꽉지 떨어진 유자처럼 무르익고있었으나 겉으로는 자는듯이 눈을 반나마 감고 건들거리고있었다.

그들의 뒤로 쉰보쯤 떨어진곳에 두마리의 기름진 황부루가 끄는 화려한 마교차가 따르고있었다.

황부루의 등에는 금과 동으로 만든 말판자가 번쩍거렸고 자갈물린 입에서는 흰 거품이 부글거렸다.

화려한 마교차덮개아래 방울이 달린 굴대에서 울리는 유정한 방울소리는 가락맞게 울리는 말발굽소리와 어울려 사람들을 신비한 세계로 이끌어갔다.

점박이무늬가 뚜렷한 문피(표범의 가죽)가 깔린 마교차안에는 고조선의 비왕 장이 앉아있었다.

그는 왕의 령을 받고 섭하를 바래우려 서쪽오랑캐나라와 경계를 이룬 패수로 가고있었다.

비왕은 우거왕 다음가는 최고관직으로서 대신들을 통솔하고 나라의 정사를 맡아보는 기둥과 같은 존재였다.

일찌기 궁중에 묻혀 머리에 흰서리내린 오늘까지 고조선정사에 기여한 그의 업적이 적지 않았다. 허나 지금 그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두고 번거로운 심뇌속에 빠져있었다.

오랜 기간의 내란과 전쟁끝에 제후들을 평정하고 주변종족들에 대한 정복사업을 일단락지은 서쪽오랑캐들은 드디여 침략의 예봉을 조선에로 돌리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유구한 력사와 문명을 자랑하는 조선, 풍부한 물산과 국력을 과시하며 동방의 강국으로 솟아있는 조선이야말로 천하제패를 노리는 오랑캐들에게 있어서 순탄한 배길의 암초같은 존재가 아닐수 없었다.

전례없이 방대한 군량이며 병쟁기들이 고조선과 린접한 변방새에 집결되고 18만에 달하는 오랑캐군사들이 변방으로 밀려들었다. 그리고는 섭하라는 자를 《사신》의 명목으로 고조선에 파견하여 국왕에게 《복속》을 설교하려고 시도하였었다.

비왕은 지금도 며칠전 우거왕앞에서 섭하가 떠벌이던 소리를 잊을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 나라는 남으로는 월을 굴복시키고 북으로는 흉노를 무찔러 령토는 사방 수만리에 달하고 인총은 무려 수천만에 이르오니 오늘날 천하의 민심이 우리 황제폐하를 따르고 만방의 물산이 우리 나라에 쏠리는것은 실로 하늘이 내린 뜻인가 하나이다. 하늘에는 두 태양이 있을수 없거늘 만일 대왕께옵서 하늘의 뜻에 응하시여 우리 나라를 섬기신다면 왕조가 영원히 보존될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리 암기라도 한듯 역관도 미처 따라외우지 못할 정도로 줄줄 떠벌이던 섭하는 웬일인지 갑자기 입을 다물어버렸다.

정전안에 떠도는 엄엄한 분위기에 저으기 위압되였던 모양이다.

《계속하라.》

룡상에 앉아있는 우거왕이 노기띤 어조로 한마디 하여서야 섭하는 머리를 조아리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대왕님, 부디 천명을 거역하지 마시옵기를 바라나이다.》

다음순간 분노에 찬 음성이 정전안에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무엄한지고, 무엄해!》

그바람에 머리를 조아리고있던 섭하의 목이 자라목마냥 움츠러들었다. 금시 칼날이라도 목에 날아드는줄 알았던 모양이다. 섭하는 떨리는 눈길을 가까스로 쳐들어 소리나는쪽을 바라보았다. 비왕 장이 불이

황황 타는 눈길로 자기를 노려보고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쭉 끼치였다.

섭하 못지 않게 어리둥절해진것은 정전안에 늘어서있던 대신들이였다.

언감생심 국왕앞에서 소리를 지르다니?!…

례의법도에 엄격하고 좀해서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비왕 장이였으니 대신들이 놀랄만도 하였다.

비왕의 입에서는 또다시 서리발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대의 나라는 일떠선지 아직 100년도 채 안되였고 우리 나라는 단군성왕님께서 세우신 이래 이날까지 3천년을 면면히 이어오거늘 지금 그대의 말은 아이가 어른에게 삿대질하고 들판의 이리가 하늘의 해를 향해 짖어대는것과 같은 해괴망측한 언사가 아니고 무어란말인고!》

준렬하게 꾸짖는 비왕의 단죄앞에 섭하는 말문이 막혀 쩔쩔맸다. 그런데 한쪽에 서있던 조선상 로인이 육중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기겁한 표정을 지으며 쌕소리로 비왕을 말리려 들었다.

《비왕어른, 대왕마마앞에서 이 무슨…》

로인곁에 있던 니계상 참도 한마디 끼여들었다.

《이러나저러나간에 일국의 사신이오니 자중하여 례의를 지키심이 마땅한줄 아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왕의 분개한 눈길이 그들에게로 날아갔다.

《공들은 무슨 말을 하는거요? 그래 나라의 존엄이 희롱당하는데도 잠자코 있어야 옳다는거요?》

불을 뿜는듯한 비왕의 질책에 니계상 참이며 조선상 로인은 얼굴만 붉힐뿐 아무런 대꾸도 못하였다.

그때 우거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들 하라. 이것으로 담언(외교회담)은 끝났도다.》

…

그때 일을 상기하느라니 다시금 불덩이가 가슴에 치밀어올라 비왕은 괴롭게 한숨을 몰아쉬였다. 눈앞으로는 맑고 풍요한 가을정경이 흘러가고있었다. 싱그러운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무르익은 낟알내가 풍겨오는데 길가에 피여난 이름모를 들꽃들이 너울너울 바람에 흩날린다.

활짝 트인 높푸른 하늘에서는 수리개 한마리가 한가로이 날아옜다.

여느때 같으면 시흥에 겨워 한수 읊었을런지도 모른다. 하건만 이 시각 비왕에게는 그 모든것이 아무런 흥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가도가도 끝이 없을상싶은 이 들길이, 지어는 말발굽소리에 맞

춰 가락맞게 들려오는 방울소리마저도 그의 마음속중압을 더욱 무겁게 해줄뿐이였다.

자기를 떠나보내며 하던 우거왕의 말이 비왕 장의 귀전에 들려왔다.

《오랑캐들의 기미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 비왕 장이 직접 나가 시찰해봐야겠노라. 국난이 험악하여 나라안은 갈수록 어지러워만지니 부디 나라를 위해 고심해주기 바라노라.》

그때 대왕의 얼굴에 떠돌던 어두운 그림자를 돌이켜보니 비왕 장은 절로 마음이 구슬퍼졌다.

우거왕의 우려는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일찌기 동방에서 제일먼저 문명시대를 열어놓고 수천년동안 번성과 위세를 떨쳐온 고조선은 이무렵 점차 내리막길로 들어서고있었다.

갈수록 곳곳에서 더욱 터져오르는 노예들의 폭동, 게다가 후국을 타고앉아 제왕처럼 행세하는 제후들의 전횡으로 하여 궁중안은 어느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던것이다.

비왕은 다시금 한숨을 몰아쉬며 저 멀리 어렴풋이 안겨오는 지평선만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비낀 짙은 수심과 깊은 심려, 그는 평온치 않은 나라의 운명을 두고 마음을 쓰고있었다. 나라의 위기가 느껴진 그때부터 그의 몸에서는 전복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엄한 그의 관직을 표시하는 룡띠가 매여진 전복우에는 청동갑옷이 걸쳐져있었다. 전복은 입었을지언정 조만해서는 갑옷을 걸치지 않는 비왕이였건만 오늘은 붉은 비오색갈기가 날리는 황금투구에 네개의 청동단검까지 차고 두조의 활을 넣고 167개의 청동활촉을 꽂은 활첩을 둘렀다. 그의 신발 또한 갖춤이 빠지지 않았다.

무려 90개의 청동단추가 붙은 가죽신은 방어용으로뿐아니라 장식용으로도 나무랄데가 없다.

불화살이 날리는 전장도 아닌 한갖 《사신》따위를 바래우는 일에 비왕이 이처럼 엄엄한 갑옷을 갖추었을 때에는 틀림없이 그의 남모르는 의도가 있으리라.

비왕의 뒤를 따르는 행렬 또한 장관이였다.

무려 3백을 헤아리는 창, 궁수들과 백마리의 천마, 50대의 마차, 150명의 짐군들이 따르는 대오는 사위를 분간할수 없는 서북의 황토먼지속에 휩싸여있었으나 대오는 흩어지지 않고 마교차를 따르고있었다.

제일 앞에는 3장(당시 길이의 단위)이나 되는 큰 창 세개를 각각 세명씩의 힘꼴이나 쓰는 장사들이 쳐들고 갔다. 대창은 싸울 때도 세명이 함께 붙들고 적을 찌르거나 쳐버렸는데 단번에 10여명의 적들도 도륙낼수 있었다.

그뒤로는 무기와 군량을 실은 마차들이 따르고 마차량옆으로는 시퍼런날이 마치 버선코처럼 휘여든 도끼를 든 도끼수들과 창수들이 섰고 대오의 뒤에는 궁수들과 함께 짐군들이 따랐다.

대오의 앞으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울긋불긋한 의장기들이 꽉 들어차 마치 기발의 장엄한 대오가 흘러가는듯 했다.

비왕은 마교차의 휘장을 들어올렸다.

《거기 시위대장 없느냐?》

비왕의 부름소리에 장수들의 행렬속에서 얼룩점이 있는 파하마가 떨어져나오더니 마교차를 향해 전속으로 달려왔다.

《시위대장 가부 대령했나이다.》

청동단추들이 달린 붉은 관복에 무쇠투구를 쓴 장수가 마교차밖에서 머리를 숙이며 령을 기다렸다.

《여기가 어디쯤이냐?》

비왕이 물었다.

《예이, 장하달줄기의 한끝으로 아뢰오이다.》

《장하달끝이라— 패수가 멀지 않았구나. 빨리 걸음을 다그치도록 해라.》

마교차의 휘장이 내리워졌다.

비왕은 피로한듯 두발을 쭉 펴고 자리에 누워 두마리의 불새가 수놓아진 금침(베개의 일종)을 끌어다 베였다.

당시 왕이나 대신급 관료들이 먼 거리를 갈 때 타고다니는 마교차는 안이 웬만한 작은 방만했는데 등받이에 기대여 편히 앉을수도 있거니와 침대에서처럼 편히 누워잘수도 있었다.

옆에는 문서나 애용품들을 넣어둘수 있는 장이 있어 글을 읽거나 글을 쓰고 좋은 벗을 청해다 심심치 않게 놀이도 할수 있었다.

비왕은 울퉁불퉁한 돌길을 달리느라고 몹시 흔들거리는 마교차에 몸을 맡긴채 지그시 눈을 감았다.

하관이 길게 빠진 얼굴, 성난 독수리나래같이 휘여든 눈섭, 철문같이 꾹 다문 두툼한 입술, 어느모로 보나 드팀없는 결패가 엿보였다.

비왕의 눈앞에는 근심질은 우거왕의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처럼 사리에 밝은 왕이 관례를 벗어나 한갖 오랑캐의 보잘것없는 《사신》따위를 바래게 한 그 진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우거왕이 명색상 《사신》을 바래워주고 서쪽새(서쪽국경)를 시찰해 보라고 한 그 뒤에는 분명 그 어떤 깊은 뜻이 깔려있음이 틀림없다. 여덟명밖에 안되는 섭하행렬을 3백여명을 헤아리는 창궁수와 도끼수, 막대한 군마와 마차, 군량이 따르도록 한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섭하가 대단한 급의 외국사신이여서 례의에도 없는 이런 요란한 바램행렬을 꾸린것도 아니요, 한갖 오랑캐군장나부랭이가 무서워 그런것은 더욱 아니였다.

틀림없이 서쪽새에서 그 어떤 불길한 조짐을 느꼈기때문일것이다.

비왕은 스스로 두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끝없이 생각을 굴리던 그는 몸에 실리는 곤기에 잠겨 어느새 아득한 잠의 나락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2

비왕이 섭하와 함께 패수로 떠나간 후였다.

군사를 담당한 대신 성기는 침전에 깊숙이 들어앉아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 우거왕을 찾아갔다.

편전은 텅 비여 쥐죽은듯 고요하고 후궁내실앞에는 무거운 휘장이 드리워져있었다.

비왕이 패수로 떠난 후 한번도 열려지지 않은 내실이였다.

성기는 가슴이 아팠다.

한두시간도 옥좌에 앉아있기 답답해하는 다혈질의 왕이 마음이 얼마나 번거로우면 휘장을 저렇듯 무겁게 드리우고있으랴.

제일가는 신하는 못되로되 그래도 왕이 가장 믿는 대신이자 장군인 자기가 왕이 저 지경이 되도록 문안 한번 드리지 못한 자책이 가슴을 후비였다.

지금 우거왕의 주위에는 참이나 로인, 왕협이나 왕담따위의 위선자들이 쉬파리처럼 시끄럽게 날아예며 불행의 쉬나 쓸고있을뿐 신하다운 신하가 없었다.

비왕을 멀리 떠나보낸 그것이 이처럼 왕의 가슴에 아픈 상처로 남을줄 알았으면 비왕의 앞길을 끝까지 막고 그대신 자기가 가야 했다는 때늦은 후회가 아릿하게 성기의 가슴을 적시였다.

편전을 지나 성기는 침전의 무거운 휘장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부복하였다.

《대신 성기 상감께 문안드리오이다. 때늦은 후회감이 있으나 소신이 비왕어른의 뒤를 따르를가 하오이다. 섭하란 원래 포악하고 간특하기로 소문난 악한이라 마음놓이지 않는데다가 요즘 서쪽방면이 편치 않소이다. 대왕님, 허락하여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성기의 간절한 소망을 왕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침전안은 쥐죽은듯 조용했다.

이윽하여 침전에서 무거운 한숨소리와 함께 침상에서 내려서는 임금의 기척이 들려왔다.

(과연 대왕님을 만나뵈올수 있을가?)

성기는 숨을 죽이고 가슴을 조였다.

긴장한 시간이 흘렀다.

궁성나인과 무악수들, 몸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친병마저 모두 퇴하게 하고 침전에 누구 하나 얼씬 못하게 하던 우거왕이 침상을 내려 친히 휘장을 들치고 성기앞으로 다가왔다.

성기는 이마를 침전바닥에 대고 엎드렸다.

《어서 일어서라.》

우거왕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고 기운차게 들려왔다.

《자, 어서 일어나래두.》

우거왕은 막역한 친구간처럼 성기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그를 일으켜세웠다.

주위에는 누구도 얼씬하는 사람이 없는지라 왕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지 않고 신하를 자유로이 대한다 하여 탓할 사람은 없었다.

《황공하오이다.》

성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어 똑바로 왕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것 역시 여느때 같으면 효수당할만큼 외람된 행동이였지만 우거왕은 탓하지 않고 성기를 침전의 자기 침상곁으로 이끌어갔다.

우거왕이 침상에 걸터앉자 성기는 성급히 침상앞에서 일곱보나 뒤로 물러나 엎어지듯 주저앉았다.

《대신, 그러지 말지어다. 나도 벗이 그리운 사람이거늘 하게하는 친구도 있어야 할게 아닌가. 헛허…헛…》

우거왕은 금관밑으로 허옇게 드리운 수염을 쓸어만지며 만족한 목소리로 크게 웃었다.

길숨한 얼굴에 하관이 빠르고 류달리 큰 귀방울이 거의 볼밑까지 처져내린 왕의 모습이 오늘은 끝없이 호방해보였다.

왕지네처럼 꿈틀거리는 두눈섭아래서 그처럼 엄엄한 랭기를 뿜어 신하들의 기를 꺾어놓군하던 우로 좀 치째진 눈도 오늘은 다심하게만 느껴졌다.

《나에게는 오늘처럼 기쁜 날이 별로 없었노라.》

우거왕은 스스럼없는 태도로 말했다.

《대왕님이 그러하오니 소신도 기쁨을 금할수 없소이다.》

성기는 어느덧 어려움을 잊고 우거왕을 대했으나 심중에는 더욱 의혹이 짙어졌다.

돌중태처럼 무겁던 왕의 심중을 하늘의 구름처럼 떠올린 그 묘한 힘이 어디서 생겨난것인지 도저히 알길 없었다.

혹시 왕이 고민끝에 실성하신것이 아닐가?!

의혹은 더해갔다.

《핫하하… 어찌하여 신은 안절부절 못하는고. 대장부의 기상을 어디다 버리고 나인같은 교태만 남았는고. 어, 헛허허…》

우거왕은 다시한번 수염을 쓸어만지며 만족하여 웃음을 터쳤다.

가슴노리를 지나 내려온 백반같이 희고 소담한 수염이 붉은 명주로 지은 왕의 제복 가슴노리에 붙인 범과 룡, 해를 수놓아 현란하게 번쩍이는 흉배를 지나 허리를 가로 건너간 눈부신 황금띠우에까지 드리워 흔들거렸다.

《황공하오이다.》

성기는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부복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어서 일어나라. 짐이 이토록 기뻐하는데 신이 그늘을 지으면 도리가 아니다. 난 신이 나의 침전에 나타나기전까지만 해도 앞이 캄캄했노라. 비왕을 떠나보낸걸 백번 후회했지. 왜 그런지 비왕의 행차가 안심찮아.》

우거왕의 얼굴에 한줄기 어두운 그늘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소이다.》

우거왕의 말을 받는 성기의 가슴이 미여지는듯 했다.

비왕 장은 우거왕과 피줄을 따지면 백부였지만 큰아버지라기보다 왕의 가장 절친한 충신이고 우거왕이 하늘처럼 믿고 지팽이처럼 의지하는 나라의 제일기둥이였다.

점점 간신이 늘고 충신이 적어지는 지금에 와서 우거왕은 비왕에게 마음과 온갖것을 다 의지하고 정사를 본다고 해도 파언이 아니였다. 비왕 장이 《사신》일행을 기어이 따르겠다고 요구한것도 있지만 실은 하도 서쪽변방이 어지러워 부득불 비왕을 통해 상세한 형편을 듣고 결심을 하여야겠기에 섭하의 바램을 구실로 변방순찰을 떠나보냈는데 후회가 막심했다.

허나 우거왕의 심중을 아프게 한것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나라의 충신이 중임을 걸머지고 위험한 길을 맡아 변방험지로 갔지만 누구 하나 근심하는 신하가 없는것이였다. 이것은 곧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신하가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냐. 나라의 대신은 대신마다 자기의 노예들을 불구기에 피눈이 되고 임금으로부터 더 많은 봉토를 받아 은근히 왕의 수하에서 떨어져 소국으로 분립하기를 바라며 갖은 모략과 행위를 다 저지르고있다.

그러나 그런자일수록 왕의 턱밑에 바싹 붙어 갖은 아양을 다 떨며 제가 충신이라 자처하는 법이다. 우거왕의 뇌리에는 력사에 락인찍힌 배신자들의 추악한 몰골들이 어지러이 갈마들었다.

더우기 우거왕의 가슴을 터지게 하는것은 왕의 《충신》으로 갖은 아첨을 다하던 상 력계경이였다.

그는 음흉한 침략기도를 가지고 이 나라 왕궁에 손을 뻗치려는 오랑캐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왕을 설유하였으나 우거왕이 끝까지 반대해나서자 노여움을 품고 2천여호의 자기 주민을 거느리고 진국으로 망명해버리였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걷잡을수없이 울분이 터져오른다.

왕정의 상들인 로인이나 참, 장군인 왕협과 왕담 등이 다 마찬가지이라고 생각되였다.

간신들의 도망과 망명으로 국력이 허술해지고 왕정안이 어수선한데다가 니계상 참을 위시로 대신들이 또다시 력계경의 뒤를 따르려고 보이지 않는 획책을 하는것이 분명한즉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유지해낸단 말이냐.

이것은 우거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심거리였고 가슴아픈것이였다.

우거왕이 이제 의거할데란 오직 비왕 장밖에 없었다. 그 비왕이 위험천만한 길로 떠났으니 근심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성기가 비왕의 행차를 그처럼 근심하며 안전을 기하기 위해 장의 행차를 따르겠다고 하니 우거왕은 갑자기 마구간 어지러운 구정물속에서 황금덩이를 얻어낸것만치나 놀라웁고 기뻤다.
우거왕은 이미부터 성기대신은 비왕이 키운 사람으로서 의협심이 강하고 나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신하라는것을 알고있었으나 이처럼 뜨겁고 정의감이 강한 인간인줄은 처음 알게 되였다.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거왕의 무거운 심중은 일시에 어디론가 날아가버리고말았다.
비왕과 같이 나라를 진심으로 받들려는 충신이 또 하나 있으니 충신이 그리운 우거왕으로서는 그 기쁨을 무엇에도 비길바가 아니였다.
비감에만 빠져있던 우거왕의 가슴속에는 새힘이 솟구쳤다.
이제 비왕 장이 변방에서 돌아오면 숨어있는 충신들을 찾아 국력의 기틀부터 튼튼히 다져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리라!
우거왕은 성기가 고마왔다.
대신이라기보다 자기의 혈육처럼 믿음이 가고 사랑이 갔다.
《대신은 일어나 가까이 와앉을지어다. 그간 말벗이 없어 답답했더랬는데 오늘은 그대와 더불어 시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싶노라. 하하하…》
우거왕은 또다시 즐겁게 웃음을 터쳤다.
《임금님, 황송하오이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어서 령을 내려주사이다. 한시바삐 비왕어른의 뒤를 따라야 하겠사옵니다.》
성기는 다시한번 간청했다.
우거왕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침전이 드르릉 울리게 호령을 했다.
《게, 누구 없느냐. 어서 편전을 열어라, 어서…》
그것은 일시 중단했던 정사를 본다는 왕의 엄격한 명령과도 같은것이였다.
편전아래 대령하고있던 관신들이 두쪽으로 갈라 편전을 막았던 사이문을 열어제꼈다.
한꺼번에 쏟아져들어오는 빛발과 함께 대신들이 달려들어와 룡상앞 좌우에 자기의 관명대로 갈라서고 궁내나인들이 곱게 화장한 얼굴에 밝은 웃음을 담고 갇자(자루달린 큰 부채)를 들고 왕의 뒤쪽 좌우에 갈라서서 흔들흔들 부채를 저어댔다.

그런가 하면 편전옆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한 악수들이 부드럽고 은은한 음악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침침하고 어둡게만 느껴지던 편전이 대번에 활기를 띠며 밝은 빛으로 꽉 들어차는듯싶었다.

게다가 룡상에 앉은 상감의 얼굴이 환하게 밝으니 온궁이 화애로워졌다.

《게 시위대장 없느냐?》

우거왕이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러자 임금앞으로 늘어선 신하들이 그 말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편전밖으로 전달했다.

《예, 여기 있소이다.》

편전밖에서 무장을 갖추고 서있던 구척장신에 눈이 치째지고 눈에 불이 이는듯한 시위대장이 달려올라와 왕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령을 기다렸다.

《즉시 나의 수병 3백을 떼여 성기대신을 호위하도록 하라.》

《알았소이다.》

시위대장이 세번 머리를 조아리고 일어서자 성기가 황황히 왕에게 여쭈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에게는 수병이 필요없소이다. 빨리 비왕어른의 행렬을 따라야 한즉 날랜 수하 셋이면 족할줄 아오이다.》

진심어린 성기의 말이였다.

《궁을 나서는데 신변에 별고 없겠느냐?》

근심이 짙은 우거왕의 얼굴에 안심찮은 그늘이 비꼈다.

《념려마소이다. 평민차림에 가장 정예한 수하를 데려가겠소이다.》

《대신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리하여라. 원로에 주의하기 바라노라.》

《황공하오이다.》

성기는 깊이 머리를 숙여 왕에게 읍하고 편전을 나섰다.

몇분후 간편한 사냥군차림에 단검을 차고 활첩에 활촉을 가득 채워멘 세명의 날랜 사나이들이 말을 타고 왕궁을 번개처럼 빠져나와 금나루언덕 뽀잇한 운무속으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3

비왕의 행렬이 패수가에 이른것은 5경(새벽 3~5시사이)에 이르러서였다.

머나먼 길을 무더위와 먼지속에 쉬지도 않고 줄곧 달려온 일행은 앞에 검푸른 나루(강)가 막아서자 그만 맥을 잃고 그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어느덧 패수에 이른것이였다.

패수는 적국과의 경계인것만큼 비왕일행의 행군은 끝난것이요, 섭하일행은 나루를 건느면 되는것이다.

당겨진 대궁처럼 팽팽했던 긴장감이 일시에 풀려서인지 휴령도 내리기전에 강가에 주저앉은 군사들이 코를 골아댔다.

고조선군사들과 좀 거리를 두고 말에서 내린 섭하호위군 일곱명도 말고삐를 붙들고 축축한 강변풀밭에 주저앉기 바쁘게 코바람으로 강물소리 요란한 패수가를 들었다놓는다.

마교군이 대가리를 휘저어대며 마교차를 끈채 강물로 달려들려는 말을 휘여잡느라고 진땀을 빼고있었다.

《그냥 두어라. 먼길을 달려왔으니 미물인들 얼마나 물이 먹힐테냐.》

마교차안에서 비왕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러고보면 비왕이 아직도 잠들지 않고있었던 모양이다.

마교군이 패수에 도착했음을 알리려 했는데 비왕은 벌써 그것마저도 알고있었다.

《더 나가면 위험하오이다.》

마교군이 가슴을 조이며 더욱 억세게 고삐를 틀어쥐였다.

《그냥 두어라.》

휘장뒤에서 비왕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나왔다.

마교군의 손아귀에서 풀려난 말이 코투레를 요란히 불어대더니 마교차주인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인듯 조심스레 마교차를 끌고 자갈과 모래가 깔린 나루로 나가 시원한 단물을 정신없이 마셨다.

어느새 대여섯명의 군장들이 홰불을 켜들고 달려와 비왕의 령을 기다리느라고 마교차옆에 늘어서있었다.

휘장이 걷히였다.

군장들이 든 홰불에 피로한 비왕의 얼굴이 얼른얼른 드러났다.
《머지 않아 날이 새겠는데 돌아가 군졸들을 휴식시키도록 하라. 망초군졸들만 내놓고 군장들도 푹 쉬여야겠다.》
《알았소이다.》
군장들이 깊이 머리숙여 읍하고 자기 위치로 달려갔다.
그때에야 비왕은 갑옷을 벗어놓고 마교차에서 내려 가벼이 몸을 놀려 먼 려행에 굳어진 허리와 팔다리의 근육을 풀었다.
이때 어둠속에서 자갈을 밟는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비왕을 호위하던 젊은 무사들이 긴장하여 비왕을 막아서며 창을 꼬나들었다.
《그만두어라. 사신인것 같다.》
호위병들이 창을 거두자 어슴푸레 밝아오는 강변에 두루마기처럼 늘어진 검은 덧옷을 걸친 섭하가 나타났다.
말이 마교차앞에 바싹 다가서자 섭하가 말에서 뛰여내렸다.
《비왕어른, 밤새 편안하셨소이까?》
섭하가 합장하고 머리를 숙였다.
《별일 없소. 먼길에 탈은 나지 않았소?》
《전장에서 뼈가 굳은 소신에게 이만한것쯤이 무슨 대수겠소이까?》
겸손한체 머리를 숙여보이는 섭하의 치째진 눈귀에는 비웃음이 고여올랐다.
《여기까지 무사히 환대하여 호위해주신 비왕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겠소이다. 우리는 잠간 쉬였다가 해가 오르면 패수를 건늘가 하오이다.》
《그게 좋겠소. 우린 여기까지 왔던 길에 패수가에서 교련을 며칠간 하고 떠날가 하오.》
그러자 바싹 긴장해진 섭하의 눈에 무서운 불꽃이 번쩍하더니 불새없이 사라져버렸다.
《좋은 생각이오이다. 이 패수가는 원래 이리들의 본거지여서 병졸들을 맹수로 키우기에 제일로 합당한곳으로 아오이다.》
비굴기가 배인 섭하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버리며 비왕은 훤히 동터오는 동녘하늘을 바라보았다.
《벌써 날이 밝는군.》
비왕이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럼 소인은 물러가겠소이다. 강을 건늘 때 찾아뵙겠소이다.》

섭하가 합장하고 투구쓴 머리를 숙였다.
《그리 하오.》
비왕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강가로 걸어나갔다.
푸른빛이 완연해지는 신비하고 청신한 하늘이 물결우에 그대로 쏟아져 내린듯 패수는 하나의 커다란 거울처럼 번들거리는데 맞은켠 릉선의 뚜렷한 산발들이 거꾸로 비껴들어 그 모습 장쾌하기 그지없었다.
비왕은 그 장중한 모습에 더욱 취하여 산천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환인님이 태백산 신단수밑으로 환웅아드님을 내려보내시며 무리 3천으로 이 땅을 일으켜세워 오직 짐승만이 욱실거리던 고적한 이 땅우에 처음으로 인간이 사는 세상을 세웠으니 그것이 이 땅의 첫 인류의 자취이니라.
해빛밝은 이 땅우에 천복이 떨어져 환웅님께서 단군이란 아들을 두어 피줄을 잇게 하고 이름높으신 겨레의 시조 단군왕검께서 평양에 도읍을 두고 나라를 세웠거늘 그 이름 빛나도다, 해솟는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이 세상의 가장 오랜 력사국 조선이 년년이 세월을 두고 번성하고 강대해져 그 넓음이 바다 다음 가느니라.
헌데 서쪽의 오랑캐족속이 오만하게도 침략의 기회를 노리니 원통하고 분격함을 하늘에도 비길수 없노라.…
비왕은 으스스 몸을 떨며 두주먹을 그러쥐였다.
독수리날개처럼 휘여올라간 검은 눈섭이 푸들푸들 떨며 땅을 차고 치솟아오를 기세였다.
《비왕어른, 날이 밝사온데 좀 쉬셔야 하지 않겠나이까.》
비왕의 뒤를 긴장하게 따르던 시위대장이 머리를 숙이며 조심히 아뢰였다.
그때에야 비왕은 자기 뒤를 따르는 호위군들의 존재를 의식한듯싶었다.
《너희들은 아직도 쉬지 않고 나의 뒤를 따랐느냐. 어서 마교차 있는곳으로 가서 눈을 붙이거라.》
비왕의 자애넘친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일없소이다. 비왕님의 신변이…》
《무슨 잔말이 그리 많으냐. 어른마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어서 가서 눈을 붙이도록 해라. 새벽경개도 좋은데 혼자 있고싶노라.》

좀 노염기가 어린 비왕의 목소리가 울리자 호위군 군졸들은 무춤무춤 물러가 마교차밑에 주저앉아 창을 깔고 어푸러져 코를 골아댔다.
비왕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알릴듯말듯 웃음을 지었다.
이것으로 강변우에는 비왕외에는 눈을 뜬 사람이 한사람도 없게 되였다.
섭하도 강변에서 좀 떨어진 쑥새밭의 풀들을 짓이겨 그우에 방포를 깔고 덧옷속에 감겨 푸룩—푸룩 입풀무질을 하고있었다.
비왕은 호위군도 없이 자연의 신묘한 정취에 빠져 신비한 바위들이 서있는 벼랑가의 강변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갔다.
그러던 비왕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졌다.
창경처럼 반듯한 물결우에 난데없는 나루배 하나가 그림처럼 떠서 이쪽 강변을 향해 천천히 움직여오고있는것이였다.
강변을 거닐던 비왕은 패수의 아름다운 물결우에 몸을 잠그고 평화롭게 떠오고있는 신비한 배에 눈길을 박았다.
날도 채 밝지 않은 아시새벽에 두 나라 경계의 강을 은밀히 건너오고있는 저 배의 주인은 틀림없는 간자(간첩)가 아니면 망명인일것이다.
비왕 장은 바싹 흥미가 동해났다.
만약 적측의 간자라면 잡아 문초할것이요, 망명인이라면 적측의 형국을 물어 알아낼것이다.
비왕은 배가 빨리 강변에 건너와닿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비왕은 자기와 불과 열보도 못되는 쐐기풀숲속에 우악스럽게 생긴 놈팽이 하나가 창을 들고 몸을 감쪽같이 숨기고있는것을 몰랐다.
섭하가 보낸 자객이였다.
그 창수로부터 조금 떨어진 풀숲에는 단검을 든 또 한놈의 자객이 숨어있었다.
만약 경우 창수가 창을 빗찔러 실패했을 때 두번째 자객이 비호같이 달려나가 날카로운 단검으로 비왕 장을 찔러눕힐것이다.
그것도 실패하는 경우에는 최후수단으로 섭하이하 여섯명의 무장인원이 한꺼번에 비왕 장에게 달려들어 요정내고는 그 길로 패수를 건너 도망갈 잡도리였다.
그 무시무시한 피의 살륙을 벌리기에는 지금이 꼭 안성맞춤이였다.
온 강변에 졸들과 장수들이 곯아떨어지고 몇몇 되지 않는 망초들도 창을 걸써 메고 졸음을 이기지 못해 순을 돌면서 끄덕끄덕 졸고있었기때문

이다. 거짓잠을 자고있던 섭하도 풀속에 숨어 비왕의 일거일동과 다가오는 배를 날카롭게 감시하고있었다.

비왕은 여전히 평화로운 마음에 잠겨 기슭으로 다가오는 배를 바라보면서도 저 배에 간자도 망명인도 아닌 위험한 악한이 탔으면 어찌할고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주위에 300이 넘는 자기 군사들이 있는데 그까짓 악한 하나쯤이 무슨 문제랴싶어 시위대장을 부르려다 그만두었다.

잔잔한 수면을 가르며 거침없이 미끄러져오던 배는 이쪽 벼랑밑의 빙빙 돌아가는 물굽이에 들어서자 문득 전진을 멈추더니 사납게 휘말려도는 물결을 따라 그 자리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그 밑이 소였던지 사품치며 돌아가는 물결속에 선수를 박으며 자맥질하기 시작한 배는 영영 가망이 없을듯 했다.

《원, 저런. 귀신목에 걸려들었으니 저 일을 어쩔고.》

비왕이 가슴을 조이며 어쩔줄 몰라하는데 배에서 비명비슷한 웨침소리가 푸릿한 숲의 륜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강변으로 울려왔다.

《사람 살려요. 거기 뉘기 없소이까.》

뜻밖에 구원을 바라는 나인의 가냘픈 목소리에 비왕은 흠칫 놀랐다.

(나인이 어찌 이 새벽에 배를 타고 귀신목에까지 뛰여들었을가? 여불없이 불행을 당한 불쌍한 나인인게 틀림없고나.)

그의 가슴속에서 동정심이 꿈틀거렸다.

《게 누구 없느냐?》

급해난 비왕이 주위를 휘둘러보며 소리쳤다.

바로 이때라고 생각한 자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예, 여기 있소이다.》

비왕이 어리둥절해있는 틈을 타서 자객이 그의 앞으로 달려갔다.

이제는 날이 거의 밝아 사람의 이목구비가 웬만한 거리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비왕앞에 나타난것은 자기의 군졸이 아니라 험상궂게 생긴 낯모를 사내였다.

《넌 누구냐?》

비왕이 놀라며 물었다.

《비왕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소이까?》

사나이가 머리숙여 읍을 하며 비왕에게로 다가왔다. 비왕이 위험에 처한것을 간파하고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드는 순간 자객이 비호같이 달려들어 비왕의 가슴에 날카로운 창을 박았다.

《야, 빨리 강으로 뛰여들어 배에 오르라.》
지켜보던 섭하가 자객에게 호령하며 등과 가슴에서 피가 흐르는 비왕 장을 강으로 끌고가 강물에 처박았다.
구사일생으로 귀신목에서 빠져나온 배가 마침 물에 뛰여든 섭하의 병졸들을 향해 다가오고있었다. 가녁은 물깊이가 가슴노리를 좀 지나칠만한 깊이여서 창을 추켜든 병졸들이 서로 떠밀고 잡아당기며 배쪽으로 다가갔다.
일여덟명쯤은 능히 앉을만한 배에는 검은 점박이무늬의 흰 저고리를 입은 나인 하나가 타고있었다.
동백기름이 찰찰 흐르는 검은 머리를 뒤로 쪽져맨 스물네댓의 한창 망울 터치는 물망초같은 아릿다운 녀인이였다.
눈에 달이 돋은 병졸들이 서로 먼저 타고 도망치겠다고 배머리를 붙들고 아귀다툼을 하자 나인은 어쩔줄 몰라 배이물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몸을 떨었다.
맨 나중에 배에 오른 섭하가 물에 흠뻑 젖어 몸을 떨고있는 나인을 보자 기분이 나쁜듯 무리들에게 호령했다.
《야, 빨리 저 나인을 귀신목에 처넣어 제를 지내지 못할가. 소의 물귀신이 노하시기전에 빨리 서둘러라.》
섭하의 령이 떨어지자 군졸들은 나인에게 달려들어 종이장처럼 거뿐히 머리우로 쳐들더니 소용돌이치는 물속에 첨벙 집어던졌다.
섭하의 무리들은 서둘러 노를 저어 강복판으로 사라졌다.
이날은 고조선력사에 처참한 비화를 새겨넣은 피의 날이였다.

4

성기의 일행이 쉼없이 말을 달려 패수가에 거의 이른것은 이무렵이였다.
언덕에 올라서자 날이 이미 밝은지라 패수가에 깔린 비왕의 군사들이 개미떼처럼 바라보였다.
《장군, 일이 났소이다. 패수가 법석 끓소이다.》
십리밖의 새소리를 듣고 수십리밖에서 벌어지는 일도 손금보듯 알아낸다는 귀사(귀신같은 병사)가 성기장군에게 황황히 여쭈었다.

《게 무슨 소리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성기는 귀사를 꾸짖었다.

《제귀에 들려옵고 제눈에 보입니다요. 틀림없는 변고이오이다.》

《뭣들 하고있느뇨. 빨리 달려야 할게 아니냐.》

눈앞이 아뜩해진 성기가 수하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잠시 멈추어섰던 말들이 구름같은 먼지를 말아올리며 언덕을 내려 번개같이 패수를 향해 달려갔다.

(변고라니?! 혹시 비왕어른의 신변에 위험이 닥친게 아닌가? 그런 일이 있을법 하지는 않지만 어찌 마음이 이리도 불안하냐.)

밤색바탕에 흰 점이 박힌 《비마》(나는 말이라고 해서 붙인 이름)에 박차를 가하는 성기의 마음은 걷잡을수없이 불안했다.

패수가 가까와지자 변고가 일었다는것이 확연해졌다.

강가로 구름처럼 밀려가는 수병들이 아우성을 치며 법석 끓어대고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냐?》

번개같이 패수가에 들이닥친 성기는 왕벌을 둘러싼 벌떼처럼 엉켜돌아가는 시위군사들을 헤치며 벼락같이 소리쳤다.

뒤늦게야 성기장군을 알아본 군사들이 량옆으로 갈라지고 시위대장이 달려왔다.

성기의 군마가 패수가 떠나가게 울부짖더니 하늘중천으로 앞발을 번쩍 들고 멎어섰다.

《빨리 아뢰지 못하고 뭣들 하느냐!》

억이 막혀 무릎을 꿇고 어찌할줄 모르는 시위대장을 꾸짖는 성기의 두 눈에는 번개불같은 섬광이 번뜩이였다.

《저기, 저 패수…》

반정신이 나간 시위대장이 말에서 내려선 성기장군에게 벌벌 기여가 떨리는 손으로 패수가를 가리켰다.

시위대장이 가리킨 강물에 엉켜돌아가는것이 얼른거렸다.

그것을 보고는 도저히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성기는 정신없이 돌아치는 군사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다.

불안스럽게 출렁이는 강물속에는 장사같은 사나이를 안은 나인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성기는 놀라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지고말았다.

군사들이 나인의 품에 안긴 장사같은 사나이를 받아안고 물결을 헤치며 기슭으로 밀려나오고있었다. 군사들의 아우성이 패수가를 번거롭게 뒤흔들었다.

《저게 대체 무엇이냐?》

성기는 놀랍게 반문했다.

온몸을 우들우들 떨던 시위대장이 성기장군앞에 쓰러지며 통곡했다.

《죄를 졌소이다, 죄를 졌소이다.》

《말을 해야 할게 아니냐, 대체 무슨 죄냐?》

성기는 불길한 예감이 등어리로 서리발을 그으며 지나가는것을 느꼈다.

《비왕어른께서 섭하의 칼을 받았소이다.》

《무엇이라고, 이게 무슨 변고냐?!》

순간 눈앞이 캄캄해진 성기는 그 자리에 얼어들고말았다.

(나라의 기둥인 비왕어른이 꺼꾸러지다니?!)

온몸이 흐물흐물하는 진펄속으로 빠져드는듯 하더니 눈앞에 펼쳐진 하늘도 땅도 소용돌이치는 패수도 일순간에 움직임을 멈추었다.

성기가 정신이 들었을 때 군사들이 비왕을 안고 강변으로 밀려나왔다. 성기는 허둥지둥 군사들을 맞받아나갔다. 성기의 눈에 군사들의 손에 들려있는 비왕의 비참한 모습이 안겨왔다.

물에 흠뻑 젖은 비왕은 입을 무겁게 다문채 눈을 감고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이까, 비왕어른.》

성기는 비왕앞에 어푸러지며 통곡했다.

군사들이 강변에 수장기를 깔고 그우에 비왕을 눕혀놓았다.

달리는 범을 그린 흰 수장기가 붉은 피에 물들었다.

《비왕어른, 어서 정신을 차리소이다. 비왕어른이 이러시면 나라는 어찌되오이까.》

무거운 입술을 꾹 다물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비왕을 정신없이 흔들어대던 성기가 성난 호랑이의 울부짖음같은 무서운 호곡을 터치며 움켜쥔 두주먹으로 발밑에 깔린 자갈들을 마구 조겨댔다.

넙적한 돌판은 산산쪼각나고 성기의 주먹은 뻘건 피로 물들었다.

《어떤 놈이냐, 비왕어른을 이 지경 만든놈. 썩 나서지 못할가, 썩—》

벌떡 땅을 차고 일어선 성기는 활첩에서 대살을 뽑아들더니 날카로운 무쇠활촉이 꽂힌 살을 먹이고 시위를 두자가웃이나 되게 늘이였다가 으악— 우뢰같은 고함을 지르며 활시위를 놓았다.

핑ㅡ아츠러운 바람소리를 내며 강복판을 향해 날아간 화살이 패수를 건너 벼랑가에 선 푸르청청한 로송의 줄기에 한뼘이나 실히 되게 박혔다. 백로의 흰 깃을 댄 화살꼬리가 몸부림치듯 윙 소리를 내며 바르르 떨었다.

《장군어른, 자중하시오이다.》

좌우에서 군사들이 달려들며 성기장군을 붙들었다.

《너희들은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뭣들 했단말인고!》

벼락같이 꾸짖는 성기의 검은 수염이 부르르 떨렸다.

《장군어른, 죽을 죄를 지었소이다.》

시위대장과 군사들이 성기장군앞에 일제히 부복하고 턱을 와들와들 떨며 머리를 조아렸다.

《이 땅이 생겨 3천년이래 이런 수치가 언제 또 있었더냐!》

성기는 터져오는 가슴을 두손으로 움켜쥐고 털썩 땅우에 꿇어앉으며 하늘을 우러렀다.

《하늘에 계신 환인천왕님께서 보살펴주옵소서. 어찌하여 강성하던 이 나라가 이런 참변을 당해야 하옵니까. 어찌하여 하늘이 벌을 내리시옵니까.》

하늘에 빌며 호곡을 터치는 성기의 두볼을 타고 도랑물같이 흘러내린 눈물이 하얀 자갈들을 하염없이 씻어내렸다.

《장군어른, 비왕님께서 정신이 드셨소이다.》

성기는 여직껏 감감 잊고있던 나인의 환희에 찬 목소리에 소스라치듯 놀랐다.

나인의 기쁨어린 얼굴너머로 성기장군을 바라보는 비왕의 번쩍이는 눈길이 비껴왔다.

순간 확 안겨드는 기쁨에 뒤이어 대창으로 가슴을 꿰지르는듯한 고통이 그의 전신을 휩쌌다.

성기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비왕의 두팔을 움켜잡았다.

《비왕어른, 성기로소이다. 비왕님의 존귀하신 신변을 지켜드리지 못해 이 죄됨을…》

성기는 목이 꺽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우들우들 떨리는 손으로 피젖은 비왕의 가슴을 더듬으며 머리를 떨구었다.

《장군, 어서 머리를 드오.》

침착하고 안온한 비왕의 목소리가 성기의 아픔을 더해주었다.

《장군이 내가 념려되여왔음을 아노라. 그런데 장군이 대왕곁을 떠나 이게 무슨 짓이뇨. 국업이 선차임을 장군이 모른단말이뇨?》

비왕이 호령하며 꾸짖었다.

《명심하겠소이다.》

성기는 그때에야 제정신이 든듯 몸을 일으키며 서둘렀다.

《뭣들 하고있느냐. 비왕님을 의원한테 모셔가지 않구… 어서…》

《알았소이다.》

장수들과 궁수, 도끼수들이 거들려 하자 비왕이 조용히 군사들을 제지시켰다.

《그만두어라. 나는 이미 틀린 몸이노라.》

《비왕어른, 그런 말씀 마소이다. 비왕어른이 그러시면…》

가슴을 쿡 찌르는듯한 아픔에 성기의 두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것이 좌르르 쏟아져내렸다.

비왕은 눈시울을 무겁게 내리감았다.

그의 얼굴은 컴컴하게 어두워졌다.

《비왕어른.》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성기는 비왕의 팔을 흔들었다.

다시 눈을 뜬 비왕이 성기장군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 일점의 생기도 느껴지지 않고 어두운 그늘이 더욱 짙어갔다.

비왕은 손을 겨우 옮겨 허리쪽을 더듬어갔다.

《왜 그러시오이까?》

《내 단검을 좀…》

비왕의 입이 겨우 벌어졌다.

성기는 비왕의 허리춤에서 청동단검을 뽑았다.

번쩍거리던 단검은 붉은 피에 젖어 빛을 잃고있었다.

《이 단검은 예로부터 왕실에서 국보로 대를 이어 내려오는 조선의 보배이노라.》

《알고있소이다.》

성기는 정중히 머리를 수그렸다.

《장군, 부디 이 단검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노라.》

《천명으로 받들겠소이다.》

성기는 구천에 갈기쳐 흩어지는듯한 아픔을 짓누르며 피묻은 청동단검을 숭엄하게 받아들었다.

《장군, 한가지 부탁이 있노라.》
《무엇이오이까?》
성기는 몸을 가다듬고 점점 빛이 꺼져가는 비왕의 눈길을 바라보았다.
《나를 구원한 이 나인을… 대왕님께… 이 나라의 뜻이 있는 나인인줄 아노라…》
성기는 그때에야 감감 잊고있던 나인에게 눈길을 주었다.
갈가리 풀어헤친 칠흑같은 머리칼에 얼굴이 반나마 가리워진 묘령의 나인이 꽃잎같은 작은 손으로 입을 막고 가만가만 흐느끼고있었다.
그 흐느낌이 어찌나 애슬프던지 비왕의 머리맡에 꺼꾸러지듯 꿇어앉아 있는 나인은 위불없는 비왕의 련인같이만 느껴졌다.
(비왕과 인연깊은 나인이 아닐가?! 그런데 이 나인이 여기엔 왜 나타났을가? 우연인가?)
풀길 없는 의문들이 어지러이 뇌리를 치는데 별안간 비왕이 고개를 떨구었다.
깜짝 놀란 성기는 비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방금까지 열려있던 입술이 꾹 다물려 화석처럼 굳어지고 한치나 되는 장미는 더욱 갈기를 돋구고 일어서 대뜸 이 세상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갔다.
좀전에 비왕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안도감이 들어 죽음과 비왕사이는 벌써 아득히 먼 세계로 되였구나 하는 생각으로 잠시 숨을 돌렸던 성기는 하늘이 금시에 무너져내리는듯한 무거운 중압감에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문득 이 세상에는 이젠 비왕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성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은 자리를 골라 의장기 세폭을 깔아라.》
목이 꺽 메인 성기는 비왕이 넘겨준 피묻은 청동단검을 귀중히 가슴속에 품으며 비장하게 부르짖었다.
시위대장이 강변에 꽂혀 펄럭이는 의장기들을 뽑아 반듯한 강변에 세개를 포개여깔았다.
《비왕어른을 그우에 정히 모시고 의장기를 들어라!》
궁수, 도끼수, 창수들이 흐느껴 통곡하며 비왕을 포개놓은 의장기우에 옮겨놓고 비왕의 피로 붉어진 의장기를 높이 쳐들었다.
《너희들은 이 의장기를 보느냐. 백설같이 결백한 조선의 의장기가 붉

은 피로 물들였노라.》
온 패수가 떠나가게 흐느끼고 통곡하던 장수들과 군사들이 복수심과 이를할수없이 숭엄한 감정에 싸여 비왕의 시신을 감싼 의장기를 비통한 눈길로 쳐다보고있었다.
《자고로 우리 겨레는 자기의 존엄을 건드린 그 어떤 적에 대해서도 용서치 않았노라.》
노호한 성기의 음성이 패수가를 찌렁찌렁 뒤흔들었다.
《장군, 이 길로 섭하놈을 요정내고 그 잔나비무리를 쳐부시겠소이다. 령을 내려주사이다.》
시위대장이 성기장군의 발밑에 엎드리며 흑흑 흐느꼈다.
《령을 내려주사이다.》
군사들이 밀물처럼 쓸어들어 성기장군앞에 엎드려 결연히 소리를 모았다.
《령을 내려주사이다.》
노호한 함성은 패수를 건너 하늘을 치뚫고선 강기슭벼랑을 뒤흔들며 메아리쳐갔다.
성기는 군졸들의 노호한 복수의 함성에 더욱더 분격하여 더 생각할 새도 없이 출전령을 내리고야말았다.
《의장기를 들어라! 내 그대들의 뜻을 따르겠노라!》
피묻은 의장기가 높이 쳐들리고 군사 하나가 성기장군의 점박이 《비마》를 끌어왔다.
성기는 숭엄한 얼굴로 창백하게 누워있는 비왕앞에 무너지듯 꿇어앉으며 투구를 벗었다.
《비왕어른, 이 나라가 받은 오랑캐로부터 받은 모욕을 천백배로 복수하려 하나이다. 성기를 믿어주사이다.》
성기는 세번 배하고 일어서 또 세번 읍한 후 군사들에게 비왕을 잘 모시라고 분부했다.
그리고는 비왕의 시신앞에 슬픔에 잠겨 앉아있는 나인에게 얼굴을 돌렸다.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사이다.》
《장군어른, 념려마시고 몸조심해 갔다오시오이다. 기다리겠나이다.》
나인이 두손을 들어 손을 맞잡고 성기장군앞에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5

《출전하라!》

성기는 의장수의 기발을 빼앗아 들고 번개같이 강변을 따라 앞서 내달렸다.

《와—와—》

노호한 함성을 지르며 장수, 창수, 도끼수, 궁수들이 자갈을 차며 구름처럼 피의 기발을 든 성기장군의 뒤를 따랐다.

강변에 남은 마차들과 치중물자를 관할하는 노역들, 짐군들이 두손을 들어 함성에 호응하며 성기장군의 정예병들을 떠나보내였다.

강변의 자갈을 차는 소란한 소리와 말들의 투레질, 함성소리가 한동안 강가를 뒤흔들더니 여울목에 이르러 잦아들었다.

《장수들과 시위대장, 수위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성기는 여울목에서 말고삐를 잡아채며 호령했다.

장수들과 시위대장, 수위들이 달려와 성기장군을 옹위해섰다.

《여기서부터는 정숙을 지키며 따르도록 하라. 한명의 군사도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극력 주의할지어다.》

《알았소이다.》

우렁찬 대답소리가 강변을 뒤흔들었다.

《돌아가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

《알았소이다.》

장수, 시위대장, 수위들이 자기 위치로 돌아가 자리에 서자 성기는 말에 박차를 가했다.

대오는 은밀히 여울을 지나 맞은켠 산악의 터진 골짜기로 스며들었다.

골짜기를 따라 작은 내가 흐르는데 내가를 따라 앞이 열렸으나 행인이 없는곳인지라 작은 나무와 덩굴들이 뒤엉키여 말을 달릴수가 없었다.

빨리 인적을 찾아 길로 들어서야 한다.

그러나 이곳부터 적의 새인지라 극력 조심해야 했다.

한동안 무성한 숲을 헤치고 훤한곳으로 빠져가자 멀리 초막집 몇채가 보이고 마차들이 지나간 흔적들이 나타났다.

성기장군과 좀 떨어져 귀를 강구며 말을 몰아가던 척후 귀사가 다가

왔다.
《장군어른, 앞에 새를 지키는 병졸들이 나타났소이다.》
척후의 아뢰을 들은 성기는 잠시 대오를 멈추어세웠다.
시위대장이 달려왔다.
《어찌하겠소이까?》
《인가가 나타났으니 길이 열렸을게다. 놈들이 기미를 채지 못하게 군졸을 잡아 섭하의 행처를 물어야겠다. 행처가 정해지거든 질풍처럼 곧바로 내달아야 한다.》
《알았소이다.》
대오가 다시 내닫자 새를 지키던 늙은 병졸 두놈이 눈이 화등잔만해서 가까와지는 무리를 내다보며 어쩔줄몰라 중얼거렸다.
《노말아, 저 의장기를 봐라. 저런 빨간 의장기도 있더냐?》
외눈배기 늙은 병졸이 껑충한 키에 등이 굽어 사마귀를 련상시키는 중년의 병졸에게 지껄였다.
《배하장군의 의장기는 노란색인데 아무래도 이상타. 봉화를 올려볼가?》
외눈배기의 공포에 질린 지껄임이다. 분명히 자기의 무리인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다.
가까와지는 무리를 뚫어지게 지켜보던 《사마귀》가 얼굴이 퍼렇게 질려 봉화대로 뛰여오르려던찰나 어디선가 휙—바람소리를 내지르며 날아든 올가미가 《사마귀》의 목을 조였다.
외눈배기는 벌써 올가미에 걸려 저만큼 끌려갔다.
《사마귀》는 자기앞에 버티고선 점박이 파하마를 보는 순간 두눈이 홀쩍 뒤집혀 흰자위만 번뜩였다.
《바로 대지 않으면 너의 목숨은 구할길 없다. 섭하가 어디로 갔는고?》
점박이 파하마의 안장에 버티고앉은 성기의 노호한 호령에 《사마귀》는 사시나무처럼 와들와들 떨었다.
《예, 아뢰겠소이다. 배하장군은 아침 일찍 사냥을 나가시옵고 수사(군대들이 사는 집이나 천막)는 빈것으로 아옵니다.》
《이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느냐.》
성기는 노호하여 눈을 부릅떴다.
《섭하가 어디 갔느냐?》

성기는 그루를 박아 다시 물었다.
《예ㅡ예ㅡ 섭하나리는 조선 왕검성에 갔나이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차릴테냐?》
성기는 버럭 언성을 높였다.
《사마귀》는 깜짝 놀라 두눈을 딱 부릅뜨고 잠시 비석처럼 굳어졌다가 푸ㅡ막혔던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뇌까렸다.
《황부성으로 떠났소이다.》
겨우 제정신에 돌아온 《사마귀》가 길게 휘여든 허리를 접석거렸다.
《제 혼자 떠났느냐?》
《군사 3백을 데리고 먼저 떠났소이다.》
《나머지는 왜 안갔는고?》
《조선에서 쳐올수 있다고 새에 3백을 남겨놓은것으로 아옵니다.》
《3백을!》
성기의 눈에 번쩍 번개가 일었다.
《예, 래일까지 기미가 없으면 황부성으로 가서 섭하장군과 함께 황성으로 가게 되였소이다.》
《음, 그럼 섭하가 황부성에 있겠다?》
《예, 황부성에서 무리 3백을 기다리고있소이다.》
부드득 이를 악무는 성기의 두눈에서는 펄펄 불이 일었다.
한시바삐 말에 박차를 가해 황부성으로 돌입하여 악한놈을 짓뭉개버리고싶었다.
황부성은 예서 한겻이면 들이닥칠수 있다.
성기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굴렸다.
…밤에는 적아를 구분할수 없으니 성수(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어물거리고있는 새에 배하장군의 행세를 하면서 성문을 넘어서자. 그 다음 성수들을 감쪽같이 없애고 섭하의 진으로 돌입하여 섭하의 목을 따리라.
결심이 선 성기장군은 눈을 떴다.
《이놈들을 묶어 말꽁무니에 달아라.》
성기의 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창수, 궁수들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외눈배기와 《사마귀》를 묶어치웠다. 와들와들 떠는 두놈의 손목에 끈을 매여 말꽁무니에 매달았다.
성기의 정예병들이 황부성뒤산에 이른것은 주위에 어슬한 땅거미가 질

무렵이였다.
좀 더 어둠이 깃들기를 기다리던 성기장군은 어둠이 사위를 뒤덮자 출발령을 내렸다.
정예병들은 앞에 선 장군의 뒤를 따라 황부성성문으로 접근해갔다.
말꽁무니에 달고온 두놈이 앞에 창을 들고 서있는 성수놈에게 다가가 배하장군의 무리이니 어서 성문을 열라고 호통쳤다.
성에서도 배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중이라 아무 의심도 없이 성문을 열어주었다.
성기의 정예병들은 번개같이 성안으로 돌입하며 얼떠름해 서있는 성수놈들을 요정냈다.
정예병들이 섭하놈이 틀고앉은 《애원당》을 둘러쌌을 때는 섭하이하 장수들이 한창 술기운이 돌아 조선의 비왕을 손쉽게 해치운 《희열》에 들떠 먹자판을 벌리고있을 때였다.
연회상의 맨앞에 관복을 그대로 입은채로 앉은 섭하놈이 끼고앉은 나인의 입에 강제로 술을 쏟아부으며 너털웃음을 치고있었다.
그래도 그 주제에 제 한짓이 겁이 났던지 관복조차 벗지 못하고 앉아노는 꼴이 역스럽기 그지없었다.
놈들의 행동거지를 엿보던 성기는 시위대장에게 턱짓으로 돌입령을 내리고 자신이 앞장서 문을 열어제끼며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두개의 뿔이 돋은 투구를 쓰고 갑옷우에 위세를 돋구느라고 검은 장포까지 쓴 섭하놈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을 두리번거리다가 불이 펄펄 이는 성기의 눈길과 마주치자 질겁을 하며 뒤로 물러앉았다.
《이놈, 꼼짝말고 앉아있거라!》
성기는 연회장이 찌렁하게 호령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섭하앞에 다가섰다.
연회상에 둘러앉았던 섭하수하의 장수들은 정예병들의 날카로운 창끝앞에 눈알들이 뒤집혀 굳어져버리고말았다.
섭하가 조선의 왕궁으로 가면서 새근방숲속에 떨구어두었던 무리중의 그 절반이였다.
섭하는 무장을 갖춘 6백무리중에 3백무리는 안심찮아 패수가새에 떨구어놓고 나머지 3백의 군사들과 수하장수들만 데리고 황부성으로 들어와 이 놀음을 벌리고있었던것이다.
성기는 앞섶을 헤치더니 피묻은 비왕의 청동단검을 꺼내들었다.

《섭하 이놈, 똑똑히 보아라. 이 피묻은 단검이 보이느냐?》

벼락같은 성기의 호령에 섭하는 꿈틀하고 몸을 떨었다.

《피를 피로써 갚음은 마땅한 도리거늘 백주에 일국의 비왕을 살해하고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보검까지 더럽힌 네놈이 어찌 감히 살기를 원할소냐. 여러 말 말고 이 칼을 받아라!》

《죽어 마땅하오니 형을 달갑게 받겠소이다. 어서 형을 내려주옵소서.》

섭하놈이 두손을 개구리앞발처럼 바닥에 짚고 넙적 엎드렸다.

그것은 순간이고 어떻게 일어나 칼을 뽑아들었는지 섭하놈이 번개같이 성기장군에게 달려들었다.

허공중에서 시퍼런 칼끝이 번쩍 빛을 뿌림과 동시에 섭하의 목이 덜렁 떨어져 어지러운 바닥우로 디굴디굴 굴러갔다.

그것을 신호로 고조선 정예병들이 적군 장수들의 목을 따고 가슴에 창을 박아 무자비하게 요정을 내기 시작했다.

풍악소리 높고 취흥으로 흥성이던 섭하의 연회장은 순식간에 무서운 단말마적비명과 무시무시한 아우성으로 가득 찼다.

피의 란투는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죄많은 놈들의 시체들이 널린 연회장에는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떠는 나인들만 남았다.

분노가 펄펄 이는 눈길로 한쪽구석에 밀려가 와들와들 떨고있는 나인들을 바라보던 성기는 단검을 허리에 꽂으며 저력있는 목소리로 웨치였다.

《너희들도 이제 어머니가 되여 후대들을 키울것이거늘 똑똑히 기억하라.

우리 단군겨레를 건드리는 그 어떤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를 두고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는것을…》

《고명하신 어른님의 말씀을 명심하겠나이다.》

나인들이 성기장군의 발밑에 넙적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이것이 력사에 《섭하사건》으로 기록된 그날밤의 마지막정경이였다.

왕검성에 핀 아미꽃

1

성기장군의 대오는 패수로 갈 때처럼 단출했다. 모두 셋이였다.

먼지를 뽀얗게 일구며 내닫는 과하마의 몸뚱아리는 땀으로 질벅하고 자갈을 문 입에서는 흰 거품이 부글부글 고여올랐다.

그래도 성기는 말을 때려몰았다.

한시바삐 우거왕에게 모든 전말을 아뢰야 했다.

아득히 떨어진 뒤에서는 비왕의 시신을 모신 시위군들이 따라오고있었다.

한시간 남짓이 달렸으니 그들은 벌써 백리쯤 뒤로 떨어졌을것이다.

땀에 흠뻑 젖은 성기의 눈앞에는 숨을 거두던 비왕의 마지막모습이 못견디게 안겨왔다. 비통함에 이그러졌던 그 모습…

정말 억이 막히고 피를 토할 노릇이였다. 한갖 오랑캐사신에게 일국의 존장이 살해당할 지경으로 나라의 존엄이 우스워졌단말인가. 일찌기 단군성왕이래 동방의 강국으로 대대손손 위엄떨쳐온 이 나라가 아니였던가.

원통한 이 사연을 차마 어찌 임금에게 아뢸수 있단말인가. 아무리 섭하의 목을 따오기로서니 뼈에 사무친 이 수치와 원한을 도저히 가실길이 없을것 같았다.

생각할수록 이 모든것이 자신의 무능으로 빚어진것만 같아 성기는 연신 한숨만 토하며 피발이 선 눈길로 앞을 노려보았다.

이제는 왕검성이 그리 멀지 않았다.

성기의 일행은 한겻이 좀 지나 왕검성 편전앞에 이르렀다.

왕좌에 앉았던 우거왕이 패수에서 성기장군과 두명의 군사만이 돌아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비왕을 어쩌고 셋만 돌아왔는가?!)

짙은 의혹은 벌써 우거왕의 가슴속에 불안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

었다. 바로 이때 편전으로 들어선 성기장군이 우거왕앞에 엎어지듯 부복했다.
《존귀하신 대왕님께 아뢰오. 패수가에서 참변이 있었소이다.》
《뭐라고?!》
우거왕이 깜짝 놀라 엎드려있는 성기장군앞으로 다가갔다.
《자세히 아뢰여라. 참변이란 무엇인고?》
성기는 끝내 대답을 못하고 흑 흐느끼고는 통곡을 했다.
《비―비왕님이― 섭하의 칼을 받았소이다.》
《뭐라고?!》
우거왕이 눈을 크게 뜨며 비틀거렸다.
시종나인들이 달려가 우거왕의 량팔을 황급히 부축해주었다.
잠시후 정신을 차린 우거왕은 눈길을 들어 성기부터 찾았다.
《자세히 아뢰여라. 어찌된 일이냐?!》
《예, 알았소이다.》
성기는 머리를 뒤번 조아리고 전말을 그대로 아뢰였다.
《그래서 섭하의 목을 따왔다는거냐?》
우거왕이 다시한번 놀라며 물었다.
《그렇소이다. 이것이 섭하의 머리오이다.》
성기장군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장군의 뒤에 엎드려있던 군사가 왕앞에 베보자기를 펼쳐놓았다.
뿔달린 투구를 쓰고 눈을 흡뜬채 굳어진 섭하의 머리가 베보자기에서 데구룩 굴러 부릅뜬 눈을 우거왕쪽으로 향했다가 옆으로 기울어졌다. 그러자 궁녀들은 비명을 질렀고 어떤 궁녀들은 무서워 달아났다. 대신관료들인 참, 로인, 왕담들도 몸을 떨며 한걸음 뒤로 물러났다.
눈섭 하나 까딱않고 섭하의 머리를 찌글써 보던 왕협이 섭하의 머리를 바로 세워놓고 확인해보았다.
《옳소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섭하의 머리오이다.》
왕협이 우거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아뢰였다.
《눈등우에 사마귀가 있는것을 보아도 섭하가 틀림없노라.》
섭하의 머리를 쏘아보는 우거왕의 눈에는 분노의 불찌가 이글거렸다.
《섭하는 죽었지만 놈은 단군나라를 피로 얼룩지운 구천의 원쑤이노라. 천백번 도륙을 내여 뿌려던져라.》
《알겠소이다.》

우거왕을 호위하던 신하들이 모두 머리숙여 대답했다.
《형장 있느냐?》
성기는 좌중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있소이다.》
울긋불긋한 형장복에 륙모방망이같은 형장구를 갖춘 우람찬 체격의 사나이가 달려왔다.
《즉각 대왕님의 령을 집행토록 해라.》
《알았소이다.》
역시 울긋불긋한 복장에 패랭이같은 관모를 쓴 형수 셋이 달려와 섭하의 머리를 날라갔다.
형장(죄를 다스리는 관리)아래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아전들인 형수들이 있었는데 고조선사람들은 붉은 패랭이와 울긋불긋한 관복을 입은 이들이 멀리서 나타나기만해도 공포에 몸을 떨군했다.
이들의 형집행은 무자비하고 추호의 용서가 없었다.
(※ 이들이 죽은 섭하의 머리에 형을 내린 우거왕의 령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력사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가장 엄격하게 처리되였으리라는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다.)
머리를 수그린채 이윽히 생각에 잠겨있던 우거왕이 성기장군에게 물었다.
《비왕의 시신은 어디에 있느뇨?》
《지금 왕검성으로 오고있소이다. 이름모를 나인이 비왕의 시신을 보살피고있소이다.》
성기는 왕앞에 읍하며 대답했다.
《나인이라고?! 그는 대체 누구냐?》
우거왕이 놀라며 성기장군을 바라보았다.
《비왕께서 이 나라에 뜻이 있는 나인이니 대왕님께서 보살펴주실것을 유언으로 남겼소이다.》
《그래…》
잠시 편전안에 침묵이 흘렀다.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있던 우거왕은 이윽고 누구에게라없이 나직이 물었다.
《그 나인이 비왕과 무슨 연고가 있는게지?》
왕의 물음에 성기가 자신없이 대답하였다.

《경황이 없어 자상히는 알아보지 못했사오나 패수에서부터 예까지 비왕어른의 시신곁에서 떠날줄 모르는것으로 보아 깊은 사연이 있는줄 아오이다.》

《음-》

우거왕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갸륵하도다. 하여간 비왕부터 맞이하고보자.》

왕의 목소리는 구슬프게 울렸다.

2

비왕의 시신을 실은 마교차가 왕검성에 이른것은 한겻이 퍽 지나서였다.

왕검성의 모든 백성들이 성밖까지 나와 머리를 깊이 숙이고 비감에 차서 통곡하며 비왕의 시신을 맞이했다.

자는듯 누워있는 비왕을 맞이한 우거왕은 쏟아져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해하며 비왕의 차디찬 손을 쥐고 머리를 들지 못했다.

《대왕님께서 옥체를 보살피옵소서.》

우거왕을 몸가까이에서 모시는 궁녀들이 달려와 우거왕의 두팔을 부여잡고 울음을 터치였다.

이윽하여 머리를 든 우거왕이 비애에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만들 하거라. 내 자중하겠노라.》

궁녀들에게 떠받들려 옥좌에 이른 우거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의식을 거행하는 의장(국가의식을 맡아하는 관리)을 불러 해빛이 밝은 아사봉아래에 분묘를 쓰되 돌곽에 자리를 넉넉히 주고 비왕의 시신을 안장하라고 엄명하였다.

그런 연후에야 우거왕은 비왕의 머리맡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있는 나인의 모습에 관심을 돌렸다.

흰 바탕에 검은 점이 박힌 천으로 만든 옷이며 함함히 흘러내린 칠흑같은 머리채에 가리워 한쪽으로 드러나보이는 나인의 꽃같은 얼굴을 이윽히 굽어보던 우거왕은 왜 그런지 한숨을 내그었다.

《그대가 누구인지 아뢰여라.》

눈을 시름히 감으며 맥이 진한듯 어깨를 떨구고앉은 우거왕의 모습

은 가긍해보였다.

《사는곳은 야평이온데 물역하는 나인 아달비라 하옵니다.》

아달비가 우거왕을 향해 세번 배하고 그앞에 엎드렸다.

《물역하는 나인이란말인고?》

우거왕은 놀라운듯 얼굴을 붉히고 앉은 아달비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몸가짐과 겉모습은 물역으로 살아가는 천한 나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어딘가 세련돼보이는 용모와 그 아름다움은 왕궁안의 300궁녀를 무색하게 하고 옷은 수수한 평민복이지만 그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는 온 궁안을 진동할것만 같았다.

(과히 범상한 나인이 아니로다. 저런 나인이 물역의 길에까지 나섰을 때에는 불피코 그럴만한 사연이 있으렸다.)

지그시 눈을 감고 제 생각에 빠졌던 우거왕이 다시금 나인에게 물었다.

《그대는 비왕을 어떻게 알게 되였는고?》

은근히 의혹과 흥미를 품은 우거왕의 물음이였다.

한번 얼굴을 들어 애절한 눈길로 우거왕을 바라본 아달비는 고개를 꺾으며 구슬피 울었다.

어찌나 애닯은 울음인지 마음이 바위처럼 굳센 우거왕도 가슴이 흔들리며 울컥 동정의 마음을 쏟지 않을수 없었다.

《대왕님께 무엇을 속이겠소이까. 이 하잘것없는 나인은 마음속에 비왕님을 아버지로 품고 살아왔소이다.》

겨우 울음을 참고 말하는 아달비의 발깃한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뭐라고?! 네가 비왕을…》

우거왕은 너무도 놀라와 아달비를 다시한번 눈여겨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가인일뿐이라 갈수록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마치 신비한 귀신의 세계에서 헤매이는것같은 환각에까지 빠져드는 우거왕이였다.

(여기서 천리가 넘는 야평의 이름없는 나인이 어떻게 나라안의 제일 고관대작 비왕을 알수 있으며 또 아버지로 생각한다는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상상을 뛰여넘어 비왕과 나인을 련결시켜보재도 불과 물처럼 도저히 화합할수 없는 존재로만 느껴졌다.

아달비는 우거왕의 번거로운 심리를 감득한듯 다시한번 엎드려 절을 하고 말을 이었다.

《소인이 어릴 때 존부께서는 비왕님이야기를 많이 하셨소이다. 소

인이 흥미있어 비왕이 누군가 물으면 존부께서는 웃으시며 네 크면 너의 아비가 되여주실분이노라고 했소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크거들랑 비왕을 찾아가 대왕님을 받들어 조선의 사직을 빛내이라 하셨소이다.
아버님을 여읜뒤 소녀는 지금껏 일구월심 비왕어른만을 아버지로 그려보며 살아왔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깜짝 놀란 우거왕이 옥좌에서 일어나 아달비에게 다가오더니 그를 손수 일으켜세웠다.
《그대 존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고?》
《한나부오이다.》
《한나부?!》
그자리에 돌비석처럼 굳어졌던 우거왕은 감격에 겨워 아달비의 두손을 잡았다.
《내 여직껏 한나부의 자손을 찾지 못해 애가 탔는데…》
우거왕의 두눈은 기쁨과 환희로 번쩍이였다.
…선왕이 즉위한뒤 우거가 열여섯살이 되던 해였다.
오랑캐들의 쉴새없는 침입과 소요로 하여 고조선국경지대는 늘 소란스러웠다.
나라의 국력이 심히 위협을 당하고있을 때 이것을 막아낸 위인들은 고조선국의 세 장군이였다.
왕세자로 책봉된 우거, 장군 한나부, 대장군 장이였다.
세 장군들이 날랜 부여말을 타고 투구와 철갑옷을 번쩍이며 고조선의 서쪽새에 나타나면 오랑캐들은 백리로 줄행랑을 놓군하였다.
허나 악착한 오랑캐들은 간악무도한 흉심을 버리지 않고 쉼없이 고조선새를 위협하군했다.
그러던 어느해 겨울, 북방의 모든것이 얼음속에 굳어지고 세찬 눈보라가 사위를 분간할수 없게 몰아치던 겨울밤, 어둠과 눈보라를 리용하여 새를 넘은 오랑캐대부대가 왕검성을 향해 진격해왔다.
모진 추위로 하여 새의 방비가 불리한 자연조건을 리용하면 왕검성까지 쉽게 손을 뻗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오랑캐의 무리들은 바람처럼 어둠을 타고 밀려들었다.
언제나 긴장한 싸움태세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던 세 장군들이 출동했다.

오랑캐들은 이 추운 겨울에 갑자기 쳐들어가면 누구도 감히 저들을 당하지 못하리라 타산하고 사기등등하여 진격을 계속하고있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의 장막을 헤치며 수백수천의 불뭉치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 불빛속에 땅속에서 솟아오른 억척바위인양 세 장군의 모습이 우렷이 나타났다.

《조선장수들이다!》

앞에서 달리던 오랑캐놈이 질겁하여 비명을 지르며 말의 고삐를 잡아챘다.

정신없이 내닫던 말이 앞발을 하늘높이 쳐들며 단말마의 비명처럼 투레질을 하며 울어대였다.

그의 뒤를 따르던 오랑캐들이 전진을 멈추고 돌따서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였다.

검은 포를 쓴 오랑캐두령놈이 달려나와 소요를 일으킨 오랑캐놈의 목을 단칼에 베고는 계속 돌진하라고 악을 썼다.

잔악무도한 두령놈의 칼이 두려워 내빼던 오랑캐들이 돌아서 다시 진격해왔다.

눈보라 이는 황야에서 백병전이 벌어졌다.

종횡무진으로 번개치는 세 장군과 고조선 정예병들의 창과 도끼에 도륙이 난 오랑캐들이 황야를 덮었다.

미친 종마처럼 서에 번쩍 동에 번쩍 내달으며 악을 쓰던 두령놈이 우거의 창에 목숨이 끊기자 살아남은 몇놈의 오랑캐들이 새를 넘어 줄행랑을 놓았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왕세자 우거와 대장군 장이 그토록 아끼던 장군 한나부가 허리에 치명상을 입을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왕검성으로 실려간 한나부는 우거와 장의 극진한 치료에 의해 상처는 나았으나 다시는 천마에 오를수 없는 몸이 되고말았다.

한나부는 장수갑옷을 벗고 나라의 새를 지켜 늘 함께 있던 장수들과 하직하고 고향으로 떠나갔다.

고향으로 돌아간 한나부는 오랑캐들에게 어머니마저 잃은 외딸을 애지중지 키우며 여생을 보냈다. …

그는 점점 처녀꼴이 잡혀가는 외딸을 아쉽게 바라보며 한숨을 짓군하였다고 한다.

《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소녀앞에 한숨만 짓나이까?》
외딸은 아버지앞에 엎드려 간절히 묻군했다.
《너에게 뭘 속이겠느냐. 페인이 된 나도 점점 늙어가는데 내 슬하 자식중에 대왕님을 받들어 나라지킬 대장부 없으니 이 마음 쓸쓸키 한정없노라.》
늙은 한나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뚤렁 떨어졌다.
《아버님, 소녀나이 벌써 일곱살이오이다. 내가 조금만 더 크면 사내대신 나라의 사직을 얼마든지 받들수 있다고 생각하나이다.》
외딸은 아버지의 무릎을 그러안고 슬프게 울었다.
눈물에 젖어있던 한나부의 눈에서 한줄기의 비장하고 기쁨에 넘친 광채가 번쩍이였다.
그날부터 한나부는 밤낮을 가림없이 외딸에게 글을 익히고 활쏘고 창쓰는 법, 말타고 병기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총명하고 손세빠른 외딸은 문무관의 갖춤새를 짧은 기간에 익혀갔다.
그러나 병고에 시달리던 한나부는 외딸에게 문무관의 갖춤새를 다 익혀주지 못한채 이름없는 깊은 산촌의 무주고혼이 되고말았다.
부모를 다 잃고 고향을 떠난 외딸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문전걸식하다가 제 손으로 일할 나이가 되자 물역군들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그들을 따라 두 나라새를 넘나들기 시작했다.
그 일이 눈에 익고 손에 잡혀지자 그는 단독으로 물역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는것이다.…
우거왕은 기쁨에 넘쳐 아달비의 말을 새겨볼새도 없이 그의 고운 손을 쓸어만지며 입을 열었다.
《한나부는 나에게 장수감아들을 보내겠노라고 늘 웃으며 말하군 했는데 이런 아릿다운 딸을 보냈군그래.》
아달비는 두뺨을 앵두빛으로 붉히며 머리를 숙였다.
《존부님께서는 늘 외딸밖에 없는 우리 집이니 네가 아들맞잡이로 왕검성에 가서 대왕님을 받들라 말씀하시군하셨소이다.》
《과시 한나부는 이 나라의 명장군이였노라.》
우거왕은 감격에 겨워 머리를 끄덕이였다.
《소녀는 존부님의 뜻을 안고 왕검성까지 오기를 결심하였댔소이다.》
《그래서…》
우거왕은 아달비를 자기곁에 앉히고 어여삐 바라보며 말끄리를 다그

었다.

《소녀는 물역일을 버리고 아버님의 말씀대로 비왕님을 찾아가 대왕님을 받들려 했소이다. 그런데 패수에서 섭하의 칼에 맞은 비왕님을 뜻밖에 뵈올줄이야…》

아달비는 고개를 떨구고 구슬피 울음을 터치였다.

《이것은 너 하나만이 아닌 이 나라의 아픔이노라. 그만 진정하여라.》

아달비의 잔등을 가벼이 두드리는 우거왕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게 어리였다.

《오늘은 가서 푹 쉬여라. 래일 아침 궁중평의회에서 너에 대한 대신들의 말을 들어보겠노라.》

《황공하옵니다, 대왕님.》

아달비는 자리에서 내려와 우거왕앞에 부복하였다. 그의 얼굴에 일순 회심의 미소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래일 아침 아달비는 편전에 들지어다.》

우거왕이 엄숙하게 어지를 내렸다.

3

다음날 아침.

우거왕이 옥좌에 앉자 편전밖에서 기다리던 아달비가 편전안으로 들어섰다.

아달비는 대왕앞에 꿇어앉아 밤새 안부를 묻고 세걸음 물러서 부복한채 대왕의 명을 기다렸다.

우거왕은 아달비를 그윽한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흰색에 검은 점이 박힌 평민저고리에 검은 띠를 매고 역시 같은 색갈의 아래폭이 넓은 바지를 입은 아달비의 차림은 너무도 초라하였다.

허나 궁안의 화려한 궁신들의 옷차림과 장식들도 무색하게 함은 어찌된 일인가?

궁성의 온 시선은 우거왕앞에 꿇어앉아있는 아달비에게로 쏠렸다.

어제는 비왕을 잃은 슬픔때문에 그 누구도 아달비에게 눈길을 돌릴 경황이 없었지만 지금은 궁전의 말없는 기둥들마저 아달비를 향해 굳어져 서있는것만 같았다.

그의 아름다움은 일시에 온 궁안을 무색케 하고 대신들을 놀라게 했으며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3백궁녀가 얼굴을 붉히지 않을수 없게 했다.
더욱 정신을 못차린것은 니계상 참이였다.
왕검성에서 비왕 다음가는 권력자리를 차지한 참은 녀자라면 오금을 못쓰는 추물이였다.
나라의 대장수였던 아버지가 북방오랑캐를 막고 국정을 안정시킨 공로로 니계지방의 기름진 땅 사방 3백리를 봉토받아 그 지방을 다스리다가 죽게 되자 난봉군아들인 참에게 니계가 양도되였다.
아버지의 덕으로 나라위해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대노예주가 된 니계상 참은 하늘아래 첫 임금이 된듯한 기분이였다.
세살적버릇 개 못준다고 철이 들어 주색에 인이 박힌 참은 밤낮 궁궐같은 자기 집에서 대연회를 베풀고 나라의 가인이라 소문난 나인들은 모두 불러들였다.
허나 그 많은 미인중에서도 그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가인을 찾지 못한 참이였다.
그런데 아달비가 편전의 대돌이 꺼질세라 사뿐사뿐 오이씨같은 발을 옮겨놓으며 대왕앞으로 들어서던 그때부터 대번에 참의 혼은 날아가버리고말았다.
(하늘에서 내려온듯한 저런 가인이 어디에 숨었다가 이제 나타났는고?)
어제 비왕의 시신이 왕검성에 도착했을 때 왕의 물음에 장군 한나부의 딸이라 대답한 가인의 말을 들은 생각이 났다.
(그러니 저 가인이 대장군 한나부의 딸이란 말인고?)
니계상 참은 하늘의 달덩이가 굴러오는듯싶은 아달비를 음탕한 눈길로 노려보았다.
《가인이면 쪽 못쓰는 니계상의 애간장이 타게 됐소이다.》
참의 옆에 팔짱을 끼고 서있던 조선상 로인이 수염이 허옇게 내리드리운 뾰족한 턱을 덜덜 떨며 니계상에게 뜻있는 웃음을 보냈다.
《저런 가인 있단 말 옛말에서도 듣지 못했소이다.》
참이 아달비에게 눈길을 떼지 못한채 중얼거렸다.
《그렇소이다. 이 늙은것의 애간장도 살살 녹아나는데 니계상이야 오죽하겠소이까.》
70을 넘겨 이제는 주름과 가죽뿐인 추한 얼굴에 조소를 짓고 웃어대던

로인이 이곳이 자기 집 아래목이 아니라 왕을 모신 편전이란것을 느꼈는지 일시에 웃음을 거두고 심중한 기색으로 돌아갔다.

고관대작들만 입는 명주로 지은 대신복에 관직을 표시한 황동띠를 띤 성기는 제사니의 변두처럼 밑으로 늘어져내린 후렁후렁한 팔소매에 두손을 지르고 관직표가 박힌 자기 자리에 서서 돌부처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의 눈길이 왕앞에 엎드려있는 아달비에게로 쏠렸지만 성기만은 눈을 감고 자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마음이 끝없이 쓸쓸하고 허전했다.

얼마전만해도 저앞에는 비왕 장이 서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비여있다. 그 자리를 보느라니 가슴이 미여져와 눈을 감고있는 성기였다.

비왕이 없는 궁전을 생각이나 해보았으랴.

지금 온궁의 시선이 아달비에게 쏠려있지만 그가 과연 어찌 비왕을 대신할수 있으랴.

성기는 마음이 불안했다.

이 왕궁에까지 이르게 된 물역의 천한 나인.

물론 나라의 충신으로 공을 세운 명장군 한나부의 딸이라 했으나 어쩐지 허전함을 금할수 없었다.

나인을 잘 보살피라는 비왕의 유언이 없었던들 성기는 나인을 왕궁에 들여놓지도 않았을것이다.

더우기 자신의 심중을 불안하게 한것은 아달비가 보기드문 가인이라는것이였다.

가인의 뒤에는 반드시 불행과 우환이 따르게 된다는 옛말을 그대로 믿고있는 성기장군이였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이 나라 왕궁에 불행을 끌어들인것이나 아닐가?

등골이 써늘했다.

했으나 비왕이 숨지기전에 간절히 부탁한 그 유언을 신의로 지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모든 불안을 일시에 짓눌러버리였다.

《그대는 나의 곁에 가까이 와 앉을지어다.》

흥분에 젖은 우거왕의 절절한 목소리가 성기장군의 깊은 사색을 깨쳐버렸다.

우거왕곁으로 다가선 아달비가 날씬한 몸을 천하지 않게 가벼이 굽

혀 거퍼 세번을 읍하고 우거왕곁에 주저없이 가앉았다.

성기는 아달비가 여간한 담력을 가진 나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의 말대로 한나부장군이 아들대신 교련을 주었다면 왜 물역군으로 남의 나라 새를 넘나들었을가? 물론 홀몸인 자신의 연명을 위해서는 능히 그럼직하다. 조선의 유명한 문피를 새너머에 넘기면 몇배의 리득을 얻는다. 그것이 탐나서 이때까지 두 나라 지경을 넘나들었을가?

아무리 생각을 굴려야 석연치 않은지 성기장군은 설레설레 도리머리를 저었다.

우거왕의 다정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왔다.

《그대는 어찌하여 더 일찍 나를 찾아오지 않았는고?》

수집은듯 깊이 머리숙이고있던 아달비가 앵두같은 입술에 웃음을 물고 머리를 들었다.

《대왕님과 비왕께 달리는 마음 한순간도 놓은적 없소이다. 허나 존부의 귀한 뜻 지닌 몸이온데 나이차기전에 어찌 대왕님께 부담을 끼치겠소이까.》

《음, 그래서—》

감동한듯 우거왕이 머리를 주억거렸다.

그럴 때마다 옥구슬과 금편들이 매달린 황금왕관이 번쩍번쩍 빛을 뿌렸다.

아달비는 현란한 빛발에 눈이 부신듯 어글어글한 두눈을 가느스름이 좁혔다.

그러는 아달비가 더 애교있어보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저는 나인으로 사내의 담력을 키우고저 나인의 몸에 맞지 않는 물역에 나섰소이다. 머나멀고 험준한 산맥을 톺아오르며 나라지킬 담력을 키우고 물역에 눈을 밝혀 물역으로 이 나라를 더 빛나게 받들고저 모색하며 살았소이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다.

한갖 우거왕이나 녹이고 왕궁의 지체높은 대신고관들이나 희롱하자고 왕궁으로 굴러들어왔으리라 지레짐작하고 질투하던 궁녀들의 눈이 휘번져졌다.

나인에게도 저런 담력과 지략이 있었던가싶어 놀랍기만 했던것이다.

성기도 의혹을 다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서 아달비에게 마음을 빼앗

기고말았다.
아닌게아니라 날을 따라 고갈되는 나라의 재정은 국력을 쇠약케 하는 주되는 걱정거리들중의 하나였다.
이무렵에 와서 각지에 널려져 저들의 세력확장에만 혈안이 되여 날뛰는 노예주들의 전횡이 우심해진데다가 주릴대로 주리고 짓밟힐대로 짓밟힌 노예들의 투쟁이 더욱 격렬하여져 나라의 국고는 점점 텅텅 비여갔다.
이런 때에 한갖 나인에 불과한 아달비가 나라걱정을 하며 물역으로 국력을 추켜세울 궁리를 하였다니 정녕 사나이들도 무색케 할 그 뜻이 얼마나 갸륵하고 장한것인가.
불안과 우려속에 안겨오던 가인이 한순간에 영웅호걸처럼 높이 우러러보였다.
아달비가 물역대신일을 맡아하면 나라의 물역이 얼마나 활발해지고 넓게 발을 펴랴싶었다.
허나 아직까지 이 나라력사에 나인을 대신으로 들어앉힌 실례는 없었다.
더구나 왕궁대신들과 궁녀들의 눈뿌리마저 빼는 저런 절세가인을…
성기는 설레설레 머리를 젓고 입을 꾹 다물었다.
《그래, 아달비는 내결으로 와 무슨 일을 맡아보고싶더냐?》
우거왕은 3백궁녀를 다스리는 궁녀두목을 시키리라 속생각을 굴리며 즐겁게 물었다.
우거왕앞에 두줄로 늘어서있는 왕궁대신들과 장군들, 우거왕뒤에 서서 부채를 젓고 시중을 드는 궁중시녀들까지 귀를 강구고 우거왕과 아달비를 주시했다.
왕궁의 모든 숨결이 끊어진듯 편전이 괴괴하여 바늘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지경이였다.
《그래, 생각한게 없는고?》
우거왕이 갑자르며 두볼을 빨갛게 태우는 아달비를 귀엽게 바라보며 독촉했다.
《있소이다.》
아달비가 심중한 표정으로 얼굴을 들었다.
《무엇인고, 주저말고 아뢰여라.》
《황공하오이다. 소녀는 대왕곁에서 대신으로 국가사직을 받들고싶소

이다.》
《아니, 뭐라고?!》
놀란 우거왕이 한동안 자신을 가늠못하고있다가 궁궐이 떠나가게 웃음을 터쳤다.
너무도 억이 막혀 굳어졌던 대신, 장군들도 왕을 따라 웃음을 터치고 왕궁시녀들마저 무엄함을 잊고 깔깔거렸다.
아마도 이 땅우에 나라가 생겨 왕궁이 이런 웃음으로 들썩해보기는 3천년사에 처음일것이다.
오직 웃지 않은것은 왕궁의 두공을 받치고선 기둥과 성기장군 그리고 아달비뿐이였다.
아달비는 그 소란한 비웃음에 무안을 느끼기는커녕 얼굴에 더욱 도도한 빛을 띠웠다.
이윽하여 웃음을 거둔 우거왕이 다시 물었다.
《그래 무슨 대신을 맡고싶더냐?》
《황공하오나 물역을 맡아 국력을 받들고저 하나이다. 나라안에 좋은 물품들을 두고도 교역을 잘못하여 더 얻을수 있는 재부를 놓치고있소이다.》
《뭐라고?!》
우거왕의 얼굴은 대번에 심각해졌다.
나인의 주제넘은 《넉두리》를 한갖 심심풀이로 귀엽게 받아들이던 우거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달비의 말은 틀림이 없다. 그토록 활발하던 나라의 물역이 점점 머리를 숙여 하루하루 자취를 감추어간다.
요 몇년사이 개인물역들은 변함없이 유지되고있으나 국가물역에는 누구 하나 관심돌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 후과로 왕궁에 필요한 물건들도 못들어와 나날이 불편을 느끼고 있던중이였다.
그런데 그토록 찾던 한나부의 딸이 그 몫을 맡아나서겠다니 얼마나 기특하고 놀라운가.
허나 그 중임을 한갖 궁녀에 맞춤한 아달비의 어깨에 지운단 말인가.
우거왕은 저 혼자 피식 웃으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성기는 읍하고 왕에게 아뢰였다.
《소인의 생각에는 물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아

달비로 말하면 한나부장군의 수하에서 자랐고 나라의 국력을 받들겠노라 두 나라새를 넘나들며 물역의 리치를 깨달은줄로 아오이다.》

침중하던 우거왕은 얼굴을 한층 밝히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력대로 나인을 대신으로 써본적은 없사오나 오늘날 나라안에 아달비만큼 충의에 불타고 물역에 밝은 적임자도 쉽지 않은줄 아오이다.》

《성기대신의 말이 옳토다. 국력을 떠받드는 마음 어이 나인이라 다를소냐.》

우거왕이 무릎을 치며 긍정했다.

대신, 장군들은 옥좌에서 일어나 흥분한듯 옥좌앞을 오가는 우거왕을 가슴조이며 바라보았다.

과연 우거왕이 왕검성에 굴러온 미모의 나인을 두고 어떤 어지를 내릴것인가!

우거왕은 이윽해서야 자기 옥좌에 가앉았다.

흥분했던 얼굴에 침착한 예지의 빛이 떠돌았다.

《대신, 장군들에게 묻노라. 아달비를 왕궁의 물역대신으로 씀이 어떠하겠느뇨?》

웅성이던 주위가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침묵, 불안과 우려에 얼어든 얼굴들, 흥미있게 지켜보는 궁녀들과 시녀들.

이윽하여 조선상 로인이 편전의 긴장을 깨치며 왕에게 읍하고 입을 열었다.

《대왕의 뜻이 그러하온데 어이 감히 부정하리오. 오늘 이 평의회의 이름으로 대왕의 뜻을 받들고저 하나이다.》

늘 약삭바른 로인이라 대왕의 비위를 맞추어 냉큼 아첨했다.

그러자 뒤질세라 아달비에게 잔뜩 음욕을 품고있던 니계상 참이 지지해나섰다.

《소인의 생각도 아달비가 대신이 될수 있다 생각하옵니다. 이 평의회의 이름으로 대왕님의 뜻을 받들겠소이다.》

장군 왕협도 뒤지지 않았다.

언제나 왕궁의 권력을 쥐여볼 야심에 그 달콤한 밤잠도 설치는 왕협은 제나름의 생각이 있었다.

보기 드문 저 가인을 왕궁의 대신으로 앉혀놓으면 불피코 색광인 니계상과 시기질투의 화신인 늙어빠진 조선상이 한 가인을 놓고 신경을 쓸것

이어늘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 모순을 적극 리용하면 바람안은 돛배처럼 쉽게 집권의 야욕을 실현해갈수 있으리라.

대신, 장군들의 생각은 이처럼 모두 각이했으나 자기들의 야심과 리익에 아달비가 하나의 돛배가 되리라는 일치한 생각에 아달비대신추천을 입을 모아 지지해나섰다.

《어지를 들어라. 오늘부터 아달비를 나라의 물역대신으로 봉하노라. 물역대신의 호는 〈아미꽃〉(아편꽃의 일종, 왕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으로 일러왔다.)으로 칭하노라.》

《알겠소이다.》

대신, 장군들이 머리를 숙이며 입을 모아 대답했다.

《물역대신은 래일부터 편전에 들어와 자기 자리를 차지할지어다.》

아달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거왕앞에 황공하여 머리를 숙이였다.

아달비가 편전을 걸어나가자 시기질투로 아달비를 아니꼽게 쏘아보던 궁녀들이 질겁하여 길을 내주며 그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아달비는 궁녀따위는 눈에 들지도 않는다는듯 거기에 눈길 하나 돌리지 않고 편전을 빠져나갔다.

발없는 말 천리 간다고 왕검성 왕궁에 물역대신으로 《아미꽃》나인이 섰다는 소문이 돌연히 불어오는 회오리같이 왕검성을 휘감고 왕검성의 높은 성벽을 넘어 온 나라판도로 휘몰아쳐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역적과 충신

1

물역대신 아달비는 궁성을 떠난지 한주일도 못되여 왕검성으로 돌아왔다.

왕령을 받들어 그쯘한 교섭자들까지 데리고 이역으로 국가의 정식 물역통상을 떠났던 일행은 겨우 이역나라새까지 갔다가 황급히 돌아온것이다.

아달비가 이역나라와의 물역교섭을 끝내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전갈을 들은 우거왕은 마음이 번거로왔다.

(새에서 무슨 일이 터진것이 아닐가?)

줄곧 가슴을 조이며 옥좌앞을 불안스럽게 오가던 우거왕은 편전밖의 돌계단을 밟는 가벼운 발걸음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좀 있어 수심과 불안에 잠긴 아달비가 편전안으로 들어섰다.

아달비의 차림은 현란하기 그지없었다.

긴 소매가 달린 검은원숭이가죽으로 지은 겉옷에 팔십여개의 번쩍이는 청동장식못이 빛나는 가죽장화를 신고 금, 은으로 장식한 눈부신 모자를 썼다.

우거왕에게는 아달비의 현란한 차림이 눈에 거슬렸다.

왕앞에 다가온 아달비는 황송하게 꿇어앉으며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말할지어다. 무슨 연고로 돌아왔느뇨?》

노여움에 찬 우거왕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아달비는 아무말없이 다시한번 왕앞에 읍하고는 지극히 흥분된 마음을 눌렀다.

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왕앞에 낱낱이 아뢰여야 했다.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할 때 자칫하면…

아달비는 입을 열었다.

《대왕님, 물역통상을 못하고 와 죄송하오이다. 허나 물역보다 더 중한 일이 오랑캐와 린접한 새에서 벌어지고있소이다.》

한갖 나인에 불과한 아달비가 물역대신이 되였다고 거드름을 피우며 왕검성을 떠나더니 새도 넘지 못하고 돌아왔노라 비웃던 대신, 장군들의 얼굴빛은 대번에 굳어졌다.

《그래 무슨 일이더냐?》

긴장하게 묻는 우거왕의 얼굴빛도 불안에 싸였다.

《지금 서쪽변방에 오랑캐들의 병력이 모여들고있소이다.》

《그래 수효가 얼마나 될듯 싶으뇨?》

《황부성 못미처 자나부까지 은밀히 갔사온데 2만의 무리는 실히 될듯하오이다.》

그 소리에 대신, 장군들이 질겁하여 왕앞이라는것도 잊고 웅성거렸다.

《섭하의 목을 따온 후환이오이다.》

조선상 로인이 삵의 눈으로 입을 꾹 다물고 생각에 잠겨있는 성기대신을 힐끔 치떠보며 참의 귀에 대고 수군거렸다.

《나도 그 생각이오이다. 부스럼 긁어 큰 상처를 만든다고 나라에

큰 재앙을 가져왔소이다.》
참이 제법 심중한 기색으로 맞장구를 쳤다.
장군들은 장군들대로 또 제나름의 억측을 하며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다.
편전은 불개미둥지를 헤쳐놓은것처럼 술렁이였다.
《왜들 떠들어대느뇨?》
우거왕이 대노하여 옥좌의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버럭 호령을 쳤다.
편전은 일시에 숨을 죽인듯 조용해지고 대신, 장군들이 우거왕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대왕께서 방책을 세워주심을 바라나이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나이다.》
대신, 장군들이 입을 모아 간청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퍼렇게 독이 오른 우거왕이 옥좌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말도 없이 실실이 늘어진 금수발을 헤치고 침전으로 들어가버렸다.
대신, 장군들은 왕의 령이 없었으므로 제 자리에 그대로 선채 빈 옥좌를 지키고섰다.
밖에서는 버들가지들이 갈피없이 불어치는 비바람에 우수수 떨며 때이른 락엽을 휘뿌려대고있었다.
왕이 없는 편전은 주인 없는 집과 같아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이슥하여 왕을 시중하는 궁녀가 황금비단발을 헤치고 나왔다.
《대왕님께서 모두 헤쳐가랍시오이다. 래일 아침 평의회가 열림을 알리라 하셨소이다.》
궁녀의 말이 끝나자 웅성거리며 모두들 헤쳐갔다.
텅 빈 편전에는 성기대신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왕이 없는 편전이 대신, 장군들마저 떠나가버리니 더욱 쓸쓸하기만 하였다.
성기는 편전의 창밖으로 흘러가는 검은 구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방금이라도 대줄기같은 비를 콱 쏟을것 같은 하늘이였다. 마치 경각에 이른 나라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지금 왕궁의 대신, 장군들은 간악한 오랑캐와 싸울 준비가 되여있지 못하였다.
대신, 장군들은 경각에 이른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한푼값도 안

나가는 목숨을 건지려고 될수록 싸움을 피하려 할것이다.

그들에게는 이 나라의 3천년사직과 후손만대 복락해갈 단군겨레의 미래가 중한것이 아니라 봉토받은 몇뙈기의 땅이 더 소중했고 그들에게 많은 재부를 가져다주는 자기의 노예, 그들의 피의 산물인 금은붙이와 곡물, 비단이 더 귀할것이다.

게다가 대노예주들과 귀족들이 자기 노예들을 끝없이 확장하는데만 피눈이 되여 돌아치다나니 군사의 원천이 심히 고갈되여있었다. (당시 노예들은 군사로 될수 없었다.) 정규군이래야 왕검성에 9천명, 국읍, 읍락에 상주군 4천명이 전부였다.

이제 급한 시일내에 민들속에서 군사를 뽑아 관군을 묶으려 해도 나라의 통치체계가 마비되여 그럴만한 힘이 없었다.

성기장군은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았다.

이런 때 비왕이라도 있었으면 기둥이 되여 사태를 바로잡을수도 있으련만 이제는 이 사태를 어찌 수습하며 나라앞에 밀려드는 이 검은 구름을 어찌 막는단말이냐.

성기는 가슴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어쩌면 좋을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는다.

래일 아침에 열리게 될 궁중평의회에도 기대걸것이 못된다. 기껏 말싸움에 불과할것이며 오히려 국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라 할것이다.

(아, 강성 3천년력사에 이 어찌된 일인고.

성스럽고 거룩하신 환인하늘님이시여, 환락속에 휘말려드는 해밝은 나라 단군조선을 구원해주옵소서. 구원해주옵소서.)

성기는 동쪽으로 꿇어앉아 합장을 하고 피터지는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몇줄밖에 안되는 그 주문속에 이 나라의 운명이 실려있는듯이…

주문을 끝낸 성기장군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채 일어날념을 안했다.

손잡고 이 액란을 헤쳐갈 동료들이 그리웠다. 마음처럼 의지해 싸우던 뜻있는 장군, 군사들을 오랑캐들과의 싸움에서 다 잃고 아버지처럼 믿던 비왕마저 없고보니 쓸쓸한 마음속에 쓸어드는것은 슬픔과 비감뿐이였다.

하늘에 빌면 마음이 좀 개운해질가싶었지만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하

고 무겁기만 했다.

《장군, 너무 상심마소이다.》

성기의 등뒤에서 구슬을 굴리는듯한 나인의 목소리가 조심히 울렸다.

깜짝 놀란 성기는 얼른 흩어진 몸자세를 바로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성기의 등뒤에 수심에 젖은 아달비가 머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아, 대신, 어찌 퇴전하지 않으셨소이까.》

당황한 성기장군이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장군께옵서 고심하시온데 저인들 어찌 발걸음 가볍겠소이까.》

수심과 걱정에 잠긴 그의 얼굴은 신비할 정도로 아름다왔다.

《소인은 아직도 패수가에서 받은 장군의 사랑과 은혜를 갚지 못했소이다. 가까이 모셔 은혜갚을 생각 산같았으나 편전의 눈길들이 예민하여 마음뿐이였소이다.》

성기는 온몸을 찌릿하게 하는 야릇한 충격을 느끼며 느슨히 웃음을 지었다.

《은혜랄것까지 없소이다. 그저 비왕님의 최후를 돌봐준 그 진정이 고마왔소이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황공하오이다.》

아달비는 두손을 앞에 모아 성기대신에게 거펴 읍하고나서 얼굴을 들었다.

갓 떠오른 보름달인양 환한 얼굴에 생기를 머금고 빛을 뿌리는 두눈, 앵두같이 불타는 빨간 입술은 담찬 사나이의 마음을 흔들었다.

《장군, 오늘은 우리 집에 가사이다. 오늘이 제일 좋은 기회일가 하나이다. 편전에 보는 눈이 없으니 후에라도 말 있을리 없지 않겠소이까.》

성기대신에게 바싹 다가든 아달비의 높은 숨결이 성기의 결백하고 준수한 마음을 한순간에 허물어냈다.

《저도 대신이기전에 한갖 나인이오이다. 사랑이 그립고 대장부의 억센 애무가 그립소이다.

장군, 아달비의 간절한 마음의 벗이 되여 이 밤을 지내주사이다.》

간을 태우고 오륙을 녹이는듯한 아달비의 어여쁜 웃음이 성기장군의 눈앞에서 꽃구름처럼 피여일더니 이 세상의 모든 향기를 모두 모아 뿌리는듯 야릇한 향기가 물씬 풍겨왔다.

눈앞은 하늘나라의 선녀인듯한 아달비의 얼굴로 가득 찼다.

이 쓸쓸한 밤을 이 가인과 한마음되여 독한 술을 기울이며 지내고나면

설등한 마음이 한결 밝아질것 같기도 했다.
성기장군은 저도모르게 가인의 향긋한 품속으로 끝없이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쳐 몸을 떨었다.
나라의 운명이 위협당하고있는 이 긴박한 시각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있단말인가?!
과연 내가 단군의 피줄을 이은 이 나라의 대장부란말인가?
끝없는 유혹속에서 빠져나온 성기장군은 수치를 통감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나라를 구할 생각은 못할지언정 너는 무엇을 그렸더냐.)
누구 하나 보는 이 없었건만 성기장군은 만백성의 조소와 눈총의 한복판에 선듯 마음이 저렸다.
《대신, 고맙소이다. 허나 이 밤에 할 일도 많으니 시간을 낼것 같지 못하오이다.》
성기는 조용히 아달비의 유혹을 물리쳤다.
《급히 흐르는 물도 소에 이르러선 조용히 걸음을 멈추었다 흐르나이다.
정에 사는 사람이 어찌 한길만 알겠소이까.》
간절한 아달비의 은구슬 굴리는듯한 목소리가 마음 다잡는 사나이의 가슴을 또다시 흐트러놓는다.
《얘, 거기 마부가 없느냐?》
성기장군이 편전밖에 대고 들썩하게 소리쳤다.
편전 멀리 화려한 마교차를 준비해놓고 성기대신을 기다리던 젊은 마부가 편전앞까지 겅중겅중 뛰여와서 대돌앞에 넙적 엎드렸다.
《부르셨소이까?》
편전밖에서 마부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어서 마교차를 준비하라!》
자리에서 일어선 성기장군이 편전의 문을 열며 소리쳤다.
《예에이—》
마부가 달려가자 뒤미처 일산을 씌운 화려한 마교차를 세마리의 가라말이 끌고왔다.
《물역대신, 마교차에 오르시오이다. 집까지 모셔다드리겠소이다.》
성기장군이 자기의 화려한 마차에 오르며 아달비를 청했다.
약간 조소가 섞인듯한 아달비의 웃음이 성기장군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고맙소이다. 허나 소인은 원래 남의 마교차에 발을 올려놓지 않는 성미오이다. …

바우 게 없느뇨?》

아달비의 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궁전앞마당에 세워놓았던 성기장군의 마교차와는 비할바없이 화려한 마교차가 세마리의 말에 끌려 번쩍이며 굴러왔다.

마교차가 흔들릴 때마다 바퀴축에 달린 방울이 요란하게 울어대고 금, 동으로 장식한 화려한 마교차가 해빛이 없는데도 눈부시게 빛났다.

《장군께선 천천히 따라오사이다.》

마교차의 일산밑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은 아달비가 성기장군옆을 번개같이 지나치며 뇌까렸다.

뒤이어 덜렁거리며 달리는 아달비의 마교차에서 간드러진 웃음이 터져 궁전정원을 들썩하게 만들었다.

성기장군도 말을 때려몰며 왕궁을 떠났다.

하늘에서는 머지 않아 폭우를 쏟아부을듯 번개가 번쩍이더니 하늘이 점점 더 캄캄해왔다.

2

왕궁안의 평의회는 아침부터 긴장한 분위기속에서 열렸다.

빨리 군사를 보강하고 항전할 준비를 갖춤으로써 위험에 처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우거왕의 국가방책을 놓고 대신, 장군들의 생각은 각이했다.

물론 대신, 장군들의 뜻을 널리 들어 함께 받드는것이 평의회라 하지만 왕의 말을 중시하지 않을수 없고 거의가 왕의 뜻대로 흘러가는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은 물론 대신, 장군들의 생사여부를 론의하는 이 평의회는 성격이 달랐다.

모두들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여 우선 목숨부터 건져보자는 심산으로 론의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러다나니 지방세력이 강한 니계상 참과 우거왕의 패가 자연히 갈

라져 심각한 론쟁을 아니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참이 우거왕의 뜻을 결연히 반대하여나섰다.

《지금 국력이 말이 아니오며 우리 군사가 수만도 못되오이다.

게다가 나라의 기둥인 비왕까지 없고나니 군사를 맡을만한 인재도 없소이다. 그런 형편에서 력량상 대비도 안되는 오랑캐와 맞선다는것은 닭알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다 생각하오이다.》

《그러니 니계상은 어쩌자는 의향이오이까?》

성기가 물었다.

참의 날카로운 눈이 비웃듯 성기장군을 힐끔 치떠보고는 확신하듯 입을 열었다.

《오직 출로는 화평의 길로 나가는 한길뿐이오이다. 나라를 구하는 길은 그길 하나뿐인줄 아오이다.》

《화평하면 간악무도한 오랑캐가 우리 나라를 위해 선덕을 베풀것 같사옵니까? 아니오이다. 그럴 마음이면 서쪽오랑캐가 우리의 비왕을 죽이지도 않았을것이며 강력한 군사를 우리의 새가까이에 집결할것도 없을것이오이다.

오직 오랑캐의 속심은 이 땅을 집어삼키자는것이온데 온 나라가 들고일어나 항전하는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인줄 아오이다.》

성기장군이 론리정연하게 니계상 참의 투항론을 반대해나섰다.

긴장한 분위기가 편전의 공기를 당겨놓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했다.

대신, 장군들이 우거왕의 기색을 흘끔흘끔 살피였다.

우거왕은 목석인양 눈을 감은채 입을 꾹 다물고 옥좌에 무겁게 앉아있을뿐 좀처럼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아슬아슬한 침묵이 무겁게 편전에 드리웠다.

이 침묵은 어느때건 끝날것 같지 않았다.

허나 다행히 장군 왕협이 일어나는바람에 팽팽하던 분위기는 조금 풀어졌다.

왕협장군은 성기장군 다음으로 고조선의 군력을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위치에 있었다.

때문에 왕협의 의사에 따라 평의회의 방향이 달라질수도 있다.

허나 우유부단한 왕협의 태도가 어떻게 번져갈지 지금은 그 누구도 가늠할수가 없다.

단지 가슴답답한 분위기를 조절해주었다는 안도감으로 하여 좌중은 왕

협을 고맙게 생각할뿐이였다.
평의회때만은 대신, 장군들이 모두 왕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한다.
전에는 제가의 아홉인원이 평의회를 구성하고있었으나 지금은 편전에 드는 모든 대신, 장군들이 모두 평의회에 참가한다.
거만한 눈찌로 대신, 장군들을 둘러본 왕협이 패기가 느껴지는 팽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예로부터 미친 개는 갈 길을 열어주고 때리라 하였소이다.
성기장군의 의향대로 전면항전에 나서면 미친 개는 노호하여 우리를 물어메칠것이어늘 그것은 자멸의 길을 의미하오이다.
방책은 잘 떠오르지 않으나 서쪽오랑캐와 타협하는 길이 옳을가 하오이다.》
분격한 성기장군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는바람에 왕협은 질겁하여 제자리에 물러앉았다.
《타협하는것은 곧 투항의 길이요, 제 목숨을 스스로 야수의 이발에 맡기는것이어늘 타협은 절대로 할수 없소이다.》
서리발 풍기는 성기장군의 목소리가 편전을 뒤흔들었다.
얄미운 눈길로 성기를 흘끔 치떠보던 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기장군은 그자리에 선채로 일어서는 니계상의 눈길을 정면으로 맞받아보았다.
《왕협장군의 말에도 충분한 리치가 있소이다. 현재 우리의 군력 가지고 수많은 서쪽오랑캐를 막을수 없는것은 뻔한 일이거늘 앉아서 죽을수는 없는 일이고 타협의 길에 살수가 생길지 어찌 알겠소이까.》
《그것은 니계상답지 않은 일이요. 예로부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소이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런 억측부터 하는것은 우리 단군겨레의 배짱이 아니라 생각하오이다. 오직 항전의 길만이 살길이오이다.》
성기장군의 대답에 말이 막힌 니계상은 표독스러운 눈길로 성기장군을 노려보았다.
오가는 두사람의 눈길이 맞부딪쳐 번개라도 일듯 싶었다.
이때 아달비가 조용히 끼여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모두 앉으시오이다. 일이 되자 하는 평의회이온데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 무엇이 남겠소이까.

한갖 나인에 불과한 제가 군사에 아는것 없고 불초한 몸이오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의 자그마한 주추돌이 되였으면 하오이다.》
낯이 붉어진 니계상과 성기장군이 비로소 자리에 꿇어앉았다.
모든 대신, 장군들의 눈길이 아릿다운 대신의 얼굴에 모아졌다.
나인이라 마지막까지 숙보던 조선상 로인마저도 긴장하게 아달비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광채가 도는 부드러운 눈길로 좌중을 둘러본 아달비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소인은 성기장군의 뜻을 따르고싶소이다. 마지막 끝까지 사직을 지켜싸우자는 뜻이 단군겨레사나이의 배짱이고 고명한 뜻인줄 아오이다.》
대번에 참이 머리를 떨구었고 늙은 여우같은 로인은 무엇이라 알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며 채머리를 흔들었다.
죽은듯 눈을 감고있던 우거왕이 룡상의 팔걸이를 주먹으로 힘껏 내리치며 눈을 번쩍 떴다.
《나인들의 생각도 이러하거늘 대체 투항하자는 말이 어찌하여 나오는고?》
웅성거리던 좌중이 우거왕의 호령에 얼음장같이 굳어지고말았다.
《니계상이 아뢰여라. 화평하자면 어떤 방책이 있을고?》
우거왕의 날카로운 눈길이 엉거주춤 일어서는 니계상을 쏘아보았다.
대번에 주눅이 들어버린 니계상이 그 자리에서 끙끙 갑잘랐다.
《방책까지는 생각이 닿지 못했소이다.》
《성기장군 아뢰여라. 대적을 막자면 어떤 방책이 있는고?》
성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왕앞에 머리를 숙였다.
《왕검성에 9천의 군사가 있고 국읍, 읍락에 또 4천이 있소이다. 이것을 기둥으로 군사를 뽑아 수많은 군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오이다.》
《그럴 방도가 있느냐?》
우거왕이 흥미를 가지고 물었다.
《있소이다. 궁성의 대신, 장군들이 왕검성에만 박혀있지 말고 빨리 읍락들에 나가 군사를 뽑고 병쟁기를 벼려야 하는줄 아오이다.》
일시에 좌중이 또다시 벌둥지를 쑤셔놓은듯 웅성이였다.
분격한 대신들이 로골적으로 성기장군을 비방해나섰다.
《변괴이오이다. 대신들이 읍락에 나가 상민들과 자리를 같이한단

말 듣다 처음이오이다.

법도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허참…》

조선상 로인이 채머리를 흔들며 옆의 대신의 귀에 대고 수군거렸다.

《다음 또하나의 방책이 있소이다.》

좌중의 소음을 저력있는 목소리로 눌러버리며 성기는 말을 이었다.

《지금 금나수를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 란동을 부리며 숨어다니는 수많은 노예무리들이 있소이다. 그들을 잘 돌려세운다면 우리는 수만의 병력을 얻는것이나 같사오니 시급히 화해책을 강구하는것이 필요할줄로 아옵니다.》

순간 모두의 어리둥절해진 눈길들이 성기장군에게로 날아갔다.

일순간 벼락을 맞은듯 굳어졌던 좌중은 잠시후 불맞은 장마당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하였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소이다. 아무리 나라가 경각에 이르렀다 하온들 어찌 노예들과 손을 잡겠소이까.》

로골적인 분격의 목소리가 성기장군과 우거왕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금나수에 웅거해있는 노예들이란 노예주들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모여든 무리로서 오래전에 나라에서 《반란의 무리》로 락인한 《죄인》들이였다.

나라는 그 《죄인》들을 진압못하여 어지간히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그런데 그《국적》들과 손을 잡는다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겠는가.

분격을 참지 못해 조선상 로인이 채머리를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예비적들과 손을 잡자는것은 이리를 쫓기 위해 호랑이를 불러들이는것과 같사오니 물불을 가림없이 날뛰는 미천한 노예들이 오랑캐보다 먼저 우리를 물어뜯을것이오이다.》

대신들은 금시라도 노예무리들이 왕검성에 뛰여들어 굶주린 호랑이마냥 닥치는대로 뜯어먹고 불지르고 죽여버릴것만 같아 온몸에 전률을 느꼈다.

대신, 장군들은 흘끔흘끔 성기장군을 훔쳐보며 치를 떨었다.

허나 감히 성기장군의 위세앞에 도전하려는자들은 없었다.

나라의 군력을 틀어쥐고있는데다가 대가 바르고 성격이 칼날같은 장군에게 도전하는 길은 스스로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여드는 행위나 같다고 생각하는 그들이였다.

게다가 성기장군에 대한 우거왕의 신임은 그 어느 신하들에게보다 두

터웠다.
오직 도전해나설 존재는 많은 노예와 니계지방의 광대한 땅을 거머쥐고 나라안의 큰 권력자로 군림한 니계상 참뿐이였다.
우거왕이 니계상에 대해서는 극력 주의하고 그와 의를 상하려 하지 않는것도 바로 그런 연고에서였다.
대권력자의 코대는 하늘에 닿아있었다.
그러니 감히 그와 도전할 엄두를 가진 대신, 장군은 없었다.
허나 성기장군만은 례외였다.
니계상 참이 제아무리 《권세》를 뽐내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릇된 행실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르며 도도히 맞서군하였다.
이에 자존심이 상해 평소부터 은근히 별러오던 참은 때를 만났다는듯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성기의 기를 꺾어야 한다, 아니 가능하다면 그를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려야 한다, 그를 제거해버리기에는 폭동을 일으키고 금나수에 들어박혀 왕검성을 노리고있는 노예무리를 두던한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대왕님, 성기장군의 말은 망발이오이다. 무지한 노예무리를 왕검성에 끌어들이는것은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것과 같사오이다. 그렇지 않아도 왕검성을 호시탐탐 노리는 역적의 무리온데…》
다음순간 벌떡 몸을 일으키는 성기장군의 서슬에 참은 흠칠 몸을 떨며 입을 다물어버렸다.
《노예도 단군성왕의 피를 받고 태여난 백성이오이다.
왕검성에 간악무도한 오랑캐를 끌어들이는것보다 겨레붙이를 끌어들이는게 더 무섭소이까? 어디 말 좀 해보소이다.》
성기는 부글부글 울화가 치밀어오르는것을 견딜수가 없었다.
물론 노예군을 인입하자고 결심했을 때 어느정도 대신, 장군들의 반대를 예견하지 못한것은 아니였지만 이처럼 처음부터 완강한 저항에 부딪칠줄은 미처 생각지 못한 그였다.
《그러니 장군은 정말로 노예들을 믿는단 말이오이까?》
여직껏 침묵을 지키고있던 장군 왕협이 입을 열었다.
《노예군을 왕검성에 들여놓고 안놓고 하는것은 차후문제고 먼저 뜻을 같이 하자는것이오이다.
노예들이라고 어찌 제 땅과 제 겨레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겠소이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태도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하오이다.》
성기는 흥분을 누잦히며 조리있게 설명했다.
《어찌하여 장군은 대신들이 싫다하는 일을 그리도 한사코 고집하시는지 소신은 리해가 되지 않사오이다.》
팽팽한 분위기를 누잦히려는듯 아달비가 부드러운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왜서인지 웅성거리던 좌중이 조용해졌다.
성기장군은 스스로 자기가 침착해지는것을 느끼며 저으기 가라앉은 음성으로 론거를 되풀이하였다.
《수많은 서쪽오랑캐와 대적하자면 관군의 력량만으로는 어림도 없소이다.
나라안에서 대부분은 하호나 노예들이온데 그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렬세한 군력을 충당할 길이 없소이다.》
《하오나 노예를 군사일에 쓰지 않는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이고 국책이 아니오이까?》
아달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전례는 그러하오나 나라가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한 오늘 어찌 옛법만 따르면서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을수 있겠소이까.
옛법이나 국책도 다 나라를 위해서 있는것이거늘 합당하지 않다면 마땅히 고쳐야 되지 않겠소이까?》
성기의 조리있는 말에 그 누구도 선뜻 반박하지 못했다.
왜 그런지 당황해 하는 아달비의 얼굴에 한줄기 불안의 그림자가 스쳐지나갔다.
대신들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상마냥 눈을 꾹 감고 앉아있는 우거왕에게로 시선을 모았다.
이제는 대왕이 결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얼마후 우거왕이 천천히 눈을 뜨고 엄한 눈길로 대신, 장군들을 굽어보았다.
《아달비대신의 말이 옳도다. 국법에 노예를 군사로 쓰지 않게 되였은즉 어찌 국법을 우롱하겠느냐. 모두들 알겠는고?》
우거왕의 얼굴에는 근엄한 빛이 흘렀다.
대신, 장군들이 대왕앞에 머리숙이고 입을 모아 대답했다.
《명철하시오이다.》

이렇게 되여 성기가 주장하던 노예폭동군과의 제휴는 파기되고말았다.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 이제는 모두 페궁조회를 하는가 했는데 왕이 엄숙한 자세로 왕봉을 쳐들고 일어섰다.
대신, 장군들이 일시에 정숙하며 왕을 향하여 머리를 숙였다.
왕봉을 쳐들면 왕의 엄명을 선포하는것이였다.
단군의 족장봉의 전통을 이어 나라는 대를 이어 왕봉을 물려오고있다.
우거왕이 왕봉을 이어받은지 벌써 12년이 흘러갔다.
그동안 우거왕은 한번도 이 왕봉을 쳐든적이 없었다.
그 왕봉이 오늘 왕의 손에 높이 쳐들리였다.
3천년사직이 경각에 이른 지금 이 왕봉밑에서 어떤 령이 떨어질것인지?!
드디여 왕이 입을 열었다.
《이 시각부터 나라에 〈전시〉를 선포하노라.》
대신, 장군들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졌다.
국난의 최후시기 《전시》는 왕이 선포하는 마지막수단이였다.
나라에 국난이 인다 해도 《전시》가 아니라 왕이 장군들에게 일임하여 령을 받은 장군들이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군한다.
《전시》가 내리면 자연히 왕은 군력의 최고통수자가 되며 평의회의 모든 권한은 왕에게 집중된다.
시종들이 궁성 깊숙이 간직했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우거왕의 갑옷과 투구를 가져왔다.
《입혀라!》
허리에 띠였던 눈부신 황금빛 해와 호랑이와 룡이 부각되여 위세를 돋구던 왕띠를 풀며 우거왕은 령을 내렸다.
바빠맞은 시종들이 왕의 몸에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웠으며 황금빛철편이 절렁이는 장화를 신기였다.
어느새 왕의 청동단검과 방패, 지휘봉을 든 시종들이 옆에 와서 기다리고있었다.
온궁안이 긴장에 부르르 몸을 떠는것만 같았다.
《듣거라. 며칠내로 곧 왕검성의 성주를 임명하겠노라. 오늘은 모두 돌아들가라.》
우거왕의 령이 침묵에 빠진 궁중을 찌렁 울렸다.
당장 출전하는줄 알고 초긴장상태에 빠졌던 대신, 장군들은 일시에 맥

이 빠진듯 엎드린채 일어나지 못했다.
왕이 아무 말없이 침전으로 사라지자 대신, 장군들이 뒤에 불이라도 달린듯 뿔뿔이 도망치듯 헤쳐져갔다.
성기는 끝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갑자기 《전시》를 령한 우거왕의 심중을 가늠할수가 없었다.
서쪽오랑캐들은 아직 침략의 기도를 보일뿐 행동은 언제일지 가늠키 어려웠다.
《전시》는 놈들의 침략행동과 동시에 령하는것이 상례이다. 례를 뛰여넘은 왕의 의도는 무엇인가? 비왕이 죽은 뒤 이슥토록 좀좀하던 왕이 급기야 성주를 임명함은 또 무슨 리유일가?
비왕이 성주자리를 겸하고있었는데 그가 죽은 후 성주자리는 비여있었다. 이번 성주는 불피코 니계상 참이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성기는 걷잡을수 없는 불안으로 가슴이 떨렸다.
서쪽오랑캐와 타협안을 들고나서는 참이 성주자리에 앉으면 왕검성은 오랑캐의 성이 되고만다.
그래서 차라리 성주를 임명하지 않는 왕의 처사를 고맙게 생각해온 성기장군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무슨 벼락이란말인고?
《장군, 이제는 돌아가사이다.》
부드러운 나인의 타이름이 등뒤에서 들려왔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아달비가 얼굴에 웃음을 짓고 서있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마시고 푹 쉬시오이다. 이 성안에 성기장군마저 없으면 나라는 어찌 되겠소이까.》
눈물에 젖은듯한 가냘픈 나인의 목소리가 성기장군의 철벽같은 가슴을 두드렸다.
《대왕님께서 니계상어른을 성주로 임명하시옵고 국난을 헤쳐가려 하심이 분명하오니 신하된 우리로서 그 뜻을 받들지 아니할수 없지 않소이까.
너무 상심치 마소이다. 절벽우에서도 살 길이 있을줄 아오이다.》
성기는 아달비가 자기의 심중을 너무도 환히 꿰들고있는데 놀랐다.
성기는 무심결에 아달비의 눈부신 얼굴을 여겨보았다.
문득 이 나인이 세상만사에 도통한 귀신이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않은 다음에야 사내대장부 속깊은 마음을 어찌 그토록 속속

들이 알수 있단말인고.

《마교차를 불렀소이다. 어서 오르시오이다.》

아달비의 얼굴에 눈을 팔던 성기장군은 그때에야 편전의 열려진 문밖에 자기의 마교차가 와 서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고맙소이다, 대신.》

성기는 알수없는 정회로 가슴이 찌릿해왔다.

말없이 조용히 외로운 자기를 돌봐주는 아달비가 진정으로 고마왔다.

성기는 힘있는 걸음으로 편전을 나서 돌계단을 내려섰다.

3

우거왕의 침전둘째귀에 불이 일정도였다.

꼬리에 꼬리를 이어 대신, 장군들이 들어왔다.

모두가 성기장군에 대한 송사질이였다.

성기장군을 왕검성에 두었다가는 대환란을 면치 못한다는것이다.

모든 대신, 장군들이 입을 모아 당장 성기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욱욱했다.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눈을 감은 우거왕의 얼굴에는 번뇌의 기색이 확연했다.

이제는 귀가 웅웅거려 열을 올려 송사하는 대신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역증이 나서 침전을 닫아매고싶었으나 그럴수도 없었다.

신하들의 말도 모두 들어봐야 한다. 그래도 그속에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다는 미련이 우거왕으로 하여금 마음을 자제케 하고 의지를 발휘하게 하였다.

《대왕님께서 얼마나 고달프시겠소이까? 그러나 너무 상심마시오이다.》

아직까지 듣던 거칠고 열이 오른 목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내물과 같이 부드러운 음성에 우거왕은 비로소 눈을 떴다.

앞에 뜻밖에 전복을 갖춘 아달비가 부복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아, 아달비로군.》

우거왕은 여전히 몸을 일으키지 않은채 손을 내밀어 침상의 한쪽을 가리켰다.

《어서 자리에 앉아라.》
《황공하오이다.》
아달비는 거듭거듭 왕에게 절을 하고 우거왕이 가리키는 침상의 한 쪽구석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전복을 하였는고?》
아달비의 날씬한 몸에 갑옷이 걸쳐진것을 보고 우거왕은 의아하여 물었다.
《대왕님께서 전복을 갖추시였는데 신하된 몸으로서 어찌 편복을 하겠소이까.》
《그대는 과시 나의 신하로다. 장군들도 전복을 갖추지 않고 왔는데 전복은 유독 성기장군과 그대뿐이로다.》
전복한 맵시있는 몸매며 아릿다운 미모가 은근히 우거왕의 눈길을 끈다.
우거왕은 이마우에 주먹을 올려놓으며 맥빠진 어조로 중얼거렸다.
《이런 때 그대 아버지와 비왕이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뇨. …》
그러는 왕을 바라보며 아달비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하잘것 없는 나인의 몸이지만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해서 소신이 충정을 다하겠나이다.》
그제야 우거왕의 안색은 다소 밝아졌다.
《고맙도다. 그대는 무엇때문에 나를 찾아왔는고?》
다정한 목소리로 묻는 우거왕에게서는 그대로 귀여운 딸을 대하는 어버이의 자애가 넘치였다.
《대왕님 심중이 걱정되여 왔댔소이다.》
《이를데없이 고맙도다. 왔던김에 이야기나 함께 나누고 갈지어다.》
《황공하오이다.》
아달비는 일어나 세번 읍하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런 례식이 필요없노라. 마음놓고 몸가짐을 하여라.》
우거왕은 한껏 기분이 좋아 자기 가까이에 아달비를 앉히였다.
《게 누구 없느냐?》
우거왕이 침전밖에 대고 소리치기 바쁘게 시종궁녀가 달려들어와 왕앞에 머리를 숙이고 분부를 기다렸다.
《독한 술을 가져올지어다.》

《알았소이다.》
시종궁녀가 급히 사라졌다.
뒤이어 기름진 음식상이 차려졌다.
《자, 마음놓고 들지어다.》
우거왕은 아달비앞에 놓여있는 보시기에 넘쳐나게 술을 부었다.
《소인은 못하오이다.》
아달비가 얼굴을 돌리며 두뺨을 빨갛게 태웠다.
《그러고보니 그 장수복이 아달비에겐 어울리지 않노라. 하하…》
우거왕이 호탕하게 웃으며 아달비의 갑옷등을 두드렸다.
《그러하오면 내 들겠소이다.》
아달비는 서슴없이 갓 낳은 아이머리만한 보시기를 들어 단숨에 쭉 들이켰다.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바쁘게 아달비는 재채기를 하며 얼굴을 싸쥐고 돌아갔다.
얼굴이 딸기물에 젖은듯 새빨개졌다.
《과시 나라대신이 분명코나. 하하…》
우거왕이 즐거움을 금치 못해 껄껄 웃었다.
얼근히 취한 우거왕은 숯불에 타는듯한 아달비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대왕께서 그러하시면 소인은 몸둘바를 모르겠소이다.》
아달비가 수집은듯 얼굴을 돌리고 어쩔줄 몰라했다.
《대신은 나를 속이고있도다. 어찌하여 그대는 나에게 진심을 터놓지 않는고?》
아달비는 가슴이 섬찍했다.
허나 인차 얼굴표정을 고치며 얼굴에 웃음을 짓는 아달비의 모습은 그대로 한송이의 활짝 핀 모란꽃을 련상시켰다.
《황송하오이다. 신은 대왕님의 신상이 걱정되오이다. 아버님을 여의고 이 나라에 의지할분은 오로지 대왕님 한분뿐이온데 그렇게 파로하시다가 옥체라도 상하시면 신은 누굴 믿고 살겠나이까.》
진정이 어린듯 마디마디 떨리는 아달비의 말에 우거왕은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대의 진정 더없이 갸륵하도다. 하건만 나라일이 편안치 않으니 잠시인들 어찌 마음을 놓을수 있겠느뇨.
아, 밖으로는 오랑캐들이 칼을 벼리고 안에서는 대신, 장군들이 저마끔 날치니…》

우거왕의 얼굴에 폭우를 쏟칠듯한 검은 구름이 비껴든다.
《그대는 성기장군을 어떻게 생각하는고?》
불쑥 우거왕이 물었다.
아달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라일에 사심이 없고 대왕님께 충정을 다하는 신하라고 소신은 생각했소이다. 그런데 대신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숨김없이 말해보라.》
《알겠소이다.》
아달비는 정색해서 자세를 가다듬고나서 우거왕에게 터놓았다.
《대신들의 말이 앞뒤가 다른 사람같다 하오이다.
지금 나라가 전란의 위기에 처한것도 성기장군이 섭하의 목을 따온데서 비롯되였고 노예비적들과의 합세를 운운하는것도 실은 이 기회에 무지한 노예들을 부추겨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갈기자는데 진의도가 있다 하오이다. 심지어…》
아달비는 왜 그런지 말을 멈추었다.
《계속하라!》
우거왕이 재촉해서야 아달비는 저으기 송구스러워하듯 말을 이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때에 성기장군이 오랑캐들과 야합하여 반역을 꾀하고 왕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대신들까지 있소이다.》
우거왕은 괴로운듯 신음소리를 냈다.
(과연 성기가 그런 신하란 말인가?! 그래도 비왕을 잃은 후 그를 내 한팔로 의지하려 했는데… 어, 괘씸하도다.)
성기장군의 사촉을 받은 노예무리들이 왕궁으로 벌떼처럼 덤벼들어 닥치는대로 도륙내는 광경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우거왕은 죽지부러진 새처럼 어깨를 늘어뜨리고 한숨을 지었다.
《그대의 생각도 대신들과 같은고?》
《소신은 차마 믿을수가 없지만… 천길 땅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하지 않소이까.》
아달비의 목소리는 분명찮게 잦아들었다.
그래도 우거왕은 그 말을 믿을수 없다는듯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때 신하 하나가 왕에게 다가와 니계상 참이 왔다고 전갈하였다.
순간 우거왕의 얼굴이 질게 흐려졌다.

(또 성기장군에 대한 송사질인가?)
하건만 왕은 별수 없다는듯이 신하에게 령했다.
《들여보내라.》
신하가 나가자 곧 참이 들어섰다.
참은 선불맞은 짐승마냥 푸르딩딩한 기색이였다.
《대왕님, 금나수의 노예비적들이 왕검성으로 올라오던 봉물짐을 털어내고 봉물짐을 호송하던 나의 가병들까지 잡아갔소이다.》
《뭐라구?!》
우거왕은 대번에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
《괘씸한 무리들, 오랑캐들이 침노하는 위급한 때에 뒤에서 칼부림을 하다니…》
생각할수록 울화통이 터져 우거왕은 체면도 잊고 씨근덕거렸다.
니계상은 타오르는 왕의 심기에 키질하듯 더욱 열을 올렸다.
《보다 괘씸한것은 성기장군의 소행이오이다. 집안이 이처럼 어수선한 때에 그러한 역적의 무리들을 끌어들이자고 한사코 고집하니 이야말로 초상난 집에 가서 소리하고 춤추는 행실이 아니고 무엇이오이까.
성기야말로 대왕님을 우습게 알고 겉과 속이 다른 간신이고 나라의 화근인줄 아오이다.》
우거왕의 낯색이 푸르다 못해 죽은 사람마냥 창백해졌다.
꽉 다문 입술이 경련을 일으켜 푸들푸들했다.
잠시후 우거왕은 격분을 누르며 물었다.
《금나수의 노예비적을 거느리는자가 누구인고?》
그러자 참이 선뜻 대답을 올렸다.
《우마라고 전에 우리 집 가내노예로 있던놈이오이다.》
《우마? 음, 내가 사냥갔을 때 만났던 장사같은 노예로구나.》
왕의 눈섭이 사납게 곤두섰다.
《그렇소이다. 원체 힘이 장사인데다가 흉폭하기가 갈범 한가지여서 끝내 길들이지 못한놈이오이다. 이런 화근인줄 알았더면 그때 아예 죽여버리는건데…》
참도 분개한듯 아래턱을 덜덜 떨며 붉으락푸르락했다.
우거왕은 천정에 초점잃은 눈길을 던지고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우마— 우마… 우마라…》

니계상 참이며 조선상 로인, 장군 왕협 등 간신무리들의 상소질에 의해 우거왕은 끝내 성기장군을 옥에 가두고말았다.

성기장군이 옥에 갇힌 날 저녁 참의 집에서는 대연회가 벌어졌다.

왕궁과 좀 떨어진 둔덕에 성곽마냥 높은 토성을 두르고 그 안에 십여채의 집이 들어앉아있었다. 니계지방의 대노예주 참이 니계상으로 된 후 왕가와 겨룬다면서 수천의 노예들을 내몰아 지은 집이였다.

참은 자기의 토지와 구리터와 쇠부리터들이 집중되여있는 니계지방의 소스나에도 자기의 훌륭한 집이 있지만 왕검성에도 집을 지었다.

화려한 기와를 이은 집들은 네귀가 번쩍 들려 어디에서 보아도 위엄있고 장중함이 과시 우거의 왕궁과 겨룰만하였다.

토성안에는 커다란 인공못이 들어앉았는데 못가운데 정각이 서고 활처럼 휘여든 돌다리도 있었다.

못에는 둥근 밥상만한 련꽃잎들이 둥둥 떠있고 련꽃을 심지 않은 정각우측의 맑은 물에서는 팔뚝같은 잉어들이 꼬리를 휘저으며 노는 꼴이 별세상처럼 느껴진다.

본채를 이루는 특별히 화려하게 지은 집의 너렁청한 방에서는 온밤 뚱땅거리며 술을 퍼마시고 무악과 떠들고 웨쳐대는 소음이 어지럽게 밤공기를 뒤흔들었다.

방가운데로 길게 늘어놓은 연회상 량옆에는 대신, 장군들이 둘러앉고 상의 한쪽끝 상좌에는 술에 너무 취하여 벌겋게 피발이 선 눈을 게슴츠레 뜬 참이 무녀들과 아릿다운 나인들속에 묻혀 건들거렸다.

《자, 마음껏 퍼마시고 실컷 자시오이다. 래일은 나라의 대역적 성기를 목치는 날이니 이 밤을 마음껏 즐기며 노시오이다.》

아첨과 권모술수에 이골이 난 대신, 장군들이 성안의 권력자 니계상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비굴한 웃음을 짓고 술잔을 높이 쳐들며 니계상의 건강을 빌었다.

《래일 어르신네들은 장쾌한 광경을 보게 될것이오이다. 성기의 목에서 흐르는 피를 보게 될것이고 한줄기 연기로 사라지는 그자의 모습을 보게 될것이오이다.》

만취된 참이 무녀들의 어깨에 겨우 의지하고 서서 희열에 넘쳐 떠들어댔다.

《어디 그뿐이오이까. 래일은 니계상 참이 성주로 높이 일어서는 날이

어늘 이 아니 기쁜 날이 아니오이까.》
여우귀신같은 조선상이 이발이 반나마 빠진 입을 호물거리며 참을 추어올렸다.
《그런 말씀 마시오이다. 대왕님의 신임이 그러하여 할수없이 맡게 되는 대임인데 그 신임에 보답할것 같지 못하오이다.》
참이 한껏 마음이 들떠 손을 휘휘 내저으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어느새 그의 앞을 막은 무녀들이 길게 늘어진 저고리의 긴팔을 너풀거리며 축하의 춤을 추어대기 시작했다.
참은 할수없이 무녀들속에 둘러싸여 자기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마치 왕검성의 성주가 다 된듯이 거만하게 젖히고앉아 눈도 바로 뜨지 못하는 참의 모습은 그대로 술독에 빠졌다 나온 성성이같아 가관이였다.
그런 《성성이》를 성주노라고 추어올리고 떠들고 마시고 지껄여대는 대신, 장군들의 추태는 더욱 역겨웠다.
이런 때 악사들도 한몫 단단히 볼 심산이였던지 앞을 다투어 발광을 했다.
공후가 궁글은 소리를 지르고 현악기들이 째지는 소리를 내는가 하면 꽹파리며 징이 악청을 돋구었다.
그속에 묻혀버린 피리를 든 악사도 소리로 질바치고는 몸짓으로라도 한몫 보자는듯 피리부는것은 흉내뿐이고 몸짓, 발짓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그중에 점잖은것은 큰소라껍질로 만든 라패를 든 악사였는데 누가 지껄이겠으면 지껄이고 두드리겠으면 두드려라 하고 지그시 눈을 감고 라패를 불어대는데 그 궁근 소리가 마치 전설에 나오는 수중궁의 신비한 소리처럼 느껴졌다.
시중군들이 부어주는 술을 꿀꺽꿀꺽 들이키던 참이 술대접을 집어던지더니 꽥꽥 혀꼬부라진 소리를 질러댔다.
《어째 나의 옆에는 가인이 없는고?》
바빠맞은 아첨군들이 가기 싫다는 나인을 붙잡아 강제로 참앞으로 떠밀어댔다.
발버둥치던 나인은 할도리가 없었던지 참앞으로 다가가 부복하며 얌전하게 절을 올렸다.
《새지골 소읍 준령(소읍에서 군사를 책임진 사람)의 딸 마미라 하

옵니다.》
《새지골 마미라? 어디 좀 관상을 보자.》
참은 이제야 겨우 열네댓이나 되였을 나인의 턱을 손끝으로 들어올렸다. 남보다 배가 넘는 큰 입에 눈과 눈사이 미간이 너무 멀어 눈이 귀에 가 붙은것 같고 이마가 뚝 삐여진 얼굴은 너무 길어 마치 성이 난 말상을 련상시켰다.
참은 소스라치듯 놀라며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나인을 찬찬히 뜯어보다가 성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펄펄 뛰였다.
《발칙하기 그지없는놈들이로다. 이걸 사람이라고 나에게 보냈느뇨. 당장 이 나인을 마구간에 내다 매놓지 못할고.》
참은 앉은채로 노발대발하며 발을 탕탕 굴렀다.
인물 못난 이 나인을 참에게 보낸 관료배들의 그 행동에는 참에 대한 일종의 야유와 조소가 비껴있었다.
《거기 시위대장 없는고?》
참이 문밖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시위대장이 뛰여들어왔다.
《묻는 말에 정히 대답하거라. 왕검성에 제일가인이 누군고?》
참이 눈을 게슴츠레 뜨고 취기든 목소리로 물었다.
《왕검성에는 유명한 세 가인이 있소이다.》
시위대장이 읍하고 입을 열었다.
《세 가인이라? 어디 아뢰여보아라.》
《예에, 모두가 이르는 말이 어르신의 딸 나리와 성기장군의 시녀 아사리라 하옵니다.》
《다음 또하나는…》
시위대장이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렸다.
《낱낱이 아뢸지어다.》
《예. 소부루가 있사온데…》
참이 놀랍게 눈을 흡떴다.
《어서 아뢰여라!》
참이 닭알같은 군침을 꿀꺽 삼키며 다그쳐물었다.
시위대장은 숙였던 머리를 들어 힐끔 참을 쳐다보며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 왕검성에서 모두들 이르기를 왕검성 세 가인중에 소부루가

제일이라 하온데 그의 신분과 행적이 명확치 않아 본 사람이 없소이다.》
《이 발칙한것들…》
참은 편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노여움을 썼다.
《왜 나에게 그 가인을 숨기려 하느뇨?》
당황한 시위대장이 바빠맞아 머리를 조아리며 떠듬거렸다.
《어르신을 속일 우리가 아니오이다. 사람들이 알기에는 천한 노예의 소신인데 왕검성에 있다고도 하고 여기서 천리밖 소천노라는 소읍에 있다고도 하나이다.》
《어째 그래 다갈(머리)들이 암둔하냐. 왕검성 세 가인이니 왕검성에 있지 소천노는 무슨 소천노란 말이냐.》
《예? 예, 그러고보면 그러하온데 소부루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우귀신이 분명한것 같소이다.》
《음, 그러니 나에게 래도할 가인은 아사리밖에 없다는 말이로구나.》
《예에!》
시위대장과 니계상주위에서 수수떡에 팥고물처럼 묻어돌아가는 아첨군관료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참은 눈을 지그시 감고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아마도 함박꽃같이 아릿답고 오얏속같이 향기롭게 익은 아사리를 생각하는것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꽃같은 딸을 낳아준 자기의 애첩이였던 시종가인을 그리는것인지.
나리는 비천한 노예였던 자기의 어미를 그대로 빼물어 닮았다.
그래서인지 아릿다운 자기의 딸을 볼 때면 늘 애첩을 생각하군하던 참이였다.
참이 부리는 가내노예중에는 조그마한 체질에 남달리 어여쁘게 피여나는 열세살 소녀가 있었다. 그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있던 참은 본댁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려 조상산에 간 틈을 리용하여 소녀노예를 자기의 침방에 불러들여 성욕이 내키는대로 주물러놓았다.
남모르는 치욕속에 눈물의 나날을 보내던 소녀노예에게 태기가 있게되여 얼마후에는 달덩이같은 나리를 낳게 되였다. 많은 첩들이 왜 그런지 아이를 낳지 못하여 고심하던 참은 피덩이에게 정이 들어 소녀노예를 소실로 받아들였다.
참의 사랑을 독차지한 노비첩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본댁은 나리가 젖도 떨어지기전에 사니(무당)를 불러들여 굿을 보게 한 다음 소실

을 이 집에 두면 재앙이 쌍으로 덮쳐 가문이 망한다고 귀마산에 실어내여 생사람을 승냥이들이 뜯어먹게 하였다.
이렇게 되여 이 세상에 눈부신 가인으로 태여났던 노비는 나리 하나를 남겨놓고 이름도 없이 초로인생으로 사라져버렸다. …
눈을 번쩍 뜬 참이 사위를 둘러보며 호령했다.
《아사리를 내앞에 대령시켜라.》
근신노복이 참앞에 부복하며 시위대장이 벌써 아사리를 데리러 갔다고 아뢰였다.
참은 만족한듯 흥에 겨워 머리를 끄덕이였다.
참은 이미부터 왕검성의 가인 아사리에게 눈독을 들이고있었으나 우거왕의 총애를 받는 성기장군이 두려워 어쩌지 못하고있었는데 이것이 절호의 기회인가싶었다.
왕검성의 유측 소나무들이 서있는 둔덕에 성기의 집이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기와집이 아담한 토담에 둘러싸여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앞에 자그마한 정원이 있고 그 뒤에 성기장군이 거처하는 집이 있다. 집 왼켠에는 몸종들의 방이 있고 오른켠에는 마구간이 있다.
마구간앞에는 화려한 마교차 한채가 서있었다.
시위대장은 다짜고짜로 대문을 열어제끼고 앞뜰로 들어섰다.
성기의 방은 캄캄한채로였는데 그 옆 시녀방의 문창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여나오고있었다.
《아사리는 문밖으로 썩 나서지 못할고?》
시위대장은 키를 넘는 창대를 짚고서서 호령했다. 성기장군이 있으면 대문밖에서부터 설설 기여서 들어올 시위대장이였건만 성기장군이 옥에 갇혔으니 이 뜨락에서 저이상 없는듯 하다.
방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다.
《들었는고, 못들었는고? 어서 썩 나서지 못할가.》
창대를 쾅쾅 땅바닥에 두드리며 시위대장이 노하여 소리쳤다.
이윽하여 불빛이 새여나오는 방문이 방싯이 열리더니 열서넛 돼보이는 애어린 나인이 나와 시위대장앞에 읍하며 물었다.
《무엇때문에 그러시오이까?》
《네가 아사리뇨?》
《아니옵니다. 저의 언니벌되는 이가 아사리옵니다.》
《아사리를 불렀는데 네가 중뿔나게 나섰느뇨.》

시위대장이 발을 쾅쾅 구르며 나인을 잡아먹을 기세로 눈을 부라렸다.
《성기장군께서 아사리언니를 돌보라 소인에게 령했소이다.》
《령이고 개발이고 그런 역적의 말은 모른다. 아사리를 내놓지 못할고.》
이때 문이 열리며 점박힌 흰저고리에 분홍빛의 화려한 주름치마를 입은 가인이 그림처럼 우아하게 나타났다.
시위대장은 그만에야 호령을 그치고 넋이 빠진듯 아사리를 헤해서 바라보며 서있었다.
《어찌하여 고명하신분들이 나인의 방에 와 호령부터 하오이까. 용무가 있으면 정당하게 행할것이지 너무한가 보오이다.》
아사리가 담쑥 고개를 숙이며 꾸짖는데 그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가락처럼 시위대장의 가슴을 후려냈다.
《용서하오이다. 워낙 호령밖에 배운게 없어 그러하오니 널리 알아 노여움을 푸사이다.》
시위대장은 천지의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무색케 할 아사리의 미모에 넋이 빠져 그의 아래로 설설 기여들 자세였다.
《무엇때문에 저의 집에까지 어려운 걸음을 하셨소이까.》
시위대장의 분별없는 눈길에 노여움을 받은 아사리는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참성주께서 부르시오이다.》
《참성주라?! 소인은 그런 성주를 모르옵니다.》
《이 밤은 성주가 아니오나 래일 아침은 성주로 될것이오이다.》
시위대장이 마치 자기 상관에게 대답하듯 공손히 말했다.
《언니, 가지 마사이다. 니계상어른은 나인들을 롱욕하고 헌신짝처럼 집어던진다 하오이다.》
시종나인이 겁에 질려 아사리의 팔을 부여잡고 울상을 했다.
《어른께서 부르는데 그러면 못쓰느니라. 내 가겠으니 구마야, 집 잘 보아라. 내 방에 들어가 준비하고 나오겠소이다.》
시위대장은 아사리가 수월하게 나오는바람에 입이 귀밑까지 째져 흐뭇함을 금치 못했다.
소갈머리없는 나인이 하늘소 뒤발통 버티듯 딱 잡아제끼는 날이면 큰 일이다. 엄령을 지키지 못한 죄로 매는 말할것도 없고 당장 시위대장 자리에서 쫓겨날 판이다.

그런데 나인이 인물도 절색이요 마음도 까다롭지 않고 시원시원하니 그지없이 돋보인다.

저런 하늘의 선녀같이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나인이 이 왕검성안에 몇이나 될고.

아직 장가전인 시위대장은 온속이 엿가락 녹아들듯 노근해지며 속이 벌컥 뒤집혔다.

렴치없는 시위대장이 외짝사랑으로 속을 앓고있는데 문이 방싯이 열리며 외출차림을 한 아사리가 나왔다.

색갈고운 연한 록색의 두루마기같은 겉옷을 입고 빨간 명주허리띠를 꽉 졸라맸는데 목둘레를 감돌고 겉옷의 앞기슭을 따라 내려오며 돌린 노란색의 깃은 아사리의 아름다움을 환히 더해주고있었다.

겉옷밑으로 부채를 접었다가 약간 펴놓은듯싶은 백설처럼 하얀 주름치마자락이 보이는데 그것은 아사리의 순결하고 억세인 마음을 내비쳐주는듯 하였다. 그밑의 앞코가 뾰족하게 들린 새까만 가죽신은 그의 오이씨같은 발을 가볍게 감싸고있었다.

초롱불을 든 시위대장이 앞에 서고 그뒤로 아사리가 등불을 들고 사뿐사뿐 따라갔다.

참의 연회장에 아사리가 나타나자 대신, 장군들은 너무 놀라 한순간 모두들 굳어져버렸다.

정절이 높기로 왕검성에서 소문이 자자한 아사리가 어지러운 참의 연회장에 나타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일순간 굳어졌던 연회장이 갑자기 폭풍에 휩싸이기나 한듯 와짝 끓어댔다.

방금 산봉우리우로 솟구쳐오른 보름달같은 아사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온 연회장을 일시에 환히 밝혀놓는듯싶다.

열이면 아홉 실패를 면치 못하리라 생각했던 참은 너무 좋아 입이 귀밑까지 째지였다.

《파시 듣던바 그대로 왕검성의 미녀가 틀림없을지고. 하하…》

참이 호탕하게 웃으며 음탕한 눈길을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있는 아사리에게 보냈다.

참을 시중하던 나인들이 질투에 입을 비죽거리며 자리를 피해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아사리가 참앞에 조용히 꿇어앉아 읍을 하고는 입을 열었다.

《무엇때문에 소인을 부르셨소이까?》

참은 아사리의 그러는 모습이 즐거운듯 호탕한 웃음을 터치며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이 왕검성에 나인이 많아도 아사리같은 가인은 없는줄 아노라. 그러하니 이 즐거운 밤을 나와 함께 마음껏 즐겨볼지어다.》

아사리는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소녀는 창나(창녀)가 아니오이다. 성기장군의 시종나인에 불과하나이다. 여기서 제 할 일 더는 없다면 소녀는 떠나가겠소이다.》

아사리가 참에게 읍한 후 초롱불을 들고 결연히 문밖으로 나서자 연회장의 고관대작들이 놀라와 입을 벌린채 다물지 못했다.

그보다 더 놀란것은 참이였다.

이 왕검성의 나인치고 자기에게 도전해나설 나인은 단 한명도 없다. 자기가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누워야 하는줄 안다.

그 누구든 자기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다가는 그 나인은 다음날 시체로 되여 귀마산에 던져져 이리의 밥이 되고마는것이다.

그런데 아사리는 무슨 담이 있어 죽음도 저렇듯 도고히 맞받아나가는것인고.

이윽해서야 정신이 번쩍 든 참은 퇴돌밑으로 사뿐히 내려서는 가인을 보며 대신, 장군들에게 선고했다.

《오늘 밤만 저 가인에게 꿈을 잘 꾸어볼 시간을 주노라. 래일 아침 나는 저년의 붉은 피로 왕검성의 길들을 물들이고 그 우에서 성주입성식을 하겠노라.》

들끓던 연회장이 불맞은 초상집처럼 공포의 분위기속에 휩싸였다.

죄없는 한갖 아녀자를 서슴없이 해하려는 저 권력의 군림자가 후날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도륙내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한단 말인가.

《시종이 어디 있는고?》

참이 문쪽에 대고 소리쳤다.

삭발한 노예심부름군이 달려와 문밖에서 두손을 앞에 합장하고 머리를 땅에 닿게 숙였다.

《어서 마승(큰 승냥이의 일종)을 가져오도록 할지어다.》

《알았소이다.》

노예심부름군이 힘있게 대답하고 사라졌다.

뒤미처 가내노예들이 줄지어 커다란 술대접을 가지고 들어왔다.
긴 상우의 대신들과 장군들앞에 술대접이 하나씩 놓여졌다.
《빨리 마승을 끌어올지어다.》
참이 소리치기 바쁘게 가내노비들이 꽁꽁 묶은 일곱마리의 마승을 끌어왔다.
바오래기에 묶이운 마승들이 집안이 떠나가게 괴상한 비명을 질러대며 살벌한 눈길을 희번뜩이였다.
온 연회장이 야수의 울부짖음으로 가득찼다.
《시작할지어다.》
참이 호령쳤다.
가내노예들이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마승을 끌고가 대신, 장군들의 앞에 놓여진 술대접앞에 이르더니 날카로운 청동단검으로 마승의 목을 찔렀다.
마승의 목에서 터져나오는 피를 맑은 술이 담겨진 대접에 떨구었다.
샘물처럼 맑던 술이 빨간 피물이 되고말았다.
온 방안이 야수들의 단말마적비명과 피비린내로 가득차 무시무시한 지옥같았다.
비위가 약한 놈들은 벌써 낯이 까맣게 질려 몸을 떨었다.
참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이들 머리통만한 대접을 번쩍 들어올렸다.
《오늘의 이 뜻깊은 연회를 즐거움만으로 끝낼수 없다.
우리의 왕검성에 성기와 같은 대역적이 있는 한 여러 제가대신들이 편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나라마저 녹아날것이다. 이것을 모른다 하면 후날 자손들이 우리를 원망할것이며 대를 두고 저주할것이다.
역적을 요정내고 나라의 위기를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 나라의 역적을 제거하는데서 우리는 마승같은 결패와 힘을 떨쳐야 한다. 이 마승술을 마시면 온몸에 마승의 힘이 뻗칠것이다. 자, 모두 마승술을 들자.》
참은 단숨에 대접을 기울여 붉은 피를 들여마시고는 천천히 빈 대접을 상우에 놓았다.
《우리도 마승술을 듭시오이다.》
몇몇의 아첨군들이 술대접을 들자 대신, 장군들이 련이어 대접을 들어올렸다.
이렇게 니계상 참의 연회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광기를 띠였다.

4

참의 집에서 피의 주연이 벌어지고있을 때 삼바로 온몸을 칭칭 묶이운 성기는 차거운 옥에 갇혀있었다.

사람의 목대만큼 굵은 통나무를 다듬어 앞에 촘촘히 대여 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삼면을 억척같은 담벽으로 둘러막은 옥은 가옥들과 떨어진 한적한곳에 자리잡고있었다. 앞뒤로는 무성한 나무들뿐이고 인적이라곤 창을 들고 감옥앞을 한가로이 오가고있는 파수뿐이다.

나무우듬지에 걸린 반쪽달이 차거운 옥바닥에 교교한 달빛을 던져주었다.

온몸에 달빛을 받으며 한쪽벽에 기대여앉아 목창밖을 내다보는 성기의 눈에는 서글픔이 어려있었다.

가슴이 미여져나가는것만 같았다.

(나라위한 충정이 이 한오리의 삼바에 칭칭 묶이여야 한단말인가.)

입으로 피가 쏟아져나올것만 같았다.

(내 한몸이야 이러한들 어떠하리. 한데 충신이 없는 이 나라가 파연 갈 길이 어데이뇨. 아, 비왕 장의 혼백은 지금 어데를 헤매고다니는단말이뇨.)

성기는 가슴이 터져오는듯하여 태질했다. 그래도 꽉 멘 가슴은 열리지 않고 두눈으로는 걷잡을수 없는 눈물만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렸다.

(아, 3천년사의 조선아. 파연 너의 운명은 어찌되여가느냐.

거룩하고 거룩하신 단군성왕께옵서 어찌 오늘의 이 비참한 처지를 알기나 하셨으리.)

성기는 옥에 갇힌 몸되여 어쩔수 없는 자신이 안타깝기만 했다.

왕을 꾀여 나라를 서쪽오랑캐에게 팔아먹고 자신들의 안락만을 추구하려는 참일당이 지금은 어떤 모략을 꾸미고있는지 알수 없어 더욱 불안했다.

지금이라도 군력을 추켜세우며 병쟁기를 장만하고 반항하는 노예들을 항전에 돌려세운다면 서쪽오랑캐를 능히 막을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나라의 국력도 튼튼히 할수 있으련만 오히려 서쪽오랑캐의 경거망동에 겁을 먹고 물러설 생각을 먼저 하니 나라의 운명이 어찌된단말

인고.
역적의 모해를 입고 형장에서 사라질지언정 모진 광풍에 시달려 떨어진 잎새가 한줌의 거름이 되듯이 나라의 영원한 밑거름이 되고싶은 성기장군이였다.
어찌하면 이 형국을 바로잡을수 있을고. 우거왕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고.
인적 먼 이곳에 갇힌 한이 하늘에 닿을듯싶었다.
차거운 달빛을 벗삼아 이 밤을 지내야 하는 성기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비감에 휩싸여버렸다.
《누구냐?》
달빛속에 파수의 야무진 웨침이 들려왔다.
성기는 무심결에 몸을 바로세우며 나무창살짬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렴풋한 달빛속 멀리 움직이는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다.
《말을 하지 못할가, 누구냐?》
파수가 창을 꼬나들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옥을 향해 걸어오던 형체가 문득 멎어서더니 입을 열었다.
《성기장군을 찾아오나이다.》
뜻밖에 가냘픈 나인의 목소리였다.
성기는 자기를 찾아올 나인이 있을것 같지 않아 이상히 여기며 잔뜩 귀를 강구었다.
《성기장군은 무엇때문에 찾아오느냐?》
파수가 재차 물었다.
《장군의 시종나인이오이다.》
아사리의 목소리가 확실하다.
(집을 떠나지 말라했는데 무엇때문에 이 어려운 걸음을 하는것일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긴것이나 아닐가?)
성기의 마음속에서는 기쁨에 앞서 불안의 구름이 뭉개쳤다.
《그래, 그럼 잠간 만나고 돌아가거라.》
파수의 목소리에서는 동정이 력연히 느껴졌다.
성기장군의 옥고를 가슴아피 생각하는 파수들이였다.
파수들은 될수록 성기장군의 불편을 덜어주고 그의 요구대로 해주려고 무척 애를 썼다.
《장군어른—》

아사리가 나무살에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무릎걸음으로 다가간 성기는 애달파 울부짖는 아사리를 어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다가 눈물만 그득히 머금었다.

신분관계로 보면 노예와 주인간이였지만 이들은 부녀간보다 더 자별했다.

아사리가 열살 잡히던 해 그를 부려먹던 노예주는 그가 병이 들게 되자 쓸모가 없는 물건짝처럼 내다 팔았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성기는 구슬피 울고있는 어린 노예를 보게 되였다.

성기는 애써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지나치려 했으나 무엇때문인지 같은 또래의 팔려나온 노예들보다 더 구슬퍼보이는 어린 노비를 뇌리에서 지워버릴수 없었다.

성기는 소읍에 있다가 갓 왕검성에 관리로 등용되여 올라온터라 노예를 살만한 돈이 없었다. 할수없이 몸에 가지고있던 몇가지 귀물들을 팔아 10만전을 장만한 성기는 그 돈으로 어린 노예를 샀다.

어린 노예의 이름은 아사리였다.

어린 노예 아사리가 성기의 집으로 올 때 절반짜리 청동거울 한쪽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노비의 재산의 전부였다. 아사리는 커가면서 뽀얏하게 맑아지는 얼굴을 반쪽뿐인 청동거울에 자주 비쳐보군했는데 그것이 어찌나 애처롭게 느껴졌는지 성기는 주인마나님네들이나 쓰는 크고 맑은 청동거울 하나를 마련하여 아사리에게 가져다주었다.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기뻐할줄 알았던 아사리가 뜻밖에도 구슬픔에 잠겨 외면해버리였다.

성기는 너무도 이상하여 아사리에게 사유를 물었다.

《소녀는 이 세상의 모든 훌륭한 거울을 합한것보다 깨여진 이 청동거울이 더 중하오이다.》

《그건 어찌 그러하냐?》

성기가 놀랍게 물었다.

눈물에 젖어 쪼각청동거울을 껴안고 흐느껴울던 아사리가 이윽하여 진정하더니 어린 가슴에 멍진 뼈저린 아픔을 토로했다.

그 어디 가든 꼭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자고 눈물속에 오랍이 쪼개준 한쪽의 청동거울.

그 거울 반쪽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사는 노비가 불쌍하고 애처로와

성기도 마음이 저으기 젖어들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로부터 성기는 아사리를 더욱 각근히 대해주었던것이다. …

《아사리, 여긴 무엇하러 왔느냐?》

성기가 창살밖으로 아사리의 손을 잡아쥐며 다급히 물었다.

《소인은 장군어른과 함께 있겠소이다. 주인어른을 위해 소인이 여기에서 공후를 타겠소이다.》

《그래서 공후를 가져왔느냐?》

감동한 성기의 얼굴이 밝게 빛나더니 인차 가슴아픈 비운으로 흐려졌다.

《나야 옥살이하니 할수 없다만 너야 무엇때문에 여기에 앉아 고생할고. 어서 돌아가 가사나 잘 돌보거라.》

아사리가 훌 떠나버리면 섭섭하고 허전하리라 생각했지만 추운 밖에 아사리를 세워놓고 고생시키고싶지 않아 성기는 짐짓 엄하게 말했다.

《용서하소이다. 이건 소인이 하고싶어 하는 일이옵니다. 장군께서 그토록 공후를 좋아하시는데 내 없는 재주지만 욕하지 말고 들어주사이다.》

아사리는 옥밖의 대돌에 앉아 공후를 타기 시작했다.

맑고 은은한 공후소리가 쪽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밤하늘에 울려퍼졌다.

아리아리 아라리
아리아리 아라리
건너지 말랬는데
굳이 건너시네

아사리의 맑은 목소리가 공후소리와 어울려 은은히 퍼져갔다.

성기는 자신이 삼바에 칭칭 묶이여 옥에 갇혀있다는것도 잊고 스르르 눈을 감으며 노래속에 빠져들었다.

가슴속에 알지 못할 찌릿한 정서와 함께 아사리를 제 동생같이 키워오던 생각이 흉금을 쳤다.

부모없이 살아갈 나인이 밖에 나가 천시받고 가슴아픈 수모를 받지 말라고 짬짬이 글을 가르쳤고 밤마다 자기 말의 뒤꽁무니에 태우고 나가

인적없는 등판에서 무술과 말타는 법을 가르쳤다.
눈썰미 빠르고 영특한 아사리는 하나를 배워주면 열을 내짚었고 파업을 주면 그 무엇이건 밤을 지새워 기어이 해내고야말았다.
성기는 아사리가 치마만 두르지 않았으면 장수감은 능하다고 진정 아쉬워했다.
재간도 남달라 활쏘는 법을 대주었더니 얼마 있지 않아 날아가는 까마귀를 쏘아 떨구어 성기의 눈을 휘둥그렇게 만들어놓았다.
그보다 더 큰 놀라움은 아사리가 자기가 쏘아 떨군 까마귀를 집어가지고 왔을 때였다.
대견하여 아사리가 넘겨주는 까마귀를 받아든 성기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화살이 몸에 박히지 않아 어디 갔는가 했더니 까마귀의 두눈을 꿰질러 지나갔던것이다.
아사리는 또한 남달리 정서가 깊었다.
성기는 공후에 남다른 취미가 있어 아사리에게 밤마다 공후를 배워주었더니 이제는 악사들을 무색케 했다.

아리아리 아라리
아리아리 아라리
그이 건지 마시라
빠가 가시오니
아, 님을 어이하리

밤은 깊어갔지만 공후소리는 더더욱 애타게 밤공기를 찢었다.
성기는 모든것을 잊어버렸다.
오직 아름답고 장엄하며 가슴설레이는 그런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것 같았다.

5

우거왕은 온밤 왕검성의 밤하늘을 애타게 쥐여뜯는 공후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침전에 홀로 남아 번잡한 생각에 싸인 우거왕은 밤잠이 없는 어느 악사가 심심풀이로 공후를 타고있겠거니만 생각했었는데 온밤 그칠줄 모르고 왕검성의 고요한 하늘을 뒤흔들고있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침상에서 일어난 우거왕은 창가에 다가서서 공후소리가 울려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왕검성 서쪽성우에 한쪽 뿌리를 박고 갸웃이 성안을 들여다보는 달의 희미한 빛발속에 무연한 나무숲이 누웠는데 그 끝은 희미하게 펼쳐져있는 하늘가에 녹아버렸다.

이상한 공후소리는 그 녹아버린 숲속에서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 쪽이면 인가가 없는 쪽이고 왕검성에서도 제일 유축진곳이다.

(그 무슨 애타는 일이 저 공후속에 묻혀있을고? 밤을 모르는 저 악사의 마음속에는 그 무슨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일고?)

우거왕은 신비한 세계에로 빠져드는 자신을 감촉했다.

《밖에 누구 없는고?》

우거왕은 문밖에 대고 시종군을 불렀다.

침전밖에 쭈그리고앉아 끄덕끄덕 졸고있던 시종궁녀가 펄쩍 정신이 들어 왕의 침전문을 열고 들어섰다.

《속히 시위대장을 부를지어다.》

《알겠나이다.》

시종궁녀는 그달음으로 달려나가 편전쪽에 대고 소리쳤다.

《시위대장 침전에 들라 하시오이다.》

흘쩍 놀란 시위대장이 달려왔다.

《침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소이까?》

아닌밤중에 홍두깨라고 온 왕검성이 깊은 잠이 든 이때 왕이 부르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아니오이다. 대왕께서 잠에 드시지 못했소이다.》

시종궁녀가 공손히 아뢰였다.

시위대장은 서둘러 침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얼른 가서 저 공후의 주인을 알아올지어다.》
《예?!》
시위대장은 영문을 몰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어서 그리 하여라. 밖에 나가면 알게 될지어다.》
《알겠소이다.》
…
어제 저녁 니계상의 시중군이 급보를 가지고 왕의 침전으로 들어섰었다.
《어찌된 일이냐?》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은 우거왕은 급히 물었다. 시중군이 니계상의 말을 전했다.
역적 성기의 시종 아사리가 국정을 렴탐하러 다니는데 자기네 집 울타리까지 뛰여넘어 렴탐한것이 아무래도 안심찮다는것이였다.
아사리는 남달리 활을 잘 쏘고 말을 탈줄도 아니 성기의 령을 받고 국정을 내탐하여 노예군에게 제공하는것이 분명타는것이였다.
성기와 손이 이어진 노예군이 오랑캐로 하여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 왕검성을 치려고 흉책함이 분명하니 아침에 성기의 목부터 쳐야 한다는것이였다.
뒤이어 북풍에 락엽이 쓸어들듯 왕의 침전에 뛰여든 로인이며 왕협 등 나라의 대신, 장군들이 빨리 성기의 목을 쳐야 한다고 일치하게 들고 일어났다.
처음 니계상의 시중군이 들어와 고소할 때는 참의 기질을 고려하여 충분히 그가 과장할수도 있겠다고 우거왕은 짐작하였었다.
그래서 참의 말쯤은 마구간의 호마 방귀만큼도 여기지 않았는데 련속 찾아든 대신, 장군들이 성기의 목을 치지 않으면 나라가 다시는 만회할수 없는 망조의 구렁텅이에 빠져 든다는 일치한 송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혹시 성기의 속심을 모르고 그를 너무 믿고있지 않는가?! 어쩌면 대신, 장군들의 의사가 그처럼 같을수 있을가?)
우거왕은 점점 대신, 장군들의 의사가 옳다는 생각에로 기울어졌다.
그렇지 않다면야 성기가 무엇때문에 왕정을 짓밟고 왕의 피를 보겠다고 금나수에 틀어박혀 기회만 노리는 노예군을 왕검성으로 끌어들이

지 못해 그럴고?

처음 성기가 노예군들을 서쪽오랑캐를 막는데 써야 한다는 말을 들고 나섰을 때 머리끝이 오싹했으나 그의 조리있고 타당성이 있는 말을 들으니 성기가 옳다고 대번에 리해했던 우거왕이였다.

(정말로 성기는 서쪽오랑캐를 막는다는 명색으로 노예군을 끌어들여 왕궁을 점령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타고앉으려 하지 않는가?)

온몸이 오싹하며 등골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비왕이 그처럼 애써 키운 충신의 마음속에 그런 독침이 자라고있었단말인고?

그러나 인차 우거왕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성기는 그럴수 없는 사람이다. 비왕이 패수에 갔을 때도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그 사지판으로 솔선 뛰여들지 않았더냐. 그때 어느 대신, 장군 하나 왕의 아픔을 생각하여본적이 있었던가.

오직 성기의 진심이 나라의 운명을 생각했을뿐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대신, 장군들이 일치하게 성기를 역적으로 보는것인가.

성기가 무술과 기마를 배워준 아사리가 렴탐을 다닌다니 그것 또한 너무도 심상찮은 일이다.

그러면 그 아사리가 성기가 갇힌 옥에도 찾아갔을수 있다.)

아슬아슬한 벼랑끝에 선듯한 우거왕은 이럴 때 의지할 지팽이를 제때에 찾아들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제일충신이였던 한나부의 딸 아달비였다.

모든 대신, 장군들이 빠짐없이 송사하러 왔으나 아달비만은 오지 않았다.

전번 침전에 왔을 때 성기에 대해 물으니 남에게 밀며 뚜렷한 자기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성기에 대한 대바른 견해는 그에게 있을것이다.

(물역대신 아달비의 말을 들어보자.)

그리하여 편전에 불리워온 아달비는 깊은 생각에 빠져 모색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조언을 주는것이였다.

《소인도 성기장군만한 충신이 궁중안에 더는 없다고 생각했소이다. 아쉽지만 대신, 장군들의 의견이 일치하오니 어찌하겠사옵니까.

생명을 노리는 종처는 아프지만 제때에 도려버려야 한다 하였소이다.》

아달비의 말이 섭섭하고 허전했지만 우거왕도 그렇게 믿을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아달비가 그것이 대왕의 최대신임을 받고있는 성기에 대한 질투로부터 나온 대신, 장군들의 몰리해였다고 한마디만 하였어도 정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우거왕은 아침 해뜨기전에 성기를 화형대우에 세우라고 형기대장에게 령을 내렸다.
이렇게 성기에 대한 문제는 결속되였지만 왜 그런지 속은 석연치 않고 뒤가 께림해왔다.
(무엇때문인고? 성기를 화형대우에 세우는 그것으로 해서일가? 왕정을 전복하려는 마음은 벌써 역적의 소행이 아닌고. 대신, 장군들의 송사대로 노예군을 왕궁에 끌어들이는것은 씻을수 없는 반역이다.
성기에 대한 판결은 유감이 없노라.)
우거왕은 자신을 부단히 다잡아보려 했으나 마음은 더욱더 뒤숭숭해지기만했다.
그런데 왕검성에 불길한 징조런듯 때아닌 공후소리는 웬것인고?
침전앞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시위대장이 들어섰다.
《알아보았소이다.》
《누구드뇨?》
《성기장군의 시중노예 아사리라 아뢰오이다.》
《뭐, 아사리?!》
우거왕은 환장하듯 깜짝 놀랐다.
뒤이어 숨이 가빠온 우거왕은 낯이 까맣게 질렸다.
《그게 사실이뇨?》
《틀림없다고 아뢰오이다.》
《당장 아사리를 불러들이지 못할고.》
우거왕은 분격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발을 구르며 호령했다.
얼떠름해 서있던 시위대장이 질겁하여 침전을 나섰다.
우거왕은 가슴속에서 풀떡풀떡 풀무질하는 분격을 참지 못해 다급하게 침상앞을 오갔다.
그러니 대신, 장군들의 말이 틀림없었군. 아사리가 옥에 나타났으니 대신, 장군들의 말대로 그는 노예군과 성기사이의 련탐군이 분명코나.
우거왕이 침상에 앉아 분격을 삭이는데 시위대장과 함께 나타난 아사리가 왕앞에 엎어지듯 부복하며 설음을 참지 못해 흐느껴울었다.

왕은 불길이 이는듯한 눈찌로 자신을 다잡지 못하고 애처롭게 가냘픈 어깨를 떨고 있는 아사리를 쏘아보았다.

《어서 머리를 들지어다.》

우거왕의 분격한 목소리가 침전안을 울렸다.

깜짝 놀라 머리를 든 아사리는 분격으로 하여 서리발이 선 대왕을 보고 새파랗게 얼어들었다.

가슴이 철렁 무너지며 눈앞이 캄캄하게 흐려졌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대왕님께서 저토록 노여워하실가?)

아사리는 자신을 다잡으려고 애를 썼다.

왕이 분별을 되찾았는지 음성을 낮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대는 무엇때문에 외인들이 접근할수 없는 옥에까지 갔는고?》

우거왕의 눈귀가 더욱 사나와졌다.

새매앞에 걸린 참새처럼 아사리의 새파란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입을 열렀다.

《주인어른께서 공후를 좋아하시기에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러 갔댔사옵니다.》

《성기가 부르더냐?》

《아니옵니다. 제 혼자 생각으로…》

아사리는 가슴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곳에 간 일은 없느뇨? 바로 댈지어다.》

우거왕은 더욱 무섭게 아사리를 다그어대며 그루를 박았다.

《니계상어른의 집에…》

《참의 집이라고? 네 그곳에 렴탐하러 갔댔구나. 그것을 성기에게 알려주려 옥에 가고…》

아사리는 깜짝 놀라며 머리를 들어 왕의 얼굴을 일별하고는 머리를 떨구고 흑흑 흐느꼈다.

《바로 대지 않고 울기만 하는고? 바른대로 말할지어다.》

《대왕님, 너무도 억울하오이다. 소인을 데리려 니계상어른의 시위대장이 왔기에 갔사온데…》

《무엇하려 너를 불렀단말이냐?》

《저에게 수청을 들라 하였소이다.》

아사리는 흥분을 누르고 겨우 리성을 찾아 말을 이어갔다.

《그래 제가 말을 듣지 아니하니 래일아침 성주입성식에 소인의 피

로 길을 물들이고 그우로 자기가 입성하겠다 했소이다.》
《뭐라고?!》
너무도 뜻밖의 소리에 우거왕은 아연해졌다.
《허튼 소리 하면 너의 목이 어찌 되는지 모르는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모여앉아 술추렴이란 말이냐? 도대체 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린고?》
《제 눈으로 봤사옵니다. 대신, 장군 다 모인곳에서 만취하여 아침 성기장군의 목을 치고 니계상어른이 성주로 올라 입성한다 하였소이다.》
우거왕은 으드득 소리가 나게 이를 갈며 주먹으로 침상을 내리쳤다.
(그자들이 위기에 빠진 나라는 생각도 않고 무서운 음모를 했구나.)
《말을 계속하여라.》
《다시 못볼 저의 아버지같으신 성기장군과의 마지막밤이라 생각하니…
그래 소인은 그 짧은 밤을 주인께서 좋아하시는 공후로 잠시나마 위로해주고싶었소이다.》
아사리는 왕앞에 엎드려 참고참던 설음을 터놓으며 엉엉 목놓아울었다.
우거왕의 입에서 신음소리마냥 괴롭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미련토다, 미련토다. 제 손으로 충신을 없애려 들다니…》
꺼지듯 몰아쉬는 왕의 한숨소리가 침전안에 무겁게 떠돌았다.

화형대우에 올라선 성기장군

1

동녘하늘이 훤히 밝자 온몸을 결박당한 성기장군이 화형장으로 끌리여 갔다.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적 없는 등판에 사람의 다섯길도 넘는 통나무를 세우고 그 주위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고 거기에 사람이 오를수 있게 커다란 사다리를 놓았다.
형은 목을 자르는 방법이 아니라 불에 태워죽이는것이였다.
죄인을 장작더미우에 올려세우고 통나무기둥에 칭칭 동여맨다.

그 다음 죄인에게 술을 먹이고 단검으로 목을 찔러 피를 받아 장작더미에 골고루 뿌린 다음 그 장작더미에 빙 돌아가면서 불을 질러놓는다.

그 불길이 련이어 3~4일간 타오르는데 어떤것은 열흘나마 불길이 솟아오른다. 그 불길이 얼마나 높고 세찼는지 50리밖에서도 그 불길을 능히 볼수 있다.

성기를 죽이는 화형장은 강제로 끌려온 백성들로 웅성거렸다.

시퍼런 도끼를 든 형리들에게 끌리여 성기장군이 화형장에 나타났다.

웅성이던 화형장은 일시에 조용해지며 모두의 시선이 성기에게로 집중되였다.

《죄인》답지 않게 머리를 꿋꿋이 세우고 눈빛에는 한점의 공포도 없이 도도히 걸어나오는 성기앞에 형리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형리들이 화형수를 사다리로 끌고올라갔다.

조용하던 주위가 갑자기 술렁거리며 모여섰던 사람들이 통곡쳐 울기 시작했다.

성기장군의 나라위한 충정은 왕검성은 물론 온 나라일판에 자자했다.

나라가 서쪽 오랑캐의 침략위협으로 위험에 처한 이때 나라의 충신을 죽이면 나라는 장차 어찌된단말인가.

성기장군이 사다리로 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탄하였다.

도끼와 창, 활로 무장한 군사들이 화형장을 둘러싸고있었다.

성기장군이 나무기둥에 꽁꽁 묶이워지자 술보시기를 든 푸른 고깔의 형집행수와 빨간 고깔의 단검수가 앞으로 나섰다.

미친듯이 북과 꽹파리가 악성을 지르고 사니가 나와 주문을 외웠다.

주문이 끝나자 사람들은 왕을 기다렸다.

국읍이나 소읍이상의 관리들을 형하거나 판결할 때에는 반드시 왕이 참석해야 했다.

왕이 참석하지 못하면 형은 자연히 파해버리며 다음기를 기다려야 하는것이다.

오늘은 나라의 최고급대신을 화형하는 판결이니 반드시 왕이 참석할것은 뻔했다.

그러고있는데 왕검성쪽에서 요란한 방울소리와 말발굽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곳으로 쏠렸다.

왕검성으로 넘어가는 언덕우에 다섯마리의 백마가 끄는 화려한 마교차 한채가 나타났다.

마교차채와 바퀴살, 마교차부분품들이 모두 금빛으로 번쩍이는데 마교차를 끄는 말들의 장식도 그만 못지 않았다.

황금자갈을 물고 머리우에 황금으로 테를 두른 붉은 마패가 번쩍이고 말허리를 건너간 가죽띠에 옥보석들이 박혀 눈부셨다.

일산을 뒤로 제낀 마교차의 왕좌에는 번쩍이는 황금왕관을 쓰고 붉은 도포자락을 드리운 우거왕이 비스듬히 젖히고 앉아 눈을 절반쯤 감고 말이 네굽을 놓아 뛰는대로 몸을 흔들거렸다.

그의 손에는 황금으로 번쩍이는 왕봉이 쥐여져있었다.

말발굽소리와 방울의 옥을 굴리는듯한 음향이 점점 가까와지자 화형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머리를 대고 일제히 엎드렸다.

일시에 물을 뿌린듯 조용해진 화형장에는 말발굽소리와 말투레질소리만 들릴뿐 모든것이 정적속에 정지돼버린듯싶었다.

백마들이 갑자기 언덕이 떠나갈듯한 투레질소리를 지르며 화형장공지에 앞굽을 공중높이 쳐들었다 멎어섰다.

우거왕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교차를 타고 뒤따라온 궁중시중군들이 우거왕의 팔을 끼고 장작더미에서 멀찍이 떨어진곳에 차일을 치고 마련한 왕의 자리로 안내해갔다.

우거왕이 자기 자리에 앉자 화형장의 정적을 깨치며 또다시 북과 쨍과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곧 화형이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옥좌에 지그시 눈을 지릅뜨고 앉은 왕은 장작더미우에 묶이워선 성기장군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왕봉을 높이 쳐들었다.

형을 중지하라는 신호였다.

왕의 곁에 주런이 자리를 잡고앉은 대신들과 장군들이 눈이 휘둥그래서 우거왕을 불안스럽게 바라보았다.

북소리, 쨍과리소리가 멎어버린 화형장이 일시에 웅성거렸다.

왕과 함께 온 형벌대신이 화형장앞으로 나가 둥그런 참대통의 뚜껑을 열고 종이말이를 꺼냈다.

길다란 종이말이를 펼쳐든 형벌대신은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지를 들을지어다.》

눈이 휘둥그래 두리번거리던 머리들이 일제히 숙여지며 숭엄한 자세로 굳어졌다.

땅에 떨어지는 바늘소리라도 들릴듯 사위가 조용해졌다.
《성기를 왕검성 성주로, 대장군으로 임명하노라.》
형벌대신은 용무가 끝났다는듯 종이말이를 조심히 참대통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우거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시종들의 부축을 받으며 자기의 마교차에로 갔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던 군중이 《만세!》의 환호성을 지르며 장작더미로 성기대장군을 구원하러 뛰여올라갔다. 백성들과 군사들은 장작더미에서 내리운 성기대장군을 둘러싸고 감격의 환성을 터쳤다.
다만 돌처럼 그자리에 굳어져 일어나지 못하는것은 니계상 참과 그의 추종자들인 대신, 장군들이였다.
참의 무리들은 땅이 당장 꺼져내린다 해도 이보다는 더 놀라지 않았을것이다.

2

으리으리한 성주옷을 갈아입은 새 성주 성기대장군이 편전으로 들어서고있었다.
비왕만이 띠던 룡이 수놓아진 황금관직띠를 어마어마하게 띠고 붉은 갈기가 뒤로 날리는 황금빛 투구를 쓴 성기대장군, 성주의 모색은 보기만해도 으리으리했다.
나라의 역적이노라고 피의 주연을 벌리고 온밤 성기대장군을 모해하던 대신,장군들이 성기대장군앞에 깊이 머리숙여 례를 표했다.
더구나 머리를 숙이고 노란 제비꼬리수염을 우들우들 떠는 니계상의 모습은 가관이였다.
《성주 성기대장군은 나의 앞으로 가까이 대령할지어다.》
우거왕이 만족한 웃음을 짓고 성기성주를 가까이 불렀다.
화형대우에 섰던 성기대장군이 뜻밖에 왕검성의 최고권력자가 되자 우거왕은 마음이 든든했다. 그러나 니계상 참의 무리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다.
옳은것을 위해서라면 칼날우에도 올라서는 성기대장군의 결패있고 완강한 완력을 잘 알고있는 그들이기때문이다.

이제부터 왕검성의 형세가 달라지리라는 예감이 우거왕을 투항의 길로 이끌어 피를 흘림이 없이 놈들과 화합하여 자기 한생이나 안락하게 보내자던 참의 무리들을 불안케 했다.
《성주대장군은 아뢰일지어다. 왕검성의 방어를 어찌하려 하느뇨.》
성주가 가까이 다가와서자 우거왕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투항의 길이 아니라 완강한 대항의 길로 나가야 하는줄 아옵니다. 그러자면 국읍과 읍락들이 떨쳐나서 군력을 세우고 병쟁기를 벼리며 오랑캐와 싸울 방략을 잘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나이다. 한편 군사가 모자라는 흠을 노예군으로 메꾸면 어떨가 하나이다.》
《또 노예군소린고?!》
우거왕이 낯색을 흐리며 거친 소리로 입을 열었다.
성기대장군은 가슴이 철렁했으나 용기를 내여 입을 열었다.
《노예도 우리 단군겨레의 혈통이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거늘 어찌 그들인들 무지렁이같겠소이까.》
우거왕이 알릴듯말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우리가 그네들의 힘을 잘 리용한다면 전선의 한쪽방면은 능히 담당할수 있소이다.》
《구체적인 방책을 말하여라.》
《알겠소이다.》
긴장했던 성기대장군의 얼굴에는 한줄기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알아본데 의하면 금나수에는 우마라는 노예두령이 있다 하옵니다. 결패가 있고 몸이 우람찬데다가 인정이 있어 깊은 못가에 고기가 모여들듯 노예들이 그의 수하에 모여들어 어느덧 그 수효가 만을 넘어섰다 하오이다.》
《만을?!》
우거왕이 저도모르게 놀라고 대신, 장군들이 몸을 떨었다.
《절대로 무서울것이 없소이다. 소인이 우마를 만나 담판을 하도록 허락해주시오면 소인이 금나수에 들어가볼가 하나이다.》
《성주가 금나수에 들어간다고?!》
우거왕은 너무 놀라 낯빛이 까맣게 질렸다.
노예들의 분노가 노예주들에게 쏠려 그 노기가 하늘에 닿았거늘 주인중에서도 제일 큰 주인인 왕검성의 성주를 그 독파리떼들이 그냥 놓아둘리 만무하지 않는가.

우거왕은 이것이 두려웠다.

한편 선견지명이 있고 예지가 그토록 밝은 성기대장군이 금나수에 들어가겠다고 나설 때에는 그만한 방책과 타산이 없이 물덤벙술덤벙 아니할것이거늘 마음이 놓이기도 하였다.

성주의 말대로 노예군을 쟁취한다면 제일 어려운 서쪽방면은 마음 놓을수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왕검성방어군이 여유있게 활약할수 있는것이다.

우거왕은 노예군에 구미가 당기기 시작했다.

활기를 띤 우거왕이 대신, 장군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고?》

웅성이던 좌중이 물뿌린듯 조용했다.

그토록 의견이 있어 웅얼거리던 대신, 장군들이 흘끔흘끔 겁먹은 눈길로 좌우를 둘러볼뿐이다. 선뜻 나서서 말하는 대신, 장군들이 없다. 누군가 먼저 반대의 말꼭지를 떼기를 바라는 모양.

일단 물목이 터지면 왁 밀려내려가는 홍수가 될판이였다.

《외람되오나 제가 말씀드릴가 하오이다.》

참이 왕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입을 열었다.

활줄처럼 긴장하게 마음을 조이던 대신, 장군들이 드디여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이제는 참의 의견을 따라 냅다 우겨대면 된다.

그러면 왕도 성주도 꼼짝 못하고 저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면 그처럼 노예군의 합세를 주장하던 성기성주가 일순간에 꼭두각시가 되여버리고만다. 니계상무리의 대신, 장군들은 벌써부터 웃음집이 흐물거려 승리의 쾌재를 불렀다.

무엇인가 가늠할수 없는 교활한 빛광으로 눈빛을 번쩍이던 참이 입을 열었다.

《소인은 성주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하오이다.

성주님은 나라의 국력을 위해 하루빨리 금나수로 들어가야 하나이다. 조선의 승리는 오직 많은 노예군을 쟁취하는데 있소이다.》

니계상의 입을 지켜보던 대신, 장군들이 깜짝 놀랐다.

뜻하지 않은 마른벼락이 머리우에 떨어진듯 허둥거리며 낯빛이 거멓게 질려가는 참무리 대신들과 장군들의 꼴들은 참으로 볼만했다.

자기들이 구세주처럼 믿고 따르던 니계상이 일시에 변심하여 성주의

편이 되니 닭쫓던 개 울타리 올려다보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허나 장쾌한듯 혼자 웃음짓고있는 참의 속심은 달랐다.
노예군과 합세 못할것은 뻔한것인데 성기를 자꾸만 부추겨 금나수에 들여보내면 성기는 한순간에 무지한 노예들의 돌팡에 맞아 시체도 못 찾게 될것이니 성기는 저절로 제거돼버릴것이다. 외톨밤이 된 우거왕은 힘을 잃고 주저앉을것이요, 그통에 서쪽 오랑캐의 힘을 빌면 저절로 권력은 나에게 들어올것이 아니냐.
참은 벌써부터 웃음집이 흔들거렸다.
갑자기 편전이 떠들썩하게 우거왕의 통쾌한 웃음이 터져올랐다.
《하하… 니계상이 이제야 정신이 들었구만.
나도 노예군을 우려했는데 노예란것은 무지하고 우매한 족속들이여서 잘 얼리고 쓸어주면 주인을 따르는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올것이로다. 아하하… 우리가 너무도 소심했도다.》
이때 한쪽 끝에서 침묵만 지키고있던 물역대신 아달비가 왕에게 읍하고 입을 열었다.
《소인은 반대의견이오이다.》
《뭐라고?!》
우거왕은 깜짝 놀라 아달비의 아련하고 요염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아달비는 옳은것으로 왕을 조언했고 그의 말대로 하여 잘못된것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우거왕은 아달비를 남달리 주목해오는터였다.
그런데 모든 대신, 장군들이 일치하게 긍정하는것을 아달비만은 어찌하여 반대하는것이냐.
우거왕은 극도로 긴장해졌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대신, 장군들이, 아니 대왕까지도 보지 못했던 오묘한 리치가 숨어있는것이 아닐가?
《그건 어째 그러하뇨?》
드디여 우거왕은 심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금나수에 들어가면 성주가 노예들에게 죽지 않으면 불피코 큰 대전을 피할수 없을것이언즉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나라는 외적보다도 노예군과의 싸움에 더 신경을 쓰게 될것이오이다.》
우거왕은 아달비의 조리있는 말에 심중해졌다.

일은 다 먹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참이 실망하고 분격하여 무릎을 쳤다.
(나인의 치마폭에 바람이 일면 천연바위도 넘어진다는 말 그르지 않구나. 성기는 다 잡아먹었다 했는데 저 나인의 사타구니에 무슨 바람이 차서 저 지랄이뇨.)
분했다. 할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저 나인을 씹어삼키고싶었다.
일이 글러진건 확연했기때문이였다. 우거왕은 다른 대신, 장군들의 말은 흘려도 아달비의 말만은 심중히 듣는다.
성기대장군은 아달비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달비는 대장군인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일이든 훌륭히 해낸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신인데 무엇때문에 모두들 지지하는 일을 굳이 막아나서는것인가.
그것에는 오직 아달비만이 아는 자기의 속심이 있었지만 성기대장군은 후날에도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다.
뜻하지 않은 걸림돌에 부닥친 우거왕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자신심이 없는 얼굴을 들었다.
《성주는 어찌 생각하는고?》
《예, 소인은 마음 굽히고싶지 않소이다. 내 하나 죽음이 이 나라의 밑거름이 될수 있다면 어찌 그 길을 마다하겠소이까.》
우거왕은 도저히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지 눈을 꾹 감았다.
이윽하여 눈을 뜬 우거왕이 좌중에 대고 선포했다.
《내 도저히 결심이 서지 않으니 다음 열리게 될 평의회에서 널리 론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노라. 다음 평의회를 기다리라.》
《알겠소이다.》
대신, 장군들이 입을 모아 정중히 대답했다.
이렇게 노예군과 합세할데 대한 문제는 끝내 결정짓지 못하고말았다.

3

다음날 아침 뜻밖에도 니계상 참이 사퇴를 제기했다.
《대왕님의 총애속에 여한이 없소이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으니 집에 들어가 손자들의 시중군노릇이나 할가 하오이다.》
우거왕은 뜻밖이라는듯 나이 쉰이 넘었으나 아직 기력이 왕성하고

기골이 장대한 니계상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이윽해서야 왕이 제 정신이 든듯 얼굴에 웃음을 짓고 입을 열었다.

《대신이 나에 대한 불만이라도 있는게 아닌고. 나는 여직껏 그대를 섭섭케 한 일은 없는줄 아는데…》

《아니, 그런게 아니오이다. 오랜 나무는 청청해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구새가 먹었소이다. 소인도 그 나무신세 다를바 없소이다.》

참은 왕앞에 대범히 입을 열었으나 속으로는 무서운 불만이 꿈틀거리고있었다.

우거왕이 그것을 모를리 없다. 아마도 성주임명때문에 불만이 하늘에 닿았으리라. 허나 성주임명은 나라의 주추돌을 세우는것과 같은데 어찌 속이 빈 나무를 그 자리에 세울수 있으랴.

《의향이 그러하다면 섭섭함을 금할수 없노라.》

우거왕은 낯빛을 흐리며 한숨을 톺았다.

《황공하오이다. 소인은 그만 물러가겠소이다.》

참은 돌아서 도도한 걸음으로 편전을 나섰다.

뜻밖의 일에 놀란 대신, 장군들이 편전의 돌계단을 내려 자기 마교차에 올라앉는 니계상 참을 바라보았다.

뒤이어 말을 모는 마부의 웨침이 들리고 화려한 마교차를 끄는 삼두마의 가락맞는 발구름소리가 들려왔다.

어느덧 마교차가 궁전밖 멀리로 사라져갔다.

언덕밑으로 자취를 감추는 참의 마교차를 바라보는 대신들과 장군들의 얼굴은 구슬프게 흐려졌다.

편전이 어수선했다.

《갈 사람은 가는것이니 너무 마음쓰지 말고 앞일을 의논하기 바라오이다.》

아달비가 무거워진 편전의 공기를 가시려 했던지 그 매력적인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대신, 장군들을 위로했다.

《물역대신의 말이 옳으니라. 우리는 새일에 착수해야 할것이니 모두들 령을 듣거라.》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 룡상에 비스듬히 앉아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던 우거왕이 활기를 띄며 입을 열었다.

어수선하여 웅성이던 대신, 장군들이 자세를 바로하고 왕을 향해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오늘이 공주의 생일이니 즐거운 풍악을 울리고 온 나라가 기쁨속에 마음껏 즐길지어다.》
뜻밖의 령에 어리둥절했던 궁성이 환희로 들끓었다.
벌써 전국에 명절을 선포하러 가는 파발군들이 어지를 가지고 각 방면으로 떠나갔다.
어느덧 온 궁성이 풍악속에 잠기고 어디 가나 사람들은 춤노래로 흥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라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공주를 축하하는 명절은 밤이 깊도록 끝나지 않았다. 이날은 축제날과 마찬가지로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떨쳐나와 밤새껏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으며 즐거운 오락들을 했다.
좋은 음식을 해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나라의 명절은 밤이 깊도록 끝날줄을 몰랐다.
허나 왕검성에서 단 한집만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것은 퇴직한 니계상 참의 집이였다.
참의 집에는 불행이 겹쳐들었던것이다.
니계상이 왕궁의 상자리를 내놓은것만 해도 원통한데 참이 제일로 귀해하고 사랑하는 딸 나리가 아버지의 령을 거절하여 참의 심신을 괴롭히는 대소동을 일으켰던것이다.
참은 이것을 하늘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했다.
빨리 액운을 풀지 않으면 자기 집은 무서운 불화속에 산산이 부서져나갈것만 같았다.
참은 공포에 질려 황황히 큰 사니를 불러들였다.
울긋불긋한 웃차림에 깃과 장식이 달린 패랭이같은 모자를 쓰고 두손에 절렁거리는 방울과 사니칼을 든 큰 사니가 화려한 마교차에서 내려 참의 집으로 들어섰다.
온 집안이 대문앞에 엎드려 큰 사니를 맞았다.
마당안으로 들어선 큰 사니는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드넓은 마당을 휭 돌고나서 미친듯이 칼을 흔들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니가 괴상한 주문을 외우다가 갑자기 음성을 높여 액운을 꼽을 때면 땅에 엎드린 참은 물론 온 집안이 공포에 질려 련속 머리를 조아리며 굽석이였다.
큰 사니가 당장 일흔마리의 생노루를 잡아 피를 내여 액운을 씻어야

한다고 선포하자 참은 정신없이 헤덤비며 가병들과 노예들을 사냥터로 내몰았다.

아달비가 이 집의 대문턱을 넘어선것은 한창 액운을 씻고있을 때였다.

고래등같은 기와집의 봉당 천정에 일흔마리의 산 노루를 거꾸로 매달아놓아 온 집안은 메짐승의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울부짖음으로 가득차 머리털이 일어서는 공포를 자아냈다.

무서운 광경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그것은 한 가병이 단검을 들고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울부짖는 노루들앞에 나선 때부터였다.

노루를 매단 봉당앞에서 정신없이 춤을 추며 돌아치던 큰 사니가 노루의 목을 찔러 더운 피를 마시고 뜨거운 피로 더러워진 가장의 몸을 씻어내야 한다고 선포하자 가병은 돌아가며 산 노루의 목을 찔렀다.

피가 질벅이 흐르고 피비린내가 역하게 풍겨왔다.

몸을 떨던 아달비는 그곳에 더는 서있지 못하고 시중군들의 안내를 받아 안채로 들어갔다.

참을 만날래도 액풀이가 끝난 다음에 만나야 했다. 지금같아서는 큰 사니가 노는 꼴이 날이 저물 때까지 저 지랄을 끝마칠것 같지 않았다.

아달비는 참의 딸이 왕검성 세 가인중의 한사람이란 말이 되새겨져 잔뜩 호기심이 동했다.

과연 얼마만한 미인이기에 왕검성을 들썩하게 들었다놓는것인지 제 눈으로 보고싶었다.

아무리 왕검성의 제일가인이라 한들 자기야 당하랴 하는 나인특유의 질투심이 아달비의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이애야, 안주인에게 여쭈어 이 집 따님의 방에 나를 안내하여라.》

아달비가 시중군에게 말했다.

《제가 안주인에게 갔다오겠소이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시중군이 땅에 철철 끌리는 치마차락을 한손으로 걷어쥐고 총총히 안주인에게로 달려갔다.

물역대신이 찾는다는 전갈을 받은 안주인은 황황히 아달비앞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찾아주셔 황공한 마음 이를데 없소이다.》

안주인이 아달비앞에 머리숙여 절을 하며 몸둘바를 몰라했다.

《이 집 주인과 조용히 의논할 일이 있어 왔소이다.

아무래도 이 집 례식이 쉬이 끝날것 같지 않사오니 그동안 이 집 따님과 한담이나 나눌가 하나이다.》
아달비는 얼굴은 아름다우나 너무 몸이 뚱뚱하여 비둔한 암곰을 련상시키는 참의 안댁을 비웃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사나이들의 마음을 송두리채 뽑아놓기에 족한 아달비의 아름다움을 보자 안댁은 알지 못할 질투감이 불끈 솟구쳤다.
더구나 나인의 치마폭에는 꼼짝 못하는 령감이 저 가인앞에 오금 저려하지 않을리 만무하다.
그런데 이렇듯 령감을 찾아까지 다니니 안댁은 속이 달아오를대로 달아올랐다.
입을 비죽거리며 돌아선 안댁이 하인들에게 불호령을 했다.
《얘들아, 아씨가 방에 들었는가 보고 대신어른을 모실지어다.》
나리방에 갔던 하인이 달려왔다.
《방금 례식을 끝내고 방에 들었소이다.》
하인이 안댁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였다.
《오늘 그애에게 불초한 일이 있었소이다.》
안댁이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불초한 일이라니 대체 무엇이오이까?》
아달비가 놀라와하며 물었다.
《왕협장군과의 혼사가 꺾이였소이다.》
《혼사가 꺾이다니?》
얼떨떨해진 아달비가 눈을 삼박이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안댁은 꺼지게 한숨을 짓더니 말을 이었다.
《왕협장군이 우리 나리를 마음에 두었소이다. 하온데 나리는 마음속에 다른 사나이를 두었다 하오며 곁을 주려 하지 않았나이다.》
아달비가 야릇한 미소를 짓고 머리를 끄덕이였다.
왕검성에서 제노라는 권세를 가진 왕협을 차버릴쯤이면 얼마나 도도하고 기품있는 나인이랴. 더우기 흥미를 끈것은 평범한 나인으로 느껴지지 않는 나리가 마음 두고있는 사나이였다.
(어떤 사나이이기에 저처럼 도도한 나리의 마음을 휘여잡았을가!)
아달비는 왕검성 대신, 장군들중에 나리가 마음에 두었음직한 사나이들을 꼽아보았다.
장군 세명이 짚이였다. 한명한명 구체적으로 튕겨보던 아달비의 판

심은 더욱더 성주인 성기에게 가닿았다. 허나 성기는 젊은 나이였지만 전혀 나인을 절폐하고 국사에만 전심하는 사람이였다. 성기가 고작 마음의 정을 둔다면 동생처럼 위하는 몸종 아사리이다. 아사리가 유일한 그의 말동무였고 힘의 의지자였고 메말라들어가기 시작하는 그의 심장속에 사랑의 불길을 조심조심 일으켜주는 유일한 불꽃이였다.

반려자없이 한생을 늙기에는 너무도 아깝고 뜻이 깊은 사나이였다.

(그럼 나리가 성기를 마음에 둔것이 아닐가? 나리가 왕검성 세 가인중의 하나라니 성기도 그런 미인을 마다치는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은 얼마나 깊어졌을가.)

야릇한 흥분속에 빠진 아달비의 달아오른 가슴속에서는 자기도 알지 못할 질투심이 꿈틀거렸다.

《그럼 나리를 만나볼가 하오이다.》

아달비가 공손히 말했다.

《얘들아, 대신어른을 나리의 방에 안내해드릴지어다.》

세명의 시중군나인들이 달려와 아달비를 부축하여 맞은켠 중간채로 안내해갔다.

붉은 기와에 통싸리로 세운 붉은 기둥, 백설같이 하얀 회담벽, 흰 명주를 바른 무게가 느껴지는 짝문, 눈부시게 윤을 낸 마루가 눈을 끌었다. 이때 일반민들은 초막과 같은 원시집에서 살았지만 대노예주들은 벌써 세나라시기에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화려한 집에서 살았다.

기와집들은 왕검성에 집중되여있고 소읍이나 그 아래단위들은 거의 초막집이고 읍락두목들이 사는 기와집은 한두집 보일 정도였다.

아달비로서도 참의 집의 규모와 눈부신 갖춤새에 입을 벌릴 정도였다.

《대신어른께서 나오셨소이까?》

구슬을 굴리는듯한 아름다운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다.

초록색바탕에 검은 점이 박힌 저고리에 연분홍주름치마를 받쳐입은 날씬한 나인이 아달비앞에 머리를 깊이 숙이고 대청마루에 엎드려있었다.

《나리아씨오이까? 어서 얼굴을 들고 일어나소이다.》

아달비가 반기며 다가가 나리의 팔을 잡아일으켰다.

두볼을 갓 익은 복숭아빛으로 물들이고 수집은듯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외면하는 나인을 본 아달비는 짬짝 놀랐다. 조선땅에 더없는 가인이라기에 그러하겠거니 했는데 이렇듯 눈이 번쩍 뜨이게 아름다울줄은 몰랐다.

《어려운 걸음으로 모처럼 오셨는데 안으로 들어가시와요.》
나리는 아달비를 상큼히 올려다보며 방실 웃는다.
검은 옥을 갈아 빛을 낸듯 반짝이는 눈, 그우에 촘촘히 깃을 편 눈섭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모양을 무엇이라 그릴수 없고 칠흑같이 검은 머리는 백옥을 무색케 하는 하얀 얼굴과 대조되여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아달비는 방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맞이한듯 아연하게 굳어져버렸다.
《어째 그러오이까. 집이 루추해 그러시는게 아니오이까.》
몇걸음 움직이던 아달비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자 나리는 눈이 동그래져 의아하게 묻는다.
그러는 나리의 모습이 더더욱 아름다와 아달비는 넋이 빠진듯 바라보다가 얼굴에 미소를 띠우고 딴전을 부렸다.
《참으로 이 집은 정원이 아름답소이다. 집은 더욱 나무랄데 없고… 그러니 아름다운 가인이 태여나지 않을수 없소이다. 호호…》
간드러진 아달비의 웃음이 대청마루를 짜르르하게 뒤흔든다.
나리는 머리를 수그린채 두뺨을 빨갛게 물들이였다.
촉기빠른 나리는 아달비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것을 제꺽 눈치챘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오이다.》
나리는 대청 오른쪽 문발이 드리운 화려한 방으로 아달비를 안내했다.
봇나무껍질과 색고운 명주로 담벽을 장식하고 별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창문옆에 놓인 옻칠장은 너무 아름다운것이여서 대번에 아달비의 눈길을 끌어당겼다.
옻칠장옆에 드리운 명주발이 반쯤 들리운곳에 나리의 침대가 놓여있었는데 그우에는 새털깃을 두고 만든 금빛이불이 포근하게 깔려있었다.
아달비는 나리가 누웠던 흔적인듯 머리자리가 약간 나보이는 두마리의 공작새를 수놓은 금침을 놀라운듯 바라보았다.
이처럼 아름다운 베개가 있다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한 아달비였다.
《여기 와 편히 앉으소이다.》
어느새 바닥에 꽃방석을 편 나리가 아달비의 팔을 다정히 끌었다.
《고맙소이다.》
아달비는 나리의 정다운 미소에 마음이 흥그러워져 포근한 꽃방석에

다리를 꺾고 앉았다.
첫눈에 이 집안에서 나리를 무척 귀하게 여긴다는것이 확연하게 감촉되였다.
나리의 체취인양 야릇한 향기가 온 방안에 가득차고 신비스러울 정도로 밝게 느껴지는 그윽한 빛이 방안을 비쳤다.
《자, 약소하오나 청주(고조선시기 과일로 만든 술의 일종)나 들면서 이야기하소이다.》
시종이 차려온 음식상에서 푸른 보시기에 든 연붉은 청주를 권하며 나리가 웃었다.
코허리를 찡하게 하는 향기가 풍겼다.
《참으로 훌륭한 청주오이다.》
아달비는 나리가 내미는 보시기를 받아 조금 마셔보고는 진정으로 되는 감탄을 숨기지 않았다.
어느새 아달비의 눈길은 창가에 놓인 푸르청청한 나무에 쏠려졌다.
힘있게 매듭을 지으며 뻗어올라간 곧은 가지들에 버들잎같은 잎새들이 늘어졌는데 흔히 볼수 없는 나무였다.
《저 나무를 무엇이라 부르오이까?》
아달비가 청주보시기에 입을 가져다대며 의아하여 물었다.
《산죽이라 부르오이다.》
왜 그런지 나리는 얼굴에 수집은 미소를 짓고 눈길을 피했다.
산죽, 저것은 깊은 산중에 자라는 귀하고 강한 나무가 아닌가. 저 산죽을 애써 키우는 취미를 보니 나리의 마음이 강직하고 청초함을 엿볼수 있었다.
《참으로 좋은 나무이오이다.》
아달비가 나리의 얼굴을 쳐다보며 뜻있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씨가 제일로 사랑하는 나무이와요. 천만꽃이 많아도 아씨는 저 산죽만을 귀해하오이다.》
음식을 나르며 시중하는 나리의 몸종인 시종이 뜻깊게 웃었다.
《그러고보니 저 산죽이 꼭 나리의 푸른 기상같소이다. 호호…》
아달비가 자지러진 웃음을 터쳤다.
허나 아달비는 자기도모르게 느껴지는 위압감을 어쩔수 없었다.
어딜 가나 일등가인의 자리를 양보치 않던 아달비의 가슴속에 시기의 불길이 뭉클 솟아나며 태를 쳤다.

꽃으로 피여도 모든 꽃을 날카로운 가시로 찔러버리는 유독 하나의 장미꽃으로 피고싶은 아달비였다.

《아씨는 글도 깊다 하는데 한번 그 장기를 보았으면 하오이다.》

아달비는 창가의 평상우에 놓은 새깃털을 넌지시 바라보며 야유의 미소를 머금었다.

《그건 헛말이오이다. 글을 몇자 배웠으되 글귀는 맞출줄 모르오이다.》

나리가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어쩔줄 몰라했다.

《겸손한 말이오이다. 어부의 안해 려옥이도 글귀지어 공후에 맞추어 노래부를줄 알았사온데 명문가의 나인이 어찌 글귀를 모르리오.》

아달비는 글귀에서는 으뜸가는 문장가도 무색케 하는 자기의 장기로 나리를 납작하게 짓눌러버리리라는 야심비슷한 마음이 북받쳐올랐다.

무엇으로든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위압하는 나리를 짓눌러 패재를 부르고싶었다.

질투의 그 마음은 자신이 나라의 일개 대신이라는 체면마저도 잊게 했다.

《정 그러하시면 내기를 해보사이다. 얘야, 깃통과 글물(그을음과 기름을 섞어만든 먹의 일종)을 가져오너라.》

나리는 시종에게 지시를 주고 명주에 풀을 먹여 빳빳하게 만든 글장(종이의 일종)을 펴놓았다.

《자, 대신께서 깃(붓의 일종)을 잡소이다.》

나리는 크고작은 각종 깃들이 꽂혀있는 깃통과 글물을 아달비앞에 내놓았다.

이때 참의 시종이 들어와 아달비앞에 꿇어앉았다.

《참어른께서 대신어른을 모셔오라 했소이다. 지금 앞채에서 기다리고 있소이다.》

아침부터 벌려놓은 굿풀이가 끝난 모양이다.

아달비는 아쉬운듯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참으로 아수하오이다. 언젠가는 아씨와 글을 겨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오이다.》

아달비는 멸시하는듯 시기가 끓는 눈을 들어 공손히 얼굴을 숙이고 있는 나리를 훔쳐보더니 시종의 뒤를 따랐다.

4

아달비가 앞채에 있는 참의 방으로 들어서자 앉아있던 참이 서둘러 일어나 두손을 앞에 합장하고 머리를 숙여 례를 표했다.

《대신어른께서 우리 집에 왕림하심을 경사로 생각하오이다. 집에 일이 있어 제때에 모시지 못하와 참으로 죄송하오이다.》

참은 허리를 굽석이며 거퍼 읍을 했다.

《내 이런 날인줄 알았으면 실례하지 않았을걸 그랬소이다.》

아달비는 공손히 마주 머리를 숙였으나 어투에서는 거만기가 확연히 느껴졌다.

《자, 저 안쪽으로 들어가소이다.》

참이 일어나 친절히 아달비를 안내해 자기의 깊숙한 침방으로 이끌어갔다.

몇개의 방을 거쳐 안채 깊숙이 자리잡은 참의 방에 이른 아달비는 참이 안내하는 자리에 앉았다.

왕의 침방을 무색케 할 정도로 으리으리하게 꾸린 방을 보고 아달비는 은근히 위압을 느꼈다.

(이 나라의 대부호가 틀림없도다. 어쩌면 이런 금, 은, 옥재보들로 가득차있는것이냐.)

어딜 보아도 번쩍이는 보석이요, 금과 청동으로 만든 귀물들이 가득차 마치 재물을 자랑하는 진렬장같기도 했다.

고조선의 많은 땅과 숱한 노예를 가진 대노예주이며 권력자인 참은 자기의 재물로 사람들을 위압하고 현혹케 하기를 무척 즐겼다.

참은 자기의 재물을 보고 황홀해하는 사람들의 눈길속에서 자기의 존재와 거대한 힘의 실체를 느껴보기 좋아하는 늙은 수전노였다.

참은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눈길속에서 생의 비할바없는 쾌락을 느끼며 자기앞에 허리굽혀 복종하는 버러지에 지나지 않는 그 인생들의 피땀속에 자기의 영원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여봐라, 뭣들 하느뇨. 빨리 음식상을 차려들이지 않는고?》

참은 대청밖으로부터 줄지어 음식상을 들고 들어오는 시종노예들을 보

면서도 위엄을 돋구며 호령을 했다.
《예에— 지금 가지고 가오이다. 조금만 기다려주사이다.》
바빠맞은 시중군들이 걸음에 날개를 달며 대답했다.
《오늘은 왜 이다지도 굼뜨고? 단단히 경칠 버러지들이로다.》
참은 시종노예들에게 거친 악담을 퍼부으며 펄펄 뛰였다.
겁에 질린 시종노예들이 흘끔흘끔 참의 눈치를 살피며 음식상을 차리기에 정신이 없었다.
《대신, 어서 편히 앉소이다. 우리 노예들이라는게 아예 더러운 버러지 한가지여서 맥을 못쓰오이다.》
참의 날카롭고 험악한 눈총밑에 기름진 음식상이 차려졌다.
아달비로서도 보기 희귀한 바다고기찜이 놓이는가 하면 곰의 갈비가 한상을 거의 차지하기도 했다.
더우기 희귀한것은 한발이나 거의 될 큰 잉어회인데 회친 잉어가 아직도 죽지 않고 눈을 희번뜩이며 펄떡펄떡 뛰는것이였다.
마지막으로 둬서너살난 아이만한 술항아리와 아이머리만한 술대접이 들어왔다.
《자, 차린건 없소만 가까이 나앉으시오이다.》
참이 대접에 술을 퍼놓으며 아달비를 독촉했다.
나인이여서 사나이들처럼 술을 많이 못하는것을 아는 참이였지만 모르는쇠하고 술부터 권했다.
자존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아달비의 부아를 돋구면 아마도 참에게 지지 않으려 접어들것이였다.
언젠가 우거왕의 침방에 들어갔을 때 만취한 아달비를 보지 않았던가.
참은 얼굴에 미소를 띠였지만 속은 싸늘한 얼음이 되여 아달비를 벼르고있었다.
자기가 성기대장군을 노예군속에 내몰아 죽이려는 속셈을 하고 접어든 일을 이 미인이 파탄시킬번 하지 않았는가.
우둔한 성기가 그때 노예군속에 들어갈 제 의향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던들 우거왕은 틀림없이 아달비의 말을 따랐을것이다.
그때로부터 참은 아달비가 원쑤처럼 느껴졌다.
자기 일에 훼방놓는 그 어떤 대상도 용서치 않는 심술사납고 포악하기로 이리 찜쪄먹는 참이고 보면 어찌 왕앞에서 자기를 정면으로 공격한 아달비를 잊을수 있으랴.

복수의 기회를 놓치고 왕궁에서 퇴직해나와 아달비와는 다시 맞다들일이 없어 복수의 기회를 잃었다 했는데 하늘이 도운것처럼 제발로 스스로 찾아오지 않았는가.

(어디 내 발톱에서 네가 무사히 빠지나 두고보자.)

참은 곁눈으로 음식은 들 차비 않고 음식상에 손가락장단만 치고있는 아달비를 힐끔 넘겨다보고는 술 한대접을 단숨에 쭉 들이켰다.

《대신어른께서 어찌 들지 않나이까?》

참은 희끗희끗한 수염을 꼬며 야유하듯 빙긋이 웃었다.

아달비는 고운 눈매로 참의 누런 얼굴을 치떠보더니 술에는 관심이 없다는듯 평상우에 놓인 옥팔찌를 들고 창가로 흘러드는 마지막 노을빛에 이리저리 비쳐보았다.

그때마다 빛팡을 받은 옥이 현란한 빛을 뿌리며 아달비의 탐욕을 끓이였다.

《참 아름다운것들이오이다.》

아달비가 평상우에 무드기 쌓인 옥이며 금동장식, 금으로 만든 각종 인형, 보기드문 청동거울, 처음 보는 문피들을 쓰다듬으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대신, 그따위 장난감이나 만져 무엇하오이까. 자, 이 잉어회를 드시오이다.》

이제는 아달비를 낚았다는 쾌감이 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나 그런 내색없이 참은 아달비앞에 기름진 료리들을 골라놓으며 흔연히 말하였다.

아달비는 참의 속심따위는 알고도 남음이 있다는듯 픽 코웃음을 치고는 재물들을 와락 밀어제끼고는 술대접을 끌어당겼다.

《자, 쭉 들이키오이다. 마음이 하늘같이 열릴것이오이다.》

참은 자기옆에 붙어앉은 곱살한 시종노예가 부어주는 술대접을 번쩍들며 아달비를 독촉했다.

《참어른의 총애로 생각코 내 술을 들겠소이다.》

미인의 눈부신 미소를 지은 아달비는 술대접을 들어올리더니 너만이 대장부냐 조소하듯 단숨에 쭉소리가 나게 들이켜버렸다.

시종노예가 아달비의 빈 대접에 또다시 가득히 술을 부었다.

뒤고패 돌고나니 아달비는 말할것도 없고 술독이라 부르는 참마저도 거나해져 세상이 오락가락했다.

아달비는 평상에 비스듬히 몸을 젖히고 앉아 눈을 게슴츠레 뜨고 니계

상 참을 노려보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매혹적이였던지 참은 대번에 자기 앞에 앉은것이 언제 자기의 적수였더냐 눈부시여 바라보았다.
《야, 시위대장 불러들여라.》
참이 시중에 여념이 없는 시종노예에게 호령했다.
시종노예가 철철 땅에 끌리는 치마자락을 걷어쥐더니 대청밖으로 달려나갔다.
뒤이어 시종노예가 우악스럽게 생긴 시위대장을 달고 나타났다.
《부르셨소이까.》
시위대장이 참앞에 읍을 하며 머리를 숙였다.
《어서 이 시종노예를 끌어내가고 너는 곁문밖에 나가 문을 걷어매고 일체 사람을 출입시키지 말지어다.》
《알았소이다.》
시위대장이 머리를 굽석거리며 시종노예를 데리고 황급히 안방에서 사라졌다.
이어 문들이 닫기고 음침한 침방에는 오직 참과 아달비만 남게 되였다.
《대신, 이 방에는 나와 대신뿐이오이다.》
참이 혀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리며 게슴츠레 뜬 음탕한 눈길로 아달비를 노려보았다.
희뿌얘진 눈앞에 하늘의 선녀같은 아달비의 아릿다운 모습이 백옥처럼 빛을 뿌리다가 스러져가는 등불처럼 안개속에 사라져버렸다.
참은 눈을 부비고 한걸음 아달비앞으로 다가앉았다.
술기운이 한껏 어려 불길처럼 타오르는 요염한 아달비의 모습이 또다시 참의 망막에 가득찼다.
무거운 머리를 건사하지 못해 평상모서리에 머리를 기대고 반쯤 누워버린 아달비는 토끼눈처럼 빨갛게 충혈된 눈을 들어 빤히 참의 풀어진 얼굴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어대기 시작했다.
아달비도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였다.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는 참의 눈앞에 아달비의 백옥같이 흰 살결과 흐트러진 옷섶으로 봉긋이 살아오른 앞가슴이 비쳐왔다. 단번에 미쳐버린 색광은 정신없이 중얼거리며 다가들었다.
《대신, 이 참의 앞에는 오직 대신 하나뿐이오이다. 나의 많은 땅, 숱한 노예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금은보화는 오직 그대의것이오이다.》
참은 미친듯이 부르짖었다.

《그러하오면 이 외로운 나인도 나라의 대부자가 됐으니 무엇을 더 바랄게 있겠소이까. 호호…》

아달비가 미친듯이 웃어대며 술대접을 끌어당겨 단숨에 들이키고는 방바닥에 내리메쳐 산산쪼각을 내였다.

숨이 가빠 어쩔줄 모르던 참이 점잖게 여몄던 겉옷을 풀어헤치고 속옷마저도 거치장스러운지 벗어던졌다.

거의 알몸뚱이가 되다싶이 한 참은 대번에 개선장군이나 된듯 담이 커졌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자신심만이 죄많은 더러운 육체에 끓어번졌다.

참은 순식간에 야수가 되여 아달비에게 덤벼들었다.

순간 참은 눈앞에서 불꽃이 벙긋하며 정신이 뗑해졌다.

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아달비만 뻥해 바라보는데 아달비의 맵짠 손길이 또다시 참의 뺨을 후려쳤다.

참은 대번에 술기운이 달아나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느새 옷깃을 여미고 일어선 아달비가 랭혹한 눈길로 참을 내려다보고있었다.

(흥, 내가 뭐 한갖 한나부의 딸인줄 아는가보지, 내가 이제 네놈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아달비는 참에게 맵짜게 한마디 했다.

《참, 당신은 개가 아니라 사나이라는것을 잊지 않는게 좋겠소이다. 추물은 언제나 나인의 옷자락밑에서 춤을 추는 법이오이다.》

《대신, 내 술기운에 실수한가 보오이다.》

참이 아달비앞에 넙적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소인은 참을 둘도 없는 사나이로 보오이다. 허나 하는 생각이 너무 짧아 매사에 실수가 많소이다.》

《대신, 가르치심을 주사이다. 내 기꺼이 대신의 뜻을 따르겠소이다.》

《어찌 대장부 나인의 뜻을 따르겠소이까. 허나 이것만은 알아두오이다. 옛말에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라 했소이다.

참은 성주 성기가 미워 왕궁을 나왔는데 그런 담으로 어찌 대장부구실을 하겠소이까. 사람은 이 세상에 못해낼것 없는 족속이거늘 무엇이 두려울것 있으리까.》

《계속 가르치심을 주사이다.》

참이 머리를 조아리며 귀를 기울이였다.

한갖 요염한 나인으로만 보아온 대신의 말에는 마디마다 깊은 뜻이 담겨져 실망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던 참이 번쩍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다.

《풍파 많은 세상을 살아가노라니 어찌 적수가 한둘이겠소이까.

허나 그 적수를 타고누를 담력을 가져야 사나이의 뜻에 꽃이 피는 법이오이다.》

참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달비의 말이 십분 옳다. 내가 성기가 밉고 왕의 처사가 더러워 왕궁을 나섰지만 아달비의 말을 듣고보니 무엇이 무서우랴. 온 나라를 들었다놓는 재력에, 광대한 땅에, 노예가 수천이니 나라의 제일가는 인물이 아니냐. 아달비의 말대로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것 있으랴.

실망과 패배감에 잠자고있던 참의 무서운 야심이 또다시 꿈틀거리며 독사대가리마냥 머리를 쳐들었다.

(성기 이놈, 어디 두고보자. 이 참이 너를 두고 왕궁에서 물러설줄 아느냐. 내 기어이 네 목을 비틀고 우거를 타고눌러 이 나라의 대왕이 되고말리라.)

다음날 아침 참은 막대한 재물를 마차에 싣고 우거왕앞에 나타났다.

《약소하오나 대왕께 드리오이다. 변변치 않은 재부이나 요긴히 써주십사 하는것이 소인의 진심이오이다.》

참은 열대의 마차에 실은 재물의 명세를 왕에게 바쳤다.

우거왕은 명세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일이로다. 나라에 병쟁기가 부족하거늘 이 재물이 요긴하게 쓰이렸다. 허허…》

우거왕이 옥좌에 등을 젖히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뇨?》

우거왕이 너그러운 눈길로 머리를 박고 엎드려있는 참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소인의 생각이 너무 짧았소이다. 소인은 또다시 대왕님을 곁에서 충정으로 받들고싶소이다.》

《으하하하…》

우거왕의 호탕한 웃음이 왕궁을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다.

《그대가 생각을 잘했도다. 그게 바로 참다운 사나이의 도량이로다. 내 그대를 상자리에 그대로 두겠노라.》

《황공하오이다. 미약한 힘이나마 대왕을 받들어 충정을 다하겠소이다.》

우거왕은 만족한듯 얼굴에 미소를 짓고 허옇게 흘러내린 수염을 내

리쓸었다.

산죽은 푸르다

1

나리는 어릴 때부터 산죽을 류달리 사랑하였다.

기쁜 일이 있으면 산죽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으며 슬픈 일이 있으면 산죽을 바라보며 괴로움을 하소연하군하였다.

산죽을 가꾸는 일만은 시종들에게도 맡기지 않았으며 언제나 지성을 다해 물을 주고 북을 돋구어주었다.

이렇게 정성을 기울인것이 한해두해 넘겨 산죽은 온 뜰안에 무성하게 차고넘쳤다.

처음 산죽을 떠다준것은 노예 우마였다.

나리가 여섯살 잡히던 해 소년노예로 들어온 우마에게 나리가 산에 가서 곱게 핀 산나리를 떠다달라고 부탁했었다. 산에 갔던 우마는 온 등성이를 덮다싶이한 화려한 나리꽃을 모두 버리고 새파란 산죽 하나를 떠가지고 왔다.

나리는 그 자리에 퍼더앉아 산나리를 떠오지 않았다고 떼를 쓰며 울어댔다.

난처한 립장에 처한 우마는 어찌할줄 몰라 쩔쩔맸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가는날이면 우마는 뭇매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래도 우마는 마음에 들어 산죽을 떠온것이다.

무엇인가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모르게 푸르고 곧은것이 좋았다.

제가 좋아 떠온것이여서 주인의 딸로부터 긍정을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런 봉변이 떨어질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이런 난처한 환경에서 우마를 구원해준것은 성기였다. 당시 참의 가병이던 성기가 스적스적 걸어오다가 이 정경을 보고 울고있는 나리에게 다가갔다.

《나리아씨, 이 산죽이 얼마나 좋소이까. 산나리따위에는 비길수도 없소이다.》

이 말에 문득 울음을 그친 나리가 성기에게 따지듯 물었다.

《무에 산죽이 좋아? 난 산나리가 좋아.》

《아니오이다. 산나리는 철이 있어 잠간 폈다 지지만 산죽은 사시장철 푸르러 곧게만 자라오이다. 아씨도 이 산죽처럼 자라오이다.》

어린 나리는 그답지 않게 얼굴이 심중해졌다. 아무 말없이 산죽으로 간 나리는 몇번이고 산죽잎을 쓸어보더니 제손으로 담밑에 심었다. 그때부터 나리는 산죽이 뿌리를 번져 새끼를 치면 그것을 잘라 모숨기기를 했다. 이렇게 한것이 한해두해 넘겨 온 울안을 가득 채웠던것이다. 울안에서 산죽이 모진 비바람에도 곧게만 푸르러가는 모습을 보는 나리의 마음속에서도 어느새인가 무엇인지 모를 곧고 굳은것이 억세게 자라오르기 시작하였다.

(사람도 저 산죽처럼 푸르고 곧게 살아야 할게 아닌가.)

모진 비바람에도 휘지 않는 산죽에는 무엇인가 굴함없고 곧은 뜻이 절절히 담겨져 있는것만 같았다. 나리는 산속에 피는 한떨기 산나리보다도 뭇뿌리로 엉켜돌며 함께 자라는 산죽을 더 좋아하게 되였다.

그렇게 되여 산죽은 나리의 별호처럼 되여버렸고 항간에서는 나리를 두고 《산죽나인》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나리는 평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무성하게 가지를 친 산죽을 이윽토록 들여다보았다.

잎이며 줄기에서 풍겨오는 청신한 냄새가 폐부깊이 스며든다. 그 냄새를 들이키느라니 금시 심신이 가벼워지는듯싶었다. 처녀의 입가에 그윽한 미소가 떠올랐다.

예로부터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나인들에게는 제나름의 사연이 있다고들 한다. 하다면 나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일가?

어이하여 나리는 오랜 세월 규방 깊은곳에서 저렇듯 홀로 애절히 마음을 태우고있는것일가?

그것은 8년전의 일이였다.

말발굽에 밟히여 번번해진 부르메등성이로 무사복을 떨쳐입고 긴창을 든 사나이 하나가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리고있었다.

등성이를 지나 굽인돌이에 이른 사나이는 번개처럼 날으며 앞에 나타난 스물여덟개의 허수아비(가적으로 만든 팔목만한 나무토막들)를 창으로 찔러눕히고 굽인돌이뒤로 사라져버렸다.

사나이가 지나간 뒤로 먼지만이 뽀얀데 그 먼지속에 군마의 서슬푸른 앞머리가 번뜩였다.

어느새 돌아서 먼지가 잦기전에 달려온 사나이였다.

핑!— 핑!— 등성이를 가로질러 달리는 군마에서 화살이 날았다.

화살이 날 때마다 공중에 매단 뒹박(화살목표로 만든 바가지모양의 과녁)이 쩔렁쩔렁 요란한 방울소리를 냈다. 뒹박에 화살이 맞으면 뒹박에 매단 방울이 요란하게 우는데 젊은이가 스쳐지나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화살을 날렸는지 열두번의 방울소리가 련이어 꼬리를 물고 울려왔다.

과연 놀라운 무술이였다.

《아하, 과시 장군감이로소이다.》

차일을 친 언덕우에서 젊은이의 훈련모습을 보던 참이 자기도 모르게 탄복하여 머리를 끄덕이였다. 니계상 옆에 앉은 비왕이 흡족하여 아무말없이 가슴우로 드리운 윤기나는 검은 수염을 쓸어내렸다.

《비왕어른, 과시 왕검성에서 처음 보는 무예사오이다.》

참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였다.

《그게 참말이뇨?》

비왕은 만족한듯 얼굴에 가득히 웃음을 머금었다.

《참말이오이다. 저런 장수는 백년만에 처음 낳은 신동이오이다.》

장은 아무말없이 크게 머리만 끄덕이였다. 그러는새 요란한 말발굽소리와 함께 땀에 젖은 말이 요란한 투레질을 하며 차일앞 공지에 멈춰섰다. 말에서 뛰여내린 젊은이가 비왕앞으로 달려와 창을 눕히고 땅에 엎드렸다.

《머리를 들고 내앞으로 오라.》

《알았소이다.》

비왕의 령을 받은 젊은 사나이는 벌떡 일어서더니 앞으로 다가갔다.

반듯한 이마밑에 방금 나래치는 날개같은 검은 눈섭이 유표한데 그 밑에 번쩍번쩍한 정기를 뿜는 눈동자는 대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엄엄하게 만들었다. 그 모습과는 달리 가로 꾹 다문 억척같은 입귀에 미소같은 야릇한 부드러움이 조심스럽게 풍기고있었다. 그것을 알아본것은

참의 옆 교자에 쓰개옷으로 얼굴을 반쯤 가리우고 앉은 나리뿐이였다.
나리는 비왕을 따라 자주 훈련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기를 즐겨했다.
무예를 무척 좋아하는 나리의 남다른 취미에도 있었지만 보다는 훈련장의 신동으로 불리우는 성기를 보기 위해서였다.
나리는 성기의 번쩍이는 눈빛앞에 수집음을 금할수 없었다. 성기와 나리사이에는 아무런 교제도 인연도 없었건만 이성기에 바싹 눈이 트는 나인의 어쩔수 없는 본능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리는 저도모르게 훈련장의 그 비호같은 사나이에게 마음을 빼앗긴것만은 사실이였다.
《성기, 오늘은 수고가 많았으니 일찌기 끝내고 들어오도록 하여라.》
비왕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차일에서 좀 동안을 두고 대기하고있던 마교차가 방울을 짤랑거리며 다가와 차일옆에 멎어섰다. 뒤이어 참의 마차도 그옆에 다가왔다.
비왕은 여느때없이 흡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교차에 올랐다.
장은 이 나라에 무술에서나 인덕에서 성기만한 젊은이가 없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흡족해졌다. 키운 보람이 장의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을 던져주었던것이다.
사냥터에서 왕이 잡을 메돼지에게 먼저 창질을 하여 죄인으로 몰리였던 성기를 구원해준 장은 손수 자기가 장수복을 떨쳐입고나서 성기의 무술을 키워주었고 밤이면 밤대로 등불밑에 꿇어앉히고 단군의 성업과 《홍익인간》리념(단군조선의 정신수양)을 가르쳤다.
대노예주 참의 집에서 이름없는 가병장에 불과했던 성기가 이제는 어디에 내놓아도 장군의 체모를 당당히 갖춘 무사가 되였던것이다.
비왕은 오늘 저녁 하회때 성기문제를 상정시켜 나라의 장군급에 올려놓을 심산이였다.
《가자!》
비왕은 즐거운 마음으로 마부에게 출발구령을 주었다. 마부가 쥐고 있던 고삐를 잡아당겼다.
말은 앞발을 쳐들며 코를 불어대더니 네굽을 놓기 시작하였다. 짤랑거리는 마교차소리는 교련장에서 멀어졌다.
성기는 이윽히 지켜서서 마교차가 언덕밑 굽인돌이로 사라질 때까지 바래우고있다가 자기 애마에 뛰여올랐다.

휴식하기전에 한축 더 훈련을 하려는것이였다. 한축 한다던 훈련이 내친 김에 둬축 더하고나니 해가 어지간히 기울었다.

온몸이 달아오르고 갈증으로 하여 목이 타들었다.

이런 때면 부루메밀에 있는 옹달샘가로 말을 달려 시원히 목을 추기고 샘터아래에 있는 마탈호수에 뛰여들어 목욕을 하였다. 이것이 이제는 습성화되여 훈련이 끝나면 의례히 옹달샘으로 달려갔다.

《워워ㅡ》

신이 나 샘터에로 말을 몰아가던 성기는 말을 세웠다.

옹달샘가에 쓰개를 푹 내려쓴 나인이 물단지에 물을 퍼담고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인가와 멀리 떨어진곳이라 이곳까지 나인이 물을 길러 올리는 만무한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선뜻 걸음을 더 옮기지 못하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였다.

나인이 일어나기를 기다려 잠시 말등에 앉아있던 성기는 타드는 목을 참을길 없어 천천히 말을 몰아갔다.

《미안하오이다. 물 한모금 얻을수 없겠소이까?》

성기는 나인의 뒤에 서서 공손히 말을 걸었다.

나인은 아무말없이 표주박에 물을 떠가지고 돌아서더니 두손으로 표주박을 떠받들어 성기에게 내밀었다.

얼결에 표주박으로 손을 내밀던 성기가 손을 내민채 굳어져버렸다.

나인이 쓰개를 들고 방긋이 웃고있었던것이다.

《나리아씨 아니오이까?! 어찌하여 예까지 아씨가?!…》

나리를 알아본 성기의 마음은 무척 기쁘고 반가왔다.

참의 집에 소년가병장으로 있을 때 늘 성기를 따라다니며 못살게 굴던 철없고 장난궂은 아이였다.

성기가 나오는걸 보면 총총 매달리며 매미 잡아달라, 잠자리를 잡아내라 졸라대기가 일쑤였다.

어느해 겨울인가 소스나언덕에서 지치기를 하자고 너무도 떼를 써서 함께 언덕에 오른적이 있었다.

소스나언덕의 한쪽면은 경사가 급하게 흘러 겨울이면 주변아이들이 자작나무나 소나무가지들을 꺾어 그것을 타고 언덕을 지쳐내려가는데 어떤 때는 서른나마 되는 집들이 들어앉은 소스나읍락까지 거침없이 내려가는 때도 있다.

그 거리가 무려 만보나 되는데 되돌아올라가 서너번 지치고나면 하루해가 넘어가군하였다.

《어서 나무채를 꺾어주사이다.》

나리가 성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조급히 졸라댔다.

성기는 맞춤한 나무채를 꺾어 나리에게 주고 자기도 나무채를 꺾느라고 잠시 숲속에 들어갔다 나오니 나리가 보이지 않았다.

장난하려 숲속에 들어갔는가 해서 두루 살펴봤으나 보이지 않았다.

나무채가 없는것으로 보아 지쳐내려간것이 분명타고 생각하고 아무리 밑을 내려다 보아야 한명도 지치기 하는것이 보이지 않았다. 한무리의 아이들이 왁작 떠들며 등성이로 올라왔다.

《얘들아, 여기서 나인애 하나를 보지 못했느냐?》

《우리는 못봤소이다. 그런 애는 없었소이다.》

성기의 다급한 물음에 아이들은 도리질을 했다.

성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리가 이상하게 종적을 감춘것이였다.

성기는 집으로 뛰여들어가 가병들을 모두 불러내였다.

등성이를 오르내리며 참빗으로 훑듯했으나 나리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성기가 당황해서 어쩔줄 모르고있는데 한 가병이 찾았다고 소리쳤다.

성기는 정신없이 달려갔다.

가병이 가리키는곳을 보니 움푹한 구뎅이가 나졌는데 한길이나 넘어되는 눈구뎅이속에 빠진 나리가 태평스럽게 자고있었다.

빠져나오려 애를 쓰다가 눈이 깊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푸근한 눈속에서 저절로 졸음에 몰려 정신없이 잠이 든 모양이였다.

성기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혼자 껄껄 웃어버리고말았었다. …

성기는 야릇한 회억속에 나리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때는 아직 나인이라는 색갈도 향기도 느껴지지 않는 한갖 도담찬 장난군애로만 여겼었는데 어느새 나리는 숙성하여 인제는 바야흐로 조심스럽게 꽃잎을 열고 향기를 내뿜기 시작하는 함박꽃으로 변하였다.

맡으면 향기가 코를 찌를듯하다. 옥같이 다듬어진 하얗고 뭉실뭉실한 살결에 어찌보면 놀란듯이 커다란 눈이 애타는 정회를 담고 성기를 힐끔 치떠보고 내리까는데 온 가슴이 뭉클하며 심장이 툭툭— 까닭 모르

게 뛰면서 온몸에 뜨거운 피를 내뿜었다.
《땀을 흘렸소이다. 어서 목을 추기오이다.》
미묘한 사모의 음향이 담뿍 짙은 그 목소리는 그대로 옥을 굴리고 금방울을 흔드는것 같다.
(어느새 나리가 이렇게 성장했는가?!)
성기는 까닭 모르게 설레이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수집은듯 머리를 숙인 나리에게 눈길을 주었다. 검은 점이 박힌 초록색 명주로 몸의 균형미가 그대로 드러나게 지어 입은 검은섶 저고리앞을 떠밀며 봉긋이 솟아오른 통통한 가슴이 안정을 모르고 오르내렸다.
성기는 왜서인지 눈앞이 아찔해져 시선을 피했다.
《고맙소이다.》
성기는 나리가 내미는 표주박을 얼른 받아 밑창이 드러날 때까지 꿀꺽꿀꺽 마셔버렸다. 그 표주박이 큰 동이만큼 컸으면 했다. 그러하면 그 그릇의 물을 다 마실동안 나리와 마주 서있을수 있지 않는가.
허나 그 행복의 순간이 성기에게 차례지지 않았다.
참의 가병이 뽀얗게 먼지를 날리며 련무장을 가로 질러 샘터로 달려왔기때문이였다. 가병의 뒤로 살진 흰색 호마 하나가 따랐다.
《상어른께서 어서 들어오시라 독촉이 불같소이다.》
가병이 성기에게 힐끔 마깝잖은 시선을 던지고 나리에게 머리를 숙여보이고는 백마의 고삐를 쥐여주었다.
나리는 스치듯이 성기에게 바싹 다가들며 타는듯한 목소리로 속삭이였다.
《교련장에 다시 나와주사이다. 꼭 나오소이다. 약속을 어기지 말아주사이다.》
나리는 혹시 성기가 약속을 어기면 어쩌나 하는 겁먹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성기는 눈을 껌석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가자-》
나리는 번개같이 백마에 뛰여올라 박차를 가했다. 백마는 앞발을 번쩍 쳐들고 하늘이 울리게 소리지르더니 쏜살같이 앞으로 내달았다.
가병이 그때에야 정신이 든듯 말궁둥이를 손으로 치며 말을 다그어댔다. 나리는 아득한 운무속으로 가물가물 사라져갔다.
성기는 모든게 잠시 눈앞을 흘러 지나간 꿈인듯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성기가 참의 집을 나선지 얼마 지나 참은 니계상으로 발탁되여 왕검성으로 들어왔다. 성기는 니계상 참이 비왕 다음가는 권세를 행세하는지라 그와는 상종할 기회가 없었다. 비왕의 총애를 받는 한갖 교련생에 불과했던 젊은 사나이, 그가 어찌 감히 대노예주에 상의 직분을 가진 그와 마주설수조차 있으랴. 그러니 자연히 나리도 볼수가 없던 그였다.

교련장에 나선 성기는 도저히 손에 병쟁기가 잡히지 않았다. 눈앞에 오락가락하는건 나리의 웃는 얼굴이요, 들리는 소리는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나리의 목소리뿐이였다.

성기는 시름에 잠겨 큰 참나무앞에 놓인 너락바위에 털썩 주저앉아버렸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안타까운것이 끓어오르며 억센 사나이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성기는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너럭바위에 팔베개를 하고 벌렁 나가누웠다.

청청하게 가지를 뻗친 늙은 참나무가지사이로 푸른 하늘이 올려다보였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참나무가지를 살랑살랑 흔들어댔다.

갸름한 참나무잎새 하나가 떨어져 성기의 눈앞에서 뱅글뱅글 돌며 흩날렸다.

그 잎새는 어느새 나리의 생글거리는 얼굴로 바뀌여져 성기에게 다가왔다.

성기는 그 나무잎을 잡아 자세히 뜯어보았다.

어디선가 알릴듯말듯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성기는 꿈을 꾸듯 그 말발굽소리를 어렴풋이 듣고있었다.

성기는 어렴풋한 꿈속에 눈을 감았다.

백설보다 더 흰 말우에 나리가 앉아있었다.

말발굽소리는 더 잦게, 더 크게 들려왔다.

이제는 귀속이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다.

안개속에 묻힌 한송이의 작약처럼 뽀얏하던 나리의 얼굴이 뚜렷이 다가들며 방실 웃음을 지었다.

《그대 보고싶어왔소이다. 어찌 땀을 그리도 많이 흘렸소이까. 이 꽃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훔치시오이다.》

옥을 굴리는듯한 목소리가 귀전에 울렸다.

성기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고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처럼 뚜렷하던 말발굽소리가 멎고 손에 잡힐듯 가까운곳에 환하던 나리의 얼굴도 간곳없이 사라져버렸다.

오직 눈앞에는 가벼운 바람에 실린 들꽃 한송이가 한들거리며 코를 찌를듯한 향기를 뿌려줄뿐이였다.

마음속이 허전해왔다.

《그대는 어디 가 오지 않소. 이 성기는 그대없이 이 세상을 살것 같지 못하오. 나리, 어서 나의 품으로 돌아오오.》

성기는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또다시 팔베개를 하고 맥없이 너럭바위우에 벌렁 누워버렸다.

《호호호… 나리는 여기 있사온데 어디 가 나리를 찾소이까.》

골짜기를 뒤흔드는듯한 어여쁜 나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성기는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키며 눈을 떴다.

성기의 뒤쪽 들판에서 철총마가 풀을 뜯고있는데 그옆에 가쯘한 교련복에 활첩을 멘 나리가 서있었다.

성기는 당황하여 너럭바위에서 일어섰다.

어쩐지 나리 보기가 면구스러워 그답지 않게 얼굴을 붉혔다. 창을 쥔 대장부가 나인에게 빠져 허우적이는 꼴을 보였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말인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여들어가고싶을 지경이였다.

그런데 나리가 그따위 사내의 생색쯤은 안중에도 없다는듯이 생글거리며 다가왔다.

《이 가련한 나인을 진심으로 도와주오이다. 저도 무술을 닦아 군사가 되고싶소이다.》

《나인이 무슨 군사가 된다 하시오이까. 대장부들이 있지 않소이까?》

《허나 나인이라고 활첩 메고 창잡지 말란 법 없지 않소이까.》

나리는 여전히 생글거리며 정다운 눈길로 성기를 쳐다보았다.

불에 덴듯 흠칫 놀라며 눈길을 피해버린 성기가 잠시 생각을 잇다가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거참, 자신이 없는걸, 또 눈속에서 잠이라도 들어버리면 어찌하오리까.》

나리는 부끄러운듯 얼굴을 붉히더니 깔깔 웃어댔다.

《그러하오면 그때처럼 안아데려오지 마시고 엄하게 군률로 다스려주사이다. 호호…》

나리의 구김새없는 웃음에 성기도 별수없이 따라웃고말았다.

《좋소이다. 그럼 어서 교련장으로 가오이다.》
성기가 유쾌히 말하며 말우에 뛰여올랐다.
《쩌—》
나리도 성기를 따라 말을 몰아갔다.
어느새 네굽을 놓은 두필의 말은 쏜 화살마냥 교련장을 향해 내달렸다.
멀리에 매단 뒹박이 보이자 나리는 활첩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먹였다.
나리의 백마가 뒹박앞을 날았다.
성기는 방울소리를 세여보았다.
정확히 열두개의 방울이 울렸다. 짧은 시간에 화살 열두개를 모두 정확히 뒹박에 명중한것이였다.
웬간한 대장부들도 열두화살로 열두개의 뒹박을 맞히기는 조련치 않았다.
성기는 마음이 흡족하여 허공에서 흔들리며 방울을 울리는 뒹박을 바라보았다.
성기앞에 철총마가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반대로 거슬러오르며 창으로 찌르고 쳐서 스물여덟개의 허수아비를 넘어뜨려야 한다.
정확성, 민첩성을 요구하는 일이였다. 이 경기에서는 사나이들이 주로 우승을 한다.
허수아비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나리는 창을 비껴들고 불이 이는듯한 눈길로 허수아비를 노리며 육박해들어갔다.
눈 깜박할사이에 백마는 허수아비구간을 지나가버렸다.
열한개의 허수아비가 넘어졌다.
그것만도 대단한것이였다.
성기는 만족하여 나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오면 단단히 치하를 할 작정이였다.
그런데 좀처럼 나리의 철총마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혹이 든 성기는 말을 돌려 나리를 찾아나섰다.
얼마쯤 가니 풀밭에 철총마가 한가로이 풀을 뜯을뿐 나리는 보이지 않았다.
말에서 내린 성기는 말을 풀밭에 놓아주고 새초들과 잡관목이 우거

진 풀숲을 헤치며 나리를 찾았다.
숲을 지나 강가에 나서니 하얀 자갈판에 주저앉아 흘러가는 물결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나리의 모습이 비쳐왔다.
(아, 저기에 있었군.)
기쁨에 넘쳐 그곳으로 달려간 성기는 수심에 잠겨 강물만 바라보는 나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방금전까지 그처럼 밝고 행복만이 넘쳐나던 나리의 얼굴에 어두운 수심의 빛이 어려있는게 아닌가.
성기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일가, 왜 갑자기 얼굴이 흐려졌을가?!)
성기는 알수 없는 의혹에 가슴을 울렁이며 나리에게 다가갔다.
《나리, 무슨 일이오이까? 내가 알면 안되겠소이까?》
그러자 번쩍 얼굴을 쳐든 나리가 성기를 쏘아보았다.
그 눈길에는 얼마나 무서운 원망의 빛이 어렸는지 성기의 가슴이 서늘했다.
성기를 쏘아보는 나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가랑가랑 배여올랐다.
《야속하오이다. 야속하오이다. 어쩌면 사내대장부가 연약한 나인의 불행 하나 가셔주지 못하오이까. 야속하오이다.》
나리는 갑자기 얼굴을 싸쥐고 구슬피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성기는 깜짝 놀라 애처롭게 떠는 나리의 어깨를 흔들었다.
《나리, 무슨 일인지 말해주오이다. 내 나리를 위한 일이라면…》
《다시는 상종하고싶지 않소이다.》
자갈밭에서 일어난 나리는 자기 철총마를 찾아 번개처럼 올라타더니 바람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성기는 교련장 한끝 초원으로 가물가물 사라지는 나리의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였다.
(파연 무슨 일이 있었을가?! 불행이란 파연 무엇일가?)
성기는 무엇인가 알지 못할 검은 구름이 가슴속에 갓 피여나기 시작하는 행복의 꽃술을 짓밟으며 발볌발볌 다가들고있음을 감촉했다.

2

(과연 무슨 불행이 나리에게 찾아들었을가?!)

성기는 온 하루 교련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쩔수 없는 안타까움과 피로움이 조선의 성업을 위해 일떠선 억센 사나이의 심장을 야금야금 좀먹어들고있었다.

다음날부터 성기는 아침마다 부루메언덕의 바위우에 올라 멀리 왕검성쪽을 넋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군했다.

그러면 야속하게 자기를 쏘아보던 나리의 눈길과 애처롭게 떨던 가냘픈 그의 어깨가 얼른거렸다.

(지금 나리는 무엇을 하고있을가. 지금도 무엇때문인지 구슬피 울고있는것이 아닐가.)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았다.

생각같아서는 당장 말을 달려 알아보고싶었으나 으리으리한 국가대신의 집인지라 감히 가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만약 간다 해도 참의 가병들이 외인을 들여놓을리 만무했다.

벌써 나리를 못본지 며칠이 지났던가. 꼽아보면 불과 이레밖에 흘러가지 않았지만 3년을 못본것처럼 그립고 안타까왔다.

그리움에 몸부림치던 성기는 오늘도 나리와 만났던 샘물가로 달려갔다.

성기는 찰랑이는 샘물가에 얼굴을 비쳐보았다.

그러면 투구 쓰고 교련옷을 입은 투박한 사나이의 모습이 한송이의 꽃처럼 아릿다운 나리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나리는 시원한 고운 눈매에 웃음을 담고 차거운 샘물을 함뿍 떠서 성기에게 수집은듯 내민다.

흐렸던 마음이 가뭇없이 밝아진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감정이였다.

안타까이 기다리던 그리움은 더해지고 심장은 방망이질하듯 흉벽을 쿵쿵－두드리며 더욱 세차게 뛰였다.

《나리, 그대는 과연 어디로 사라졌단말이요.》

성기는 부르쥔 두주먹을 허공에 내흔들며 애타게 부르짖었다.

그 메아리를 타고 어디선가 귀익은 말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성기는 초

왼쪽에 눈길을 돌렸다.
초원 한끝으로 눈에 익은 철총마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오고있었다.
(아, 나리!)
다시 눈을 부비고 초원을 바라보던 성기는 나는듯이 자기의 애마에 몸을 날렸다.
성기의 애마는 하늘이 떠나가게 투레질을 하더니 초원을 향해 번개같이 네굽을 놓았다.
철총마도 이쪽을 발견했는지 구름처럼 몸을 날렸다.
《성－기－》
그처럼 마음속에 간절하게 그리던 나리의 목소리가 다급한 말발굽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나리－》
《성기－》
마주 쏜살같이 달려가던 철총마와 황부루는 그 속도를 어쩔수 없어 획 서로 지나쳐 돌아가기 시작했다.
《성기－》
《나리－》
서로의 간절한 부름이 그우에서 함께 엉켜돌아갔다.
약속이나 한듯 두 말이 서로 마주하고 멎어섰다.
황부루와 철총마는 앞발을 번쩍 들며 세차게 투레질을 하더니 서로 얼굴을 비비며 돌아갔다.
《그리웠소이다. 보고싶었소이다.》
나리는 참고참던 정회를 터치며 흑흑 흐느껴울었다.
《나리－》
가슴속에 야속함과 그리움이 콱 엉켜들어 목이 메여버린 성기는 겨우 나리의 이름을 불렀다. 뜨거운것이 두볼로 흘러내려 관복을 적셨다.
《그동안 어찌하여 나타나지 않았소이까?》
겨우 격정을 누른 성기가 다급히 물었다.
허나 나리는 아무말없이 꽃같은 미소를 그리며 방실거리기만 하였다.
그 웃음이 어찌나 아름답고 정다웠던지 성기의 마음속에 고여들던 온갖 의혹과 괴로움이 봄눈석이처럼 모두 녹아내리고 정갈한 흰눈처럼 티 한점 묻지 않은 깨끗한 사랑이 불길처럼 솟구쳐올랐다.
황부루와 철총마는 가지런히 보조를 맞추며 인적없는 초원을 걸었다.

마치 이 하늘아래에는 오직 그들 둘뿐인듯싶었다.
《성기, 그간 교련이 힘들지 않았소이까?》
여전히 밝은 미소속에 나리가 입을 열었다.
《교련의 고됨은 천만번도 참을수 있었사온데 그리움은 참기 어려웠소이다.》
《소녀의 마음은 그에 비할바없이 모두 타버렸소이다.》
성기는 끝내 참지 못하고 번개처럼 몸을 날려 나리의 철총마에 올라타서 고삐를 틀어쥐였다.
《성기ㅡ》
나리는 와락 성기의 성벽같이 든든한 가슴에 안겨들며 참고참던 울음을 터치였다.
《나리, 그러지 마오, 난 영원히 나리의 웃는 얼굴만 보고싶소이다.》
성기는 떨리는 손길로 볼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리가 그 손을 꼭 쥐여 높뛰는 자기의 가슴에 품어안았다.
《우리 영원히 이렇게 함께 말을 타고갔으면 얼마나 좋겠소이까.》
나리는 밝게 웃으며 성기의 남아다운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 역시 언제나 나리와 함께 있고싶소이다.》
《고맙소이다.》
나리는 걷잡을수 없는 설음에 목이 메여 울음을 씹어삼키며 성기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었다.
안타까왔다. 죽고싶을 정도로 통절했다.
이 불같은 사랑을 두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말인가.
과연 그 마수에서 벗어날 길은 없단말인가.
나리는 점점 더 성기의 가슴에 파고들며 애절히 울었다.
성기는 안타까이 나리의 연약한 어깨를 흔들었다.
왜 그런지 불안한 예감이 더욱더 갈마들었다.
이레씩이나 못나온걸 보면 틀림없이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있는것이 분명했다.
도대체 무슨 일일가? 무슨 일이기에 이처럼 나리의 가슴을 허벼내는것일가?
《나리, 말해주오. 무슨 일이 나리의 마음을 괴롭히오?》
성기는 가슴을 조이며 나리의 부드러운 두손을 꼭 움켜쥐였다.
나리는 눈물젖은 얼굴에 방긋이 웃음지으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무 일도 아니오이다. 그저 기뻐서 그러오이다.》
나리는 웃음을 지어보이려고 애를 썼다.
허나 그의 가슴속에서는 울분이 끓고 증오가 고패치고있었다.
권력에 대한 야심이 남다른 니계상 참은 왕검성의 《독사》로 일컬으는 장군인 왕협에게 자기의 딸 나리를 주기로 약조하였던것이다.
참은 언제부터 왕협을 자기의 수중에 끌어들이려 양으로 음으로 획책하고있었다.
참은 요즘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여 우거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권을 타고앉으려는 야심에 더욱 발악하고있었다.
자기의 야심을 실현하자면 군사를 령솔하는 왕협도 자기의 수중에 그러쥐여야 했다. 그런데 왕협이 자기 딸 나리에게 눈독을 들인다는것을 감촉하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왕협이 처첩 일곱을 데리고 사는놈이지만 그의 마지막첩으로 나리를 주는것도 서슴을 참이 아니였다.
물론 가문의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지만 노예의 소산인데다가 제 야심을 실현하는 길이라면 자기의 피덩이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한것이 있다 해도 다 바쳐갈 참이였다.
참이 자기의 의향을 비치자 왕협은 너무 좋아 무릎부터 쳤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호박이 넝쿨채로 떨어져 자기앞으로 데굴데굴 굴러올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리만은 자기의 여덟번째 첩으로 끌어들여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고집불통령감을 녹여낼것인가. 누우나 서나 모색하던중인데 넌쩍 상대편에서부터 딸을 주겠다고하니 이 아니 횡재인가.
왕협은 너무 좋아 당장이라도 기일을 끌지 말고 혼례식을 해치우자고 했다.
참은 흐뭇해서 왕협이 하자는대로 응해버리고말았다.
그래서 혼례식이 래일모레로 결정되고말았다.
참은 그대로 온몸이 하늘로 둥둥 떠오르는 심정이였다.
왕협이 자기의 사위인즉 자기 손에 안 놀아날리 없다.
참은 수천년 조상대대로 니계지방에 뿌리를 박고 혈통을 이어온 토배기인지라 니계지방의 씨다구들이 모두 참의 족속들이였다. 드넓은 니계지방에 퍼진 권력있는 주인들이 모두 참을 소왕처럼 모시고있는것이여서 참은 니계지방의 독재자, 무한정한 토호권력자로 군림하고있었다.

그러니 다른곳에서 흘러와 이 지방에 부수도를 두고 새로 권력을 뻗치기 시작한 왕의 족속들도 이 두터운 문벌의 장벽을 뚫고들어가기 힘들었다.

이런 연고로 왕인 우거도 큰 부자이며 니계지방의 무한한 실권자인 참을 마음대로 대하지 못하는것이였다.

참은 왕의 이 약점을 리용하여 아예 왕권을 뒤집어엎고 외지인들을 모두 쫓아버린 다음 왕검성을 타고앉을 야심을 품고있었던것이다.

그러자면 왕협을 틀어쥐여야 한다.

왕궁에서 큰 장군으로 일러주는 왕협만 자기 손에 그러쥐면 권력도 있겠다, 우거왕정을 제껴내는것쯤은 호박에 동침일것이였다.

참은 벌써부터 자기가 왕이 다 된듯이 마음이 들떠 돌아갔다.

그래서 참은 모든 일을 전폐하고 집안을 쓸고 돌아다니며 빨리 혼례식준비를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온 집안이 벌컥 뒤집혔다.

가병들과 노예들은 온 산판을 뒤지고 돌아가며 꿩을 잡아들인다, 메돼지를 잡아들인다 야단법석이였다. 나중에는 어디서 혼례식날 신랑신부자리에 깔아놓을 문피까지 구해들였다.

참은 한편으로 빨리 나리를 신칙하고 단장시키며 명주와 가는 베, 잘 이긴 부드러운 가죽들을 사들여 신부옷을 짓게 하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모두 뛰고 달리며 죽을새없이 돌아쳤다.

침방 깊숙이 박혀 창가림을 내리우고 피로움에 모대기는 나리에게 화사(나인들의 단장을 시켜주거나 사나이들의 행색을 살펴주는 녀자)가 달려와 아양을 떨었다.

《아씨, 얼마나 기쁘오이까. 이런 날이 일생에 한번이온데 방안에 홀로 계시지 말고 마음껏 즐기소이다. 참어른께서는 아씨의 단장 다그치지 않는다 소인을 신칙하니 제 어쩌지 못하고 쫓겨왔소이다. 어서 단장할 준비를 갖추사이다.》

화사가 들고온 통을 열고 독촉했다.

《내 일은 걱정하지 말아. 나도 손이 있거늘 제 단장 하나 못할가. 어서 가서 볼일이나 봐라.》

나리가 나서려 하지 않았다.

《아씨, 그러면 안되오이다. 곧 왕협장군께서 래도할터인데 아씨의

단장에 미흡한데가 있으면 소인이 경을 치오이다.》
《듣지 못했느냐. 내 단장 내 한다고…》
나리가 언짢게 어성을 높였다.
《알겠사와요》
화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방을 나섰다. 화사가 나가자 나리는 참고참던 울분을 터치며 베개에 쓰러지듯 얼굴을 묻었다.
나리의 가냘픈 어깨가 애처롭게 떨렸다. 기가 막혔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말이냐. 하늘신이시여, 굽어살피소서. 이 가련한 나인을 마수에서 건져주사이다. 소녀마음 살아도 죽어도 성기의 것이오니 가련한 우리의 사랑 보살펴주사이다. 그분과 저를 부디 갈라놓지 말아주소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나리의 아름다운 얼굴은 온통 눈물자욱이였다.
《아씨, 어디 편찮소이까?》
깜짝 놀라 달려들어온 시녀가 눈이 둥그래 어쩔줄 몰랐다.
이윽해서야 얼굴을 든 나리가 시녀를 자기곁에 불러앉혔다.
《이애야, 너 이 방 떠나지 말고 지키여라. 내 잠간 어디 갔다 올데 있다. 누가 봐도 인기척만 내고 문을 열어주지 말거라.》
《아씨, 어찌자고… 무슨 생각하시오이까?》
나리의 돌발적인 행동에 깜짝 놀란 시녀는 부들부들 떨었다.
나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내노예에 불과한 자기는 하루아침에 형틀의 귀신이 될것이다.
《이애야, 걱정말아. 아무렴 너에게 화가 미치게 하겠느냐. 내 시키는 대로 그리하여라. 내 아무도 모르게 뒤문으로 빠지겠다. 구종(말 관리하는 사람)에게 시켰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비밀이 샐가 저어되니 네가 마구간에 가서 나의 철총마를 끌어다 뒤문밖에 대기시켜다오. 어서 빨리 그리하여라.》
《알겠소이다, 아씨.》
그렇게 되여 나리는 남몰래 집을 빠져 성기를 찾아온것이다.
허나 나리는 좀처럼 자기의 불행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나리, 마음을 든든히 가지오이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마음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나 지고마는것이니 마음만은 굳게 먹소이다.》
성기의 품으로 파고들며 애처롭게 몸을 떨던 나리가 어쩔새없이 철총마에서 뛰여내리더니 성기의 황부루에 올랐다.

《아니, 어쩌자고…그 말은 사납소이다. 주인이 아니면…》
성기가 아연하여 소리쳤다.
황부루가 요동칠 때면 웬간한 사나이도 다잡기 힘들었다.
하물며 연약한 나인이 그 사나운 말에 올랐으니 성기의 마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하늘에 치솟아오를듯 앞발을 번쩍 쳐들고 귀청이 째지게 사나운 소리로 울어대던 황부루가 질풍처럼 내닫기 시작하였다.
《나리, 빨리 돌아오시우다—》
철총마에 박차를 가하며 성기가 피터지게 웨쳐댔다.
그러나 황부루는 점점 속도를 높였다.
성기는 그의 뒤를 따르자니 숨이 가빠올랐다. 나리의 말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귀마산쪽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성기는 눈앞이 캄캄해왔다. 귀마산은 가는곳마다 송장뼈와 해골뿐인데 대낮에도 컴컴한 어둠이 깃들어 온갖 맹수들이 어슬렁거리는곳이다. 급해 맞은 성기는 말의 궁둥이를 죽어라고 조기며 나리의 뒤를 따랐다.
《나리, 거기로 가면 안되오이다. 귀마산이요. 거기 가면 죽사이다. 돌아오소이다.》
성기는 힘껏 웨쳤다. 소용이 없었다. 황부루는 벌써 원시림이 우거져 컴컴하게 그늘진 귀마산입구로 들어서고있었던것이다. 귀마산입구까지 따라선 성기는 두눈이 휘둥그래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나리가 탄 황부루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어버린것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성기가 입에다 손나팔을 해대고 나리를 불렀다. 괴괴한 정적이 깃든 무시무시한 원시림속에서 메아리만이 울려오다가 그쳐버렸다.
《나리, 어디 있소이까?》
주인의 그 애타는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어디선가 황부루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쩌—》
두귀가 번쩍 뜨인 성기가 그쪽으로 달려갔다. 나리에게서 놓여난 황부루가 달려와 거품을 물고 거세차게 숨을 톺고있는 철총마의 볼을 비벼댔다.
그만 온몸이 얼음장처럼 얼어들었던 성기가 머지 않은 숲속의 큰 전나무에 머리를 묻은채 서있는 나리를 발견하고 말에서 뛰여내리기 바쁘

게 달려갔다.
《나리, 대체 무슨 일이오이까?》
성기는 나리의 어깨를 안아일으키며 물었다.
이윽하여 나리가 흐느끼며 터놓았다.
《어쩌면 좋소이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나이다.》
나리의 말은 너무도 뜻밖이였다.
《그건 무슨 소리오이까?》
성기는 어리둥절해졌다.
《모레 혼례식을 하겠다 하오이다.》
《뭐라구?!…》
너무도 뜻밖의 말에 성기는 그 자리에 얼어버렸다.
모든 기운이 일시에 새여버린듯 온몸이 나른해지며 눈앞이 캄캄해왔다.
무섭게 퉁탕거리는 거세찬 심장의 박동소리가 고막에 쾅쾅 울려올뿐이였다.
거친 숨을 몰아쉰 성기는 지그시 감정을 누르며 나리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보오이다.》
성기는 무서운 눈길로 머리를 숙인 나리를 노려보았다.
《나의 가슴엔 오직 그대뿐이오이다. 나의 온넋은 그대가 모조리 빼앗아갔소이다. 성기없이 이 나리가 이 세상에 살아 무엇하오이까.》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오이까. 무슨 생각이 나리의 가슴을 좀먹었소이까. 어디 말해보소이다.》
나리는 분한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흐느꼈다. 백옥을 다듬은듯 아름다운 나리의 손가락짬으로 맑은 눈물이 줄줄이 새여내렸다.
《아버님이 왕협에게 소녀를 허락하셨소이다.》
《뭐라구, 왕협?!》
성기는 사납게 부르짖었다.
그의 눈앞에 왕협의 우직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손탁이 센 장군이라지만 성기는 남달리 심술궂고 뻔뻔스러운 왕협의 인간됨을 평소부터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터였다.
원체 욕심이 많고 색이 강한데다가 처첩을 여럿씩이나 끼고있는 그

자가 철면피하게도 순결하고 아름다운 나리에게 눈독을 들이다니…
참을수가 없었다. 당장 달려가 왕협을 불러내여 사나이답게 결판을 내고싶었다.
나리는 영원히 성기의것이라고 칼을 뽑아 당당하게 선언하고싶었다.
하지만 나리의 아버지 참까지도 왕협과 한속통이라니 성기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쩌면 자기 딸을 그런자에게 내맡기려 한단말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성기가 한숨만 몰아쉬는데 나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녀 왕협에게 갈바엔 차라리 스스로 귀마산에 들어가겠소이다. 귀마산의 혼이 되여 오로지 성기만을 따르겠소이다.》
성기는 터져오르는 분격을 애써 누르며 슬피우는 나리의 가냘픈 어깨만 쓸어만졌다.
머리우에서 갈가마귀가 불안스럽게 울며 떠돌고있었다. 그 울부짖음속에 섞이여 간간히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말발굽소리가 들리오이다.》
나리가 귀를 기울이며 불안스럽게 입을 열었다. 잠시 귀를 기울이던 성기가 번개같이 황부루에 올랐다.
《쩌ㅡ》
황부루는 골짜기밑으로 사라지는 검은빛 말을 따라 전속으로 추격했다.
허나 너무도 늦은 추격이라 검은 말의 꼬리를 잃어버리고말았다.
《우리의 뒤를 밟은 이상한자오이다.》
어느새 성기의 뒤를 따라온 나리가 근심에 잠겨 말했다.
불행에 빠진 두 련인의 머리우로 갈가마귀떼가 더욱 불안스럽게 울며 설레였다.

3

안방 깊숙이 들어박힌 두 그림자는 만취되여 혀꼬부라진 소리를 했다.

《참어른, 나에게도 적지 않은 군력이 있으니 문제 없소이다.

우리의 마음만 합치면 어느 때건 그까짓 우거왕따위는…》

《쉬ー》

참이 입에 손을 가져가며 왕협의 말을 끊었다.

정지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뒤이어 뒤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낮모를 사나이가 기여들었다.

사나이는 왕협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 쑤군거리고 급히 문밖으로 사라졌다.

《음ー》

대번에 서슬이 푸르딩딩해진 왕협이 주먹으로 술상을 내리쳤다.

상우에 놓였던 술대접이 엎어졌다.

깜짝 놀란 참이 눈이 휘둥그래 왕협을 올려다보았다.

왕협과 음모가 꾸며진 후 참은 왕협의 일거일동을 심중한 눈길로 주시하고있었다.

그러니 이 돌발적인 왕협의 행동이 참을 놀래우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 무슨 일이오이까?》

참이 대신의 체면도 돌보지 않고 비굴하게 물었다.

《지금 나리가 어데 있소이까?》

왕협은 참의 체면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는듯 성이 나 되려 참에게 물었다.

《그 애야 지금 자기 방에…》

얼떨떨해진 참이 머리를 기웃거렸다.

《흥, 잘도 아오이다. 지금 나리는 성기와 산속에 들어가 재미를 보고있소이다. 오늘에야 참어른의 모든 말이 거짓이란것을 알았소이다.》

《거짓이라니 도저히 무슨 말인지?…》

참이 펄쩍 놀라며 중얼거렸다.

《자세히 알겠거든 나리에게 물어보소이다.》

성미가 급한 왕협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참어른이 그런줄 오늘에야 알았소이다. 이 왕협보다 가병출신인 성기가 더 눈에 찬 모양이신데 난 가겠소이다.》
왕협은 자리를 차고 나가버렸다.
아직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벙벙해있던 참은 문을 벌컥 열어제끼며 소리쳤다.
《얘들아, 나리를 내앞으로 당장 끌어 대령시켜라!》
《알았소이다.》
대청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있던 시종이 나리가 거처하고있는 건너채로 달려갔다.
뒤미처 건너방에 갔던 시종이 당황하여 달려왔다.
《나리아씨가 없소이다.》
시종두목은 자기 죄이기라도 한듯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었다.
《뭐라구?…》
깜짝 놀라 부르짖는 참의 얼굴은 험상궂게 이지러졌다.
《나리를 당장 잡아들여라!》
참의 호령이 터졌다.
《알겠소이다.》
가병장이 여라문명의 가병을 데리고 급히 대문을 나섰다.
참은 분격을 참지 못해 쏟아진 술이 질벅하게 흐르는 방안을 오락가락하며 황소숨을 씩씩 내톺았다.
나리가 나타나면 당장 요정이라도 낼 자세였다.
(가문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단말인가. 그년이 집문턱을 나서 아비 몰래 그런짓 하는걸 몰랐구나. 비천한 노예의 배속에서 나온 족속이니 어찌할수 없구나.)
참은 분을 누를길 없어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내질렀다.
나리가 그토록 총애하던 애첩의 모색을 그대로 빼문데다가 무예에도 출중하여 각별히 윈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벌써부터 애비를 거스르려 하다니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대문밖에서 왁작거리는 가병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나리가 제발로 돌아왔던것이다. 곧장 말을 타고 뜰안에 들어선 나리가 침착한 동작으로 말에서 내려 철총마를 마구간으로 끌고갔다.
참은 대청우에 버티고 선채 나리의 일거일동을 쏘아봤다.
철총마를 마구간에 매고온 나리가 참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아버님, 교련장에 갔다왔소이다.》
나리는 공손히 입을 열었다.
《그래 교련장엔 너 혼자였는고?》
《아니옵니다. 성기와 함께 있었소이다.》
《성기가 너의 교련에 무슨 인연이란 말인고?》
《성기에게서 무술을 배웠소이다.》
《무술을 배웠다? 난 너의 무술이 성기와 별로 짝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참이 비웃듯이 꼬았다.
《제 성기의 무술을 따르려면 10년은 더 배워야 할줄 아옵이다.》
《닥쳐라, 네 성실히 훈련하는줄 알았더니 성기와 붙어다니며 추잡한짓을 일삼았구나.》
나리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고 노호한 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건 너무도 터무니없는 중상이오이다. 억울하오이다.》
나리는 아버지의 발밑에 엎드려 울었다.
《다 증거가 있는것이다. 성기와 으슥한 귀마산에 무엇하러 갔댔느냐. 그것도 교련이더냐?》
나리는 말문이 막혔다. 눈앞이 아뜩했다.
무엇이라 변명해야 한단말인가.
《야, 뭣들 하는거냐. 어서 형틀에 묶어 되게 벌을 주어라.》
《알았소이다.》
가병들이 나리를 형틀로 끌고갔다.
바닥에 거치른 통나무를 세워놓은것이 형틀이다.
가병들은 형틀우에 나리를 맞세우고 바줄로 꽁꽁 묶었다.
묶이고나면 얼굴은 형틀과 마주 서게 되고 매 맞아야 할 어깨와 잔등, 종아리는 우로 내놓이게 된다.
《뭣들 하는거냐! 버릇이 뚝 떨어지게 되우 쳐라!》
참의 눈치만 슬금슬금 보며 매를 들지 못하던 가병들이 참의 소리에 흠칫 놀라며 쳐들었던 방망이를 나리의 연약한 어깨와 등어리에 사정없이 안겼다.
《이 미련한놈들아, 좀 사정을 보아 치지 못할고!》
다급하게 지르는 참의 소리였다.
《예, 알겠소이다.》

가병들이 도수를 낮추어 매를 안겼다.

《에끼, 이 곰 같은놈들, 때리는 흉내만 내거라. 그러다 병신 만들겠다.》

또다시 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런 경황속에서도 나리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왕협파의 혼담이고 뭐고 다 거덜이 난다는 타산을 놓치지 않았던것이다.

가병들은 비실비실 주인의 눈치를 훔쳐보며 짐짓 악청을 뽑으면서 때리는 시늉만 냈다.

한참이나 그런 역사질을 하고 난 뒤에야 참은 그만두라고 령을 내렸다.

《그년을 침방깊이 가두어넣구 문단속을 엄하게 해라!》

그리하여 나리는 규방속에 갇힌 신세가 되고말았다.

참은 그후에도 왕협파의 혼담을 성사시키려고 여러차례 나리를 얼리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였었다. 하건만 나리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화가 꼭두까지 치받쳐오른 참은 온 뜨락이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이 괘씸한년! 네년이 기어쿠 애비말을 거역하다간 규방속의 귀신이 되지 않나 두구 봐라!》

참은 나리가 바깥으로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가병들을 단단히 신칙하였다.

무정한 세월은 거침없이 흘러갔다.

그처럼 쾌활하고 웃기 잘하던 나리는 점차 웃음이라고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파묵한 나인으로 변모되여갔다.

깊숙한 규방속에 갇혀 그가 날마다 하는 소일거리란 화조를 그리거나 시녀와 함께 바느질을 하는것이였다. 그리고 뜰안에 무성하게 자란 산죽을 가꾸는 일뿐이였다.

이따금 그는 잡안팎을 드나드는 시녀를 통해 성기의 소식을 전해듣기도 하였다. 성기가 대신이 되고 장군이 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한달음에 달려가 그리운 님을 축하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싶었다. 하지만 갈래야 갈수가 없었다. 우중충 높이 솟은 참의 담장이 철창처럼 나리를 둘러싸고있었던것이다.

설사 목숨걸고 담장밖으로 뛰쳐나가 님의 품에 안긴다 해도 아버지

의 뜻을 배반하면 나라의 법으로 다스리는 때였으니 어찌 나라의 대신까지 하는 성기를 곤경에 빠뜨릴수 있으며 아비를 거역한 계집을 그 누가 걷어안을수 있으랴.

생각할수록 애가 끓고 억이 막히는 노릇이였다.

그런 속에서도 나리는 행여나 하는 한가닥의 희망으로 자신을 위안하며 살아왔었다.

그런데 아비는 또다시 왕협과의 혼담문제를 들고나오는것이였다.

《너도 이젠 철이 좀 들었을테니 잘 생각해봐라. 자고로 부모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는게 자식의 효도라 했거늘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물론 왕협에게 소실이 많은건 사실이다만 사내대장부로서 그쯤한게 무슨 흠이 될가. 이날이때껏 너를 키워준 이 아비의 은공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못쓰느니라.》

나리는 앞이 캄캄해졌다. 지금껏 그의 삶을 부지해온 일루의 희망마저 깡그리 사라져버리는듯싶었다.

그래도 명색이 아비라는 사람이 어쩌면 저리도 무자비하고 몰인정할수 있단말인가.

더이상 살고싶지도 않았다. 차라리 저세상에 계시는 어머니를 따라가는것이 갑절 행복할것 같았다.

하여 나리는 식음을 전페하고 오로지 빈 방에서 절망과 눈물속에 속절없는 나날을 보내였다. …

돌연히 어디선가 컹컹 개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괴괴한 밤정적을 깨뜨리며 기승스럽게 들려오는 그 소리에 놀라 나리는 소스라치듯 생각에서 깨여났다.

높다란 담장으로 둘러막힌 이 뜰안이 그에게는 꼭 지옥같이만 여겨졌다. 험상궂게 이지러진 아비며 왕협의 얼굴들이 지옥의 사자마냥 무시무시하게 안겨왔다.

(아, 나는 어쩌면 좋단말인가?)

나리는 온몸에 전률을 느끼며 활랑거리는 가슴을 꾹 부여잡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지…

한동안 무서운 환영속에서 몸부림치던 나리의 눈앞에 다시금 창턱우에 놓인 산죽의 자태가 은은히 비쳐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리의 귀전에 문득 언젠가 하던 성기의 말이 들

려오는것이였다.

《산나리는 철이 있어 잠간 폈다 지지만 산죽은 사시장철 푸르러 곧게만 자라오이다. 아씨도 이 산죽처럼 자라오이다.》

산죽, 사시절 푸르러 곧게만 자라는 산죽.

(그래, 산죽은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버리지 않고 비바람속에서도 곧음을 버리지 않지.)

달빛어린 나리의 얼굴에 무엇인가 비장하고 결연한 빛이 서서히 떠오르고있었다.

며칠후 참의 집에서는 별안간 소동이 벌어졌다. 나리가 몸종과 함께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추어버리고말았던것이다.

그날 퇴궁하여 집에 온 참은 나리의 침방에 들렸다가 방이 비여있는것을 보고 가병장을 불렀다.

《어찌하여 나리가 보이지 않느냐?》

참이 버럭 의심을 가지고 물었다. 오히려 가병장이 눈이 휘둥그래서 참에게 물었다.

《주인어른께서 몸종과 함께 귀마산에 보내지 않았소이까?》

《귀마산에?!》

참은 소스라치듯 놀라며 버럭 역증을 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지껄이고있는것이냐? 귀마산은 무슨 도깨비같은 귀마산이냐?》

그때에야 가병장과 집안사람들은 사고가 났다는것을 직감했다.

《참어른께서 궁중에 들어가계시는동안 나리아씨는 아버지의 분부를 행한다면서 이른새벽에 마차에 약간의 식량을 싣고 귀마산으로 갔소이다.》

《그건 무슨 당치 않은 소리냐? 그래 나리 혼자 갔느냐?》

《몸종을 데리고 갔소이다.》

참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머리를 움켜쥐였다.

《어이구! 그 발칙한 종년의 종자가 끝내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참은 가슴을 두드려대며 한참동안이나 머리를 쥐여뜯었다.

그러던 참은 뒤늦게야 정신이 펄쩍 들어 악을 쓰며 고아댔다.

《뭣들 하는거냐? 냉큼 뒤쫓아가 그년을 잡아오지 못할고!》

가병들이 말을 끌어내여 마차를 메우느라 분주탕을 피웠다.

가병장은 벌써 날랜 가병 둬서넛을 데리고 번개같이 대문을 빠져 귀마산으로 달려갔다.
그뒤로 마차 두채가 따랐다.
그들이 부산을 피우며 떠나간 후 참은 자기 방에 들어박혀 한숨을 내지르고있었다.
열이면 아홉 맹수의 밥이 됐을것은 뻔한 노릇이였다.
아무런 방비도 갖추지 않은 나인들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며칠 지나서야 가병장이 풀이 죽어 돌아왔다.
땀에 흠뻑 젖은 말에서 뛰여내린 가병장이 벌벌 기다싶이 하며 참앞에와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주인어른, 큰일났소이다. 귀마산에 들어가니 마차 한채만 남고 아씨의 종적은 보이지도 않았소이다. 노예도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었소이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나 찾아올 생각 않고 빈 손으로 오다니 그게 될말인고?》
참이 분격하여 자기옆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며 펄펄 뛰였다.
《지금 가병들과 시종들이 곳곳에 흩어져 나리아씨와 노예를 찾고있소이다.》
《그래 마차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고 산죽 두그루뿐이였소이다.》
《산죽이라니 그것은 무엇인고?》
참이 의혹에 잠겨 눈을 크게 떴다.
《나리아씨께서 손수 키우던 푸른 산죽이오이다.》
참은 아무말없이 절망에 잠겨 머리를 떨구었다.
뒤이어 마차가 돌아오고 나리를 찾으러 나갔던 가병들도 빈 손으로 돌아왔다.
나리와 노비는 푸른 산죽만 남겨놓은채 수수께끼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제 3 장
아사달에 타오르는 봉화

노예폭동군의 거점—금나수

1

나리가 귀마산으로 종적을 감추고 니계상 참의 가병들이 나리의 행방을 찾아 헐떡거리며 헤매던무렵 귀마산골안의 어느 산굽이밑에서는 살진 군마 다섯필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있었다.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곳에서는 가죽옷으로 밑을 가리우고 투박한 미투리를 눌러신은 다섯명의 사나이들이 풀우에 퍼더버리고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중 류달리 체구가 장대하고 어깨가 쩍 벌어진 사나이가 다름아닌 금나수의 노예폭동군을 거느리고있는 우마두목이다.
해별에 까맣게 탄 우마의 상체는 구리로 부어 만든듯이 든든하고 름름한데 생각에 잠긴 두눈에서는 이따금 사람들을 위압하는 세찬 광채가 번뜩이군하였다.
그의 뒤에 앉아 꾀가 엿보이는 눈을 끊임없이 삼박거리며 풀대를 씹는 사나이는 날승이고 날승곁에 앉아 미투리를 손질하고있는 사나이는 구두막이다. 그리고 그들과 좀 떨어져 앉아있는 사내들은 우마의 부하들인 도풀이와 엿보기명수 돌치이다.
그들중 날승과 구두막은 우마를 보좌하는 부두목들이다.
이들 다섯사나이는 이틀전 자기들의 근거지 금나수를 떠나 왕검성으로 정찰을 나왔었다.
노예들을 못살게 구는 대노예주 니계상 참과 묘하게 죽음에서 빠져나간 악질 주인들과 왕검성의《독사》왕협 등 대노예주들을 징벌하기 위해서였다.
정찰에 의하면 아직 왕검성안의 노예주들을 치는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 노예폭동군의 두목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느라 귀마산숲속으로 퇴로를 정하였다. 노예폭동군들의 활약으로 온 왕검성안이 잔뜩 긴장한데다가 아직 노예폭동군력량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왕검성에 덤벼들었다가는 노예폭동군이 전멸될수 있다는것을 확고하게 느낀 노예폭동군 두목들은 거의 실망하다싶이하여 귀로에 오른중이였다.
《날도 저무는데 어서 떠나오이다.》
미투리를 다 고쳐신은 구두막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 말에 모두들 엉뎅이를 털고 일어나는데 돌치가 다급한 소리를 질렀다.
《저기 이상한것이 보이오이다.》
눈이 밝고 판단이 빠른 돌치가 귀마산벼랑밑을 가리켰다.
벼랑밑으로 난 길에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화려한 쌍두마교차가 서있는데 그앞에는 뜻밖에도 커다란 호랑이 한마리가 버티고앉아 으르릉거리고있었다.
순간 노예군두목들은 어찌할바를 몰라 눈을 휘둥그렇게 뜬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창황중에 제일먼저 정신차린것은 날승이였다.

《저건 틀림없이 어느 주인놈의 족속인데 호랑이밥이 되게 내버려둡시다.》

《아무렴, 저것들이 우리가 죽어갈 때 동정이나 했소. 호랑이도 제 밥을 잘 골라잡았소.》

구두막이 맞장구를 쳤다.

《자, 이젠 돌아갑시다.》

돌치와 도풀이도 서둘러댔다.

이때였다. 노호한 호랑이의 비명이 골안을 들었다놓았다.

그찰나에 놀란것은 노예군두목들이였다.

호랑이가 몸뚱아리를 뒤틀며 땅바닥에 나딩굴더니 벌떡 뛰쳐일어나 마교차를 휙휙 넘나들며 따웅ㅡ 따웅ㅡ울부짖는데 맹수의 노호한 서슬에 심장이 써늘하게 식어들 지경이였다. 어디서 타격을 받았는지 호랑이의 대가리에서는 피가 흐르고있었다.

부두목들이 눈이 휘둥그래있는데 두개의 날카로운 창이 날아와 호랑이의 몸뚱이를 꿰질렀다.

따웅ㅡ 골짜기를 뒤흔드는 호랑이의 단말마적인 비명과 함께 황소짝만한 호랑이가 쿵ㅡ 하고 땅바닥에 나뎔어졌다.

때를 같이하여 숲속에서 나온 검은 복면을 한자가 마교차안으로 번개같이 뛰여들어 두사람을 끄집어냈다. 그들은 예상외에 연약한 두 나인이였다.

검은 복면은 두 나인을 안고 얼룩말에 뛰여올랐다.

이때를 기다렸던듯이 날아든 또하나의 말 탄 사나이에게 검은 복면이 나인 하나를 넘겨주었다.

나인을 안은 두 그림자는 숲속으로 뛰여들었다.

숲속공지에 여라문되는 그림자들이 얼씬하는것 같더니 바람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다섯 두목들은 마치 그 어떤 유령에 홀리운듯 눈들이 휘둥그래졌다.

《마교차에 가봐야겠다.》

우마의 목소리가 반정신나간 일행들을 일깨웠다.

다섯필의 말이 경쟁하듯 앞서거니뒤서거니 벼랑밑의 마교차를 향해 달려갔다.

제일먼저 마교차에 이른 우마가 피를 쏟고 너부러진 호랑이를 일별

하고 마교차의 포장문을 열어제꼈다.
텅빈 수레안에는 나인들의 물건들과 그릇에 심은 두그루의 산죽이 있였다.
우마는 얼나간듯 눈이 둥그래 두그루의 산죽을 바라보고있었다.
《그안에 뭣이 있소이까?》
검은 그림자들이 사라진 길목을 돌아보고온 날승이 요동치는 말고삐를 바싹 틀어잡으며 우마에게 물었다.
《이안에 두그루 산죽이 있소.》
《산죽이라니, 그건 뭣이오이까?》
날승이 놀라 마교차의 풍을 들고 그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틀림없이 니계상 참의 딸 나리의 마교차다.》
우마가 놀랍게 부르짖었다.
《그럼 그 마음 착한 나리란 말이오이까?》
구두막이 눈이 휘둥그래 물었다.
《틀림없네. 나리가 아니고서는 저런 산죽을 기르지 않네.》
우마가 확신에 넘쳐 말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나리는 주인의 딸이긴 하지만 우리처럼 비천한 노예의 소산이 아니오이까.》
돌치가 동정어린 목소리로 호소하듯 물었다.
《그 나리라면 구원함이 옳소이다. 우리 두목님이 귀마산에 묶이였을 때 구원해준것이 바로 그 나리일수 있지 않소이까.》
도풀이 불같이 웨쳤다.
《구원하오이다. 틀림없이 귀마산에 둥지를 튼 그 비적들이 한짓이 틀림 없사온데 저기 가보니 그놈들이 다닌 발자욱이 있었소이다. 큰 길에 잇닿은걸 보니 뒤쪽 귀마산동굴속으로 자취를 감추려함이 분명한데 우리 지름길로 질러가 그 길목을 막는것이 어떠하오이까.》
예지로운 날승이 제기했다.
《모두의 의향이 그렇다면 구원하자.》
두령의 결심이 떨어지자 엿보기 돌치가 번개같이 앞으로 빠져 내달리며 길을 열어나갔다.
그뒤로 우마와 부두목들이 따랐다.
그들은 돌치만이 아는 지름길을 따라 비적들이 지나갈 길목에 이르러 숲속에 감쪽같이 매복하였다.

고요한 숲속에서는 청서들이 찍찍거리면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여다니며 부산을 피웠다.

《두령, 나타났소이다.》

나무우에 올라 앞을 살피던 돌치가 다람쥐마냥 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리며 소리쳤다.

나무그늘밑에 퍼더버리고앉아 쉼을 하던 사람들이 번개같이 자기 말에 뛰여올랐다.

《저기 무엇이 나타났소이다.》

예지로운 날승은 누구에게라없이 속삭였다.

나무숲이 우거진 오솔길뒤에서 검은것들이 얼른거리더니 숲변두리로 얼룩점이 박힌 부여말이 나타났다.

말우에는 검은 복면을 한 피한이 한 나인을 붙들어안고있었였다.

《저것이오이다.》

구두막이 홍분하여 속삭였다.

《내가 앞으로 가 칠테니 너희들은 숲속으로 하여 한명씩 불쑥불쑥 나타날지어다. 그래야 우리의 적은 수가 탄로되지 않는다.》

령을 떨구기 바쁘게 우마는 검은 복면을 향해 번개같이 맞받아나갔다.

검은 복면이 정신차리고 대항하려는데 숲속에서 또하나의 대항자가 불쑥 나타났다. 뒤이어 반대편에서 다른 대항자가 맞받아나섰다. 비로소 당황한 복면은 그러안았던 나인을 내려놓고 결정적인 대항태세를 했다.

여기에 도풀과 돌치가 또다시 덮쳐들었다.

한껏 당황한 검은 복면은 자기와 대상한 상대가 적지 않은 력량이란 느낌을 받았는지 대항을 포기하고 뒤따라오는 비적들을 돌려세워 숲속으로 스며들고말았다. 우마의 패들이 그들이 사라진 숲속으로 돌입하여 비적들을 찾았으나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우마는 검은 복면이 길역에 떨군 나인을 향해 말을 달렸다.

검은 복면의 피한이 떨군 나인은 길역에 엎드려 서럽게 울음을 터치고 있었다.

더러운 피적무리에게 모욕당한것이 그토록 서러운 모양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호랑이의 아가리로부터 구원해준 고마운 은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인은 그런것쯤 생각할 리성도 없는 모양이였다.

울고우는 나인을 어쩔지 몰라 나인곁에 말을 세우고 잠시 기다리던 우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실례오나 나리아씨가 아니온지?》
그 소리에 나인은 울음을 그치고 머리를 들었다.
나인은 의혹이 가득찬 눈길로 말우에 앉은 노예를 찬찬히 여겨보았다.
《나를 모르겠소이까. 우마오이다.》
말에서 내린 우마가 나리가까이로 다가섰다.
나리의 눈물젖은 얼굴에 반가운 웃음이 가득 차더니 허둥지둥 일어섰다.
《이 어찌된 일이오이까. 반갑소이다. 정말 반갑소이다.》
나리는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눈굽을 훔쳤다.
《얼마나 고생 많소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로상에서 피한들의 욕을 보오이까?》
측은한 생각이 든 우마가 물었다.
《그 사연 어찌 한입에 다 말하리오. 한데 어찌 우마가 여기에…》
의혹이 가득찬 나리였다.
《우리는 노예폭동군이오이다. 일이 있어 왕검성에 나왔다가 돌아가던 중 귀마산에서 이상한 마교차 하나를 보았소이다.
그 순간에 복면을 한 검은 피한이 사람들을 랍치해가기에 마교차에 달려가 봤더니 산죽 두그루가 그안에 있지 않겠소이까. 그래서 나리를 구하려 피한들의 길목을 지키고있었소이다.》
우마의 말을 듣고난 나리는 고마움에 젖은 눈길을 들어 우마를 바라보았다.
《귀마산에 온 사연이 어떤것인지 모르오나 이제는 어찌하겠소이까?》
우마가 측은히 물었다.
잠시 울분에 잠긴듯 머리를 숙이고있던 나리가 머리를 들고 말을 했다.
《나는 집과 결별한 몸이오이다. 귀마산에 들어와 스스로 죽자고 했던 몸인데 하늘님의 동정으로 이렇게 살아난줄 아오이다. 이제 이 몸이 가면 어디 가겠소이까.》
《그러하오면 우리와 함께 금나수에 듭시오이다.
금나수에는 집도 있고 사람살이가 있으니 내 기꺼이 그곳 사람들에게 보살피라 하겠소이다.》
《고맙기 이를데 없소이다. 내 본디 노예의 소산이라 옷은 귀족이온데 속은 노예라 무슨 허물이 있겠소만 그곳에 가면 짐이 될가 그것이 걱

정이오이다.》

《그런 말 마오이다. 나리는 무술도 능하오며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사오니 우리 노예폭동군의 큰힘이 될가 하오이다.》

《그리 생각해주오니 고맙기 그지없소이다. 내 우마를 따르겠소이다.》

《그럼 빨리 말에 오르오이다. 우린 빨리 이곳을 빠져야 하나이다.》

우마는 비적들이 놓고간 말 한필을 가리켰다.

나리가 날랜 동작으로 말에 뛰여올랐다.

허나 발걸음 뗄 생각 않고 뒤만 자꾸 돌아보았다.

《왜 그러오이까. 무엇인지 걱정이 있는게 아니오이까?》

우마가 물었다.

《내 시종노예가 없어 그러오이다. 나 믿고 사는 노예온데 불쌍하오이다.》

나리의 눈에 글썽히 눈물이 맺혔다.

《나리아씨, 노예도 죽지 않았으면 만날 날 있을것이오니 너무 근심말고 이만 발걸음 떼오이다.》

나리는 한숨을 길게 내긋더니 말의 고삐를 잡아챘다.

말이 천천히 걸음을 떼였다.

나리는 아무말없이 우마와 나란히 말을 달리였다.

그뒤로 부두목들이 따랐다.

서쪽 산등성이우에서 맹렬히 마지막 눈부신 빛을 발산하며 열정적으로 불타던 태양이 드디여 지쳐버린듯 산밑으로 굴러떨어졌다.

2

외진 길은 잡관목과 풀, 이끼들이 덮인 흔들레판을 굽이굽이 에돌며 끝없이 뻗어갔다.

가도가도 수림은 아득하다. 그 수림은 천리런듯, 만리런듯.

다섯필의 말이 그 수림을 향해 걸어가고있었다.

걸음 한번 헛짚어도 수렁속에 빠져 다시는 솟아오르지 못한다. 언제 죽은것들인지 수렁우 여기저기에 하얀 해골들이 드러나 희끗거렸다.

수렁바다속의 수림 금나수까지 가는 길은 지금 다섯필의 말이 걷고 있는 길 오직 하나뿐이다.

수렁길에 익숙된 말들은 용케도 단 한번의 헛디딤이 없이 제곬을 따라 믿음성있게 걷고있었다.
대오의 맨앞에는 우마의 과하마가 섰는데 우마의 뒤에는 나리가 우마의 허리를 붙잡고 앉아갔다.
수렁초입까지는 나리도 말을 타고 왔는데 수렁길에 익지 않은 말이여서 우마의 말에 옮겨앉았다.
물구뎅이들이 번뜩이는 무연한 수렁우에는 젖빛안개가 뭉실뭉실 피여올랐다.
긴장해서인지 누구도 말이 없었다.
우마의 세력이 나날이 장성하는데 겁을 먹은 왕궁에서는 노예들을 진압하기 위한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관군이 노예들이 틀고앉은 오박산에 밀려들었다. 그런데 오박산은 험한 산속이기는 하였지만 지대가 협착하고 나드는 길도 여러 갈래여서 대규모의 공격을 막아내자 해도 그렇고 대오를 확대하자고 해도 그렇고 불리한 점들이 있었다.
이에 우려를 느낀 우마는 부하들과 의논하고 3년전에 본거지를 오박산으로부터 여기 금나수로 옮겨왔던것이다.
묘한 진펄지대인 금나수는 오박산이 가지고있던 장점들을 다 가지고있으면서도 누구도 서뿔리 들어갈수 없는 참으로 묘한 천연요새였다.
이미 이 수렁판우에서 노예들을 기습하려 밀려왔던 수다한 관군들이 녹아났다.
나리도 금나수의 무시무시한 진펄에 대해 소문으로 여러차례 들은적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수렁에 빠져 무주고혼이 된 무수한 혼백들의 울부짖음이 금시 들려오는것만 같아 오금이 저려나고 눈앞이 아찔해왔다.
《근심마오이다. 이 말들은 한치도 발을 헛디디지 않소이다.》
나리의 불안스러운 마음을 간파했던지 우마가 태연히 말했다.
수렁길로 들어선 다섯필의 말은 한낮이 되여서야 금나수수림의 첫입구에 들어섰다.
금나수에 들어선 나리는 대번에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죽음의 진펄가운데 이처럼 드넓은 수림이 들어앉아있으리라는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두팔벌려 안아도 아름이 찰 나무들이 총총히 들어선 원시림같은 수

림이 있는가 하면 가을들꽃이 화려하게 피여 진한 향기를 내뿜는 초원도 있었다.
나무줄기를 타고 배암처럼 꼬여올라간 다래머루들이 주렁져 해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희한하기 그지없었다.
초원 한끝에는 하얀 점이 박힌 사슴들이 떼를 지어 노니는데 맹수가 없는 초원은 짐승들의 락원인듯싶었다.
《이제는 다 왔소이다.》
우마가 돌아보며 빙긋이 웃었다.
우마의 말을 실증하는듯 초원 한끝에 나무로 지은 집들이 눈에 띄였다.
집은 그뿐인가 했는데 수림기슭을 따라 백여채가 넘을 집들이 처마를 맞대고 들어서있었다.
《무슨 집이 이리 많소이까?》
나리가 놀라 물었다.
《우리가 사는 집들이오이다. 집없이 노예우리에서 살던 원한서린 사람들인지라 보란듯이 제 집들을 지었소이다.》
우마가 웃으며 금나수의 정경을 소개했다.
집은 수림기슭에만 있지 않았다. 초원 한끝에도 심지어 수렁기슭에까지 뻗쳐졌다.
집앞에는 초원을 뚜져 밭을 일구었는데 끝모르게 펼쳐진 밭들에는 곡식이며 남새들이 자라고있었다.
나리는 처음보는 극락세계같은 정경에 눈이 휘둥그래졌다.
세상에 이런곳도 있는가싶었다. 금나수 어디에나 평화가 깃들고 풍만한 열매가 주렁졌는데 그것은 모두 주인의것이 아니라 노예들의것이였다.
아마도 노예의 락원이라 불러야 할 세계였다.
우마의 일행이 큰 동기와집앞에 이르렀을 때 나리는 다시한번 놀랐다.
왕검성에서도 흔치 않은 커다란 2층집이였는데 그 규모와 꾸림새가 놀라왔다.
커다란 싸리기둥을 해세우고 벽은 붉은색나는 찰진흙에 백토가루를 섞어 일매지게 발랐는데 그 색갈이 주위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시원한 감을 주었다. 그 집의 높이만 해도 사람 두길이 넘는데 그우에다가 그만한 크기의 집을 또 올려세웠다. 까마득히 올려다보이는 지붕에는

하얀 참나무를 세뼘 길이에 두뼘 너비로 잘라서 얇게 쪼갠 다음 그것을 촘촘히 잇대여 이었는데 그 모습이 세련되여보였다.
노예들이란 한갖 《말하는 동물》, 《말하는 재물》이여서 시키는 일이나 하고 사람흉내나 내는 미련하고 우둔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주인놈들의 의사와는 달리 훌륭한 세상을 만드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나리의 뇌리에 깊이 뿌리를 박았다.
이 훌륭한 집은 우마가 본거지로 쓰는 집이였다.
집앞의 큰 대문이 열리더니 나이지숙한 무장한 노예가 달려나왔다.
《두목어른, 무사히 갔다오셨소이까?》
창을 든 늙은 무장이 머리를 약간 숙여 우마에게 례를 표하고 뒤이어 부두목들에게도 그렇게 례를 표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없었는고?》
우마가 말에서 내리며 무장에게 물었다.
《별일 없었소이다. 지금 교련조는 드팀없이 교련을 하고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낟알을 거두려 밭에 나갔소이다. 단지 그동안 두목님이랑 부두목들이 모두 나가 있어서 교련이 무겁게 되지 못하였소이다.》
우마가 빙긋이 웃으며 아직 말에서 내리지 못한 나리를 바라보았다.
《교련장은 근심말아. 내 재간있는 교련감을 데려왔으니 근심없을지어다.》
우마는 만족하여 말에서 내리는 나리를 도와주었다.
늙은 무장은 눈이 둥그래 젊은 나인을 바라보고 함께 온 일행은 뜻있게 싱글벙글 웃기만했다.
《인사하시오이다. 우리 금나수의 좌상로인이오이다.》
우마가 나리에게 늙은 무장을 소개했다.
나리와 늙은 무장은 서로 자기 손을 앞에 모아잡고 가슴노리까지 머리를 숙여 인사를 표했다.
《반갑소이다. 우리 금나수는 인재들이 귀한곳이라 훌륭한 교련감이라니 기쁨을 금할수 없소이다.》
늙은 무장이 얼굴에 미소를 짓고 기쁨을 표했다.
《좌상어른, 말만 하고있겠소이까. 먼길에 배가 몹시 출출하오니 음식부터 먼저 대접함이 례의가 아니오이까.》
우마가 웃으며 일깨우자 늙은 무장은 서둘러 집안으로 사라졌다.
《자ㅡ》

우마는 나리에게 권하며 대문안으로 들어섰다. 마당은 넓었고 작은 문들이 달린 방들이 있었는데 우마는 그중 가운데문을 열고 선뜻 안으로 들어섰다.

방 한복판에는 통나무를 쪼개여 정교하게 다듬어만든 긴 탁자가 있고 그 주위에는 한뽐 반쯤 되는 통나무를 세뽐높이로 잘라 정교하게 다듬어서 탁자 량옆으로 주런이 세워놓았다.

그것들보다 조금 더 큰 통나무걸상이 탁자 한끝에 좀 떨어져 놓여있는데 우마가 거기에 가앉았다.

그러자 네명의 부하들이 량옆에 갈라져 앉았다.

《나리아씨, 거기에 앉소이다.》

불쑥 우마가 례법을 쓰며 나리에게 자리를 가리켰다.

나리는 조심스럽게 앉아 어리둥절한 눈길로 방안을 눈여겨보았다.

두목들이 일을 의논할 때 쓰는 방인듯싶은데 벽은 봇나무껍질을 벗겨 정교하게 붙여 향긋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었다.

한쪽 벽에는 참대창과 쇠창, 과, 도끼, 올가미, 방패들이 걸려있고 한쪽 벽에는 철편들이 번쩍이는 갑옷 다섯벌이 걸려있었다.

아마도 노예군두목들이 출전할 때 갖추는 장구들인가싶었다.

《여기에 우리 노예군 두목들이 모두 모였는데 내 나리아씨에게 소개하겠소이다. 처음에 앉은 무장은 좌두목 날승이라 하오이다.》

날승이 일어나 머리를 숙여보이자 나리도 황급히 일어나 마주 머리를 숙였다.

《그 다음 앉은 무장이 우두목 구두막이옵고 마주앉은 이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도풀이와 엿보기명수 돌치오이다.》

나리는 소개되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 이렇게 모였으니 내 좌중에 통할 말이 있소. 나는 나리아씨를 교련감으로 내세우고싶은데 의견들은 어떠한지?》

부두목들에게 묻는 우마의 목소리는 엄엄하였다.

《우리는 모두 두목님의 의사를 따르겠소이다.》

나이가 제일 많은 날승이 모두를 대표하여 시원스레 아뢰였다.

그러자 나머지 부두목도 그것이 옳다고 호응해나섰다.

《그럼 나리아씨의 생각은 어떠하오이까?》

우마가 머리를 숙이고 앉은 나리에게 물었다.

《너무도 엄하여 무엇이라 표현할지 모르겠소이다. 침방깊숙이 숨어

살던 나인이 어찌 중임을 맡을수 있겠는지 자신이 없소이다.》
그 소리에 우마가 즐겁게 웃음을 터치였다.
부두목들도 허물없이 따라 웃었다.
나리는 얼굴을 구운 가재처럼 붉히며 어쩔줄을 몰랐다.
사내들속에 섞여보지 못하던 몸이 드세찬 무장들속에 섞여 대사를 의논하니 겁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 더구나 장수같은 사나이들이 호탕한 웃음까지 터치니 부끄럼타는 나인의 본능이 살아나 나리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자세였다.
《나리아씨, 아니 이제는 교련두목이라 부르겠소이다. 교련두목의 뛰여난 무술솜씨를 우리는 이미 목격한지라 그 재주를 우리 부하들에게 가르쳐주면 하나같이 용맹한 무사가 될것인즉 힘써주길 바랄뿐이오이다.》
우마가 간절히 말했다.
《그래주오이다. 그래주오이다.》
부두목들이 진정을 담아 권하였다.
주저하던 나리도 용맹한 사나이들의 진정한 부탁을 받고나니 온몸에 힘이 부쩍 솟구쳐올랐다.
《믿어주시니 고맙소이다. 나인의 미약한 힘이오나 보탬이 된다면 힘껏 행해 보겠소이다.》
나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목과 부두목들에게 차례로 머리숙여 례를 표했다.
《그러면 저녁에 모두가 모인 마당에서 알리겠노라.》
우마가 위엄을 갖추며 선포하였다.
두목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문이 열리며 좌상무장이 들어섰다.
《제가 보잘것 없는 음식상이나마 차렸으니 어서들 가시오이다.》
즐거움에 흥이 뜬 좌상이 두목과 부두목들을 휘동해가지고 앞랑하를 지나 끝방으로 갔다.
문을 여니 구수한 고기 삶은 내가 졸아든 창자들을 못견디게 자극했다.
《자, 어서들 들어와 앉소이다.》
좌상이 두목들을 상앞으로 안내하며 흥이 나 떠들어댔다.
《여기 이 메돼지고기는 우리 노예군들이 먼길에 돌아오는 두령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것이고 이 사슴고기는 포수로인이 이틀 품놓아 잡

은것이고 이 토끼와 꿩고기들은 읍락의 젊은 애들이 잡아온것이오이다. 이 갖가지 파일과 새(남새)들은 금나수나인들이 준비한것이오이다. 그런줄 아시고 마음껏 드시기 바라오이다.》
좌상의 말이 끝나자 각자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바리에 독한 술이 철철 넘쳐나게 부어졌다.
《자, 오늘 우리 교련두목을 맞이한 기쁨을 이 술잔에 담아 마음껏 즐깁시다. 하하…》
우마가 호탕하게 껄껄 웃으며 만족하게 좌중을 돌아보더니 한되가 실히 되는 바리의 술을 단숨에 꿀꺽꿀꺽 들이키고는 입귀를 손바닥으로 흡족하게 문질렀다.
부두목들도 모두 바리를 들어 잔을 비웠다.
다만 교련두목만 앞에 술대접을 덩실하게 놓고 당황하여 어쩔줄을 몰라했다.
나인들도 술을 먹지만 나리는 술과는 인연이 없어 마셔본적이 없었다.
《교련두목, 이제부터 대장부행세할 두목이 술 한바리 없애지 못하면 무슨 힘으로 벌찬 노예들을 다루겠소이까.》
너덜거리기 좋아하는 구두막이 비여버린 자기의 바리에 술을 부으며 시까슬러댔다.
《교련두목, 마셔보오이다. 처음엔 쓰지만 세상에 그처럼 단것이 없을줄 아오이다. 먹어 죽지 않는 쓴 물이오니 눈을 감고 넘겨보사이다.》
날승이 눈을 슴뻑이며 독촉했다.
《그 말이 옳소이다. 교련두목이 술 한바리 없애지 못하는 졸장부라면 그 뉘가 무술을 배우려 하겠소이까.》
돌치가 날승의 말에 덩달아 끼여들었다.
밸이 녹녹치 않은 나리는 자존심이 상했다.
사내이노라 으시대는 부두목들에게 자기의 본때를 보여주고싶은 허영심이 속에서 꿈틀거렸다.
(먹어 죽지 않는 쓴 물이라니 목구멍 넘어갈 때 좀 참자. 설마 잘못되기야 하랴.)
교련두목은 술바리를 번쩍 쳐들어올렸다.
부두목들이 눈이 둥그래 교련두목을 긴장하게 바라보았다.
(네 아무리 담이 큰 나인이라 한들 그 한바리술을 어찌 다 마시랴.)
나리는 저도 모르게 방긋이 웃더니 눈을 꾹 감고 술바리를 기울이

였다.
독한 술이 좁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꿀꺽 들렸다. 교련두목은 한번도 바리를 입에서 떼지 않고 단숨에 쭉 마셔버렸다.
와— 환성이 터지며 부두목들은 저마끔 좋은 안주를 골라 교련두목앞에 놓아주었다.
교련두목은 아무일 없는듯 기름진 안주들을 태연히 집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우마가 입을 다문채 씰룩씰룩 웃음을 참았다.
한편 부두목들은 우마가 교련두목으로 인재를 잘 골라왔다고 탄복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두축도 못돌아가 교련두목의 목이 뼈없는 사람처럼 방향을 못잡고 건들거리기 시작했다.
처음 당황해난것은 도풀이였다. 일이 이쯤되면 나인의 시중은 자기가 다 들어야 한다.
시중은 시중이고 이제 집앞으로 모여올 수천의 노예군앞에 어떻게 이 모양으로 내세운단말인가.
이제 이 모양으로 쓰러지면 저녁시간까지도 일으켜세우지 못할것 같았다.
눈이 둥그래진 부두목들이 문어다리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는 교련두목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좌상어른, 빨리 교련두목을 침방에 모시오이다. 빨리 그래주오이다.》
급해맞은 우마가 좌상무장을 다그어댔다.
부두목들은 장난이 너무 지나쳤다는 때늦은 후회를 했다.
좌상무장이 얼굴이 백지장같이 창백해져 정신을 못차리는 교련두목을 부축해가지고 침방으로 갔다.
저녁시간이 가까와오자 우마의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해났다. 이미 새 교련두목을 소개하겠노라 령까지 띄운지라 일이 끝나면 노예군들이 밀물처럼 모여들것인즉 이 일을 어찌 수습하랴싶었다.
벌써 대장부도 아닌 나인교련두목이 왔다는 소문이 비둘기날개처럼 온 금나수일판을 날고돌아가 노예군들의 호기심을 잔뜩 사놓았는데 교련두목이 나서지 못하면 그 호기심이 가득찬 노예군들의 소박한 마음을 어찌 달랠수 있단말이냐.
어느덧 해가 서산에 걸려 저녁시간이 가까와오자 여기저기에서 노예군

들이 농쟁기들을 무장으로 바꾸고 지휘옥앞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좌상어른, 교련두목이 어찌되였는지 알아봐주오이다. 우리 장난이 너무 지나쳤나 보오이다.》
우마가 속에 불이 달려 근심했다.
《두목어른, 너무 근심마오이다. 내 교련두목을 노예군들앞에 내세울테니 두고보사이다.》
좌상무장이 벙글벙글 웃으며 나리의 침방으로 갔다.
나리의 침방으로 간 좌상무장은 깜짝 놀랐다.
코고는 소리가 문창을 드렁드렁 울리는데 교련두목이 사내들처럼 네활개를 활 펴고 세상모르게 자고있었다.
보기에는 아련하게 곱고 마음도 노긋노긋해 보이는데 사내 찜쪄 먹는 대활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잠시 망설이고서있던 좌상무장은 교련두목에게 다가가 조심히 불러보았다.
아무 기색도 변함도 없었다.
좌상무장은 교련두목의 팔을 조심히 흔들어댔다.
끙— 소리를 지르며 돌아눕던 교련두목이 주저앉았던 개구리가 튀여나듯 벌떡 몸을 일으켰다.
순간 눈이 둥그래진 교련두목은 눈을 부비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좌상무장에게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가고 물었다.
《교련두목어른, 여기는 침방이온데 두목어른은 취했소이다.》
그때에야 모든것이 리해되는지 교련두목은 열적은 웃음을 지으며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지금은 저녁이온데 노예군이 모여오고있소이다. 빨리 나가실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소이다. 이건 갈아입으실 무장복과 투구, 방패와 창이오이다.》
좌상무장은 한쪽 탁자우에 개여놓은 갑옷과 벽에 걸쳐놓은 창을 가리켜보였다.
《알겠소이다. 곧 차비하고 나가겠소이다.》
좌상무장이 나가자 나리는 또다시 침상에 어푸러져 코를 골았다.
좌상무장이 세번씩이나 들어가 독촉을 해서야 교련두목은 겨우 복장을 갖추고 노예군앞에 나섰다.
지휘옥앞마당에 끝없이 늘어선 노예군들의 머리우로 창과 투구들이 번

쩍거리고 울긋울긋한 의장기들이 물결처럼 펄럭이고있는데 그 위용이 놀랄만했다.

정신이 번쩍 든 교련두목은 어느새 술기운이 말짱히 깨여 눈앞이 밝아졌다.

꿈속에서처럼 어렴풋하던 노예군의 대렬이 눈앞에 새겨지듯 안겨왔다.

동경과 믿음에 찬 노예들의 눈길이 일시에 나인두목인 나리에게 쏠렸다.

노예들의 대오앞에 우뚝 솟아있는 높은 단에 올라선 우마가 새로 맞이한 교련두목을 소개하며 앞에 내세웠다.

나리가 손에 든 창을 높이 쳐들고 세번 흔들어댔다.

노예군들의 창이 일제히 하늘로 뻗쳐오르며 함성이 터져올랐다.

그 함성은 어찌나 우렁찼던지 지휘옥의 창문을 쩌렁쩌렁 뒤흔들고 금나수의 무연한 초원과 원시림속으로 우뢰가 되여 메아리쳐갔다.

나리의 가슴은 갑자기 억센 기둥을 박은듯 든든해졌고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숭엄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저 대오면 이 세상에 못당해낼것이 없을듯싶었다. 노예군들과 인사를 나눈 교련두목 나리가 방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함성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였다.

3

고느적한 달빛이 흐르는 나스마초원으로 황부루 한마리가 무거운 걸음을 뚜벅거리며 가고있었다.

황부루우에는 왕검성의 성주 성기대장군이 앉아있었다. 마치 소풍이나 하는듯 갑옷도 투구도 걸치지 않은 단출한 차림새다.

머지 않아 그는 노예폭동군이 틀고앉은 금나수로 들어가야 한다. 아슬아슬한 대결을 앞두고 착잡한 상념속에 모대기던 성기는 번거로운 심뇌를 달랠길 없어 이 밤 홀로 말을 몰고 들판에 나온것이였다.

막상 사납고 조폭하기 이를데 없는 노예의 무리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껏 긴장해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참의 무리가 바라듯이 노예군속에 갔다가 사자무리속에 든 가련한

사슴마냥 산산이 각이 뜯기우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것이 아닌지. 아니면 무지한 노예군의 인질로 잡혀 무시무시한 금나수의 옥창속에 갇히우게 될지도 모른다.
성기대장군은 번거로운 생각을 털어버리려는듯 황부루에 박차를 가했다.
한가히 걸음을 옮기던 황부루가 흠칫 몸을 떨더니 네굽을 놓아 초원을 달리기 시작했다.
달빛이 쏟아지는 둔덕우에 두억시니같이 거대하고 시꺼먼 형체 두개가 우뚝 일어서있었다.
2천여년전에 단군조상들이 세워놓은 고인돌과 선돌이였다.
세월은 년년이 거대한 고인돌과 선돌우에 해묵은 이끼를 덮으며 흘러왔다.
무한대한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단군성왕님이 이룩한 나라성업의 성스러운 기개를 떨치려는듯 예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 장엄하게 서있는 고인돌과 선돌!
성기대장군은 저도모르게 숭엄해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단군성왕님의 성업이래 년년이 강성해온 성스러운 이 나라.
동방일각에 그처럼 자랑떨친 강대한 조선의 3천년사직이 파연 지금에 와서 무너져야 한단말인가!
성기대장군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나라의 충신들이 아직도 숨을 쉬고있는데 어찌 그것이 당할 소리냐!
성기대장군은 서서히 머리를 들어 하늘을 치받고선 거대한 선돌을 바라보았다.
수천년 단군조선의 위엄을 안고 면면이 서있는 이끼덮인 세월의 증견자 선돌은 엄엄히 자태를 돋구며 성기를 꾸짖는것만 같았다.
(너는 나라의 대장군일진대 나라가 경각에 이른 이 시각에 어찌 자신의 위험만 생각하느냐. 나라위해 한목숨 바치는게 장군이고 대장부가 아니더냐!)
성기대장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노예군과의 제휴는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출로의 하나일진대 너는 어찌하여 노예무리속에 드는것을 그리도 주저하느냐. 나라가 없이 성기의 목숨이 그 무엇에 필요하다더냐!)

성기대장군은 방금전까지 노예군속에 들기를 저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도 대장군이라 관모에 관복을 떨쳐입었다는 내가…

내 지체없이 금나수에 들어가 기어이 제휴를 이룩하리라!

황부루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걸음을 늦춰 주인의 생각을 깨칠세라 조심조심 언덕으로 올랐다.

눈앞에 일망무제한 나스마초원이 펼쳐졌다.

눈길이 모자라게 뻗어간 초원에선 한창 달맞이꽃철이라 그윽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꿈속인듯 달빛속으로 초원 한끝이 무르녹아 아득하게 보였다.

파연 나스마초원의 한끝은 어디런지!

성기대장군은 머리를 들고 그 무엇을 찾으려는듯 초원 한끝을 바라보았다.

아득히 드러난 어렴풋한 언덕우에 바위처럼 솟은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옳지, 저기가 소스나언덕이구나!)

아득한 추억의 정회가 뭉클하니 가슴을 때리며 걷잡을수 없는 아픔이 온몸을 휩쌌다.

잊을수 없는 피의 소스나언덕, 그 언덕밑에 성기대장군의 향촌 나부루국읍이 있다. 성기대장군의 소년시절은 나부루 국읍에서 흘러갔다.

니계지방 나부루의 제일가는 권력자이며 대노예주인 마웅가와 그의 아들 참의 가병으로부터 성기의 곡절많은 운명이 시작되였던것이다.

성기대장군은 바로 여기 소스나언덕에서 노예감독인 우마를 알게 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일약 나라의 대신, 대장군, 성주가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우마가 또한 노예무리의 대두목이 되여 온 나라 일판을 들었다놓고 노예주들을 그처럼 불안과 공포의 폭풍속에 휘몰아넣는 무서운 존재로 군림할줄은 상상도 못했다.

얼마를 달렸는지, 시간은 또 얼마나 흘렀는지.!

온밤 초원우를 누비던 보름달도 그만 지쳐 초원 한끝에 매달렸는데 거침없이 달리던 황부루가 갑자기 놀란듯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무시무시한 고함소리를 지르며 울어댔다.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던 성기대장군이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하늘을 가리운듯 우뚝 솟은 검은 형체가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던지며 앞길을 콱 막고 서있었다.

성기대장군은 부르르 몸을 떨며 요동치는 황부루의 고삐를 틀어잡았다.

소스나의 고인돌… 어느새 소스나언덕에 이르렀던가.

여기까지 흘러온 길이 꿈같이만 느껴졌다.

문뜩 소스나언덕밑으로 달빛에 잠긴 나부루 국읍의 정겨운 모습이 눈길을 쿡 질렀다.

(얼마나 그리운 향촌이였던가!)

땅이 비옥하고 산수 아름다와 머나먼 예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읍락을 이루고 국읍을 펼치며 번성해온 니계지방…

성기대장군은 몸은 천리에 가있다해도 귀중한 향촌을 늘 마음속에 안고살았다. 그래서 어려운 길에 향촌부터 찾았는지 모른다.

황부루에서 내린 성기대장군은 잠시 고인돌앞에 서서 거대한 거부기가 땅을 짓누르고있는듯한 고인돌뚜껑을 바라보았다.

나스마초원의 고인돌처럼 이끼는 덮이지 않았고 세월의 풍상에 고삭지도 않은 고인돌이였다.

고인돌의 시대는 벌써 수천년세월의 갈피속으로 아득히 물러갔건만 어찌하여 이 소스나언덕우에는 고인돌이 우뚝 솟게 됐던가!

이 고인돌밑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운명들이 짓눌려졌던가!

성기대장군은 구슬픈 마음으로 잊을수 없는 소스나언덕에서 흩어지고 죽어버린 불쌍한 인생들을 더듬어보았다.

…

금나수로 가는 성기대장군의 대오는 오직 넷이였다.

앞에 선것은 성기대장군이고 그뒤에 둬보쯤 떨어져 따라오는것은 우군대장이다. 우군대장과 나란히 선것은 좌군대장이고 성기의 말고삐를 잡은것은 시종이였다.

지금 뚜벅뚜벅— 평보로 수림길을 걸어가는 성기대장군의 심중은 복잡했다.

무엇보다 가늠할수 없는것은 금나수에 진을 친 노예군두목이 자기네 행렬을 어떻게 맞아주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우마는 소스나언덕에서 자기때문에 살아난 노예이고 자기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지만 무지한 노예들의 무리속에서 이리의 마음으로 변

한것이 아닐가?
혹은 무지막지한 노예폭동군이 성난 벌떼처럼 달려들어 두목에게 가닿기전에 각을 뜯어내지나 않을가.
나라 위해 나선 몸이니 죽는것은 별로 두려울것이 있으랴만서도 오만가지 생각이 철벽같은 가슴을 야금야금 헐어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앞에는 원한으로 가득찬 노예반란자들이 이를 갈고있다면 뒤에서는 궁성의 간신들이 성기의 뒤통수를 치려고 기회만 노리고들 있는것이다.
궁성것들의 반발이 어찌나 검질기였던지 우거왕도 노예군을 항전에 인입시키는 문제를 끝내 평의회에서 결정짓지 못한채 이렇게 성기를 금나수에 은밀히 파하는 길을 택하고말았던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군사행동이니만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숨은 의도도 깔려있었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놓을수 없었던지 우거왕도 떠나기에 앞서 성기에게 1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라고 이르는것이였다.
했으나 성기는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신변은 담보될지 몰라도 비밀을 엄수할수 없고 더우기 그 많은 병력앞에서 놀란 노예들이 적의를 품고 대항해 나오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였던것이다.
성기는 결코 그들을 놀래우고싶지 않았다.
오히려 단출한 행렬로 가서 그들과 진심을 터놓고싶었던것이다.
성기일행은 하루반만에 금나수지경에 이르게 되였다.
때는 늦은 아침무렵이였다.
성기의 일행이 두그루의 자작나무가 서있는 흔들레판어구에 이르자 노예군의 파수 셋이 창을 겨누고 맞받아나왔다.
《어디서 오는 손인지 아뢰일지어라.》
좀 우직해보이는 파수장이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성기일행이 보통 하호들의 차림으로 떠나온지라 무리에 들기를 원하여 매일과 같이 찾아오는 천민들중의 한 무리로 짐작하고 더욱 허세를 부려댔다.
《우리는 왕검성에서 왔소. 당신들의 두목을 만나려 하니 알려주기 바라오.》
일행중 하나가 되도록 어성을 낮추며 말했다.

그러자 파수장이 다시 목청을 돋군다.

《왕검성이구 뭐구 어서 이름부터 대지 못할가!》

성기가 한걸음 나서며 위엄있게 말했다.

《나는 대장군 성기이다. 두목을 만나러 왔으니 어서 알려라.》

파수장은 눈이 휘둥그래 성기를 우아래로 훑어보더니 곁에 있는 부하에게 귀속말로 뭔가 수군거렸다.

부하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한가로이 풀을 뜯고있는 하늘소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사라지는것이였다.

성기의 가슴이 갑자기 울렁거리며 심장이 불안스럽게 뛰였다.

뜻하지 않은 노예폭동군의 반격에 무주고혼이 될수도 있는 그 처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처럼 기대를 가지는 노예폭동군과의 련합이 이루어지지 못할가봐 두려워서였다.

노예폭동군과의 련합이 못되면 보라는듯이 참이나 왕협따위들이 쾌재를 부를것은 물론이거니와 적을 막는 나라방비군의 힘이 그만큼 딸리게 된다.

힘의 딸림은 곧 성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며 왕검성이 하루아침에 오랑캐들의 아가리에 처박히는 비극을 낳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성기대장군은 가슴이 선뜩하며 등골에 땀발이 내돋았다.

(그리 될수는 없는지라. 내 한몸 열백번 죽는다 해도 노예폭동군과의 련합을 이룩해야 한다.

그들도 단군의 피줄을 나눈 고조선의 백성들이거늘 어찌 자기 조상의 땅을 침노하는 적들을 그저 보고만 있을소냐. 노예들의 심금을 뒤흔든다면 어찌 일이 성사되지 않으리.)

성기대장군은 이런 신심으로 불안해지는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나갔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진펄길의 새초무지뒤로 파하마의 다기찬 형체가 언뜻 나타났다. 그것은 잠간, 키높이 자란 새초들이 그들을 가리워버렸다. 성기의 일행은 긴장하여 숨을 죽였다.

파하마가 잡관목 우거진 굽인돌이를 돌아서자 말에 탄 사나이의 모습이 뚜렷이 비쳐왔다.

그뒤로 대장부들이 탄 다섯마리의 날랜 말들이 늘어서고 맨뒤에 련락파수의 하늘소가 달랑거리며 뒤따랐다.

(저건 무슨 무리이기에 저렇게 위세 당당히 오는것일가. 두목의 령을 날라오자면 하늘소의 파수병이면 족할터인데 무장을 갖춘 저 대장부의 무리는 무엇때문에…)

성기대장군은 갑자기 긴장되였다. 변변한 무장도 갖추지 않은 세명의 일행이 어마어마하게 무장을 갖춘 다섯명의 대장부들과 맞서기에는 너무도 힘에 부친 일일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것인가.

우리를 징벌하러 오는 무리들이 틀림없다면…

성기대장군이 궁리를 하고있는데 어느덧 수렁길을 빠져나온 다섯일행이 어마어마하게 앞에 버티고 섰다.

가슴을 조이는 긴장한 순간 파하마에 탄 우람찬 사나이가 성기대장군을 내려다보며 위엄있게 물었다.

《내가 두목이요. 무슨 일로 나를 만나자는거요?》

성기대장군은 두목을 망연히 쳐다보았다.

우람찬 체구, 청동빛의 얼굴에 우뚝 솟은 코날, 거치른 눈빛… 비록 흐르는 세월속에 구레나룻이 돋고 눈가에 주름살이 잡혀가도 성기가 우마를 모를리 없다.

소스나언덕에서 벼락맞은 대노예주 마웅가를 묻을 때 악착한 참이 채찍으로 우마의 어린 동생 아사리를 사정없이 조기던 피맺힌 모습이 언뜻 머리속으로 스쳐지났다.

우마도 성기를 모를리 없었다.

(성기가 여기에 나타날건 무어람. 나는 성기에게 은혜를 입은바 있다. 허나 그는 지금 궁성의 관리이며 대장군이다. 니계상 참의 가병때의 인정 헤픈 그런 사나이가 아니다. 모름지기 나를 구슬리러 왔을것이다.)

우마는 한껏 마음이 긴장해졌다.

《이 무엄한놈들, 어찌 대장군께 인사를 드리지 않는고?》

우군대장이 노호하는 자류마의 고삐를 틀어쥐며 엄하게 질책했다.

《어찌 우리 선돌장군을 업수이 보려 하오. 우리는 만인의 의사를 담아 우마두목을 선돌장군으로 칭양했소. 례의를 지켜주기 바라오.》

우마측에서 구두막부두목이 엄하게 그루를 박았다.

성기측 대장들이 머리를 쳐들며 앙천대소했다.

그바람에 군마들이 놀라 훌쩍 그 자리에 뛰여오르며 두귀를 쫑긋거렸다.

《무엄할지고. 어찌 나라의 명망 높은 어르신앞에 그따위 망발을 함부로 하느뇨.》

좌군대장이 우로 치째진 호랑이눈을 부라리며 호령했다.

《그건 너무도 건방진 수작이다. 너희들은 우리 노예들을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인간백정 주인놈들인즉 우리의 칼을 받아 마땅한줄 아노라.》

구두막이 분노한 얼굴을 거연히 쳐들고 꾸짖었다.

《뭐라구?! 이 무지막지한 노예망종들아.》

우군대장이 참다못해 칼을 뽑아들며 험악한 행세로 한걸음 나섰다.

《아, 그만들하오.》

그때까지 지그시 눈을 감고있던 선돌장군이 손을 내들었다.

《그러지들 마오. 성기대장군이 뜻이 있어 우리 금나수에 왔은즉 찾아온 손을 그리 대하는 례법이 없노라. 대장군, 우리 안으로 들어가 토의해 보시오이다.》

선돌장군이 의외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팽팽히 날이 섰던 분위기가 풀리자 우군대장도 뽑아들었던 칼을 칼집에 꽂았다.

《까짓것, 그렇다면 대장군이요 뭐요 하는 거치장스러운 허울들은 벗어버리고 우리 서로 구면친구로 대함이 어떠한지?…》

성기대장군이 대범스러운 미소를 띠우며 손을 내들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소이까. 당신들에게는 나와 나의 부하들이 한갖 무지렁이요, 우리한테는 당신들이 포악무도한 짐승무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마, 길도 제 각기 제 길이요, 사람도 사람나름이니 당신과 내가 어찌 친구가 될수 없단말이요?》

그 말에는 우마도 어쩔수 없었다. 우마로 말하면 성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더우기 성기의 사람됨을 잘 아는 우마라 성기의 진실하고 호방한 사람됨에 끌려들지 않을수 없었다.

《자, 그럼 우리의 금나수로 들어 말을 해봅시다.》

우마도 사나이답게 씨원히 대꾸했다.

선돌장군의 선의에 놀란것은 부하들이였다.

노예군을 전멸하지 못해 안달아하는 관군에게, 그것도 나라의 군력을 통솔하는 대장군을 금나수로 끌어들인다는것은 스스로 범의 아가리

에 맨 몸뚱이를 내맡기는 우둔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날승이 선돌장군의 앞을 막아섰다.
《장군, 다시 생각해봄이 어떠하오. 의논은 여기서도 충분한데 부디 금나수에까지 들 필요가 있겠소이까.》
선돌장군의 얼굴에는 엄한 기색이 떠올랐다.
《부두목의 말을 충분히 알겠소. 허나 우리를 찾아 먼길 온 사람을 어찌 문밖에서 맞으리오. 자, 말을 갈아타야겠소.》
우마는 사람을 시켜 길잡이말을 끌어오게 하였다.
길잡이말만이 금나수로 들어가는 길목을 알수 있었다. 아차 실수하면 수렁속에 빠져 다시는 헤여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만다.
성기대장군과 우, 좌군대장들이 선돌장군이 내주는 말에 옮겨탔다.
성기일행을 태운 말들이 위태로운 흔들레판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해나갔다.
이윽하여 일행은 금나수수림가에 이르렀다.
골짜기멀리로 선돌장군의 지휘옥이 바라보였다.
성기대장군은 금나수로 들어갈수록 눈이 점점 더 커졌다.
성기대장군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것은 신비롭기만 했다.
길가에 나타난 집들만 보아도 놀라왔다. 초막집도 보였지만 뽀얀 닭알빛 회벽에 동기와를 이은 집들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 왕검성에도 그런 훌륭한 집을 꼽으라면 몇손가락안에 꼽을 정도였다. 그앞으로 규모있게 일구어놓은 밭들이며 노예군들의 교련장, 놋부리터며 쇠부리터들, 옹기구이터들을 보면 이곳이 다른 세상이 아닌가 착각이 일어날 정도였다.
이 세상에서 한갖 무지렁이로밖에 취급되지 않는 노예들이 모여 이처럼 훌륭한것들을 만들어 금나수에 별세상을 꾸려놓은것이다.
대노예주나 관리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는 그런 훌륭한 힘, 이 세상의 모든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비한 힘을 느낀 성기대장군은 가슴이 뿌듯해오며 무엇인가 이름할수 없는 위압감에 가슴이 뻐근해왔다.
(바로 이 힘을 믿어야 한다. 치부와 권세, 탐욕밖에 모르는 귀족들을 믿다가는 망국의 길밖에 더 차례질게 없다. 노예군을 믿자. 그 길에 나라를 구하는 진정한 힘이 있는게 아닐가?!)
《대장군, 들어갑시다.》
어느덧 지휘옥앞에 이른 선돌장군이 성기대장군을 옥안으로 안내

했다.
일행은 앞문을 지나 내실 안측에 있는 선돌장군의 방으로 들어갔다.
성기측 셋과 우마측 다섯이 마주앉자 대장군이 례의대로 자기 일행을 소개했다.
《나의 우측에 앉은 이가 우군대장 우고이고 좌측에 앉은 이가 좌군대장 부곡수오이다.》
성기대장군의 자기측 소개가 끝나자 선돌장군이 자기 일행을 소개했다.
《처음 앉은것이 나의 부두목 날승이고 다음은 부두목 구두막, 그다음은 나의 일사(장군의 일을 받쳐주는 대장격의 군사) 도풀이와 돌치이고 또 한명의 나인부두목이 있는데 지금 교련이 바빠 나오지 못했소이다.》
서로의 소개가 끝나자 방안에는 엄엄하고 긴장한 분위기가 흘러갔다.
잠시후 성기대장군이 침묵을 깨쳤다.
《지금 나라의 지경이 심히 위태롭게 되였소이다. 포악무도한 오랑캐들이 새에 군사를 집결하고있은즉 큰 싸움을 하게 됐소이다.》
선돌장군이 푸— 하고 한숨을 내그었다.
선돌장군의 부하들도 한껏 긴장해졌다.
성기대장군은 좌중의 분위기를 둘러보고 말을 이었다.
《나라의 존재가 위태롭게 되였은즉 일국의 대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것은 결코 구걸을 위한것이 아니오이다. 위세를 보이기 위함은 더욱 아니라 그대들도 나라구함에 힘을 합쳐줬으면 해서…》
성기대장군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날승이 퍼렇게 승이 살아 웨치다싶이 입을 열었다.
《도대체 나라란 무슨 나라요. 당신들에게는 나라가 있을지 모르오나 우리 노예들에게는 나라가 없소. 그러니 그런 망발을 걷어치우길 바라오.》
그러자 우군대장이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는 당장 칼을 뽑아 칼부림을 할 자세였다.
《무엄할지고, 대장군어른께 감히… 어따대고 함부로!》
우군대장은 너무 격해 말을 꺽꺽 먹었다.
《대장, 앉으시오. 여긴 우리 금나수라는걸 잊지 말기 바라오. 당신네 같은 포악무도한 즘생무리는 단칼에 베여죽일수 있소.》

구두막이 눈알을 부라리며 우군대장을 쏘아보았다.

《아, 이러지들 마오이다. 우린 칼부림이 아니라 서로 화합을 위해 온것이니 서로 자중하길 바라오.》

성기대장군이 온화하고 여유있는 목소리로 제지시키고 말을 이었다.

《어찌 노예라고 나라가 없겠소이까. 우리는 이 나라 강토에서 태여난 한피줄이며 단군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몸에 흐르고있고 우리는 너나없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니 사사로운 원한을 버리고 나라의 운명부터 생각해야 할거라 생각하오이다.》

머리를 숙이고 혼자 분을 삭이고있던 날승이 용케 격한 마음을 짓누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장군말이 옳소이다. 허나 그것을 아는 당신들이 한겨레인 우리 노예들을 즘생보다 더 악착하게 피를 짜내고있소이다. 그런 악한들이 감히 단군이요, 나라요 지껄일 낯짝이 있소이까. 우리는 당신들에게 뜯기우나 오랑캐의 발굽에 짓밟히나 매한가지인데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라 어찌 당신들과 뜻을 같이할수 있소이까.》

날승의 말에 동감인듯 선돌장군이 노호한 눈길을 들어 묻듯이 성기대장군을 바라보았다.

성기는 긴장된 눈길로 사위를 둘러보았다.

분위기가 험악하여 서리발이 날리는듯했다.

조금만 더 지속되면 칼부림이 일듯했다.

침착성을 잃지 않은 성기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자리에서 서로의 옳고그름을 따짐은 스스로 제 칼로 제 목숨을 끊는 행위와 같소이다. 우리가 일떠서지 않으면 오랑캐의 무지한 칼에 강토가 피에 물들고 단군겨레의 숨통이 오랑캐의 더러운 발밑에 짓밟혀 끝장이 나거늘, 이 나라에 생을 둔 사람치고 누가 그걸 바라리오.》

좌중을 휘둘러보는 성기의 두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튕기는듯했다.

이에 돌치가 호응하듯 입을 열었다.

《노예가 짓밟혀죽기는 마찬가지오나 오랑캐의 더러운 칼에 맞아죽기는 싫소이다. 죽어도 오랑캐와 맞서다 죽겠소이다.》

성기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옳게 말했소이다. 아무렴 숨을 쉬면서야 우리 어찌 앉아서 더러운 오랑캐의 칼에 죽겠소. 서로 귀천의 차이를 넘어 나라의 지경을 넘는 원쑤부터 치고보아야 할게 아니겠소이까.》

좌중이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그때까지 한마디 없던 선돌장군이 괴로운듯 신음을 지르며 한숨을 내톺았다.

성기대장군의 말이 옳다. 마음 같아서는 주인놈들과 결별하자는 부하들의 의사를 따르고싶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우마였다.

그게 무엇일가?

노예이든 주인이든 이 강토에 태를 묻은 단군의 후손임이 틀림없다. 하다면 그의 후손들이 단군의 산하가 칠성판에 오른 이 시각 서로 악의를 품고 동족상쟁으로 칼에 피를 묻히겠는가.

그리하여 온 겨레가 오랑캐의 발톱밑에 노예마냥 굴욕을 당하며 짓밟혀야 한단말인가. 아니, 절대로 그리 되여서는 아니된다.

귀가에는 단군겨레의 후손임을 망각하지 말라고 안타까이 부르짖는 성기대장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인가 알지 못할 불덩이가 우마의 가슴속에서 꿈틀거려 더 참을수 없게 했다.

선돌장군이 큰 주먹을 들어 무릎을 꽝 내리치며 얼굴을 들었다.

승이 나서 떠들어대던 부하들이 일시에 얼어들어 멍한 눈길로 노호한 선돌장군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주인놈들과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몸들이다. 허나 오랑캐의 발밑에서 죽을 무지렁이는 더욱 아니어니 우선 오랑캐를 짓부셔야겠다. 내 생각이 어떠한가?》

《그게 옳소이다.》

성기측과 우마측의 부하들이 쌍수 들어 선돌장군의 의사를 지지해 나섰다.

선돌장군이 입을 꾹 다물고 앉아있는 성기대장군에게 눈길을 돌렸다.

《대장군, 비록 원한은 하늘에 사무치건만 우리 역시 이 땅에 태를 묻고 이 땅에서 보금자리를 찾으려 하는 무리임은 분명하오. 하거늘 이 강토가 외적의 칼부림에 도륙당하는걸 어찌 가만히 구경만 할수가 있소이까. 우리 서로의 원한은 뒤로 미루고 거룩하신 단군성왕님의 후손들로서 대범하게 손을 잡음이 어떻소이까.》

《선돌장군, 정녕 신분은 미천해도 그대는 대장부요!》

성기가 감동에 겨워 거듭 찬사를 터뜨렸다.

《그대는 파시 장군임이 틀림없소이다.》

《와하하…》
갑자기 방안을 뒤흔드는 우마의 호방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쌍방의 부하들이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비석처럼 굳어져 눈만 희번뜩거렸다.
《내 부하들이 반대만 안한다면 나는 장군과 손잡고 오랑캐를 치겠소이다.》
《그대의 말이 옳소. 오랑캐를 칩시다.》
쌍방의 부하들이 환성을 지르며 두 장군의 의사를 지지해나섰다.
《자, 그럼 지체없이 대장군께서 책략을 내놓으시오이다.》
이제는 선돌장군측에서 먼저 서둘렀다.
성기는 침착하게 생각을 더듬다가 심중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 오랑캐가 새에 집결을 끝내고 왕검성을 냅다 칠 자세요. 허나 관군의 수자가 모자라 오랑캐를 막기에는 힘이 진하오. 그래서 노예군이 서쪽새에서 빠져나오는 오랑캐를 막아주오. 그새 우리는 왕검성 가까이로 들어오는 오랑캐를 치겠소. 그러니 노예군이 서쪽새에서 빠져나오는 오랑캐를 친다는것은 아무도 몰라야 하오. 만약 이 비밀이 새여나가면 오랑캐들이 미리 방비를 할것이니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오.》
《걱정마오이다. 우리에게는 잘 준비된 정예부대가 있소이다.
그런것쯤 문제없으니 우리를 굳게 믿소이다.》
선돌장군의 얼굴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피여올랐다.
노예군과의 협동은 생각했던것보다 쉽게 성사되였다.
일을 끝내고 성기대장군패가 자리를 일려 하자 선돌장군이 문에 대고 큰소리로 불렀다.
《여봐라, 좌상어른을 불러라.》
《알겠소이다.》
문가에 창을 들고 지키던 수병이 어디론가 달려갔다.
이윽하여 좌상로인이 선돌장군앞에 와 읍하였다.
《불렀소이까?》
그러던 좌상로인이 성기대장군을 보고 눈이 휘둥그래졌다.
《이거, 옛날 가병장이 아니오니까?》
《아, 선사로군, 참의 집을 뛰쳐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 와있었구려.》
《그렇소이다. 여기 와 사는 기쁨을 찾았소이다.》

성기대장군은 그동안 늙기는 하였으나 선사의 얼굴과 온몸에 더욱더 넘쳐나는 생기를 신비스럽게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금나수 서쪽에 아름다운 노을이 비껴올무렵 성기대장군의 일행은 금나수를 떠났다.
성기대장군일행을 바래주고 선돌장군이 돌아와 지휘옥에 들무렵 교련을 끝내고 돌아온 나리가 눈이 둥그래 좌상어른에게 물었다.
《오늘은 무슨 일이기에 주방에…》
나리는 창자를 자극하는 구수한 고기굽는 냄새가 풍기는 주방쪽을 기웃거렸다.
《성기대장군을 위해 음식을 차리려 했는데 들지 않고 그냥 갔소이다.》
《성기대장군이라니! 그럼…》
나리는 놀라운 의혹에 두눈을 둥실하게 떴다.
《왕검성의 성주이시오이다.》
선사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나리는 깜짝 놀라 허둥거리며 선사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것이 사실이오이까?》
《사실이오이다. 우리와 긴한 이야기를 나누고 갔소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생겼소이까?》
무슨 영문인지 갈피를 잡지 못해 선사가 멍히 서있는데 나리가 번개같이 한쪽에 서있는 말에 뛰여올랐다.
《이랴!》
나리는 말을 사정없이 몰아갔다.
지휘옥으로 들려던 부두목들이 깜짝 놀라 헤덤비며 달려가는 나리의 뒤를 바라보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거참, 이상한 일도 있소이다.》
부두목들은 서로 의혹에 잠겨 중얼거렸다.
땀에 흠뻑 젖어 진펄을 빠져나온 나리가 파수에게 물었다.
《성기대장군이 어데 갔소?》
《떠난지 벌써 한경이 지나갔소이다.》
파수장이 큰 눈을 디룩거리며 얼떠름하게 대답했다.
나리는 말을 정신없이 몰아 맞은켠 등성이로 치달아올랐다.
등성이 아래로는 무연한 운무가 펼쳐졌을뿐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티끌

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성기대장군, 어디 계시오이까. 성－기－》
나리는 입에 손나팔을 해대고 숨이 차게 불렀다.
무정하게 메아리만 되돌아왔다.
말에서 내려선 나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가슴이 갈가리 헤쳐져나가는것 같았다.
얼마나 기나긴 세월 그려보고 또 그려본 님이였던가.
그런데 그 님이 외짝 원앙새처럼 불쑥 날아들었다가 그리도 무정하게 날아가버린단말인가.
안타까움에 태를 치며 울고싶었다.
그 길로 왕검성까지 달려가고싶었다.
무심한 구름들이 혼자서 애달피 우는 나리의 등에 커다란 그림자를 던지며 서서히 흘러갔다.

담판장으로 가는 태자 장황

1

기원전 109년 락엽이 지는 가을 어느날 이른 새벽.
왕검성의 왕궁뜨락으로 말을 탄 파발군사 하나가 급히 뛰여들었다. 고조선 서쪽새로부터 달려온 파발군은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말은 시허연 거품을 부글거리며 코김을 세차게 불었다.
파발군은 당장 숨이 넘어갈듯이 숨을 몰아쉬며 말에서 떨어져내려 뜨락으로부터 편전으로 벌벌 기여올라갔다.
《무슨 일이뇨?!》
아직 날이 일러 정사를 보기전이라 닫겨진 편전밖에서 방비를 서던 시위대장이 깜짝 놀라 버럭 고함을 질렀다.
《파발군 날파리오이다. 큰일났소이다. 임금님을 만나뵙게 하여주사이다. 급한 일을 안고왔소이다.》

파발군이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며 말했다.
급해맞은 시위대장은 그 길로 왕의 침전으로 뛰여들었다.
아직 깊은 잠에 들었던 우거왕은 소스라쳐 일어났다.
《서쪽새에서 파발군이 왔단말이냐? 어서 편전을 열고 대신, 장군들을 불러들여라.》
우거왕은 궁녀들을 부를새도 없이 제손으로 아무렇게나 복장을 하고 편전으로 뛰여나왔다.
달려오는 대신, 장군들의 마교차방울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활짝 열려진 편전으로 성기대장군이 제일먼저 뛰여들었다.
《존귀하신 대왕님께 무슨 일이 생겼소이까?》
성기대장군이 불안스레 물었다.
《서쪽새에서 파발군이 왔노라.》
《?!…》
서쪽새에서 파발군이 새벽에 달려왔으면 불피코 심상찮은 소식이다.
성기대장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이뇨? 아뢰여라.》
우거왕이 옥좌에 몸을 묻으며 편전앞에 엎드린 파발군에게 드디여 령했다.
《대왕님, 오랑캐족속이 새를 넘어 침공을 시작했소이다.》
《뭐라구?!》
우거왕은 대번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 두툼한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오랑캐족속 네놈들이 기어이 이 땅에 발길을 들여놓았구나. 어디 네놈들이…》
성기대장군은 으드득 이를 갈며 우거왕앞에 엎드려 간했다.
《빨리 출전령을 내려주소이다. 한시가 새롭소이다.》
《알겠노라. 온 나라가 출전에 대기하고 나의 령을 기다리게 하라!》
령을 받은 신하들이 말을 타고 전국 사방으로 흩어져 말을 달렸다.
대신들과 장군들이 편전으로 쓸어들었다.
자기 위치로 달려오던 물역대신 아달비가 편전에 그대로 엎드려져 있는 파발군을 눈여겨보더니 대번에 모든 사태를 간파했다.
늘 서쪽새에서 소식을 안고오던 파발군총각을 아달비는 몇번 보아온터이라 얼굴을 알고있었다.
날파리라는 특이한 이름까지 알고있었다.

나이에 비해 몹시 숙성한데다가 코밑에 벌써부터 수염터가 뚜렷이 잡히기 시작한 건장한 사내는 뭇나인들의 눈에도 들만했다.

《파발군 날파리 아닌고?》

우거왕이 장군들을 만나 급히 방비대책을 취하는새에 아달비는 파발군 총각에게 다가서 조용히 물었다.

《그렇소이다. 대신께서 이 시종의 이름까지 아시오이까?… 고맙소이다.》

번쩍이는 눈길을 들어 가인의 아릿다운 얼굴을 쳐다본 날파리는 황송하게 머리를 숙였다.

《서쪽새에서 왔다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임금님을 뵙고나서 나의 마교차에 가서 기다릴지어다.》

아달비는 파발군에게 은근히 이르고 자기 자리에 가섰다.

늙은 참이 마지막으로 헐떡거리며 편전으로 뛰여올라와 자기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갑자기 편전에 들라한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쪽 오랑캐가 새를 넘었기때문이로다. 빨리 비상대책을 세워야 하겠노라.》

늦게 온 대신, 장군들이 환장한듯 놀랐다.

낯이 새까맣게 죽어든 참이 온몸을 우들우들 떨었다.

잘못하면 조선의 명망있는 대노예주 자신의 운명도 끝장이 날수 있었다.

장군, 군사들이 똑똑하면 막을수도 있겠지만 나라의 군력은 최대로 쇠퇴되여 그 력량이 뻔한지라 참은 아무리 타산해봐야 오랑캐들이 왕검성에 거침없이 뻗쳐들것만 같았다.

《어명을 들으라. 이제부터 군권은 나와 성기대장군에게 넘어가는지라. 불복하거나 령을 지키지 못하는 장군, 군사들에 대한 벌은 죽음으로 내려짐을 명심할지어다.》

가슴 서늘한 왕의 령이 편전을 쩌렁하게 울렸다.

《알겠소이다.》

몇몇 장군들이 부들부들 떨며 머리를 왕앞에 조아렸다.

《성기대장군은 조속히 방비대책을 분담하여 령하고 그에 대한 총지휘를 맡을지어라.》

《알겠소이다.》

성기대장군이 침착하게 대답하고는 장군들을 자기앞으로 모이게

했다.

《왕협장군은 정예군 7만을 오덕산언덕에 배비하고 왕검성에 접근치 못하게 하며 왕담장군은 황천산뒤로 후퇴하여 매복했다가 오랑캐의 뒤통수를 칠것이다.》

《알았소이다.》

왕협과 왕담이 성기대장군에게 읍하고 편전밖으로 달려나갔다.

《한음대신은 빨리 왕검성의 전체민들을 동원하여 성벽을 지키게 하고 병쟁기들을 최대로 동원하며 군량미들을 허실치 말도록 지금부터 대책을 세울지어다.》

《알겠소이다.》

행동이 느린 한음이 성기대장군에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

그러는새에 우거왕이 침전에 들어가 갑옷을 갖추고 편전으로 나왔다.

《대왕께서는 귀한 옥체 보존하시와 전장에 나서지 말기를 바라오이다.》

성기대장군이 우거왕을 간절히 만류했다.

《나라가 이 형국이 된 형편에 어찌 제 한몸 돌볼소냐. 내 몸이 늙어 성밖은 나서지 못할지어나 성안에서 우리 군사, 우리 백성들과 함께 피로써 왕검성을 사수하겠노라.》

우거왕의 불같은 심정을 신하들도 꺾을수 없었다.

성기대장군은 우거왕과 함께 왕검성 북쪽에 있는 지휘망루를 차지했다.

어느새 망루일대에는 고조선군이 겹겹이 늘어서고 의장기들이 구름처럼 날려 펄럭이였다.

창과 병쟁기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하고 벌써 성문을 열어제낀 왕협의 정예군들이 왕검성을 빠지고있었다.

온 왕검성이 전시의 긴장속에 들끓어댔다.

대신들은 어명으로 소읍들에 나가 군력을 뽑고 병쟁기를 장만하여 새로운 전투대렬들을 꾸리는데 동원되였다.

참에게는 니계지방의 군력을 책임지고 예비군을 보장할 중임이 맡겨지고 물역대신 아달비에게는 각 소읍들과 읍락들에서 병쟁기들과 군량을 제때에 왕검성으로 올려오는 과업이 분담되였다.

분담이 끝나자 아달비는 자기의 마교차로 달려갔다.

마교차옆에는 이미 날파리가 와서 기다리고있었다.

《대신어른 오시나이까.》

날파리가 아달비의 발밑에 엎드렸다.
《어서 일어날지어다. 자, 마교차에 오르라.》
아달비가 마교차의 휘장문을 열었다.
날파리는 너무도 놀라 몸을 흠칫 떨며 겁에 질려 머리를 조아렸다.
《저같은 관졸이 어찌 무엄하게 대신어른의 마교차에 발을 올려놓겠소이까.》
날파리가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일없노라. 어서 오르라.》
아달비가 날파리에게 안심을 주려는듯 방긋이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날파리는 어쩔줄 몰라 주저하다가 아달비의 극진한 성의에 못이겨 마교차에 발을 올려놓았다.
《가자.》
아달비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마교차가 절컹 하고 몸을 떨더니 굴러가기 시작했다.
아달비곁에 앉은 날파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가셔지지 않았다.
보통대신도 아닌 나인인데다가 얼마나 젊고 아름다운가.
날파리는 온 나라 곳곳에 안가보는곳이 없는 파발군이지만 이렇듯 아름답고 젊은 가인을 흔히 보지 못했다.
아름다운 백옥을 정교하게 다듬어 거기에 피를 넣어 생기와 웃음을 준것 같은 아달비의 모습은 대번에 한창시절의 날파리의 눈뿌리를 뽑아갔다.
허나 그는 어쩔수 없는 나라의 고관대작이 아닌가.
아달비는 날파리의 남모르는 생각을 엿본듯이 방긋이 웃으며 그의 혈기넘치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날파리는 수집음 타는 나인처럼 얼른 눈길을 피하며 얼굴을 수수떡처럼 물들이였다.
《호호호…》
간드러진 아달비의 웃음이 터졌다.
아달비가 웃음을 그치지 않은채 손을 들어 날파리의 구리빛 어깨우에 올려놓았다. 나무목처럼 짯짯한 어깨우에 놓이는 부드러운 감촉파 함께 뭉클한 느낌이 불덩이처럼 팔에 닿았다.

《날파리는 서쪽새에서 예까지 밤새껏 달려왔겠으니 언제 속을 채웠겠나. 그래 아침이라도 함께 나누자고 가자 했으니 걱정할건 파히 없느니라.》

날파리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짙은 안개가 낀듯이 눈앞이 뽀얘졌다.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가난한 민인 삼촌네 집에 붙어 겨우 노예의 처지는 면했으나 삼촌어머니의 박대속에 모욕받으며 굶주림속에 겨우 목숨이나 부지해가던 그였다.

그때로부터 죽지 않기 위해 동서남북 안다닌데 없이 뛰여다니며 그날그날 먹을것을 얻어먹었다.

그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여 걸음이라면 당할자가 없게 되였으며 모르는 소읍, 읍락이 없었다.

나이 열여섯에 잡히자 코밑에 수염터가 뚜렷해지고 얼굴이 대장부답게 번지였다.

그러던 어느날 국읍에 들어왔다가 징수(군대를 모집하는 장교격인 사람)에게 걸려들어 창을 잡게 되였고 날파람있고 걸음이 빨라 파발군으로 되고말았다.

그런 날파리여서 그리운게 사람의 정이였고 부러운것이 어머니의 품이였다.

그런데 난생처음 자기를 사람처럼 대해준것이 이 대신인 아달비였던것이다.

날파리는 아달비가 대신이 아니라 자기가 그처럼 부러워하던 어머니인듯한 착각까지 왔다.

한순간에 어려움도 없어졌고 아달비에게 끝없이 끌려드는 마음 걷잡을수 없었다.

《고맙소이다. 저같은게 무슨 사람이라고 이처럼 은혜를 베푸오이까.》

날파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내렸다.

《대신어른, 나에게는 혈육이 없소이다. 홀몸으로 한생을 멸시와 랭대만 받아온 인간이오이다. 노예인들 나처럼이야 비참하겠소이까.》

날파리는 엎드려 아달비의 무릎에 눈물을 쏟았다.

《그만할지어다. 난 네가 그처럼 불쌍하게 살아온줄 몰랐노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귀히 여겨줄터이니 친누이처럼 따르거라.》

《대신어른, 제 어찌 눈에 흙이 들어간들 그 은혜 잊겠소이까.》

《나는 일구이언 안하노라. 너도 그리 알면 될것이니라.》

《대신어른의 분부만 따르겠소이다.》
날파리가 목이 메여 꺽꺽 흐느꼈다.
《울음을 그쳐라. 사내대장부의 눈물이 그리 값싸서는 안되느니라.》
아달비가 웃으며 날파리의 잔등을 가벼이 두드렸다.
마교차가 멎어섰다. 아달비의 집에 이른것이다.
마교차의 방울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두 시종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머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마교차는 그대로 대문을 통과하여 대청마루앞에 멎어섰다.
《자, 이제는 다 왔노라. 앞서 내릴지어다.》
아달비가 즐거운듯 웃으며 휘장을 들어주었다.
날파리가 마교차에서 내리자 마중나온 시종들이 그앞에 머리를 숙이였다.
날파리는 당황하여 어쩔줄 몰랐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싶은 마음이였다.
아달비는 그토록 부산을 피우는 시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파리와 팔을 겯고 안채로 들어갔다.
《얘들아, 음식상을 차려라.》
달려와 읍하고 서있는 시종들에게 독촉하자 두 시종이 동시에 대답하고 사라졌다.
날파리는 눈이 휘둥그래 방안을 휘둘러보았다.
하얀 봇나무껍질로 벽과 천정을 바른 방안은 깨끗한데 한옆에 놓은 장들은 옻칠을 먹여 번들거리고 큰 탁우에 놓여진 청동거울이며 각종 뼈, 진흙조각품, 희한한 도자기와 팔찌, 목걸이 등 금은동품들이 번쩍거렸다.
한쪽옆에 놓여진 나무함속에 가득찬 여러가지 빛갈로 빛을 뿌리는 신기한 구슬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현란한지 날파리는 달려가 끝내 손으로 쓸어만지지 않을수 없었다.
《마음에 드느뇨? 가질만큼 가져라. 형옥이란 보석인데 그것 한알이면 네입 하나 1년쯤은 잘 건사할수 있느니라.》
아달비가 웃으며 고조선에서 값진 보물로 일컫는 형옥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날파리는 너무도 놀라와 입이 딱 벌어졌다.
그처럼 값진것인데 소털처럼 이렇게 많으니 세상부자라면 이 아달비만

한 부자가 있으랴싶었다.

《자, 이제는 여기 와 앉아라.》

나무로 묘하게 만들고 옻칠로 다스려 검은빛이 번들거리는 침대우에는 이웃나라에 비싼 값으로 팔리는 조선의 문피가 깔려있는데 얼핏 보면 산 호랑이가 엎드려있는듯싶었다.

날파리가 어쩔줄 몰라 머뭇거리자 아달비는 끌어안다싶이하여 침상에 앉혔다.

《그런데 이건 무엇이오이까?》

침대옆에는 작은 평상이 하나 놓여있는데 거기에는 하얀 봇나무껍질을 손바닥 두개만한 크기로 한쪽은 좁고 다른 한쪽은 그보다 크게 잘라놓은 것들을 두뽐쯤 되게 쌓아놓았는데 신비하기 그지없었다.

그옆에 놓인 묘하게 만든 토기그릇안에는 날짐승들의 날개나 꼬리깃으로 만든 필들이 그득히 꽂혀있다. 그옆의 납작한 작은 그릇에는 숯검뎅이에 나무기름을 타서 만든 되직한 물이 담겨져있었다.

날파리는 처음 보는것이여서 머리를 기웃거리며 이것저것 만지다가 납작한 그릇의 숯검뎅이물에 손끝을 담갔다가 얼결에 얼굴에 문질렀더니 아달비가 허리를 꼬부리며 죽겠다고 웃어댔다.

날파리도 무안스러워 빙긋이 웃는데 아달비가 그의 앞에 청동거울을 가져다댔다.

거기에 비낀 자기 얼굴을 본 날파리는 저도모르게 큰 웃음을 지으며 손으로 문질렀다.

이제는 온 얼굴이 검은것으로 얼룩져 문둥이상이 되고말았다.

《호호호…》

더 큰 웃음소리가 간드러지게 울려나왔다.

《여기에다 씻어라. 마르기전에 씻어야지. 영원한 얼룩으로 더러워질수 있노라. 호호. …》

벽에서 눈처럼 하얀 수건을 벗겨준 아달비는 여전히 웃어댔다.

날파리가 하얀 수건을 받아든채 어쩔줄 모르고 서있자 아달비는 날파리의 머리를 끌어안고 하얀 수건으로 얼굴의 얼룩들을 꼼꼼히 지워주었다.

《이건 무슨 귀신물이오이까?》

날파리는 그 검은 물이 다시 자기 몸에 물들가 겁이 나서인지 몸을 뒤로 젖히며 물었다.

《이건 귀신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봇나무껍질에 써두는 신령스러운 물이니라.》

아달비는 정색하여 한옆에 서서 제껴놓은 봇나무껍질중에서 하나를 골라 날파리에게 보였다.

신령스러운 물이 점점이 올라 알지 못할 형태로 봇나무껍질 하나를 가득히 채웠는데 신비스럽기 그지없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오이까?》

날파리가 호기심에 넘쳐 물었다.

《이건 나라의 지나간 일을 적어두는것이어니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을 들쳐보면 수천년이 지난 후에라도 오늘에 벌어진 일들을 모두 알수 있느니라.》

《그럼 그런 일을 대신어른께서 하오이까?》

날파리에게는 웃기 잘하는 미인으로만 알았던 아달비가 갑자기 신령한 어른처럼 돋보이였다.

《그럼 세상일을 모두 알아야 할것이 아니오이까?》

《그런데 나는 대신인지라 왕궁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을 편답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 한두가지 아니노라.》

아달비가 호랑이가죽우에 몸을 던지며 짐짓 안타까운듯 이렇게 호소했다.

무지한 노예이지만 대신을 도와줄수 없을가하는 의협심이 날파리의 가슴에 가득 차올랐다.

《대신어른, 내가 도와줄 일은 없겠소이까?》

날파리가 간절한 눈길로 아달비를 바라보았다.

《왜 없겠느냐. 너는 안가는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몸이니 세상일을 많이 알것이 아니냐.》

《그렇소이다. 그런 일이라면 내가 보고 아는 세상만사를 모두 대신어른께 아뢰일수 있소이다.》

《고맙도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날파리는 뜻밖의 치사에 온몸이 달아올랐다.

《대신어른께서 령을 주신다면 어떤 일도 하겠소이다.》

《네 크게 할 일이야 있겠느냐. 너는 어디 갔다오든 왕검성에 와서는 나한테 먼저 들리거라. 그리고 거짓없이 모든걸 이야기하면 되느니라.》

《명심하겠소이다.》

《다시한번 당부하지만 갈 때나 올 때나 먼저 들려서 필요한것이 있으면 요구하여라. 배도 곯지 말구. 그러니 자주 와야 하느니라.》

《대신어른, 정말 고맙소이다.》

날파리는 눈물이 글썽해 아달비에게 머리를 숙이였다.

시종들이 밥상을 맞들고 들어왔다.

《이야기바람에 네 배고픔을 잊었댔구나. 자, 여기 나와 앉거라.》

아달비는 날파리의 손을 끌어 밥상앞에 앉혀주었다.

눈부신 진수성찬이 날파리의 넋을 앗아갔다.

세상에 이런 음식들이 있는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본 날파리였다.

《그러지 말고 어서 들거라. 어려워말고… 》

《친누이》가 된 아달비는 날파리의 손에 뼈로 만든 숟갈을 쥐여주었다.

날파리는 모든 일들이 희한하고 놀라운것들이여서 꼭 귀신에게 홀린것 같은 심정이였다.

그러나 가슴속에는 환희와 용맹이 솟구쳐올랐다.

나라의 어진 대신을 위해 자기의 모든 힘을 깡그리 바쳐 충정 다하리라는 불같은 마음이 솟구쳐오르고있었다.

2

아달비가 성안으로 들어서는데 태자의 요란스러운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가고있었다.

늘 황금마교차를 타고다니던 태자 장황은 금빛찬연한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꼭대기에 새깃이 날리는 금빛투구를 쓰고 기세당당히 파하마에 올라앉았다.

활첩을 두개씩이나 메고 창과 방패를 든 태자의 차림은 으리으리했다.

허세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비겁한 태자는 늘 부왕을 속이고 왕궁을 빠져나가서는 사냥이나 계집질로 세월을 보냈다.

원래 군사의 최고통수권은 왕과 태자가 틀어쥐여야 하겠지만 나라의 전망을 생각하는 우거왕은 그 권한을 성기대장군에게 넘겨버렸다.

그쯤 했으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높겠지만 장황은 오히려 한시름 놓

았다.
군직을 지고 전장에 나가기도 싫거니와 군직을 지면 제마음대로 살아갈수 없기에 질색이였다.
그러나 태자로서의 허세를 버리기는 싫었다.
그래서 오랑캐가 침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기가 직접 오랑캐들의 꼴을 본다면서 군사들을 달고 적진으로 정탐을 나가는중이였다. 금빛갑옷을 번쩍이며 말을 몰아가는 장황의 뒤로 500명의 창과 도끼, 활과 단검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뽀얗게 먼지를 일구며 따르고있었다.
장황일행이 왕검성을 떠나 멀리 사라지자 아달비는 자기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며 세웠던 마교차를 몰았다.
언제나 허세는 빈껍대기뿐이여서 보기에는 엄엄하고 빛을 뿌리지만 불한끄치면 다 태워버릴수 있는 바싹 마른 나무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있는 아달비였다.
태자가 저 꼴이니 우거왕도 불쌍한 존재가 아닐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 무엇이라 말하든 제멋에 겨워 패수를 얼마 앞에 둔 안학사에 이른 장황은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오랑캐들이 기승이 나서 의장기를 날리며 패수를 건느고있는데 산병선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좌우끝이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건 번쩍이는 창과 도끼, 의장기들이고 그 수효를 헤아릴수 없는 오랑캐군사들이다.
아직은 거리가 멀어 오랑캐군사들의 함성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그 살벌한 기운은 장황에게까지 뻗쳐왔다.
이제 저 대오가 넓은 초원을 한벌 덮고 전진하다가 앞에 가로질린 산줄기를 넘어서 왕검성까지 단숨에 치달아갈것이다.
장황은 가슴이 선뜩했다. 등골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오랑캐의 무리가 저토록 많을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본 장황이고보니 당황함을 금치 못했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오랑캐들에게 잡혀 불개미무리에게 싸여진 돗벌레신세를 면치 못하리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빨리, 될수록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겠구나.)
겁에 질린 장황의 다리가 우들우들 떨렸다.
《태자어른, 빨리 돌아서야겠소이다. 때를 놓치면 빠지지도 못하고

전멸하오이다.》
장황에게 바싹 붙어선 장군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귀띔했다.
《빨리 대오를 수습해서 돌아서거라. 빨리 왕검성으로 들어 성을 지켜야겠노라.》
장황이 드디여 철수령을 내렸다.
겁에 질려 장황의 얼굴만 쳐다보던 몇몇 비겁한 장수들도 다급히 철수령을 되풀이했다.
군사들이 그 령을 따라 돌아서기 시작했다.
태자의 정탐부대가 오덕산에 이르자 왕협이 태자를 맞받아 나왔다.
《어찌되였소이까, 태자님—》
왕협이 불안한 낯색으로 장황앞에 엎드리며 물었다.
급으로 보면 자기도 같은 장군이지만 왕의 세속자인 까닭에 그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것이다.
《왕협장군, 우리는 왕검성을 지키겠으니 이 오덕산너머로 오랑캐들을 넘기면 안되겠소이다. 잘 싸워주기를 바라오이다.》
태자는 이 말을 남기고 황황히 말을 때려몰았다.
그 뒤로 군사들이 먼지를 일구며 황급히 따라갔다.
왕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태자패들이 달려온 초원 한끝을 바라보았다. 그리 크지 않은 초원 한끝에 산이 또 막히였는데 그 산때문인지 아직은 적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가슴을 조이며 엎드려있던 왕협은 정오경이 되여서야 초원 한끝에 나타난 오랑캐들의 무리를 발견하였다.
기마부대들이 의장기를 날리고 칼을 휘두르면서 앞장서왔다. 그뒤로는 보행군사들이 벌을 꽉 메우며 뒤따르는데 마치 불개미들의 무리가 전진하는것 같았다.
잘못 맞섰다가는 이 거치른 황야의 무주고혼신세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겁이 덜컥 난 왕협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여기서 모두들 개죽음할바에야 후에는 어찌되든 목숨부터 살려보자는 생각이 왕협의 모든 신념을 허물어버렸다.
왕협은 숲속에 매두었던 군마를 풀고 그우에 올라탔다.
우군대장과 좌군대장이 당황하여 왕협에게 달려왔다.
《어찌하려고 하오이까?》
두 대장이 머리를 숙이고 다급히 물었다.

《보면 모르겠느냐? 오랑캐가 눈앞에 왔는데 피를 물고 싸워야 할게 아닌고? 돌아서지 못하겠는고!》

왕협은 눈을 부라리며 두 대장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알겠소이다.》

두 대장을 전장으로 쫓은 왕협은 말머리를 돌려 뺑소니를 쳤다.

우군대장이 왕검성으로 내달리는 왕협의 가련한 뒤모습을 보며 좌군대장에게 물었다.

《장군없이 우리가 여기서 대적하다가 실패하면 책임이 우리 두 대장에게 올터이니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나도 그 생각이오이다. 여기서 패배하느니 차라리 왕검성에 들어가 그곳 력량과 합세하여 적을 침이 더 좋은 방책이 아닐가 생각했소이다. 우군대장의 생각은 어떠하오이까?》

《명안이라 생각하오이다.》

우군대장이 감탄하며 찬성했다.

《그럼 빨리 철수령을 내려야 할줄 아오. 많은 군사가 성문으로 빠져 들어가자면 시간이 걸릴터인데 늦어지면 꼬리가 오랑캐에게 잘려지오이다.》

이렇게 하여 전군철수령이 떨어졌다. …

다급하게 성문으로 쓸어드는 왕협의 군사를 보자 우거왕과 성기대장군은 초풍하듯 놀랐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빨리 왕협장군을 불러들일지어다.》

우거왕이 대노하여 령을 내렸다. 그런데 한참후에 신하가 달려와 맥빠진 어조로 아뢰는것이였다.

《아무리 찾아봐야 왕협장군은 보이지 않소이다.》

대노한 우거왕의 두눈에서는 서리발같은 노여움이 번뜩거렸다.

누구인가 다급히 아뢰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대왕님, 오랑캐가 벌써 왕검성앞 언덕을 넘소이다.》

우거왕은 황황히 성밖을 내다보았다.

정말 저 멀리 언덕너머로 개미무리마냥 와글거리며 밀려오는 오랑캐군사들의 모습이 눈에 띄였다.

《통탄할지고, 통탄할지고…》

우거왕은 가슴을 두드리며 넉두리하듯 울부짖었다.

《그렇듯 강대하던 우리 군사가 비겁쟁이들때문에 하루아침에 물먹

은 모래성처럼 흩어져버리다니…》
그때 적군의 동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던 성기대장군이 침착한 어조로 말을 떼는것이였다.
《빨리 적들을 격퇴해야 할줄로 아오이다.》
우거왕은 침통한 낯빛으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였다.
성기는 다급히 말에 올라 북문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퇴각해온 왕협의 군사들이 어지럽게 엉켜돌아가고있었다. 무사히 성안까지 들어왔지만 아직도 혼잡상태가 가셔지지 않은듯하였다.
왕협부대의 좌우군대장들이 황급히 성기앞으로 달려왔다.
성기는 노기띤 어조로 그들에게 물었다.
《왕협장군은 어데 있는고?》
그러자 우군대장이 낯이 하얗게 질려 떠듬거렸다.
《소신들은 알…알수가 없소이다.》
순간 성기의 구붓한 눈섭이 곤두섰다.
불을 뿜는듯한 대장군의 눈길에 기가 질린 좌우군대장들은 무릎을 꿇으며 죄를 빌었다.
《대장군어른, 소신들이 비겁했소이다.》
《처분을 내려주사이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이슥고 성기의 침착한 음성이 그들의 머리우에 떨어졌다.
《처분은 싸움이 끝난 후에 하겠노라. 지금은 성문을 굳게 닫아매고 군사들을 정돈시키라.》
성기는 말을 돌려 망루로 올라갔다. 수하장수들이 모여 대장군을 기다리고있었다.
성기는 망루앞에 나서 다시금 적정을 유심히 관찰해보았다.
인제는 뽀얀 먼지속에 산병선을 짓고 밀려오는 적병이며 군마며 마교차들이 뚜렷이 안겨왔다. 대략 잡아 적병의 수는 7～8천가량 되여보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금시 성을 짓뭉개버릴 기세로 기고만장해서 달려들던 오랑캐들이 성에서 얼마 미치지 못한곳에 당도하자 갑자기 전진을 멈추어버렸다.
잠시 적진에 혼돈이 이는듯하더니 오랑캐들은 대형을 공격형의 산병선

으로부터 방어형의 원형으로 바꾸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불을 피운다, 군막을 친다 하며 부산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 모양을 바라보는 성기대장군의 얼굴에 일순 희색이 떠돌았다.
《분명 오랑캐들은 후위부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산같소.》
성기는 이렇게 뇌이고나서 한 장수에게 왕검성 서쪽의 형세는 어떤가고 물어보았다.
《그쪽에는 아무런 적정도 없소이다.》
《그렇다…》
성기는 무엇인가 생각하는듯하더니 파발군사를 띄워 모루산에 봉화가 오르면 즉시 알리라고 이르는것이였다.
모루산이란 왕검성 서쪽에 있는 산이다. 근 100리나 떨어져있지만 드넓은 벌에 우뚝 솟아있어 시야에 쉽게 안겨오는 산이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산에서 봉화가 오른다는건 웬말인가?
수하장수들이 영문을 알수 없어 얼굴만 마주보는데 아래쪽에서 참이며 로인무리들이 허둥거리며 올라오는것이 보였다.
《대장군, 대체 어쩌려는것이오이까?》
이렇게 묻는 참의 얼굴에는 당황망조해하는 빛이 력연히 떠돌고있었다.
《어쩌다니요?》
성기는 의아해서 반문하였다. 그러자 참이 우들우들 떨리는 손으로 성밖을 가리켜보이는것이였다.
《오랑캐들이 저렇게 온 들판에 새까맣게 덮였는데 무슨 방책이라도 있는가 말이오이다.》
성기는 그러는 참의 무리를 일별하고나서 흔연한 어조로 대꾸하였다.
《싸우는외에 또 무슨 방책이 있겠소이까.》
성기의 그 말에 이번에는 조선상 로인이 노란 턱수염을 달달 떨며 대들었다.
《싸우다니요? 제노라 하는 왕협장군도 줄행랑을 놓는판에 대체 무슨 힘으로 싸운단말이오이까?》
곁에 서있던 한음도 뒤질세라 떠들어댔다.
《옳소이다. 싸운다는건 닭알로 바위를 때리는것과 다름없는 미련한 처사올시다.》
그러거나말거나 성기는 여전히 적정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넌지시

물었다.

《그럼 대신들 생각엔 어떻게 하면 좋겠소이까?》

그러자 참이 이때라는듯 성기앞에 바싹 다가들며 소리를 죽여 조심스레 말하는것이였다.

《대장군, 인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화의를 제기함이 어떠하온지…》

다음순간 참은 굳어져버리고말았다. 불이 이는듯한 성기의 눈길이 참에게로 날아들었던것이다.

이윽토록 참을 말없이 노려보기만하던 성기는 얼마후 참에게 따져물었다.

《그러니 오랑캐들에게 투항하자는것이오이까?》

성기의 면박에 참은 당황해서 쩔쩔매며 발뺌을 하려 했다.

《난 화의를 하자 했지 투항하자고 말한적은 없소이다. 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백번을 이기는게 진짜장수라 하지 않았…》

참의 떠벌임은 노기어린 성기의 목소리에 의해 동강나버리고말았다.

《화의를 하자 함은 투항하자 함이요, 투항하자 함은 나라를 버리자 함이 아니고 무어란말이요!》

성기의 질책은 서리발같았다. 서슬푸른 기운이 성기대장군의 온몸에서 뿜어나오고있었다.

한동안 근엄한 눈길로 참의 무리들을 노려보던 성기는 마디마디에 그루를 박으며 엄하게 선언하였다.

《나는 이 성의 성주이다. 나라의 운명이 판가름되는 이때 또다시 그런 말을 들고다니는자가 있다면 나는 대신이든 장수이든 관계없이 목을 벨것이다.》

참의 무리들은 이를 갈며 황황히 뺑소니치고말았다.

성기가 장수들과 함께 방략을 의논하고있을 때 먼발치에서 파발군사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대장군어른, 모루산에 봉화가 올랐소이다.》

《무어라구?》

성기대장군의 두눈에 기쁨의 불꽃이 확 타올랐다. 뜨거운것이 성기의 눈굽에 그득히 고여올랐다.

《장하도다, 우마.》

이렇게 뇌이는 성기의 음성은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얼마후 성기대장군은 군사들앞에 나섰다.

《군사들!》
성기대장군은 정렬해있는 군사들을 둘러보며 우렁차게 말을 뗐다.
《지금, 나라의 운명은 칠성판우에 올라있다. 이 엄혹한 시각에 나라 위해 칼을 잡은 우리들이 제 한몸부터 돌본다면 어찌되겠는고? 우리의 정든 땅은 원쑤들의 무도한 발굽에 짓밟히게 될것이고 우리의 부모처자들은 더러운 오랑캐야만들에게 릉욕당하게 될것이다!》
군사들은 비장한 심정으로 성기의 말을 듣고있었다. 대장군의 절절한 웨침이 그들의 심장을 쾅쾅 두드리고있었다.
《자고로 단군의 자손들은 원쑤앞에서 등을 돌려대본적이 없었도다! 우리가 비겁하여 나라앞에 닥쳐온 오늘의 환난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후손들은 두고두고 우리를 원망할것이 아닌고!》
바람에 의장기가 세차게 나붓겼다. 무수한 창검들이 가을해볕에 번뜩이고있었다.
성기대장군의 목소리는 군사들의 머리우에 우뢰마냥 굴러갔다.
《지금 오랑캐들은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해이되여 제놈들의 후위부대가 오기를 기다리고있다. 허나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모루산꼭대기에 타오르는 저 봉화를 보라! 나는 원쑤들의 후위부대가 패수에서 이 땅의 이름없는 노예들에 의해 괴멸되였음을 그대들에게 알리노라!》
다음 순간 군사들이 바람만난 물결마냥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노예들이 오랑캐를 괴멸시키다니? 놀라움과 의혹, 감동의 물결이 군사들속에 파도쳐갔다.
성기대장군은 칼을 빼여들고 군사들에게 웨쳤다.
《군사들! 나라 위한 이 길에서 우리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면 원쑤들은 기필코 멸망할것이로다. 겨레와 생사를 같이하려는자들은 내뒤를 따르라!》
격노한 군사들의 호응소리가 온 왕검성안을 진감하였다.
잠시후 성문이 열리며 성안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밀물처럼 쏟아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홍수같았다. 그것을 막을 힘이 이 세상에 없을듯 했다.
돌진하는 군사들의 맨 앞장에는 성기대장군이 서있었다.
해이되여 맥을 놓고 앉아있던 오랑캐들은 미처 정신을 차릴새도 없이 고조선군사들에게 녹아났다.
퇴각에 퇴각을 거듭하던 고조선군사들이 돌연 그렇듯 무서운 기세로

반격해오리라고는 놈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싸움은 순식간에 고조선군사들의 승리로 끝났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성기대장군을 부여안은 우거왕은 눈물을 머금고 치하해마지 않았다.
《명장밑에는 약졸이 없다더니 대장군, 그대는 정녕 이 나라의 충신이도다.》
왕검성의 군민들은 이 승리를 계기로 하여 성기대장군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갔다.

3

오랑캐군장 추발은 화가 꼭두까지 치밀어올랐다.
두패로 나뉘여 패수를 넘어갔던 자기 병졸들이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한채 무참하게 괴멸되였던것이다. 어제는 왕검성 턱밑에까지 갔던 우군이 조선군사들의 급습을 받아 전멸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오늘은 패수의 소로길로 은밀히 새여들던 좌군이 매복에 걸려 녹아났다는 패보가 날아들었다.
소로길로 말하면 사전에 조선수비군의 허점을 은밀히 내탐한데 근거하여 추발자신이 직접 선정한 밀로였다. 그 밀로를 통해 군사를 잠입시켜 상대의 뒤통수를 불의에 들이치자던 노릇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여버리고말았던것이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간자(간첩)들은 분명 그곳에 아무런 수비력량도 없다고 보고해오지 않았는가.
정말 귀신이 곡할노릇이였다.
추발은 악에 받쳐 상처입은 이리마냥 으르렁거리며 통영안을 돌아쳤다.
코밑에 수염털이 돋기전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년세월 살륙마당에서 잔뼈가 굵어온 추발이였다.
그가 칼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가는곳에서는 풀 한포기 성한것이 없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를 쳤고 아무리 흉폭한 적장들도 그앞에서는 전률하며 무릎을 꿇었다.
하기에 주변의 수다한 왕국들을 정복하고 조선과의 최후대결전이 림박

하였을 때 황제는 그 중임을 서슴없이 추발에게 맡기지 않았던가.

《짐은 그대에게 조선정벌의 중임을 맡기려 하노라. 조선은 3천년의 사직을 누려온 력사국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초생달마냥 쇠진해버렸다. 그러하나 자고로 그 나라 백성들은 어질다가도 일단 싸움이 일어나면 불을 내뿜는것처럼 사납고 강인하기로 소문났으니 허술히 여겨 랑패보는 일이 없도록 할지어다. 그대가 힘을 다하여 조선정벌에서 성공하면 짐은 천하가 평정된 후 공적의 첫 자리에 그대를 놓으리라.》

추발은 감지덕지하여 기어코 정벌하겠노라고 황제앞에서 허세를 부렸다.

그런데 오늘의 이 지경이 웬말이냐.

한동안 씨근덕거리며 방안을 맴돌아치던 추발은 갑자기 온몸이 굳어져버렸다.

벽에 걸린 한장의 호랑이가죽이 눈에 밟혀왔던것이다.

유명한 조선의 문피였다. 추발은 얼빠진 모양이 되여 멍하니 문피를 들여다보았다.

누르스름한 바탕에 죽죽 건너간 대범하면서도 표표한 무늬…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호랑이를 신주처럼 숭배한다고 했더랬지. 의젓하고 용맹스러워 《산중의 왕》으로 불리우는 호랑이, 죽을지언정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는 호랑이… 그래서 그네들도 그처럼 과감무쌍하고 대가 바른것인가.

문득 조선군사를 통솔하는 성기라는 장군이 담대하고 지략에 능한 사나이라고 하던 간자의 보고가 뇌리를 쳤다.

《음—》

앙다문 추발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여나왔다.

(그러니 결국 그네들은 다 이 호랑이같은 존재들이란 말인가.)

등골이 서늘해왔다. 벽에 걸린 문피가 금시 호랑이로 변신하여 자기에게 덮쳐드는것만 같았다.

추발은 기겁해서 문피를 향해 칼을 빼여들었다. 허나 다음 순간 추발은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자칫하면 신령을 노엽힐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얼어들었던것이다.

부아통이 터진 추발은 들었던 칼을 한옆으로 내뿌리고말았다. 칼은 허공을 그으며 저쪽 벽에 날아가 박혔다.

이때 문이 열리더니 비장이 들어섰다.

방안에 들어서던 비장은 노기등등해있는 추발의 낯빛을 보자 못박힌듯 굳어져버렸다.

상관의 얼굴에 떠도는 살별한 기운, 한쪽 벽에 꽂힌채 부르르 떠는 칼…

이런 때 추발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것을 너무도 잘 아는 비장이였다.

비장이 공포에 질려 이리앞의 토끼모양 부들부들 떠는데 추발의 사나운 목소리가 비장의 머리우에 날아들었다.

《무슨 일이냐?》

비장은 턱을 덜덜 떨며 떠듬떠듬 아뢰였다.

《저… 준비가 다 되였소이다.》

그제서야 추발은 비장에게 형틀들을 갖추어놓으라고 분부한 일이 생각났다. 추발의 눈가에 사나운 빛이 번뜩이였다. 굶주리던 이리가 뼈다귀를 본듯 추발은 온몸에 뻗쳐오르는 살기를 느끼며 형장으로 나갔다.

형틀은 군막이 늘어선 넓은 초원앞에다가 전개하여놓았다.

한쪽에는 말을 메운 여러대의 마차가 서있고 다른쪽에는 아름드리 참나무기둥들을 주런이 세워놓고 그우에 머리통만큼 굵은 가름대를 가로 질러놓았다. 그 가름대에는 잘 연마하여 번쩍번쩍 광택을 발산하는 다섯발씩 되는 구리봉을 곧추 매달아놓았는데 거기에는 참기름까지 발라 찰찰 미끄러져내리게 했다. 그밑에는 열아름이나 되는 숯가마를 놓았는데 그우에서는 시뻘건 숯불이 이글거리고있었다.

형틀과 좀 떨어진곳에는 투구를 벗기운 패전장수들이 부복하고있었고 그뒤에는 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도망쳐온 패잔병들이 볼꼴없는 모양으로 엎드려있었다. 수만의 군졸들이 형장주위를 빙 둘러 정렬해있었다.

얼럭덜럭한 일산으로 해를 가리운 루대로 올라선 추발은 사나운 눈빛으로 형장을 일별하더니 교자에 걸터앉아 아래를 굽어보았다. 맨앞에는 패수의 오지에서 참패하고 돌아온 좌군선봉장이 무릎을 꿇고 하회를 기다리고있었다. 한참동안이나 먹이를 덮치려는 맹수마냥 선봉장을 노려보던 추발은 이윽해서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선봉장, 네 죄를 아는가?》

선봉장은 흠칠 몸을 떨더니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한다.

《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비웃듯 내던지는 추발의 말에 선봉장은 한오래기의 새끼오리라도 붙잡으려는듯 머리를 조아리며 중얼거리는것이였다.

《군장나리, 승패는 알수 없는 일이라 하였는데 어찌 소인이라구 실수할 때가 없겠소이까. 지금껏 군장나리를 따라다닌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으하하…》

선봉장의 말은 추발의 웃음소리에 삼키우고말았다. 한동안 너털웃음을 터뜨리고난 추발은 가소롭다는듯 뇌까렸다.

《이기면 영웅이 되고 패하면 죽어야 함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군사의 마땅한 도리거늘 명색이 장수라는 네가 그런 못난 소리밖에 더 남길게 없는고! 여봐라!ㅡ》

추발은 대기하고있는 형리군졸들에게 벽력같이 령을 내렸다.

《저 비겁한 무리들에게 군률의 엄함을 보여줄지어다!》

드디여 무시무시한 형벌이 시작되였다.

형리군졸들이 달려들어 죄인들을 짐짝처럼 끌고갔다.

패전장수들을 사지를 바줄로 동인 다음 량쪽 마차에 각각 매여놓았다.

찢어죽이는 형에 처하려는것이였다.

그래도 어떤자는 명색이 있는지라 병졸들앞에서 체면을 유지하느라고 공손히 순응했으나 어떤자들은 엉엉 울음을 터치며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그런 자들에게는 늘씬하게 방망이세례를 안긴 다음 마차에 묶어놓았다.

이윽고 구령이 떨어지자 군마들이 기승스럽게 울부짖으며 각기 반대방향으로 마차를 끌고갔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깨여지는 소리,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한데 뒤엉켜 터져올랐다. 땅바닥은 온통 피투성이로 되였다.

추발은 비로소 입가에 미소를 띠우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리고는 부하가 가져다준 호로병을 기울여 술을 한모금 들이켰다.

이런 때면 그는 즐겨 술을 찾군한다. 거나한 취흥에 잠겨 피비린내를 맛보는것이 그에게는 더없는 쾌락이였던것이다. 추발은 이런것을 가리켜 《피의 향연》이라고 불렀다.

다른쪽에서는 패잔병들을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는 숯불로 내몰고 있었다.

숯불우에서 흔들거리는 구리봉의 밑은 시뻘겋게 달고 그 웃부분엔

참기름이 발라져있었다.

《도탄형》은 시작되였다.

형리들이 끌어온 패잔병들을 번쩍 들어 숯불우에 던지기 시작하였다. 비명들이 터졌다. 이글거리는 숯불우에서 아우성치며 발밑이 뜨거워 길길이 뛰다가 너무 급해 불길우에 매달린 구리봉을 잡고 기여오르려 하였다. 그러나 잡자마자 숯불에 떨어졌다. 이러기를 그 몇번…

귀신도 소름끼치게 하는 비명소리, 시뻘건 불을 안고 디굴디굴 구는 사람들, 그들의 온몸은 펄펄 뛴다.

그것을 보던 군졸들속에서 공포의 비명이 터지고 여기저기에서 군졸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사람이 타는 시퍼런 불길, 비명소리, 통곡소리, 생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 마치 그것은 아비규환의 지옥을 련상시켰다.

추발은 희열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금 술 한모금을 들이켰다.

황궁에 절세가인인 우별수란 공주가 있었는데 황제는 자기 딸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도탄형》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생각해냈다. 남달리 총명하면서도 독사같이 매서운 공주는 가장 잔악한 광경을 볼 때만 웃었다고 한다.

추발은 황궁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도탄형》을 보게 되였다.

그때 오만한 황제곁에 앉아 참기름을 바른 구리봉우에서 불속으로 떨어져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는 노예를 보고 쾌락에 잠겨 간드러지게 깔깔대던 우별수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소름끼쳤던가.

추발은 그때부터 자기 수하 군졸들에게도 《도탄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잔인한 감은 없지 않으나 군률을 세우고 병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데는 저 《도탄형》이상 없는것 같았다.

뜨끈한 술기운이 온몸에 홍그럽게 번져갔다.

추발에게는 이런 때가 더없이 좋았다. 뭇생명들의 생사여탈권을 한손아귀에 거머쥐고 만인의 굴종속에 우뚝 솟은 자기를 의식한다는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러던 추발은 불현듯 자기에게도 저 병졸들처럼 참기름을 바른 구리기둥우로 기여올라가야 할 시각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솟구쳐올랐다.

만일 이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한다면…

황제는 용서를 모른다. 패장은 목숨으로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수많은 패전장수들의 비참한 말로를 그자신이 얼마나 많이 목격하였던가.

돌연 추발에게는 자기가 뛰여든 이 전쟁이 꼭 숯불이 이글거리는 무시무시한 저 불가마처럼 생각되였다. 사지가 으드드 떨려났다.

때없이 기분이 잡쳐진 추장은 또다시 술을 들이켰다.

그때 비장이 다가와 그에게 무엇인가 수군거렸다. 찌뿌둥해있던 추발의 얼굴에 웬일인지 다시금 화기가 떠돌기 시작하였다.…

그 시각 추발의 통영 으슥한 뒤뜰안에서는 세명의 조선군사가 기둥에 결박되여 문초를 당하고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류달리 호화맛이 나는 갑옷이며 갓신으로 보아 귀족임이 분명하였다.

그는 다름아닌 왕담장군이였다. 오랑캐가 침노하자 왕협의 익측에서 군사들을 통솔하라는 령을 받고 패수로 나가던 왕담은 임지에 이르지도 못한채 매복한 적병들에게 걸려 수하군졸들과 함께 이렇게 잡혀왔던것이다.

왕담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이 그의 온넋을 걷잡을수없이 무너뜨리고있었다.

얼마전까지만하여도 수천군사를 호령하며 위세를 떨치던 자기였다. 오래지 않아 은황공주와 혼례를 이루고 부마로 될 단꿈을 꾸고있던 자기였다. 그러던 내가 졸지에 이런 신세가 되다니…

소약한 체구에 암팡지게 생긴 적장 하나가 먹이를 노리는 삵마냥 그들의 주위를 빙빙 에돌고있었다. 언제 배웠는지 조선말을 꽤 류창하게 하는 놈이다. 포로들을 노려보는 그자의 눈가에서는 먹이를 조롱하는듯한 야비한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고있었다.

놈은 결박되여있는 포로들을 향해 다시금 뇌까렸다.

《왕실로 우리를 비밀리에 안내하면 살려줄터이다. 어쩔텐가?》

벌써 몇십번을 더 반복하는 말이다. 결국 불복하면 죽이겠다는 소리다.

왕담은 사시나무떨듯 온몸이 떨려났다. 정녕 그는 살고싶었다. 살아서 부귀향락을 계속 누리고싶었다. 하건만 곁에 함께 묶인 군졸들앞에서 차마 장군의 체면으로 나약한 꼴을 보일 수가 없었다.

상극되는 두가지 감정이 왕담의 심중을 괴롭히고있었다.

잠시 포로들을 노려보던 적장은 랭소를 띠우더니 칼을 뽑아들었다.

적장은 첫번째 군졸의 가슴에 칼을 들이댔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군졸은 묵묵히 고개를 돌린다. 적장의 칼이 가차없이 군졸의 동가슴을 꿰뚫었다. 대줄기같은 피가 콸콸 솟구쳐나와 땅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적장은 두번째 군졸앞에 다가섰다.
《길을 안내하겠는가, 아니면 죽겠는가?》
두번째 군졸은 나이든 늙은이였다. 늙은이는 찢기고 터진 얼굴을 당당히 쳐들고 적장을 향해 불을 토했다.
《개수작 말아! 우리한텐 죽기가 두려워 나라를 팔 시러베아들이 없다! 늬들 오랑캐들을 한놈이라두 더 베지 못하구 죽는게 원통할뿐이다!!》
적장은 악에 받쳐 늙은 군졸도 사정없이 베여버렸다. 늙은이는 숨을 몰아쉬며 절통하게 부르짖었다.
《아, 이 원쑤를 … 원쑤를…》
다음은 왕담의 차례였다. 왕담앞에 다가선 적장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다. 적장은 시퍼런 칼을 왕담의 목에 가져다댔다.
《너두 저것들과 함께 갈테냐?》
왕담은 숨이 꺽 막혔다. 무슨 말을 하고싶었지만 목안이 가르릉거릴뿐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적장은 비웃음을 머금고 칼을 쳐들었다. 금시 내리치려는 자세다.
왕담은 꺼이꺼이 마른 울음을 터뜨리며 숨가삐 애걸하였다.
《제발… 제발… 살려주사이다. 전 죽…죽고싶지 않소이다.》
왕담은 적장의 무릎에 매달려 애원하고싶었지만 몸을 움직일수가 없었다. 그것이 안타까와 왕담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다.
《살려주사이다. …제발… 살려주사이다. …》
바로 그때 갑옷을 차려입은 오랑캐장수 하나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는것이였다. 추발이였다.
왕담은 얼나간 눈길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깊숙이 눌러쓴 투구아래 새빨갛게 충혈된 눈알이 꼭 귀신의 상통을 방불케 하였다.
왕담은 사지가 뻣뻣해져 더이상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그러는 왕담을 조소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추발은 칼을 빼여든 적장에게 넌지시 이르는것이였다.
《보아하니 장수임이 분명한데 여보게 모장, 이 사람을 풀어주라구, 형은 사대부에게 올라가지 않고 례는 서민에게 내려가지 않을지언대 하물며 장군을 이렇게 대하면 쓰나.》

《알겠소이다.》
모장은 추발과 뜻있는 웃음을 나누고나서 왕담을 풀어주었다. 왕담은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는 왕담을 내려다보며 추발이 모장을 통해 질문을 던졌다.
《그대는 누구인고?》
《…》
왕담은 그만 혀가 굳어지고말았다. 어떻게 대답할것인가. 만일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면 오랑캐들이 자기를 곱게 놔줄리 만무할것 같았다.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벙어리 랭가슴 앓듯하는데 추발이 모장에게 눈짓을 하는것이였다. 그러자 모장이 급히 통영안에 들어갔다.
잠시후 머리를 들라는 호령소리가 들려오는바람에 왕담은 눈길을 쳐들었다.
다음 순간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다름아닌 왕협이 추발의 등뒤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지 않는가.
믿어지지 않았다. 대체 왕협이 어떻게 되여 여기에 나타났는가?
왕담이 어리둥절해서 입만 벌리고있는데 추발이 왕협에게 물었다.
《왕담이 옳은가?》
《예, 옳소이다.》
《좋아.》
왕협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추발에게 대답하였다.
추발은 만족한듯 머리를 끄덕이는것이였다.
그날 밤 통영의 어느 으슥한 방에서 추발은 주안상을 얼추 차려놓고 왕담을 불러들였다. 곁에는 추발의 모장이 앉아 역관노릇을 해주었다.
《왕담장군, 난 이미전부터 그대에 대해서 알고있다. 그대가 머지않아 왕궁의 부마가 된다는것도 모르는바 아니노라. 하거늘 비록 볼꼴 없는 포로의 행색이지만 오늘 나는 장군의 례를 갖추어 그대를 대하겠노라.》
왕담은 비지땀만 흘릴뿐이였다. 지금에 와서야 그는 추발이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그물을 쳐놓고 자기를 기다리고있었다는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였다.
하지만 인제 와서 깨달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죽기보다는 까무러치는게 낫다고 인제는 좋건싫건 오랑캐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왕담은 생각하였다.

한동안 숨을 죽이고 왕담을 지켜보던 추발은 다시금 말을 잇는것이였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노라. 그대의 나라는 다 늙은 고목과 같거늘 다 기울어진 나라 위해 죽은들 누가 영웅이라 불러주겠는가. 이왕 기댈바엔 큰 나무에 기댐이 어떠한가?…》
《…》
《설사 그대의 나라의 사직은 허물어진다 해도 나는 그대에게 부귀영화를 담보할수 있노라. 장차 그대는 나의 뜻을 따르겠는가?》
추발은 왕담에게 술잔을 권했다. 한동안 끙끙 갑자르기만하던 왕담은 잠시후 황소숨을 몰아쉬더니 추발이 권하는 술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독주를 마시듯 쓰겁게 들이키는것이였다.
왕담의 머리가 추발의 눈아래서 맥을 잃고 건둥거렸다. 그 모습을 가긍한 눈길로 바라보던 추발은 이윽고 슬며시 말머리를 돌리였다.
《그대의 궁중에 우리와 뜻을 같이할자가 몇이나 될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얼마후에야 기여드는듯한 왕담의 대답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대신들은 많소이다. 니계상 참어른도 그렇고 조선상 로인이나 한음같은 대신들도 아마…》
《음－》
추발은 흡족한듯 머리를 끄덕이다가 다시금 물었다.
《그럼 우리와 끝까지 해보겠다는자들은 몇이나 되는고?》
《대장군 성기나 대신 아달비같은 사람들은 아마 그럴것이오이다.》
《아달비? 물역대신을 한다는 그 나인말인가?》
추발이 눈알을 부라리며 다그어대는바람에 왕담은 겁에 질려 공손히 수긍하였다.
《그러하오이다.》
《흠－》
추발은 잠시 생각을 굴려보는듯하더니 사납게 뇌까렸다.
《어디 실컷 그래보라지… 그대는 다시 왕검성으로 돌아가 우리 일을 도우라. …》
얼마후 왕담이 물러가자 모장은 슬그머니 추발을 피여올리기 시작하였다.
《소신은 지금껏 군장나리를 맹장으로만 생각해왔었는데 오늘 보니 참

으로 지혜가 출중한 장군이기도 하오이다.》
모장의 말에 추발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흐하하… 조선과 싸워 이기려면 용맹보다도 계책을 먼저 꾸며 승리를 천리밖에서 판가름짓는 지략이 필요한거야.》
등불이 너울거리는 방안에 음충맞은 웃음소리가 차흘렀다.
잠시후 모장이 심중해진 낯빛으로 추발에게 말을 건넸다.
《군장나리, 보름후이면 우별수공주마마의 탄신일이오이다.》
《알고있다.》
추발도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고 정색해서 대꾸하였다.
《공주마마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축문과 선물을 준비하거라. 내가 직접 궁성으로 올라가 폐하께 올리겠노라.》
그리고난 추발은 어금이를 깨물며 나직이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우별수…우별수라…흥, 성기 이놈, 전번엔 내가 네 수에 걸려들었다만 이번엔…》
어둠속을 노려보는 추발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져흐르고있었다.

4

고조선군에 의하여 대참패를 당한 오랑캐들은 저들의 새가까이에서 담판할것을 제기해왔다.
거기에 제일 흥분한것은 태자 장황이였다.
이때야말로 자기의 위세를 떨칠 기회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다.
이때 우거왕도 담판에 누굴 보낼것인가 골몰하다가 태자가 스스로 담판에 나서겠다고 제의해오니 한시름 마음이 놓였다.
이번에 담판자를 태자급으로 높여 나라의 위세를 차리고 담판장에 나서면 또 한번 적들이 질겁할것이 아닌가.
담판장에 나설 수많은 군마와 군사, 군량과 무장을 준비하느라고 온 궁성이 들썩하였다.
장황은 한껏 사기가 올라 장군복을 떨쳐입고 어깨가 으쓱해서 돌아갔다. 오덕산까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가 질겁하여 되돌아온것이 언제인데 성기대장군의 활약으로 조선이 크게 이기자 그것이 마치 자기의 공로인듯이 으시대며 담판에까지 나가겠다고 허세부리는 태자가

우습기 그지없었다.

태자를 담판장으로 떠나보내는데서 한몫 단단히 한것은 아달비대신이였다.

아달비는 자기가 아끼는 명마중에서 출중한 말 1,000필를 기증했고 무쇠단검 500자루, 창 200자루를 태자에게 직접 기증하였다.

감격한 태자는 아달비를 자기 별궁으로 불렀다.

아달비가 령대로 별궁에 이르자 태자는 그를 자기의 침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우거왕의 침전 못지 않은 태자의 침방은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태자의 침방을 처음 보는지라 두눈이 휘둥그래 두리번거리는 아달비를 보고 웃음을 짓던 태자는 문피가 깔린 자기의 침대에 아달비를 앉히고 정욕이 이글거리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달비도 대신이기전에 정력이 끓는 젊은 나인인지라 태자의 그 무례한 눈길앞에 어쩔줄 몰라 얼굴을 붉히며 눈길을 피해버렸다.

《대신, 나는 대신의 성의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오이다. 나라의 군력에 말 1,000필이나 창 200자루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신의 나라 위한 충정에 탄복해마지 않는바오이다. 내 이 전란이나 끝나면 태자의 제일배필로 대신을 선포할 생각이오니 그대 생각 어떠하오이까?》

태자 장황은 대신답지 않게 수집어 어쩔줄 모르는 아달비옆에 바싹 다가앉으며 더운 숨을 내뿜었다.

그 후끈한 기운이 아달비의 얼굴에까지 미쳐왔다.

《태자님, 그것은 저에게 너무도 큰 행복이고 영광이여서 감사를 어떻게 올려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그저 가슴만 높뛰여 진정할수 없을뿐이오이다.》

아달비는 숯불처럼 빨개진 얼굴에 애교를 띄고 뜨겁게 달아오른 태자의 얼굴을 힐끔 치떠보고는 더 깊이 머리를 숙였다.

《대신, 머리를 드오이다. 출전의 시간도 가까와오는데 군자에게 할 말이 없소이까. 그대의 천금같은 말 가슴속에 품고 담판장에 가겠소이다.》

《태자님, 태자님의 건강은 나라의 보배이거늘 부디 몸을 돌보시여 신상에 별고 없길 바라오이다. 태자의 무고는 오직 태자만을 간절히 그리며 살아가는 왕검성의 한 나인의 불같은 마음이며 행복이어니 부디 심

장에 명심해주시기를 바라오이다.》
《감사함을 금할수 없소이다. 내 그대의 말 가슴에 보옥처럼 간직코 그대를 생각하며 담판에서 승전하고 돌아오겠노라.》
장황은 대단한 출격에 나가기나 하듯이 허세를 부리며 으시대였다.
다음날 이른새벽 태자의 행렬이 왕검성을 떠났다.
전체 왕검성의 민들과 군사들이 떨쳐나서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그들을 떠나보내였다.
5,000필의 말과 1만명의 군사, 1,000대의 마차가 군량과 무기들을 가득히 싣고 왕검성을 떠났는데 의장기를 날리고 창끝을 번쩍이며 나가는 대오가 십여리에 늘어선 그 모습은 장관이였다.
하늘땅을 진감하며 나가는 말발굽소리가 오리가 넘는 거리에까지 들려오고 그 발굽에 날리는 먼지가 하늘을 덮어 마치 대오는 초연속을 뚫고나가는 철의 흐름같았다.
대오의 맨 앞장에는 태자 장황이 황금빛 갑옷을 떨쳐입고 붉은 새깃이 날리는 으리으리한 투구를 쓰고 방패와 창을 들고 백마의 등에 앉아 천하가 모두 제것인듯 건들거리며 갔다.
아마도 이 땅의 력사에 이처럼 요란하고 위세있는 담판대오가 없었을것이다.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어느덧 대오가 패수가에 이르렀다.
담판장에 나왔던 오랑캐족의 장군은 담판할 생각도 못하고 구름처럼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담판대오에 기가 질려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오랑캐의 새가 법석 끓어번졌다.
오랑캐의 진영으로는 련속 조선군의 어마어마한 대오가 새를 넘어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안은 파발군들이 들이닥쳤다.
오랑캐들이 눈이 뒤집혀 법석 끓어댔다.
그러자 장황은 담판이 파한줄 알고 곧 대오를 돌려세웠다.
담판을 제기했던 오랑캐측은 넋살이 나가 찍소리도 못하고 잦아들었다.
담판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태자의 대오를 맞이하는 왕검성은 들끓었다. 담판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가만히 앉아 맞아들일 왕검성이 아니였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달비가 눈처럼 하얀 백마에 올라 승전의 꽃다발을 높이 추켜들고 태자를 맞이했다.
위세있게 높이 든 창을 휘두르며 환호에 답례하던 장황은 말을 세우고 아달비가 주는 꽃다발을 환희롭게 받아안고 보란듯이 흔들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태자님을 축하하오이다.》
아달비가 뜨거운 목소리로 태자에게 속삭였다.
《나도 기쁨을 금할수 없소이다. 줄곧 그대만을 생각했소이다.》
태자가 아달비가까이에 머리를 숙이고 열에 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허나 터져오르는 환성소리에 한창 열이 올라 주고받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가뭇없이 묻혀버리고말았다.
편전앞에서는 우거왕과 성기대장군, 대신들이 태자를 맞이했다.
태자는 곧장 편전에 올라 한쪽 발을 굽히고 부왕앞에 꿇어앉았다.
《부왕의 어명으로 담판장에 갔던 장황 승리하고 돌아왔소이다.》
《그래? 계속해라.》
기뻐하는 부왕을 보며 장황은 계속했다.
《우리가 패수를 건느자 질겁한 담판자가 꽁무니를 빼여 빈 하늘과 담판하고 왔소이다.》
태자가 조소를 섞어 대답하자 온 좌중에 웃음이 터져올랐다.
우거왕은 만족한듯 가슴노리에까지 흘러내린 수염을 쓰다듬어내리며 즐거운듯 웃음을 터쳤다.
오직 긴장하여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것은 성기대장군뿐이였다.
함께 즐거운듯 간드러진 웃음을 터치던 아달비는 성기대장군에게 시선이 가자 웃음을 그치고 긴장해졌다.
그의 눈길에 알지 못할 차거운 빛이 번뜩이더니 인츰 사라졌다.
《자, 대신, 장군들 어서 연회장으로 들지어다. 우리 한번 본때있게 즐거이 이 시각을 보낼지어다.》
온몸에 웃음이 넘쳐흐르는 우거왕이 손수 대신, 장군들을 연회장으로 안내해갔다.
잠간 자리에 앉았던 성기는 그 길로 퇴궁하고말았다. 궁안에서는 밤새도록 풍악소리가 울렸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성기는 아사리가 정성껏 차려들여온 음식상도 돌려보내고 자기 침방으로 들어가버렸다.
침대곁에 놓여있는 문피를 깐 교자에 걸터앉은 성기는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꺼지게 한숨을 내그었다.
심중이 복잡하고 가슴이 미여지듯 아파들었다.
과연 이것이 승리이겠는가? 오랑캐는 왕검성에서 많은 무력을 잃었지만 아직도 더 큰 무력이 피를 물고 본국에서 칼을 벼리고있다.

틀림없이 오랑캐는 가까운 기일내에 력량을 수습해가지고 왕검성으로 쳐들어올것이다.
빨리 군사를 늘여야 할 이 불같은 시각에 소읍, 읍락에 군사와 병쟁기를 확보하러 나갔던 대신들이 모두 왕검성으로 돌아와버렸다.
니계상 참은 아직 예비군 한부대도 조직하지 못했다.
형세가 어수선하다고 피서지에 나가 음탕한 나인들을 끼고 숨어살던 참이 담판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태자를 환영한답시고 왕검성으로 들어와 군풍을 세울대신 왕을 구슬려 오늘의 이 대연회를 차렸던것이다.
지금의 형국은 금전 한푼이라도 아껴 군쟁기를 마련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성의 방비대책을 더욱 철저히 갖출것을 요구하고있었다.
허나 어느 대신, 어느 장군이 이 일을 바로잡으려 애를 쓰는가.
오직 왕이 의지하는것은 외기둥 성기대장군뿐이였다.
그 기둥이 너무 크고 든든해서 한편 마음을 놓은 우거왕이였다.
그러던 그 우거왕마저도 오늘은 참의 연회에 말려들고말았던것이다.
성기는 참이라는 저 위선자가 반드시 왕을 잡아먹으리라는 선뜩한 생각에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한껏 각성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시종이 들어와 성기대장군앞에 머리를 숙였다.
《아달비대신께서 대장군을 만나뵙자 오셨소이다.》
《뭐, 아달비대신?!》
성기는 대번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엇때문에 물역대신이 이 밤중에 나를 찾아온단말인가?
단 한번도 집에 발길않던 아달비여서 더욱 의혹이 갔다.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성기대장군이 아무말 없자 시종이 재차 물었다.
《왜 그러고있느냐? 안으로 모셔들이지 않고…》
시종이 달려나가자 인차 아달비가 들어섰다.
《아, 물역대신이 어찌된 일이오이까. 저의 루추한 집에까지 와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소이다.》
성기는 일어나 아달비에게 자리를 권하며 웃음을 지었다.
《환대해주시니 몸둘바 모르겠소이다.》
아달비는 고운 얼굴에 함빡 미소를 짓고 힐끔 성기의 얼굴을 치떠보았다.

언제 보나 사내다운 얼굴에 젊은 혈기가 넘쳐흘러 타는듯한 그 얼굴에 매혹되여 간이 살살 녹아내리는것 같았다.

사나이라면 저런 사나이를 가까이해야 할것이 아니냐.

아달비는 왕검성의 대신으로 들 때부터, 아니 패수가에서 성기를 처음 본 그때부터 그에게 매혹되여 마음 달아오름을 금할수 없었으나 도저히 가까이할수 없는 존재였다.

사나이들이란 자기의 손에서 마음대로 주물러댈수 있는 한갖 잘 이긴 진흙덩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있는 아달비였지만 성기만은 손아귀에 잡혀지지 않았다.

설사 잡혀진다 해도 마음대로 주무를수 없는 차돌이다. 모가 나고 날이 선 차돌을 함부로 주무르다가 손이나 상하기 십상일것이다.

《대장군은 어찌하여 인생을 고독히 지내시오이까? 사내대장부라면 이 세상에 태여나 술과 나인을 마음껏 거느릴줄 알아야 하거늘 어찌하여 대장군께서는 이토록 고독히 지내시오이까?》

《고독하다고? 하하…》

성기대장군이 갑자기 허파를 터뜨리며 침방이 들썩하게 호방한 웃음을 터쳤다.

그바람에 아달비도 덧없이 까르르 웃음을 터쳤다.

《대신, 나도 20대의 사나이거늘 이성에 대한 마음이 왜 없으며 그리운것을 모르겠소이까. 허나 나라의 지경이 경각에 달했으니 어찌 주색에 빠져있겠소이까.》

아달비의 웃던 얼굴이 갑자기 긴장해졌다. 그러나 인차 그 기색이 사라지고 야유의 웃음이 피여올랐다.

《고명한 뜻이오이다. 허나 젊음은 한때고 삶도 끝이 있는지라 어찌 형옥같이 귀중한 시절을 나라에 얹고 덧없이 보내겠소이까.》

아달비가 긴장하게 성기대장군의 얼굴을 치떠보았다.

성기는 아무말없이 창쪽에 놓인 침상에 옮겨가 앉았다.

순간 아달비의 눈에 창가에 놓여진 푸르청청한 산죽나무가 비껴왔다.

아달비는 깜짝 놀라 의혹이 비낀 눈길로 푸른 산죽을 바라보았다.

이것과 꼭같은 산죽이 참의 외딸 나리의 침방에도 자라고있지 않았는가. 이것은 우연한 일치일가? 아니, 그리될수는 없는것이다. 끊을수 없는 인연이 두 사람사이에 엉켜있는것이 분명하다.

아달비는 무척 놀라왔으나 모르는척 시선을 피하고 입을 열었다.

《대장군, 이번 승전은 대장군의 평활한 지략으로 얻어진 승리이거늘 세월에 길이 전해질것이오이다. 허나 의심되는것은 왕검성에서 중요지점으로 되여있는 서쪽면이 왜 비였었는지 도저히 리해가 되지 않소이다.》

왜 그런지 아달비가 잔뜩 긴장해 물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눈을 지그시 감았던 성기대장군은 눈을 번쩍 뜨며 얼굴에 미소를 그었다.

《그거야 어찌 알겠소이까. 오랑캐들이 서쪽면쯤은 허술히 보아왔는지 그걸 알리 없지 않겠소이까.》

아달비의 얼굴에는 로골적인 비웃음이 떠올랐다.

《그건 성기대장군의 속없는 말씀이오이다. 오랑캐도 생각이 있고 군법도 있는 로련한 족속들이온데 서쪽에도 응당히 력량을 배치해야 성안의 군사들이 성밖으로 빠져나올수 없다는, 삼척동자도 아는 리치를 어찌 모를수 있겠소이까.》

성기는 아무말없이 긴장한 낯색을 지었다. 물역대신이 군사일에까지 관심을 가지는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달비가 간드러지게 웃음을 터쳤다.

《대장군께서는 이 아달비를 마치 오랑캐의 간자로 보심이 아니오이까. 장사물건이나 주무르는 물역대신이 군사를 따지고있으니 응당 그리 생각할줄 아오이다. 허나 마음놓소이다. 나라의 력사를 후세에 길이 남겨볼가 하여 그러는것이오이다. 이번 성기대장군의 전승이야 크게 기록돼야 할것이 아니오이까. 허나 성기대장군의 지략에는 모를것이 많사와 공간이 많이 남소이다. 소인은 이 공간을 메꾸어볼가 하는 외람된 생각에서 물었으니 달리 생각말아주사이다.》

성기의 얼굴에는 스스럼없는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오이다. 물역대신을 누가 의심하겠소이까. 나도 앞으로 대신을 돕기 위해 힘쓰겠소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쁘겠소이까. 그리 알고 성기대장군을 믿겠소이다.》

뒤이어 두 사람의 말은 즐거운 생활이야기로 번져갔다.

선돌장군과 나리두목

1

서쪽새에 갔던 날파리가 오래간만에 아달비에게 날아들었다.

그동안 날파리는 아달비대신에 대한 그리움에 잠겨있었다.

손우의 누이라 할가 어쨌든 혈육의 정이 가슴뻐근히 흘러 마음은 늘 왕검성에 가있었다.

언덕을 넘어 왕검성이 멀리 보이자 날파리는 가슴이 터질듯이 부풀어올라 달리는 말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암말은 날파리의 마음을 아는듯 먼길을 달려 온몸을 땀으로 목욕했건만 힘든 기색을 내지 않고 번개같이 달렸다.

왕검성의 성문을 지키는 수병들은 먼발치에서 날파리의 암말을 알아보고 성문을 좌악— 열어놓았다.

날파리가 저쯤 달려오면 분명히 심상찮은 일이 터진것이 분명타고 생각하는 수병들이였다.

《무슨 일인가?》

수병장이 번개같이 다가오는 날파리에게 소리쳤다.

《급보오이다.》

이런 말소리가 들려오는듯싶더니 날파리의 말은 번개같이 수병장의 곁을 날아지났다.

《또 란이 터진 모양이군.》

수병들이 먼지를 날리며 왕궁쪽으로 사라지는 날파리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불안스럽게 웅성거렸다.

태자가 담판장에 갔다온 다음 온 왕검성은 긴장상태에서 헤여나지 못하고있었다.

오만무례한 오랑캐가 언제 또다시 새를 넘어 왕검성으로 밀려들지 알수 없었다.

급기야 왕담장군을 시켜 3천의 군사를 더 주어 새를 막게 했으나 누구

나 왕담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젊은 장군이였지만 늘 주색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고 늙은이마냥 어질거리는 장군이니 말라빠진 막대기에 장군복을 입혀 세워놓은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왕담은 한때는 패기가 있고 지략이 능한 장수였다. 그런데 왕검성과 국읍의 대노예주들과 대신들이 저저끔 자기의 봉토를 받아가지고 분립해나가고 곳곳마다 지방세력을 강화하여 왕의 세력과 맞서고 중앙의 권력과 지시가 밑에까지 내려먹지 않게 되고 타락한 장군들로 하여 군률까지 흐트러지게 되자 왕담은 그 와류속에 밀려들어 제정신없이 흥뗑이며 살아온것이 이제는 눈빛이 흐려진 주색잡이《령감》으로 화해버린것이였다.

성기대장군은 할수없이 왕담을 새에 파견하긴 했지만 별로 기대를 걸지 않았다.

될수록이면 왕검성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한편 날로 번창해가는 노예군을 적극 인입시켜 련합군진출을 강화해갈 작정이였다.

그래서 요즘 노예폭동군의 근거지 금나수에 들렸다오게 된 날파리를 기다리는중이였다.

그런데 저렇듯 날파리가 날아들었으니 또다시 온 왕검성이 끓어번질것이다.

왕궁과 대신들의 가옥들이 있는 갈림길에 이른 날파리는 말의 고삐를 잡아채여 대신들의 가옥쪽으로 몰아갔다.

날파리는 외진곳에 자리잡은 아달비의 집으로 달려갔다.

대문이 열려져있어 번개같이 안에 들어선 말은 앞발을 하늘높이 들었다놓으며 호용스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놀란 시종들이 여기저기서 뛰여나왔다.

《대신어른 있느뇨?》

날파리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나 된듯이 등등하여 소리쳤다.

《입궐하시여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이다.》

곱살한 녀시종이 머리를 공손히 숙이고 아뢰였다.

《여긴 시종도 없느냐. 왕궁에 가서 내가 왔다고 조용히 귀띔하고 오너라.》

날파리가 호령했다.

《왕궁에 갈 시종군도 없거니와 갔댔자 편전에는커녕 궁벽을 지나지도

못하오이다.》
녀시종이 조용히 일깨웠다.
《그럼 할수 없노라. 내 가는수밖에…》
날파리가 말머리를 돌리는데 대문밖에서 마교차가 굴러오는 랑랑한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대신어른의 마교차오이다.》
녀시종이 퇴지에 올라서 담너머를 넘보며 소리쳤다.
뒤이어 대문밖에 마교차멎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종에게 부축된 아달비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누이, 안녕하셨소이까.》
기쁨에 넘친 날파리가 말에서 뛰여내려 아달비앞으로 달려가더니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네가 왔고나. 몹시 기다렸다. 왕궁에 네가 온다는 소문이 날아들기에 왕에게 몸이 불편하다고 량해구하고 급히 달려왔노라.》
아달비는 기쁨에 넘쳐 땀에 흠뻑 젖은 날파리를 쓰러안았다.
《자, 안으로 들어가자. 그동안 별일 없었느냐?》
아달비가 달처럼 환한 얼굴에 보조개를 담쑥 파며 물었다.
《누님께서 보살펴주시온데 무슨 별일 있겠소이까.》
《그러하면 됐구나. 누이 마음도 기쁘다.》
침방에 들어선 아달비는 날파리를 문피가 깔린 침상에 앉히고 향기가 그윽히 풍기는 하얗고 부드러운 수건을 가져다주었다.
《어서 땀을 씻고 음식부터 들어라. 먼길에 배인들 얼마나 고프겠느냐.》
아달비는 날파리를 측은히 바라보며 시종들에게 빨리 음식상을 차려들이라고 독촉했다.
《그동안 력사를 기록하는 일은 어찌 됐소이까?》
날파리가 평상우에 펴놓은 봇나무껍질과 새깃털을 바라보며 물었다.
《왕검성일은 모두 기록했다만 성밖의 일은 알수 없고나. 그래서 동생을 일일천추 기다리던중이노라.》
《그런 일이라면 내 밤새도록 이야기할수 있소이다. 누이는 아마도 서쪽새결에 나타난 신비한 노예군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할것이오이다.》
《신비한 노예군이라니?!》
깜짝 놀란 아달비의 얼굴이 대번에 빛을 잃고 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런 일이 있어 성기대장군에게 아뢰러 왔소이다. 이건 극비여서 우거왕과 성기대장군만 알게 된 일이오이다.》

날파리는 주저하며 아달비의 눈치를 살폈다.

《그것이 극비라면 내가 알 일이 아니지만 력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일이거늘 그러한것을 남겨놓지 않으면 후세에 저주를 받느니라. 이 글은 누구도 못보게 되여 후세사람들에게 전하게 될것이어니 우리가 다 죽은 후세에야 그것이 세상에 로출되느니라.》

《그러하옵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도 다 말할수 있소이다.》

《 그 신비한 노예군이란 도대체 무엇이뇨?》

아달비는 끝내 호기심을 참지 못해 다그쳐물었다.

《노예군이란 금나수 진펄속에 근거지를 둔 우마군이오이다.》

《그 진펄속에 아직도 노예군이 펄펄 살아있다더냐?》

아달비가 눈이 휘둥그래 되물었다.

《펄펄이가 무어이까. 그 무리가 이제는 1만을 넘었소이다.》

《뭐라구?!》

아달비는 깜짝 놀랐다.

《그 노예군이 서쪽새에서 20리 떨어진 오지속에 감쪽같이 숨어있다가 왕검성 서쪽을 포위하게 되여있는 오랑캐 6천이 멋모르고 접어드는걸 감쪽같이 덮쳐서 한놈도 살아남지 못했소이다.》

《아, 그런 일이 있은걸 몰랐구나.》

아달비는 눈을 감으며 상반신을 뒤로 젖히고 비감에 잠겨 한탄했다.

《이런 중한 일이 빠졌으니 후세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번 했느냐? 그런데 그 무지한 노예군이 어찌 알고 그 길목을 지켰다더냐?》

《이미전에 성기대장군이 금나수에 들어가 우마두목과 약조가 돼있었소이다.》

《성기대장군이 금나수에 들었다는것이 사실이뇨?》

아달비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여러 대신들의 맹렬한 반대로 노예군과의 제휴문제는 끝끝내 성사되지 못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성기대장군이 금나수에까지 다녀왔다는건 또 무슨 청천벽력인가?

《사실이오이다. 성기대장군의 령을 받고 내가 직접 금나수에 들어가 전달하고 왔소이다.》

《네가 직접?!…》

아달비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체 무슨 령이더냐?》

《이것 역시 신비한 령이였소이다. 여기서 북쪽 변두리에 검은 복면을 쓴 두령이 거느리는 비적단이 있사온데 그 활약이 령활하여 그 변두리주인들이 모두 녹아났다 하오이다. 우마폭동군과 다른것은 주인이라면 노예를 적게 거느렸던 많이 거느렸던 가차없이 죽이고 그 가족까지 전멸시킨다 하오며 그들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검은 재만 남는다 하오이다.》

아달비의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들었다.

평상우에 울려놓은 손이 가늘게 떨리는것을 본 날파리는 입을 다물었다.

《왜 말을 그쳤느냐?》

《대신께서 달갑잖아 하시는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어서 말을 하여라.》

아달비는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것을 느꼈는지 자세를 바로잡으며 독촉했다.

《비적단이 얼마나 날랜지 서에 번쩍, 동에 번쩍 하는데 동에 불을 끄러 가면 서쪽이 타고 서쪽으로 가면 북쪽이 타오르는데 그 검은 복면이 어찌나 무서운지 그 일대 아이들도 검은 복면이 온다 하면 울던 울음도 뚝 그친다 하오이다.》

《정말 일찌기 들은적 없는 무서운 비적군이구나. 그런데 그 비적이 성기대장군과 무슨 관계란말이뇨.》

《지금 북쪽새에 배치할 군력이 없어 성기대장군은 그 비적을 그 자리에 세워놓을가 생각코있소이다.》

《비적을 북쪽새에 세운다구?!》

아달비는 다시한번 놀랐다.

《그렇소이다. 그래서 우마두목에게 령을 주어 그 비적두목을 쟁취하라 했소이다.》

《검은 복면을 쟁취한다고?! 그래 우마의 대답은 어떠하더냐?》

《꼭 해보겠다 했소이다. 자기들과 몇번 맞다들렸는데 우마노예군만 보면 번개같이 사라진다 하오이다. 허나 우마는 며칠새에 검은 복면의 근거지를 알아내여 기어코 령을 집행하겠다 했소이다.》

《그래 금나수에 가선 무엇을 보았느냐?》

《금나수의 노예소굴은 참말 별세상이였소이다. 주인이 없는 세상이온

데 농사도 짓고 짐승도 잡아 연명하고있소이다.
놀라운것은 참의 외딸 나리가 그곳의 교련두목이 되여 노예군을 교련시키고있는것이오이다.》
《그건 무슨 불도깨비같은 소리냐? 나리야 귀마산에 가서 맹수의 밥이 된지 오라지 않았더냐?!》
《아니오이다. 나리는 산속에서 정체모를 사람들에게 감쪽같이 붙들려 갔댔소이다.》
《그럼 그게 우마였단말이뇨?》
아달비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가슴이 떨려났다.
세상만사일은 신비스럽고 서로 달랐지만 이렇듯 놀랄 일들도 있는가싶었다.
놀라운 생각에 잠겼던 아달비가 깜짝 놀라 소스라치며 날파리를 음식상앞으로 내밀었다.
《이야기정신에 빠져 네 배고픈걸 잊었댔구나. 어서 많이 들어라. 어서—》
아달비는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잔에 맑은 술을 부어 날파리의 손에 쥐여주었다.
《고맙소이다.》
상에 다가앉은 날파리는 백옥처럼 하얀 쌀밥을 정신없이 입에 퍼넣더니 사슴갈비를 들어 우악스럽게 뜯어먹었다.
그 모습을 본 아달비가 만족한듯 싱긋이 웃고 탁상앞으로 가더니 봇나무의 얇은 껍질을 골라 거기에 작은 글자를 빼곡이 채워넣었다.
자기가 쓴 글자들을 다시 읽어본 아달비는 그것을 이미 쓴 봇나무껍질가운데 밀어넣고 삼오래기로 꽁꽁 비끄러맸다. 그러고도 안심되지 않는지 그우에 봇나무껍질을 덧놓아 다시 동이였다.
날파리가 껄껄 트림을 하며 상앞에서 물러앉자 아달비는 그에게로 다가앉았다.
《새에는 언제 갈터이냐?》
《왕과 성기대장군에게 이르고 새령이 떨어지면 오늘중으로 길을 축내겠소이다.》
《그러면 금나수에도 들리겠느냐?》
《들려야 하오이다.》
《금나수에 들리거든 꼭 나의 인사를 전하거라. 그리고 꼭 잊지 않

을것은 성기대장군이 머지 않아 우거왕의 첫째 공주와 혼약이 되여 곧 부마가 된다는것을 나리에게 전할지어다.》

《알았소이다.》

《그리고 서쪽의 은치읍락에 나의 삼촌 한분이 있는데 그분도 력사를 필하는 선비이다. 나도 그이의 덕을 받아 력사를 필하게 됐거늘 이 력사자료를 그에게 틀림없이 전하여라. 누구에게도 보이면 안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오손시키면 절대 아니 되는지라 특별히 주의하거라.》

《누님, 령대로 할터이니 마음놓소이다.》

날파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어디 가나 이 왕검성에서 누이가 기다린다는것을 잊지 말어라. 많은 자료들을 얻어 꼭 기억해두기 바라노라. 그리고 오늘처럼 왕궁에 들리기전에 이곳에 먼저 들려 꼭 음식을 들고 움직이도록 할지어다.》

《누님의 령을 한치도 드팀없이 행하겠소이다. 마음을 놓소이다.》

《자, 그럼 어서 가거라. 일일천추 너를 기다리겠노라.》

《누님, 이 감사함을 무어라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소이다.》

문밖으로 나가려던 날파리가 돌아서 축축히 젖어든 눈을 손등으로 문질렀다.

《그럼 다시 오겠소이다.》

뜨락으로 달려나간 날파리는 말에 뛰여오르기 바쁘게 몸을 날려 왕궁을 향해 전속을 놓았다.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아달비의 입가에 야릇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러는 그의 귀전에 멀리 서쪽의 패수가에서 《명심하라. 너에게 큰 기대를 걸고있다는걸.》하며 자기가 탄 쪽배를 강복판으로 떠밀어주던 《삼촌》의 말이 쟁쟁히 들려오는듯싶었다.

(날파리가 《력사자료》를 틀림없이 《삼촌》에게 전해야겠는데. 이 나라, 이 고조선땅을 통채로 먹어삼키는 그날엔 모두 이 아달비를 하늘처럼 떠받들거야.)

아달비는 그날이 당장 다가오는듯싶어 노래라도 부르고싶은 심정이였다.

2

파발군 날파리를 통해 서쪽새와 금나수의 형편을 전달받게 된 임금과 성기대장군은 오래동안 왕의 침방에 들어가 무엇인가 신중히 론의하다가 우마두목에게 주는 령을 쓴 어지를 날파리에게 주어 금나수로 떠나보내였다.

날파리가 아달비가 준 력사자료를 서쪽새 은치읍락에 전하고 금나수로 떠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석양무렵이였다.

그동안 친숙히 낯을 익힌 우마두목이 반갑게 날파리를 반겨주었다.

우마두목에게 왕과 성기대장군의 령을 전하고 지휘옥을 나서는데 교련두목 나리가 황황히 따라나왔다.

《갔다온 왕검성의 소식을 전해주오이다.》

나리가 수집음을 띠고 날파리에게 말을 걸었다.

《왕검성은 지금 오랑캐를 막을 준비에 여념이 없소이다.》

《성기대장군은 어찌 지내오이까.》

나리는 파발군이 다른 이야기로 시간을 보낼것 같아 직접 성기대장군의 안부를 물었다.

《대장군께서는 앉을새없이 바쁘오이다. 나라의 사직이 대장군의 어깨우에 지워진것 같소이다.》

《성기대장군이 금나수에 오신단 말 없었소이까?》

나리는 가슴을 조이며 물었다.

《이틀후에 오시오이다. 우마두목과 의논할 일이 있다 하였소이다.》

조여들던 나리의 가슴이 갑자기 걷잡을수없이 높뛰기 시작했다.

가슴에는 갑자기 불덩이가 뭉쳐오르는듯 뻐근하고 무어라 표현할수 없는 기쁨이 온몸을 휩쌌다.

그동안 쌓이고쌓였던 그리움이 성기대장군이 금나수에 온다는 그 말 한마디에 터져 강물처럼 굽이치기 시작했다.

(아, 성기, 그대가 진정 다시 금나수에 온단말인가.)

나리는 온 금나수를 날으며 마음껏 가슴을 터쳐 성기를 부르고 뜨거운 눈물을 그리운 산천에 한껏 휘뿌려대고싶었다.

아마 앞에 날파리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요즘 대장군께옵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소이다.》
날파리가 벙글벙글 웃으며 나리의 고운 얼굴을 흘끔흘끔 훔쳐보았다.
《그건 무슨 말이오이까?!》
부드러운 웃음이 한껏 어렸던 나리의 얼굴이 긴장해졌다.
《대장군께서는 요즘 왕의 첫째 공주와 정분이 나서 세상이 오락가락하는줄 아오이다.》
날파리는 여전히 벙글벙글 웃으며 나리를 놀리였다.
나리의 불타던 가슴속에 일시에 얼음덩이가 선뜩하게 일어섰다.
《그건 무슨 말이오이까? 자세히 들려주소이다.》
나리가 바싹 긴장하여 날파리의 입만 지켜보며 마음을 조였다.
《첫째 공주 은황이와 혼사가 이루어져 이제 대장군께서는 부마가 된다하오이다.》
《그게 적실하오이까?》
벌써 넋이 나간 나리가 제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옆에 있는 큰 자작나무에 몸을 의지하고 겨우 자세를 바로잡았다.
은황이와 성기대장군사이에 혼사말이 난것은 이미 나리가 알고있었다.
허나 나리와 사랑을 약조한 뒤라 왕에게 다시 대장군이 조용히 건의하여 혼사를 취소시킨것이였다.
성기대장군을 그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는 우거왕은 성기대장군의 심중의 목소리를 듣고 섭섭한 마음이 많았으나 혼사를 파해주었던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혼사를 맺고 부마로 들어앉는다니 초풍할 노릇이 아닐수 없었다.
그처럼 자기와 불같은 약조를 하고 배반할 성기가 아니였다.
세상이 천번만번 변한다 해도 성기의 사나이다운 마음 변치 않는다는것을 굳게 믿고있던 나리였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가. 나리는 온몸의 맥이 일시에 빠지며 이마에 진땀이 빠지직 내돋는것을 감촉했다.
온 왕검성에 나리는 제발로 귀마산에 가서 맹수의 밥이 되여버렸다는 소문이 쫘악 나돌았는데 어찌 성기인들 목석이라고 이미 죽은 나인을 기다리겠는가.
나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성기대장군이 왕궁의 부마가 된다 한들 어찌 탓할수 있으랴.

나리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감촉하지 못한채 비칠거리며 발걸음이 나가는대로 걸었다.

날파리는 눈이 휘둥그래 비칠거리며 사라지는 나리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머리만 기웃거렸다.

교련두목 나리가 고민에 빠지는 일을 아달비는 무엇하러 전달하라 했는지 도무지 리해가 가지 않았다.

아마도 나리가 성기대장군을 사랑하고있지 않았을가?!

그런걸 아달비는 모르고있은것이 틀림없었다.

날파리는 달려가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고 사죄를 하고싶었다.

허나 이제야 쏟친 단지의 물이거늘 어찌 주어담는단말이냐.

그런데 아달비대신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가?

날파리는 자기 일처럼 안타까왔다.

자기 방에 들어선 나리는 침상에 엎어지며 서럽게 울음을 터치였다.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는 슬픔이였다.

성기를 탓할 일도 더더욱 아니다.

모든것은 나의 불찰에 있는것이다.

그 당시 왕협과의 혼사가 제기되여 어쩔수 없었던 일이 아니였던가.

생각할수록 서러운 눈물만 쏟아져나왔다.

하늘님이 그처럼 공정하다면 어찌 이 불쌍한 소녀에게 단 한점의 행복도 남겨주지 않고 깡그리 빼앗아간단말이냐.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한단말이냐.

침상을 긁어대며 몸부림치던 나리가 머리를 들었다.

창가에는 푸른 잎이 청청한 산죽이 곧게 자라 굴함없는 기상을 뽐내고 있었다.

마음이 약해질 때면 산죽부터 쳐다보던 나리였다.

그러면 온몸에 새힘이 솟고 까닭도 모를 기쁨과 미래에 대한 야릇한 행복감에 가슴이 드설레였다.

그렇던 산죽이 오늘은 왜 저리도 가슴을 아프게 긁어내는가.

푸르청청한 잎새마저 검은빛으로 보이고 저주롭게만 느껴졌다.

저 산죽과 함께 깨끗이 지켜오던 절개가 과연 그 어디에 필요했단말인가. 나에게는 이제부터 산죽이 없다. 앞에는 오직 타락한 나인 하나가 있을뿐이다.

(아,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그리움은 이 세상에서 모두 흘러가버리고말았구나.)

멀거니 푸르른 산죽을 바라보는 나리의 두볼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렸다.

천천히 창가로 다가간 나리는 산죽을 움켜쥐고 토막토막 꺾어버렸다.

그때로부터 교련장에는 나리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련감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우마는 생각이 깊어졌다.

그토록 열정에 겨워 교련장에서 떠나지 않던 그가 웬일일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가?)

텅빈 교련장을 혼자 거니는 우마의 가슴은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금이 가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교련감이 어제 자진하여 금나수로 밀려들어온 노예피난군 150명을 끌고왔다.

《두목, 이 노예들은 변변히 칼을 잡을줄도 모르오이다. 말을 탈줄 아는 사람이 겨우 아홉이오이다.》

얼굴에 여덟팔자를 그린 교련감이 난감하여 우마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우마가 창을 꼬나들고 말에 높이 올랐다.

《오늘 교련은 내가 보겠다.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얼굴이 까맣게 질렸던 교련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교련감이라야 병쟁기, 말들을 제공하고 뒤처리나 하는 직무였지만 새로 들어온 노예군들은 그에게 빨리 교련을 다그치자고 했다.

그 성화도 성화거니와 이렇게 교련이 죽어들어가면 하루에도 수십명씩 쓸어드는 노예들을 어찌한단말이냐.

병쟁기를 쓸줄 모르는 무리는 순한 짐승의 무리와 같은것이여서 아무리 많아야 무엇에 쓸터이냐.

이토록 곤경에 처했던 교련감은 우마두목이 솔선 교련두목으로 나서니 마음이 든든해졌다.

허나 금나수의 전반 일을 보아야 하는 우마가 교련장에만 붙어있을수 없었다.

교련을 끝내고난 우마는 온몸에 흐르는 땀을 썩썩 문지르고 벗어놓았던 의장을 갖추었다.

그 길로 우마는 교련두목 나리의 방을 찾았다.

나리는 미음 한모금 마시지 않고 자리에 누워있었다.

하루사이에 몰라보게 꺼져든 나리의 모습을 우마는 놀랍게 바라보았다.
왜 그런지 가슴이 철렁하여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다.
《교련두목, 무슨 일이오이까? 무엇때문에 그토록 고민하오이까? 우리가 해결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겠소이다.》
우마가 나리의 침상곁에 앉으며 측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는 아무말없이 머리만 무겁게 흔들었다.
《지금 교련두목이 없어 무려 3백의 새 노예군을 교련하지 못하고 있소이다. 새 전장을 맡으라는 대장군의 령이 왔소이다.
군사가 천금처럼 귀중한 때 어찌했으면 좋겠소이까.》
우마가 간절히 입을 열었다.
《두목, 너무 걱정마소이다. 내 곧 교련장에 나가겠소이다.》
《안되오이다. 그 몸으로 어찌 교련장에 선다 하오이까.》
우마가 깜짝 놀라 두손을 휘휘 저어댔다.
나리는 가냘픈 미소를 짓고 조용히 텅 비여버린 창가로 눈길을 돌렸다.
나리의 방을 나서는 우마의 마음은 몹시 불안하였다.
(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우마는 가슴이 아픔으로 꽉 메여왔다.
지금까지 그처럼 순탄하게 흘러온 노예군이 지금 보이지 않는 여울목으로 흘러가는것이 아닐가.
왜서인지 우마의 마음은 점점 무겁고 불안스러워졌다.

3

수많은 노예군들과 가병들이 지휘옥앞의 드넓은 공지에 빼곡이 들어서 있었다.
머리에 희고 검은 수건들을 질끈질끈 동인 노예군들의 머리우로 의장기가 날리고 창, 파의 날들이 해빛에 번쩍이였다.
끝없이 늘어선 그 대오는 장엄하기 그지없었다.
장엄한 그 대오속에서는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오직 침중한 정적만이 온 대오를 휩싸고있었다.
(파연 무슨 일이 벌어질것인가?!)
온 대오의 이 무거운 정적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어지를 가지고 내

려온 왕검성의 대장군 성기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된것이였다.
우마는 불안한 눈길로 성기대장군이 나설 통로쪽을 몇번이나 돌아보았는지 모른다.
과연 무슨 일때문일가? 혹시 전번 서쪽새를 넘어선 오랑캐족속을 쳐부신 싸움에서 무슨 파오라도 생긴것이 아닐가?! 그러나 그것은 6천명의 오랑캐를 씨도 없이 족쳐버린 통쾌한 싸움이 아니였던가.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나리문제때문이 아닐가?
나리는 왕검성의 제일권위자인 니계상 참의 딸이라 그 엄엄한 주인의 딸을 버러지같은 노예들속으로 끌어왔다고 왕이 노호한것이 아닐가.
노예들이 나라대신의 딸을 《유괴》하여왔으니 그 죄는 릉지처참으로도 모자랄것이다.
그래서 요즘 나리에게 전에 없던 행동이 나타난것이 아닐가?!
그처럼 생기에 넘쳐 노예들의 교련에 땀을 바치던 나리가 문밖에 나가지 않고 침방에 갇혀 고민의 나날을 보내지 않았던가.
그런것을 우마가 안타까운 사정을 하니 그제부터 교련장에 나타나 그전보다 불타는 열정과 투지를 안고 노예들의 교련에 전심하고있었다.
(그 모든것이 오늘의 이 사태와 관련되는것이 아닐가?)
어쨌든 무서운 인생파멸의 벌이 내려질것 같았다.
아마도 애써 모아놓은 노예군이 뿔뿔이 헤쳐져 그 죽음의 막바지로 다시 돌아갈수도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야 갑자기 금나수에 나타난 대장군의 표정이 그리도 엄엄하고 심중할수 있단말이냐?!
우마의 가슴이 불안의 와류속에 휘말려드는데 갑자기 대오가 술렁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금빛갑옷을 떨쳐입고 관직을 표시하는 호랑이가 새겨진 넓은 띠에 번쩍이는 청동단검을 다섯개나 지른 성기가 지휘옥을 나서 엄엄한 자세로 통로를 걸어왔다.
우마는 일시에 숨이 멎어버리는것만 같았다.
대장군이 노예군앞에 놓인 저 높은 대우에 올라 내 목을 치라 입만 열면 자기 인생은 영원히 마지막파멸의 길일것이다.
별로 그리 생각할 일은 없었지만 늘 가슴속깊이에 노예라는 타성이 모든 희망의 분출을 억제해버리군하는것이였다.
이 세상 력사 수천만년에 노예처럼 비참한 생명이 있었던가.

말 못하는 금수라 할지언정 제 자고싶은 보금자리가 있고 제 가고싶은 곳으로 갈수 있지 않느냐.

허나 말하는 도구인 노예만은 한생 철쇄에 묶여 힘겨운 일만을 강요당해야 한다. 그러다 피를 토하며 죽어 이름없이 땅속에 묻혀버려야 한다. 금수도 노예의 처지보다는 몇백배 더 좋고 희망의 나래라도 있는 것이 아니냐.

뭉클 걷잡을수 없는 슬픔과 비관이 우마의 가슴을 비수처럼 우비여냈다.

순간 가슴속깊이 응어리졌던 분노의 불덩이가 불쑥 머리를 쳐들었다.

(세상에 야수보다 더 악착한 주인놈들, 우리를 다치면 우리는 너희들을 갈가리 씹어삼킬테다.)

뚜벅뚜벅 엄엄한 갑옷차림의 성기는 지휘대의 나무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지휘대에 올라선 성기는 끝모르게 아득히 늘어선 노예군대오를 한눈에 굽어보더니 어깨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뒤에서 대기하고있던 시종군사가 봇나무껍질로 만든 두루마리를 성기대장군의 손에 쥐여주었다.

웅성이던 대오가 일시에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성기는 천천히 두루마리를 펼쳐들었다.

《우마두목과 노예군은 어지를 들으라.》

우마는 대앞에 나가 넙적 엎드렸고 끝없이 늘어선 노예군은 하나같이 땅우에 꿇어앉아 머리를 숙였다.

성기는 엎드린 대오를 한번 굽어보고는 어지를 내려읽었다.

《오늘부터 노예폭동군은 나라 관군의 련합군으로 되며 그의 지휘로서는 우마두목이 된다. 아울러 우마두목을 장군으로 승격시키며 호는 한결같이 부르는대로 선돌장군으로 칭한다.》

우마는 어지를 꿈속에서 들은것만 같아 그 꿈이 깨여날가 저어하듯 땅에 엎드린채 일어나지 못했다.

다음 순간 우마는 땅을 그러안으며 헉헉 흐느꼈다.

자기가 장군이 되여 기쁨을 금치 못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였다.

노예도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남들처럼 뜨거운 감정도 있고 사랑도 있으며 외적도 용감히 물리칠줄 아는 단군겨레의 인생이라는 자부에서 오는 흥분때문이였다.

우마는 벌떡 일어나 우리도 인간이라고 두팔을 흔들며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웨치고싶었다.

했으나 우마는 점점 땅으로 숙어들며 울음을 터치였다.

벅벅 땅을 허비며 몸부림쳤다.

노예들도 일어날줄 모르고 울음을 터쳐 온 금나수는 뜻하지 않는 울음의 바다속에 잠겨버리고말았다.

《선돌장군, 그만하고 일어나오. 빨리 들어가 우리가 가져온 장군복을 입고 부하들앞에 나서보오. 모두 기뻐할것이요.》

성기는 우마의 팔을 잡아 일으켜세웠다.

우마를 부축해 그의 방으로 들어간 성기는 우마의 머리에 동인 흰수건을 풀어버렸다.

《자, 관복을 입혀라.》

성기는 자기가 데려온 군사들에게 령했다.

번쩍이는 청동갑옷과 투구, 창과 방패를 들고 군사들이 달려왔다.

성기는 한쪽옆에 물러서서 만족한 웃음속에 관복을 차리는 우마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선돌장군 나옵신다.》

선돌장군을 앞세우고 나오던 관군군사가 노예군대렬앞에 달려나가 큰 소리로 웨쳐댔다.

노예군들이 정중히 꿇어앉아 하나같이 머리를 숙이였다.

선돌장군이 창과 방패를 비껴들고 지휘대우에 올라섰다.

수백편의 청동쪼각을 달아 만든 갑옷은 먼곳에서도 번쩍번쩍 희한한 빛을 뿌렸다.

선돌장군은 방패와 창을 높이 쳐들고 련합군을 향해 흔들어댔다.

하늘땅을 진감하는 환호성이 터졌다.

그처럼 정연하던 대오가 일시에 흩어져 밀물처럼 지휘대를 향해 밀려왔다.

모두들 자기의 장군을 가까이에서 보고싶었고 손으로 만져보고싶었다.

선돌장군은 웅성거리고 웨쳐대는 군중을 향해 창과 방패를 흔들어댔다.

어느덧 선돌장군은 벌떼속에 싸인 왕벌처럼 부하들속에 잠겨버리고 말았다.

《장군, 어서 령하오이다. 오늘의 기쁨을 축하해서 군사경기와 사냥경

기를 조직해야 하지 않겠소이까. 저녁에는 큰 연회를 베푸오이다.》
성기는 장군이 아니라 련합군의 한개 군사가 된 심정으로 즐겁게 웃으며 선돌장군에게 말했다.
선돌장군이 씽긋이 웃더니 군사들에게 큰소리로 선포했다.
《오늘의 이 경사를 축하해서 사냥경기와 군사경기를 조직하겠노라. 먼저 군사경기를 시작하되 관구별로 겨루기를 하여라. 군사경기가 끝나면 곧 사냥경기로 들어갈것인바 잡은 짐승들을 가지고 저녁에 대연회를 차릴지어다.》
군사들이 창과 과, 도끼와 손에 든 활들을 높이 쳐들고 흔들며 호응의 환호를 터치였다.
수천의 창들이 부딪치는 소리와 기쁨의 환성이 온 금나수를 진동했다.
금나수의 넓은 공지에서는 무술경기가 진행되였다.
창겨루기, 도끼치기, 과찌르기에 맨손을 가지고 진행하는 택견과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가는 힘겨루기, 바줄던지기와 단검쓰기, 말을 타고 진행하는 창찌르기와 활쏘기…
실로 쉽없이 바뀌우는 종목에는 끝이 없는듯싶었다.
선돌장군과 함께 차일안에 가지런히 앉은 성기는 줄곧 만족하여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 훌륭한 교련을 누가 줬소이까?》
성기장군이 놀랍게 물었다.
모든 측면이 관군과 못지 않았고 어떤것은 훨씬 릉가하는것도 많았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나인교련두목이 있소이다.》
선돌장군이 자랑스럽게 웃음을 지었다.
《그럼 이 훌륭한 병법들과 겨루기를 나인이 가르쳐줬단 말이오이까?》
성기는 대번에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런 훌륭한 교련두목이 있다니 놀라지 않을수 없소이다.
한번 교련두목을 만나봤으면 하오이다.》
한껏 호기심이 동한 성기는 선돌장군에게 제의했다.
《그거야 뭐 어려울게 있겠소이까.》
선돌장군이 날승을 불렀다.
《어데 있는지 교련두목을 찾아 빨리 여기로 불러올지어다.》
령을 받은 날승이 번개같이 사라졌다.
좀 시간이 경과해 날승부두목이 빈 몸으로 돌아왔다.

《가까이에 있었다 하온데 아무리 찾아도 없소이다.》
《계속 찾도록 해라.》
선돌장군은 날승을 다시 되돌려보냈다.
《그 훌륭한 교련두목을 어디서 얻었소이까?》
성기는 호기심을 지우지 못한채 선돌장군에게 물었다.
《대장군께서도 아실것이오이다. 왕검성 참의 딸인 나리라는 나인이온데…》
《아니 뭐라구?! 지금 뭐라고 했소이까?》
성기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선돌장군은 자기가 말을 잘못했는가싶어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귀마산에서 검은 복면 비적들에게 잡혀가는걸 구원해가지고 왔소이다.》
《그게 사실이오이까?》
성기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지 얼이 나가 창백해진 얼굴로 되물었다.
《누구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소이까.》
성기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대장군, 몸이 불편하오이까?》
선돌장군은 깜짝 놀라 물었다.
안절부절 못하는 대장군을 보느라니 불안스러워 더 마음이 씌여졌다.
《아무 일 아니오이다. 장군, 좀 답답해서 혼자 바람이나 쏘일가 하나이다.》
성기는 자기 말을 잡아타고 향방없이 채찍을 휘둘렀다.
달리던 말이 멎어선곳은 노예군의 교련장이였다.
성기는 낯익은곳인듯 류다른 눈으로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산으로 밋밋이 뻗어올라간 기마훈련길은 너무도 많이 달려 마치 다섯채가 동시에 지나갈듯 넓게 다져졌고 창터의 통나무들은 너무도 창에 찍혀 성한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공중에 매단 활목표는 화살이 너무도 뚫고나가 벌둥지처럼 숭숭했다.
성기는 가슴이 뭉클하며 눈굽이 쩌릿해왔다.
저토록 노예군을 교련시키려니 나약한 나인이 힘인들 얼마나 들었으랴.
훈련장의 짓이겨진 풀포기 하나에도 나리의 손길이 스며있고 숨결이 배여있는것만 같아 소중했다.

말에서 뛰여내린 성기는 창에 찢겨 만신창이 된 통나무를 소중하게 쓸어보았다.
그런가 하면 나리의 귀중한 발자욱이 찍혔을 땅에 주저앉아 먼지이는 땅도 어루만졌다.
가슴이 확 달아오르며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하였다. 뭉클 나리에 대한 그리움이 못견디게 솟구쳐올랐다.
이제 나리와 만나게 될 행복감에 가슴이 걷잡을수없이 드설레였다.
(아, 나리가 여기 와있었단말인가. 내 그대를 얼마나 그리워했다고, 그대만을 기다려온 이 억센 사나이의 그 뜨거운 심중을 그대는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나 헤아릴수 있을가.)
성기는 저혼자 통쾌하게 웃으며 노예들의 말발굽이 수천인지, 수만인지 헤아릴수없이 지나쳐간 그 땅우에 벌렁 누워 팔베개를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딱딱하고 먼지투성이인 땅이 비단을 깐 포단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드넓은 하늘은 자신을 위해 펼쳐진듯 아름다움을 그 어데 비길데 없었다.
(아, 세상은 이처럼 아름답고 이토록 부드럽단말이냐.)
피가 뛰는 전장에서 언제 한번 안온한 생각에 잠길 시간이 없었던 대장군은 어데서 찾아오는지 모를 크나큰 행복감에 가슴만 들먹이였다.
또깍또깍 어디선가 굳은 땅을 밟는 말발굽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왔다.
(어느 노예가 지나가고있을테지.)
성기는 움직이고싶지 않았다.
이 행복의 마음을 오래도록 깨치고싶지 않았다.
뚜걱뚜걱 가까이 오는듯싶던 말발굽소리가 뚝 멎어버렸다.
(누굴가? 혹시 선돌장군이 나를 찾아온것이 아닐가?!)
성기는 천천히 눈을 떠보았다.
눈처럼 하얀 백마우에 올라앉은 아릿다운 나인이 눈앞에 안겨왔다.
함함하게 흘러내린 칠흑같은 머리채,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낯익은 그 부드러운 눈길.
성기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나리—》
성기는 정신없이 부르짖었다.
《그동안 옥체에 별일 없었소이까.》

나리가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순간 성기는 가슴이 선뜩했다.
(나리의 얼굴에 왜 구슬픈 웃음이 피여나는것일가?)
다음순간 그 의혹을 짓누르며 뜨거운 정이 화산마냥 솟구쳐올랐다.
《나리, 어쩌면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소식 하나 전하지 않았소이까. 아, 내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나리의 모습 떠난적 없었소이다.》
그처럼 부드럽던 나리의 얼굴에 노여움이 짙게 어려있었다.
《소녀를 우롱하지 마시오이다. 대장군, 앞으로 길이길이 행복하길 바라오이다.》
나리가 갑자기 노호한 빛을 띠우며 백마를 돌려세웠다.
《이랴!》
나리가 세차게 말고삐를 잡아채는바람에 순한 백마가 앞발을 공중높이 쳐들며 노호한 울부짖음을 지르다가 질풍같이 앞으로 내달았다.
《아, 나리 어딜 가는거요. 나리—》
성기는 말에 오르며 정신없이 부르짖었다.
《나리, 서오. 나리—》
성기는 최대의 힘을 내여 나리의 백마를 따랐다.
허나 무정한 백마는 엉켜진 수림속으로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고말았다.
나리는 성기와 이렇게 리별했다.

검은 복면의 유령

1

련합군이 이루어진 후 선돌장군이 진행한 첫일은 《검은 복면》 비적을 포섭하는 일이였다.
《검은 복면》비적들을 포섭하면 그 령활하고 드세찬 기질로 적들의 무리속에 들어가 혼란과 공포를 줄수 있고 놈들의 그 어떤 행동도 순간에 막아버릴수 있었다.

《검은 복면》비적단의 무리가 얼마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수백으로 추정되고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눈으로 본 사람이 없다.
나라를 사수하기 위해 모든 력량을 외적소멸에 돌려야 하는 이때 우마나 성기가 이것을 놓칠리 없었다.
그래서 《검은 복면》비적단을 포섭하여 외적소멸에 쓸데 대한 문제를 극비밀리로 합의하고 실천에 옮겼던것이다.
성기대장군과 선돌장군은 《검은 복면》비적단을 능히 포섭할수 있다고 생각했다.
《검은 복면》비적단이라는것이 표현은 야만적이였지만 노예나 하층평민들로 구성되고 노예나 평민들을 해하는 일은 전혀 없고 궁지에 빠진 노예들이나 평민들을 오히려 구해준 일이 허다하였다.
비적단이라는 상스럽지 못한 칭호는 《검은 복면》과 관련된 말인듯했다.
항간에 돌아가는 말이 《검은 복면》은 구척장신의 악한으로서 머리우에 한개의 무시무시한 뿔이 돋았는데 그것을 감추느라 사시장철 복면을 벗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이 얼마만한 신빙성을 가지고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들의 행동이나 정신을 보면 능히 쟁취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문제는 그들과 접촉을 이룩하는것이였다.
선돌장군부대는 《검은 복면》과 이러저러한 계기에 무려 대여섯번씩 맞다들렸으나 그때마다 번개같이 사라지거나 감쪽같이 종적을 감추어 한번도 접촉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던중 날승부두령의 애타는 노력으로 《검은 복면》놈들을 사로잡을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되였다.
날승부두령은 민간의 소문을 통하여 2～3일내로 《검은 복면》비적단이 오지락 소읍의 악질주인놈을 치러 내려온다는 믿음직한 통보를 걷어쥐게 되였다.
《검은 복면》집단이 소읍이나 읍락을 치기전에 반드시 엿보기가 활약하는데 그 엿보기들은 대개 쳐들어올 길을 탐문하고 읍락의 형편, 주인놈들의 경계와 가병무력과 그 활약정도를 알아내여간다는것이였다.
그 엿보기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대개가 지나가는 길손으로 가장하거나 장사치, 사냥군, 나무군으로 변신하고 행동하는데 그 솜씨가 어

찌나 세련됐는지 조만해서는 그 간자들을 식별해내기 힘들다는것이였다.
한 읍락에 눈치가 빠르고 사람들을 가려보기 잘하는 민이 있었다. 어느날 그는 마을앞을 오가는 이상한 길손을 만났는데 그의 눈밑에 있는 김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여기서 멀지 않는 한 소읍이 습격당할 때 왔던 그 사람이였던것이다. 민은 숲속에 몸을 숨기고 낯선 길손의 행동을 주시했다.
길손은 자연스럽게 악질주인의 집과 형편을 알아가지고 숲속길로 사라졌다. 민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보다도 순수 흥미거리로 길손의 뒤를 따라갔다. 길손은 숲속에 감추어두었던 말을 타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민은 소읍으로 들어와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머지 않아 악질주인놈의 집이 녹아난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 소문이 온 마을에 쫘악— 퍼진 형편이였다.
이것을 소읍에 볼일 있어 내려왔던 날승이 들었던것이다.
서른명으로 무어진 선돌장군의 정예군이 《검은 복면》이 나타날 길역에 매복했다. 그뒤에는 깊숙한 함정을 파고 위장해놓았는데 만약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걸 피해 내려오는 경우 날랜 서른명의 용병들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비적들을 사로잡을 작정이였다.
선돌장군의 추측대로 드디여 길목에 《검은 복면》이 나타났다.
류달리 크고 억세여보이는 가라말이 앞에 섰는데 그 말우에는 보기만해도 무시무시한 《검은 복면》이 앉아있었다.
《검은 복면》량옆으로 심복들인듯한 구척장신의 장사들이 섰는데 보기만해도 겁에 질릴만한 모색의 사나이들이였다.
그뒤로는 열다섯명가량의 비적들이 따라오고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날래보이는 사람들이였다.
《검은 복면》은 매복의 눈치를 전혀 감촉 못했는지 마음놓고 길을 따라 내려오고있었다.
선돌장군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말고삐를 단단히 그러쥐였다. 여차직하면 달려나갈 자세였다.
갑자기 자지러진 휘파람소리가 울리더니 《검은 복면》의 대오가 일제히 멎어섰다.
무슨 낌새를 느꼈는지 대오속에서 눈밑에 검은 김이 있는 비적이 앞으로 나서 자기들의 갈 길을 살폈다.

자기가 정찰할 때와 달라진 길의 모색을 알아본 모양이였다.

《함정이다!》

《눈밀의 김》이 고함을 질렀다.

선돌장군이 말의 고삐를 채려는데 《검은 복면》은 어느새 돌아서 숲속으로 번개같이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서른명의 정예군들이 그들의 뒤를 밟으며 수림속을 샅샅이 뒤졌으나 《검은 복면》의 소부대는 어디로 갔는지 그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선돌장군은 헛물을 켜고 허전한 마음으로 금나수로 돌아오고말았다.

그런데 《검은 복면》의 형세를 알아보러 나갔던 엿보기두목 돌치가 사흘만에 나타나 환성 지를만한 소식을 물고 들어왔다.

끝내 《검은 복면》의 근거지를 발견했던것이다.

선돌장군은 즉시 출동령을 내렸다.

온 금나수가 벅적 끓어대였다.

선돌장군은 300명의 잘 준비된 군사를 이끌고 근거지로 출동하고 날승과 구두막은 각각 2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멀리서 《검은 복면》의 근거지를 포위하게 했다.

교련두목은 예비군을 준비시켜 만단의 출동준비를 갖추고 금나수에서 대기했다.

엄엄한 대오를 짜가지고 나가는 선돌장군대오앞에는 날파람있는 돌치가 서서 길안내를 했다.

금나수에서 100여리나 떨어진 험산의 오지속에 박힌 《검은 복면》의 근거지는 날짐승도 드나들기 힘든 묘한곳에 틀고앉았다.

길목만 막으면 독안의 쥐신세가 되는 판국이였다.

확신에 넘친 선돌장군은 버쩍 승이 올라 말에 박차를 가했다.

선돌장군은 부하들을 자기 곁으로 불러 몇번씩이나 충돌을 피하고 살륙을 피하되 과감한 행동으로 상대로 하여금 위압을 느끼게 한 다음 담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의를 주었다.

《알겠소이다.》

부하들은 사기가 올라 우렁차게 대답했다.

온 대오가 승전의 기세로 흥성거렸다.

오지로 들어가는 길은 점점 좁아졌다.

척후로부터 갑자기 선돌장군에게 정황보고가 들어왔다. 앞에 비적들의

초막 하나가 있고 그속에서 비적 한놈이 나와 골짜기쪽으로 말을 타고 황급히 달아났다는것이였다.
그 비적이 저들의 근거지에 정황을 알리려고 사라졌다는것을 간파한 선돌장군은 최대속력으로 진격해들어갈것을 령했다.
비적들이 련락을 받고 정신을 차리기전에 근거지를 틀어쥘 결심이였다.
아무런 저항도 받음이 없이 선돌장군의 정예군들이 번개같이 《검은 복면》의 근거지에 돌입했다.
산기슭을 따라 줄지어 들어앉은 움막들이 나타났다.
움막앞으로는 넓은 공지가 펼쳐져있었다. 말발굽에 수없이 짓밟혀 풀 한오리 돋지 못한것으로 보아 비적들의 교련장이 틀림없었다.
허나 이상하게도 주위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골짜기 마지막끝에 이르러서 선돌장군은 자기들의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다는것을 느꼈다.
비적들은 어느새 모래우에 쏟아부은 물처럼 감쪽같이 빠져나갔던것이다.
어느새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그것은 실로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였다.
선돌장군은 기지를 수색할 령을 내렸다.
손쉽게 지은 220개정도의 초막을 발견하였다. 락엽이 푹신하게 깔린 초막 하나에서는 비적 열명정도가 숙영했을것으로 추측되였다.
방금까지 사람이 있었던것 같았다. 초막에는 얼마나 급하게 자리를 떴는지 창이나 활, 단검따위가 그대로 남아있는가 하면 먹다남은 음식까지 있는 초막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마구간에서 갓 낳은 망아지들이 그대로 남아 구슬프게 울어대는가 하면 커다랗게 지어놓은 풀막창고안에는 많은 식량들과 주인놈들에게 빼앗아온 금은붙이와 각종 옥, 청동제품, 비단과 가죽가공품들이 쌓여있었다.
그것들로는 주로 병쟁기들을 구해오는것 같았다.
선돌장군은 초막의 개수를 가지고 비적 2천여명정도가 숙영했다는것을 짐작했다.
마구간의 크기로 가늠해봐도 그만한 수였다.
그런데 그 많은 비적이 어느새 어디로 빠졌는지 수수께끼였다.
선돌장군은 마지막에야 숙영지를 가로질러 내려가는 작은 내물아래로 넓게 열린 골짜기를 발견했다.

앞에 무성한 나무들로 가리워져 밑까지 내려가보지 않고는 쉬이 발견할수 없는 통로였다.
그곳의 풀과 잡관목들이 모두 이지러져나가고 수없이 찍혀진 말발굽자국이 있는것으로 보아 그곳으로 수많은 인원이 빠져나간것이 틀림없었다.
《검은 복면》비적단은 금나수처럼 고정기지가 없고 위험을 피하느라고 늘 기지를 수시로 옮기며 살아간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런 묘한 근거지를 정한 《검은 복면》의 지혜와 책략이 놀랍기만 했다.
선돌장군은 《검은 복면》비적들의 근거지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놀라운것을 발견하지 않을수 없었다.
무엇때문에 2천명이 넘는 강력한 력량과 능활한 지략을 가진 비적들이 도무지 300명밖에 안되는 노예련합군을 피해 달아났는가 하는것이였다.
더구나 비적들은 이곳 지세도 잘 알고 자기들의 기지인것만큼 반격만 하면 전멸시킬수도 있지 않았는가.
머저리가 아닌 《검은 복면》이 어째서 이런 자비심을 베풀고 서서히 기지를 내주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였다.
자기의 력량이 부족했다면 일단 기지를 내주었다가 기여든 다음 독안에 든 쥐처럼 잡아치울수도 있으련만 2천이나 나마 되는 무력을 가지고 왜 이런 어리석은짓을 했는지 의혹이 갔다.
의식적으로 피해 달아난것이 틀림없었다.
맞다들린 정황은 비적들에게 유리하고 노예련합군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도 많았지만 그때에도 비적들은 접전을 피했다.
과연 이 근저에는 무엇이 놓여있을가?
《검은 복면》비적단은 참으로 수수께끼같은 존재였다.

2

《검은 복면》과 접촉하려다 실패한 선돌장군은 금나수기지로 돌아왔다.
선돌장군의 마음은 허전하고 설렁해졌다.
《검은 복면》비적들이 접전을 피하고 저렇게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쉬

이 접촉이 이루어질것 같지 않았다.
(과연《검은 복면》은 어떤 존재일가?!)
선돌장군은 새로운 작전을 꾸미기전에는 《검은 복면》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단말인가.
벌써 보름전부터 오랑캐들이 또다시 새일경에 무력을 집결하고있다는 소문이 돌아 선돌장군은 불안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만약 경우에 관군이 북쪽새를 막아내지 못하면 새를 넘어 왕검성으로 쓸어드는 오랑캐를 막아야 하는데 노예군만으로는 힘에 부쳤다.
그런만큼 선돌장군은 《검은 복면》비적단의 힘을 크게 믿을수밖에 없었다.
고민에 빠져 타개책을 모색하는 선돌장군에게 뜻하지 않은 소식이 닥쳐들었다.
관군이 끝내 새를 지켜내지 못하여 오랑캐군은 벌써 새를 넘어 밀물처럼 쓸어든다는것이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오랑캐의 세개 부대는 왕검성으로 밀려올라가고 한개 부대는 금나수로 밀려와 벌써 포위를 시작하였다는것이였다.
오랑캐가 어떻게 금나수위치를 알았는지 선돌장군은 도저히 의혹을 풀수 없었다. 금나수로 오는 길은 오직 파발군 날파리와 성기장군, 그의 수하 몇몇 대장들밖에 모른다. 그럼 그 사람들속에 오랑캐와 통하는 간자가 있단말인가?!
선돌장군은 가슴이 선뜩했다.
왕검성과의 련계가 끊어진 선돌장군은 어떻게 하나 포위진을 뚫고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였다.
선돌장군 우마는 즉시 작전모임을 열어 부두목들과 시위대장들을 불러들였다.
작전회의장은 기가 죽어 설렁하기 그지없었다.
작전회의가 시작된지 이슥했으나 어느 누구도 선뜻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도무지 묘책이 나지 않았다.
이윽해서 교련두목이 일어섰다.
《이렇게 있다간 죽는 길밖에 없소이다. 어떻게 하나 우리는 금나수를 빠져 전장으로 출전해야 하나이다.》

나리가 갈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옳은 말이오이다. 그러나 빠져나갈 길이 묘연하오이다. 오직 한길이 있다는것은 금나수뒤쪽을 막아선 가파로운 산을 넘는것인데 그 길로는 말들이 움직일수 없소이다. 말없이 맨몸으로 말을 타고 달려드는 오랑캐를 막기는 쉽지 않소이다.》
구두막이 한숨을 지으며 토설했다.
《그럴것없이 내가 금나수를 빠져 왕검성으로 들어가겠소이다. 왕검성에 가서 이 실태를 성기대장군에게 아뢰이고 그곳의 힘을 빌리는것이 어떻소이까?》
돌치가 자기 안을 내놓았다.
《성기대장군의 무력으로 왕검성을 방위하기도 힘에 부치는데 그건 안되오이다.
오직 타개할 방법은 우리가 진펄을 건너 포위망을 뚫는 길이오이다.》
나리가 돌치의 안을 반대해나섰다.
《교련두목의 말이 옳소이다. 오직 포위환을 뚫는 길이 가장 현명한 방책이오이다.》
선돌장군이 확신성있게 입을 열었다.
《진펄에서 적들과 접전할 방책이 하나 있소이다.》
날승이 흥분하여 입을 열었다.
모두의 눈길은 기대를 안고 날승에게 쏠리였다.
《방책을 말해보라.》
선돌장군이 독촉했다.
《진펄중간에 수림지대가 있소이다. 그 지대는 남쪽으로 거의 7천보가량 길게 놓여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붙어 금나수밖의 오랑캐에게 타격을 가해야 하나이다.》
날승의 말이 떨어지자 모두들 흥분에 들떠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그 길이 가장 옳은 방책이였기때문이다.
진펄의 수림지대로 들어가는것은 통나무들을 겹겹이 찍어 눕혀놓고 가면 되였다.
수림지대에서의 접전－그것은 오랑캐들에게 뜻하지 않은 놀라움을 줄수 있었고 형세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킬수 있었다.
작전회의가 끝나기 바쁘게 수림지대로 진출하는 전투가 벌어졌다.
열이 오른 금나수의 노예련합군들이 힘을 합쳐 한덩어리로 떨쳐나서니

수림지대로 건너가는 통나무길은 쉽게 열렸다.
금나수에 서서히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일체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있던 노예련합군들이 어둠이 깃들기 바쁘게 수림으로 뻗은 나무다리를 은밀하게 건넜다.
수림을 행군하여 맞은켠에 이르렀다.
모닥불을 피우고 법석대는 오랑캐들의 몰골이 손에 잡힐듯이 바라보였다.
불화살을 재우고 령을 기다리고있던 노예군들이 선돌장군의 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일제히 적진을 향해 불화살을 날렸다.
적진은 일시에 불바다로 화하고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모닥불을 둘러싸고있거나 여기저기 해이되여 늘어져있던 오랑캐들은 그 자리에서 송장으로 꽛꽛이 굳어지고말았다.
때늦게야 정신을 차린 오랑캐들이 력량을 수습해가지고 노예군들을 맞받아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그러나 노예군과 자기들사이에 진펄이 누워있는것을 미처 생각할새 없었던 적들은 달려드는 즉시로 진펄에 빠져들어가 꼴깍꼴깍 잠겨버렸다.
뒤의 놈들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냅다 밀고나오다가 진펄귀신이 되여버렸다.
뒤늦게야 자기들의 비극을 간파한 오랑캐두목놈이 진펄이라고 소리를 치며 밀려드는 오랑캐들을 가로막아나섰다.
정신없이 밀려들던 오랑캐들이 진펄앞에서 왕벌잃은 벌떼처럼 아우성을 지르며 뒤섞여 돌아갔다.
그야말로 볼만한 장면이였다.
바로 그 순간 하늘땅을 뒤집어엎는것 같은 일이 벌어졌다. 놈들의 뒤쪽에서 함성이 터지면서 불화살들이 비오듯 날아왔다. 헤아릴수 없는 군사들이 번개같이 덮쳐들자 오랑캐들은 얼이 나가 갈팡질팡하였다.
《대장군이 왔다!》
노예군속에서 멋모르는 환성이 터졌다.
《빨리 나무를 찍어 다리를 놓으라.》
선돌장군이 벼락같은 소리로 령을 내렸다.
여기저기서 도끼소리가 들리고 나무들이 넘어지는 우직끈지끈하는 소리가 밤공기를 흔들었다.

일시에 륙지와 나무다리가 이어지고 노예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륙지로 진격해나갔다.
륙지에서는 이미 치렬한 싸움이 지나간듯 오랑캐의 시체들과 병쟁기들, 죽은 말들만 더미로 쌓여있었다. 전장의 여기저기에서 불길이 솟구치며 연기가 피여오르고있었다.
선돌장군은 눈이 휘둥그래서 불길속에 휩싸인 전장을 휘둘러보았다.
(과연 어떤 군사들이 오랑캐를 녹여냈을가?!)
너무도 놀라운 광경이였다.
휩쓸어낸 전장으로 보아선 보통군사들이 아닌것 같았다.
(과연 어떤 군사들이 이 반격의 통로를 열어주고 사라졌을가? 정말 성기대장군의 정예군이 아닐가?)
꿈만 같은 일이였다.
선돌장군은 대오를 편성해가지고 서쪽으로 밀려나가는 적들의 앞을 막았다. 허둥지둥 도망치던 오랑캐들은 선돌장군의 노예군과 부딪쳐 무리죽음을 내고 뿔뿔이 도망쳐갔다.
그 놀라운 전승의 소식은 그날로 왕검성으로 날아들었고 온 고조선일판을 뒤흔들어놓았다.
선돌장군은 승전고 드높이 금나수로 향하였다.
머리우로 수백의 의장기가 펄럭이고 수천의 창, 과들이 번쩍이며 하늘과 땅우에 빛을 뿌렸다.
온 금나수는 승전의 기쁨에 들끓었다.
선돌장군의 승전소식을 받은 성기는 축문과 함께 새로운 령을 내려보냈다.
반격한 군사들을 찾아내라는 지시였다.
선돌장군은 대장군의 지시를 받고 난감해했다.
전투를 끝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고 사라진 무리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던것이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그 반격의 군사들을 어디 가서 찾아낸단말인가.
선돌장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그림자가 자기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 그림자가 금나수를 노리고있는것이나 아닌지…

3

선돌장군이 그토록 우려하던 그날은 오고야말았다.

미리 치워버리지 못한 진펄속수림의 그 나무다리를 타고 정체모를 천명도 넘는 유령부대가 덮쳐들었던것이다.

금나수가 깊은 잠에 빠진 3경쯤 해서 수림속 교두보를 지키는 군사들을 감쪽같이 생포하여 가두어놓고 누구도 모르게 유령부대가 교두보를 넘어 금나수를 타고앉았던것이다.

뒤늦게 파수들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선돌장군은 깜짝 놀라 서둘러 무장을 갖추기 시작했다.

《빨리 부두목들에게 령하여 적들을 포위케 하라.》

선돌장군이 신하에게 령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기 바쁘게 망루에 올라선 선돌장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홰불을 추켜든 군사들이 지휘옥앞공지를 가득히 메우고있었던것이다.

그 불빛속에 창을 든 군사들의 얼굴이 번뜩이며 비쳐왔는데 이상한것은 그들이 반격할 태세를 갖추지 않고 공손히 늘어서있는것이였다.

그들의 머리우에는 날창들만 번뜩일뿐 한개의 의장기도 보이지 않았다.

《유령부대》를 포위한 부두목들이 침착하게 《적》들을 살펴보고있는 선돌장군에게로 달려와 물었다.

《어찌된 일이오이까?》

망루에서 홰불을 추켜든 군사들의 불빛에 선돌장군의 청동갑옷이 번쩍이였다.

선돌장군은 아무말없이 정황만 살피고있었다.

파연 무슨 감투끈인지 알수 없었다.

어쨌든 상대편은 여유를 가지고 크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것은 알길이 없었다.

그러나 반격하지 않고 공손히 서있는 대오를 먼저 친다는것도 인사불성이다.

이것은 파연 무슨 계책이란말인가?

금나수수림속에 이보다 더 많은 무력이 만단의 반격태세를 갖추고

잠복해있을지 어이 알랴.
날승과 구두막, 나리와 돌치들이 자기의 장군을 호위하듯 선돌장군을 겹겹이 막아섰다.
《적》중에서 홰불을 든 군사 셋이 망루우로 올라왔다.
《장군, 우리 두령께서 담판을 요구하오이다. 응해주시기 바라오이다.》
무장들은 무릎을 꿇고앉아 아뢰였다.
《도대체 너희는 어느 무리냐?》
선돌장군이 엄하게 물었다.
《항간에서는 우리를 비적부대라 하나이다. 허나 의장기 하나 없는 우리가 무슨 부대이겠소이까.》
《뭐, 비적부대라구?》
선돌장군은 가슴이 선뜩했다.
그럼 이것이《검은 복면》의 비적단이란말인가.
부두목들도 한껏 긴장했다.
선돌장군은 큰눈을 두릿거리며 상대편 무장들을 바라보다가 《담판에 응하겠다고 너희 두령에게 일러라.》하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소이다.》
무장들이 공손히 대답하고 자기 대오로 달려갔다.
긴장한 침묵이 두 대오사이에 이어졌다.
《적》중에서 다섯명의 호위수들에게 둘러싸인 두령이 나섰다.
《장군, 〈검은 복면〉이오이다.》
구두막이 깜짝 놀라 선돌장군에게 속삭였다.
《음-》
선돌장군은 감탄인지 의혹인지 알지 못할 소리를 지르며 가까와오는 두령을 바라보았다.
호위수들이 쳐든 불빛밑에 검은 복면을 쓴 두령이 언뜻언뜻 비쳤다.
구척같은 장사호위들에게 둘러싸여 그런지 두령은 체소하고 너무도 작아보였다.
《적》두령을 뚫어지게 살피던 날승이 흥분하여 웨쳤다.
《〈검은 복면〉이 나인같소이다.》
《나인이라고?!》
선돌장군은 깜짝 놀라 흠칫 몸을 떨었다.

날승의 말을 듣고보니 《검은 복면》은 걸음걸이로 보나 체격으로 보나 틀림없는 나인이였다.
선돌장군은 일시에 허무한 감정에 빠졌다.
저 보잘것 없는 나인에게 얼려 온 나라가 경계하고 자기들이 허둥거렸다고 생각하니 허구프기 짝이 없었다.
그러는새에 《검은 복면》이 층계를 타고 망루에 올라섰다.
《검은 복면》은 곧바로 선돌장군앞에 이르러 엎어지듯 무릎을 꿇더니 깊이 머리를 숙였다.
《장군, 그간 귀체건강하셨소이까?》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검은 복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있는듯 했다.
《?…》
선돌장군은 마치 그 어떤 유령에게 홀린듯이 아연해졌다.
《장군, 나의 군사 2천 7백을 장군께 바치오이다. 천오백은 지금 나의 기지 오덕수수림속에 남아있소이다.》
《아, 그렇소이까. 어서 일어나오이다. 두령.》
선돌장군은 당황한듯 서둘러 입을 열었다.
허나 두령은 좀처럼 일어서려 하지 않았다.
조용히 어깨가 떠는것으로 보아 흐느끼고있는듯 했다.
《두령이 이러하오면 나는 어쩌라는거요. 자, 어서 일어나 자세한 이야기나 하시오이다.》
왜 그런지 선돌장군은 가슴이 뭉클 저려들어 말끝을 얼버무렸다.
《장군, 담판자리가 마련됐소이다.》
시종이 달려와 선돌장군에게 일렀다.
《자, 약소하나마 방으로 들어가시오이다.》
선돌장군이 권했다.
그때에야 《검은 복면》은 마지 못해 일어나 선돌장군을 따라나섰다.
지휘옥안에 꾸려진 소박한 회담장에 선돌장군과 《검은 복면》이 마주 앉고 그 주위에 선돌장군측의 부두목들과 《검은 복면》측의 호위수들이 앉았다.
《두령, 한가지 묻겠으니 진심으로 말해주기 바라오이다.》
선돌장군이 먼저 말을 뗐다.
《기꺼이 응하겠소이다.》

《검은 복면》이 선돌장군앞에 또다시 머리를 숙였다.

《수림지대에서 오랑캐와 접전했을 때 우리를 도와준 군사들이 두령의 군사들이였소이까?》

《그렇소이다. 오랑캐들이 금나수를 포위하기에 우리는 놈들을 쳐부실 계책으로 수림속에 몸을 숨기고있었소이다.》

《그처럼 떳떳한 부대인데 무엇때문에 유령처럼 숨어다녔소이까?》

선돌장군이 의혹을 품고 물었다.

《이 세상에 버림받은 인생들과 비천한 노예들로 이루어진 우리가 무엇이 떳떳해 머리를 쳐들고 나서겠소이까. 그래서 우리를 못살게 구는 주인야만들에 대한 복수심을 안고 칼을 갈았소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놈들을 없애고 우리가 먹고 사는것외에 더 바란것이 없었소이다.》

《그러하오면 왜 금나수의 오랑캐들을 쳤소이까?》

선돌장군이 또 물었다.

《선돌장군도 우리와 같은 노예출신이온데 나라를 침노한 오랑캐를 쳐부시며 전승을 올리는것을 보고 우리는 생각이 많았소이다. 우리 부대도 살길 없고 죽음의 고비에 이른 불쌍한 인생들이 나를 믿고 여기저기에서 찾아와 큰 무리를 이루었거늘 비록 의장기 없는 무리오나 어찌 선돌장군처럼 싸우지 못할가 자책했소이다.》

《어허, 그랬소이까.》

선돌장군이 감탄하여 탄성을 질렀다.

《그리하여 비록 늦은 감은 있어도 태를 묻은 이 땅을 지켜 선돌장군부대와 합심함이 옳은 길이라 우리의 부두령들이 일치하게 의사를 합쳐주었소이다.》

《과시 훌륭한 부대오이다.》

선돌장군은 감탄하여 머리를 끄덕이였다.

진지하게 이루어진 담판은 성과적으로 끝났다.

자기 량측의 합의를 성기대장군에게 전하여 우거왕의 어지를 받기로 결정이 되였다.

《아침음식이 준비되였소이다. 어서들 가시오이다. 》

부하가 와서 공손히 일렀다.

《얘들아, 군졸들의 아침은 어찌 되였느뇨?》

선돌장군이 근심이 들어 부하들에게 물었다.

《손님대접은 후하게 하고있으니 장군, 근심말아주오이다.》
나리부두목이 얼굴에 함뿍 웃음을 담고 선돌장군을 안심시켰다.
《그럼 마음이 놓이노라. 두령, 어서 가십시다. 보잘것 없는 음식이오이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기를 바라오이다.》
두령은 자리를 일려 하지 않았다.
《두령, 우리에게 의견이라도 있는게 아니오이까?》
선돌장군이 놀라 물었다.
《아니오이다. 절대 그런게 아니오이다. 다만 나는 여직 남과 함께 식사해본 례가 없소이다. 장군, 량해해주사이다.》
《두령, 무슨 말을 그리하오이까. 우리가 실책했소이다. 두령의 식사를 따로 차리지 못한 우리의 죄가 크오이다.》
두령은 당황한듯 휘휘 손을 내저으며 어찌할줄 몰라했다.
《장군은 오해하고있소이다. 전 장군과 함께 조용히 나눌 이야기가 있소이다. 외인들은 없게 해주시면 고맙겠소이다.》
《그야 힘들겠소이까. 저의 지휘옥으로 가십시다. 루추한 방이오나 조용하오이다.》
《검은 복면》은 선돌장군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방에 두목과 함께 마주앉으니 선돌장군은 야릇한 심정에 휩싸였다.
그처럼 전국에 자자한 구척장신이라는 《검은 복면》두령이 이처럼 소박하고 인정미마저 느껴지는 나약한 나인이라는것이 아무리 리해할래야 리해할수가 없었다.
비록 겉은 보잘것 없는 나인이나 그뒤에 무서운 마술이 웅크리고앉아 선돌장군을 노리고있는지 어이 알랴.
허나 선돌장군은 그 의혹을 애써 털어버렸다.
왜 그런지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두령, 두령은 어찌 복면을 쓰고다니오이까? 나인이라는것이 나타나면 부하들이 업수이 여겨 받들지 않을가 겁내는것은 아니오이까?》
《그런것은 아니오이다. 한번도 복면을 벗은적이 없었소이다. 또 한생을 벗지 않기로 결심했소이다.》
《허나 왜 그런지 한번만이라도 두령의 아릿다운 얼굴을 보고싶소이다.》
선돌장군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청아한 웃음이 온 방안을 뒤흔들

었다.
어찌나 그 웃음이 시원하고 아름다운지 선돌장군은 자기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참으로 우습소이다. 어찌 제 얼굴이 아름답다 생각했소이까.》
《옳은것을 위해 싸우는 두령이오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이까.》
그 소리에 두령은 흑— 흐느끼며 머리를 떨구었다.
《두령, 내가 실례의 말을 한것이 아니오이까?》
선돌장군은 당황하여 어찌할줄 몰랐다.
《아니오이다. 아니오이다. 내가 왜 장군앞에서 복면을 벗지 못하겠소이까. 이제부터 영원히 복면을 쓰지 않겠소이다.》
두령은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복면을 밑으로부터 우로 단칼에 북-찢어버렸다.
선돌장군의 눈앞에는 미간우에서부터 밑으로 험상스러운 칼자리가 난 나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아—》
선돌장군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바위처럼 굳어져버렸다.
그의 눈앞에는 너무도 낯익은 얼굴이 드러났던것이다.
《소부루—》
선돌장군은 우들우들 떨리는 손을 뻗쳐들며 넋없이 부르짖었다.
《아, 우마!》
우마에게 안기려던 소부루가 돌아서며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소부루—》
선돌장군이 정신없이 다가가 소부루를 부둥켜안았다.
《소부루, 이게 어찌된 일이요, 이게.》
《우마—》
소부루는 파고들듯이 우마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가냘픈 어깨를 떨었다.
우마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검은 머리 하나 없이 하얗게 희여버린 소부루의 머리칼을 쓸어만졌다.
칠흑처럼 윤기돌던 그 검은 머리는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사나이의 억센 손이 소부루의 하얀 머리우에서 부르르 떨었다.
《우마, 소부루는 한생 이 가슴에 우마만을 안고…》
흐느낌때문에 소부루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우마의 떨리는 손길은 아름다운 소부루의 얼굴을 무정하게 째버린 험상궂은 칼자리를 쓸어만졌다.

《소부루, 이것이 어찌된것이요?》

우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숨어있던 초막이 생각나지 않소이까?》

《눈앞에 선하오. 아버지의 시신을 안장하고 가보니 피자리만 랑자하고… 난 소부루가 어떤 알지 못할 피한들에게 잡혀죽은줄 알았소이다.》

《난 그때 그 야수들을 복수하리라 결심품고 내 단검으로 얼굴을 짼 다음 수림속에서 만났던 그 비적부대를 찾아갔댔소이다. 비적이라 하나 정의로운 사람들이라 나를 돌보아주고 위해주고 두령으로까지 받들어주었소이다.》

울음을 그친 소부루는 얼굴에 웃음을 짓고 마음속 그리움으로만 안고살던 우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상만사 이러한줄 내 검은 복면속에서 알았소이다. 내 다시는 복면이 아니라 떳떳이 이 세상의 부정과 맞서 끝까지 싸우겠소이다.》

우마는 아무 말없이 머리를 힘있게 끄덕이며 소부루를 지그시 힘을 주어 그러안았다.

금나수에 아침해발이 눈부시게 비쳐왔다.

하루밤새에 친구가 되여버린 소부루군들과 우마군들이 웃고 떠들며 한창 즐거운 식사를 벌리고있었다.

이제 이들이 헤쳐갈 파란만장의 그 길은 얼마나 피어리고 준엄할것인가.

제 4 장
아리나리에 동이 튼다

제 천 행 사

1

산과 들에는 단풍잎이 지기 시작하고 아사벌을 누렇게 물들였던 곡식들도 모두 거두어들여 풍만한 열매로 가득찼던 강산이 허전해보이였다.

그 강산을 활기로 가득 채우며 기름진 기마부대가 흐르고있었다.

500명가량 되는 선돌장군의 기마정예군이였다.

앞에는 흰판에 룡을 그린 의장기가 기운차게 날리고 하나같이 가죽으로 지은 전투복장에 창과 방패를 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했다.

거세차게 흐르는 대오의 군데군데에 번쩍이는 청동투구를 쓰고 누런

갑옷을 떨쳐입은 군사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수장(군사체계의 마지막단위 책임자)이상의 지휘군사들이다.
처음 노예군은 밑을 가죽으로 가리운 맨 몸뚱이에 까까머리를 흰 수건이나 검은 수건으로 질끈 동이고 손에 창이나 도끼, 심지어 몽둥이, 농쟁기 등을 든 무질서해보이는 무리였다.
허나 관군과 같은 정예군으로 편성된 후 선돌장군은 매개 군졸들이 가죽을 이기게 하여 군옷을 지어입히고 군사의 사명에 따라 창이나 도끼, 활 등으로 무장하게 하였다. 그 장엄함은 관군에 비길바가 못되였다.
수장급이상 지휘관들은 청동으로 갑옷을 지어입혀 관등급이 뚜렷이 표시되게 하였다.
대오의 맨 앞장에는 붉은색으로 된 장수의장기를 세웠다.
들꽃들이 어우러 피여난 넓은 초원에 1백보폭으로 렬을 지어 달리는데 말발굽소리와 투레질소리, 장구들이 부딪치는 소리로 소란했다.
맨 앞장에 선 선돌장군이 번쩍이는 눈길을 들어 뒤따르는 대오를 굽어보더니 초원이 쩡하게 울리는 우렁찬 소리로 령을 주었다.
《어째 무리가 조용한가. 넓고 큰길을 노래로 열어라.》
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선창이 노래를 떼였다.

나가자 나가자
아리나리 나가자

선창을 떼자 앞대오가

에헤이 에헤이
활개치며 나가자

하고 한결같이 따라불렀다.
노래는 뒤대오로 퍼져 거기에 온 부대가 소리를 합쳤다.

뫼넘어 물이요
물건너 뫼로다
에헤이 에헤이
활개치며 나가자

예서도 손잡고
제서도 반기네
에헤이 에헤이
활개치며 나가자

대오는 백배 힘이 용솟는듯 격류처럼 초원을 휩쓸고 달리는데 대오가 지나간 뒤에는 들풀이 밟히고 잡관목들이 납작해져 번번한 대통로가 생겨났다.

선돌장군은 대부대를 이끌고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하였다.

지금 선돌장군은 제천행사에 참가하라는 우거왕의 어지를 받고 정예군 500과 함께 왕검성으로 가는 길이였다.

그동안 끊임없이 달려드는 오랑캐들과 싸우느라 마음 편할새가 없었다.

그러던것이 관군과 노예군이 합세하여 왕검성에서 3백리 떨어진 옥수가초원전투에서 오랑캐 대족장의 정예군을 물리치고 승전기를 높이 들자 질겁한 오랑캐들이 깊숙이 기여들어가버렸다.

일시 나라가 조용해졌다.

우거왕은 이 기회에 나라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제천절을 온 나라의 범위에서 크게 지내여 오랑캐와의 싸움을 앞두고 서로의 《화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선돌장군의 부대를 왕검성에 불렀던것이다.

노예가 아닌 모든 단군겨레는 너나 할것없이 매년 이 행사에 참가한다.

선돌장군의 부대는 순수 노예들로 이루어진 부대이라 제천행사에는 해당치 않는다.

이것을 모를리 없는 왕이 제천행사에 참가하라고 선돌장군에게 어지를 떨구었으니 불안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물론 오랑캐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데 한쪽 기둥역할을 했으므로 그 공로를 높이 평하여 불렀으리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으나 선돌장군이 더우기 우려한것은 그곳에 참가한 수만명의 왕검성민들과 대신, 장군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하는 생각이였다.

비천한 노예라 멸시를 받을바치고는 안가느니만 못하다.

어지만 아니라면 이 걸음을 하지도 않았을것이다.

일단 뗀 걸음이니 당당히 왕검성으로 들어서자는 선돌장군의 배짱이

였다.
한겻이 지나 선돌장군의 정예군은 왕검성에 들어섰다.
우렁찬 노래와 장중한 군마들의 발구름으로 지축을 울리며 들어서는 선돌장군부대의 행각에 온 왕검성이 깜짝 놀라 떨쳐나서 선돌장군정예군을 놀라움과 공경속에 바라보았다.
왕검성민들은 너무도 희한하고 긍지가 넘쳐 만세의 환호성을 올리고 대오의 뒤에는 크고작은 아이들이 수백씩이나 따라다니는통에 그 대오는 더욱 활기차졌다.
구경나온 늙은이들이 감격하여 서로 머리를 끄덕이고 젊은이들은 온몸에 피가 끓어 들썩거렸다.
비참한 생활과 금수만도 못한 멸시속에 지지눌렸던 노예들의 어깨는 으쓱 올라가고 가슴속에는 바다도 안을 용단과 담이 생겨났다.
왕궁이 가까와갈수록 노예군은 군가를 높이고 발걸음소리를 맞추어 온 왕검성을 들었다놓았다.
왕은 노예군을 즉시 편전앞뜰로 들여보내라는 령을 내렸다.
왕궁을 지키던 군졸들이 쭉 갈라져 밀려나고 수백의 군사들이 밀려와 첩첩이 어깨성을 쌓고 노예정예군을 부럽게 바라보았다.
자기들처럼 제가끔 자기 집에서 베천을 다스려 지어입은 군옷이 아니라 잘 이겨진 부드러운 가죽으로 지어입은 군옷이 하나같은데 머리에 쓴 두건 역시 하나같이 일매졌다.
게다가 그들이 갖춘 무장 또한 얼마나 희한한가.
노예군이라 하여 나무창이나 도끼, 농쟁기나 쥔 오합지졸로 생각했는데 매개 군졸, 지휘관 할것없이 청동단검 하나씩 찬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에는 하나같이 창수가 서고 그옆에는 도끼수들이 섰으며 병쟁기를 든 군졸이 그뒤에 섰다.
맨뒤에는 활첩에 화살들을 만재한 활수들이 섰는데 그 위세 장엄함이 그 어데 비길데 없었다.
편전 앞뜰에 달려나와 선 우거왕이 흡족하여 늘어진 수염을 련속 내려쓸며 허허 만족한 웃음을 웃었다.
《파시 듣던바 그대로군. 선돌장군의 출두로 우리 제천행사가 활기를 가지게 됐노라.》
우거왕이 선돌부대의 양기에 사기가 올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왕옆에 나와선 장군들은 질투의 눈길로 대오의 앞장에 의장기 높이 들

고 갑옷을 번쩍이며 담가라말우에 위엄있게 올라앉은 선돌장군을 바라보았다.
참이 옆에 두눈을 뒤집고 서있는 물역대신 아달비에게 야비하게 지껄여댔다.
《저 장군허울을 써서 번쩍거리는 저놈이 허울이 저 모양이지 실은 나의 비천한 노예오이다.》
참이 큰웃음을 탕탕 치며 씹어삼킬듯 입을 씰룩거렸다.
아달비는 아무 말없이 무서운 독기가 서린 눈길을 선돌장군에게서 떼지 않았다.
《저 선돌옆에 선것이 누구이뇨?》
아달비가 옆에 붙어선 날파리에게 물었다.
《예, 날승부두목이오이다.》
《날승이라고?!》
참이 깜짝 놀라 눈을 홉떴다.
구리터노예 날승이 저렇듯 름름한 군사로 번졌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해본 참이였다.
《그옆에 선것은 구두막이고 그옆이 돌치오이다.》
《그래, 그놈들도 노예였을테지?》
아달비가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예에. 모두 한결같이 노예오이다. 그들의 뒤에 선 한 사람은 노예가 아니온데… 선사라고 선돌장군의 스승이오이다.》
《스승까지 있다더냐?》
《선돌장군이 비천한 노예라 아는것이 적어 선사가 지혜를 보태주오이다.》
날파리가 노예군의 내부형편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음, 그다음 왼쪽 선돌장군곁에 선 투구를 쓰고 창을 든 사람은 누구이뇨?》
《그게 바로 나리교련두목이오이다.》
《뭐라구?》
아달비와 참의 두눈이 동시에 휘둥그래졌다.
참은 가슴이 꽉 메여 두손이 우들우들 떨렸다.
《그럼 저년이 비천한 노예곁에 가서 졸부노릇을 했단말인고? 애비의 얼굴에 흙칠을 해도 분수가 있지. 저 육실할것…》

참은 성이 나 두발로 땅바닥을 쾅쾅 굴러댔다.

새파래진 얼굴에 코밑을 따라 량쪽으로 꼬여진 쥐꼬리수염이 바들바들 떨었다.

《그래도 여직껏 불쌍히 죽었다 애석해했는데 저년이 어찌 살아서 비천한 우마에게 넘어갔단말이냐.》

참은 노여움과 수치감을 참지 못해 펄펄 뛰였다.

《니계상어른, 마음 진정하오이다. 불을 달고도 꼬리인데 치마를 입고도 머리의 측근이면 눈이나 귀쯤은 되겠는데 어찌 상심하오이까, 호호…》

아달비가 간드러지게 웃음을 터치다가 우거왕이 곁에 있다는 자각에 입을 싸쥐고말았다.

《분명 그렇긴 하온데. 내 체면이 어찌되오이까.》

《오히려 니계상의 값이 더 오를수 있소이다. 대왕님께서 총애하는 정예군 교련두목이면 선돌장군 다음가는 직이온데 따님을 잘 리용하면 오히려…》

아달비가 뜻모를 웃음을 짓고 어정쩡해있는 참을 바라보았다.

《참은 재산가라 노리는 비적이 많을사온데 그런 드센 딸이 있다는걸 알면 감히 참어른에게 달려들지 못할줄로 아오이다.》

《그러하올가요!》

참의 입이 귀밑까지 치째져올랐다.

《그런데 참어른은 어른의 노예가 저렇게 활개치며 왕검성을 돌아치는데 아무 생각도 없소이까. 저것은 니계상 참어른의 권위를 깎는 행위오이다. 저 우마는 니계상어른의 재산이온데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겠소이까?》

아달비가 야릇한 눈길을 참에게 보내였다.

참의 눈에 분노와 질투의 퍼런 불꽃이 번뜩하다가 꺼졌다.

《알겠소이다. 내 노예인데 내 그 값을 보이겠소이다.》

바들바들 떨리는 주걱턱우에 뱁새눈처럼 꿰진 참의 두눈이 교활하게 번뜩이였다.

그들이 이러고있을 때 왕과 성기대장군은 의미심장한 말을 나누었다.

《대장군. 저 노예군의 기세를 보니 북쪽새가 저절로 생각나오. 그 새가 약하니 오랑캐들이 그리로 쏠리는지라 저런 선돌장군부대와 같은

부대가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데 대장군의 생각은 어떠하오?》
우거왕이 심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대왕님, 옳은 뜻이라 생각하오이다. 선돌장군과 맞먹는 쌍기둥이 있어야 하겠소이다.》
성기는 심중한 목소리로 긍정했다.
《내 그럼 여러 대신, 장군들에게 평의회에서 묻겠노라. 그런데 대장군의 눈길을 보니 고민이 있는것 같은데 무엇때문에 그러하뇨?》
우거왕은 성기대장군의 눈길에서 석연치 않은 그 무엇을 느꼈는지 의혹에 차서 물었다.
《아니오이다. 몸이 좀 불편할따름이온데…》
성기대장군은 당황하여 나오는대로 중얼거렸다.
《성기대장군이 몸져누우면 어찌하겠소. 국사를 이렇게 벌려놓고…》
우거왕이 불안한 눈길로 성기의 온몸을 훑어보았다.
《대왕님, 걱정마시오이다. 이 몸은 그 어떤 바람도 쓸어눕히지 못하오이다.》
성기는 빙긋이 웃으며 왕의 시선을 피했다.
성기는 선돌장군의 정예군이 편전 앞마당에 들어설 때 갑옷을 갖춘 나리의 모습을 가려보았다.
순간 가슴이 뭉클하며 야속한 마음이 먼저 앞섰다.
무엇때문에 철석같이 약속한 사랑을 저버리고 달아나버리는것인지 도저히 가늠이 가지 않았다.
만나야 사유도 알아볼터이지만 몸을 피하니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했다.
금나수에 갔을 때 숲속 어디론가 숨어버리던 나리의 마지막모습이 눈앞에 선히 안겨왔다.
그때는 눈같이 하얀 백마를 탔었는데 지금은 눈에 뜨일가 그러했는지 검은밤빛 가라말을 탔다.
어떻게 하나 이번 제천기간에 품을 놓아 나리를 만나야겠는데 그럴 틈이 좀처럼 날것 같지 않았다.
제천행사가 있은 다음 궁중평의회가 있고 뒤이어 굿놀이가 진행되는데 그때는 왕곁에 함께 있어야 하니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을것이다.
더구나 노예군 군사들속에 섞여있는 그를 불러내기란 조련치 않을것이다.

성기대장군이 남모르는 안타까움에 한숨을 짓고있는데 편전 앞뜰에 대오를 세우는 선돌장군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편전 앞뜰앞에 금을 그어놓은듯 말을 탄 창수들이 늘어서 일제히 왕에게 창을 내려짚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편전으로 달려올라온 선돌장군이 금나수 노예군 500을 데려왔음을 왕에게 알렸다.

《잘 왔노라. 전공을 세운 너희들이 보고싶어 제천행사에도 참가시킬 겸 불렀으니 다른 생각말고 마음껏 제천놀이에 참가하여라.》

《대왕님의 은혜에 군업으로 받들겠소이다.》

선돌장군은 례를 표했다.

《너희 군기를 보니 참으로 훌륭하도다. 이번 제천에 너희네 패기를 마음껏 떨칠지어다.》

《대왕님, 명심하겠소이다.》

선돌장군이 물러나 자기 대오로 돌아갔다.

2

우거왕이 행사의 시작을 선언하자 《알았소이다.》대답과 함께 부하들에게 왕의 령이 내려졌다.

대여섯의 부하들이 편전계단을 구르며 급히 밑으로 뛰여내렸다.

국읍과 몇개 중심적인 소읍으로 왕의 령을 전하러 가는 파발들이였다.

파발들의 말발굽소리가 급히 왕궁뜨락을 떠나가자 제천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웅글은 뿔나팔소리가 울렸다.

동시에 악사들의 풍악소리가 왕궁을 들었다놓으며 흥을 돋구기 시작했다.

선돌장군부대가 물러가고 눈부신 흰 일산을 드리운 금빛으로 번쩍이는 왕의 마교차가 굴러왔다.

세마리의 담가라말이 끄는 크고 화려한 마교차가 움직일 때마다 황금빛바퀴살이 번쩍번쩍 눈부신 빛을 발산하고 바퀴틀에 달린 누런 방울이 은구슬을 굴리는 소리를 냈다.

행사복을 갖추고 머리우에 붉고 누런 장식편들과 령옥, 금, 은패물들이 어울려 장쾌한 소리를 내는 황관을 쓴 우거왕은 어깨우로부

터 길게 늘어진 붉은 장포를 끌며 궁녀들에게 부축되여 마교차로 다가왔다.

옆에 늘어선 신하들과 군지휘관들, 수병들 할것없이 모두 엎드려 례를 표하고있어 오직 서있는것은 세필의 말과 걸어가는 왕, 부축하는 궁녀들뿐이였다.

왕이 마교차에 올라 휘장을 내렸다. 마교차는 천천히 왕궁을 떠났다.

왕의 마교차뒤로 례식을 갖춘 대신들과 장군들, 호위수들과 악사들이 연줄연줄 따라섰다.

행렬에서 눈에 띄는것은 사니패들이였다.

사니들은 왕의 엄엄한 행렬을 따라 칼과 방울을 들고 절걱절걱, 쩔렁쩔렁하며 온갖 몸짓을 다해 춤을 추고 주문을 외웠다.

땀이 철철 흐르는 사니들의 얼굴은 놀라다 못해 악마의 모상처럼 무서웠다.

당장 사람의 간을 도려내고 죽음의 천길나락으로 떠밀어낼듯 가슴이 선뜩선뜩했다.

왕의 마교차는 왕검성을 벗어나 광대산을 향해 굴러갔다.

왕의 행렬뒤로 선돌장군의 정예부대가 서고 그뒤로 왕검성민들과 전국지역들에서 온 대표들이 서서 따르는데 그 대오는 십여리길에 늘어섰다.

왕의 눈앞에 마치 거대한 뫼잔등처럼 보이는 광대산이 비쳐왔다.

광대산우에는 거석을 다듬어 쌓아올린 제단이 있었다. 그 제단의 길이는 무려 50보나 되고 너비는 30보나 되는데 그우에는 온갖 제물들이 차려져있고 앞에 있는 돌그릇우에서는 향나무가 타면서 진한 연기를 피워올렸다. 멀리에서도 야릇한 향냄새가 코를 찌른다.

왕의 마교차가 광대산앞에 멎어서자 뒤를 따르던 대오가 연줄연줄 뒤로 닿아 멎어섰다.

마교차에서 내린 우거왕이 궁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광대산 돌계단을 톺아오르기 시작했다.

왕이 엎드릴 붉은 비단을 깐 제상앞에 이른 우거왕은 잠시 머리를 들어 앞에 나란히 걸어놓은 환인, 환웅, 단군 삼성상에 묵례하고 삼성상뒤로 놓여진 제상을 건너다보았다.

통돼지와 통사슴, 통노루를 구어 올려놓은 큰상들이 있고 그앞에는 서우, 황소, 코끼리 등 큰 짐승들의 갈비를 뽑아 찐 갈비찜이

놓여있었다. 또 그앞으로는 이 땅에서 나오는 온갖 특산 파일들과 떡, 지짐류들, 각종 곡식으로 지은 밥들과 나물들이 그득차게 놓여있었다.

맨앞에는 무려 300여개의 술단지들과 갓난 애기도 능히 들어가 누울만큼 큰 잔들이 놓여있었다.

왕이 삼성상에 세번 절하고 붉은 비단이 깔린 제상앞에 넙적 엎드렸다.

왕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숨을 죽이였다.

울긋불긋한 제천복에 오색갈기의 패랭이를 쓴 제천 큰 사니가 한손에 방울을 들고 한손에 절편칼을 절컥거리며 제천마당에 나섰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왕까지 머리를 숙인 괴괴한 제천마당은 제천 큰 사니의것이였다.

제 세상을 만난 제천 큰 사니는 정신없이 춤을 추고 방울과 칼을 절컥거리며 돌아가다가 칼을 하늘로 뻗쳐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환인, 환웅, 단군 거룩한 삼성인이시여,

그대의 아들 아사달의 근면한 인간들이 그대의 성상앞에 모여 그대의 무궁을 비나이다.》

제천 큰 사니의 주문이 잠시 끊어지자 군중은 입을 모아 《비나이다. 비나이다.》하고 장중한 소리를 질렀다.

주문의 세계가 깊어질수록 제천마당은 더욱더 엄숙해졌다.

뒤시간의 제천의식이 끝나자 우거왕은 그 길로 나라의 중대사를 토의하는 평의회를 열었다.

대신, 장군들이 둘러앉은 평의회장은 근엄하였다. 평의회에서는 나라의 중죄인을 처형판결하거나 나라에 공헌한 충신들을 표창하는 일도 하였다. 그런데 이번 평의회에서는 싸움이 끝난 직후인지라 주로 죄인들의 목을 베는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허나 우거왕은 그 반대로 나라의 죄인들에게 대사령을 내려 일시에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었다.

그런 연후에야 우거왕은 나라의 중대사인 북쪽변방에 파견할 장군을 선정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쪽새를 막느라고 북쪽새를 소홀히 하였는데 다음번 위험은 북쪽새에서 닥쳐올수 있기때문이였다. 허나 지금까지 북쪽새에 파견한 장군이 없었다.

우거왕의 제기를 모든 대신들이 찬동하였다.
즉시 북쪽새에 파견할 장군에 대한 추천이 진행되였다. 아달비대신이 즉시 왕담장군을 추천했다,
니계상은 덩달아 지지해나서고 조선상은 입이 마르게 왕담을 칭찬해나섰다.
왕담이 북쪽변방의 장군으로 거의 락착이 될무렵 성기가 일어섰다.
《북쪽변방은 왕검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곳이므로 지원을 받을수 없어 혼자서도 싸울수 있는 지략있고 완강한 장수가 가야 하오이다.》
성기는 점잖게 말했다.
입에 게거품을 물고 지지해나서던 조선상이며 니계상, 기타 장군들이 찾아들고말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왕담은 몹시 비겁하고 비굴한 인간이였다.
처음 오랑캐가 왕검성으로 쳐들어올 때 오덕산일대에 진을 치고 방어할 책임을 맡은 왕협을 도와 내보낸 왕담이 오랑캐들의 엄청난 수자에 겁을 먹고 대전도 하기전에 왕검성으로 쫓겨 돌아온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였다.
왕담을 더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은 모두 전장들이 분담된 장군들이여서 여유가 없었다.
곤경에 빠진 평의회를 건져낸것은 역시 아달비대신이였다.
《왕담장군에게는 치명적인 결함과 과오도 있으나 지금 시국에 왕담장군만한 자격의 장군이 없으니 북쪽새에 파견함은 응당한 일인줄 아오이다.》
너무도 긴장하여 얼굴이 까맣게 죽어들었던 왕담장군의 얼굴에는 한줄기 안도의 빛이 떠돌았다.
이번 북쪽변방의 장수로 파견되면 관직이 한등급 올라가는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이 잘되면 많은 봉토와 노예를 상으로 받게 된다. 자기에게 상을 내리는 추발의 모습도 눈앞에 얼른거렸다.
그러면 자기도 권력과 재부로 거들먹거리는 참대신이 부럽지 않게 될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공명심을 한껏 자극했다.
왕담은 이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았다.
그런데 성기의 반대로 일이 틀려지는가싶어 가슴이 철렁했는데 아달비의 론리정연한 주장이 다시 본도로 문제를 몰아갔다.

아달비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던 우거왕이 결심이 선듯 왕담장군을 북쪽새의 장군으로 임명하자고 최종의견을 내놓았다.
모두 왕의 의견을 따르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북쪽새를 비워놓느니보다 왕담장군이 가서 앉아있는편이 훨씬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한것이였다.
가결이 진행되였다.
성기대장군을 빼놓은 전원이 왕담장군을 찬성해나서서 왕담장군은 북쪽새의 장군으로 임명되였다.
곧 임명식이 진행되고 대왕의 명의로 된 장수의 갑옷과 투구가 하사되였다.
성기는 우거왕의 령으로 왕검성의 관군에서 군사 3천을 더 떼주어 행사가 끝난 후에 북쪽새로 진출하게 되였음을 알려주었다.
평의회는 성과적으로 끝났다.
《이제는 제천놀이장으로 가자.》
우거왕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왕은 기분이 좋아하는 자세는 아니였지만 아무 말없이 제천놀이장으로 떠나갔다. 대신, 장군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3

제천놀이는 고조선의 민족전통으로 대를 두고 내려오는 사냥경기로부터 시작되였다.
사냥경기에서는 선돌장군을 위시로 하는 노예군군사들이 판을 쳤다.
노예군군사들이 잡아온 곰과 범, 사슴과 메돼지들이 우거왕이 앉아있는 차일밑의 옥좌아래에 더미로 쌓여졌다.
왕의 시선이 노예군에게만 쏠려지자 관군장군들은 로골적으로 노예군장군인 우마를 질시하기 시작했다.
어떤 장군은 빨리 노예군을 걷어가지고 왕검성을 떠나지 않으면 좋지 못한 일이 차례질것이니 후회하지 말라고 은근히 위협해나서기도 하였다.
허나 그에 흔들릴 선돌장군이 아니였다.

관군장군들이 그렇게 나설수록 더욱 완강하게 맞받아나가는 선돌장군이였다.

사냥경기에 대한 총화가 진행되였다.

사냥터앞에 렬 지어 서있는 관군과 노예군, 일반민들앞에 우거왕이 나서 등수를 선포하고 상을 내렸다.

《오늘 사냥경기에서 1등은 선돌장군과 노예군들이니 선돌장군과 노예군사들에게 돈 2천만량을 하사하노라.》

사기가 오른 노예군들이 창을 높이 쳐들며 환성을 지르는데 관군들도 덩달아 만세의 환호를 따라 불렀다.

우거왕이 대신에게 금전을 실은 마차를 끌어오라고 만족하여 령을 내렸다.

금전을 실은 청동마차가 왕궁앞으로 와 멎자 《선돌장군은 나와서 상을 받아갈지어다.》하고 신하가 목청을 돋구어 소리쳤다.

노예군의 대오에 섞이여 자기의 가라말곁에 서있던 선돌장군이 달려나가 왕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다.

《장군, 어서 머리를 들고 상을 받을지어다.》

왕이 만족하여 엎드린 선돌장군에게 소리쳤다.

《알았소이다.》

선돌장군이 머리를 들고 일어서자 우거왕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 금전마차의 고삐를 선돌장군에게 쥐여주었다.

《황송하오이다. 이토록 임금께서 우리를 총애해주시오니 우리는 이 은총이 가득 담긴 금전으로 병쟁기를 더 마련하여 군력을 더욱 튼튼히 하겠소이다.》

선돌장군이 우람찬 목소리로 왕에게 결의를 올렸다.

《과시 나라 위한 장군답도다.》

우거왕은 민들을 향해 큰 연회를 차린다고 선포하였다.

《오늘 잡은 이 짐승들로 왕검성에서 큰 연회를 차릴지어다. 그리고 온 들판이 들썩하게 무천놀이를 벌려라.》

무천놀이장은 환호소리로 가득찼다.

온 들판이 들썩하였다. 뿔나팔들이 울리고 북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진감했다.

정렬해섰던 대오는 흩어져 곳곳에 뭉치를 지어 제각기 놀이를 벌리였다.

한쪽에서는 벌써 활쏘기, 창쓰기, 말타기경기가 시작되고 한쪽에서는 《매악》(호랑이춤)이 벌어졌다.
호랑이탈을 쓴 10명의 무용수가 앞에 서서 춤을 추고 그뒤로는 긴 창을 든 40명의 무용수가 뒤따르며 창을 휘둘렀다.
구경군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여들었다.
로인, 젊은이, 아이 할것없이 관리나 민이나 하호나 관계없이 신분의 차이가 없이 한집안처럼 어우러져 웃고 떠들고 마음껏 웨쳐본다.
어디 가나 즐거운 웃음이고 환성이였다.
무용수들은 더욱 성수가 나서 자기의 기교를 마음껏 자랑한다.
앞에 선 《호랑이》들이 앞발을 번쩍 들고 시뻘건 입을 쩍 벌리면 옆에 있던 아이들과 어른들은 자지러진 고함을 지르며 물러난다.
그러면 호랑이는 다시 입을 다물고 털부숭이머리를 흔들고 엉뎅이를 들었다놓았다 하며 엉금엉금 돌아간다.
그 모습이 어찌나 방불하고 우스웠던지 무서워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조여들며 웃어댄다.
그에 맞추어 뒤에 선 창수들이 공중으로 창을 번쩍 쳐들고 다리를 들었다놓았다 하며 호랑이흉내를 내다가 호랑이들이 성이 나 다가들면 뻥소니를 치다가 갑자기 돌아서며 창을 내대면 그처럼 도도하던 호랑이들이 빌듯이 발톱으로 땅을 긁으며 드리운 머리를 주억거린다. 이에 사기난 창수들이 환성을 지르며 환희에 차 하늘에 날듯이 큰 률동으로 기쁨을 쏟고 랑만을 터친다. 그것을 보던 관중들도 사기가 나서 북을 두드리고 징을 울리며 온 군중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추어댄다.
늙은이도 아이들도 제가끔 제 률동대로 돌아가며 환희를 터치였다. 앉은뱅이도 뛰여일어나 엉뎅이를 들썽거리고 앞 못보는 소경도 너무 사기가 나 어깨를 들썽거릴 지경이였다.
차일밑 옥좌에 앉아 줄곧 입가에 벌어진 웃음을 놓지 않던 우거왕도 그 대오속에 뛰여들어 한바탕 어깨를 들썽거리며 춤을 추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
《저 가운데 서서 호랑이들을 이끌며 재치를 부리는 왕호랑이는 누구오이까?》
왕의 가까이에 앉아 《매악》에 정신 팔려있던 니계상 참이 헤벌어

진 입을 다물줄 몰라 하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그게 바로 선돌장군이오이다. 저 창수들은 모두 그의 부하들이옵고 그 옆의 사기군들도 모두 노예군이오이다.》

아달비가 나서서 설명했다.

참은 일시에 기분이 잡친듯 얼굴빛이 흐려져 쓰겁게 입을 다셨다.

《대신, 왜 그러오이까. 〈매악〉이 마음에 안드시오이까?》

아달비가 얼굴에 야릇한 웃음을 짓고 멋으로 들고있는 화려한 부채로 입을 가리웠다.

《〈매악〉이야 우리 겨레의 기상을 떨치는 제일가는 무용이온데 왜 마음에 안들겠소이까.》

참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여전히 불만스레 입을 쩝쩝 다셨다.

아달비의 얼굴에는 조소의 웃음이 남 몰래 피여났다.

《대신, 말을 들으니 매해 무천 〈매악〉은 대신의 부하들이 독판쳤다 하온데 이번에는 어찌 선돌장군의 노예군에게 밀려났소이까?》

여전히 입가에 조소의 웃음을 짓고 아달비가 참의 부아를 돋구었다.

《밀려난게 아니라 저 무지한 노예들이 어찌 노나 보자고 양보했소이다.》

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아달비는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그 말씀 참 듣기 좋소이다. 그러하온데 기분은 어찌 잡쳤소이까?》

부채로 입을 가리운 아달비가 또다시 깔깔거렸다.

그럴 때마다 귀방울밑에 매달린 황금귀걸이와 머리에 꽂은 보석장식들이 번쩍거리며 한들거리고 목에 건 홍, 록보석목걸이, 옥팔찌들이 눈부시게 번쩍거렸다.

그 모든 현란한 빛발이 참을 조소하는것만 같았다.

속이 좁고 노여움을 잘 타는 참은 그만 화를 참아내지 못하고 불만을 터치고야말았다.

《대신이 나를 얕보고 부아를 돋구는줄 왜 모르겠소이까. 허나 저 선돌놈이 판을 치고 돌아가는데는 참을수 없소이다.》

코밑으로 밸밸 꼬인 참의 수염이 우들우들 떨었다.

아달비는 부채로 한쪽 얼굴을 가리우고 참의 귀가까이에 얼굴을 가져다댔다.

《대신, 한다 하는 사나인데 어찌 밸이 없소이까. 선돌장군이야 아직 대신의 노예가 아니오이까. 주인이 자기 노예를 어쩐다고 법으로 다스릴 일이 아닌즉은…》

아달비는 살살 웃음을 날리며 말상처럼 기다란 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제노라고 거부를 자랑하며 거만하게 노는 니계상 참을 이때라고 한껏 놀리고싶었던 모양이였다.

아달비의 놀림에 정신이 번쩍 든듯 참이 생각을 굴리며 중얼거렸다.

《그렇지, 우마는 장군투구를 머리우에 올려놓았으나 그 속은 노예가 분명하올진대 내 네놈을…》

참이 으드득 이를 갈았다.

아달비는 생긋이 웃고는 이젠 참따위에게는 흥미가 없다는듯 얼굴을 돌려 한창 고조기에 오른 《매악》을 바라보았다.

노여움 잘 타는 참은 울화가 터져 더 참을수 없었다.

《매악》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니계상 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대신, 나와 같이 가주오이다. 내 오늘 대신앞에 나의 노예가 어떤 버러지들인가를 즉시 보여드리겠나이다.》

참은 분격을 참지 못해 씨근거리고있었다.

고운 눈을 치뜨며 푸르딩딩한 참을 바라보던 아달비는 자리를 일었다.

《남아다운 대신께서 좋은 구경을 시켜주시겠다면야 내 왜 사양하겠소이까, 호호…》

아달비가 간드러지게 웃었다.

옆의 대신들도 아달비가 어찌나 호함지게 웃었던지 모두 따라웃었다.

4

《매악》놀이에서 땀에 흠뻑 젖은 선돌장군은 호랑이탈을 벗어놓고 나무밑에 앉아 쉼을 하고있었다.

이때였다.

언덕우에서 니계상 참을 위시로 한 대신장군들의 무리가 나타나더니 선돌장군을 둘러쌌다.

《아, 선돌장군, 나를 모르겠소이까?》

참이 웃는 낯으로 선돌장군앞에 나섰다.

《대신어른, 인사 늦어 죄송하오이다. 제천이 끝나면 찾아뵙자던 노릇이 이렇게 됐소이다.》

선돌장군은 일어나 두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여 례를 표했다.

《허, 인사하는 꼴을 보게. 장군이 됐다고 제 주인을 헌신짝처럼 대하는 꼬락서니가 눈이 시네그려.》

참이 삿대질을 하며 얼굴을 붉혔다.

《대신, 어찌 그렇게 생각하오이까?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소이다.》

선돌장군은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했다.

《네가 장군이 됐다고 나의 노예에서 벗어났다 생각말아. 나는 막대한 금전을 뿌려 너의 가족을 사고 네 애비도 나의 삯을 갚지 못하고 죽었니라. 그런데 네가 무슨 밸통으로 나를 무시하는고?》

참이 어성을 높여 소리를 질렀다.

《대신, 생각을 잘못했소이다.》

《생각을 잘못했다구? 이놈 꿇어앉지 못할가.》

참은 손에 쥔 채찍으로 땅을 가리켰다.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선돌장군이 니계상 참대신앞에 무릎을 꿇고앉았다.

《투구를 벗어라.》

참이 또다시 거친 목소리로 웨쳤다.

《투구만은 벗지 못하오이다.》

여직껏 공손하던 선돌장군이 단호히 거절했다.

《왜 벗지 못하겠다는거냐?》
참이 버럭 역증을 냈다.
《장군은 마음대로 투구를 벗는것이 아니오이다.》
《장군이라구?! 네가 장군인가 노예인가 하는것은 이제 즉시 이 대신, 장군들께서 판정해주실게다.
얘들아, 이 거러치 (하종을 멸시하여 이르는 말)놈의 투구를 벗겨라.》
참의 호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니계상 참을 호위하며 다니던 가병들이 우르르 모여들어 선돌장군의 투구를 벗겼다.
빡빡 깎은 머리가 드러났다.
《이래두 장군이라 자처할테냐. 비천한 노예의 까까머리를 가지구두. 여러 대신들 보소이다. 이 까까머리로 장군행세를 하니 노새인들 웃지 않을수 있겠소이까. 그래두 이놈이 불이 뿔뚝 살아 사나이라 으시대오이다. 하하…》
그를 둘러싸고있던 대신, 장군들이 하늘로 얼굴을 들고 웃어댔다.
아달비는 얼마나 우스웠던지 대신의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허리를 꼬부리고 깔깔댔다.
얼굴이 수수범벅이 되여 머리를 떨구고있던 선돌장군이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더니 옆에 눕혀놓았던 창을 집어들었다.
《아니, 이놈이 환장을 했느냐. 그 창, 창을 놓지 못할가.》
참이 얼굴이 새까맣게 질려 그 주제에 발을 구르며 뒤걸음쳤다.
선돌은 서리발 창을 추켜들며 참을 말없이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일이오이까, 장군…》
물을 떠가지고 오던 시종이 먼 발치에서 이 광경을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
대신들이 겁에 질려 뿔뿔이 도망쳐 꼬리를 감추고말았다.
멀지 않은곳에 흩어져 쉼을 하던 노예군들이 소동을 보고 우르르 달려왔다.
급해맞은 참이 말을 잡아타고 자기 집쪽으로 빳빳이 도망쳐갔다.
《장군, 무슨 일이오이까?》
분격하여 온몸을 푸들푸들 떨고있는 자기네의 장군을 본 노예들이 놀라서 물었다.
《참이 우리 장군을 땅바닥에 꿇어앉히고 투구를 벗겼소이다. 내가 저

언덕에서 그걸 보았소이다.》
시종이 분격하여 웨쳤다.
《우리 장군을 모욕한게 사실이냐?》
말을 타고 달려온 구두막이 펄펄 뛰였다.
《얘들아, 조용하지들 못할가.》
선돌장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분노한 노예들을 안정시킬수는 없었다.
《뭣들 하느냐. 나를 따르라.》
성미급한 날승이 선돌의 말에 뛰여올라 창을 비껴들더니 참의 집을 향해 말을 달렸다.
노호한 노예들이 성난 벌떼처럼 날승의 뒤를 따랐다.
《서라. 서지 못할가.》
사태를 직감한 선돌장군이 구름처럼 먼지를 일구며 달려가는 노예군의 뒤를 따르며 웨쳐댔다.
허나 노예군의 무리는 점점 선돌장군의 시야에서 멀어져 언덕밑으로 사라지고말았다.
이것은 어쩔새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사태였다.
참의 집에 이른 노예군들은 도끼로 대문을 들부시고 뜨락으로 몰려들어갔다.
《참은 나오너라. 나와 우리 장군앞에 사죄하라!》
노예군들이 뜨락으로 사납게 들이닥치며 소리쳤다.
가병들이 우르르 밀려나왔다.
《네놈들, 죽지 않겠거던 썩 사라져라!》
구두막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질겁한 가병들이 어느 구석으로 뛰여들었는지 한놈도 보이지 않았다.
《참은 어서 나오너라. 그러지 않으면 네놈을 참형에 처할테다. 죽기 싫거던 어서 나오라.》
노예군이 떠들어댔다.
시종 몇몇이 문을 열어보고 질겁을 하며 문뒤로 쑥 사라져버리고말았다.
분노가 치솟아오른 노예들은 가장집물을 들부셔대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지끈 저기서 쟁가당 가장집물들이 부서져 내뿌려지고 넘어지

고 깨여져나갔다.
그런데도 참은 어디에 들어박혔는지 꼬리도 보이지 않았다.
《주인놈의 집에 불을 놓아라.》
누군가 부르짖었다.
노예들이 불뭉치를 들고 집안으로 접어들었다.
여기저기서 불길이 솟구쳐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기쏘인 짐승굴에서 짐승들이 튀여나듯 아우성을 지르며 여기저기서 사내, 나인, 아이 할것없이 마구 쏟아져나왔다.
《참을 놓치지 말라.》
분노한 구두막이 소리쳤다.
《참을 잡았소이다. 여기 있소이다.》
뒤뜰에서 노예들이 웅성이였다. 구두막이 그리로 달려갔다.
뒤담을 넘어 몰래 말을 타고 내빼려던 참이 노예군들의 손에 잡혀 끌려오고있었다.
《이놈을 단단히 말배때기에 처매라.》
구두막이 노예군들에게 령했다.
분노한 노예군들이 달려들어 참이 타고 내빼려던 말의 몸뚱이에 참을 칭칭 동여맸다.
《네놈은 우리 손에 죽을놈이니 찍소리말고 있거라.》
구두막이 참을 동인 말을 자기 말의 안장에 든든히 매였다.
등성이로 끌고가 노예들의 분노를 담아 무자비하게 처형하려는것이였다.
참의 집은 어느새 삼단같은 불길속에 휩싸이고 참의 가족들과 노복들이 울고불고 아우성을 쳤다.
《중지하라. 중지하라!》
언덕밑으로 선돌장군이 달려오며 고함을 질렀다.
말을 끌고 언덕으로 오르려던 구두막이 고삐를 채 말을 세웠다.
《이게 무슨 란탕인고? 누가 이런 령을 했는가, 누가—》
온몸이 땀으로 덮인 선돌장군은 하늘높이 창을 흔들며 노호하여 부르짖었다.
《당장 나오라, 누군가?》
구두막과 날승, 돌치와 모든 군사들이 선돌장군앞으로 나섰다.
《너희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오늘이 제천일이란걸 잊었는가.

즐거움만 있어야 할 이날에 이런 불길한 일이 벌어졌으니 누가 나라앞에 목을 내댈테냐, 누가…》
역시 부두목들과 군사들이 모두 나섰다.
무겁게 고개만 떨군 선돌장군이 말에 맨 참을 빨리 풀어주라고 령을 했다.
노예군들이 달려가 단검을 꺼내 바줄을 끊었다.
새까맣게 죽어든 참이 땅바닥에 털썩 떨어졌다.
혼백이 나간 참이 벌벌 기여와 선돌장군의 발밑에 넙적 엎드렸다.
《장군, 죽을 죄를 졌으니 목숨만 살려주오이다. 목숨만…》
참이 손을 빌며 자기 주위에 둘러선 노예군들을 힐끔힐끔 돌아보았다.
머리를 떨구고 섰던 선돌장군이 얼굴을 들었다.
땀이 철철 흘러내리는 선돌장군의 얼굴은 무섭게 이그러졌다.
비루하게 발밑에 엎드린 참의 얼굴을 쏘아보는 선돌장군의 눈은 그대로 타버릴듯 이글거렸다.
《머리를 들라!》
참이 우들우들 떨며 얼굴을 들었다.
《네놈은 노예군의 칼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놈이지만 목숨은 살려두겠노라. 다시 노예군을 모욕하거나 겨레를 반역하는 행위를 한다면 내 창에 맞아죽을줄 각오하라!》
《알겠소이다. 장군, 고맙소이다.》
참은 목숨이 살아난것이 꿈같아서 그 자리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씨름과 수박경기에 정신이 빠져있던 우거왕은 언덕너머에서 삼단처럼 치솟아오르는 불길과 연기를 보고 깜짝 놀라 신하를 불렀다.
《여봐라, 저게 무슨 불길이냐? 제천날 즐거운 마당에 무슨 불길한 징조인고?》
우거왕이 성이 나 물었다.
달려온 대신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눈만 굴리고있는데 말 한필이 우거왕을 향해 전속으로 달려왔다.
말이 왕앞에 멎어서자 날파리가 뛰여내려 왕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대왕님께 아뢰오이다. 선돌장군의 노예군들이 자기 장군을 모욕한

니계상어른의 집에 불을 지르고 니계상어르신을 신칙하였음을 아뢰오이다.》
《무엇이라고?!》
우거왕이 펄쩍 뛰며 발을 굴렀다.
《대체 어떻게 되여 그런 일이 벌어졌느뇨. 자세히 아뢰여라.》
왕의 그 말에 날파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있었던 전일을 자세히 아뢰였다.
《고현것들, 빨리 가 선돌장군을 당장 대령시키지 못할가.》
우거왕이 버럭 소리질렀다.
날파리가 번개같이 말에 뛰여올라 박차를 가했다.
우거왕은 맥없이 옥좌에 몸을 묻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대왕님, 이 일은 조용히 스칠 일이 아닌가 보오이다. 단단히 법으로 다스려 노예군을 처형해야 옳은가 하오이다.》
아달비가 조용히 왕에게 귀띔했다.
눈을 감고있는 우거왕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두필의 말발굽소리가 점점 가까와지다가 왕의 차일앞에서 멎어섰다.
그때에야 우거왕은 눈을 떴다.
선돌장군이 왕앞으로 기여가 머리를 숙였다.
《노예군이 소동을 일으켜 대왕님께 심려를 드렸소이다. 그것을 막지 못한 소인은 장군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장군옷을 벗겠소이다.》
선돌장군은 장군띠를 풀고 투구를 벗어 왕앞에 내놓았다.
《이 고현놈, 어찌 너에게 죄가 있단말이냐.》
얼굴이 퍼렇게 질린 우거왕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
선돌장군은 가슴이 선뜩했다.
《그런 모욕을 받고도 꿈틀 안하는놈이 무슨 사나이겠느뇨. 이 나라의 남아들은 존엄을 생명처럼 여겼노라. 자기를 건드리는 그 어떤 적도 용서를 모르는게 우리의 기질이거늘 어찌 너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뇨.》
《대왕님…》
선돌장군은 왕앞에 머리를 숙였다.

《어서 띠를 메고 투구를 써라.》
선돌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풀어놓았던 띠를 매고 투구를 썼다.
《너는 노예군을 거느리고 금나수에 가서 령을 기다리라.》
왕은 선돌장군을 큰 싸움에 써먹어야 하는지라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선돌장군의 이마로 구슬땀이 주르르 이랑져내렸다.
《알겠소이다.》
선돌장군은 왕앞에서 물러나 노예군을 이끌고 금나수로 향하였다.
올 때처럼 그렇게 사기난 길은 아니였으나 가슴속에 피여오르는 울분을 우렁찬 군가로 짓누르며 노예군의 장엄한 대오는 등뒤에 차거운 달빛을 지고 흘러갔다.

뫼 넘어 물이요
물 건너 뫼로다
에헤이 에헤이
활개치며 나가자

예서도 손잡고
제서도 반기네
에헤이 에헤이
활개치며 나가자

뿌잇한 달빛속에 금나수가 가까와오고있었다.

고조선의 나인장군 소부루

1

부웅—출전의 뿔나팔소리가 금나수의 아침공기를 뒤흔들었다.

뒤이어 요란한 북소리가 골짜기와 초원을 뒤흔들며 회오리쳐갔다.

《출전이다! 출전준비를 갖추라!》

시위대장들이 어느새 말을 타고 나와 금나수를 돌아가며 군사들을 불렀다.

선돌장군이 갑옷을 떨쳐입고 말에 올랐다.

왕검성에서 달려온 파발군 날파리가 선돌장군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성기대장군의 령을 전달하였다.

《장군, 북쪽새를 지키던 왕담장군은 새를 막지 못하여 오랑캐가 산노수에까지 침노해들었소이다.

선돌장군부대는 구봉매지와 마구산지대로 군사를 둘로 갈라 침노하는 오랑캐를 물리쳐 온나수를 넘기지 말라 령했소이다. 침노한 오랑캐는 수천명가량이고 구봉매지와 마구산지대로 갈라져 침노할 작당이라 하오이다.》

《알았노라!》

선돌장군이 거세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날파리가 물러가자 선돌장군은 부두목들과 수장들을 자기 앞으로 불렀다.

《북쪽오랑캐가 새를 넘어 산노수까지 침노해온즉 장차 구봉매지와 마구산쪽으로 갈라져 쳐들어온다 하오. 우리는 오랑캐들이 온나수를 넘기전에 물리쳐야 하오.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선돌장군이 번쩍이는 눈을 들어 부두목들과 지휘군사들을 바라보았다.

《장군, 마구산은 제가 잘 아오이다. 그곳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그 일대에서 훈련된 우리 무리들과 함께 능히 오랑캐를 막겠소이다.》

소부루가 선돌장군앞에 머리를 숙이고 간청했다.
《그 무리가 적지 않을가?》
선돌장군이 근심에 잠겨 뇌였다.
《적지 않소이다. 우리 무리중에 2천만 이끌고 가겠소이다.》
《2천으로…》
선돌장군이 놀랐다.
너무 군사가 작다고 생각된 모양이였다.
《믿어주소이다. 2천이면 오랑캐 4～5천 잡기는 식은 죽 먹기로소이다.》
《그렇다면 마음놓겠소이다. 어서 출전하오이다.》
선돌장군이 흡족하여 마구산을 소부루에게 맡겼다.
금나수진펄을 빠져나온 노예군들은 두 방향으로 갈라져 행군해갔다.
《장군, 부디 몸조심하오이다.》
선돌장군이 멀어져가자 소부루가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선돌장군은 웃음으로 대답하며 손에 든 창과 방패를 높이 들어 흔들었다.
높은 산악우에 빛을 뿌리는 태양이 먼지를 날리며 급히 행군해가는 노예군의 앞길을 찬란히 비쳐주었다.
《걸음을 빨리 하여라. 해 지기전에 온나수를 건너야 하니라.》
소부루가 뒤에 따르는 자기 무리에 대고 소리쳤다.
지휘군사가 입는 가죽으로 지은 전복을 입고 머리에도 가죽투구를 쓴 소부루는 오랜 세월 검은 복면속에 얼굴을 가리우고 살아 얼굴색이 백지장같았다.
그 백지장같은 얼굴에 비스듬히 째고 내려온 칼자리로 하여 험상궂은 그 모습은 소름이 끼칠 지경이였다.
그 아름답던 용모는 어디로 다 날아가버렸는지 무서운 독기와 차거운 기상만이 번뜩이였다.
《두령, 이 걸음으로 가면 한나절 지나면 온나수를 넘겠소이다.》
소부루곁을 바싹 따르던 날파리가 흥이 나 소부루를 건너다보았다.
왕에게 싸움보고를 본대로 아뢰여야 하는 날파리는 부득이 싸움에 함께 참가하지 않을수 없었다.
특히 이번 노예군의 싸움에는 소부루두령이 처음 참가하는것만큼 불피코 우거왕은 소부루의 전과에 대하여 물어볼것이거늘 소부루를 따라갈

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날파리였다.
《우리는 좀 험히 갈개는데 날파리가 우릴 따라와 후회하지 않겠느뇨?》
소부루가 웃으며 날파리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날파리는 더욱 만족하오이다. 날개달린 날새처럼 민활하다하여 내 이름 날파리온즉 내 소원 풀어볼 날 오늘인가 하오이다.》
소부루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말고삐를 힘껏 잡아챘다.
그들의 예견대로 소부루의 무리들은 한겻이 조금 지나 온나수를 건너 마구산을 향해 행군해갔다.
마구산에 이르러 진을 치니 벌써 해가 서산너머로 뉘엿뉘엿 사라져갔다.
소부루는 수장들을 자기 앞으로 불렀다.
《빨리 때식을 끝내고 만단의 격전준비를 갖추어라. 오랑캐무리가 이르면 밤이래도 싸움을 거행하겠노라.》
《알겠소이다.》
소부루의 령을 받은 수장들은 흩어져 자기 진지로 사라졌다.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여오르고 때식을 장만하는 군졸들의 움직임이 온산을 덮었다.
산앞으로 흐르는 그리 크지 않은 내물에는 군졸들이 다닥다닥 다가붙어 발 들여놓을 자리가 없었다.
여기저기에서 말들이 풀을 뜯고있었다. 그러다가도 고개를 들며 투레질을 하는데 그 소리가 부산스러웠다.
소부루의 말들은 하도 령리한놈들이여서 풀어놓았을 때는 마음대로 갈갬질을 하며 부산스럽게 소리를 질러대지만 일단 자기 잔등에 군사를 불인 다음에는 주인의 의도를 따라 민첩히 움직이면서 일체 소리를 내지 않았다.
숲을 헤칠 때도 소리가 날세라 조심히 움직이는 명물이였다.
소부루가 말을 달려 군사들의 저녁준비를 돌아보았다.
군사들이 배불리 먹어야 싸움에서 은을 내는 법이라 소부루는 절대 군졸들의 때식과 잠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일정한 지역에 진을 치면 초막을 지어 아담한 잠자리를 마련하였고 량식이 떨어지면 짐승사냥을 하여 꼭 때식을 채웠다.
그것이 버릇된 군졸들이라 어느새 아늑한 자리를 잡아 초막을 짓는 군

졸도 있고 어디 가서 사냥했는지 기름진 사슴, 산양들을 끌고오는 군졸들도 있었다.

그야말로 평화가 깃든 즐거운 군졸들의 한때라 해야 할것이다.

이 평화를 마련하기 위해 만보앞에 척후부대를 세우는데 적정이나 징후가 나타나면 곧 말을 달려 싸움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다음날 해뜰녘에야 오랑캐의 선두부대가 마구산앞 초원에 나타났다.

은밀히 마구산 숲속에 몸을 숨긴 소부루의 무리들은 오랑캐의 기본부대가 넓은 초원에 들어서기를 기다렸다. 앞에 가시가 돋힌 검은 갑옷을 입고 두개의 뿔이 돋은 투구를 쓴 오랑캐 족장은 방망이처럼 생긴 지휘봉을 들고 검은 포를 등뒤에 둘렀는데 세찬 바람에 그것이 마치 거대한 까마귀의 나래처럼 퍼덕이였다.

그 뒤로 무리져 달리는 군졸들의 머리우에는 검은색 의장기들이 날리고 창들이 참빗처럼 솟구쳐 살벌하게 번쩍이였다.

드디여 오랑캐의 기본부대가 초원의 중심에 들어섰다.

소부루는 말고삐를 단단히 틀어쥐며 한손으로 창을 추켜올렸다.

그옆에 붙어선 수장들은 긴장하게 소부루의 눈길을 주시했다.

《자, 출격준비를 하오이다. 우군은 저 호수쪽의 오랑캐를 담당하고 좌군은 좌측 앞기슭의 오랑캐를 담당하오이다. 나는 두령놈이 기여드는 중심으로 돌입하겠소이다.》

《알겠소이다.》

소부루의 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수장들이 자기 대오로 달려가 위치를 차지했다.

《출격하라!》

드디여 소부루의 거세찬 령이 떨어졌다.

제일먼저 소부루가 달려나갔다.

뒤를 이어 온 무리가 함성을 지르며 오랑캐를 맞받아 질풍처럼 내달렸다.

너무도 뜻밖의 전면공격인지라 당황한 오랑캐의 무리들이 걸음을 멈추고 주춤거렸다.

《야, 맞받아나가라. 돌아서는놈들은 내 방망이에 묵사발이 될것이다.》

오랑캐의 두령놈이 옆에 매달려 데룽거리는 가시돋힌 철방망이를 추켜들고 졸들을 공격에로 내몰았다.

주춤했던 오랑캐들이 기세를 올리며 맞받아 달려왔다.
초원중심에서 소부루군사와 오랑캐무리가 맞붙어 돌아갔다.
창이 부딪치는 소리, 말의 울음소리, 비명소리와 악을 쓰는 웨침소리, 순식간에 초원은 아비규환의 란무속에 휩싸여버렸다.
창에 찔리고 칼에 찢겨 군졸들이 쓰러지고 말들이 넘어졌다.
온 초원에 역한 냄새가 풍기고 피가 흘렀다.
살점이 널리고 눈을 부릅뜨고 잘린 목들이 땅바닥에 나딩굴었다.
그 피의 란무장으로 재빛 가라말 하나가 화살처럼 날며 오랑캐의 무리속에 창을 안기고는 또다시 반대쪽 무리속으로 몸을 날려 창을 휘둘러댔다.
재빛 말이 돌입하는데 따라 비명이 울리고 오랑캐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저 재빛 말을 잡아라.》
겁에 질려 가시방망이를 휘둘러대며 악을 쓰던 오랑캐두령의 목에 어디서 날아온 화살인지 깊숙이 박혔다.
방망이를 내던지고 두손으로 화살을 부여잡은 오랑캐두령이 말에서 떨어져 땅에 나딩굴었다.
재빛말에 바싹 몸을 붙이고 한손으로 창을 휘두르며 적진을 휩쓰는 소부루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다.
《재빛 귀신이다. 귀신이 따라온다.》
혼백이 쑥 빠진 오랑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돌아서 내빼기 시작했다.
노호한 노예군들이 사나운 파도마냥 퇴각하는 적들에게 덮쳐들어 삼켜버렸다.
몇명 남지 않은 오랑캐들이 무기와 장구를 다 버리고 황급히 달아났다.
들꽃이 아름답게 깔리고 잡관목이 우거졌던 초원에는 오랑캐의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졌다.
《상한 군사들은 찾아내고 죽은 군사들은 마구산 양지기슭에 안장하라.》
소부루가 시체로 뒤덮인 초원을 둘러보며 군사들에게 령했다.
소부루곁에 바싹 다가붙은 날파리가 피와 땀에 젖은 얼굴을 팔뚝으로 문지르고 입을 열었다.
《오랑캐들이 3천은 나마 죽은듯 하오이다.》
《그렇게 될듯싶노라. 빨리 서둘러 철수준비를 갖추라.》

소부루가 군사들에게 또다시 령을 내렸다.
그날 소부루의 군사들이 승전고 드높이 금나수가까이로 진출해올무렵 구복매지에 갔던 선돌장군도 기세충천하여 돌아오고있었다.
두 군의 군졸들이 서로 만나 환성을 지르며 부둥켜안고 돌아갔다.
선돌장군이 소부루에게 말을 달려 다가왔다.
《소부루, 수고했소이다. 얼마나 힘들었소이까.》
선돌장군이 얼굴에 정다운 웃음을 짓고 소부루를 맞았다.
《장군…》
무사한 선돌장군을 본 소부루는 목이 콱 메여 말을 잇지 못했다.
파르르 떠는 눈귀로 구슬같은 감격의 눈물이 새여나와 말없이 두볼을 적실뿐이였다.
《선돌장군, 소인은 왕검성으로 나는듯 달려가겠소이다. 승전의 소식을 왕검성에 알리고 온 나라에 선포하겠소이다.》
날파리가 요동치는 말의 고삐를 틀어쥐며 사기가 올라 말했다.
《그리하여라. 우리 노예군이 단합하여 오랑캐를 족쳤음을 자랑높이 우거왕에게 알리여라.》
《알겠소이다.》
날파리는 급히 말의 고삐를 나꾸어챘다.
앞발을 번쩍 들며 호함지게 울음을 터친 말이 네굽을 놓기 시작하였다.
한창 달리던 날파리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댔다.
《그 녀석 잠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구려.》
선돌장군이 껄껄 웃음을 터치자 부두목들과 주변의 군졸들도 즐겁게 웃음을 터쳤다.
《자, 금나수에 들어 마음껏 승전을 즐기자.》
선돌장군이 창을 높이 들어 선포하자 즐거운 환성이 터져 골안을 뒤흔들었다.
승전의 대오는 유유히 금나수로 흘러들고있었다.

2

이틀후에 날파리가 금나수에 다시 날아들었다.

선돌장군이 의아하여 날파리를 맞았다.

또다시 오랑캐들이 침노한것이 아닌가 하여 온 금나수가 긴장해졌다.

《무슨 일인고?》

말에서 뛰여내리는 날파리를 맞으며 선돌장군이 불안스럽게 물었다.

줄곧 사기가 올라 벙글거리던 날파리가 감격어린 목소리로 선돌장군에게 우거왕의 령을 전달했다.

《즉시 상을 내리겠노라고 소부루두령을 임금께서 부르오이다. 선돌장군도 함께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금나수를 비울수 없으니 소부루만 먼저 올라오라했소이다. 빨리 차비를 하오이다.》

날파리는 급히 서둘렀다.

《소부루ㅡ》

선돌장군이 한쪽 구석에 얼굴을 가리우고 서있는 소부루에게 머리를 돌렸다.

《장군, 나는 못가겠소이다. 이 흉한 얼굴을 어디 감히 임금앞에 내놓겠소이까.》

《두령, 일없소이다. 임금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굳세고 어여삐 두령을 부르는것이오니 어서 차비를 해주오이다.》

날파리가 독촉했다.

《소부루, 어서 차비를 하오이다. 임금이 기다릴것이오니 어찌 령을 거역하리오.》

선돌장군이 부추겼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소부루가 입을 열었다.

《사정이 그러하니 내 갔다 오겠소이다. 날파리,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오.》

소부루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갖추어입고 외출할 때 입는 덧옷을 입고 나왔다.

시종이 재빛 군마를 끌고왔다.

말에 오른 소부루는 날파리와 함께 금나수를 빠져나왔다.

《늦어도 래일 아침이면 왕검성에 이르러야 하겠거늘 걸음을 다그쳐주오이다.》
성미급한 날파리가 벌써부터 재촉해나섰다.
《아무리 게발걸음한들 래일 아침까지야 왕검성에 이르지 못하겠느뇨.》
소부루가 방긋이 웃으며 걸음을 재촉하려 하지 않았다.
《그처럼 날래신 두령께서 걸음은 그처럼 뜨오이까?》
《좀 입을 다물어라. 무슨 기력으로 하루종일 입을 벌리고있느뇨?》
《헤헤… 우리 부친이 장사군이였소이다. 하루종일 입을 벌리고 소리치지 않으면 밥벌이를 못하오이다.》
《그건 네 애비 입이고 네 입이야 따로 붙어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러하오나 아비 입이자 내 입이오이다.》
《이 고현 녀석, 네 그 입으로 구마산싸움을 참새 벼알까듯 임금에게 그대로 고해바치지 않았느뇨?》
《헤헤, 그건 사실인뎁쇼. 내 두령님이 재빛 암말을 타고 적진을 화살처럼 날으며 동에 번쩍, 서에 얼른, 남북에 번개치는 모상을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임금님은 너무 놀라 두눈을 크게 뜨고 그자리에 바위처럼 굳어졌댔소이다.》
날파리가 승이 나서 주절거렸다.
《그래서 바쁘신 대왕님이 나를 부르는것이고나. 너 이놈, 언제건 그 입덕에 큰 봉변치지 않나 두고보아라.》
《이런 봉변이라면 천번만번 한생이라도 치르겠소이다.》
《에익, 이 고현놈—》
소부루는 재빛 암말의 고삐를 힘껏 나꾸어채더니 말의 잔등에 몸을 바싹 붙이였다.
말은 번개처럼 날아 벌써 아득히 멀어졌다.
날파리가 헐떡거리며 따라갔다.
숨이 차올랐다.
《두령님, 같이 가오이다. 혼자 가면 이 날파리는 어찌하라는것이오이까?》
날파리는 죽어라 말을 때려몰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들은 아침 일찌기 왕검성에 이르렀다.
왕이 편전에 나오기를 기다리던 소부루와 날파리는 왕앞으로 다가가

엎드렸다.
《대왕님의 령대로 소부루 대령하였소이다.》
《오, 소부루 왔느뇨? 어서 머리를 들지어다.》
우거왕이 무등 기뻐하며 말했다.
《너를 기다렸노라.》
《황송하오이다.》
소부루가 세번 머리를 조아리고 얼굴을 들었다.
《빨리 소부루에게 상을 내리여라.》
왕이 령하자 기록관이 앞으로 나와 서서 왕이 내린 상의 항목을 내리읽었다.
《대왕의 어지로 구마산전투에서 공을 세운 소부루두령에게 상을 내리노라. 상은 다음과 같다.
북쪽새결의 봉토 50리를 주노라.
노예 150을 하사하며 말 20필을 주노라.
금전 400만을 주노라.
이상의 상을 오늘중으로 받아 소부루자신이 처리할것이노라.》
기록관이 봇나무껍질로 된 기록장을 접었다.
《소부루, 어떠하냐. 상이 적게는 생각되지 않느냐?》
우거왕이 만족한 목소리로 물었다.
《… …》
소부루는 아무말없이 침묵을 지키고 머리를 떨구고있었다.
《어서 머리를 들어라. 장하다, 소부루두령. 노예들속에서 선돌장군이나 소부루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것이 참으로 이상토다. 노예는 비천한 노예밖에 낳지 못하는 짐승이거늘 너는 하느님의 총애로 태여난 인간이노라.》
머리를 숙이고있던 소부루가 얼굴을 들었다. 험상궂은 칼자리가 있는 얼굴이 분노한듯 푸들푸들 떨었다. 옆에 서있던 대신, 장군들이 물러설지경이였다.
《너는 어찌 안색이 그처럼 포악하고 도도하뇨?》
우거왕이 기분이 잡친듯 호령했다.
《대왕님, 실례오나 소인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태여난 인간도 아니오며 노예의 배속에서 태여난 비천한 인간이오이다. 소인은 그만 돌아가겠소이다.》

소부루는 봉토도 금전도 다 털어버리고 돌아섰다. 소부루는 다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편전앞을 태연히 걸어내려갔다.
《아니, 저 무엄하기 짝이 없는 나인 봤나, 저 나인을 잡아들이지 못할가?》
니계상 참이 온몸을 우들우들 떨며 노호한 고함을 질렀다.
우거왕의 얼굴에도 노기가 비껴 번뜩이였다. 대왕앞에 도전하는자는 그것이 대신이든 노예이든 관계없이 무서운 처형을 받게 된다. 우거왕앞에 감히 도전해나선자가 없었다. 그런데 보잘것 없는 노예나인이 눈섭 하나 까딱않고 도전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으랴.
누구보다 놀란것은 우거왕자신이였다.
파연 저 나인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단말인가!
무엇을 위해 저 나인은 저처럼 도도하고 군세단말이냐!
모욕감에 가슴이 떨렸지만 우거왕은 머리를 짚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었다.
번쩍 정신이 든 참이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퇴돌밑으로 내려서는 소부루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뭣들 하느냐, 저 대역죄인을 잡아들이지 않고 보고만 있는것이냐.》
우들우들 떠는 참을 우거왕이 제지시켰다.
《소부루를 제 갈데로 가라고 내버려두거라.》
우거왕이 겨우 자신을 다잡고 소부루를 잡으려고 서두르는 군사들에게 소리쳤다.
소부루를 향해 달려나가려던 군사들이 그 자리에 어리둥절하여 물러앉았다.
긴장과 침묵이 편전안을 휩쌌다.
소부루두령만이 제 세상인듯 침착히 편전 앞마당을 지나 자기 말로 걸어갔다.
《이랴—》
소부루의 야무진 호령소리와 함께 재빛 암말이 네굽을 놓았다.
소부루는 궁성밖으로 점점 멀어져갔다.
《대왕, 군사를 풀어 저 발칙한 나인을 잡아오겠소이다.》
보다 못해 한 장군이 왕앞에 간청했다.
《그냥 두거라. 제 갈데로 가라고…》
우거왕은 눈을 꾹 감은채 입술을 푸들푸들 떨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궁언덕너머로 언뜩언뜩 비쳐보이던 소부루두령이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때에야 궁성은 제 정신이 든듯 웅성거렸다.

과연 노예두령 소부루의 운명은 어찌 처리될것인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

3

온 왕검성이 왕에게 도전하고 사라져버린 노예군두령 소부루의 운명을 놓고 한껏 떠들고있을 때 금나수에는 행복과 기쁨이 깃들고있었다.

나리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으로 선돌장군과 소부루두령의 혼례식이 거행되고있었던것이다.

물론 두 사람의 사랑을 귀중히 여기는 나리교련두목의 역할도 컸지만 주동적인것은 선돌장군이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소부루는 끝없이 선돌장군을 사랑하고있으면서도 이 란시에 무슨 혼례식인가고 거절했지만 선돌장군의 적극적인 주장에 의해 혼례식이 벌어졌던것이다.

선돌장군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것은 소부루가 왕검성을 다녀온 다음이였다.

소부루의 말을 듣고난 선돌장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이 그쯤 벌어졌으면 시간문제이지 소부루를 극형에 처할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오늘래일로 불피코 왕검성에서 형리들이 달려와 금나수에 들이닥칠것이다.

그날이 당겨질가봐 선돌장군은 등골이 써늘했다. 가슴이 갈가리 찢겨져나가는것만 같았다.

검은 복면속에 검은 머리 한오리 남지 않고 세여버린 소부루와 만나 전란속이지만 행복의 꿈속에 잠겨 꿈같은 생활을 이어가던 짧디짧은 그 나날들…

이제 소부루와 영원히 헤여진다고 생각하니 그 나날들이 귀중하면서도 얼마나 눈물겹게 가슴속으로 파고드는지 몰랐다.

어찌하여 우리 운명의 모퉁이마다에는 이토록 가슴아픈 시련과 불행이 메고양이마냥 숨어 기다리고있단말이냐.

선돌장군은 몸부림치며 통곡하고싶었다.
이 가슴아픈 선돌장군의 심정을 제일먼저 감수한것이 나리였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찬 사나이와 나인을 하루빨리 결합시켜줄 생각에 은근히 속을 썩이고있었다. 그런데 문뜩 소부루가 그런 처지에 빠지고 보니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다.
피눈물로 얼룩졌던 그 눈물겨운 길을 뒤에 두고 또다시 죽음의 길로 떠나야 하는 소부루의 마음 얼마나 쓰리랴!
간고한 싸움의 길에 선돌장군을 다시 만나 따뜻한 보금자리 한번 꾸려 보지 못하고 가야 할 그 슬픔이 눈물겹기만 했다.
따뜻한 가정이라도 가져봤으면 얼마나 위안이 되랴! 죽음의 그 길에 얼마나 마음의 기둥이 되랴싶었다.
깊은 생각끝에 마음고운 나리는 조용히 선돌장군을 만났다.
《장군, 소부루가 지금 얼마나 가슴을 썩이고있겠소이까? 단 하루밤이라도 마음가까이 정을 주오이다. 그러자면 빨리 혼례식을 해야 할것이 아니오이까?》
고심에 싸였던 선돌장군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나도 그 생각이였소이다. 불보다 더 뜨거운 인간이 소부루이온데 나의 뜨거운 마음을 함께 실어보냈으면 내 마음 좀 편할가 생각했소이다. 난 오늘중으로 온 금나수에 나의 혼례를 선포하겠소이다.》
《장군. 기다리소이다. 내 부두령들과 의논하겠소이다.》
그렇게 되여 금나수에서는 급하게 혼례식이 진행되였던것이다.
나리와 부두목들, 군사들의 성의로 지휘옥앞 넓은 마당에 큰 상을 차렸다.
큰 상은 주인놈들 잔치상 부럽지 않게 훌륭히 차려졌다. 온갖 메짐승들의 고기가 오르고 온갖 곡식들로 지은 떡, 지짐들이 올랐다.
나리는 향기그윽한 산꽃들을 꺾어 상앞에 장식을 하고 그앞에 작은 창과 검을 물고있는 수닭과 암닭을 찜하여 맞세워놓았다.
상에서 제일 눈에 뜨이는것이 향기로운 꽃속에 묻혀있는 두마리의 암닭과 수닭이였다.
단군민족이 태여나기전 단군골에서 단군이 처음으로 태여나 고고성을 터칠 때 화려한 금수(수닭)와 은수(암닭)가 하늘에서 훨훨 나래치며 내려와 단군골 앞바위우에 올라 목을 뽑으며 목청껏 울어 민족의 구세주 탄생을 온 천하에 알리고 두개의 바위로 굳어졌다 한다.

그때부터 단군민족은 상앞에 창과 단검모형을 문 두마리의 닭을 세우는데 그것은 단군과 같은 훌륭한 자식을 낳아 키우라는 소망과 바람으로부터 그렇게 한것이였다.
그러한것이니 어찌 벗들과 부하들이 선돌과 소부루의 큰 상에 두마리 닭을 세워주지 않으랴!
상이 차려지자 장군갑옷을 입은 선돌장군과 가죽으로 지은 두령의 옷을 입은 소부루가 머리를 투구대신 꽃으로 장식하고 가지런히 상앞에 섰다.
주례가 된 선사가 앞에 나서 식을 주관했다.
《랑과 부는 환인, 환웅, 단군 삼성인앞에 맹세를 다지오이다.》
선사가 소리쳤다.
선돌과 소부루가 깊이 머리숙이며 소리를 모아 맹세다졌다.
《맹세하오이다. 우리의 훌륭한 삼성인앞에 검은 머리 파뿌리되도록 부부의 마음 변치 않고 함께 살아갈것을 맹세하오이다.》
《랑과 부는 삼성인앞에 술을 부오이다.》
선돌장군은 술대접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소부루는 단지의 술을 대접이 넘쳐나게 쏟아부었다.
선돌장군은 그 술을 상앞에 가져다놓고 소부루와 정중히 꿇어앉아 절을 했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혼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신혼부부에 대한 축하의 놀이가 벌어지게 된다.
마당에서는 벌써 탈놀이, 칼춤, 창춤이 벌어져 법석 끓기 시작하였다.
선돌장군과 소부루는 술단지를 가지고다니며 자기들을 축하해주는 군사들에게 술을 부어 대접했다.
그들의 술을 받아마신 사람들은 사기가 하늘에 올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한껏 흥을 돋구며 돌아갔다.
놀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고조에 올라 온 금나수가 들썩거렸다.
금나수의 흥은 온밤 끝날줄 몰랐다.
행복의 여운을 어렴풋한 꿈속에 두고 부부는 침방에 들었다.
나리가 나인들과 함께 정성껏 꾸린 신혼방은 야릇한 향기로 가득차 마음을 한껏 즐겁게 해주었다.
방의 웃목에는 기름진 음식을 차려놓은 네모난 상이 놓여있고 아래목에는 폭신한 새털을 넣은 부드러운 이불이 깔려있었다.

《우마, 우리 이 밤을 이야기로 즐기오이다.》
소부루가 비할바 없는 행복에 겨워 선돌의 웃옷을 벗겨주었다.
《이 밤을 나의 사랑 소부루를 위해 깡그리 바치겠소이다. 그 무엇이든 마음껏 요구하오이다.》
선돌장군은 뜨거운 품에 소부루를 그러안고 벙글벙글 웃었다.
《나는 선돌장군의 이 품이면 그 무엇도 요구할것이 없소이다.》
소부루가 뜨겁고 억세인 사나이의 품에 몸을 묻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선돌장군은 행복에 달아오른 소부루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다.
껄껄한 칼자리가 부드러운 얼굴에 배암처럼 건너간것이 잡혀졌다.
가슴이 뭉클하며 온몸이 산산이 찢겨져나가는것만 같았다.
선돌장군은 끝내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사나이의 거센 울음을 터치고야말았다.
《소부루—》
《우마—》
눈물속에 그러안은 두 젊은 심장은 거세차게 고동쳤다.
《우마, 눈물을 거두오이다. 어찌 인생이 오래 살아야 행복이겠소이까? 우마를 만난 나의 기쁨은 영원할것이오이다. 우마, 눈물을 거두오이다.》
소부루는 눈물을 떨구지 않으려 애를 쓰며 선돌장군의 껄껄한 머리를 쓸어만졌다.
두 노예의 기구한 운명이 엉켜진 밤이 눈물과 웃음속에 지새여갔다.
창가에 우렷이 새벽빛이 비껴들었다.
《우마, 이제 날이 밝으면 말을 타고 온 금나수를 달리며 신혼소풍을 하소이다. 우리의 행복을 이 귀중한 금나수에 마음껏 뿌려가사이다.》
선돌장군은 힘껏 머리를 끄덕이며 소부루의 두손을 꽈악 그러쥐였다.
창가에서 뭇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자 그들 부부는 말을 타고 이슬에 젖은 금나수 초원길로 나왔다.
《우마, 우리 저 수림가에까지 달려보사이다.》
소부루가 흥에 겨워 말을 몰아갔다.
선돌장군이 소부루의 뒤를 따라 힘껏 내달렸다.
그들은 수림속 깊이깊이 스며들어갔다.

인적도 없는 산속은 산새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올뿐 고요하였다.
우마는 밋밋한 등성이로 말을 몰아갔다.
벼랑우는 앞뒤로 서른보가량의 그리 넓지 않은 등판인데 거기에는 인적이 닿지 않아 각종 들꽃이 한껏 피여 구슬같은 이슬을 머금고있었다.
그들이 마주 향한 봉우리우로 불덩이같은 태양이 불쑥 머리를 내밀었다.
달아오른 쇠덩이처럼 빨간 해는 이글거리며 점점 더 몸을 솟구어 솟아오르는데 얼마나 큰 불덩인지 소부루와 우마는 너무나 황홀해서 그것을 받아안을듯 두팔을 벌리고 환희에 싸여 서있었다.
그들의 발밑에 깔린 아름다운 꽃들에 맺힌 맑은 이슬방울들이 해빛을 받아 구슬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이슬에 차분히 젖어 얌전하게 고개를 숙인 들꽃들은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그대로 수놓아 새겨주는듯싶었다.
《우마, 우리의 금나수는 얼마나 아름답소이까? 그 어딜 가나 금나수만은 영원히 잊지 못하겠소이다.》
《곳이 좋아 아름다운게 아닐테지. 이곳은 우리의 나라위한 마음이 뭉쳐진곳이고 우리의 사랑이 옥으로 굳어진곳이니 더욱 그러하오이다.》
우마는 가슴이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오늘이라도 왕검성의 형장들이 올것이다.
그러면 생도 행복도 오늘로 꺼져버린다.
《우마—》
소부루의 부름에 선돌장군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우리 영원히 이 아름다운곳에서… 영원히 헤여지지 마오이다.》
소부루의 별같은 눈에 기쁨이 찰랑거렸다.
우마는 소부루와 변함없이 한생을 행복속에 살고싶었다.
뚜벅뚜벅—
벼랑밑에서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우마는 깜짝 놀라 소부루를 품속에 으스러지게 그러안았다.
선돌장군의 시종이 말을 몰아 급히 달려오고있었다. 소부루는 긴장한 눈길을 우마에게 돌렸다.
선돌장군은 흠칫 몸을 떨며 그 시선을 피해버렸다.
(왕검성에서 소식이 온 모양이로구나.)
벼랑우에 서있는 선돌장군을 발견한 시종이 입에 손나팔을 해대고

급하게 소리쳤다.

《장군, 어서 내려오시오이다. 왕검성에서 사람이 왔소이다. 지금 급히 장군과 두령을 찾고있소이다.》

(드디여 오고야말았구나.)

벼랑을 내려선 부부는 가지런히 말을 달려 금나수 지휘옥앞에 이르렀다.

엄엄하게 무장을 갖춘 세 무장이 마주왔다.

세 무장이 선돌을 보자 그앞에 무릎을 꿇고앉았다.

《대왕님의 어지를 가지고왔소이다. 소부루두령을 즉시 왕검성에 대령시키라는 어지오이다.》

《알았다. 곧 준비를 시킬테니 근심말아라.》

선돌장군은 꺼지게 한숨을 그으며 소부루를 바라보았다.

《장군, 너무 상심치 마오이다. 갈 길을 알고 가는 군사는 마음이 든든한 법이오이다.》

소부루가 정에 겨운 눈길로 금나수의 안개끼는 언덕을 다시한번 굽어보았다.

《가자!》

소부루는 그 길로 말에 박차를 가했다.

바람처럼 달리는 소부루의 재빛 암말을 세명의 왕검성무장이 뒤따랐다.

금나수어귀에 어른거리던 네 그림자는 드디여 진하게 피여오르는 안개속에 묻혀버리고말았다.

4

왕검성에 이른 소부루와 날파리는 우거왕이 기다리는 궁성의 편전으로 올라갔다.

우거왕은 문피를 깐 옥좌에 앉아 지릅뜬 눈으로 거만하다 할만치 도도한 걸음으로 들어오고있는 소부루를 바라보고있었다.

날파리가 대왕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였다.

《대왕님의 분부대로 금나수의 노예군 두령 소부루를 데려왔소이다.》

그러자 소부루가 왕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머리를 숙였다.

왕앞에 주런이 서있는 대신, 장군들이 도도하기 그지없고 날래기로 이

름높은 소부루두령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는 대신, 장군들의 눈에는 공포감이 뚜렷하게 어려있었다.

편전은 야릇한 침묵속에 빠져있었다.

얼마나 긴장한 분위기였던지 조금만 다쳐도 터져나갈것만 같았다.

《먼길에 수고가 많았노라!》

드디여 우거왕이 침묵을 깨쳤다.

《황송하오이다.》

《얼굴을 들지어다.》

우거왕이 여전히 지릅뜬 눈으로 소부루를 바라보며 말했다.

《알겠소이다.》

소부루는 얼굴을 들고 무엄하달 정도로 우거왕을 쳐다보았다.

가느스럼히 눈을 좁히고 소부루를 바라보는 우거왕의 수염이 가늘게 떨렸다.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였다.

《그래 아직도 고집할테냐?》

거치른 우거왕의 목소리가 편전을 쩌렁하게 뒤흔들었다.

전번 왕앞에 감히 도전하고 돌아선 그 책임을 묻는것이였다.

그때 소부루는 왕이 하사하는 봉토와 노예를 거절했을뿐만아니라 노예의 허물을 벗기고 호민으로 승격시켜주겠다는것마저 단호하게 일축해버렸던것이다.

《… …》

또다시 답답한 침묵이 긴장에 싸인 편전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왜 말이 없는고?》

《예, 저는 노예이오이다.》

소부루가 머리를 숙이며 왕에게 여쭈었다.

《뭐라고?》

왕이 눈을 무섭게 흡뜨며 또다시 물었다.

《저는 노예로소이다.》

소부루의 입에서는 찍어놓은듯 오직 한마디만 새여나왔다.

《그럼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그 고집일테냐?》

《그 일엔 뼈가 부서진대도 한몸 바치겠소이다.》

《하하…》

갑자기 호탕한 우거왕의 웃음소리가 방안을 들었다놓았다.

침묵속에 가슴을 조이던 편전안은 공포에 휩싸여버렸다.
저 웃음뒤에는 무자비한 판결이 이어질것이기때문이였다.
드세찬 벌말처럼 고집이 세고 꺾을줄 모르는 자존심을 가진 저 불쌍한 나인의 운명은 이제 일각에 이른것이였다.
몇몇 대신들과 장군들은 소부루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냈다.
성기도 심각한 얼굴로 깊은 사색에 잠겨있었다.
(어찌 나인이 저처럼 마음이 굳셀수 있는가.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일약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 형대에 올라서다니.)
눈물이 날 정도로 동정이 갔다.
왕에게 다시 건의하여 그의 아릿다운 생을 고스란히 지켜주고싶었다.
허나 왕의 자존심을 저토록 무자비하게 건드려놓았으니 감히 왕에게 건의할 용기조차 생기지 않았다.
성기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왕앞에 부복해있는 소부루를 바라보았다.
《소부루, 머리를 들어라. 내 말을 명심할지어다.》
소부루는 태연자약한 얼굴로 머리를 들었다.
모든 대신, 장군들의 눈길이 내려드리운 수염을 부르르 떠는 우거왕의 입을 지켜보았다.
《지금 북방새에 합당한 장수가 없어 비였으니 나라의 가장 약한 고리가 북방새이다. 북방새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이 왕검성이 위태로워지거니 나라의 큰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는가 하노라.》
왜 그런지 왕의 얼굴이 침중해졌다.
대신, 장군들과 평의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하여 왕담을 그곳의 장수로 맡겨놓았으나 오랑캐의 침습을 막아내지 못하고 왕검성으로 쫓겨와 없는 군사를 내라고 타발하고있었다. 군사를 주지 않으면 아예 가지 않을 자세의 왕담이였다.
왕담의 요구에도 일리가 있는지라 우거왕은 무작정 쫓아내지는 못하고 속만 썩이고있었다.
왕담의 말대로 북방새를 지키기에는 그곳에 있는 군사가 너무도 적었다. 그렇다고 다른 전장에서 군사를 떼여 그곳에 붙일 형편도 못되였다.
진퇴량난에 빠져 며칠동안 전전긍긍하던 우거왕은 며칠전에 왕의 호의에 도전하고 금나수로 물러간 소부루에게 생각이 미쳤다. 소부루를 북방새에 앉혀볼 생각이였다.

장수의 기질인 대장부가 아니라 나인이기는 하지만 금나수에 자발적으로 들어오기전까지 많은 노예군을 통솔하고 조선땅 사방을 번개처럼 나돌던 두령이라 마음만 동하면 북방새는 능히 맡아줌즉 했다.

그러나 사내대장부에 비길바 없는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낼가 근심에 싸여있던 우거왕이였다. 그런데 저렇듯 순순히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한몸 바치겠다니 우거왕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었다.

《하하…》

우거왕은 진심으로 기뻐 통쾌하게 웃어댔다.

《소부루, 너야말로 조선의 대장부 넋이로다.

진정 치마를 두른것이 아깝도다. 나는 너에게 북방새를 맡기련다.》

대신, 장군들은 물론 성기도 너무 놀라 두눈이 떼꾼해졌다. 성기자신도 북방새때문에 속에 재가루가 앉을 정도로 마음을 썩여왔으나 감히 그자리에 노예군 두령인 한갖 나인을 앉힐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

성기의 가슴속에는 환성비슷한 기쁨이 용솟음쳐올랐다.

소부루는 나인두령이나 나라의 장군인 왕담장군이나 왕협장군따위와는 비할바 없는 충신이다.

환희가 터져오를것만 같이 마음이 한껏 부풀어올랐다. 나라의 군사를 통솔하는 자기도 감히 생각못했던 모퉁이를 왕이 튕겨주었다.

우거왕에 대한 고마움이 뭉클 솟구쳐올랐다. 그런것을 자기는 어지를 도전해나선 한갖 노예나인을 왕이 용서치 않으리라고만 생각했다.

우거왕은 왕이기전에 사나이, 대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위한 일에 자기의 잡사나 자존심같은것은 묵새기고 더 큰것을 숭상할줄 아는 진짜대장부가 아닌가!

《소부루는 나의 령을 들으라. 너는 금나수의 노예군 3천을 떼여가지고 즉시 북방새로 가 부대를 통합하고 북방새를 지킬지어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일이니 너도 박달겨레의 피줄인지라 감히 일축하지 않으리라 믿노라.》

《대왕님, 황송하오이다. 내 보잘것 없는 노예나인이나 임금님의 그 은총과 믿음에 진심으로 보답하겠나이다.》

《와하하…》

우거왕이 룡상을 주먹으로 치며 통쾌하게 웃어댔다.

《네 이제야 굴복해들었구나, 와하하…소부루를 나인장군으로 봉하노라.》

성기의 집에서는 나인장수를 맞이한다고 법석 떠들며 돌아갔다.

더우기 기뻐 어쩔줄 모르는것은 아사리였다. 자기처럼 보잘것 없는 나인도 나라위해 이처럼 큰 창을 잡을수 있다니 신비하기도 하고 힘도 났다. 어떤 나인인지 소부루장군을 어서 빨리 보고싶었다.

집앞으로 요란한 수레의 방울소리가 울려왔다. 아사리가 달려나가 대문을 열었다.

수레에서 성기대장군이 내리고 뒤이어 금빛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소부루장군이 내렸다.

《소부루장군, 안녕하셨소이까?》

얼굴에 감빛 홍조를 띤 아사리가 달려가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하하… 나의 시종이요. 장군이 래도하니 우리 아사리가 제일 기쁜 모양이요.》

성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사리를 소개했다.

《반갑소이다. 어서 머리를 드오이다.》

소부루는 아사리의 손을 잡고 대문안으로 들어섰다.

여느때없이 흥에 겨운 시종들이 대청마루에 주런이 나와 례를 표했다.

《자, 안으로 들어가소이다.》

성기는 소부루장군을 안방으로 안내해갔다.

《얘, 아사리야. 시종들을 다 물리고 소부루장군을 모셔야겠다. 불편이 없게말이다.》

《그리하겠소이다.》

아사리가 무둥 기뻐하였다.

《그럼 잠시 장군과 이야기를 나누어라. 난 잠간 처리할 일들을 보고 곧 오겠다.》

《알겠소이다.》

성기대장군이 나간 다음 아사리는 스스럼없이 소부루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소부루가 주인의 씨가 아니라 자기와 같은 노예의 후손이라는데 마음이 통한 아사리는 소부루가 스스럼없이 친절하게 느껴져 행동에 구속이 없었다.

《어그나, 네 어찌 이리도 예쁘냐?》

소부루는 방긋이 웃음을 짓고 함박꽃같은 아사리의 아릿다운 얼굴을 쓸어만졌다.

《장군의 그 눈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이 왕검성에서 따를 이가 없을것이오이다.》

소부루의 어글어글하고 부드러움이 한껏 어린 그 눈에 대번에 반해버린 아사리가 스스럼없이 감탄을 터쳤다.

《그런데 그 고운 얼굴 어찌 흠집이 났소이까?》

아사리가 가슴아픈지 낯빛을 흐렸다.

《어찌 사람의 얼굴이 제 모양대로만 남아있겠느냐. 호호… 그런데 저 창가의 산죽나무는 네가 기르느냐?》

소부루가 말꼬리를 돌리며 창가의 산죽나무를 가리켰다.

《아니오이다. 그건 나도 손을 못다치오이다. 대장군께서 손수 키우시나이다.》

《거기에 무슨 사연이 깃들었기에 대장군이 손수 키우느냐?》

소부루가 의혹에 잠겨 산죽을 바라보았다.

《저 산죽은 나리라는 나인이 좋아하던것인데 그걸 대장군이 정히 키우오이다.》

《그건 무엇때문에 그리하느냐?》

소부루의 의혹은 더해졌다.

《거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소이다. 대장군어른이 금나수에 갔다온 후 너무도 고심하시기에 물었더니 속임을 모르는 대장군께서 말씀하셨소이다. 대장군은 오직 나리 한 나인만을 사랑하오이다. 그 나인이 우리 대장군을 배반하고 달아났지만 대장군은 나리가 기르던 저 산죽을 놓지 않고있소이다.》

《나리를?…》

소부루는 깜짝 놀랐다. 금나수의 교련두목 나리가 성기대장군의 사랑이라니 정말로 놀라왔다.

《옹,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소부루는 머리를 끄덕이며 푸르싱싱하게 가지를 펼친 산죽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왜서인지 소부루는 가슴이 뭉클하며 선돌장군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왔다. 이제 그 그리운 사랑을 두고 멀리 떠나야 하는 자기의 심중도 저 대나무에 담겨지는것만 같았다. 왜 그런지 마음이 애달파졌다.

한그루 산죽 — 그것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애닲게 하는것이냐!

5

금나수에 이른 소부루는 다음날로 떠날 준비를 갖추었다.

3천의 군사가 뽑혀 정예군이 무어졌다. 출발을 앞둔 정예군 3천이 지휘옥앞 공지에 정렬해섰는데 그 기세 장엄하기 그지없었다.

금나수군사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소부루가 대오앞으로 나서는데 무장을 갖춘 나리교련두목이 따라나섰다.

《교련두목은 어찌하여 무장을 갖추었소이까?》

소부루가 눈이 둥그래 군복을 갖추고 방패와 창을 들고 말에 오른 나리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나도 수비군을 따라가오이다.》

나리가 생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이오이까? 이 금나수에서도 교련두목의 손길이 중한것이온데…》

그러자 나리가 즐겁게 웃음을 터쳤다.

《이미 선돌장군이 허락했소이다. 형세사나운 북방에 가서 나인 한몸으로 어찌 생활을 헤쳐가랴 근심스러워 가겠다고 떼썼더니 그리하라 했소이다.》

소부루는 눈굽이 시큰해왔다. 나리의 그 깊은 마음에 감동되였고 금나수의 어려운 형편도 아랑곳없이 선뜻 금나수의 기둥 하나를 뽑아주는 선돌장군이 고마왔다. 그 외로운 북방에 나리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길동무가 되랴싶었다.

《정말 고맙소이다, 나리…》

소부루는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막상 떠나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금나수에서의 생활은 길지 않았으나 소부루의 한생에서 영원히 떼여놓지 못할 기쁨이며 행복이였다.

소부루는 이곳에서 자기의 사랑 우마를 만났고 군사들의 진심과 축복속에 선돌장군과 혼례를 이루었다.

허나 소부루는 꿈과 같은 신혼생활을 뒤에 두고 준엄한 전장으로 떠나가는것이였다.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그 길, 두령들은 신방을 꾸렸으니 다문 며칠만이라도 선돌장군과 더불어 안락한 보금자리를 함께 하고 가라 했으나 소부루는 기어이 이 길에 나서고야말았다.

두령들이 하도 안타까와하자 소부루는 그늘없이 밝게 웃으며 《혼례식하는 날 두목들은 모두 술속에 빠져 헤여나지 못했지만 우리 부부는 신방에 들어 행복한 시각을 보냈소이다. 그것을 마음깊이 간직하면 됐지 또 무엇이 필요하오이까?》하고 말했다.

두목들은 가슴이 뜨거워 더 입을 열지 못했다. 우마나 소부루도 장군이기전에 인간일진대 왜 남처럼 신혼의 그 향긋하고 뜨거운 품을 그리지 않았으랴!

북방새에 위험이 순간을 다투며 다가오고있는 지금 우마, 소부루는 자기들의 향락만 생각지 않았다.

《자, 가자!》

소부루가 말의 고삐를 채며 조용히 령을 내렸다.

뿔나팔수들이 길게 나팔소리를 울렸다. 대오가 출발했다.

소부루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오의 앞장에 서서 금나수를 나섰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정든곳이였다.

지휘옥의 창가에는 선돌장군이 서있었다. 그의 눈에서 소부루의 금빛장수복이 점점 멀어져갔다. 달려나가 금나수의 숲속에 자취를 감추기전에 소부루의 따뜻한 손이라도 한번 더 잡아보고싶었다.

선돌장군은 소부루와 더불어 나란히 서서 함께 말을 달리며 다정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수도 있으련만 어쩔수없이 욕망을 눌러버렸다.

자기들은 장군들이라 그런 행복을 나누는것을 군사들이 본다면 얼마나 부러워하겠는가!

노예의 지긋지긋한 천대와 멸시속에 인간의 따뜻한 정이란 가져보지도 못한 그들이 자기 장군들의 행복의 순간을 본다면 얼마나 서글퍼하며 자기들에 대한 비하감을 느끼랴!

그들이야 모두 준엄한 북방새로 떠나는 귀중한 군사들이 아닌가.

선돌장군은 소부루가 깊이 리해하리라 믿고 바래러 나오지도 않았다.

선돌장군의 눈길에서 멀어지던 소부루의 금빛 갑옷이 숲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길게 늘어선 북방수비군의 기마행렬만 바라보이였다.

선돌장군은 갑자기 마음속의 기둥이 뽑혀져나간듯 허전해왔다.

《장군, 수비군이 떠났소이다.》

구두막이 구슬픈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래, 별일없이 해보냈느냐?》
선돌장군이 창가에서 돌아와 자기 자리에 앉으며 정중히 물었다.
《예, 무사히 보냈소이다. 그런데…》
구두막이 주밋거렸다.
《왜 그러느냐?》
선돌장군이 랭담하게 물었다.
《소부루장군을 너무도 섭섭히 보낸것 같소이다.》
《섭섭히 보내다니?》
《다시 돌아올지 예약치 못할 길로 보내면서 장군의 마음 너무도 차오이다.》
구두막은 로골적인 불만을 품고 내쏘았다.
날승이 구두막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을 했다.
《구두막이 그러오면 장군의 마음 더욱 아프시지 않소. 오죽했으면 바래우러도 못나가셨겠소.》
《허허… 그러지들 말게. 어찌 오늘만 날이겠나. 이제 소부루가 변방새를 지키고 승전고 울리며 돌아올 때 내 임자들의 소원을 풀어 대잔치도 베풀고 보란듯이 혼례행렬도 이루어보겠네. 자, 모두들 앉게. 오랑캐들이 기어이 자기의 검은 마음 이루려 이 시각에도 발악코 있을터이니 우리는 더욱더 준비를 튼튼히 해야 하겠네.》…
수비군은 사흘만에 북방새에 이르렀다.
북방새에 이른 소부루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동안 왕담이 이루어놓았다는것이 산짐승들을 잡아 불고기 해먹은 모닥불터뿐이고 군막 하나 변변히 쳐놓지 않아 당장 군사들이 들곳도 없었다.
헐벗고 굶주림에 떨던 새의 군졸들이 새로 증강해온 북방수비군을 초점 잃은 눈길로 멍해 쳐다볼뿐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인장군이 온것을 놀랍고 고깝게 생각했다.
새를 낱낱이 돌아본 소부루가 수하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큰 박달나무밑에 림시 지휘소를 정한 소부루는 수장들이 도착하자 명령부터 내렸다.
《모든 군사들은 지금부터 군막을 짓는데 떨쳐나설지어다. 나무를 찍어 귀틀막을 짓되 일시적인 생각을 버리고 든든하게 세울것이다. 래일 해질녘까지는 충분히 들어가 살게 할것이며 이를 어기는 군사들은 군

법으로 엄히 다스릴것이노라.》
《알겠소이다.》
수장들이 머리를 숙이며 일제히 대답했다.
《빨리 가서 집행하도록 하여라.》
령을 받은 수장들이 흩어져갔다.
여기저기서 군사들을 찾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여기서도 저기서도 나무를 찍는 소리가 쩡쩡 울려왔다.
림시초막들이 널려있던 골짜기마다 그쯘한 귀틀집군막들이 서고 훈련장들도 닦아져 제법 군사들의 근거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였다.
소부루는 그 길로 북방새를 요새로 갖추는 일에 달라붙었다. 오랑캐의 말들이 드나들수 있는곳에는 마름쇠를 촘촘히 깔아 범접을 못하게 했고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지대는 깊은 함정을 파놓아 말들과 군사들이 뛰여넘지 못하게 했다.
허나 지켜야 할 지역이 하도 넓은지라 손길이 미처 못가는 지대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곳은 적들이 잘 알지 못하는곳들이여서 한숨 놓이는곳이기도 했다.
날파리가 와서 새의 경계지점을 말을 타고 낱낱이 돌아보았다. 우거왕에게 수비군이 전개된 후의 그곳 정형을 낱낱이 보고해야 했던것이다.
날파리는 놓치는것이 있을세라 북방수비군의 군막과 훈련장, 화식장까지 낱낱이 료해하고야 왕검성으로 돌아섰다.
날파리의 보고를 받은 우거왕은 기뻤다.
《그만하면 북방새는 마음이 놓이렸다. 나라의 부담이 크게 덜렸노라.》
우거왕은 만족하여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면 그렇겠지, 소부루장군이 어련할라구.》
그런데 일은 뜻하지 않던곳에서 터졌다.
오랑캐 2천이 적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약간의 군졸만을 배치했던 우달골을 뚫고 새를 넘어섰던것이다.
소부루는 아연실색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였다.
오랑캐가 우달골의 방비를 어떻게 알고 그곳으로 새여들었는지 도저히 알수 없었다.
북방새의 방비상태는 직접적인 수장들이나 알았지 군졸들조차 그 구체

적인 정형을 알수 없었다.
그런데 그걸 오랑캐들이 알고 우달골로 새를 넘어섰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수장들속에 오랑캐의 간자가 있는것이 아닐가?
소부루의 마음은 한껏 긴장해졌다. 아무리 수장들을 따져보아야 그럴만한 수장은 느껴지지 않았다.
(도대체 이것은 어찌된 일일가?)
소부루는 깊은 의혹을 안고 장수마에 올랐다.
곧 수비군은 새를 넘어선 오랑캐를 족치는 싸움에 진입하였다.
수비군은 즉시 왕검성을 향해 진격해가는 오랑캐들의 뒤꼬리를 추격해갔다. 전투는 왕소당초원에서 벌어졌다. 왕담부대가 뒤쫓아온줄 알고 코웃음을 치며 접전했던 오랑캐군은 넋살이 떨어졌다.
특히 그들을 놀라게 한것은 황금빛장수복을 입은 장수였다.
찍하면 군졸들을 앞에 내밀고 뒤꼬리에 서서 어물거리다가 뒤꽁무니를 빼던 왕담과는 달리 싸움이 붙으면 자기들의 무리앞으로 화살처럼 솟구쳐나와 오랑캐기마병들의 중심으로 꿰질러나가면서 어떻게 창질을 하는지 감히 범접하는 오랑캐가 없었다. 그렇게 지나치는가싶었는데 어느새 돌아서 적진을 가로지르면서 번개처럼 내달리며 오랑캐를 쓸어눕히는데 그의 앞이 대통로처럼 쭉 열리군하였다.
《살별장수다!》
누군가 질겁하여 도망치면서 웨쳐댔다.
그러자 오랑캐대오는 산산이 흩어지며 공포의 아우성을 질렀다.
《살별장수가 강림했다, 빨리 뛰라, 모두 몰살하고만다.》
아비규환의 정경이 벌어졌다. 질겁하여 까무라쳐 넘어지는 오랑캐가 있는가 하면 정신을 잃지 않은 장수도 방향을 잃고 산으로 뛴다는것이 강으로 저벅저벅 뛰여들어 저절로 꼴깍하는가 하면 평지초원으로 말을 달려간다는놈이 산으로 올라 벼랑앞으로 냅다 질러나가 천길벼랑밑으로 떨어져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오랑캐들이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혼비백산한것은 《살별장수》때문이라고들 하였다.
《살별장수》란 혜성의 신을 타고난 장수를 가리키는것인데 나라의 형세가 복잡해지거나 두 나라의 싸움이 오래 결판나지 않고 불행만 련속되는 경우 하늘님이 전쟁이나 내란을 바로잡기 위해 내려보내는 신하장

수를 이르는 말이였다.

《살별장수》가 내려오는 경우 싸움을 즉시 중단하고 본국으로나 자기 소굴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살별장수》의 칼에 맞아 죽어버린다는것이였다.

호박에 동침이나 마찬가지던 왕담이 그처럼 날랠수 없고 왕담의 군졸들이 그처럼 용감하고 전법에 능할수 없은즉 틀림없이 《살별장수》의 군졸들이 아닐수 없다고 오랑캐무리들은 지레짐작하였던것이다.

수천명의 주검을 왕소당초원에 깐 오랑캐들은 몇명 남지 않은 인원으로 겨우 자기네 새를 넘었다.

왕소당전투는 피도 얼마 흘리지 않고 소부루장군의 대승리로 끝났다.

기지로 돌아온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치뚫을듯했고 자기네 장수에 대한 신뢰가 컸다.

수비군은 소부루장군의 령으로 새를 튼튼히 꾸리고 전면적인 교련에 들어갔다.

교련 총지휘는 소부루와 함께 나리가 적극 담당하여 기세를 올렸다.

오랑캐들은 얼마나 혼쌀이 났던지 또다시 기여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북방새에서는 비교적 평온한 나날이 흘렀다.

허나 소부루는 단 하루도 긴장한 마음을 풀지 않았다.

나라의 중요한 북방새를 맡고나서 늘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날수 없었던것이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소부루장군이 말타기를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는것이 확연히 알렸다.

나리는 겁이 더럭 났다. 소부루가 자리에 누우면 야단이다. 오래동안 오랑캐들의 침습기도가 보이지 않았으나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장군, 몸이 편치 않은게 아니오이까?》

군졸들의 교련을 끝내고 막사로 말을 타고 가지런히 돌아오던 길에 나리가 소부루에게 물었다. 그러자 소부루는 얼굴을 붉히며 몹시 당황해하였다.

《…?》

나리도 묻지 않을것을 물었나싶어 당황해하였다.

잠시 붉어진 얼굴을 숙이고있던 소부루가 얼굴가득히 웃음을 짓고 나리를 수집은듯이 바라보았다.

《나리, 오늘 우리 저 언덕으로 꽃구경 갈가?》

소부루의 말에 나리는 깜짝 놀랐다. 자기가 소부루장군의 말을 잘못 들었나싶었다.

언제 한번 사사일에 관심 돌리는것을 보지 못했고 특히 나인들만이 향유할수 있는 그 아기자기한 생활을 모두 버린 소부루였다.

그랬던 소부루가 봄도 아닌 락엽이 지는 가을에 꽃구경을 가자는것이 놀랍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 어찌된 일이오이까? 꽃피는 봄도 아닌 가을에 쓸쓸한 락엽이나 보러 가겠소이까? 호호…》

나리는 갑자기 웃음을 터쳤다. 그바람에 평온히 걷던 말이 깜짝 놀라 두발을 들었다놓으며 호함진 소리를 질렀다.

나리가 고삐를 조여잡으며 말을 안착시켰다.

《어찌 꽃이 봄에만 제 모습을 드러내놓겠느냐. 비록 한떨기일지라도 절기를 넘어 굳세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

소부루도 따라웃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꽃도 제철인데 어찌 철늦은 꽃이 아름답겠소이까?》

나리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나는 늘 그런 꽃을 보고있노라.》

소부루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채 말을 이었다.

《그런 꽃을 본단말이오이까?》

나리는 놀라운듯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단풍이 붉게 타는 숲속에 어수선한 락엽들만 쌓여 바람에 흩날릴뿐 꽃이라고는 한송이도 눈에 뜨이지 않았다.

소부루가 갑자기 즐거운 웃음을 터쳤다.

《나리, 어찌 꽃이 땅우에서만 피겠느뇨? 그 가라말우에 앉은 나인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뇨?》

《어마, 이 일을 어쩌면 좋담. 장군, 다시는 그런 말씀 말아주사이다.》

나리는 귀밑머리가 날리는 귀여운 두뺨을 노을빛으로 함뿍 물들이며 어쩔줄 몰라했다.

소부루는 그러는 나리를 재미있는듯 바라보았다.

《나리, 이 세상에 나리를 그토록 아름답게 사랑하는 대장부 있음을 나는 뒤늦게 알았노라.》

소부루의 그 말에 깜짝 놀란 나리는 의아하게 소부루를 바라보다가 살래살래 머리를 흔들었다.

《장군, 나에게는 그런 사나이가 없소이다.》

《나리에게는 없을수도 있겠지. 허나 나리때문에 굳은 마음 숯덩이처럼 푹푹 태우며 산죽만 기르는 사나이가 있노니 나리가 어찌 그것을 알리오.》

《산죽을 기르다니, 그것이 사실이오이까!》

놀라움에 휘둥그래진 나리의 커다란 눈이 그 무슨 애달픔과 비감으로 하여 끝없이 처량해보였다.

뚜벅뚜벅 … 침묵속에 말의 발걸음소리만 고요한 정적을 깨쳤다.

이윽해서야 나리가 안타까이 입을 열었다.

《장군, 불쌍한 소녀의 마음 긁어내리지 말고 자세히 말씀해주오이다. 대체 무슨 일이오이까?》

《왜 말이야 못해주겠느냐. 내 장군벼슬을 받고 성기대장군의 집에 가보니 고명하신 대장군께서 홀로 독방에 산죽 한그루 곱게 키우시며 그 어떤 나인도 보지 않는다 하니 그 마음 얼마나 뜨거우시냐?》

《그게 무슨 말이오이까? 성기대장군은 벌써 부마가 되여 공주 은황과 더불어 재미를 보고있겠거늘 소녀를 놀리지 말아주오이다.》

《호호…》

수림을 뒤흔들며 소부루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첫째 공주 은황은 왕담과 혼사가 이루어져 벌써 후대를 보았니라. 우거왕이 기어이 성기대장군을 부마로 봉하려 했으나 성기대장군이 이미 약조한 나인이 있으니 널리 보살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니 왕이 너그러이 허락하여 왕담을 부마로 받아들였노라.》

갑자기 흑― 하는 흐느낌소리가 들렸다.

나리가 정신없이 말고삐를 잡아챘다.

평보로 걷던 말이 갑자기 네굽을 놓으며 내달렸다.

나리는 죽어라 고삐를 잡아채며 헉헉 흐느껴울었다. 자기가 어디로 달리고있는지 개의치 않았다.

휙휙― 스쳐지나는 수림과 맑은 하늘에 떠있는 흰구름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지 놀라울 지경이였다.

온 세상이 현란한 꽃보라속에 번쩍이는것만 같았다.
나리도 비로소 이 세상에는 비운만이 아닌 이런 행복도 있구나 하는 남다른 감정을 느껴보았다.
말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덧 말이 언덕우에 이르렀던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언덕우에 뛰여내린 나리가 비단결같이 푸른 잔디가 덮인 언덕우로 디굴디굴 굴었다.
어디선가 상긋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돌아보니 온 언덕이 향꽃 (들국화의 일종)으로 가득 덮여있었다.
《아, 꽃 ―》
나리는 꽃을 그러안고 걸탐스럽게 향기를 맡았다.
《호호…》
뒤에서 소부루의 쟁쟁한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돌아보니 말고삐를 쥐고 선 소부루가 죽어라 웃어대고있었다.
《장군, 왜 그러오이까, 이 몸에 무슨 흉한것이라도…》
《호호… 어찌 사람이 흉한것만 보고 웃겠느냐.
기뻐하는 네 모습을 보니 네가 그러안은 그 향꽃보다 더 아름답고나.》
《어마―》
깜짝 놀란 나리가 안고있던 꽃을 화들짝 놓아버리며 얼굴을 붉혔다.
소부루는 또다시 유쾌하게 웃었다.
두 나인은 여기에 와서 비로소 녀인의 세계에 빠져 한껏 웃어보는것 같았다.
《나리, 이 향꽃이 어떠하냐? 봄에 피지 않는 꽃이라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느뇨?》
소부루가 향꽃을 그러안고 향기를 맡았다.
《아니오이다. 꽃중의 꽃이 향꽃인줄 아오이다.》
《호호… 그것은 네 가슴속에 사랑이 차서 그리 느껴지는것이노라. 사랑 없이야 꽃이 어찌 아름답겠느냐? 네 좋아하는 모습 성기대장군께서 보시면 얼마나 대견하시겠느냐?》
《어마, 또 놀리셔. 그러하오면 이 나리 가슴타서 무엇이 남겠소이까?》
나리는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향꽃에 묻고 헉― 흐느낌을 터쳤다.
소부루가 나리의 머리를 와락 품에 그러안았다.
《나리, 이러지 마, 내 어찌 네 아픈 마음 모를소냐, 나리. 이러

지 마.》

나리는 다감한 어머니인듯한 소부루의 품에 더욱 파고들며 목놓아 울고울었다.

참고참던 인생의 그 아픔을 다 쏟아놓는것만 같았다.

《나리, 이제 우리 승전하고 왕검성에 가면 네 성례부터 치르자. 우리도 관복벗고 행복한 생활을 꾸려보자꾸나.》

나리가 천천히 소부루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다.

《장군, 싫소이다. 소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몸에서 땀내나는 전복을 벗지 않겠소이다. 이 세상에 불의가 남아있는 한 이 나인의 몸에서 전복은 벗겨지지 않을줄 아오이다.》

《나리—》

소부루는 아무 말없이 파르르 어깨를 떠는 나리를 한품에 지그시 그러안았다.

《나리야, 우리 저 벼랑가로 가볼가, 무엇이 보이나.》

소부루의 그 말에 나리가 얼굴을 들고 백합같이 함빡 웃었다.

한껏 풀을 뜯던 두마리의 말이 서로 얼굴을 비비며 흥겹게 소리를 질렀다.

늘 드세찬 주인들의 발길밑에 땀만 흘리던 수고많은 그 말들도 오늘 비로소 마음껏 기쁨을 느껴보는듯싶었다.

《장군, 내 하나 묻겠소이다.》

벼랑가에 소부루와 나란히 발을 드리우고 먼 하늘을 바라보던 나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무엇이냐? 어서 말하렴.》

멀리 흘러가는 구름을 생각깊이 바라보며 소부루가 입을 열었다.

《요즘 어째 장군의 맑던 얼굴에 검버섯이 돋소이까? 말에 오르기조차 힘겨워하시니…》

소부루가 얼굴을 떨구며 중얼거리듯 대답했다.

《내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요즘 자꾸만 메스껍고 신것을 먹고싶구나.》

《어마, 이 일을 어쩌나. 제 어른들의 말을 엿들으니 태기가 있으면 신것, 단것, 매운것을 찾는다 했는데 분명 태기가 있는게 아니오이까?》

나리가 놀라 소부루의 얼굴을 살폈다.

《그런가보구나.》

《그럼, 이 일을 어찌하오이까? 제가 금나수에 갔다 오겠소이다. 이 일을 선돌장군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소이까?》
소부루가 머리를 저으며 나리의 팔을 잡았다.
《그러지 마. 그이가 어찌 잡사에 생각이 끌리게 하겠느냐.》
《장군, 그러지 마시고 금나수에 가셔야 하오이다. 이곳은 제가 남아 지키겠으니 마음놓고 가사이다.》
《호호… 난 오히려 너를 보내려 했는데 네가 되려 나를 권하느냐.》
《장군, 부탁하오이다. 떠나주사이다.》
《나리야, 너마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겠느냐? 내 그럴라치면 이곳에 무엇하러 왔겠느냐? 내 처음 주인놈들이 미워 칼을 잡았댔다만 칼을 잡고보니 역시 나라를 먼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구나. 내 어려서부터 우리 단군조선의 귀중함을 아버지에게서 들으며 컸거늘 나라가 오랑캐의 발굽에 짓밟히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 제 안락만 찾고있겠느냐? 이건 나만이 아닌 내 사랑의 마음도 같느니라.》
《허나 선돌장군이 이걸 아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겠소이까?》
소부루는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내 북방새를 떠나면 선돌장군의 마음 더 아프시다. 이건 비밀이니 너와 나만 알자.》
《장군ㅡ》
나리는 울컥 격정이 솟구쳐 소부루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6

드디여 북방새에 새 생명이 태여났다.
새 생명의 우렁찬 고고성이 산세거칠고 바람세찬 북방겨울의 차거운 하늘로 높이 울려퍼졌다.
이것은 변방수비군모두의 경사이고 행복이였다.
군사들은 새 생명과 장군을 위해 새 귀틀집을 꾸려주었다. 그리고는 허물없이 찾아와 장군에게 문안드리고 무쇠덩이처럼 단단하고 무거운 사내아이를 안아보군했다.
사내아이는 선돌장군을 닮아 뼈대가 굵직굵직하고 넙적한 얼굴에 두눈은 령채령롱한데 힘차게 몸을 움직이면 당해내기 힘들었다.

한번 울음을 터치면 온 막사골안을 들었다놓았다.
새 생명은 이 땅의 굴함을 모르는 산악처럼 자라났다.
소부루가 금방 젖을 먹고난 아이를 요람에 재우고있는데 새를 경계하던 수병이 달려들어왔다.
《장군, 오랑캐가 새에 집결하고있소이다. 금시 쳐들어올 자세오이다.》
수병은 달려오느라 숨이 차서 헐떡이며 알리였다.
《즉시 출전준비하라!》
소부루가 장수복을 입으며 령을 내렸다.
밖에서는 벌써 뿔나팔소리가 퍼지고 북이 요란하게 울렸다. 급해맞은 나리가 달려들어와 소부루를 막았다.
《장군, 그 몸으로 나가지 못하오이다. 바람을 쏘이면 안되오이다. 부탁이오이다. 이번 싸움은 제가 나갈터이니 제발 몸을 돌봐주오이다.》
나리가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나리, 네 마음을 알만하다. 내 나가지 않을바에야 여기 있어 무엇하겠느냐? 장수란 이런 때 쓰는게 장수이노라.》
소부루는 갑옷착용을 끝내고 창과 방패를 찾아들었다.
《장군, 가지 마소이다.》
나리는 안타까이 부르짖었다.
《나리, 새가 위험에 처했는데 내 어찌 남으라는거냐, 일없다.》
소부루는 문을 열고 나가 말을 찾았다.
구종이 소부루의 룡마를 끌고왔다.
말에 오른 소부루는 박차를 가해 정렬하여선 군졸들앞으로 달려나갔다.
군졸들의 준비상태를 돌아본 소부루는 그 길로 수장들을 데리고 감시장으로 나갔다.
놈들의 새가 벅적 끓어댔다. 간간이 바람타고 들려오는 말울음소리, 욕지거리, 비명소리, 쇠가 부딪치는 소리…
새 한귀퉁이로는 벌써 오랑캐들이 넘어서기 시작했다.
《빨리 자기 자리를 지켜 오랑캐들을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소부루가 창을 높이 꼬나들며 벼락같이 호령을 내렸다.
새의 여기저기에 오랑캐들이 나타났다.
일순간에 온새가 오랑캐들로 가득찼다.
기병대의 앞장에는 뿔이 달린 투구에 검은 덧옷을 입은 오랑캐두목이 철퇴를 휘두르며 졸병들을 미친듯이 내몰아댔다.

고조선과 오랑캐사이에 치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한놈의 오랑캐도 새를 넘기지 말라!》
소부루가 노호처럼 오랑캐를 맞받아나가는 군사들에게 웨쳐댔다.
전장에 소부루의 황금빛갑옷이 나타나자 놈들은 질겁하여 돌아섰다.
《야, 돌아서라. 저건 〈살별장수〉가 아니라 비천한 노예나인이다. 저 노예나인을 쳐라.》
《뿔 달린 투구》가 가시 달린 철퇴를 윙윙 돌리며 악을 썼다. 내빼던 오랑캐들이 자기 두령의 사정없는 살인철퇴가 무서워 돌아서 미친듯이 달려들었다.
오랑캐들은 번개같이 종횡무진하는 소부루의 뒤에 벌떼처럼 달라붙어 집요하게 따랐다.
소부루와 그의 군사들이 돌아서 때려눕히면 다른 무리가 또다시 달려들었다.
나리는 소부루곁에 바싹 붙어 사방을 살피며 소부루를 호위했다.
북방수비군들이 어찌나 날래고 드세찬지 접어들던 오랑캐선두대오가 끝내 거덜이 나고말았다.
악을 쓰던 오랑캐두령놈도 할수 없었던지 새를 넘어 뺑소니를 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차까지 가진 강력한 대항군이 나타났다.
놈들은 또다시 새를 넘어서며 살벌하게 날치였다. 소부루의 군사들속에서 부상자들이 생겨났다.
겁을 먹은 수장 하나가 소부루에게 달려와 일단 뒤로 물러나 피하자고 했다.
소부루는 완강하게 부정했다.
《오랑캐들이 이 새를 넘으면 왕검성이 위험에 처하게 되오. 왕검성에 위험이 도래하면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지오. 나라를 지키는 길은 오직 이 새를 넘겨주지 않는것이오.》
소부루의 태도가 어찌나 결곡한지 수장들은 되돌아가 최후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싸움은 시간이 가면갈수록 더욱 치렬해졌다.
오랑캐들은 기어이 수비군의 장군을 없애치우려고 온갖 발악을 다해나섰다. 오랑캐들은 계속 새 군력을 갈아대는데 력량보충도 없이 끝까지 대항하자니 소부루는 힘에 부쳤다. 허나 굴함없이 싸우면 승리는 반드시 수비군에게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소부루는 군사들을 불러일으켰다.

오랑캐들도 드디여 쇠진해지기 시작했다.
《나리, 한쪽은 내가 맡을터이니 빨리 우측을 지원하라.》
우측이 기우는감이 들자 소부루는 그쪽으로 나리를 파했다.
《내가 가면 장군의 신변이…》
나리가 주저하자 소부루는 무섭게 나리를 쏘아보았다. 나리는 아무 말없이 말을 우측으로 몰아갔다.
《야, 저기 나인이 나타났다. 저걸 잡아치워야 한다.》
오랑캐들이 나리가 나인이라는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송사리떼처럼 들끓으며 나리에게 덤벼들었다. 《살별장수》로 오인했던 오랑캐들은 기쓰고 나리의 뒤를 따랐다.
나리의 능숙하고 드세찬 창격에 무리로 쓰러졌지만 놈들은 추격을 단념하지 않았다.
나리에게 위험이 닥쳐왔다.
몇몇 군사들을 거느리고 단신으로 벌떼처럼 달려드는 오랑캐를 힘겹게 막아내고있는 나리를 본 소부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자세로 조금만 더 경과하면 나리는 힘에 부치고만다. 그러면 나리는…
소부루는 앞뒤를 가릴새없이 쏜살같이 나리에게 말을 달렸다.
《나리, 힘을 내라. 마지막까지 힘을 놓지 말라.》
소부루가 달리며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들었던지 나리는 사면으로 다가드는 오랑캐를 꺾으며 몸을 솟구쳤다. 소부루가 나리에게 덤벼드는 오랑캐를 제껴버리며 나리에게 다가갔을 때 한놈의 오랑캐가 던진 창이 나리의 심장을 겨누고 날아왔다.
《나리ㅡ》
소부루는 어쩔새없이 몸을 날려 나리를 막아섰다. 나리에게 날아들던 창이 곧바로 소부루의 가슴에 박혀들었다.
나리곁에서 싸우던 한 군사가 사자같이 덤벼들어 창을 던진 적을 단숨에 찍어넘겼다. 덤벼들던 오랑캐들이 뿔뿔이 달아났다.
그때에야 나리는 모든 사태를 알아차렸다.
《장군ㅡ》
나리가 말에서 굴러내리는 소부루를 받아안았다. 갑옷 앞섶을 헤치고 손을 넣어본 나리는 눈앞이 아찔했다. 나리의 손에는 뜨거운 피가 묻

혀 나왔던것이다.
《장군, 이게 어찌된 일이오이까?》
나리가 금방 하늘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며 소부루를 정신없이 흔들었다.
소부루는 혼수상태에 빠져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장군, 이게 웬일이오이까. 장군의 귀한 몸 이 지경 만들었으니 장군, 나는 어찌하오이까. 장군, 정신을 차리오이다.》
나리는 소부루의 가슴을 쓸며 통곡을 했다.
오랑캐들은 자기네 새너머로 모두 사라져버리고 승전의 뿔나팔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장군, 저 소리를 들어보소이다. 장군이 바라던 저 승전의 나팔소리를 왜 못듣소이까, 장군—》
군사들이 겹겹이 둘러섰다.
《우리 장군이 어찌 됐소이까?!》
군사들이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어깨성에 또 어깨성을 쌓았다.
《장군, 승전한 군사들이 왔소이다. 단 한번만이라도 눈을 떠 축하해주사이다.》
나리가 안타까이 부르짖었다.
마치 그 소리를 듣기나 한듯 소부루가 조용히 눈을 떴다.
《장군—》
《장군—》
《장군—》
여기저기서 애통한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소부루의 얼굴에 고요한 저녁노을같은 웃음이 피여났다.
《어찌 되였소이까?》
소부루가 겨우 입을 열었다.
《장군, 오랑캐는 물러가고 우리는 크게 이겼소이다.》
수장들이 입을 모아 장군에게 아뢰였다.
소부루는 알았다는듯 알릴듯말듯 머리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군, 이러하면 어찌하오이까? 눈을 감지 마오이다.》
나리가 가슴이 철렁해 소부루를 흔들었다.
소부루는 힘겨운듯 겨우 눈을 떴다.
《나리, 우리 아기를 금나수에 … 아버지에게 애이름을 지어주게

해주오.》

소부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리 흔들어도 장군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장군,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우리는 어찌하오이까, 장군－》

나리가 소부루의 가슴에 쓰러지며 통곡했다.

그바람에 나리가 싸안았던 아기가 어머니의 가슴우에 떨어져 차거운 젖가슴을 허비며 자지러지게 울었다.

온 산촌이 울음속에 떨었다.

군졸들이 일제히 엎드려 비통하게 땅을 치며 통곡했다. 허나 소부루장군은 그 애통한 부르짖음도 듣지 못하고 북방의 거칠고 차거운 땅에 고요히 누워있었다.

그 땅이 자기의 영원한 보금자리이기나 한듯이…

흐릿하게 찌프러졌던 하늘에서는 눈이 한잎두잎 떨어져내리기 시작했다.

그 눈은 점점 퍼부어 누워있는 소부루장군의 몸우에, 애처롭게 우짖는 갓난애의 머리우에 흰 포단인양 포근히 덮이였다.

7

아기를 안고 금나수로 들어서는 나리의 마음은 미여지는듯 했다.

나리는 줄곧 쏟아지는 눈물속에 말을 달려 금나수에 이르렀다.

이제 선돌장군을 만나면 무엇이라 말하랴.

날파리의 련락으로 북방새로 기여든 오랑캐를 크게 이겼다는 승전의 소식은 알고있을것이다. 허나 선돌장군은 자기의 아들이 생겼다는것은 모를것이며 소부루가 사랑하는 자기의 첫 생명에게 젖도 한모금 변변히 먹이지 못하고 영원히 저세상으로 간것은 더욱더 모를것이다.

나리는 금나수를 거쳐 왕검성으로 승전의 보고를 가져가는 날파리에게 몇번이고 금나수에 가서 소부루의 불행과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내비치지 말라고 몇번이나 당부했다.

날파리는 틀림없이 나리의 령을 고스란히 행했을것이다.

얼마나 절통한 일이냐!

선돌장군은 승전의 기쁨속에 소부루를 그려볼것이 아니냐! 내가 아

기를 안고 장군앞에 나서면 장군은 비통하여 어찌할것인가.
금나수로 들어서는 말도 왜 그런지 주밋거리며 선뜻 발걸음을 축내지 않았다.
진펄을 빠져나오자 눈에 익은 지휘옥이 바라보였다.
눈이 콱 쏘며 눈물이 쏟아져 아기의 빨간 얼굴을 적시였다.
말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나리의 애통한 마음을 가늠한듯 애처롭게 울어댔다.
《이놈의 미물아, 너는 왜 내 마음을 그리도 허비느냐. 이랴, 어서 발걸음 떼여라. 우리 아기 아버지품에 안기고싶어한다.》
뚜벅뚜벅… 말이 고개를 떨구고 다시 걸음을 떼였다.
나리의 말을 발견한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나왔다.
《나리교련두목의 말이다! 교련두목이 온다!》
군사들은 기쁨에 넘쳐 환성을 지르며 나리에게 모여들었다. 말은 둘러싸는 군사들앞에 걸음을 또 멈추었다.
군사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두들 무춤해 그 자리에 굳어져버리고말았다.
나리의 품에 안겨져있는 아기, 머리를 숙이고 비통에 젖어있는 교련두목… 과연 이것은 무슨 일일가?!
승전의 소식을 듣고 모두 기쁨에 넘쳐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말인가!
묻기가 저어스러운듯, 아니 묻기가 무서운듯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뭐 나리가 온다고, 어디 보자, 나리가…》
뒤미처 소식을 들은 우마는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말을 몰아 달려왔다.
얼마나 그리웠던 북방새의 사람인가!
《나리－》
우마는 환희에 넘쳐 다가왔다.
나리의 주위에 선 사람들이 장군의 시선을 피하며 서있는것을 본 우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있는것이 아닐가?!)
왜 그런지 불안이 덮쳐들며 등골로 진땀이 흘러내렸다.
(날파리의 말이 아무 일없이 크게 이겼다고 했는데 무슨 일일가?! 혹시 그 누가…?)
우마는 비로소 나리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빨간 얼굴을 보았다.
《…!…!》

무슨 아이가 전장에서 돌아오는 무사의 품에 안겨있단말인가?
우마는 더 참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울음을 참고있는 나리에게 다가섰다.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그 아이는 무슨 아이오이까?》
우마는 놀랍게 물었다.
나리는 대답대신 아이를 힘껏 그러안으며 흐느껴 울었다. 가슴이 금방 터져나가는것 같았다.
(어쩌면 아버지가 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한단말인가? 아, 이 비통한 마음을 어디에 쏟아놓는단말인가?)
《나리, 어찌 침묵을 지키는것이오이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 알게 아니오이까?》
떨려나는 우마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짙게 풍겨졌다.
《장군, 나를 처벌하오이다. 내 불찰로…》
나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아프게 흐느끼기만했다.
《불찰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오이까?》
《내가 소부루장군을 지키지 못해 소부루장군은 이 아이를 남겨놓고…》
우마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피기를 잃고 그 자리에 못박혀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소이까?》
우마는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고 한숨을 돌리고나서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소부루장군은 장렬히 희생되였소이다. 이 아이가 출생한지 석달이 잡혔소이다. 장군은 눈을 감으며 아버지에게 이 애의 이름을 지어줄것을 유언으로 남겼소이다.》
말고삐를 쥔 우마의 손이 우들우들 떨렸다. 뒤이어 그의 손에서 말고삐가 툴렁 떨어졌다.
《장군, 진정하오이다. 이 애를 잘 키워 어머니의 복수를…》
나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 아기의 얼굴에 눈물을 떨구었다.
잠에서 깬 아기가 배고픈듯 자지러진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는 나리의 가슴을 작은 발로 떠박지르며 숨이 넘어갈듯이 울어댔다.
낯선 읍락에 들려 동냥젖을 물리며 예까지 왔다. 아이는 언제 한번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다.
아이의 자지러진 울음소리를 듣고 가까이에 있던 군졸들과 읍락의

나인들이 달려왔다.
사람들은 발버둥치며 울어대는 아이를 보고 모두 놀라서 웅성거렸다.
《무슨 아이가 새파란 나인무장의 품에 안겨 운단말이요. 아마 에미가 무정한 나인인가 보오이다.》
읍락사람들이 혀를 찼다.
그 소리에 나리는 흐느낌을 그치고 머리를 들었다. 두눈에서 어찌나 서리찬 빛광이 흘렀던지 옆의 사람들이 흠칫 몸을 떨 지경이였다.
《여러분네들, 북방새를 지키던 소부루장군이 이 아이 하나를 남겨놓고 마지막까지 오랑캐와 싸우다가 희생됐소이다. 우리는 이 애의 어머니를 언땅에 묻고 왔소이다.》
나리는 더 말을 못하고 비통한 가슴을 쥐여뜯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이까? 우리의 소부루장군이 죽다니… 우리는 믿을수 없소이다. 믿지 않겠소이다.》
사위는 벌둥지를 쑤셔놓은것처럼 벌컥 뒤집혀버렸다. 철모르는 어린것은 더더욱 발버둥을 치며 울어댔다.
우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나리가 입술을 깨물며 선돌장군의 품에 아기를 넘겨주었다. 어린것은 엄마인줄 알고 선돌장군의 갑옷을 마구 쓸며 얼굴을 비비다가 갑옷꼭지를 물고 허우적이며 빨아댔다.
그것을 바라보던 나인 하나가 정신없이 달려나오더니 숱한 사람들이 있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가슴을 풀어헤쳤다.
나인은 선돌장군의 품에서 아이를 빼앗듯이 잡아채서는 자기의 젖꼭지를 물렸다.
아이는 헉헉 흐느끼며 정신없이 나인의 젖가슴을 팠다.
이윽해서 아이는 평온하게 쌕쌕 고르로운 숨을 톺으며 달디단 젖을 꿀꺽꿀꺽 넘겼다.
《고맙소이다.》
우마는 나인앞에 머리를 떨구며 겨우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았다.
《장군, 무슨 말씀 그리하오이까? 버러지같은 우리 인생을 장군이 구원하여 살려주었는데 젖 한모금이 무엇이 고맙겠소이까? 장군, 근심마시오이다. 우리 아이와 젖을 나누어먹이면 되오니 장군은 나라만 튼튼히 지켜주오이다.》
《정말 고맙소이다.》
우마는 손등으로 락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내 이 애를 나라의 장수로 키울테니 장군은 하루빨리 슬픔을 푸오이다.》

우마는 울음을 그치고 머리를 끄덕였다.

배불리 젖을 빤 아이가 언제 울었더냐싶게 방실방실 웃기 시작하였다.

젖모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다심한 자애가 어린 부드럽고 긍지에 찬 웃음이 넘쳐났다.

《장군, 아이의 이름이 있어야 할게 아니오이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사이다.》

나인이 방실거리는 아이의 볼을 다독이며 청했다.

《장군, 어서 이름을 지어주소이다. 소부루장군의 유언이 아니오이까?》

옆에 섰던 군사들도 입을 모아 간절히 청했다.

우마는 생각에 잠겨 이윽히 침묵을 지키고있다가 머리를 들었다.

《저 동쪽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소이다. 비록 지역은 작아 아직 인구는 많지 않으나 해빛처럼 밝게 빛나는곳이오이다. 그런 광명한곳의 충신이 되라는 뜻에서 내 아들의 이름을 구려라고 짓고싶소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고견을 듣고싶소이다.》

《그처럼 훌륭하고 뜻이 깊은 이름이 또 있을것 같지 않소이다. 구려, 얼마나 좋은 이름이오이까?》

읍락의 좌상로인이 지지해나섰다. 그러자 나인들은 물론 군사들까지 환성을 질러 호응해나섰다.

《오, 구려야, 활짝 웃어라.》

젖먹이던 나인이 구려를 머리우로 번쩍 들어올려 간지럼을 시켰다.

구려가 이 하나 없는 입에 웃음을 가득 물고 까드득거렸다. 그 소리에 주변사람들이 모두 따라웃어 주위는 즐겁고 활기찬 웃음속에 잠겼다.

그날 저녁 나리는 돌아갈 행장을 갖추었다.

그 길로 북방새로 떠나겠다는것이였다.

《나리, 하루만이라도 더 눌러있소이다. 래일이면 성기대장군이 금나수에 이르시는데 만나보고 가야 할게 아니오이까?》

우마는 나리를 붙잡았다.

《장군, 내 소부루장군을 변방의 언땅에 묻고 무슨 기쁨으로 내 사랑을 만나겠소이까? 변방새는 한초가 새롭소이다. 더 잡지 말아주사이다. 장군, 한가지 긴히 말씀드릴것이 있사오니 조용히 좀…》

《그럼, 저안으로 들어가오이다.》

우마는 먼저 안채를 열고 들어갔다. 나리의 얼굴은 자못 심중해졌다.

다음날 성기대장군의 일행이 금나수에 들어섰다. 오랑캐들의 침략기도가 그치지 않는것과 관련하여 노예군과의 새로운 작전을 합의하기 위해서 몇몇 장군들도 함께 왔다.

토의는 온밤 계속되였다.

토의가 완전히 끝난 후 우마는 나리의 이야기를 했다.

구려를 안고왔던 나리가 북방새가 긴장하여 하루 묵지도 못하고 떠났다는 말을 듣고 성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찌 보면 얼굴에 노여움이 어린것 같기도 했다.

수천리길 왔다가 하루쯤 묵어 성기대장군을 만날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지금 당장 란리가 인것도 아닌데 하루이틀쯤 남아 정다운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들 어떠하랴!

사랑이 변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그럴수 있으랴!

이것은 우마의 속생각이였지만 지금 성기대장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것만 같았다.

《대장군, 정말 죄송하오이다. 기어이 붙잡아야 하는것인데 제 불찰로 그만…》

우마는 어찌할지 몰라 죄송한 마음으로 서성거렸다.

《장군, 그렇게 말하면 어찌하오이까? 나리가 날 만나기 위해 나라일을 걱정치 않고 하루 묵었다면 내 마음 지금처럼 든든치 못할것이오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인이오이까? 나도 나라의 군사를 통솔하면서 미처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못하였는데 얼마나 장한 마음이요.》

성기의 눈은 나리에 대한 더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는 믿음으로 이글거리고있었다.

《왜,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소이까?》

머리를 푹 숙이고있는 선돌장군을 돌아보며 성기는 웃음을 지었다.

《그런건 아니온데 어찌된 일인지 섭섭함을 금할수 없소이다.》

《하하… 장군의 그 마음이 고맙소이다. 우리야 아직 젊은 사람들인데 즐거운 상봉이야 나라를 평정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소이까. 내 오랑캐들을 모조리 쳐부신 다음 보란듯이 이 금나수에 와서 혼례를 하겠소이다.》

《그것이 빈 말씀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더 바랄것이 없소이다. 하하…》

두 장군은 방안이 들썩하게 즐거운 웃음을 터쳤다.
《대장군, 내 긴히 말씀드릴것이 있소이다.》
즐거운 웃음이 끝난 다음 우마는 신중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오이까?》
성기는 정숙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물었다.
《나리의 말에 의하면 왕검성에 큰 간자(간첩)가 박혀있지 않는가 하는것이오이다.》
《간자라구?!》
성기는 흠칫 놀라 반문했다.
《이번 북방새에 오랑캐들이 밀려들었을 때 처음에는 소부루장군을 〈살별장수〉라고 하여 공포를 느꼈으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노예인 나인이라는것까지 알아가지고 기승스럽게 덮쳐들어 끝내 잘못됐다 하오이다.》
우마는 너무도 비통하여 머리를 숙이고 뜨거운것을 삼켰다.
《소부루를 오랑캐들이 알았단말이지?! 우리는 비밀리에 그를 보냈는데 … 그렇다면 간자는 틀림없이 왕검성에, 그것도 왕궁속에 있다는 것인데…》
성기는 갈피를 잡지 못해 전전긍긍했다.
《나도 벌써부터 이상한것을 느끼긴 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어찌 못하고있는중이였소이다. 그런데 이번 일을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까이에 간자가 끼여있다는것이 확실해졌소이다.》
《대장군, 어떤 사람들은 왕담을 의심하고있소이다.》
《부마를?!》
성기는 깜짝 놀라 눈을 흡떴다.
왕담으로 말하면 싸움때마다 몸을 아껴 전투에서 패하고 결과 속이 다른 측면이 강하게 느껴지긴 했으나 간자로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지라 성기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만약 왕담이 간자라면 궁성은 장차 어찌된단말이냐?
성기는 방책을 내여 꼭 알아보고 즉시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리라는 강한 위구심을 느꼈다.
성기는 침착하려 애썼으나 떨리는 가슴을 어쩔수 없었다.
무엇인가 나라가 안팎으로 경난을 겪고있다는 위구심이 더욱더 성기의 마음을 불안케 했다.

금궤속의 보물

1

궁성은 요 며칠간 혼란에 빠져 허덕이고있었다. 매일이다싶이 서쪽, 북쪽새에서 파발군들이 날아들어 불길한 소식을 전하였다.

지금 수많은 오랑캐들이 서쪽으로부터 북쪽새에 이르기까지 전면에 걸쳐 집결하고있는데 불시에 엄청난 불집이 터지리라는것이였다. 나라는 일순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처하게 되였다.

왕궁에서는 매일이다싶이 오랑캐들의 전례없는 대침입기도를 막기 위한 평의회가 계속되였다.

제일 우려되는것이 서쪽새였다. 오랑캐들은 서쪽새를 기본 주공격대상으로 삼고있었다. 적의 력량의 세배는 서쪽새에 집결되였다.

지금 서쪽새는 늙은 하연장군이 맡고있는데 매일이다싶이 두통으로 앓고있는 장군에게 의지할수 없었다.

북쪽을 견결히 지키고있는 나리를 장군으로 승격시켜 서쪽새를 맡기자는 의견도 분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성기대장군이 극력 막았다. 북쪽새에서 나리를 빼놓으면 북쪽새를 맡을 장군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소부루장군이 애써 세워놓은 강력한 군력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이 될수 있었다.

더우기 성기대장군의 주장을 적극 지지해나선것은 아달비대신이였다.

나리가 서쪽새로 옮겨오면 북쪽 오랑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것인즉 우리 군사들은 두 새를 안고돌다가 제풀에 기진하여 거꾸러진다는것이였다.

아달비의 그 주장은 이를데 없었다. 우거왕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러니 서쪽새에 새 장군을 파해야 한다는것인데 누구를 보내야겠는지 말해보라.》

웅성이던 회의장이 긴장해져 침묵속에 빠졌다.

이윽해서야 참이 입을 열었다.

《그곳을 담당할분은 부마밖에 없소이다. 예전대로 왕담장군이 서쪽새를 맡아줌이 합당할가 하오이다.》

그러자 평의회장이 벌컥 뒤집혔다.

보낼수 없다느니, 보내자느니 제나름으로 해대는 주장들이 회의장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짓누르며 아달비대신이 입을 열었다.

《왕담장군이 합당하다 생각하오이다. 부마가 되여 그런다기보다 장군의 년조로 보나 관록으로 보아도 나라의 중임을 맡아야 함이 합당치 않겠소이까? 또 왕담장군이 서쪽새를 맡으면 오랑캐들도 얕잡아보지 못할것이오이다.》

그 말에 왕담장군이 기분이 좋아 배를 내밀고 어험－헛기침까지 했다.

깊은 생각에 잠겼던 우거왕이 대신들에게 얼굴을 돌렸다.

《대신, 장군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우거왕의 물음에 잠시 침묵을 지켰던 대신, 장군들이 좋다고 호응해나섰다.

《그럼 왕담장군을 서쪽새에 파견하겠노라. 끝까지 나라에 충성하기 바라노라.》

《알겠소이다.》

부마 왕담이 한쪽 무릎을 꿇고앉으며 왕앞에 머리를 숙였다.

왕담은 곧 서쪽새로 떠날 차비를 했다.

그의 뒤를 은황공주가 꼼꼼히 보살펴주었다.

왕담이 출전준비를 갖추고 수하 시위대장들과 함께 우거왕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왔다.

우거왕이 안심치 않은지 서쪽새를 잘 지키라고 거듭 당부를 했다.

《장군, 임금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깊이 헤아려 서쪽새를 잘 지켜주오이다.》

성기는 왕담장군에게 말했다.

말에 오르려던 왕담이 돌아서며 성기대장군을 쏘아보았다.

《대장군은 제 일이나 잘할것이지 부마의 일에까지 참견이요, 건방지게…》

《그렇다면 좋소이다. 저야 임금님의 신임으로 싸움터를 담당하였으니 서쪽새가 근심되여 한마디 한것인데 그게 부당한 말이라면 더 말하지 않겠소이다.》

성기는 성이 벌컥 솟구쳐올랐으나 왕의 앞이라 지그시 참고 공손히 말했다.
원래 왕담은 우거왕과 친분관계가 깊은 대노예소유자였던 애비의 덕으로 장군의 직에까지 올랐으나 구실을 제대로 못하여 사람들의 업수임을 받던 존재였다. 그러던것이 뜻하지 않게 부마의 직에 오르자 모든것을 눈아래로 보게 되였다.
사람격으로 따지면 성기대장군이 천년 드놀지 않는 바위라면 왕담은 그곁에 붙은 한오리 이끼만도 못한 존재였다. 그래도 부마가 되니 이 세상이 제눈아래 아득히 내려다보이는 모양이였다. 그것은 어찌되였던 성기대장군은 왕담장군이 서쪽새를 성실히 지켜주어 나라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했다.
위세당당히 왕담이 왕궁을 나섰다.
왕담이 서쪽새에 이른지 보름만에 오랑캐들은 전새에 걸쳐 공격을 진행하였다.
성기는 만약을 생각하여 왕검성의 철통같은 방위를 조직하고 백성들에게 무장을 갖추도록 했다.
나인들은 물론 나이 열셋이 넘으면 누구나 무장을 잡게 했다.
70~80의 고령들도 오륙을 놀릴수 있으면 대장간에 나가 무기를 벼리고 군사들의 뒤바라지를 했다.
우거왕은 왕담이 서쪽새로 떠나간 다음부터 안절부절못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아무래도 서쪽새가 안심치 않았던 모양이다. 우거왕도 왕담이 탐탁치 않았으나 왕담의 열의도 높고 대신들도 지지하기에 보내긴 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어디 한번 더 믿어보자는것이 고작이였다.
나라위해 한생을 전장에서 바친 왕담의 아버지 왕고노에 비하면 너무도 닮지 않은 자식이였다. 그래도 그 아버지의 우의와 나라위한 충정이 하도 고마와 그 자손을 벼슬길에도 올리고 부마로 앉혔지만 왕은 끝내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왕검성에 나라위해 한목숨바칠 충신이 없었구나 하는 때늦은 후회가 우거왕의 가슴을 또다시 허벼내리였다.
이 나라의 오랜 조정에 얼마나 훌륭한 나라의 기둥들이 많았던가!
시조성왕 단군은 말할것도 없고 참으로 강성하는 이 나라와 함께 빛나는 이름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던것이 나의 왕대에 이르러 나라보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간

신들만 늘어나니 장차 나라의 운명을 어찌 건져낸단말인가?
우거왕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싶을 지경이였다.
동방의 강성국으로 자랑떨쳐오던 3천년의 빛나는 조정이 지금에 이르러 종말을 고한다면 죽어선들 단군조상앞에 어찌 나선단말인가!
우거왕의 이 마음을 아는것은 오직 성기대장군 하나뿐이였다. 왕대를 이어갈 왕태자마저 제구실을 못하니 우거왕의 비감은 더했다.
우거왕이 앞으로의 나라의 운명을 놓고 고심하고있는 때에 서쪽새에서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다.
왕담이 끝내 서쪽새를 막아내지 못해 오랑캐의 주력부대가 새를 돌파했다는것이였다.
그것이 한갖 풍문이 아님을 증명하듯 혼비백산한 왕담이 몇몇 군사를 이끌고 이른 새벽에 왕검성에 들이닥쳤던것이다. 침전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있던 우거왕이 그 소식을 듣고 소스라쳐 일어나 편전으로 달려나왔다. 편전에 머리를 틀어박고 엎드려있는 왕담과 그의 군사들을 본 우거왕의 눈에서 노호의 불길이 펄펄 일었다.
《장군의 군사들은 어찌 되였느냐?》
우거왕이 드리운 수염을 우들우들 떨며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하오이다. 오랑캐와 끝까지 접전했으나 워낙 수량이 많은 적이여서 어쩌지 못하고 흩어졌소이다.》
《그럼, 그 군사들을 모두 버리고 너만 왔단말인고?》
우거왕의 추상같은 호령이 왕담의 온 사지를 부들부들 떨게 했다.
《빨리 아뢰지 못할가?》
《예? 예, 할수없이 … 저희들만 …》
《에익, 이 비적만도 못한놈 …》
우거왕이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뽑아들었다.
마침 편전으로 달려온 성기대장군과 아달비대신이 우거왕을 막아섰다.
우거왕의 눈에서는 무서운 서리발이 풍기고 단검을 쥔 온몸이 그대로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대왕님, 자중하오이다. 사람죽이기는 어렵지 않으나 사람의 운명을 건지기란 어렵소이다. 은총을 베풀어 용서하오이다.》
성기는 우거왕을 말렸다.
《내 대장의 말을 들어 용서하겠노라.》
우거왕이 거칠게 모두숨을 쉬며 단검을 허리에 도로 꽂았다. 땅에

머리를 떨구고 엎드린 왕담의 얼굴로는 진땀이 고랑물처럼 흘러내렸다.
《물러들 가라!》
성이 가라앉지 않은 우거왕은 거치른 목소리로 호령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왕담이 군사들속에 싸여 황황히 편전을 빠져나갔다.
온밤 잠들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뒤척이던 성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켰다.
어둠속에 잠겼던 방안이 환해지니 한결 답답하던 가슴이 내려가는것 같았다.
책을 볼가 하고 뒤적이던 성기는 그것마저 덮어버렸다.
또다시 눈앞에 왕담장군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과연 왕담은 어떤 사람일가? 아무리 무능하다 한들 싸움마다 실패하니 괴이하지 않은가? 여기에 그 어떤 남모르는 비밀이 숨어있는것이나 아닐가?!)
생각에 생각을 굴리던 성기는 답답한듯 뜨락으로 나왔다. 그리 넓지 않은 뜨락은 달빛에 대낮같이 환했다.
때는 봄인지라 밤공기는 싸늘하였다. 차거운 대기속에서도 어디선가 꽃향기가 풍겨와 코를 찔렀다.
달빛에 화창하게 피여난 살구꽃이 구름처럼 하얗게 보였다. 그런가 하면 정원 못가 바위기슭에 핀 붉은 진달래들은 달밤에 보아 그런지 신비할 정도로 황홀하였다.
문뜩 그의 눈길은 담밑에 담쑥담쑥 솟아난 푸르청청한 산죽에 가닿았다.
저 산죽은 나리와 사귀여 심은것인데 이제는 새끼를 치고 번져 온 울타리를 산죽으로 덮어버렸다.
뭉클 그리운 마음이 젊은 성기대장군의 가슴을 애타게 불태웠다. 멀리로 헤여져버린 나리의 웃는 얼굴이 산죽잎에 가득히 어려왔다.
(북방새에서 소식이 없으니 나리가 어찌됐을가? 공주 은황과 말이 났다는 헛된 소식을 듣고 고심에 떨던 나리, 혹시 그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 금나수에 왔던 나리가 나를 만나지 않고 북방새로 가버린건 아닐가?)
만가지 생각이 무르녹는 봄밤과 함께 성기의 가슴을 휘저어댔다.
(이제 나리가 오면 마음껏 포옹하여 아픈 마음도 깨끗이 풀어주리라.)
무엇인가 이름할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성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

루만져주었다.

성기는 온갖 꽃들을 지나쳐 곧장 산죽앞으로 갔다. 성기는 허리를 굽혀 차분한 잎새를 얼굴에 대여보았다. 깔깔하면서도 산뜻한 잎새가 어쩌면 그리도 부드럽고 뜨거운것인지 성기는 깜짝 놀랐다. 아울러 자기가 너무도 안온한 생각에 빠져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는데 어찌 잠시인들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가?

성기는 그 길로 돌아서 방으로 들어오려는데 어디선가 마교차소리가 울렸다.

(이 밤중에 웬 방울소리일가?)

성기는 의혹에 잠겨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던 마교차의 방울소리가 대문앞에 이르러 문득 멎어버렸다.

성기는 긴장해지는 마음을 눅잦히며 대문쪽에 귀를 기울이였다.

찌구덩 ㅡ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자그마한 그림자가 성기쪽으로 다가왔다.

《이 밤중에 웬 손이오이까?》

성기는 바싹 마음의 긴장을 높이며 조용히 물었다.

《호호 …아달비오이다. 지나가다 대장군의 방에 불이 켜졌길래 행여나 들렸던 길이오이다. 호호 …》

아달비가 간드러지게 웃으며 성기에게 다가왔다.

성기는 반가우면서도 한쪽으로는 이상하게 가슴이 선뜩했다. 많은 일에서 자기와 생각이 같고 또 자기의 일을 돕지 못해 애쓰는 아달비가 고맙게 생각되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아달비를 대하면 부드러운 마음부터 앞섰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보통 평범한 나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별스레 경계하게 되고 지어 그의 간드러진 웃음속에서조차 가슴서늘한 느낌을 받아보는 성기였다.

아달비가 자기에게 로골적인 추파를 던지며 가슴속이 간지럽게 굴때도 성기는 어여쁜 나인이 대장부앞에 능히 그럴수 있으리라고 자기본위로 생각해버리군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잦아질 때에는 더럭 겁이 났다.

내가 나라를 잊고 이 왕검성의 가인에게 빠지는것이 아닌가 하는 제딴의 우려도 가져보게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것이다.

바로 이런 미묘한 감정으로 해서 아달비를 남다르게 보고 대하는 견해가 생겨나게 되였다.

그래서 아달비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고 경계하게 되는것이였다.

《대장군, 달밝은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오이다. 뜰에 꽃구경을 다 나오시고 …그런걸 나는 대장군어른께서 오랑캐 잡을 지략으로 밤을 밝히는가 했소이다. 호호 …》

아달비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달빛 흐르는 정원에 한가득 차흘렀다.

아달비는 여느때없이 즐거워했다.

《나라고 어찌 목석이겠소이까? 이 성기가 이 좋은 밤에 꽃구경을 하면 안되오이까? 하하 …》

성기는 호탕하게 웃음을 지었다.

《난 오히려 즐겁소이다. 성기대장군께서 국난때문에 고심을 하시는가 했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 얼마나 좋소이까?》

《그래 대신은 어디에 갔다가 이제야?》

성기는 정색하여 물었다.

《왕의 침전에 갔다오는 길이오이다.》

아달비는 별로 수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왕께서 고심이 심하오이다. 고심이 얼마나 컸으면 이 아달비를 몸소 침전에까지 부르셨겠소이까?》

고개숙인 장미꽃인양 얼굴을 붉히는 아달비의 뜨거운 숨결이 성기의 살결에 느껴졌다.

《대왕께서는 왕궁안이 편치 않다 걱정이 많소이다. 틀림없이 궁내에 간자가 있어 오랑캐에게 나라의 비밀이 흘러나가는데 그것을 잡지 못해 애를 태우시는걸 보니 이 나인의 마음도 좋지 않았소이다.》

아달비의 얼굴에는 가슴아픈 심려의 빛이 력연했다. 그래도 나라의 형세에 대해 걱정하고 옳은 주장을 내세우는것은 아달비대신이다.

그래서 대왕도 아달비대신을 침전으로 불러들이셨을것이다.

《대신, 정말 고심이 아닐수 없소이다. 금나수에 가서도 그런 말을 들은적 있사온데 틀림없이 우리에겐 간자가 박혔소이다. 대신은 어찌 생각하오이까?》

아달비는 심중한 얼굴로 손앞에 잡히는 살구꽃을 따서 손톱으로 꽃

잎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대장군은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오나 왕담이 이상하오이다.》

《왕담이?》

성기는 놀라 아달비의 심중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역시 모든 의혹은 왕담에게 쏠리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부마가 간자란말인가?! 그럼 이 일을 어쩌면 좋단말인가?)

성기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몰라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어느새 달빛도 기울고 길지 않은 봄밤이 새여가고있었다.

2

드디여 우려했던 위험이 고조선령내에 깊숙이 뻗쳐들었다.

서쪽새를 돌파한 오랑캐들이 왕검성을 향해 밀물처럼 쓸어들고있었던것이다.

동시에 북쪽새에 갔던 파발군 날파리가 왕검성에 들이닥쳤다. 날파리는 우거왕과 성기대장군앞에서 북쪽새의 형세를 그대로 아뢰였다.

북쪽새 수비군들은 한사람같이 나리두목의 뒤를 따라 쓸어드는 오랑캐들과 싸웠는데 오랑캐는 수많은 주검을 북쪽새의 험준한 산악과 초원에 휘뿌리고 다섯번이나 물러갔다는것이였다. 여섯번째 대전할 때에는 나리두목도 중상을 입고 군사는 불과 500도 못되게 남았는데 그대로 끝까지 단 한사람 남을 때까지도 피를 뿌리며 싸웠다고 한다.

마지막대전은 희미한 달빛이 비끼는 밤에 있었다. 대전이 끝난 다음 전장에 가보니 숱한 오랑캐들의 시체와 무참히 찢겨진 우리 군사들의 주검이 널려져있었는데 그속에서 나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누구도 나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성기의 가슴은 단검으로 헤집어놓은듯이 아팠다.

(얼마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어오던 나리인가! 오랑캐를 모두 쳐물리치고 꽃피는 금나수에 가서 혼례식을 하자던 나리,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나리의 아릿다운 얼굴과 그 뜨거운 심장을 느껴볼수 없다.

이 세상에 남은것은 오직 그립고 아름다운 추억뿐 …
어쩌면 마음착한 나리의 운명이 이다지도 기구하단말인가?)
성기의 가슴속으로는 진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왜 일찌기 나리를 따뜻이 대해주지 못했던가! 단 하루밤이라도 마음 터놓았어도 이다지 가슴아프지 않을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신들은 하나하나 떠나가고있었다.
북쪽새를 뚫고들어온 오랑캐의 무리들은 나흘만에 끝내 왕검성에 들이닥쳤다.
야수의 무리들은 꽁꽁 성문이 닫겨진 왕검성을 포위하고 련일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우거왕은 들이닥친 형국을 타개하기 위해 평의회를 열었다. 결정적인 대책이 없이는 왕검성을 견지할수 없었던것이다.
평의회는 처음부터 날카로운 대립으로 불꽃을 튕기였다. 니계상 참을 위시로 한 왕담과 로인 몇몇 장군들은 하루빨리 오랑캐에게 투항하는 길이 오직 살길이며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목대에 피줄을 세웠다. 그런가 하면 우거왕과 성기대장군, 아달비, 몇몇 장군들은 그에 대항하여 절대로 투항할수 없으며 끝까지 항전해 싸우는 길에 오직 3천년 조정을 지키는 길이 있다고 추호도 굴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장 투항함으로써 생명부터 구하자는 니계상 참의 말에 분격한것은 성기였다. 성격이 굳세고 날파람이 있는 성기는 평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터치였다.
《사람이 원쑤에게 굴복하여 개나 돼지처럼 살바에야 무엇하려 이 세상에 태여났겠소이까? 간악한 저 오랑캐족속에게 항복하여 개나 돼지로 될바에야 싸우다 성스러운 피를 내 나라 땅우에 뿌리고 죽음이 떳떳한 남아들이 아니겠소이까? 오랑캐에게 굴복하지 말고 왕검성을 고수해야 하오이다.》
이에 참이 항변해나섰다.
《대장군, 아무리 목대에 피줄을 올려봤대야 닭알로 바위는 못까는 법이로소이다. 헛되이 피를 흘릴바에야 무엇하러 싸우겠소이까? 싸움은 죽음이요, 투항은 살길이오이다.》
《그 말이 십분 옳소이다. 사람이야 살자고 이 세상에 태여난것이지 죽자고 난것은 아니지 않소이까. 모두들 참어른의 말을 명심하여 깊이 생각해보길 바라오이다.》

조선상 로인이 캥캥거리며 참의 의견을 지지해나섰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항하자는 력량이 우세해지기 시작했다. 이 기세를 리용하여 참이 더욱 살판쳤다.

《대왕님, 형국이 이러하온데 빨리 어지를 내리시오이다. 오직 살길은 하루빨리 투항하는 길이오이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오랑캐들이 성을 모래무지처럼 밀고 들이닥칠것이오이다. 저 성아래 오랑캐들을 보시오이다. 저거야 개미무리가 아니오이까? 저 살판치는 개미무리가 성안에 들이닥치면 재산도 부모처자도 생명도 구하지 못하오이다. 어서 결심을 내리시오이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책이오이다.》

참이 눈에 피발을 세웠다.

이때 우거왕이 주먹으로 룡상을 깨져라 내리치며 벌떡 몸을 일으켜세웠다.

참과 로인, 왕담을 노려보던 왕이 아무말없이 노호한 서리발을 날리며 침전으로 사라져버렸다. 평의회는 결속을 못보고 도중에서 깨져버리고말았다.

다음날 아침 왕검성안을 들썩하게 들었다놓는 사변이 벌어졌다.

오랑캐두목과 함께 왕협이 성밖의 둔덕우에 나타났던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처음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서쪽방면방어를 맡겨 우거왕이 파견했는데 끝내 방어계선을 담당하지 못하고 한개 부대를 모두 녹여버린 후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왕협이였다.

왕과 성기는 물론 전체 성민들이 분명히 그는 놈들속에서 희생된것으로 알고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오랑캐들과 왕검성에 나타났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으랴!

분노에 찬 성기가 망루에 나타났다.

오랑캐들은 왁작 떠들며 겹겹이 어깨성을 쌓고 황금빛 갑옷장군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어떤놈들은 공포에 질려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다.

성기는 오랑캐들속에 《죽음의 화신》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되여있었다.

성기가 틀림없음을 안 오랑캐들은 공포에 질려 왁작 끓어댔다. 당장 자기들의 머리우에 벼락이 내릴것만 같았던것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성기대장군은 우리의 포위속에 들었다. 성기대장군의 항복은 경각에 달했다. 무서워말라!》

오랑캐두령이 철퇴를 휘두르며 악을 썼다. 오랑캐군졸들이 즘즘해졌다. 그러자 왕협이 망루에 대고 소리쳤다.
《너희들은 포위되였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무서운 죽음만이 차례진다.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단검을 놓으라, 그것만이 살길이다!》
왕협이 입에 손을 대고 악청으로 지껄여댔다. 분노한 군졸들이 주먹을 내흔들었다.
온 성안이 왕협의 지껄임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너처럼 오랑캐의 개는 되지 않는다.》
군졸들이 분격하여 왕협에게 주먹질을 하고 왕협쪽을 향해 침을 뱉었다. 어쩔줄 몰라 고개를 떨구고있는 왕협을 밀어낸 오랑캐두령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래일까지 여유를 준다. 래일이 지난 다음에 후회치 말라. 우리는 무자비한 사람들이다. 후회하지 말라.》
성기가 항복하러 나온줄 알았는데 아무 기색없이 사라져버리자 한껏 모욕을 느낀 오랑캐들이 독이 올라 악악 고아댔다.
왕검성에 어느덧 밤이 깃들었다. 성밖에는 무수한 불무지들이 솟아올라 마치 불바다를 련상시켰다.
꽃이 피는 봄이였지만 아직 밤은 추웠다. 불무지들에 둘러선 오랑캐들이 괴상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가 하면 서로 붙잡고 돌아가며 추태를 부리는놈들도 있었다.
어느덧 성벽우에 갈구리같은 하현달이 걸렸다. 어슴푸레한 달빛을 등에 지고 말을 탄 두 그림자가 성벽을 따라 걸어가고있었다.
《날파리,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벽을 넘어 금나수에 가야 한다. 선돌장군을 만나 왕검성을 포위한 오랑캐의 뒤등을 치게 하라. 오랑캐들이 혼비백산할 때 감쪽같이 금나수로 빠져들어가라.》
《알겠소이다.》
성기의 말에 날파리가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 날파리가 금나수로 가는것은 그 누구도 몰랐다. 모든 비밀련락은 날파리를 통해 성기와 이어졌다.
그들은 어느덧 서쪽 성굽이에 이르렀다. 그쪽에는 성과 마주한 우뚝한 언덕이 누워있는데 날파리의 가라말은 성벽에서 그 언덕으로 뛰여넘어야 한다.
《날파리, 자신있는가?》

성기는 안심되지 않는지 물었다.

《념려마오이다. 벌써 여섯번이나 그곳을 뛰여넘은 일이 있소이다. 이 날파리가 이제는 그 언덕쯤은 무서워하지 않소이다.》

《자만치 말고 극히 조심할지어다.》

《알았소이다, 장군어른.》

둘은 말에서 내려 성벽에 가붙었다.

《누구야—》

성벽우를 오가던 수병이 벼락같이 소리쳤다.

《쉿, 순시 나온 성주님이시다.》

날파리가 입에 손을 가져다대며 수병에게 낮게 소리쳤다. 눈이 휘둥그래졌던 수병이 대장군을 알아보고야 비로소 안심했다.

날파리가 뛰여넘어야 할 언덕밑에까지 오랑캐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벅적 떠들어대고있었다.

《오랑캐들이 정신차리기전에 적진을 가로질러 번개처럼 빠져야 한다. 자, 준비하라.》

성기의 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말에 오른 날파리가 뒤로 물러갔다가 질풍같이 성벽우로 뛰여들며 눈깜짝할 사이에 성벽을 넘어 성밖의 언덕으로 뛰여내렸다.

가라말이 얼마나 요란한 소리를 질렀던지 언덕밑에서 불을 쪼이던 오랑캐놈들이 기절하여 정신을 잃고 자빠지는가 하면 다른놈들도 공포의 비명을 질렀다.

《하늘에서 〈살별말〉이 떨어졌데. 〈살별말〉이다 —》

오랑캐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구대기 끓듯 돌아가는새에 날파리는 유유히 적진을 빠져 숲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오랑캐놈들이 뒤미처 말에 올라 뒤따라와 숲속을 뒤졌으나 넓읋은 소경 막대질격이였다.

날파리는 그 길로 금나수에 날아들었다.

바로 날파리가 성을 날아넘는 그 시각에 아달비는 새로 지은 참의 집에서 술에 흠뻑 취해있었다.

참의 둘째 첩 생신날이래서 초청받아 간것인데 좀 앉았다 자리를 뜬다는것이 그만 취하고말았다.

《대신, 나는 대신을 나처럼 믿고있었는데 성기만을 지지하고 돌아가니 생각이 달라지오이다. 지금 이 시각에 오랑캐와 맞붙어 싸운다는

것은 그대로 죽음을 의미하오이다. 그런데도 대신은 …》

니계상 참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아달비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참의 말꼬리를 눌러버렸다.

아달비는 한참이나 통쾌한듯 웃다가 참의 귀를 잡아당겨 자기의 입에다 가져다댔다.

《어리석소이다. 임금이 없어지기전에 참의 그 욕망이 실현될듯싶소이까? 호호 …》

아달비는 떠들썩하게 웃다가 다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나이 밸통이 그리 작소이까. 왜 참이라고 왕이 못되겠소이까? 땅이 있고 노예가 있고 권세가 있겠다, 호호. …왕권이 시각을 다투는데 나도 왕정의 대신이라 슬프기 그지없소이다. 허나 어찌겠소이까? 이미 우거왕권은 오랑캐를 이길 힘이 없소이다. 이럴 때 선손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소이다.》

아달비가 취기에 어려 제멋대로 지껄여대는 소리였지만 참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참은 사방을 둘러보더니 취해서 건들거리는 아달비의 팔을 잡아일으켰다.

《대신, 저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겠소이까?》

참은 아달비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속에서 오래도록 밀담이 벌어졌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 누구도 몰랐다.

3

달빛이 희미한 야삼경, 성벽에 바줄을 늘이고 감쪽같이 성벽을 넘어선 참이 적진으로 새여들어 오랑캐두령을 만났다. 참이 성벽을 또다시 넘어들어온것은 쪽달이 지는 이른 새벽이였다.

성안의 수닭들이 경쟁적으로 울어댔다. 아직 날은 어두웠지만 새날이 시작된다는 예고였다.

부지런히 말을 달려 자기 집 뒤문으로 감쪽같이 들어선 참은 시종을 시켜 한창 단잠에 곯아떨어진 가병장을 깨우게 했다.

《참어른, 불렀소이까?》

우악스럽게 생긴 가병장이 눈곱을 뜯으며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 가달추비란놈이 요즘 어찌고있느뇨?》
참은 보료우에 거만하게 걸터앉아 손에 쥔 형옥구슬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너무도 뜻밖의 물음에 가병장은 두눈만 껌뻑이며 멍하니 서있었다.
《입이 붙었느냐, 이놈 ―》
참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가병장은 흠칫 놀라며 입을 열었다.
《그놈은 지금 주인어른의 판결만 기다리고있사이다.》
《어서 이리로 끌어오너라.》
《예?! 예, 알겠소이다.》
가병장이 의혹에 잠긴 태도로 황황히 문밖으로 사라졌다.
가달추비란 왕검성의 제일가는 도적인데 능란한 도적솜씨에 포악한 성미까지 겸하고있어 왕검성안의 주인들은 물론 평민들까지 가달추비란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다.
그 추악한놈이 사흘전에 참의 집을 털려고 들어왔다가 가병들에게 붙들렸다. 잡히는 순간에 어찌나 살판치는지 한명의 가병이 그놈의 칼에 맞아죽고 두명이 심한 상처를 입었다.
그런 죄를 진놈이라 참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있었다.
《주인어른, 데려왔소이다.》
가병장의 목소리에 생각에 잠겼던 참이 머리를 들었다. 구류장에서 끌려온 가달추비는 온몸이 바줄로 꽁꽁 묶이여있었다. 그래도 사나이 밸통이라고 머리를 빳빳이 들고 서있는 가달추비의 험상궂은 얼굴, 칼자리와 심한 상처, 아문 자리들이 한눈에 보아도 무섭게 느껴졌다.
《이놈, 어른앞에 머리를 숙이지 못할테냐?》
가병장 역시 만만찮은자여서 창대로 도적의 머리를 답새기며 거칠게 소리질렀다.
《가만!》
참이 손을 들어 막아나섰다.
《그렇게 무턱대고 사람을 조기면 안되느니라.》
《이게 어찌 사람이오이까? 도적개이지.》
《잔말말고 어서 풀어주어라.》
그 말에 가병장은 얼굴빛이 까맣게 질렸다.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이놈은 추악하기 이리보다 더한놈이라 어른도 몰라보는 악한이오이다.》

가병장이 몸서리를 쳤다.
《잔말말고 풀어놓아라.》
참이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예, 예, 알겠소이다. 》
가병장은 우려하는 눈길로 참의 얼굴을 흘끔흘끔 살피며 바줄을 풀었다.
《너는 돌아가 네 일이나 보아라.》
《아니?! 참어른 …》
가병장이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어서 그리 하여라.》
가병장은 머뭇거리며 방을 나서 문을 닫았다.
《자, 말뚝처럼 서있지 말고 게 앉으라구.》
참이 턱으로 교자를 가리켰다.
가달추비는 참의 뜻하지 않은 관대에 오히려 겁이 나는지 힐끔거리며 교자끝에 걸터앉았다.
《가달추비, 너는 네 몸값이 얼마에 결렸는지 알기나 하느냐?》
의외로 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오이다.》
《모른다? 저런 렴치 봤나? 네 우리 가병을 죽였으니 그게 50만전에 가병들을 상처 입혔으니 40만전, 게다가 나라상의 재산을 탐냈으니 그게 100만전, 모두 합해 190만전이다. 이것은 네가 100년 벌어도 못벌 돈이다. 돈은 돈이고 나는 너를 아예 형벌하여 다시는 이 세상에 네놈의 후환이 미치지 않게 하려 했으나 너도 버러지는 아니고 사람이라 어찌 짐승처럼 살생하겠느냐? 그래 내 네놈을 살려두기로 작정했노라.》
《참어른, 정말 고맙소이다.》
가달추비가 참의 발밑에 넙적 엎드려 감개함을 금치 못했다.
《어서 머리를 들어라. 그런데 내 한가지 묻겠노라!》
《예, 묻소이다. 내 거짓없이 대답하겠소이다.》
가달추비가 굽석굽석 머리를 조아리였다.
《너는 어째 외따로 떨어져있는 아달비나 성기의 집을 치지 않고 내 집에 달려들었느냐.》
《예, 아달비의 집은 방비가 너무도 굳세고 성기대장군의 집에는 무엇하나 털것이 변변치 않소이다.》

《와하하 … 도적질해먹는 주제에 물건금새 타발이라. 네 역시 무지한 도적놈이라 모르는게 많고나. 성기네 집에야말로 금새 나가는 물건이 있느니라.》

가달추비의 눈이 둥그래졌다.

《그 집이 청렴하게 사는것 같애도 누구도 모르게 값나는 물건을 감추고있느니라.》

《그게 무엇이오이까?》

원래 도적놈심보인지라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띄여 자기도 모르게 물어댔다.

《그 집 안채에 금궤 하나가 있는데 그속에는 이 세상에 가장 값나가는 물건이 들어있느니라.》

참은 보료에 손장단을 치며 흘끔 가달추비의 얼굴을 살폈다.

《그 보물만 가지면 한생 팔자를 고치느니라. 나도 왕검성에 뜨르르한 재산가이지만 그만한 보물은 없느니라.》

《그것이 탐나신다면 내 훔쳐다 드리겠소이다.》

《물론 탐나지만 네가 가궁해 그런다. 너도 사람이라 입에 풀칠은 해야 할게 아니냐?》

《생각해주어 고맙소이다. 이놈이 도적이기는 하지만 이 입에 주인들 못지 않게 진수성찬만 드오이다. 헤헤 …》

가달추비가 헤식게 웃으며 뒤머리를 긁었다.

《내 기어이 그 금궤속의 보물을 훔치여 어른께 드리겠소이다.》

《정 그렇다면 절반만 나에게 다오.》

《예, 그리 할테니 념려마시오이다. 이것은 저에 대한 참어른의 고마운 신세갚음으로 알겠소이다. 저를 믿어주사이다.》

《알겠노라, 누구도 모르게 뒤문으로 빠져나가거라. 내가 게까지 안내해주겠노라.》

두 그림자는 도적고양이처럼 뒤울안으로 다가갔다. 참은 쪽문을 열고 가달추비를 감쪽같이 내보내였다. 그날밤 자정이 넘어 그쪽 문으로 자그마한 금궤를 부둥켜안은 가달추비가 쥐도새도 모르게 새여들었다. 초조하게 가슴을 조이며 가달추비를 기다리던 참의 얼굴에는 환희의 웃음이 피여올랐다.

《참어른, 그런데 이 금궤속에는 보물이 없소이다.》

가달추비가 실망하듯 어깨를 떨구며 참앞에 번쩍이는 금궤를 내여놓았다.

참은 얼굴이 까맣게 질려 금궤뚜껑을 열었다. 금궤안에는 보통청동단검 하나가 들어있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뇨?》

《보소이다. 소문은 언제나 먹을 알이 없는데서 생기는 법이오이다. 그건 우리 도적들의 말이오이다.》

가달추비도 실망하여 어깨가 쭈그러졌다.

《그럼 어쩌겠느냐. 일이 그렇게 됐으니. 내가 널 섭섭치 않게 해주는 수밖에 …》

참은 형옥이 가득찬 보물함을 그에게 내밀었다.

함을 열어본 가달추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의 미소가 함뿍 피여올랐다.

가달추비가 돌아간 후 참은 황금궤를 열어보고 만족함을 금하지 못해 한참이나 너털웃음을 쳤다.

《너와 같은 도적이 어찌 보물의 금새를 알겠느냐. 이 한자루의 단검이 네가 가져간 형옥함 백개를 주고도 바꿀수 없다는걸 네놈이 어찌 알겠느냐. 하하…》

사실 성기대장군이 가지고있던 이 청동단검은 패수참변때 비왕 장이 넘겨준 나라의 국보였다.

이러한 국보가 니계상 참과 같은 역적들에게 롱락당할줄 어찌 상상이나 했느랴!

피묻은 청동단검

1

부마 왕담이 참의 집 별실에 이른것은 자정이 이슥해서였다.

시종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별실에 들어간 왕담은 왜그런지 가슴이 선뜩하며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불안속에 휩싸여버리고말았다.

1차 오랑캐의 침입 당시 왕협의 익측에서 왕협장군과 협공할 임무를 받고 나갔던 왕담이 오랑캐에게 잡힌것을 왕협만이 알고있었다.

오랑캐의 칼밑에 선 왕담은 왕검성에 들어가 간자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담보를 받고 겨우 살아 돌아왔었다.

등에 칼을 진 죄인처럼 마음을 조이며 왕검성으로 돌아온 왕담은 왕협이 돌아오지 않자 한숨 마음을 놓았다. 왕검성에서 왕협이 오랑캐에게 잡혀 죽었다는 소문이 썰렁한 가을바람처럼 휘말려돌아가자 왕담은 쾌재를 불렀다.

이제는 자기가 오랑캐와 손을 잡은 일을 그 누구도 모른다는 위안으로 해서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죽은줄 알았던 왕협이 펀펀히 살아 오랑캐와 함께 자기 눈앞에 나타날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으랴!

왕담은 눈앞이 캄캄했다.

공포로 하여 온몸은 얼음장처럼 싸늘히 식어들었다.

궁성의 부마방에 들어박혀 가슴을 조이고있는데 참대신쪽에서 찾아와 누구도 모르게 자기의 별실로 오라고 전갈을 하고 돌아갔다.

왕담은 지은 죄가 있는지라 할수없이 야삼경을 타서 니계상 참의 집 별실로 갔다. 별실은 텅 비였는데 창에는 무거운 창가림이 드리워있고 한쪽벽에 붙인 장식장에는 온갖 금은옥으로 된 보물장식품과 놀이감들이 그득히 놓여있었다.

방안을 휘 돌아보고난 왕담은 장식장으로 다가가 순금으로 만든 나인의 라체조각상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을 굴렸다.

(오랑캐두령의 령이라 했는데 어찌 나를 이곳으로 불러냈을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있는가?)

불안한 마음을 묵새기지 못해 바재이고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본 왕담은 가슴이 철렁 무너져내리는것을 느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눈을 뜨고 문앞에 들어선 무장을 본 왕담은 으스스 몸을 떨었다.

자기가 오랑캐에게 잡혔을 때 자기를 심문하고 귀순담보를 받아내던 그 오랑캐모장이였다.

조선군사의 옷으로 몸을 가리우고 얼굴에 미소를 짓고있었으나 왕담을 노려보는 그 눈길에 내비치는 살기는 지워버릴수 없었다.

《장군, 잘 있었소이까? 우리 군장어른이 장군이 조선의 부마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몹시 기뻐하셨소이다.》

오랑캐모장은 여전히 벙글거리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우리 두령이 장군에게 주는 신임이오이다. 두령은 이것에 지

적된대로 틀림없이 행하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소이다.》
오랑캐모장은 왕담앞에 조그마한 검은 함 하나를 놓고 문밖으로 사라져버렸다.
무슨 불길한 물건이나 대하듯 검은 함을 들여다보던 왕담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함안에는 번쩍이는 청동단검 한자루가 놓여있었다.
아무리 뜯어보아야 보통군사들이나 주인들이 차고다니는 평범한 단검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이런 단검을 무엇때문에 보냈을가?!
의혹이 짙어 단검을 뜯어보던 왕담은 단검밑에 깔린 하얀 봇나무껍질을 발견했다.
그것에 무엇인가 적혀있을것 같아 봇나무껍질을 들어본 왕담은 징그러운 뱀이나 쥔듯 손을 흠칠 떨었다. 거기에는 검은 글자들이 적혀있었던것이다. 무심중에 글줄을 따라읽던 왕담은 대번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을 감았던 왕담이 자기가 잘못봤는가싶어 다시 글줄을 읽었다.
틀림없이 함속에 있는 청동단검을 가지고 우거왕을 죽이라는 오랑캐두령의 지령이였다.
제결에 놀라 빈 방을 휘둘러보던 왕담은 누가 볼세라 검은 함의 뚜껑을 닫아 침상밑에 밀어놓았다.
황황히 자기 방으로 달려온 왕담은 문을 걸어매고 자리에 누워버렸다.
공주 은황이 문은 왜 걸었는가고 토달거리며 누워있는 부마에게 다가왔다.
《몸이 편치 않소이까, 부마?》
은황이 부마의 머리를 짚어보며 근심스럽게 물었다.
《신열이 나오. 인차 일어나겠소.》
왕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의원을 부르겠소이다.》
은황이 황황히 문밖으로 사라졌다.
뒤이어 궁중의원이 제 무리를 거느리고 부마의 침방으로 쓸어들었다.
손에 각종 령약과 불로약을 든 시중군들이 누워있는 부마의 머리앞에 주런이 서서 머리를 숙이였다.
부마의 맥을 짚어본 궁중의원이 신중한 기색을 지으며 너무도 파로한 고심에서 온 병이니 령약이 크게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처방을 내

리고 한봉지의 약도 남겨놓지 않고 돌아가버렸다.

온밤 고심속에 모대기던 왕담은 하도 답답하여 바람이나 쏘일가 하고 정원으로 나왔다. 그때 그의 앞에 서있는 신단나무에 활촉 하나가 날아와 꽂혔다. 활촉뒤에 매여져있는 흰 명주오리를 본 왕담은 틀림없이 자기에게 보낸 소식이라는것을 직감하고 누가 볼세라 활촉을 뽑아 명주오리를 풀었다.

명주오리에는 《빨리 지시대로 행동하라, 그러지 않으면 두칼에 맞아죽는다.》는 오랑캐두령의 위협이 적혀있었다.

왕담은 황황히 돌아서 왕궁속으로 몸을 사려버렸다. 구석구석에서 창을 벼리고 서서 자기를 노려보는것만 같았다.

온밤 신음속에서 몸부림치는 부마를 보고 공주 은황은 어쩔줄 몰랐다.

틀림없이 부마가 무엇에 위협을 당하고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나 부마는 좀처럼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이틀후에 우거왕이 침방에서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되였다.

우거왕의 시체를 처음 발견한것은 태자 장황이였다.

오랑캐들이 왕검성을 포위하고 최후발악하는 조건에서 결정적인 대책을 건의하러 왔던 장황이 우거의 침상에 들어섰을 때였다.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깜짝 놀라 침방으로 뛰여든 장황은 침대우에 피투성이가 되여 살해된 우거왕을 보게 되였다.

장황은 침대우에 떨어진 피묻은 청동단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살해자는 급한 나머지 흉기를 떨구고 달아났던것이다. …

왕검성은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되였다.

오랑캐들은 우거왕이 살해되였다는것을 알고 결정적인 공격에로 들어섰던것이다.

곳곳에서 성을 허물고 성문을 까부시려고 공세를 치했다.

서쪽성 한쪽 모퉁이가 허물어져나갔다.

왕검성의 존재가 경각에 달한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어디서 날아들었는지 강력한 군사들이 오랑캐들의 뒤통수를 쳐서 오랑캐는 대혼란에 빠져들었던것이다.

오랑캐들이 바람처럼 나타난 뒤쪽의 력량을 견지하려고 그쪽으로 쏠리는 틈을 타서 성기가 성문을 일제히 열고 나가 오랑캐들을 맹렬한 기

세로 쳐갈기자 오랑캐들은 숱한 주검을 왕검성 앞벌에 깔아놓고 드디여 퇴각해버리고말았다.
성기대장군은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사람들을 동원시켜 왕검성의 방어준비를 철통같이 갖추었다.
한편 우거왕의 살해자를 밝히는데 전심했다.
드디여 단서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단서는 뜻밖에도 왕족으로부터 잡히기 시작하였다.
은황공주가 성기대장군을 찾아와 부마가 수상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던것이다. 성기는 자기가 왕에 대한 호위와 부마 왕담에 대한 경계를 너무도 등한히 했다는 때늦은 후회가 들었다.
참과 로인, 왕담을 비롯한 몇몇 대신, 장군들이 오랑캐에게 투항하자고 로골적으로 우거왕을 위협하다싶이했다.
그때마다 우거왕은 나라의 3천년 사직을 자기 대에 와서 끝장낼수 없노라고 완강히 거절해나섰다.
이에 참의 일당들은 앙심을 품고 은밀히 오랑캐들과 내통하기 시작했다.
내통은 오랑캐두령의 지시를 받는 왕협에 의해 이루어졌다. 왕협은 성벽을 날새처럼 넘어다니는 조선군으로 변장을 한 간자를 통해 참일당과 손잡고있었다.
이 낌새를 은황공주의 신고를 통해 어렴풋이 느끼게 된 성기는 바싹 긴장해졌다.
뭇사람들의 신고로 보나 그 자신의 행위로 보아 몹시 수상쩍었던 왕담을 부마라 하여 감히 어쩌지 못하고있었는데 이번 우거왕의 살해사건이 왕담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 터져오르는 분격을 참을수 없었다.
성기는 즉시 왕담을 호출했다.
부마의 침전에서 부마가 몸져누워 오지 못한다는 기별이 왔다.
성기대장군은 은황공주를 통해 허락을 받고 부마의 침전으로 들어갔다.
금실로 수놓은 베개와 이불에 싸여 누워있던 왕담이 성기를 보자 대번에 낯이 파랗게 질려 어쩔줄 몰라하는 기색이 확연했다.
(옳구나, 죄를 지은놈이 분명하다. 그런데 부마인 이자가 감히 대왕을 살해할수 있었을가?)
짙은 의혹이 성기의 복잡한 심리를 휩쌌다.
《부마, 병세가 어떻소이까?》

성기는 부마의 침상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왕담은 말없이 금침을 당겨 얼굴을 반쪽 가리웠다.
《몹시 편치 않으신 모양이시오이다.》
성기는 왕담의 얼굴을 살피며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장군, 이 형국에 누워있어 대단히 죄송하오이다.》
겨우 입을 여는 왕담의 이마에 구슬땀이 맺혔다.
(틀림없이 이자에게 무슨 곡절이 있구나.)
성기는 침상곁에 놓인 교자에 앉았다.
《부마, 대왕이 살해된것이 아무리 따져보아야 이상하오이다. 부마께서는 생각되는게 없소이까?》
성기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왕담의 발끝이 금침밑에서 부르르 떨리는것이 확연히 알렸다.
《대장군, 나야 침상에 누워 어찌 세상사를 알겠소이까? 대장군의 수고가 많아야 되겠소이다.》
왕담은 이불을 푹 뒤집어쓰며 신음소리를 질렀다.
《부마, 병치료를 잘하오이다.》
성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길에서는 분노가 이글거리였다.
문밖에서 은황공주가 성기대장군을 맞이했다.
성기의 얼굴에서 풍기는 대노의 빛을 본 은황이 긴장해졌다.
《공주, 내 부마를 문초해봐야겠소이다. 공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정을 보지 않겠소이다.》
성기의 말마디마디에서는 서리발이 풍기였다.
《부왕의 일을 밝히는 일이라면 그 무엇에도 관계치 않겠소이다. 허나 부마가 나쁜 사람일가보아 겁이 나오이다.》
《공주, 너무 근심 마오이다. 기어이 범죄의 진상을 밝히겠소이다.》
《대장군, 기어이 그리해주오이다. 이것은 우리 왕족의 가장 가슴아픈 희생이오이다.》
은황공주는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던 부왕의 생각이 가슴에 사무치는지 옷자락을 눈가에 가져갔다.
다음날 부마 왕담은 성기의 문초실로 끌리여왔다.
문초실로 들어선 부마는 대노하여 성기대장군을 꾸짖었다.
《장군인 주제에 감히 나라의 부마를 문초하는 법도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것이오이까? 장군이 이토록 안하무인격으로 놀면 부마로서 장

군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소이다.》
왕담은 침전에서 만났을 때와는 달리 도도하여 부르짖었다.
왕가에 대한 최대의 모욕을 참을수 없다는 태도였다.
극도로 비겁하고 속이 빈 인간이였지만 역시 왕가를 등대고 허세를 부릴 때에는 기세가 등등했다.
《부마, 나라의 안전을 기하자니 할수 없소이다. 나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대장군으로서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오만무례한 오랑캐를 견제해야겠소이다.》
《그것이 부마와 무슨 관계오이까? 대장군은 제 할 일이나 똑바로 하오이다. 나라의 기강은 왕가가 지킬터이니 장군은 념려마오이다.》
《부마, 정 그렇게 나서면 내 권한도 작지 않거늘 왕담을 부마로서가 아니라 대역자로 처형하겠소이다.》
성기가 노호하여 자리를 차고 일어나 왕담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저— 저, 무엄하기란 …》
왕담이 낯이 까맣게 질려 뒤걸음질을 치다가 벽에 부딪쳐 흠칠 놀랐다.
《나라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이 하늘아래 떳떳이 머리를 쳐들수 없거늘 왕담은 내앞에서 진실을 고해야 하오. 왕담, 당신은 무엇때문에 대왕님을 살해했는가?》
성기는 분노의 눈빛을 번쩍이며 벼락같이 웨쳐댔다.
《저, 저 — 무엄한 …내가 어찌 대왕님을 …》
왕담은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씻지도 못하고 손을 들어 성기대장군에게 삿대질을 했다.
《장군, 당신은 부마를 모독한 죄로 나라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오.》
《허튼 소리 말고 대답하지 못할가?》
성기는 창대에 꽂혀진 시퍼런 쌍창을 뽑아들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을테냐?》
《대장군, 그 창을 놓소이다. 내 말하면 될게 아니오이까. 대장군, 목숨만은…》
왕담은 눈앞에 다가드는 시퍼런 쌍창을 보더니 성기대장군앞에 펄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떨구었다.
새까맣게 죽어든 왕담의 얼굴로 비지땀이 흘러내렸다.
《어서 아뢰여라.》
성기는 창을 짚고 교자에 앉으며 버럭 소리질렀다.

《 예, 예, 대장군, 내 모든걸 말할테니 목숨만은 살려주오이다. 》
공포에 싸인 왕담이 쏘는듯이 분노의 서리발이 풍기는 성기대장군의 눈찌를 흘끔 치떠보고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와들와들 떨었다.
《빨리 아뢰이지 못할가?》
성기는 창대로 바닥을 치며 어성을 높였다.
《예, 예. 아뢰겠소이다. 사실은 나의 군사들이 …》
《누구의 령을 받고 그런 천추에 용납 못할 대죄를 졌느뇨?》
《예, 예. 오랑캐두령이 보낸 알지 못할 … 두령이, 아니, 오랑캐두령이 한자루 청동단검과 함께 협박장을 보내왔소이다. 그래서 심복에게 청동단검을 쥐여주어 왕의 침전으로 보냈소이다. 》
《그 청동단검은 어찌하였느냐?》
《예, 예. 왕을 찔러죽인 심복이 손에 피를 묻히고 왔기에 물었더니 살인을 저지르고 너무도 당황한 김에 그 단검을 어찌했는지 알지 못하겠다 했소이다. 》
《바로 대지 못할테냐?》
《이건 사실이오이다. 그후 사실은 전혀 …》
《너의 말이 모두 사실이냐?》
《목숨걸고 담보하오이다. 》
《얘들아 ―》
성기는 대청에 대고 소리쳤다.
무장한 군사들이 뛰여들어왔다.
《이자를 묶어 옥에 가두어라. 》
성기의 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부마를 개처럼 결박하여 문밖으로 끌고나갔다.
《대장군, 죽을 죄를 졌으니 목숨만 살려주오이다. 목숨만 살려주오이다. 》
문밖에서 왕담의 단말마적인 비명이 들려오다가 그쳤다.
성기는 노호한 사자마냥 방안을 거칠게 오갔다. 당장 달려나가 단숨에 요정을 내여 도륙을 치고싶었다.
성기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분노를 지그시 참으며 말없이 교자에 주저앉고말았다.
(왕가에 저런 변절자가 생겼으니 어찌 국력이 강할수 있으랴!)
다음날 왕태자와 은황공주는 부마에 대한 처리문제를 토론했다.

분노한 왕태자 장황이 은황공주에게 물었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도대체 부마를 어찌했으면 좋을듯싶으냐?》
눈물과 수심에 젖어 머리를 숙이고있던 은황이 분노를 삭이며 조용히 태자에게 아뢰였다.
《태자, 공주 은황은 부왕앞에 뭐라 사죄하리까? 부마가 그런 흉악한 원쑤인줄 이 공주가 몰랐으니 이 공주 역시 나라앞에 대죄를 지은 역적과 같소이다. 부마와 함께 이 공주를 처형해주사이다.》
은황공주는 태자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대성통곡하였다.
《게 누구 없느냐?》
태자가 뒤에 대고 신하들을 불렀다.
두 신하가 태자앞에 와 머리를 숙였다.
《빨리 공주를 침전에 모시고 성기대장군에게 즉시 왕담을 처형하라고 령을 내리라. 처형장엔 내가 직접 나가겠노라.》
《알았소이다.》
두 신하가 례를 표하고 밖으로 나가자 궁녀와 시종들이 달려들어와 통곡하는 공주를 위로하며 침전으로 데려갔다.
성민들이 나와선 처형장으로 꽁꽁 묶이운 왕담이 끌려나왔다. 옷끈이 풀리여 옷섶이 펄럭거리고 머리칼이 갈가리 흩어진 왕담을 본 성민들이 분노하여 웨치고 떠들어댔다.
성미급한 성민들은 흉악한 간자를 때려죽이겠노라고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왔다.
형리들이 격분하여 달려드는 사람들을 겨우 말리며 왕담을 둔덕우에 세워놓은 형대로 끌고올라갔다.
왕담은 형대뒤에 세워놓은 기둥에 꽁꽁 묶이여 서있었다.
사형수들이 삼지창을 들고 형대앞으로 나와 섰다.
둔중한 북소리, 징소리가 울리고 사니들이 주문을 외우며 살판치게 춤을 추며 돌아갔다.
사니들의 괴상한 주문소리와 방울, 칼소리가 형장을 더욱 살벌하게 만들었다. 형집행구령이 울리자 왕태자와 함께 차일밑에 앉아있던 성기는 형장으로 걸어나갔다.
사형수가 들고있는 삼지창을 받아든 성기는 형리에게 령했다.
《죄인의 바줄을 풀라!》
형리들이 눈이 휘둥그래 어쩔줄 모르며 서만있었다.

《빨리 풀지 못할가.》
성기가 버럭 소리치자 그때에야 형리들이 왕담을 묶은 바줄을 풀어주었다.
형대밑에 펄썩 주저앉았던 왕담이 앞에 서있는 성기대장군을 보자 벌벌 기여와 그의 발밑에 엎드렸다.
《대장군, 한번만 살려주오이다.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번만 용서해주면 나라위해 공을 세우겠소이다.》
《그렇게 세울 공이면 어찌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하나 생명을 구하려 비겁한 짓을 했느뇨.》
《죽을 죄를 지었소이다.》
《너는 이미 처형될 즘생만도 못한자였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개진이 있을가 해서 몇번이나 살려주었더냐? 부마에까지 오른 네가 나라를 거역하고 임금까지 죽였으니 너의 죄 천추에 사무칠지어다. 너를 통해 인간을 배반하고 의리를 배반하는자는 그가 어느 벼슬에 있든 기어이 나라의 역적이 된다는 철리를 얻게 되였노라. 자, 너의 죄과를 네가 판결하라.》
성기는 들고있던 삼지창을 왕담에게 던져주었다. 얼결에 삼지창을 받아든 왕담이 시퍼런 창날을 보더니 소스라치듯 비명을 지르며 창을 떨구어버렸다.
형리들이 달려가 왕담을 둘러쌌다.
《창을 들지 못할가?》
형리두목이 소리쳤다.
왕담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에 창을 주어들었다.
《제 가슴을 그 창으로 찔러라!》
형리두목이 다시 소리쳤다.
왕담은 두눈이 훌쩍 뒤집혀 무섭게 노려보는 형리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빨리 령을 듣지 않을테냐?》
형리들이 앞뒤로 왕담에게 시퍼런 창날을 들이댔다.
왕담은 부들부들 떨며 삼지창을 거꾸로 들더니 힘껏 자기 가슴에 내찌르며 단말마적인 비명을 질렀다.
고조선의 변절자 왕담은 이렇게 최후를 마쳤다.

2

왕태자의 침방에 든 참은 오래동안 장황과 공론을 했다.

왕태자도 오래동안 피묻은 청동단검의 주인을 찾아 모대기던 끝에 왕담이 처단되자 청동단검에 대한 생각을 감감히 잊었는데 참이 또다시 청동단검문제를 들고 나온것이였다.

참의 주장에 의하면 아까운 부마 왕담이 성기대장군의 협박으로 애매하게 죽었다는것이였다.

그 증거로는 대장군이 아무것도 없는 독방에서 왕담을 취조했다는 론거를 들었다.

그 소리에 주대가 없는 왕태자의 귀가 번쩍 틔였다.

대장군 성기가 누구도 모르게 부마를 데려다 취조한것은 사실이였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성기대장군이 형리들이 해야 할 일을 도맡아 누구도 알수 없는곳에 데리고들어가 부마를 취조했겠는가? 형을 행할 때도 자기가 형리들을 밀어내고 창을 들지 않았는가?)

태자는 번쩍 의심이 들었다. 성기대장군이 틀림없이 왕자리를 탐내여 왕가를 음으로양으로 허물기 위해 은밀히 기도한것이 틀림없다.

그 음흉한 기도밑에 왕을 죽이고 그 죄과를 왕가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어리숙한 부마를 협박한것이 아닐가? 왕담은 싸움에 나가 실패한 죄과도 있는지라 완력이 센 성기대장군의 협박에 굴복한것이 분명하다.

왕태자의 가슴속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무서운 노기가 폭풍쳐 몸부림쳤다.

이쯤되면 참을성이 없는 왕태자가 일을 저지르기에 충분했다. 도적고양이처럼 눈을 흘끔거리며 태자의 눈치를 살피던 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태자마마, 성기야말로 음흉하고 교활한 짐승이오이다. 대왕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늘 가까이 대해주는 기회를 악용해서 제 단검으로 대왕을 찌르고는 그것을 모두 왕담에게 들씌웠소이다.》

참이 무능한 태자를 얼리며 꼬리를 쳤다.

《성기가 제 단검으로 대왕을 찔렀다는 증거는 어데 있는가?》

왕태자는 정신이 번쩍 들어 입을 열었다.

《예, 태자마마께서 가지고계시는 피묻은 단검을 보면 알수 있소이다.》
《피묻은 단검을 ?!》
《예, 그 단검이 성기의것이라는 말이 있소이다.》
《그게 사실인고?》
왕태자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고있소이다. 성기의 집에는 예로부터 물려내려오는 신성한 청동단검이 있는데 피묻은 단검이 바로 그 단검이라 하오이다.》
《뭐라구?!》
왕태자는 화들짝 놀라 방 한끝에 놓인 장으로 달려가 피묻은 단검을 꺼내가지고 왔다.
《이 단검이야 누구나 차고다니는 보통단검이 아니냐?》
《그렇소이다. 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말이 왜 돌았는지 알수 없소이다.》
참이 애매하다는듯이 단검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창가로 머리를 돌린 태자의 험상궂은 얼굴이 푸들푸들 떨렸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태자가 좋은 방법이 떠오르는듯 주먹으로 침상을 내려치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게 좋은 방안이 있노라. 내 직접 성기에게 가서 이 단검의 출처를 묻겠노라. 아닌보살할 때에는 가보를 가져오라 할터이니 그 가보를 가져오지 못하면 죄인이 분명하노라.》
성미급한 장황은 그 길로 성기대장군의 집으로 떠날 차비였다.
《얘들아, 노마를 불러라.》
태자 장황은 서둘러 복장을 갖추며 문쪽에 대고 소리쳤다.
노마란 조선상 로인의 아들인데 장군아래의 벼슬이다. 노마는 천성적으로 판단이 빠르고 렵탐이 능하여 렵탐군들을 거느리는데서 이름을 떨친 군장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태자가 특별히 신임하는 군장이였고 친분관계도 깊었다.
《태자마마, 불렀소이까?》
노마가 왕태자앞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긴한 일이 있어 불렀노라. 너도 언젠가 이 피묻은 단검이 우리 궁성안의 대신의 칼일수 있다는 예측을 했은즉 그것이 적실한것 같다.》
태자는 턱으로 평상우에 놓인 피묻은 청동단검을 가리켰다.

《태자, 이 단검의 주인을 찾았소이까?》
노마가 의혹에 잠겨 물었다.
《바로 그 주인을 찾으러 가자는것이다. 차비를 해라.》
《알았소이다.》
아직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의아해하면서 노마가 급히 서둘렀다.
태자는 앞에 머리를 숙이고 분부를 기다리는 신하에게 수레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왕태자의 화려한 삼두마교차와 노마의 수레가 급히 왕궁을 떠났다.
성기는 때아닌 시각에 자기 집에 나타난 왕태자와 노마를 보고 깜짝 놀랐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왕태자가 나타난것이였다.
왕태자가 대신의 집에 찾아다닌것은 이때껏 없는 일이였다. 게다가 노마까지 데리고왔으니 긴히 알아볼 일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되였다.
《어서 들어오시오이다. 이처럼 루추한 저의 집에까지 찾아주시니 감개무량하오이다.》
성기와 아사리가 대문밖에서 왕태자를 안내해 들였다.
성기는 왕태자를 대청안의 큰방으로 모셔갔다. 아무말없이 묵묵히 안내하는대로 큰방에 이른 장황은 성기대장군이 안내하는 교자에 가앉았다.
성기는 불안과 함께 긴장감을 억제할수 없었다.
오늘 왕태자는 하루종일 자기와 함께 있었고 기분이 몹시 좋아 걸쭉한 롱질을 하면서 웃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밤중에 급격히 들이닥쳤으니 파연 무슨 일이란말인가!
그동안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한것이 틀림없다.
성기는 여느때없이 긴장하고 싸늘해보이는 태자의 얼굴을 불안스럽게 쳐다보았다.
《내가 노마와 함께 온것은 긴히 알아볼것이 있어 왔으니 대장군은 숨김없어주길 바라오.》
왜 그런지 태자의 말에는 서리발이 풍겼다.
《제가 어찌 태자마마앞에 거짓을 론하겠소이까? 무엇이오이까?》
성기는 긴장감을 짓누르며 침착하려 애썼다.
《너는 대왕마마의 살해를 어찌 보느냐? 》
장황이 날카로운 눈길을 성기대장군에게 돌렸다.
《틀림없이 오랑캐들의 음흉한 짓인줄 아오이다.》

《오랑캐의 짓이라고?》

태자의 얼굴에는 야릇한 비웃음이 떠올랐다.

《우리 대신, 장군들속에서 이런 짓을 할자가 없다고 생각하느뇨?》

성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왕태자가 분명 나를 의심하고있구나, 무엇을 보고 그러는것일가? 무엇인가 심각한것을 밝히려고 노마까지 데리고온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태자는 시중하러 들어온 아사리를 문밖으로 내쫓았다.

방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찼다.

태자는 드디여 피묻은 청동단검을 대장군앞에 내놓았다.

《이것이 낯이 익지 않느뇨?》

태자가 탁자우에 놓인 피묻은 청동단검을 턱으로 가리키며 거치른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무엇이오이까?》

성기는 깜짝 놀라 태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묻기는 내가 했노라.》

성질이 괴벽한 태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찌된 전말이오이까? 그것을 먼저 알아야 일을 판별할것이 아니오이까?》

침착성을 잃지 않은 성기의 얼굴에는 결연한 빛이 번뜩이였다.

《대장군이 벌써부터 나를 이렇듯 거짓으로 대하니 내 말해주지. 이건 대왕마마의 피가 묻은 단검이노라.》

《뭐라구요?!》

깜짝 놀란 성기는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들어 자세히 살펴나갔다. 살펴볼수록 눈이 커지던 성기는 아연실색하여 굳어지고말았다.

《대장군은 어찌하여 몸둘바를 몰라하느뇨?》

《이 단검은 틀림없는 저의 단검이오이다. 가보로 제가 귀히 여기던 … 얘, 아사리야.》

성기는 하던 말을 끊고 대청쪽에 대고 아사리를 불렀다.

안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사리가 들어섰다.

《불렀소이까?》

곱게 외가리마를 탄 아사리가 태자앞에 례를 표하고 성기대장군앞에 머리를 숙이고 섰다.

《빨리 가서 가보를 가져오너라.》
《알았소이다.》
아사리가 공손히 대답하며 돌아서나갔다.
방안에는 야릇한 침묵과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다. 문밖에 나갔던 아사리가 당황하여 허둥거리며 뛰여들어왔다.
《주인님, 가보가 … 가보가 없 …어졌소이다.》
《뭐라구?!》
성기는 깜짝 놀랐다.
《없어질수밖에, 그 단검이 여기 와있으니 어찌 또 있겠느뇨.》
왕태자의 얼굴이 험상궂게 이지러졌다.
거치른 숨을 몰아쉬고있던 왕태자는 벌써 모든 리성을 잃고있었다.
《넌 무엇때문에 대왕마마를 죽였느냐?》
《태자, 고정해주길 바라오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모해가 있는것 같사온데 …》
《모해라구? 네가 그처럼 귀히 여기며 보존하는 그 가보가 어찌 새여나간단말이뇨? 아직도 나를 속일터인고.》
노호한 태자가 탁자우의 단검을 거머쥐였다.
《어찌 나라의 태자를 속이겠소이까. 자중하시여 일을 정히 보살펴 주길 바라오이다.》
《뭐라구?! 내가 일을 정히 못본단말이뇨. 네놈이 나를 숙봐도 분수가 있지.》
이미 분별을 잃은 태자는 노호한 표범처럼 달려들어 어쩔새없이 대장군의 가슴에 단검을 박고말았다.
아사리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싸쥐고 노마도 뜻밖의 일에 눈을 흡떴다.
성기는 두손으로 가슴에 박힌 피묻은 청동단검을 거머쥐고 무능하고 분별을 모르는 왕태자를 쏘아보았다.
《태자, 임금도 없는 나라에 태자마저 옳고그름을 판별 못하면 나라는 존해하지 못하오이다. 아, 이 원통함을 …》
성기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왕태자가 황황히 도망치듯 문밖으로 뛰여나갔다.
《주인어른,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이까, 장군어른 —》
아사리가 성기대장군에게 달려가 피에 젖은 그를 정신없이 흔들었다.
의식을 잃은 대장군의 손에는 자기의 가슴에서 뽑은 피묻은 청동단

검이 쥐여져있었다.

《대장군, 죽어서는 안되오이다. 대장군, 정신을 차려주사이다.》

눈물에 젖은 아사리가 안타까이 성기를 흔들어댔다.

성기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장군 ─》

아사리가 우들우들 떠는 손으로 대장군을 떠받들어 일으키려 했다.

《그만두거라. 내 명은 얼마 안남았노라. 그러니 …》

《장군 ─》

아사리가 대장군의 가슴에 엎어지며 울음을 터쳤다.

《아사리야, 그만두어라. 아, 대를 이어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온 이 청동단검이 원쑤의 피가 아니라 수치스럽게 동족의 피에 젖다니, 아, 이 원통함을 그 어디에 하소한단말이냐. 3천년 단군겨레의 기강이 이제는 어디로 다 흩어지고 이 피묻은 단검만 남았단말이냐, 아 ─》

성기는 정신을 잃었다.

《장군, 죽어서는 안되오이다. 단군겨레가 일떠서지 못하오이다.》

아사리는 안타까이 웨치였다.

《무엇이라구? !》

정신이 번쩍 든듯 성기는 부르짖으며 가까스로 눈을 떴다.

《아사리야, 겨레의 진한 피는 절대로 헛되이 흐르지 않는다. 그 피는 벌써 끓기 시작했노라. 금나수에 가면 네가 그 뜻을 깨닫게 될것이다. 이 피묻은 청동단검을 금나수의 선돌장군에게 전하여라.》

성기는 그만 다시 정신을 잃었다.

고조선의 장한 남아 성기대장군은 그렇게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가버렸다.

그의 나이 그때 갓 서른이였다.

3

성기대장군이 없어진것을 안 오랑캐들은 고조선의 마지막성루가 허물어졌다고 환성을 지르면서 왕검성으로 밀려들었다.

반대파세력들을 모두 제거해낸 니계상 참의 무리들은 왕검성의 제왕이 되여 돌아쳤다.

머저리 왕태자는 니계상 참의 도구로밖에 리용되지 못했다.

오랑캐들이 성앞에 이르자 참의 무리들은 여섯개의 성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오랑캐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그처럼 굳건하던 왕검성안으로 밀려들어왔다.

동방일각에 굳건히 솟아 3천년동안 그 강대함을 온 세상에 자랑떨치던 고조선의 자랑찬 사직이 역적무리에 의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말았다. 그처럼 신성하던 왕검성안이 오랑캐들의 괴상한 울부짖음과 더러운 발길에 짓밟혀 어지러워지고 《승전》을 축하하는 오랑캐들의 미친듯한 축연의 울부짖음이 왕국의 고색창연한 궁루를 뒤흔들때 왕궁의 뒤골목 으슥한 그늘속에서는 왕태자 장황의 장례식이 거행되였다.

조기를 든 장군도 없고 슬퍼하는 신하도 없었다.

뒤늦게야 자신이 오랑캐들에게 속히우고 니계상 참의 무리에게 놀아났다는것을 깨달은 장황은 수치감에 못이겨 자기의 목에 스스로 칼을 박았다.

밤이 늦어 오랑캐들의 축연장에서 풀려난 참은 그 길로 성기대장군의 집으로 향하였다.

성기대장군이 죽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불안스럽기만했다. 성기만 있으면 자기의 목으로 제일 먼저 칼이 날아들 판이였다.

때없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났다.

쥐죽은듯 조용한 성기대장군 집앞에 마교차를 세운 참은 호위병들을 앞세우고 뜰안으로 들어갔다.

쪽달빛아래 드러난 초상집의 뜰안은 어수선하기 그지없었다.

참은 온몸이 으쓱했다. 어둑컴컴한 어느 구석에서 성기 죽은 귀신이 칼을 물고 뛰여나오는것 같았다.

모든 방들이 캄캄하고 바깥채의 작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여나왔다.

방안에는 시종들이 공포에 싸여 오돌오돌 떨고 앉아있었다.

《모두들 어디에 갔느뇨? 》

《집이 파산되자 뿔뿔이 헤쳐져갔소이다. 》

그중 나이든 시종이 겨우 대답했다.

참은 휑뎅그렁한 방안을 휘둘러보며 의아하게 물었다.

《왜 방이 텅 비였느뇨?》
《오랑캐들이 세차례나 덮쳐들어 걷어갔소이다.》
《안됐구나. 》
왜 그런지 가슴이 저려든 참이 자기도모르게 중얼거렸다.
《아사리도 떠나갔느냐?》
참은 은근한 미련을 가지고 물었다.
《대장군의 유언을 안고 방금 금나수로 떠나갔소이다.》
《금나수로 갔다구?!》
깜짝 놀란 참이 낯이 까맣게 질려 가병장을 불렀다.
《날파람있는 군사들을 골라가지고 따라가 곧 아사리를 잡아오너라. 잡거들랑 지체말고 나의 방으로 곧장 데려올지어다.》
《알았소이다.》
가병장은 그 길로 날파람있는 가병 셋을 골라 좋은 말에 태우고 아사리의 뒤를 따랐다.
성기대장군의 말을 타고 왕검성의 뒤문을 빠져나온 아사리는 끝내 금나수입구에 다달았다. 금나수입구를 지키는 군사들이 보기드문 가인이 보통말도 아닌 장군들이 타고다니는 굉장한 말을 타고와 무작정 선돌장군을 만나겠다 하니 의심이 들어 아사리를 불러세워놓고 따지고 들었다.
요즘 왕검성쪽으로 오랑캐의 무리가 밀려갔는데 그놈들이 보낸 간자가 아닌가 하는것이였다.
《아이, 원통해. 몇번이나 말했소이까? 성기대장군의 시종이라고 … 선돌장군만 만나면 모든게 석연해질터이니 나를 들여보내주소이다.》
아사리는 안타까와 울상이 되여 졸라댔다.
이때 그들의 뒤로 기마수 넷이 하늘에서 떨어진듯이 나타났다.
아사리를 잡으러 온 참의 가병들이였다.
《우리는 왕검성에서 온 관군이다. 왕검성에서 오랑캐와 간통한 간자나인을 잃어서 찾으러 왔노라.》
금나수군사들이 어리둥절하여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서있는데 말에서 뛰여내린 가병장이 무작정 아사리를 자루속에 걷어넣어 말에 처실었다.
참의 가병들은 눈깜짝할사이에 숲을 지나 언덕뒤로 사라져버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느낌이 든 군사들이 머리를 기웃거리며 이것을 선돌장군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가 하고 분분히 떠들었다.

그리하여 군사 하나가 흔들레판에서 안전하고도 날래게 움직이는 하늘소를 타고 금나수로 들어갔다.

지휘옥에 이른 군사는 하늘소에서 내리기 바쁘게 선돌장군의 지휘옥으로 달려들어갔다.

《무슨 일인고?! 》

오랑캐가 다시 기여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새 전투작전을 짜고있던 우마는 금나수입구를 지키는 군사를 알아보고 가슴이 선뜩해 물었다.

《괴이한 일이 생겨 달려왔소이다. 》

《괴이한 일이라니?!》

《글쎄올시다. 성기대장군의 시종이라는 젊은 나인이 성기대장군의 유언을 안고왔다 하며 무조건 선돌장군을 만나겠다기에 하도 수상해 문초를 하고있는데 관군이라고 자처하는 군사 넷이 또 나타나 왕검성에서 간자가 뛰였는데 그를 잡으러 왔다면서 젊은 나인을 말에 싣고 달아났소이다. 》

《분명 성기대장군이 죽었다 하더냐?!》

우마는 하도 놀랍고 괴이하여 되물었다.

《틀림없이 성기대장군의 유언을 전하겠다 했소이다. 》

《정말 알수 없는 일이구나. 성기대장군이 죽었다는것은 무슨 일이며 그 젊은 나인과 관군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뇨?》

우마는 너무도 괴이해 머리를 기웃거리고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뜻밖에 날파리가 뛰여들었다.

왕검성에서 예까지 단숨에 달려왔는지 옷은 소낙비를 맞은듯이 땀에 푹 젖고 얼굴에서는 구슬땀이 내물처럼 흘러내렸다.

《장군 —》

날파리는 선돌앞에 무너지듯 꿇어앉으며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무슨 일인고?》

우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불안스럽게 물었다.

《장군, 이 일을 어찌하오이까? 왕검성에 오랑캐가 들었소이다. 》

《왕검성에 오랑캐가 들다니?! 성기대장군께서는 무엇하고계셨다더냐?》

《니계상 참의 꾀임에 들어 왕태자가 자기 손으로 성기대장군을 단검으로 찔렀소이다. 성기대장군이 죽은것을 알고 오랑캐가 밀려들었는데 참은 여섯개의 성문을 모두 오랑캐에게 열어주었소이다. 어허허 …》

날파리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하였다.
《참이?!…》
우마는 원통하고 기가 막혀 부르쥔 두주먹만 우들우들 떨었다.
《장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이까, 장군 …》
날파리는 너무도 안타까와 방바닥을 두손으로 벅벅 긁어댔다.
《날파리, 그런데 성기대장군에게 젊은 나인시종이 하나 있느냐?》
우마는 모든 분격과 흥분을 짓누르며 입을 열었다.
이윽해서야 날파리가 흥분을 누잦히며 대답했다.
《예, 있소이다. 그 나인이 성기대장군의 유언을 안고 왕검성을 떠났다는것을 아오이다.》
《왕검성을 떠났다고?! 네가 사람의 말이나 나르는 파발군에 지나지 않는데 그 모든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마는 의심스럽게 날파리를 바라보았다.
《높은 사람들의 말을 나르는 사람이라 그들곁에 있을 기회가 많소이다. 오랑캐가 성에 든 날 왕궁에서 참이 오랑캐를 위해 대연회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오랑캐두령에게 지껄이는 소리를 들었소이다. 그래서 난 성기대장군의 집에 가서 남아있는 시종에게서 듣고 그 길로 달려왔소이다.》
《그러면 야단났구나. 틀림없이 여기까지 왔다간 관군이라는자들에게 붙잡혀간것이 대장군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다.》
《그런 일이 있었소이까?》
날파리의 눈이 대번에 휘둥그래졌다.
《뭘하느냐, 빨리 왕검성으로 떠날 준비를 갖추거라.》
《장군, 왕검성에 가려 하나이까?》
《왕검성이 아니라 하늘끝에라도 가서 대장군께서 보낸 사람을 찾아와야 한다.》
《허나 왕검성엔 오랑캐천지라 위험하오이다.》
날파리가 반대했다.
《마침 잘되였다. 내 그 길에 왕검성을 팔아먹은 나라의 짐승들을 처단하고 오겠다. 날파리, 어서 가자!》
주저하던 날파리의 얼굴에도 근엄한 기색이 어렸다.
50의 날파람있는 기병들을 거느린 우마는 곧 금나수를 떠났다.
온밤 급속도로 말을 달려 새벽녘에 왕검성에 들이댈 작정이였다.
우마의 계획대로 해가 뜰무렵 기병들은 왕검성앞 언덕에 이르렀다.

왕검성주변에도 오랑캐무리가 쭉 깔려있었다.

왕검성앞 언덕까지 은밀히 다달은 우마는 가까이에서 돌아치는 오랑캐들을 잡아 오랑캐의 복장으로 일색했다.

오랑캐복장을 갖춘 우마와 그의 군사들이 왕검성성문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퍼그나 퍼졌을 때였다.

《야, 어디서 오는 무리냐?》

성문을 지키던 오랑캐군사가 도도히 쓸어드는 선돌기병을 보고 소리쳤다.

《두령의 특별기병이다. 비켜라.》

우마는 문을 지키는 오랑캐군사에게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다.

군사가 주밋거릴 때 우마의 기병들은 바람처럼 성안으로 스며들어갔다.

기병들은 그 길로 성기대장군의 집에 들이닥쳤으나 거기에는 아사리가 없었다.

남아있는 시종들의 말에 의하면 참의 가병들이 아사리를 끌고 왕궁으로 들어가는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것이였다.

《왕궁으로 가자!》

우마는 말머리를 돌리며 웨쳤다.

기병들은 왕궁으로 들이닥쳤다.

그처럼 정교하고 아름답던 왕궁뜰은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아름답게 가꿔졌던 나무들과 꽃들이 말발굽에 밟혀 아무렇게나 짓이겨지고 마당에는 략탈해가다가 떨군 질그릇들과 집문들이 헙창하게 부서져 여기저기 나딩굴었다.

우마는 기병들을 이끌고 왕이 앉아있던 편전으로 쓸어갔다.

엄엄한 정숙이 흐르고 아름다운 악공들이 부르는 부드러운 선률이 궁성의 생기를 한껏 북돋아주던 그 편전에서 지금은 돼지 멱따는듯한 부르짖음이 울려나오고 취중에 비틀거리며 아무렇게나 불러대는 오랑캐들의 상스러운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우마는 참을수 없는 분격으로 하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지그시 말고삐를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아갔다.

피눈물이 터져나왔다.

나라의 3천년 사직이 예 와서 이렇듯 비참하게 짓밟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것만 같았다.

우마는 말을 그대로 편전으로 몰아갔다.

나라의 대신, 장군들이 서있던 신성한 그자리에 술상을 벌려놓고 음탕한짓에 세상을 모르는 오랑캐추장놈이 한창 아사리를 달구고있는중이였다.

《너는 이 나라의 일등가는 가인으로서 나에게 몸을 바치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무슨 고집이 그렇게 지독한고?》

취기가 어려 눈을 게슴츠레 뜬 오랑캐추장놈이 트림을 껄껄하며 아사리를 거머쥐려고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아사리는 오랑캐두목놈을 분노가 펄펄 이는 눈으로 쏘아보며 상우에 놓여있는 술단지를 머리우로 쳐들었다.

여차하면 술단지로 추장놈의 시뻘건 상판을 내려칠 자세였다.

《아사리, 추장님이 너를 어여삐 여겨 요구하실 때 넝큼 응하거라. 지조는 두었다 무엇에 쓴다는거냐? 세월이 흐르면 그것도 다 낡아버리는 것인데 때맞춰 바치는것이 제일 현명한 처사이노라.》

추장옆에 앉아있던 왕협이 눈웃음을 살살 치며 아사리를 구슬렸다.

그래도 아사리는 응할 자세가 아니였다.

《정 고집하면 너는 형대에 올라서야 한다. 네가 나라의 역적 성기의 비밀약조를 가지고 금나수에 들려 한것은 용허할수 없는 국죄이거늘 어찌 목숨 구할 생각을 안하느뇨?》

왕협이 성이 나 술상을 손바닥으로 탕탕 쳤다.

이때 우마의 기병들이 편전의 마루바닥을 짓뭉개며 다가왔다.

눈이 희뜩 뒤집혀진 오랑캐추장이 질겁하여 뒤로 나자빠졌다.

《너는 어느 무리인데 이런 무엄한짓을 하느뇨?》

오랑캐의 옷을 입은 기병들을 자기 부대의 어느 오만한 무리로 알았는지 오랑캐추장이 벌컥 성을 냈다.

우마의 얼굴을 이상하게 지켜보던 왕협의 눈이 홀떡 뒤집혀져 부들부들 떨었다.

왕협이 선돌장군이 참의 구리점 노예였다는것을 알아본것이다.

눈앞이 아찔했다. 우마가 우에 걸쳤던 오랑캐옷을 벗어던졌다.

왕협앞에 장군의 금빛갑옷이 번쩍이였다.

《노 …노예장군이다.》

눈이 홀떡 뒤집힌 왕협이 뒤로 벌렁 나자빠지며 소리쳤다.

그 소리에 온 술판이 벌컥 뒤집혔다.

우마는 추호령을 내렸다.

《한놈도 놓치지 말라. 날숭은 빨리 아사리를 말에 태우라 —》

오랑캐들이 아우성을 치며 뿔뿔이 헤쳐 달아났다.
기병들은 빠지는놈마다 파리잡듯이 잡아치웠다.
우마앞에서 오랑캐추장놈이 대가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그러면서도 기회를 노리는 승냥이마냥 힐끔힐끔 선돌장군의 기색을 살폈다.
《이 오랑캐들아, 네놈들이 왕검성은 타고앉았을지언정 우리 단군민족의 종말은 아니노라. 네놈들을 씨도 없이 쓸어버릴 우리 민족의 강성의 그 시기가 반드시 올것이다.》
바로 이때 오랑캐추장놈이 벌떡 몸을 일으키며 품속에서 빼내든 칼을 들고 선돌장군에게 덤벼들었다. 순간 우마의 날카로운 창날이 오랑캐추장의 심장을 찔렀다.
우마의 창날앞에서 단말마적인 비명이 터지자 왕협은 사지를 부들부들 떨며 뒤걸음질쳤다.
《왕협, 똑똑히 기억하라. 네가 하늘님처럼 믿는 오랑캐가 어떻게 죽는가를 … 그리고 단군조선을 배반한 민족의 변절자가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가를 …》
분격에 서리발치는 창날이 왕협의 가슴을 사정없이 꿰뚫었다.
《자, 가자, 서쪽 성문으로 빠져라.》
우마는 서쪽 성문을 가리켰다.
오랑캐들이 정신을 차릴새없이 우마의 기병대는 왕검성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4

아사리에게는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자루속에 랍치되여 오랑캐들의 어지러운 술상앞으로 끌려갔던것도 … 그리고 선돌장군의 근거지 ─ 금나수에 자기가 와있는것도 …
《아사리, 깨여났군요. 선돌장군께서 푹 쉬우라 하셨는데 …》
지휘옥에서 심부름하는 나인애가 들어와 의식이 회복된 아사리를 반겼다.
《장군께서 어디 계시느냐?》
아사리는 심부름애를 반기며 물었다.

《지금 교련장에 나가계시오이다. 훈련두목이 북방새에 간 다음부터 장군께서 직접 교련을 보시오이다.》
《언제쯤이면 들어오실수 있느냐?》
《조금 있으면 들어오실것이오이다.》
《장군께서 들어오시면 나에게 알려라.》
《바쁜 일이 있소이까?》
《그리 바쁘다고는 할수 없다만 꼭 만나야 하느니라.》
아사리가 심중하게 말했다.
《알겠소이다. 장군께 아뢰겠소이다.》
심부름애가 어떻게 말했는지 애가 나간지 얼마 안되여 우마가 방안으로 들어섰다.
아사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선돌장군에게 머리숙여 례를 표했다.
《편히 앉거라. 네가 푹 자고난 다음에 만나려 했는데 무슨 그리 급한 일이뇨?》
《장군, 성기대장군의 유언을 안고왔소이다.》
아사리가 절통하게 머리를 떨구고 말했다.
말은 떼놓았지만 가슴아파 차마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나도 그것때문에 너를 만나려 했노라. 대체 무슨 일인고?》
우마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아사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주밋거리던 아사리가 품속에서 명주천으로 정히 싼 꾸레미를 꺼내놓았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뇨?》
우마는 심각해져 아사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사리는 눈물에 젖은 명주천을 풀어헤쳤다.
피묻은 청동단검 한자루가 나왔다.
《그건 웬 단검이냐?》
《이 단검은 성기대장군이 가보로 가지고있던 청동단검이오이다. 그런데 어떤자가 이 단검을 성기대장군의 보물함에서 훔쳐갔댔소이다.》
《훔쳐가다니?》
선돌장군은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성기대장군은 잃어진것도 모르고있었는데 누가 이 청동단검으로 우거왕을 살해했소이다.》

《뭐라고?!》

우마는 무섭게 눈을 치뜨며 관자노리를 푸들푸들 떨었다.

《대체 어떤놈이 그런짓을 했단말이뇨?》

《그것이 성기대장군의 청동단검으로 판명되자 왕태자가 성기대장군이 한짓으로 알고 이 청동단검으로 성기대장군을 …》

《무엇이라고?!》

선돌장군은 아연실색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보검에 우거왕의 피와 성기대장군의 피가 묻었소이다.》

《어허, 절통한지고 …》

우마는 주먹으로 자기의 가슴을 쾅쾅 두드렸다.

《니계상 참이 오랑캐의 사촉을 받아 그런짓을 했다 하오이다.》

《어허, 분하도다. 내 이번에 왕검성에 가 그놈을 찾았는데 없어서 복수의 칼을 박지 못했노라.》

우마는 분해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성기대장군은 눈을 감으며 이 피묻은 단검을 선돌장군에게 보내라 하시면서 나라의 기강을 자랑하는 이 단검에 다시는 겨레의 피가 묻어서는 안된다 하셨소이다. 겨레의 슬기를 지켜 장군께서 이 단검을 기어이 빛내라 유언하시고 눈을 감으셨소이다.》

《성기대장군 …》

우마는 피묻은 청동단검을 쓰러지듯 그러쥐며 대장부의 거센 울음을 터치였다.

《성기대장군, 이 우마가 기어이 이 단검을 품고 겨레의 얼을 지키는 그 땅으로 가겠소이다. 내 동방에 빛을 뿌리는 겨레의 참된 넋인 고구려에 가서 우리 겨레를 위해 한껏 싸워가겠소이다.》

우마는 떨리는 손으로 청동단검을 쓸고 또 쓸어만졌다.

저녁이 이슥해서 하루교련을 끝낸 우마는 아사리의 방으로 찾아왔다.

《오늘 이 단검을 가슴에 품고나니 생각이 깊어지노라.》

우마는 감회깊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성기대장군도 늘 말했소이다. 그 평범한 청동단검이 우리 나라의 성왕 부루가 가지고있던것인데 수천년의 력사자욱을 따라 오늘에 이르렀다 했소이다. 그 단검이 아직까지 수치를 당하거나 흔들린적 없다 했소이다. 그러던것이 저마다 자기의 권력, 땅, 노예를 가지고 나라와

었서 사분오렬되니 어찌 나라가 강할수 있겠는가 통탄했소이다.》
《대장군의 말이 옳노라. 분렬될것이 아니라 단군겨레의 상징인 단군의 청동단검아래 굳게 뭉쳐 한마음으로 나갈 때 겨레의 기상이 하늘에 뻗쳐 그 어떤 원쑤도 범접 못하는게 아니겠느냐.》
《장군, 그 말을 명심해 저도 장군의 부대에서 단검수가 되겠소이다.》
《정말 잘 생각했노라.》
우마는 무척 기뻐하며 아사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였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성기대장군을 알게 되였느뇨?》
우마는 호기심에 입을 열었다.
깊은 생각에 잠겼던 아사리가 얼굴을 들었다.
《대장군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았소이다.》
《부모를 일찌기 잃었느뇨?》
우마는 가슴아파 되물었다.
《부모들은 어찌 되였는지 모르오이다. 소스나언덕에서 나리라는 애와 놀던 생각밖에 …》
《소스나언덕?!》
우마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너에겐 오랍이 하나 있지 않았느냐?》
《예, 노예인 오랍은 고생이 많았소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니계상참에 의해 순장당한 뒤 소녀는 오랍과도 헤여지지 않으면 안되였소이다.》
《그래 어찌 되였느냐?》
우마는 숨을 죽이고 다우쳐물었다.
《내 향촌인 나부루사람들이 모르는 머나먼 부곡쪽에 가서 빌어먹다가 어느 주인놈에게 끌려가 노예로 살았소이다. 내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다고 주인은 나를 내다 팔았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대장군께서 애처롭게 울고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여 이때껏 데려다 보살펴주셨소이다.》
의혹에 잠겼던 우마의 눈은 점점 더 커졌다.
《혹시 너의 이름이 아사리가 아니냐?》
《그렇소이다.》
선돌장군의 그 말에 아사리는 깜짝 놀라 선돌장군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오랍과 헤여질 때 오랍이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더냐?》

우마는 긴장하여 다그쳐 물었다.

《있소이다. 청동거울 반쪽을 주었소이다. 그 불쌍한 오랍이 지금쯤은 죽었을것이오이다.》

《청동거울!! 그것이 지금 있을테지?》

《있소이다.》

아사리는 옷섶을 헤치고 청동거울 반쪽을 꺼내 선돌장군에게 주었다.

이윽토록 끈에 꿰여진 반쪽의 청동거울을 바라보던 선돌장군이 자기 옷섶을 헤쳐 똑같은 청동거울 반쪽을 꺼내 아사리가 내놓은 청동거울과 맞추어 보았다. 옹근 거울처럼 딱 맞아떨어졌다.

아사리는 깜짝 놀랐다.

아사리는 오랍과 헤여지면서 손목에 반쪽의 청동거울을 꽉 매주던 생각만 나고 오랍의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오랍이 주었다는 그 정으로 오늘까지 간수했던 거울이 이렇듯 놀라운 조화를 부릴줄 꿈에도 생각 못한 아사리였다.

아사리는 너무도 신통하여 새것처럼 된 청동거울을 신비스럽게 쳐다보기만했다.

《아사리야 — 내가 네 오랍이다!》

우마는 격정을 참을길없어 제 가슴부터 움켜쥐였다.

뭉클 가슴을 치며 혈육의 피가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다.

《오랍!》

놀랍게 선돌장군을 지켜보던 아사리가 울음을 터치며 선돌장군에게 안기였다.

《아사리야!》

《오랍 —》

아사리는 선돌장군의 가슴으로 파고들며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

《아사리야, 네 혼자 고생인들 좀 많았겠느냐? 이 오랍이 죄송스럽구나.》

아사리를 점점 더 억세게 껴안은 우마의 눈에는 격정의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기쁨에 이어 가슴이 미여져왔다.

이런 때 소부루가 있었으면 얼마나 기뻐하랴.

《오랍, 이 기쁜 날에 왜 우시오이까?》

아사리는 감격에 울면서 오랍의 두볼을 적시는 굵은 눈물을 부드러

운 손으로 닦아주었다.

《널 만나고보니 네 형님생각이 간절코나.》

《형님?! 어데 있어요, 난 그런줄도 …》

울음에 젖었던 아사리의 얼굴에 기쁨과 행복의 웃음이 피여올랐다.

《아사리야, 네 형님은 구려 하나만을 남겨놓고 북방새를 지키다가 오랑캐의 칼에 맞았노라.》

《오랍, 이 어찌된 일이오이까? 우리 오랍 외로이 남겨두고 어디 갔단 말이오이까?》

아사리가 너무도 절통하여 작은 가슴을 쥐여뜯었다.

《진정하여라. 그래도 우리에게 끌끌한 아들을 남겨주지 않았느냐. 어찌 귀여운지 모든 시름을 잊게 되노라.》

우마는 터져오는 비통을 애써 누르며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

《오랍, 우리 구려는 어데 있소이까?》

아사리도 눈물을 거두고 오랍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읍락의 젖어멈한테 있노라. 어멈이 마음착해 제 자식보다 더 애중히 지켜주노라.》

《오랍, 이제부터는 제가 기르겠소이다.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소이다.》

아사리가 비로소 오랍을 쳐다보며 방긋이 웃었다.

터져오는 가슴아픔속에서도 의연히 행복은 종적을 감추지 않았다.

아리나리에 동이 튼다

1

날새들만이 넘나드는 심산유곡속에 나리두령의 근거지가 자리를 잡고있었다.

얼마나 깊은 산속이였는지 열시가 지나야 해발이 겨우 풀로 지붕을 이은 막사의 꼭대기에 미쳐진다.

앞에는 청청한 천연수림이고 뒤에는 깎아지른듯한 아득한 벼랑이다.

막사앞으로는 맑은 벽계수가 흐르는데 내가를 따라 향기 그윽한 향꽃들이 어우러져 애잔한 정서를 풍기고있다.

오늘도 나리두령은 내가에 나와 향꽃의 향기를 맡으며 왕검성에 정탐나간 군사들을 안타까이 기다리고있었다.

나리는 뒤늦게야 참의 변절로 왕검성이 오랑캐에게 함락되고 나라의 기둥인 성기대장군과 우거왕이 살해되였다는것을 알았다.

처음 그 소식을 들은 날 나리는 온밤 내가에 나와 바위에 부딪쳐 떨어지는 벽계수의 물소리와 함께 목놓아 울었다.

세상은 어찌 이처럼 무정하단말인가!

소부루며 성기, 제 살붙이같은 군사들 … 정다운 그 모든 사람들을 어찌면 그리도 무정히 빼앗아간단말인가!

오직 이 나라의 기강과 번영을 위해 한생을 바쳐온 그처럼 결곡한 성기대장군마저 빼앗아간 이 하늘이 과연 공정하단말이냐!

이제 오랑캐를 모두 쳐물리치고 승전의 그날 꽃피는 금나수에 모여 행복한 혼례식을 치르자던 소박한 마음도 그 강직한 가슴속에 함께 품었던 단군겨레의 성실한 장군, 그 장군이 이 세상에 다시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리는 사품치는 벽계수에 몸을 던져 먼저 간 그리운 님의 곁으로 조용히 찾아가고싶었다.

허나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치는 강렬한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성기대장군이 못다 하고간 그 일을 이어 내 나라의 안녕을 지켜 끝까지 싸워가자는것이였다.

저세상의 보이지 않는 혼이 된 님도 그것을 바라고있는것이 아니랴! 나리는 연약해지려는 마음을 강잉히 다잡고 내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참았다.

(내 다시 군력을 일으켜세우리라.)

마음다진 나리는 북방새에서 겨우 건져온 50명의 군사를 기초로 하여 여기 왕수산오지에 기지를 두고 노예 1천을 모아 새 부대를 일구었다.

5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북방새를 떠나는 날 나리는 자기의 보금자리 금나수로 가려고 했다.

허나 그 길은 너무도 비통했다.

소부루를 북방의 차거운 땅에 묻고 그 끌끌하던 군사들모두를 잃고 어찌 선돌장군앞에 나서랴!

나리는 그 길로 눈물을 머금은채 세상과 절교된 이 왕수산오지에 박히고말았던것이다.

그래도 노예군속에 용한 풍수쟁이가 하나 있어 왕수산에서 큰길로 나서는 산속 길자리를 찾아 그 길로 말을 달리고 군사들이 행하여 읍락들에 나가 주인들을 치고 량곡과 가축을 끌어오고 군사들을 모집하여오군했다. 국가체계가 헝클어지고 소읍이나 읍락에 군사들이 고갈되여 노예군이 활보하기에는 아주 좋았다. 노예군이 나가 판을 치는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막는 손이 하나도 없었다.

일부 주인들의 가병들이 있었으나 노예군들의 위세에 짓눌리여 감히 범접할 엄두를 못내고있었다.

이렇게 하여 나리두령의 노예군 천여명도 어렵지 않게 꾸려졌다.

바로 사흘전 일이였다.

나리는 왕검성의 형세를 알아보느라고 오랑캐로 가장한 간자들을 성안에 들여보내였다. 그들이 알아온데 의하면 하루이틀새로 선돌장군의 근거지 금나수를 없애기 위한 싸움을 벌리려고 오랑캐들이 금나수형세를 렴탐하기 위한 부대를 떠나보낸다는것이였다.

나리두령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왕검성이 오랑캐들의 손에 떨어졌는데 이제 금나수마저 오랑캐의 손에 들면 나라에는 그 어떤 무력도 남는것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마지막 존재를 잃게 되는것이 아닌가!

나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랑캐들이 금나수에로 쳐들어오는 길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정예군사 120을 왕검성에서 멀지 않은 산계곡에 매복시켰다가 오랑캐부대를 치고 그 두목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올데 대한 임무를 주어 떠나보낸지 벌써 사흘이 된다.

나리의 마음은 초조했다.

혹시 매복군사가 놈들에게 사전 발각되여 피해를 입은것이나 아닐가?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사흘동안이나 무소식이란말이냐!

왕수산은 왕검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곳에 있어 말을 달려 부지런히 가면 하루안팎에 가닿을수 있는 거리였다.

나리가 련락군사를 파해 정형을 알아보려 하는 순간에 산속길우에 부대의 사기오른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사흘동안 매복하여 금나수로 가는 오랑캐군을 습격하고 그 두목들까지 잡아가지고 오는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에 닿을듯했다.

초조한 나날을 보내던 나리두령은 드디여 시름을 놓게 되였다.

얼굴에 자루를 뒤집어쓴 두놈의 렴탐부대 두목들이 나리두령앞으로 끌

려왔다.
《얼굴에 씌운 자루를 벗겨라!》
나리두령이 령을 하자 두목들을 끌고온 군사가 놈들의 머리우에 씌운 자루를 벗겼다.
자루에서 나온자는 의외로 대신옷을 입은 늙은이였다.
공포에 질려 낯이 까맣게 죽어든 대신을 여겨본 나리는 흠칫 놀라 자기도모르게 몸을 뒤로 젖혔다.
순간 나리는 너무도 놀라 벙벙해진 정신을 바로잡을수 없었다.
자기가 뜻하지 않은 환각속에 빠져든듯싶었다.
귀신의 조화가 아닌 다음에야 사람의 일이 이리 될수 있단말인가!
나리는 후두둑 가슴이 떨려났다.
자기가 잘못 본것 같아 눈을 비비고 다시 여겨보았다. 공포에 질려 죽음의 시각을 기다리며 머리를 떨구고있는것은 틀림없는 자기의 아버지인 니계상 참이였다.
(일개 나라의 대신이 이런 시시한 오랑캐부대에 붙어 렴탐이나 다닌단말인가!)
말할수 없는 환멸이 분노에 앞서 나리의 가슴을 수치스럽게 적시였다.
(과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순간 공포속에 머리를 든 참이 목석처럼 굳어졌다.
《아니, 이런 …》
참의 입에서 저도모르게 신음소리 비슷한 말이 흘러나왔다.
다음 순간 새까맣게 질렸던 참의 얼굴에 소생의 기쁨이 피여올랐다.
《나리, 틀림없는 내 외딸 나리로구나.》
참의 얼굴에는 비굴한 웃음과 놀라움이 함께 떠올랐다.
《난 네가 죽은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걸 …》
참이 팔소매로 눈굽을 닦으며 꺽꺽 울음을 삼켰다.
나리는 말할수 없는 울분과 분노로 하여 가슴속에 폭풍이 이는것을 겨우 참고 서있었다.
나리의 서리발치는 무서운 눈길이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얘야, 나를 왜 그렇게 쏘아보느냐? 나는 할수없이 이 길에 나섰다. 오랑캐부두령이 내가 금나수로 가는 길을 안다고 내쫓아대는걸 어쩌겠니. 목숨이 하도 아까와 나섰던 길이니 나를 용서하거라. 너는 본시 마음이 착한 애가 아니였느냐? 나는 네가 여기 있을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 얘야, 나를 용서하거라.》
참은 제정신을 잃고 말이 나가는대로 주절거렸다.
나리의 무서운 눈에서는 끌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펄펄 일었다.
《얘야, 너 어째 이러느냐? 나의 귀여운 딸아, 너는 벌써 이 애비를 다 잊어먹은게 아니냐? 얘야, 제발 나를 살려다고.》
《나에게는 당신같은 아버지가 없다. 오직 당신의 피를 타고난 수치감이 이 가슴을 괴롭힐뿐이다. 아, 이 세상은 어찌 이처럼 불공평하단말이냐.》
나리는 가슴을 움켜쥐며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두령, 정신차리오이다, 두령 ―》
군사들이 달려와 쓰러진 나리를 흔들어깨웠다.
캄캄한 나락속으로 빠져드는듯한 혼수상태에서 깨여난 나리는 눈을 치뜨고 참을 쏘아보았다.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저 인간의 손길아래 무참히 죽어갔는가!
참에게 원한 품고 죽어간 시체를 쌓으면 이 왕수산만큼 쌓일지도 모른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나라를 팔아먹고 그 짐승들의 개노릇까지 하다니 …
저 인간 아닌 악마의 화신앞에 나의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인간들이 모두 죽어갔다.
성기, 소부루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소박한 군사들 …
저런 악마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많은 불행과 원한이 쌓여지랴!
나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두눈에서는 창날같은 서리발이 번뜩이였다.
《일어서라!》
나리가 창대에 꽂혀있는 창을 뽑아 거머쥐였다.
《아니, 네가 정신이 나간게 아니냐?》
참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잔말말고 나가지 않을테냐?》
나리가 창끝으로 문을 가리켰다.
군사들이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참을 문밖으로 끌어내갔다.
《얘야, 나는 너에게 피를 준 애비다. 너 정신나가지 않았느냐?》
참이 창을 거머쥐고 자기앞으로 다가오는 나리를 보며 기절할듯 놀라 중얼거렸다.
《나에게는 당신같은 아버지가 없다. 나의 아버지는 단군의 혈통을 이

은 조선이며 나는 당신을 혈육으로가 아니라 단군겨레의 화근으로 영원히 청산하려 한다. 그처럼 강대한 기강을 동방에 뻗쳤던 조선의 3천년 사직이 바로 당신같은 몇몇 안되는 배신자들에 의해 무너져내렸다. 다시는 단군민족이 화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더러운 무리들을 용서치 않을거다. 자, 피맺힌 단군겨레의 원한을 받아라.》

나리는 사색이 되여 눈을 홀쩍 뒤집은 추한 악마 참의 가슴을 향해 힘껏 창을 던졌다.

《으악 ―》

창을 그러안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가자빠진 참은 창을 뽑으려 악을 쓰더니 사지가 맥없이 늘어졌다.

겨레의 원쑤는 이렇게 너절한 죽음의 길에 자취를 감추어버리고말았다.

《나의 군사들, 이 땅은 수난을 당했으나 단군겨레의 기상은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이 기상은 그 어떤 원쑤도 꺾지 못할것이다. 우리모두 금나수를 향해 떠나갑시다.》

나리두령이 창을 높이 들고 힘있게 흔들어댔다.

하늘을 무너뜨릴듯한 노예군의 호응의 환성이 터지고 하늘높이 뻗쳐오른 수백수천의 서리발 창날들이 해빛에 번쩍이였다.

뿔나팔의 은은한 소리가 왕수산골짜기에 울려퍼졌다.

말에 오른 노예군들이 나리두령앞으로 모여들었다.

정든 왕수산골짜기, 정다운 벽계수의 흐름소리며 바람결에 설레이는 다정한 푸른 숲 … 나리는 사무치게 정겨운 눈길로 떠나가는 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힘껏 가라말에 박차를 가했다.

달리는 나리의 앞에 노예군의 의장기가 날리고 뒤에는 구름처럼 노예군 군졸들이 따라섰다.

정의의 대오는 어느덧 왕수산을 빠져 금나수로 가는 큰길에 들어섰다.

《군가를 울려라!》

앞에 선 나리두령이 힘차게 구령을 내렸다.

나리의 뒤에 선 선창군사가 노래를 뗐다.

뫼넘어 물이요
물건너 뫼로다
에헤이 에헤이
활개치며 나가자

선창의 노래를 받아 대오가 소리를 합쳤다.

예서도 손잡고
제서도 반기네
에헤이 에헤이
활개치며 나가자

거세찬 군가는 땅을 울리고 하늘을 뒤흔들었다.

꺾이지 않는 그 노래의 선률은 영원히 굴함없을 단군겨레의 미래에로 잇닿아있는 억척같은 기상이였다.

대오는 힘차게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갔다.

2

금나수에 아침해가 힘차게 솟아올랐다.

마치 부드러운 비단결같이 금나수의 초원과 언덕, 읍락들을 뒤덮었던 안개우에 붉은 해빛이 쏟아져 신비한 절경을 이루었다.

그 신비한 안개속을 뚫고 급하면서도 가락맞는 말발굽소리가 울려왔다.

지휘옥앞으로 나와 금나수의 아름다운 새벽풍경을 감상하던 우마는 긴장하게 귀를 기울이였다.

(이 새벽에 무슨 말발굽소리가 저렇게 급할가?!)

말발굽소리는 곧장 우마를 향해 가까와왔다.

안개속에서 말머리가 불쑥 솟구치더니 급히 말을 모는 군사의 모습이 언뜩 비쳐왔다.

몹시 급한 자세였다. 말이 우마앞에 멎어서자 군사가 달려와 머리를 숙이고 급히 아뢰였다.

《장군, 오랑캐들이 밀려오고있소이다.》

《오랑캐가?! 얼마나 되느냐?!》

《안개속을 꽉 채우는걸 보아 수천이오이다.》

《수천이라? 안개속에서 수천으로 보았으니 더 많을것이 분명하노라. 빨리 온 금나수에 위험을 알려라.》

우마는 지휘옥으로 뛰여들며 감시수에게 소리쳤다.
지휘옥망루에 올라 창을 들고 안개속을 살피던 감시수가 감시대밑에 매단 사람키만한 대북을 정신없이 두드려댔다.
웅글은 북소리가 금나수골안을 드르릉 뒤흔들었다.
여기저기서 왁작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군사들이 지휘옥앞으로 정신없이 달려왔다.
《빨리 출동나팔을 불어라!》
우마는 전복을 갖추고 나오면서 또다시 급히 령했다.
네명의 뿔나팔수들이 성급히 뿔나팔을 불어댔다.
붕 ㅡ붕붕 … 련속 울려퍼지는 뿔나팔은 온 금나수에 위험이 닥쳐왔음을 알려주었다.
전복을 갖추고 말을 탄 노예군들이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쓸어나와 지휘옥공지로 모여들었다.
제일먼저 선돌장군에게 달려온것은 날승부두목이였다.
《장군, 무슨 일이오이까?》
갓 잠에서 깨여나 달려온 날승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모양이였다.
《날승, 지금 금나수로 수를 헤아릴수 없는 오랑캐들이 달려들고있느니라. 빨리 출동준비를 끝내야 하겠노라.》
급히 말을 끝낸 우마는 지휘옥망루로 달려올라갔다.
뿔나팔수들이 정렬나팔을 불었다.
노예군들은 자기 부대별로 무리를 지어 정숙히 정렬하여섰다. 부대무리마다 의장기가 예닐곱개씩 휘날리다나니 온 금나수공지가 의장기로 덮인것 같았다.
펄럭이는 의장기사이로는 번쩍이는 창들이 숲을 이루었다.
《내 말을 듣거라!》
우마는 창을 짚고서서 노예군의 바다를 휘둘러보며 목청을 돋구어 령을 내렸다.
《지금 금나수로 숱한 오랑캐가 쓸어들고있다. 우리는 즉시 맞받아나가 오랑캐들을 물리쳐야겠다. 틀림없이 놈들은 나무를 찍어 진펄에 깔고 넘으려 할것이니 오랑캐들이 다리를 놓고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할지어다.》
《들었느냐?》
《들었소이다.》
온 부대가 합창하며 대답하는 소리가 금나수를 들었다놓았다.

《그러면 각기 자기 구역으로 달려가 막을 준비를 할지어다.》
《알았소이다.》
지휘군사들과 부두목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때맞추어 뿔나팔수들이 출전나팔을 울렸다.
온 부대가 각기 자기 위치로 흩어져 안개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구려를 안은 아사리가 망루로 달려올라왔다.
《무슨 일이오이까, 오랍?》
아사리가 갓 잠을 깬 구려를 추어올리며 급히 물었다.
《오랑캐가 달려든다. 빨리 구려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있어라.》
우마는 급하게 웨치며 자기 말이 있는 마당으로 달려내려갔다.
아사리는 구려를 추어업으며 안개속으로 사라지는 오랍을 불안스럽게 바라보았다.
해가 어지간히 떠오르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나무를 찍어 진펄에 다리를 놓는 오랑캐들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났다. 오랑캐들은 나무를 찍는 무리, 나무를 나르는 무리, 다리를 놓는 무리로 갈라져 개미새끼들처럼 우글거렸다.
사람이 하도 많다나니 다리를 놓는 속도도 빨랐다.
두목들이 요소요소에 서서 죄인을 다루듯 군사들을 마구 몰아대는데 한아름씩 되는 통나무를 여럿이 메고 이미 놓은 통나무우를 타고가다가 한놈이 미끄러져 넘어지면 거기에 걸려 여러놈이 넘어지고 그것이 련쇄반응을 일으켜 통채로 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통나무에 짓눌린 놈들은 외마디비명과 함께 편포짝이 되여버렸다.
그런가 하면 진펄에 발을 헛디디거나 통나무다리에서 진펄로 떨어진놈들이 꼴깍 진펄물을 삼키다가 잠겨버리면 그우에 부글부글 몇방울의 공기방울이 튀여나다가 조용해진다.
그 죽음을 깔고 다리는 급속도로 쭉쭉 뻗어 금나수초원을 위협했다. 그 나무다리가 금나수초원까지 잇닿아지면 오랑캐들은 그우로 밀물처럼 쓸어 들것이다.
《날승부두목 있느뇨?》
우마는 군사들이 매복구역을 순찰하다가 급속히 뻗어오는 통나무다리를 보고 다급히 소리쳤다.
《여기 있소이다, 장군.》
날승이 급히 달려왔다.

《빨리 날랜 군사들을 이끌고 활이 미치는곳으로 이동해가 활질을 하라 .그 다음 창이 미치는곳까지 뻗어오면 모두 달려나가 창으로 오랑캐를 제압하라.》

《알았소이다.》

령을 받은 날승이 자기 무리를 이끌고 앞진펄너머 수림속에 매복했다.

수림앞에는 또 진펄이 펼쳐졌는데 그 수림에서는 다리를 놓아오는 오랑캐들이 뚜렷이 드러나보였다.

《나의 령에 따라 활질을 하라!》

날승이 매복군사들에게 소리쳤다.

오랑캐의 다리가 활거리에 이르자 날승은 자기가 먼저 활을 겨누었다.

군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듯 정확한 동작으로 활을 겨누는 날승의 모습은 우아하면서도 담대해보였다.

핑 ㅡ 화살 하나가 적진을 향해 날았다.

뒤이어 앞에서 군사들을 내몰던 오랑캐두목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져 진펄속으로 구겨 박혔다.

《오랑캐를 활로 치라!》

날승이 노호한 목소리로 웨치자 숲속에서는 비발치듯 화살이 날았다.

통나무를 깔던 오랑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나머지놈들은 뒤로 도망쳐 달아났다.

그러자 뒤를 지키고있던 두목들이 군사들을 되돌려보냈다.

어쩔줄 몰라 오락가락하던 군사들이 련속 쓰러졌다.

오랑캐들은 시체우로 계속 통나무를 끌고나왔다. 그러나 다리도 놓기전에 오랑캐놈들은 화살의 세례를 받고 나무밑 진펄속으로 빠져들었다.

오랑캐들은 시체와 시체우에 통나무를 깔며 집요하게 전진해왔다. 날승이네 무리도 적진에서 날아오는 활촉때문에 좀처럼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강력한 활수들이 배치되여 날승이네와 맞섰던것이다. 원래 날승의 무리보다 더 많은 수자여서 날승이 맞서기 힘들었다 .

그것을 간파한 우마는 구두막무리의 활수들을 더 뽑아 자기가 직접 거느리고 날승이 매복한 숲속으로 건너갔다.

그러는새 놈들은 숲앞까지 나무다리를 펼쳐놓았다. 손에 잡힐듯 오랑캐무리들이 가까와졌다. 구두막의 활수들과 날승의 활수들이 력량을 합세하여 화살을 날리기 시작하자 오랑캐의 활수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나무를 찍어넘기라!》

날승이 군사들에게 령했다.
군사들이 옆에 찼던 도끼를 뽑아 나무들을 찍어 오랑캐들과 맞다리를 놓았다.
날승이 날창을 꼬나들고 그 다리로 제일먼저 들어서며 소리쳤다.
《창을 들고 나를 따르라!》
날승이네들이 창을 비껴들고 나무다리를 타고 구름처럼 적진을 향해 덮쳐들었다.
차마 마주 다리를 놓고 반격해올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오랑캐들이라 혼비백산하여 뒤쫓기기 시작했다.
《한놈도 살려두지 말라!》
날승이 추상같이 웨치며 도망치는 오랑캐들의 뒤통수를 쳐갈기면서 번개처럼 적진으로 뛰여들었다.
날승이네들과 오랑캐들이 서로 엉켜돌면서 창질을 하고 도끼질을 하는 바람에 창날과 도끼날들이 서로 부딪쳐 번쩍번쩍 불꽃을 날리고 날카로운 쇠소리는 금나수진펄판을 들었다놓았다.
창이나 도끼에 맞아 쓰러지는 단말마적비명소리가 더욱 무시무시하게 그 소리를 가미해주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세네배나 되는 오랑캐무리들이 진펄판으로 덮쳐들었다.
날승은 우글거리는 오랑캐무리속으로 비호처럼 날아들며 창을 휘둘러댔다. 어찌나 날래고 드세찬지 날승이 날아드는곳마다 비명과 아우성이 터지고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사기가 오른 날승의 부하들은 악악 — 소리를 치며 오랑캐들의 무리로 덮쳐들었다.
수적으로 우세한놈들이지만 표범처럼 용맹한 날승이네들을 좀처럼 제압할수 없었다.
《저 두목놈부터 잡아라!》
오랑캐두목놈이 악을 쓰며 날승에게 군졸들을 몰아댔다.
오랑캐들은 무리로 쓰러지면서도 겹겹이 날승을 향해 덮쳐들었다.
그러는새 자기 부하들과 동떨어져 오랑캐들에게 포위된 날승은 단신으로 놈들과 맞서싸웠다.
어떤놈이 쐈는지 살 하나가 날승의 등에 날아와 꽂혔다. 날승이 주춤하는새 서너개의 창날이 동시에 날승의 가슴에 겨누어졌다.
《날승, 위험하다!》

우마는 자기 군사들과 함께 번개처럼 그쪽으로 달려가며 다급한 소리를 질렀다.

허나 때는 늦은 시기라 네개의 창이 동시에 날승의 가슴에 박혔다.

오랑캐들은 창에 꿰인 날승을 뗴다리밖으로 밀어던졌다.

철썩 — 진펄에 떨어진 날승이 천천히 진펄속으로 스며들다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날승 —》

우마는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날승을 해친 오랑캐놈들을 향해 성난 비호처럼 날아들었다.

《악—》

우마의 거세찬 창날을 받은 오랑캐 두놈이 동시에 너부러졌다.

우마는 그 창을 뽑기 바쁘게 연거퍼 나머지놈들을 요정내버렸다.

그랬는데도 분격과 비통함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참을수가 없었다.

우마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던 부하인가!

날승의 가슴에는 살도 들지 않고 창도 꿰뚫지 못하리라고만 생각하던 그였다.

우마는 비통한 가슴을 들먹이며 노호쳐 부르짖었다.

《오랑캐놈들을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군사들, 날승의 원쑤를 용서치 말라.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우마는 개미떼처럼 욱실거리는 적진속을 헤가르며 창을 휘둘러댔다.

우마의 부하들이 노호한 홍수마냥 오랑캐의 무리를 말고 돌아갔다.

드디여 넋이 나간 오랑캐들이 전면적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우마의 군사들은 기회를 놓침없이 놈들의 뒤를 바싹 따라 오랑캐의 무리들을 금나수밖 멀리로 몰아냈다.

3

날파리가 금나수에서 크게 이긴 소식을 가지고 아달비의 집으로 새여들었다.

그새도 날파리는 급변하는 새 소식들을 아달비에게 전하느라 자주 드나들었다.

날파리는 왕검성이 오랑캐에 의해 점유된 후 아달비에 대한 존경심

이 더욱 커갔다.

오랑캐들이 왕검성을 타고앉자 니계상 참을 비롯한 나라의 대신, 장군들이 모두 놈에게 굴복하고 순식간에 놈들의 노예로 되고말았다. 유독 아달비대신만이 그에 응하지 않았다.

자기는 나인이여서 정사에는 참네하지 않겠다면서 퇴궁하여 집으로 들어오고말았다.

분격한 오랑캐두령놈이 아달비의 목을 따겠다면서 그의 집에 달려들었지만 대신의 미모에 반했던지 아달비의 목에 칼을 대지 못했다.

그대신 밤마다 아달비대신을 찾아갔으나 대신이 좀처럼 받아주지 않아 두령이 고민한다는 소문이 온 왕검성안에 쫙 퍼진 정도였다.

왕검성안의 사람들은 모두 아달비의 나라에 대한 충정과 나인으로서의 절개를 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후부터 아달비에 대한 날파리의 신뢰는 더욱 커졌다. 어느날 밤의 어둠을 타서 담장을 감쪽같이 넘어선 날파리는 아달비가 거처하는 안채로 감쪽같이 새여들었다.

날파리는 사면을 휘둘러보고 조심히 문을 두드렸다.

《누님, 문을 열어요. 날파리가 왔소이다.》

그에 대한 화답이런듯 방안에 불이 켜졌다.

《어서 들어오너라. 그러지 않아도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참이였다.》

잠내나는 아달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파리는 스스럼없이 문을 열고 안채로 들어갔다.

아달비는 침상에 거의 라체다싶이하고 앉아있었다.

긴머리채는 흘러내려 등과 봉긋한 앞가슴에 츠렁츠렁 드리우고 잠내가 그대로 어린 고운 눈매는 야릇한 매력으로 사내의 가슴을 안절부절못하게 했다.

《누님, 금나수에서 크게 이겼소이다. 선돌장군이 떼다리를 놓으며 금나수로 들어오는 오랑캐들을 맞받아 다리를 놓고 나가 모두 쓸어버렸소이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많은 군졸과 아깝게도 날승부두목을 잃었소이다.》

날파리가 울먹하며 입을 열었다.

《날승이 잘못됐다고?! 거참 애통한 일이구나. 날승은 선돌장군의 노예군에선 손꼽히는 군사가 아니였느냐?》

《그렇소이다. 선돌장군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오른팔격인 군사였소

이다. 지금은 왼팔격인 구두막이 남아있소이다.》
《정말 비통코나.》
아달비는 묵도나 하듯 잠시 말없이 애통하게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이윽하여 머리를 든 아달비가 눈가에 부드러운 웃음을 짓고 물었다.
《금나수에서는 다른 일은 없었더냐?》
《다른 일은 없소이다. 나리가 키우던 선돌장군의 아들 구려를 지금은 아사리가 돌보오이다. 성기대장군의 시종이던 아사리가 선돌장군의 동생이라 하오이다. 정말 기쁘오이다.》
《그런 일도 있었느냐? 아사리가 성기대장군의 피묻은 단검을 가져갔다고 했지?》
《그건 성기대장군의 유언이오이다. 피묻은 청동단검을 아사리에게 쥐여주어 선돌장군에게 전하게 했소이다. 》
《아, 참 그랬더냐. 정말 흔치 않은 일이고나.》
감동한듯 아달비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래, 나리는 금나수를 떠나간 후 한번도 금나수에 들리지 않았더냐?》
《그런 말은 없었소이다. 그런데 나리는 북방새에서 모두 죽은것으로 모두 알고있소이다.》
아달비의 얼굴에는 미묘한 웃음이 떠올랐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 지금껏 그렇게 알고있었소이다.》
날파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달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심각한 빛이 어린 아달비의 얼굴을 본 날파리는 왜 그런지 까닭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났다.
아달비는 낯색을 고치며 말을 이었다.
《나리가 살아있다는걸 최근에야 알아냈다.》
《나리가 살아있다구요?!》
날파리는 대번에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동안 왕검성에서 멀지 않은 왕수산속에서 줄어들었던 군사를 크게 일으켰다. 왕수산주변 읍락들에 자주 비적이 든다 했더니 그게 모두 나리무리의 행위였노라.》
《그렇소이까? 나리는 지금 왕수산에 있소이까?》
아달비가 조용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나리는 금나수에 렴탐나가는 니계상 참의 행렬을 징벌한 후 감쪽

같이 자취를 감추었노라.》
《나리가 제 아비를 징벌했단말이오이까?》
날파리는 놀라운듯 눈을 흡뜨며 아달비를 바라보았다.
《아무렴, 제 아비야 죽였겠느냐? 어쨌던 나리의 행처는 알아야겠는데 안타깝노라. 나리는 력사기록에서 적지 않는 비중을 차지할 인물인데 간데온데 없어졌으니 정말 안타깝고나.》
아달비는 실망에 잠겨 한숨을 지었다.
《누님, 걱정마오이다. 살아있다면야 이 날파리의 눈에 안띄울리 없소이다. 내 기어이 찾아내고야말겠소이다. 그런데 나리 혼자 없어졌소이까?》
《많은 군사를 이끌고 사라졌으니 더욱 이상쿠나. 지금 오랑캐들이 나리무리를 찾느라고 곳곳에 매복을 세우고 눈을 밝히고있는데 거기에 걸리면 큰일이노라. 그래서 행처를 찾아 그 위협을 알려주어 변고를 막자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누님, 그런 일이라면 내 기어이 해내겠소이다. 내 오늘부터 나리의 행처를 찾아 헤매겠소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아달비는 만족한듯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다.
《나리무리를 찾으면 꼭 나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위험을 미리 막을게 아니냐.》
《내 누님의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소이다. 이 동생을 믿어주오이다.》
《나는 언제나 너를 믿노라. 그런데 극히 주의해라. 지금 오랑캐군 7천이 또 금나수로 떠났다. 오랑캐두령이 어제 나에게 왔댔다. 나를 자기네 나라로 가면 무한정 행복하게 해주겠노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내 거절했노라. 난 결코 제 나라 떠나 역적이 되고싶지 않노라.》
《누님의 고결한 정신에 머리숙여지오이다.》
《뭐, 그렇게까지 말할거야 없지. 그런데 그자의 지껄임을 보면 며칠내로 금나수를 평정할 야심이더라. 금나수의 존재가 얼마 남지 않은것 같다.》
날파리는 서둘러 떠날 차비를 했다.
《왜 갑자기 일어나려 하느뇨?》
아달비가 놀라 물었다.

《금나수에 가서 알려주어야겠소이다. 그러다가 선돌장군무리가 모두 소멸될수 있소이다.》

《이제야 어찌 금나수에 들겠느냐, 그런 생각 말어라.》

《아니, 나는 기어이 가야 하옵니다.》

《금나수입구마다 오랑캐가 세겹네겹 막고 섰겠거늘 네 단신으로 어찌 뚫는단말이냐?》

아달비가 낯이 질려 만류했다.

날파리의 얼굴에 씽긋 웃음이 피여났다.

《누님, 걱정을 마오이다. 나만 다니는 길이 있소이다. 천태무산줄기를 타고들어가면 진펄이 없소이다.》

《음, 그런 길도 있더냐? 기어이 갈 길이면 내 더 붙잡지 않겠노라. 허나 몸을 극력 주의하거라.》

《알겠소이다, 누님 ㅡ》

날파리는 문을 나서 담밑에 매여둔 말에 올랐다. 그 길로 금나수에 달려갈 작정이였다.

《잠간 좀 기다리거라.》

아달비는 날파리를 세워놓고 급히 안으로 사라졌다. 뒤이어 음식꾸레미를 싸든 아달비가 날파리에게 다가왔다.

《먼길을 가야겠는데 빈속으로야 어떻게 가겠나? 가면서 요기를 하거라. 아무쪼록 이 누이 가슴 타지 않게 몸조리를 잘해라.》

《누님, 걱정마오이다. 어디 가도 이 날파리 죽지 않소이다.》

날파리는 음식보따리를 받아 안장곁에 있는 주머니에 넣고 씽긋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누님, 부디 건강하시오이다. 이 동생이 기쁜 소식만을 누님에게 가져오겠소이다. 부디 기다려주소이다.》

아달비가 대문을 열어주자 날파리는 어둠속으로 안개처럼 사라졌다.

달빛도 없는 그믐밤이였다.

그러나 날파리는 기어이 목적지를 찾아 드팀없이 갈것이다.

어둠속에 아달비의 검은 륜곽만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서있었다.

4

금나수의 입구마다를 철통같이 봉한 오랑캐들이 처음부터 드세찬 공격을 들이대였다.

우마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여 면밀한 대항준비를 갖추고있은지라 별로 놀랍지 않았다.

진펄싸움은 처음부터 치렬했다.

오랑캐들은 치워버린 나무다리를 다시 놓는 일부터 시작했다.

드세찬 방해화력을 집중했으나 오랑캐는 끝내 끊어졌던 떼목다리를 회복했다. 스무개의 떼목다리가 금나수와 이어져갔다.

1차 공격파는 달리 스무곳이나 력량이 분산돼 싸우자니 벌써부터 군사의 부족을 느꼈다.

그러나 선돌부대는 굴함없이 놈들을 족쳐댔다.

힘겨운 싸움은 밤낮을 이어 계속되였다. 날이 갈수록 오랑캐들도 많은 인원을 상실했지만 선돌부대에서도 군사 반수이상이 없어졌다.

날이 갈수록 시련은 더욱더 간고해갔다.

이럴 때 금나수에 날파리가 나타났다.

왕검성이 점거된 후 날파리는 왕검성과 금나수를 오가면서 형국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가장 간고할 때 나타났으니 심상찮은 일이 벌어진것이 틀림없다.

《장군, 그간 무강하셨소이까?》

싸움을 지휘하느라고 의장기들이 꽂힌 둔덕에 올라서있는 우마앞에 꿇어앉으며 인사부터 하였다.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생긴게 아니냐?》

우마는 적정을 살피며 다급히 물었다.

《장군, 오랑캐들은 며칠안으로 금나수를 뗀다고 모든 무력을 금나수로 집결하고있소이다.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소이까?》

《대책한다는게 퇴각한다는 소리냐?》

《그 많은 오랑캐와 어찌 끝까지 맞설수 있겠소이까?》

우마의 얼굴에는 한줄기 서글픈듯한 웃음이 떠올랐다.

《끝장이야 날테지. 허나 우리는 오랑캐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우리 군

사들은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원쑤들을 쳐부실것이다. 나는 이 길에서 단 한보도 물러서지 않으련다.》

우마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심의 빛과 담대한 열정이 번뜩이였다.

날파리는 가슴이 뭉클하며 온몸에 이름할수 없는 벅찬 환희가 솟구쳐올랐다.

(그렇지, 죽을지언정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싸우는것이 우리 단군겨레의 의지이며 념원이다. 선돌장군과 같은 단군겨레의 남아와 한대오에 선 이 날파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는 지금 이 준엄한 시각이 도무지 긴장하게도 위험하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은 단군조선이 이기며 영원히 단군겨레의 피는 거세차게 흐르리라는 신념으로 가슴이 한껏 달아올랐다.

날파리는 활수들속에 섞이여 활을 쏘았다.

날파리가 얼마나 화살을 잘 날리는지 틀림없이 활 한살에 오랑캐놈 하나였다.

드세차고 완강한 선돌장군 군사들의 방어에 오랑캐들은 넋을 잃고 주춤거렸다.

너무도 많은 군사를 진펄속에 처박았던것이다.

오랑캐들이 주춤거리고있을 때 뒤쪽에서 뜻밖의 정황이 나타났다.

우마의 련락수가 허겁지겁 달려와 금나수뒤쪽에 오랑캐들이 나타났다는 급보를 전했다.

우마는 너무도 뜻밖의 일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드디여 련락수가 전달하고 간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은 우마는 몸을 떨며 깜짝 놀랐다.

(뒤쪽에 오랑캐가 나타나다니?! 이것은 벌써 금나수가 함락됐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오랑캐가 어떻게 금나수에 새여들었을가?!)

무심결에 곁에 있는 날파리에게 눈길이 간 우마는 다시한번 흠칫 놀랐다.

날파리가 새파랗게 질려있었던것이다.

《?》

(그럼 오랑캐가 날파리만이 다니는 비상비밀통로로 새여들었단말인가?! 그것은 되지도 않을 말이다. 날파리를 의심하기에는 너무도 량심이 저리다. 그런데 날파리의 얼굴은 왜 저렇듯 파랗게 질려있는가? 그

럼 날파리가 뒤에 오랑캐를 달고 들어왔단말인가, 변절!)
우마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토록 산전수전 다 겪으며 그 넓으나 넓은 조선령내를 바람처럼 돌아가면서도 언제 한번 힘든 내색을 짓지 않은 그였다. 단군겨레의 안전을 위한 길이라면 열밤, 스무밤을 새면서라도 천리길을 달려갔다 달려오군하던 그였다.
세상만물이 모두 변한다 해도 날파리의 나라 위한 충성은 변함이 없으리라 굳게 믿는 자신이였다.
그러나 오랑캐들이 새여든 통로는 날파리가 다니는 바로 그 통로였다. 그 통로는 여기 군사들도 모른다. (그렇다면 날파리가?!)
혐의는 다시 날파리에게로 모아졌다.
《날파리 ―》
우마는 힘들게 날파리를 불렀다.
날파리가 우마앞에 와 머리를 숙였다.
이슥해서야 우마는 말을 떼였다.
《날파리는 비밀통로를 루설한적이 없을테지?》
《예?! 예 ―》
날파리가 흠칫 놀라며 머리를 들었다가 다시 떨구었다.
무엇인가 고뇌를 이기듯 모대기는 날파리를 본 우마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벙끗 튀였다.
《날파리, 네가 비밀통로를 루설했는가?》
《예?! 예, 루설한건… 한사람에게만은 말했소이다.》
날파리가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한사람 ?! 그게 누군가?》
우마는 한껏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달비대신이오이다.》
《아달비대신?!》
우마는 흠칫 몸을 떨며 진땀을 흘리고있는 날파리를 쏘아보았다.
허나 우마는 터질듯이 긴장됐던 신경을 한춤 내리웠다.
(아달비대신이라면 믿을수 있지 않을가? 온 왕검성 성민이 지조높은 충신대신으로 떠받들지 않는가. 그런 대신을 믿지 못하다니. 모두 오랑캐에게 굽어들었지만 아달비대신만은 굽어들지 않고 단군겨레의 얼을 꿋꿋이 지킨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날파리도 대신에게 말했을것이다.)

우마는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있는것만 같아 생각이 깊어졌다.
이윽하여 우마는 물었다.
《다른 사람이 더 아는건 없는가?》
《없소이다. 그건 제가 목숨으로 담보하오이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는고. 날파리는 오랑캐가 어떻게 비밀통로로 새여들었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루설이 오랑캐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오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구?!》
우마는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되오이다.》
우마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무밑을 천천히 오갔다.
우마의 련락수가 또다시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장군, 뒤에 나타난 오랑캐가 5백이 넘을것 같소이다.》
《5백이?!》
우마는 눈앞이 캄캄했다.
기껏해야 오랑캐 여라문이 새여들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5백이라는 엄청난 대부대가 넘어들어왔다니 기절초풍할 노릇이였다.
이제는 앞뒤에서 오랑캐의 기습이 가해지니 피할 길이 어디란말인가! 마지막끝까지 최후결사전을 벌리는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마는 급히 구두막부두목을 불렀다.
《부두목, 어찌하면 좋겠느뇨?》
《장군, 더 이상 군사를 가를수 없소이다.》
구두막이 억이 막혀 어쩔줄 몰라했다.
《그렇다면 내가 군사 쉰을 데리고 뒤를 막겠느니라.》
우마는 창을 꼬나들고 말에 올랐다.
《장군, 안돼오이다. 위험하오이다.》
구두막이 선돌장군을 막아섰다.
《걱정마오.》
우마는 날파리를 비롯한 군사 쉰을 데리고 뒤쪽에 나타난 오랑캐들을 맞받아 달려나갔다.
오랑캐기마대가 천태무산줄기를 타고 금나수초원으로 물밀듯이 쓸어들었다.
《장군, 저기 오랑캐두령이 나타났소이다.》

날파리가 흰말을 타고 검은 덧옷을 두른 붉은 얼굴의 오랑캐무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검은 덧옷의 오랑캐두령은 자기앞에 나타난 선돌장군의 일행을 보더니 그 자리에 자기의 대오를 세웠다.
두령의 뒤를 주런이 따르던 기마대들이 멎어섰다.
검은 의장기를 날리며 시퍼런 창과 파, 화살을 가득 재운 활들을 멘 오랑캐의 무리는 살벌하기 그지없었다.
우마는 오랑캐두령앞에 멎어섰다.
그를 보위하는 날파리와 날랜 무장들이 옆에 나와 자리를 잡았다.
《선돌장군, 나는 너와 담판을 하러 왔다. 응할 용의가 있느뇨?》
뜻밖에 나인의 창창한 목소리가 울렸다.
(저렇게 살판치는게 나인무장이란 말인가?)
은근한 놀라움에 잠긴 우마는 적두령의 거동을 살폈다. 나인치고는 모든 거동이 살차보였다.
《너는 누구냐? 밝히고야 담판을 하지 않겠느뇨?》
우마의 호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간드러진 웃음이 초원을 흔들었다.
《…?》
살기떤듯한 그 웃음이 멎기 바쁘게 검은 덧옷의 적두령이 얼굴을 가리웠던 붉은 가면을 벗었다.
그 순간 우마는 자리에 돌비석처럼 굳어지고 날파리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앞에는 너무도 낯이 익은 얼굴이 나타났던것이다.
그 누가 그들의 앞에 오랑캐의 장수복을 입고 흰말을 탄 아달비대신이 나타나리라 꿈엔들 생각했으랴!
《호호. 네놈들은 아직도 나를 조선의 장군 한나부의 딸인줄로 생각할테지, 어리석기란 … 똑똑히 보아두라. 나는 팡하땅 돌황제의 둘째 공주 우별수다. 나는 네놈들의 지긋지긋한 왕궁에 들어가 곱던 얼굴에 주름이 생겼노라. 내 우거왕과 성기대장군을 잡았지만 네놈을 잡지 못해 가슴이 아팠댔는데 여기서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우냐. 아, 호호…》
우별수는 배를 그러안고 통쾌한듯 깔깔거렸다.
순간 어디서 날아온 화살인지 우별수의 요염스러운 웃음담긴 한쪽 눈알을 꿰뚫었다.
《으악 —》

우별수가 두손으로 얼굴을 그러쥐였다.
어느새 날파리가 살을 놓은것이였다.
《저놈을 잡아라!》
우별수의 호위군사인 우악스러운 오랑캐놈이 날파리를 가리키며 아우성을 쳤다.
놀란 오랑캐들이 우르르 날파리에게 덤벼들었다.
《덤벼들면 한놈도 살려두지 않을테다!》
우마는 창을 꼬나들며 성난 표범처럼 웨쳤다.
날파리에게 덤벼들던 오랑캐들이 걸음을 흠칫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마의 군사들이 오랑캐를 답새기고 악마구리 끓듯하는 오랑캐들을 족치며 종횡무진으로 내달렸다.
《우별수를 잡으라!》
우마는 돌진해들어가는 선두무리에 대고 소리쳤다. 허나 질겁한 우별수가 어디로 꼬리를 감추었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오랑캐들을 짓부시며 무자비하게 창질을 하던 우마는 금나수초원의 한끝에 언뜩이는 우별수의 검은 옷을 발견했다.
분격한 우마는 오랑캐들의 머리우를 날아넘어 우별수를 뒤따랐다.
날파리가 우마를 호위하며 함께 달렸다. 그들이 뒤따르는것을 감촉한 우별수는 질겁을 하며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금나수지형을 손금보다 더 낱낱이 알고있는 우마와 날파리는 즉시 수림을 빠지는 외통길인 오솔길로 달려와 나무가지로 위장한 바줄을 늘여놓고 우별수말이 걸려들게 하고 숨었다.
뒤쫓아오지 않나 하여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며 말을 때려몰던 우별수는 앞에 늘인 보이지 않는 바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바람에 급속도로 달리던 우별수의 말은 바줄에 걸려 나딩굴었다.
말에 탔던 우별수도 어쩔수없이 날아떨어져 땅에 딩굴었다.
허나 우별수는 얼마나 날랜지 서너너덧번 땅우에 나딩굴고 메고양이처럼 날래게 일어나 숲속으로 도망쳤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정신없이 뛰다가 무엇인가 번뜩이는것이 앞을 막는바람에 깜짝 놀라 얼굴을 든 우별수는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앞에 창을 내댄 날파리가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우별수를 노려보고있었던것이다.
《 아 —》

우별수는 비명인지 비탄인지 모를 소리를 지르며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어깨를 떨며 이를 갈던 우별수가 갑자기 머리를 쳐들었다. 그의 곱던 외눈이 표독스러워져 이리의 눈길처럼 불탔다.
으드득 이를 갈며 날파리를 노려보던 우별수가 악을 쓰며 부르짖었다.
《내 네놈을 혈육으로 대해줬더니 네놈이 내 목을 누르는구나. 아, 이 원통함을 어찌 푼단말이냐?》
절망하듯 부르짖는 우별수는 그대로 미쳐버린듯 했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너같은 악마를 누이로 대한 내 죄파로 나라가 곤경에 처하고 금나수가 녹아났으니 나라앞에 진 이 죄를 무엇으로 씻는단말이냐! 아 —》
날파리는 너무도 분통하여 피눈물을 휘뿌리며 울부짖었다.
순간 허리춤에서 단검을 빼는 우별수가 날파리에게 궁지에 빠진 승냥이처럼 덤벼들어 마지막발악을 했다. 그러자 눈에 불이 인 날파리가 번개같이 날아들며 단검을 쥔 우별수를 단창에 찍어넘겼다.
우별수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날파리, 빨리 말에 오르라.》
우마는 말에 오르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금나수에 기여든 오랑캐들과 마지막결사전을 해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날파리는 우마의 말을 듣지 못하고 계속 숲속으로 들어가기만 했다.
깜짝 놀란 우마는 말에서 뛰여내려 날파리에게 달려갔다.
허나 이미 때는 늦었다. 날파리의 가슴에는 자기가 찌른 단검이 박혀있었다.
《날파리, 이게 어찌된 일이요?》
우마는 쓰러지는 날파리를 부둥켜안으며 부르짖었다.
장군의 팔에 안긴 날파리가 겨우 입을 열었다.
《장군, 나라앞에 … 죄를 짓고 …가 … 오이다. 나 하나때문에 금나수가…》
날파리는 마지막말을 맺지 못한채 숨져버렸다.
《날파리 —》
우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날파리를 안타깝게 흔들며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가슴이 터지는듯 했다.

나라에 대한 그토록 불타는 충정을 안고 군마와 함께 온 강산을 밤낮없이 열정에 넘쳐 날아예던 단군겨레의 이름없는 파발 날파리,

그마저도 이렇게 비통히 가버린단말인가! 가증한 오랑캐들과 함께 나라를 팔아먹은 비겁한 역적들에 대한 증오가 우마의 온몸에 끓어번졌다.

5

구두막부두목은 마지막 남은 군사들과 함께 오랑캐들의 무리속으로 돌진해들어갔다. 숱한 병졸들을 잃고 악에 받친 오랑캐두령은 군졸들에게 구두막을 포위하라고 고래고래 멱따는 소리를 질러댔다.

욱실거리던 오랑캐들이 벌떼처럼 구두막부두목과 30밖에 남지 않은 그의 군사들을 둘러쌌다.

구두막의 군사들은 한덩이의 커다란 증오의 불덩이가 되여 마지막 세찬 열량을 내뿜었으나 끝내 그 불덩이마저 꺼져버리고말았다.

금나수에는 단 2백명의 선돌장군휘하의 군사만이 남아있었다. 그것마저도 겹겹이 놈들의 포위속에 잠겨 최후의 시각을 벼르고있었다.

《나의 군사들, 우리는 마지막순간까지 오랑캐에게 굴복하면 안되오. 우리는 여기서 한덩이 죽음이 될 때까지 오랑캐를 짓부시자.

자, 나를 따르라!》

우마는 최후를 각오하며 창을 높이 흔들었다.

《한놈의 오랑캐라도 더 짓부시고 죽자!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자!》

군사들이 비장히 웨치며 적진으로 돌진하는 선돌장군을 격류처럼 따라섰다.

백병전이 벌어졌다. 노호한 노예군의 창끝에 질겁한 오랑캐들이 아우성치며 쓰러졌다.

창과 창끝에서 번개불이 일고 피가 튀였다.

노예군의 수는 시간을 따라 줄어들었다.

머지 않아 마지막시각이 다가올것이다.

그런데 이때 오랑캐들의 뒤에서 우뢰가 터지고 사태가 쏟아지듯 아우성이 터지며 오랑캐무리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질겁하여 달아나는 오랑캐대오의 중심으로 붉고 푸른 의장기를 휘날리며 뜻밖의 무리가 노도치며 흘러왔다. 그뒤로 덮쳐드는 수많은 군사가 성

난 파도처럼 오랑캐들을 집어삼키며 백병전으로 원쑤들을 쓸어넘겼다.
우마는 꿈이런듯 희한한 광경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러는새 노도쳐오는 대오가 선돌장군앞에 이르렀다.
의장기가 날리는 앞장에 담가라말을 탄 무장이 창과 방패를 휘두르며 싸움을 지휘하고있었다.
전투를 지휘하는 용감무쌍한 무장에게 눈길이 멎은 우마는 자기 눈을 의심한듯 또다시 새겨보았다. 순간 말을 달리던 무장도 선돌장군을 발견하고 환희에 넘쳐 마주 달려왔다.
《선돌장군 —》
《나리 —》
우마는 환희의 물목이 터진듯 온몸에 벅차오르는 격정을 누르며 번개처럼 나리를 향해 돌진해갔다. 두 말이 서로 번개처럼 지나쳐 저만큼 달려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서로 엉켜 빙빙 돌면서 퇴성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마주 멎어섰다.
《나리, 이게 어찌된 일이요?》
《 장군, 무사하여 기쁘오이다. 장군 —》
나리가 울음을 터치며 선돌장군앞에 머리를 숙였다.
우마는 눈앞이 갑자기 뽀얗게 흐리고 뜨거운것이 울컥 목구멍을 메워버리는바람에 손만 더듬거리며 나리의 판복입은 등을 쓸어만졌다.
《장군, 시간이 없소이다. 빨리 금나수를 빠져나가야 하겠소이다.
우리 군사들이 적을 족치는새에 준비해주오이다. 구려는 어데 있소이까? 내가 구려를 구원해오겠소이다.》
《지휘옥에 아사리와 함께 있소이다.》
우마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나리는 지휘옥쪽으로 번개처럼 내달려갔다.
이윽하여 구려를 껴안은 나리가 돌아왔다. 그뒤로는 판복을 갖추고 말을 탄 아사리가 따랐다.
《장군, 군사를 지휘해주오이다. 나는 아사리와 함께 구려를 보살피겠나이다.》
《나리, 정말 고맙소이다.》
울컥 격정이 치받쳐 눈앞이 또다시 흐려온 우마는 나리와 아사리, 구려를 새겨보고는 백병전을 벌리는 군사들속으로 달려갔다.
《군사들, 빨리 천태무산밑으로 빠지라!》

우마는 창을 들어 천태무산쪽을 가리키며 군사들이 빠져나갈 길을 열었다.

이때라고 오랑캐군사들은 줄행랑을 놓으며 도망쳤다.

나리의 군사들과 합세한 선돌의 군사들이 천태무산비상길로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다.

《자, 최대로 빨리 빠져나가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우마는 모여오는 군사들에게 갈 길을 가리켜주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군사가 대오에 들어설 때까지 뒤에서 살피다가 대오를 따랐다.

생각지도 않았던 뒤에서 벼락치듯 들이닥친 군사들앞에 기겁을 한 오랑캐들은 온 금나수바닥에 시체를 깔아놓고 다시는 덤벼들 엄두를 못냈다.

참으로 심각했던 위기의 순간이 나리노예군의 출현으로 급변하였다.

금나수를 향해 산길을 따라 은밀히 행군하다나니 나리의 노예군은 로상에서 많은 기일을 허비하였다.

금나수에 위기가 닥친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나리는 금나수에 들어가는 천태무산의 비밀통로에 들어서서야 금나수에 일이 났다는것을 알았다.

산짐승들만이 다니던 길이 수많은 말들의 발굽에 밟혀 대통로가 이루어져있었던것이다.

비상통로를 따라 숱한 군사들이 흘러들었다는것이 대번에 알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나리는 행군을 다그쳤다.

그렇게 하여 나리는 위기일발의 순간에 선돌장군의 마지막대오를 구원하고 금나수를 무사히 빠져나왔던것이다.

선돌장군의 마지막대오는 금나수에서 멀리 떨어진 대수평초원에 집결하였다.

인원을 점검하고 마지막행동방향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대수평초원의 마지막해가 서켠하늘밑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있었다. 붉은 빛발이 퍼지는 대초원우에 정연하게 렬을 지어 서있는 대오는 붉은빛속에 싸여서인지 장엄하고 끝없이 숭엄해보였다.

군사들의 머리우에 펄럭이는 의장기들의 펄럭임소리뿐 초원은 근엄한 정적속에 싸여있었다.

《장군, 이제는 어찌하겠소이까?》

우마장군옆에 머리를 숙이고있던 나리두목이 침묵을 깨쳤다.

숭엄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있던 우마는 머리를 들었다.

《나리, 우리 아리나리를 따라 고구려로 갑시다. 단군겨레가 또다시

부흥할곳은 그곳이오이다. 나리두목의 생각은 어떠하오이까?》
《장군, 아리나리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오이다. 우리 단군겨레의 붉은피를 이어 그 누구의 구속도 없이 강성해가고있는 나라, 고구려가 바로 우리 단군겨레의 기상인양 세차게 굽이치는 아리나리기슭에 우뚝 솟아있지 않소이까. 단군은 살아있소이다. 우리 단군겨레의 넋이 죽지 않고 거세게 살아 숨쉰다고 생각하니 기쁨을 금할수 없소이다.》
《나리말이 옳소이다. 우리의 흙과 물이 일시 오랑캐의 발굽밑에 더럽혀졌으나 단군겨레의 거세찬 맥박은 고구려에서 힘있게 뛰고있소이다. 단군의 피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짓밟을수도, 없앨수도 없소이다. 이 단군의 피줄은 이 세상우에 또다시 강성국을 높이 일떠세울것이오이다.》
흥분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우마는 번개가 이는 창을 꼬나들며 초원의 둔덕우에 높이 올라섰다.
《나의 군사들, 이 청동단검을 보라!》
우마는 품에서 청동단검을 뽑아 높이 쳐들었다.
천수백의 시선들이 일제히 숭엄하게 높이 쳐들린 청동단검을 바라보았다.
《형제들, 나의 군사들! 이 성스러운 청동단검에는 동족의 피가 묻어있소. 우리는 이 성스러운 청동단검에 다시는 동족의 붉은 피를 묻히지 말아야 하오. 겨레들이 흩어져 세력다툼을 하여 단군의 성스러운 넋이 더럽혀질 때 나라는 불피코 외적의 침략에 짓밟혀지고 성스러운 조상의 땅우에는 불행만이 덮쳐들것이오. 군사들, 우리는 단군의 넋을 지켜 한겨레로 억세게 뭉쳐야 하며 우리 겨레는 오직 그 길에서만 무한한 번영과 빛나는 앞날을 기약할수 있소.》
《장군의 말이 옳소이다. 우리는 이 청동단검을 민족의 량심으로 결백하게 지켜가야 하오이다. 우리는 끝까지 이 청동단검을 더럽히지 않겠소이다.》
천수백의 군사들이 허리춤에 찬 청동단검을 뽑아 하늘높이 쳐들었다. 그 청동단검들이 마지막노을빛에 반사되여 대수평초원우에 현란한 빛발을 뿌렸다. 그 찬란한 빛발은 마지막자취를 감추는 서쪽하늘의 스러져가는 초원을 환히 밝혔다.
《나의 군사들, 우리 겨레의 기개가 도도히 굽이치는 고구려로 가자! 모두 발걸음을 다그치라!》
우마의 웨침에 호응하여 군사들이 의장기를 흔들고 창을 꼬나들며

감격의 환성을 질렀다. 하나로 합쳐진 장중한 웨침은 초원을 들었다놓으며 아득한 하늘 저 멀리로 메아리쳐갔다.
우마는 가라말에 올라앉았다.
나리두목도 구려를 높이 추켜안으며 가라말에 올랐다.
대오는 초원을 가로질러 고조선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장엄한 력사의 대행군을 거행하며 줄기차게 흘러갔다. 어두워지는 땅거미를 영원히 뒤에 남기고 거세차게 행군해가는 대오우에 의장기가 힘차게 나붓겼다. 어둠을 짓누르는 장엄한 군가가 하늘땅을 진감했다.

뫼넘어 물이요
물건너 뫼로다
에헤이 에헤이
활개치며 나가자

예서도 손잡고
제서도 반기네
에헤이 에헤이
활개치며 나가자

우렁한 노래의 여운은 오래도록 대수평초원앞에 남아 사라질줄 몰랐다.
어느날 아침 대오는 드디여 고구려를 지척에 둔 아리나리에 이르렀다.
겨레의 혼을 안고 유유히 기세차게 흐르는 아리나리, 그 흐름 세월과 더불어 영원하듯이 단군의 혈맥도 세기와 세기를 이어 거세차게 굽이쳐갈것이다.
《구려야, 똑똑히 보아두거라. 이 강이 아리나리이다.》
강가에 말을 세운 나리가 구려를 높이 쳐들었다.
구려가 웃었다.
동녘하늘이 밝게 열리면서 현란한 빛으로 동이 터왔다.
그 밝은 빛을 함뿍 안고 구려가 더 밝게 웃는다.
《아, 아리나리에 동이 튼다.》
선돌장군은 이름할수 없는 격동과 가슴높뛰는 희망에 넘쳐 동터오는 아리나리의 밝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단군겨레의 새로운 앞날이 밝은 빛으로 동터오고있었다.

장 편 사 화

피묻은 청동단검

저 자 신구현, 리규춘
심 의 박사 김은택, 학사 전대준
편 집 선우연희 편 성 정향애
장 정 박선일 교 정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1판발행 주체91(2002)년 4월 20일
증보판 주체95(2006)년 월 일
발 행 주체95(2006)년 월 일

ㄱ−66892 값 원